

# 무료 성경 주석

## 당신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다

저자 밥 어틀리 박사는 은퇴하기까지 해석학(성경 해석학) 교수로 가르침

### 목 차

이 주석에서 사용한 전문적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동사형에 대한 간략한 정의

이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약어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당신을 도울 것인가?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역사로서의 구약

당시의 근동 문화와 비교해 놓은 구약의 역사

장르와 해석: 구약의 이야기체

주석

계약 전체의 연대표

교리적 선언

## 출애굽기의 특별주제 목차

이스라엘(이름), 1:1	10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 1:1	12
알다, 1:8	14
경외함(구약), 1:15	17
하나님의 이름, 1:17	18
모세오경의 문서비평, 1:17	21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 2 장 문맥적 통찰	26
장자, 2 장 문맥적 통찰	27
유일신 신앙, 2 장 문맥적 통찰	28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 2 장 문맥적 통찰	29
당시의 근동 문화와 비교하여 본 구약의 역사적 기록, 2:2	30
중보기도, 2:23	36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신인동형적 언어), 2:24	39
알다(대부분 신명기를 전형적인 예로 사용함), 2:25	41
불, 3:2	46
거룩한, 3:5	47
하늘들, 3:8	49
손(에스겔서에서 사용한 용법), 3:8	50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틴에 거하던 사람들, 3:8	51
모리아, 살렘, 여부스, 시온, 예루살렘, 3:8	53
예배, 3:12	54
장로, 3:16	59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에서 드린 제사 및 그 중요성, 3:18	60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אמן), 4:1	65
지키다(신 5:10 에서), 4:1	69

물들, 4:9 . . . . .	71	
나의 종, 4:10 . . . . .	72	
놀라운 일들(펠리), 4:17 . . . . .	74	
장르와 해석, 구약의 이야기체, 4:18 . . . . .	75	
평화(살롬), 4:18 . . . . .	77	
동양의 문학, 4:21 . . . . .	79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4:22 . . . . .	80	언약,
4:22 . . . . .		82
하나님의 아들, 4:22 . . . . .		83
신약에서의 타락, 5:22 . . . . .		92
하나님의 이름, 6:3 . . . . .		96
야웨라는 “이름,” 6:3 . . . . .		97
속량하다/구속하다, 6:6 . . . . .		99
아버지, 6:7 . . . . .		102
머리(케팔레), 6:14 . . . . .		104
구약의 예언, 7:1 . . . . .		108
유일신 신앙, 7:2 . . . . .		112
만군의 여호와, 7:4 . . . . .		114
천사들과 귀신, 7:11 . . . . .		116
혐오, 8:26 . . . . .		126
땅, 나라, 세계(에렛츠), 9:16 . . . . .		132
야웨라는 “이름,” 9:16 . . . . .		133
의, 9:27 . . . . .		136
선택/예정 및 신학적 균형의 필요성, 9:34-35 . . . . .		140
예정(칼빈주의) 대 인간의 자유의지(알미니안주의), 9:34-35 . . . . .		141
성경에 나오는 영, 10:13 . . . . .		149
영광(독사), 10:14 . . . . .		152
책임질 나이, 11 장의 문맥적 통찰 . . . . .		157

고대 근동 달력, 12 장의 문맥적 통찰 . . . . .	162
유월절, 12 장의 문맥적 통찰 . . . . .	164
교회( <i>에클레시아</i> ), 12:3 . . . . .	166
흠없는, 무죄한, 죄없는, 책망받을 것 없는, 12:5 . . . . .	167
음, 12:6 . . . . .	169
유월절, 12:11 . . . . .	171
누룩, 12:15 . . . . .	175
장로, 12:21 . . . . .	176
천( <i>알레프</i> ), 12:37 . . . . .	180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용어, 12:49 . . . . .	183
고대 근동에서의 무게와 부피(도량형), 13:13 . . . . .	189
계약에서의 회개, 13:17 . . . . .	192
홍해, 13:18 . . . . .	193
스랍, 13:21 . . . . .	195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 숭배, 14:2 . . . . .	199
구원( <i>예슈아</i> ), 14:13 . . . . .	203
영원히( <i>올람</i> ), 14:13 . . . . .	203
주의 천사, 14:19 . . . . .	206
믿음( <i>피스티스</i> [명사], <i>피스튜오</i> [동사], <i>피스토스</i> [형용사]), 14:31 . . . . .	209
히브리시 서론, 15 장의 문맥적 통찰 . . . . .	212
인자한 사랑( <i>헤세드</i> ), 15:13 . . . . .	220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라(신약), 15:18 . . . . .	222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시다, 15:25b . . . . .	225
병고침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15:26 . . . . .	226
만나, 16:4 . . . . .	231
헬라어에서 “시험”을 뜻하는 용어들과 그 용어들의 함축적 의미, 16:4 . . . . .	232
안식일, 16:5 . . . . .	233

영광(구약), 16:7	234
나중에 신명기에 추가된 글, 16:36	240
이사야서에서의 심판하다, 심판, 정의(사꺼), 18:13	252
왜 구약의 언약적 약속이 신약의 언약적 약속과 상당히 다르게 보이는가, 19:6	258
거룩하신 분, 19:6	264
침례(세례), 19:10	266
이스라엘이 사용한 뿔, 19:13	268
히타이트(봉신) 조약, 출 20 장의 서론	274
모세의 율법에 대한 바울의 견해, 출 20 장의 서론	276
고대 근동의 법전들, 20:1-3, 문맥적 통찰	278
영감, 20:1	280
이스라엘의 절기, 23:14-17	341
삼위일체, 23:20-23	345
이스라엘과 회막의 배치도, 25-31 장의 문맥적 통찰	360
그룹들, 25-31 장의 일반적 개요	362
성경에서의 기름부음, 25-31 장의 일반적 개요	368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문법 형태에 대한 간략한 정의, 32:20	387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 33:1	400
대제사장의 흥패, 35:9	420
에봇, 35:9	421
우림과 들뭍, 35:9	421

# 이 구약 주석 시리즈에서 사용한 전문적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 I. 사전

고대 히브리어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사전으로서 여러 종류가 있다.

- 가.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찰스 A. 브릭스가 공저한 *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 이것은 윌리엄 게제니우스의 독어판 사전에 기초한다. 이 책은 약어로 BDB 로 알려져 있다.
- 나. 루드빅 퀴러와 발커 바움가트너가 저술하였고 M. E. J. 리차드슨이 영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 이 책은 약어로 KB 로 알려져 있다.
- 다. 윌리엄 L. 할러데이가 저술한 *간이 히브리어 아람어구약사전*이 있는데 이 책은 독일어로 쓰여진 위의 사전(가 항)에 기초한다.
- 라. 윌렘 A. 반 게머른이 편저한 다섯 권으로 된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 이 책은 NIDOTTE 로 표시된다.

유의할 만하게 사전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곳에서, 나는 여러 영어 번역본(NASB, NKJV, NRSV, TEV, NJB)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번역본들은 “축어적”인 것으로부터 “역동적 등가번역”을 따른 것까지 다양하다(참조,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8-44 쪽).

## II. 문법

문법적인 내용은 요한 요셉 오웬의 4 권으로 된 *구약의 분석적 열쇠*에 일반적으로 의존한다. 이 책은 벤자민 데이빗슨의 *분석적 히브리어 갈대아어 구약사전*으로 뒷받침된다.

“당신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시리즈의 구약주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문법적 구문적 자료는 국제성서공회의 “번역가들을 돕기위한 시리즈”이다. 그 책들은 “\_\_\_\_\_의 핸드북”이란 이름을 가진다.

## III. 본문

나는 자음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본문(맞소라 모음부호와 각주가 아니라)이 영감으로 되었다고 믿는다. 전체가 손으로 직접 쓰여져 전해져 왔고, 고대의 본문이기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다음의 이유에 기인한다:

- 가. *하팍스 레고메논*(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단 한 번만 쓰인 단어)
- 나. 관용적 용어(문자적 의미를 적용할 수 없는 단어나 구)
- 다. 역사적 불확실성(고대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 라. 히브리어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어휘가 셈어의 다중적인 의미를 가짐

- 마. 고대 히브리어 본문을 후기의 서기관들이 손으로 베끼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
- 바. 이집트에서 훈련받은 히브리 서기관들은 그들이 필사하는 본문이 자신들에게 완전하게 이해가 되게 본문을 자유롭게 고치는 경향을 가짐(NIDOTTE 제 1 권 52-54 쪽)

맛소라본문 전통 이외에 히브리어 단어와 본문에 대한 여러 자료가 있다.

1. 사마리아 오경
  2. 사해사본
  3. 몇 가지 후기의 동전, 편지, 도편 자료(불에 굽지않은 도자기 조각 위에 쓴 글)
- 그러나 구약은 많은 경우 헬라어 신약 사본의 경우와 달리 사본적 계보가 없다. 맛소라 본문(주후 900 년 경)에 대한 본문적 신뢰성에 대하여는 NIDOTTE 제 1 권 51-67 쪽에 있는 브루스 K. 왈트키의 “구약 성경 본문의 신뢰성”을 참고하라.

히브리어 본문은 독일성서공회에서 1997 년에 발행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인데 이 본문은 레닌그라드 사본(주후 1009 년)에 기초한다. 간혹 히브리어 본문이 명료하지 않거나 분명하게 혼동이 있을 경우에는 고대 사본들(헬라어 70 인역, 아람어 탈굼, 시리아어 페쉬타, 라틴 벌게이트)을 참조하였다.

#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동사형에 대한 간략한 정의

## I. 히브리어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간략한 고찰

히브리어는 서남 아시아의 셈족(셈어)어군에 속한다. 이 이름(현대 학자들에 의해 불리는)은 노아의 아들인 셈(참조, 창 5:32; 6:10)에서 유래한다. 셈의 후예는 창 10:21-31 에서 아람인, 히브리인, 시리아인, 아람인, 앗시리아인들이다. 사실상 어떤 셈어는 함의 계열(참조, 창 10:6-14)에 속하는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나안어, 페니키아어, 이디오피아어가 여기에 속한다.

히브리어는 이 셈어의 북서쪽 지류에 속한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 고대 언어 그룹에 속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가. 아모리어(주전 18 세기에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마리 서판*)
- 나. 가나안어(주전 15 세기에 유가릿어로 쓰여진 *라스 샤므라 서판*)
- 다. 가나안어(주전 14 세기에 가나안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아마르나 편지*)
- 라. 페니키아어(히브리어는 페니키아 알파벳을 사용한다)
- 마. 모압어(주전 840 년의 메사 비문)
- 바. 아람어(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 언어로서 창 31:47[2 단어]; 렘 10:11; 단 2:4-6; 7:28; 스 4:8-6:18; 7:12-26 에 사용되었고 팔레스타인에서 1 세기에 유대인들이 말했던 언어이다)

히브리어는 사 19:18 에서 “가나안의 입”으로 불린다. 이것은 주전 180 년경 쓰여진 지혜서(벤 시라의 지혜)서론에서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불린다(그리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속하는 다른 몇 곳에서, 참조, *앵커 바이블 사전*, 제 4 권, 205 쪽 이하). 이 언어는 모압어 및 유가릿에서 사용된 언어와 아주 밀접한 언어이다. 성경 이외의 곳에서 고대 히브리어가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 1. 게제르 달력, 주전 925 년(한 남학생의 글씨연습)
- 2. 실로암 명각, 주전 705 년(터널벽에 쓴 글)
- 3. 사마리아 도편, 주전 770 년(부서진 도자기 위에 기록한 세금 내역)
- 4. 라기스편지, 주전 587 년(전쟁과 관련한 통신 내용)
- 5. 마카비 시대의 동전과 인장들
- 6. 사해사본 본문들
- 7. 많은 종류의 비문들(참조, “언어[히브리어],” ABD 4:203 쪽 이하)

히브리어는 다른 모든 셈어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자음(세 자음 어근)으로 단어가 형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어형변화가 있는 언어이다. 세 자음으로 된 어근은 고유의 뜻을 가진다. 또한 전접어 후접어 혹은 단어 안에 추가되는 어소(후에는 모음, 참조, 수 그린,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 46-49 쪽)에 의해 구문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히브리어는 산문과 시에서 단어가 구분되어 사용된다. 단어의 뜻은 전승적 어원(언어적 기원이 아닌)을 따른다. 단어와 소리(유사음어 쓰기)에 기초한 언어유희가 매우 일반적이다.

## II. 술부에 대한 동사의 상

### 가. 동사

문장의 일반적인 순서는 동사, 인칭대명사, 주어(수식 어구와 함께), 목적어(수식 어구와 함께)이다. 기본적으로 아무 표시가 없는 동사는 *칼*, 완료, 남성, 단수이다. 히브리어 사전과 아랍어 사전은 이 형태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동사의 어형변화는 다음을 보여 준다

1. 수—단수, 복수, 쌍수
2. 성—남성과 여성(중성은 없음)
3. 태—직설법, 가정법, 명령법(행동과 사실과의 관계)
4. 시제(동사의 상)

ㄱ. 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시작, 계속, 종결의 의미에서 마쳐짐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 동사 형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행동을 나타낸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구문 개관*에서 말하기를

“완료형이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 점은 어떤 일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미완료형은 어떤 상태가 가능하거나 그것을 바라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기대함을 뜻할 수 있지만, 완료형은 그 일이 사실이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것이 분명함을 나타낸다”(36 쪽).

S. R. 드라이버는 *히브리어에서 시제의 사용에 대한 논문*에서 이 점을 설명하기를,

“완료형은 실제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바뀔 수 없는 의지적 결심에 의해 이미 성취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결심, 약속,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선언은 완료형으로 말해진다”(17 쪽, 예, 예언적 완료형).

로버트 B. 치숍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이 동사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동사형태는) 어떤 사건 전체를 외부에서 조망한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일이나 마음의 상태를 포함하여)와 관련하여 단순히 사실을 나타낸다. 어떤 행동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에는 종종 화자나 해설가의 수사적 관점에서 완료된 것임을 보여준다(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는지 또는 안 일어났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완료형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일어난(날) 행동/상태에 관계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영어처럼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는 언어로 완료형의 시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반드시 문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86 쪽).

L. 미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진행중(완료되지 않고, 반복적, 계속적, 혹은 불확실한)임을 뜻하며, 종종 목표를 향해 가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대개 이 동사 형태는 현재와 미래에 속하는 행동을 말한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구문 개관*에서 말하기를

“모든 미완료형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 상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나 발전해 가고 있는 것 혹은 불확실한 것이다. 이 모든 경우에 이 동사 형태는 어떤 의미(곧, 불완전하다는 의미)에서 부분적이다.

로버트 B. 치솜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말하기를

“미완료형은 상과 태를 함께 나타내기에 이것의 본질을 한 가지 개념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떤 때는 미완료형이 직설법적 의미로서 객관적인 진술에 사용된다. 다른 경우에는 이 동사형태는 어떤 행동을 보다 더 주관적으로 나타내는데 가정적인 것, 조건적인 것, 가능한 것 등이 쓰인다”(89 쪽).

ㄷ. 첨가되는 *와우*, 이것은 동사를 그 앞에 나오는 동사(들)의 행동에 연결시킨다.

ㄹ. 명령형, 이것은 화자의 의지와 청자가 할 여지를 반영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ㅁ. 고대 히브리어에서 오직 큰 문맥이 저자가 의도한 시간적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짓게 한다.

나. 일곱가지 주요 어형변화 형태와 그 기본적 의미. 실제로는 이 동사형태가 문맥에서 서로 연결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이해하면 안된다.

1. *칼* 동사,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형태이면서 모든 동사형태의 기본이 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어떤 원인이나 특별한 면을 말하지 않는다.
2. *니팔* 동사, 두 번째로 자주 쓰인다. 대개 수동형이지만, 이 동사형태는 또한 상호작용이나 재귀적 기능을 갖는다. 이 동사도 어떤 원인이나 특별한 면을 말하지 않는다.
3. *피엘* 동사, 이 동사는 능동형이고 어떤 행동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것을 나타낸다. *칼*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발전되거나 어떤 상태로 확장되고 있다.
4. *푸알* 동사, 이것은 *피엘* 동사와 대응하는 수동형이다. 종종 분사로 사용된다.
5. *히트파엘* 동사, 이것은 재귀적 혹은 상호작용적 의미를 갖는 동사형이다. 이것은반복적 혹은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피엘*형의 행동을 나타낸다.
6. *히필* 동사, 이것은 *피엘* 동사와 대조되며 원인을 나타낸다. 이 동사형은 허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일의 원인을 드러낸다. 독일인 히브리어 문법학자인 에른스트 엔니는 *피엘* 동사가 일이 어떤 상태로 되는 것을 나타내고 *히필* 동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인다고 믿었다.

7. *호팔* 동사, 이것은 *히필*의 수동형이다. 마지막 두 동사형태는 7 가지 동사 형태 가운데 가장 적게 사용된다.

위 사항의 대부분은 브루스 K. 왈트키와 M. 오카너가 공저한 *히브리어 성경 구문개론* 343-452 쪽을 참조했다.

작용자와 원인자 도표. 히브리어의 동사체계를 이해하는 한 가지 열쇠는 이것을 태와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동사형태는 다른 동사형태와 대조를 이룬다(예, *칼-니팔*, *피엘-히필*)

다음의 도표는 원인과 관련하여 동사형태의 기본적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태 또는 주어	이차 원인이자 없음	능동적 이차 원인자	수동적 이차 원인자
능동태	<i>칼</i>	<i>히필</i>	<i>피엘</i>
중간태 수동태	<i>니팔</i>	<i>호팔</i>	<i>푸알</i>
재귀/상호관계적	<i>니팔</i>	<i>히필</i>	<i>히트파엘</i>

이 도표는 최근의 아카디아어 연구결과에 힘입어 이루어진 동사체계에 대한 좋은 자료에서 왔다(참조, 브루스 K. 왈트키, M. 오카너, *히브리어 성경 구문개론*, 354-359 쪽).

R. H. 케넷은 *히브리어 시제에 대한 짧은 논의*에서 필요한 경고를 제시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히브리어의 동사를 가르치면서 각 동사형태가 히브리인의 마음에 의미하고 있는 뜻을 파악하는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다시말하면 각 히브리어 시제마다 이에 상응하는 여러 라틴어나 영어의 동사형태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각 시제를 획일적으로 번역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은 각 히브리어 동사형태가 구약성경의 언어에 생명력과 힘을 공급하는 분명한 뜻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따르는 어려움은 히브리인들이 행위로 보는 것에 대해 우리의 것과 완전히 다른 관점의 차이에 전적으로 기인한다; 우리가 ‘시제’라고 표현함에 있어서 보듯이 가장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는 *시간적* 요소는

그들에게는 이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라틴어나 영어의 동사 형태에 크게 의존하여 각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를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것이 히브리인의 마음에 제시하고 있는대로 각 행위의 상을 이해하려는 것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분명하게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시제’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동사에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낳게한다. 소위 히브리어의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행위의 *상태*만을 표현한다. ‘상태’라는 용어를 명사와 동사 모두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혼동만 아니라면, 실제로는 ‘상태들’이라는 표현이 ‘시제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어떤 히브리어 동사를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히브리어에는 전혀 없는 요소(시간적)를 추가시키는 부작용없이 해내는 것은 불가능함을 항상 명심해야만 한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떤 행동을 말함에 있어서 그것을 결코 과거, 현재, 또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고 단지 *완료형*, 즉 이루어진 일, 또는 *미완료형*, 즉 발전하고 있는 과정의 일로서 생각했다. 우리가 어떤 히브리어 시제가 영어의 과거, 과거완료, 또는 미래와 상응하다고 말함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과거, 과거완료, 미래로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히브리인들은 어떠한 동사형태도 행동이 일어난 *시간*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서론과 1 쪽).

다음으로 유익한 경고로서는 슈 그롭,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이 말하기를,

“고대에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언어를 대상으로 현대의 학자가 재구성한 어원적 세계와 지각적 관계성이 단순히 학자들의 통찰력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 자신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이 주장하는대로 그러한 어원적 관계성이 고전 히브리어에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128 쪽).

#### 다. 법

1.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직설법)를 표현하기위해서 완료시제나 분사(모든 분사는 직설법이다)를 사용한다.
2.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었다(가정법)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 ㄱ. 특별한 의미를 더 내포하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
    - (1) 청유법(자음 *ㅎ* 이 추가됨), 이것은 1 인칭 미완료형으로서 소원, 청원, 혹은 자기 격려(즉, 화자가 소원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 (2) 지시법(내적 변화), 이것은 3 인칭 미완료형으로서(부정문의 경우 2 인칭에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원, 허가, 충고, 혹은 권면을 나타낸다
  - ㄴ. 완료 시제를 *루* 또는 *루라*와 함께 사용한다  
이 구조는 코이네 헬라어에서 제 2 유형의 조건절과 유사한 구문이다. 거짓 진술(조건절)이 거짓 결론(조건문의 귀결절)으로 결과를 맺는다.

ㄷ. 미완료 시제를 *와우* 함께 사용한다

문맥과 *와우*는 미래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와 더불어 이러한 가정법적 용법을 가진다. J. 와쉬 왓쓰의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 나오는 몇 가지 예는 창 13:16; 신 1:12; 왕상 13:8; 시 24:3; 사 1:18(참조, 76-77 쪽).

라. *와우* 전환/연속/접속. 히브리어(가나안어)가 갖는 이 독특한 구문적 특성은 오랫동안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이 용법은 장르마다 종종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혼란이 생긴 이유는 초기의 학자들이 유럽인들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모국어에 비추어 히브리어를 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어려움을 가져오자, 그들은 히브리어가 고대의 고풍스럽게 “보여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탓으로 핑계를 댔다. 유럽의 언어들은 시제(시간)에 기초한 동사형태를 갖는 언어이다. 완료형이나 미완료형의 동사 어간에 자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어떤 종류의 다양한 설명과 문법적인 의미가 특별히 가능하게 된다. 이 용법은 행동이 다르게 보이게 한다.

1. 역사적 이야기체에서는 동사들이 일정한 형태를 따라 서로 연결되어 사용된다.
2. 앞에 붙는 *와우*로 시작되는 동사는 그 이전에 사용된 동사(들)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3. 항상 큰 문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동사들의 용법을 파악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섹족어의 동사들을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어 분석해서는 안된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서 완료형과 미완료형 앞에 쓰이는 히브리어 *와우* 용법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52-53 쪽). 완료형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나타내지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완료형의 동사는 종종 미래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에 있어서도 일어난다. 즉 *와우*가 추가된 미완료형의 동사는 과거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시제 자체가 변하여 된 것이 아니라,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그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이 특별히 바뀌는 것에 기인한다. *와우* 완료형은 예언에서 잘 사용되는 형태이며, *와우* 미완료형은 이야기체에서 잘 사용된다(54, 68 쪽).

와쓰는 계속해서 정의하기를

“*와우* 접속법과 *와우* 연속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해석에서 나타난다:

1. *와우* 접속법은 항상 병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2. *와우* 연속법은 항상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와우*가 연속적인 미완료형과 사용되는 유일한 경우이다. *와우* 연속법으로 연결되는 미완료형의 관계는 시간적 연속, 논리적 연속, 논리적 원인, 또는 논리적 대조를 나타낸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의 연속성이 있다”(103 쪽).

마. 부정사 – 두 종류의 부정사가 있다

1. 부정사 절대형, 이것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뚜렷한 구문이다. . . 주어로서 사용될 때 종종 쓰여진 동사없이 나타난다. 부정사 절대형이 홀로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생략된 동사는 “~이다”라는 동사로 이해된다” J. 와쉬 왓쓰,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92 쪽).
2. 부정사 연계형, 이것은 “전치사, 소유 대명사, 연계 관계에 의해 문법적으로 문장에 연결된다”(91 쪽).  
J. 와인그린은 *고전 히브리어의 실제적 문법*에서 연계상태에 대해 설명하기를 “두 개(혹은 그 이상)의 단어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합성할 경우에, 의존적인 단어(혹은 단어들)가 연계상태에 있다고 말한다”(44 쪽).

바. 의문법

1. 이것은 항상 문장의 처음에 나타난다.
2. 해석적인 중요성
  - ㄱ. *하*-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 ㄴ. *할로'*- 저자가 “네”라는 답을 기대한다

## 부정

1. 이것은 항상 부정하려고 하는 단어 앞에 나타난다.
2. 부정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단어는 *로*'이다.
3. '*알*'이라는 단어는 부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청유형과 지시형과 함께 사용된다.
4. *르빌티*/이라는 용어는 “~하지 않기 위해서”를 나타내며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다.
5. '*엔*'이라는 용어는 분사와 함께 사용된다.

## 사. 조건절

1. 4 종류의 조건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이네 헬라어의 경우와 평행을 이룬다.
  - ㄱ.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거나 성취된 것으로 여기는 생각의 경우(헬라어의 제 1 유형)
    - ㄴ. 사실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헬라어의 제 2 유형)
    - ㄷ.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아마 일어날지도 모르는 경우(헬라어의 제 3 유형)
    - ㄹ. 일어날 가능성이 보다 적어서 그 성취가 의심이 되는 경우(헬라어의 제 4 유형)
2. 문법적인 표시
  - ㄱ. 사실이나 실제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 항상 직설법 완료형 혹은 분사를 사용하는데 대개의 경우 조건절은 다음의 말로 시작한다
    - (1) *임*
    - (2) *키*(혹은 *아쉴르*)
    - (3) *힌* 혹은 *힌네*
  - ㄴ. 사실에 반대되는 조건절은 항상 완료 시상 동사나 분사를 사용하는데 불변화사인 *루* 혹은 *롤리*로 시작한다
  - ㄷ.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조건절은 항상 미완료형 동사나 분사가 조건절에 사용되는데, 대개는 불변화사인 *임* 혹은 *키*로 시작한다.
  - ㄹ.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조건절은 미완료형 가정법이 조건절에 나오고 항상 불변화사 *임*으로 시작한다.

## 이 주석에서 사용한 약어

AB	<i>앵커 바이블 주석</i> ,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 편저
ABD	<i>앵커 바이블 사전</i> (6 권), 데이빗 노엘 프리드먼 편저
AKOT	<i>구약의 분석 열쇠</i> , 존 조셉 오웬스
ANET	<i>고대 근동 본문</i> , 제임스 B. 프리처드
BDB	<i>히브리어 영어 구약사전</i> , 프란시스 브라운, S. R. 드라이버, C. A. 브릭스 공저
BHS	<i>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가르텐시아</i> , GBS, 1997
DSS	<i>사해사본</i>
IDB	<i>인터프리터스 성경사전</i> (4 권), 조지 A. 버트릭
ISBE	<i>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i> (5 권), 제임스 오르
JB	예루살렘 성경
JPSOA	<i>맛소라 본문에 따른 성경: 새 번역</i> (미국 유대인 출판협회)
KB	<i>히브리어 아람어 구약사전</i> , 루드빅 퀴러, 왈커 바움가르트너
LAM	<i>성경의 고대 동방 사본</i> (페쉬타), 조지 M. 램사
LXX칠십인역	(헬라어-영어), 존더반 출판사, 1970
MOF	제임스 모팻의 <i>새 번역 성경</i>
MT	맛소라 히브리어 본문

NAB 새 미국 성경 본문

NASB 새 미국 표준 성경

NEB 새 영어 성경

NET NEB 성경: 새 영어역, 제 2 베타역

NASB 새 개정 표준 성경

NIDOTTE *새 국제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5 권), 윌렘 A. 반게머른 편저

NIV 새 국제역

NJB 새 예루살렘 성경

NRSV 새 개정 표준성경

OTPG *구약성경 분해 가이드*, 토드 S. 빌, 윌리엄 A. 뱅크스, 콜린 스미스

REB 개정 영어 성경

RSV 개정 표준역

SEPT 칠십인역 (헬라어-영어), 존더반, 1970

TEV세계성서공회의 오늘의 영어역

YLT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 로버트 영

ZPBE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사전*(5 권), 메릴 C. 텐니 편저



## 저자의 말: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성경적인 해석은 고대의 감동받은 저자를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를 현대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이성적이고 영적인 과정이다.

해석의 영적인 과정은 중대하지만 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기대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1) 그를 위한 (2) 그를 알기 위한 (3) 그를 섬기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과정은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죄의 고백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포함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비스럽다.

해석의 이성적인 과정은 설명하기에 좀 더 쉽다. 우리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본문을 다루어야 하며 우리의 개인적이고 교파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가가 될 수 없다. 이 주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 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 해석원리를 포함한 조심스럽고도 이성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 제 1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성경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저자와 연관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원저자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을 가졌다. 본문은 고대의 감동받은 원저자가 결코 의미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없다. 그의 의도는 우리의 역사적, 감정적, 문화적, 개인적, 또는 교파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 열쇠이다. 적용은 해석의 총체적인 동반자이지만 적절한 해석은 반드시 적용에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본문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원래 성경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시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의 중심 진리에 상응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 제 2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문학적인 단위를 확정짓는 것이다. 성경의 각 책은 각각 통일적인 문서이다. 해석자들은 진리의 한 면을 위해 다른 면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문학적 단락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각 장, 단락, 절은 전체 성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해석은 반드시 전체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여 각 부분에 대한 귀납적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문단으로 이루어진 각

문학적 단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장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단락구분도 감동 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구분들은 우리에게 단락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 문장, 절, 구나 단어 수준이 아닌 문단 수준에서의 해석은 성경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따르는 열쇠이다. 문단들은 자주 주제나 중심 문장으로 불리는 하나의 통일된 논제를 가지고 있다. 문단속의 각 단어, 구, 절과 문장은 어찌되었건 이 통일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주제를 한정하고 확장하고 설명하고 질문한다. 적절한 해석을 위한 실제적인 열쇠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학적 단위 안에서 각 문단을 기초로 한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는데 있다.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현대 영어 번역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번역판들은 그들이 다른 번역이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1. 뉴킹제임스역(NKJV)은 공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어 원문 전통을 기초로 축어 적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의 단락 구분은 다른 번역판 보다 길게 되었다. 이렇게 긴 단락들은 학생들이 통일된 논제를 보는데 도움을 준다.
2. 신개정표준역(NRSV)은 수정된 축어역이다. 이것은 다음에 열거된 두 현대번역본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것의 단락 구분은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3. 현대영어성경(TEV)은 미국성서공회에서 출판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현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신국제역(NIV)에서와 같이,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자주 주제보다는 화자를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해석자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약 헬라어 본문(UBS<sup>4</sup>) 과 현대영어성경(TEV)을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지만 그들의 단락 구분이 다르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4. 신예루살렘성경(NJB)은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유럽인의 시각으로 단락 짓는 것을 비교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5. 본 주석에서 사용한 본문은 1995 년에 개정된 신미국표준역(NASB)으로서 축어적인 번역본이다. 각 절의 주석은 이 번역본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본 주석에서 역자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신미국표준역 개정판 본문을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으로 대신하였다).

### 제 3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헬라어의 단어나 구절들은 자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 나타난 상이점들을 이해하고 가능한 해석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작업은 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입은 저자의 원문대로 이해하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 제 4 원리

네 번째 원리는 문학적 장르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감받은 원저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했다(예를 들면 역사적 이야기체, 역사적 드라마, 시, 예언, 복음서[비유], 서신, 묵시). 이러한 서로 다른 양식은 해석을 위한 특별한 열쇠를 제공한다(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D 브렌트 샌디와 로날드 L. 기즈의 *구약코드해독*, 또는 로버트 스타인의 *규칙에 따른 놀이*를 보라).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파

중심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의 원리들은 옛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인 제한들을 극복하도록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본 주석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밥 어틀리  
동텍사스침례대학  
1996년 6월 27일

##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안내

###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그것에 궁극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되었다(전 1:13-18; 3:9-11).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릴 때 몇몇 식구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 몸이 성장하는 만큼 나 자신과 내 주위의 세계에 대한 질문도 커졌다. 익숙한 문화와 진부한 종교생활은 내가 읽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때에 나는 답답하고 둔감한 나만의 세계 속에서 혼동과 찾음, 기다림, 그리고 자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의 대답은 (1) 개인적인 철학 (2) 고대의 신비 (3) 개인적인 경험이나 (4) 심리적 투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내게 왜 사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하고 증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이성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나는 이 대답을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발견했다. 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내가 발견한 믿을 만한 증거들은 (1) 고고학으로 확실하게 증명되는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2) 구약성경의 예언들의 정확성 (3)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1,600 년이 넘도록 일관성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와 (4)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이다. 믿음의 일관된 체계인 기독교는 인류의 복잡한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면뿐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데서 오는 경험적인 면을 통해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과 안정을 주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중심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강렬하면서도 내적 자유를 맛보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매우 다른 해석들이 주장되어지고 때로는 같은 교회나 학교에서조차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한다. 성경의 영감과 신뢰하는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난해한 구절들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와 옳음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반되는 해석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인가?

이 일은 내 인생의 목표와 믿음의 여정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무한한 평화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마음은 (1) 포스트 모던시대의 상대주의; (2) 모순된 종교 체제들의 독단주의(세계 종교들); 그리고 (3) 교파적인 우월감 안에서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바랐다. 고문서의 바른 해석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역사적, 문화적, 교파적, 경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나의 견해를 견지하기 위해 종종 성경을 읽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안함과 부당함을 발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비록 나는 철저히 객관적일 수 없었지만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읽게 되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편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다. 바른 성경읽기를 함에 있어서 번역가 자신이 종종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된다!

성경연구를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점검할 전제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 I. 전제들

- 가.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유일한 계시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과 원저자인 성령의 의도하심 안에서 해석되어져만 한다.
- 나. 나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쓰인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역사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맞추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우리시대의 관점이 아닌 성경시대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처음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에게 의미하지 않았던 내용을 현재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 다. 나는 성경이 통일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성경에 어렵고 역설적인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가는 성경 바로 그 자체다.
- 라. 나는 모든 말씀(예언을 제외하고)이 감동된 원저자의 의도에서 오로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우리는 원저자의 의도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있다:
  1.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장르(문학의 유형)
  2.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특별한 사건
  3. 각 단락 및 전체 책의 문학적 배경
  4. 전체 메시지와 의 연관성에서의 문학적 단락의 개요
  5.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문법적인 요소
  6.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들
  7. 대구(평행) 구절들

이와 같은 영역의 연구는 성경구절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표다.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나의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해석상 지나친 다양성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부적절한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 II. 부적절한 방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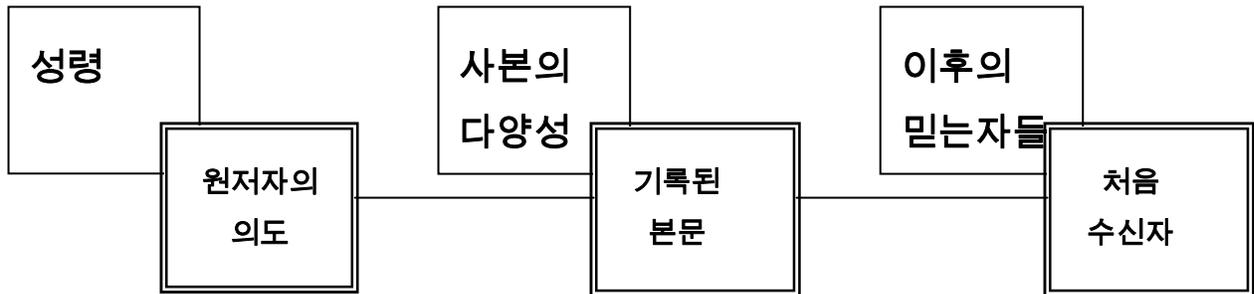
- 가. 성경의 책들의 문학적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문장, 구, 심지어 각각의 단어들을 저자의 의도나 전체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의 진술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본문사용”(proof-texting)으로 불린다.
- 나. 본문이 거의 또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 상상적인 역사적 상황을 대용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다.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조건 신문정도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다.
- 라. 성경을 처음의 청취자와 원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철학적, 신학적 메시지로 우화화 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 마. 원저자의 목적과 그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적 체계, 선호하는 교리나 현대 논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원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을 다룰 때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종 행해진다. 이것은 “독자 중심”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해석이라고 종종 불려진다.

인간의 글을 통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최소한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다른 독서법들이 세 요소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성경의 독특한 감동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정된 아래의 도표가 좀 더 적절하다:



실제로 세 가지 요소 모두가 해석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을 위해 나의 해석은 첫 두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원저자의 의도와 본문. 이제까지 잘못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1) 우화화나 영해하는 본문과 (2) “독자 중심” 해석(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이러한 잘못은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기, 편견, 방법, 적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해석의 범주나 한계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구조는 바른 해석의 범주를 갖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독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 바른 성경읽기나 해석이 되도록 돕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 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해 가능한 방법들

지금 나는 특별한 문학 형태에 대한 독특한 해석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원리가 모든 형태의 성경본문에 적용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는 특별한 문학형태에 따라 접근하기에 좋은 책이다. 나의 방법은 네 가지 개인적인 읽는 단계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시도록 우선적으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본문, 그리고 독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석가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독자를 보호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경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다.” 이것은 연구를 돕는 주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본문 자체가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다섯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원저자의
  - ㄱ. 역사적 배경
  - ㄴ. 문학적 배경
2. 원저자가 선택한
  - ㄱ. 문법적 구조(구문법)
  - ㄴ. 당시의 용법
  - ㄷ. 문학적 형태
3. 우리의 적절한 이해
  - ㄱ.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 ㄴ. 교리 사이의 관계(역설)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적용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자주 의견이 맞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네 가지 읽는 단계는 아래의 해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가. 독서의 첫 번째 단계

1.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다른 번역을 읽되 가능하면 다른 번역이론에 속한 번역본을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전체본문의 중심 목적을 찾아라. 주제를 찾아라
3. (가능하면)문학적 단위, 장, 문단, 혹은 중심목적이나 주제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문장을 파악하라.
4. 뚜렷한 문학적 유형을 파악하라.
  - ㄱ. 구약
    - 1) 이야기체
    - 2) 시(지혜문학, 시편)

3) 예언서(산문, 시)

4) 법률

ㄴ. 신약

1) 이야기체(복음서, 사도행전)

2) 예화(복음서)

3) 편지/서신서

4) 계시 문학

나. 독서의 두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중요한 논제나 주제를 찾으라.

2. 중요한 논제를 말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진술하라.

3. 목적 진술문을 점검하고,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요를 넓혀라.

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성경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특별한 사건을 확인하라.

2. 성경에 언급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라.

ㄱ. 저자

ㄴ. 날짜

ㄷ. 수신자

- ㄹ. 글을 쓴 특별한 이유
    - ㅁ. 저술의 목적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의 요소
    - ㅂ.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언급
  - 3. 해석할 성경본문의 단락별 개요를 만들라. 문학의 단위에 항상 유념하라. 문학적 단위는 여러 장이나 문단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이과정은 원저자의 논리와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 4.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역사적 배경을 점검하라.
- 라. 독서의 네 번째 단계
1. 본문의 특별한 문학적 단위를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다시 읽으라.
    -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 ㄷ. 풀어 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문학적 또는 문법적 구조를 확인하라.
    - ㄱ. 반복적인 표현, 엡 1:6, 12, 13
    - ㄴ. 반복되는 문법적 구조, 롬 8:31
    - ㄷ. 대조되는 개념들
  3. 다음의 항목들을 파악하라.
    - ㄱ. 중요 용어
    - ㄴ.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
    - ㄷ.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조
    - ㄹ. 어려운 단어, 절, 문장
  4. 평행되는 구절들을 확인하라.
    - ㄱ. 해당되는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찾아라
      - 1) “조직신학”책
      - 2) 참조성경
      - 3) 성구사전
    - ㄴ. 당신의 주제에서 역설적인 짝을 이루는 것을 찾아라.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는 서로 대립적인 짝으로 나타난다; 많은 교파적 대립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반쪽 본문사용에 기인한다. 모든 성경은 영감에 의해 쓰였다. 우리의 해석은 성경의 취지에 입각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 ㄷ. 같은 책, 같은 저자, 같은 문학형태 안에서 평행되는 구절들을 찾아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분이시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5. 역사적 배경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라

- ㄱ. 해설이 있는 성경
- ㄴ. 성경백과사전, 성경핸드북, 성경사전
- ㄷ. 성경개론서
- ㄹ. 성경주석(고금을 막론하고 개인 성경연구를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주석을 사용하라.)

#### IV. 성경해석의 적용

이제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의 원래의 상황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당신의 삶과 문화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원저자가 그의 시대에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시대에 적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가 시간과 논리 안에서 의도한 바를 따라야 한다. 성경이 그 시대에 말하고자 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 성경 본문은 그것이 의미하지 않았던 것을 결코 의미할 수 없다!

당신의 세분화된 단락 수준 (독서의 세 번째 단계)의 개요는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적용은 단어 수준에서가 아니라 단락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어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구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문장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해석의 과정에서 영감 받은 사람은 오직 원저자뿐이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원저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조명은 영감이 아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적용은 전체 글, 각 문학적 단위, 문단에 나타난 일반적인 의도에 특별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오늘날의 쟁점이 성경을 해석하게 말고;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본문으로 부터 원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본문이 원리를 뒷받침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리들은 자주 본문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본문(예언은 제외)에는 단지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의미는 그 시대의 위기나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원저자의 의도와 연관이 있다. 하나의 의미에서 다양한 적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수신자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원저자가 의미했던 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 V. 해석의 영적인 면

지금까지 나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본문중심의 과정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해석의 영적인 면을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점검목록이다:

- 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고전 1:26-2:16).
- 나. 개인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와 깨끗이 해주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요일 1:9).

-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도록 기도하라(참조 시 19:1-14; 42:1 이하; 119:1 이하).
- 라. 허락하신 새로운 깨달음을 당신의 삶에 즉각 적용하라.
- 마. 겸손함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성령의 영적인 인도와 논리적인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 인용된 내용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갖도록 내게 도움을 주었다:

- 가. 제임스 W. 사이어, 왜곡된 성경(*Scripture Twisting*), 17-18 쪽에서:

“성령의 감동은 영적 엘리트에게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경적인 기독교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위한 전문적 강의도, 그것을 터득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한 모든 타당한 해석이 자신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성령께서 지혜, 지식, 영적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런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권위있게 해석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성경은 최종권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우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책임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 결론적으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는 것이라는 점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점과, 성경은 결코 신비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키에르케가드의 글, 버나드 렘, *성경해석학*, 75 쪽에서:

키에르케가드에 의하면, 성경의 문법적, 사전적, 역사적 연구는 필요할 뿐 아니라 바른 성경읽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위해서는 사람의 입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망하며 진심으로 읽어야 한다. 부주의하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학적이거나 직업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랑의 편지(love letter)로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라울리, *성경의 계시*, 19 쪽에서:

“성경의 단순한 지적인 이해는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모든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다. 단순한 지적이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적 이해가 영적 이해(영적 보화)에 이르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위해 지적인 깨달음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려는 열정과 영적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 그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뛰어 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성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 VI. 본 주석의 체계

본 *연구안내주석*은 당신의 해석과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가. 각 책의 간단한 역사적 개요를 소개한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를 실시한 후 이 안내를 보라.
- 나. 각 장의 처음 부분에 문맥적 통찰력 난을 넣었다. 이것은 문학적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 다. 각 장 혹은 주요 문학적 단위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 가지 현대 번역본의 문단분할과 그 제목을 제시했다:

1.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NASB)
2. 뉴킹제임스역(NKJV)
3. 신개정표준역(NRSV)
4. 현대영어성경(TEV)
5. 새예루살렘역(NJB)

문단의 구분은 영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다른 번역이론과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여러 현대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원저자가 가졌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제 문장” 또는 “본문의 중심 생각” 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통일된 생각이 역사적, 문법적으로 적절한 해석의 열쇠이다. 문단보다 작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또한 각 문단은 앞뒤의 문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책 전체의 문단 개요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감 된 원저자가 주장하는 주제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

라. 밥(Bob)의 설명은 한 걸씩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도록 도와준다. 그의 설명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1. 문학적 상황
2. 역사적, 문화적 통찰력
3. 문법적 지식
4. 단어 연구
5.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마. 때에 따라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 대신에 다른 여러 현대 번역본도 보충적으로 사용되었다:

1. “공인본문”으로 알려진 뉴킹제임스역
2. 개정표준역 전국교회협의회의 축어적 개정판인 신개정표준역
3. 미국성서공회의 등가번역본인 현대영어성경
4. 프랑스 천주교의 등가 번역본에 기초한 영어역인 예루살렘역

바. 헬라어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영어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본문의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1. 사본의 다양성
2.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뜻
3. 문법적으로 어려운 본문이나 구조
4. 애매한 본문

영어번역본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고 철저한 연구가 되도록 도와준다.

사.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장의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할 질문들을 제시했다.

## 역사로서의 구약(창세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

기독교와 유대교는 역사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역사적 사건(그 사건들에 대한 해석과 병행하여)에 기초하고 있다. 무엇이 “역사”이며 “역사적 연구”인가를 정의하거나 설명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오늘날의 신학적 해석에 나타나는 대다수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학적 이해나 역사적 가정을 고대 근동의 배경을 가진 성경의 글에 투사시키는 데서 나타난다. 시대적 차이나 문화적 차이 뿐 아니라 문학적 차이가 있어 적절한 이해를 막는다. 고대 근동의 글에서 사용한 장르와 문학적 기교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자신이 현대의 서구문화에 노출되어 있어 성경을 서구의 문학적 장르에 비추어 해석하려 하기 때문이다.

19 세기에 성경 연구를 함에 있어서 사용한 방법은 구약의 책들을 쪼개어 냈으므로 성경이 지닌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가치 및 통일성을 가진 자료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러한 역사적 회의론은 구약의 해석학 및 역사적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정경적 해석학”(브레바드 차일드스)의 경향은 구약 본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강조점을 갖도록 도움을 주었다. 내가 평가하기에 이것은 19 세기의 독일의 고등 비평으로 생긴 심연을 건너도록 돕는 유용한 다리이다. 우리는 반드시 정경인 본문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정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며 영감으로 된 본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구약의 역사성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 이 말은 구약이 후기에 속하는 유대인 서기관들에 의해 편집되었고 개정된 것을 부정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유효한 역사이며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또한 그 사건들의 신학적 해석)이라는 쪽으로 근본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이다. *엑스포지티브 성경 주석제 1 권*에 있는 R. K. 해리슨의 글 “구약의 역사 비평과 문학 비평”에서 인용한 내용이 유용하다:

“역사적 자료의 비교 연구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기록이 히타이트 사람들의 기록과 더불어 근동의 역사에 대한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믿을 수 있는 기록이었음을 나타낸다. 마리, 누지, 보가즈코이 지역에서 발굴된 특별한 종류의 서판에 비추어 볼 때, 창세기나 신명기와 같은 책에 대한 양식비평적 연구는 ‘근동의 일부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비문학적인 자료’를 성경의 자료가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원래 역사적 자료로서의 의도를 지닌 히브리인들의 초기 전통에 대해 신선한 확신과 존경을 가지게 되었다” (232 쪽).

내가 R. K. 해리슨의 글을 인해 특별히 감사하는 이유는 그가 구약 성경을 당시의 사건과 문화와 장르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초기 유대문학(창세기-신명기 및 여호수아)이라는 강의에서 고대 근동의 문학 및 자료와 성경의 믿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시하려고 시도했다:

가. 창세기의 문학은 고대 근동의 것과 평행을 이룬다

1. 창세기 1-11 장의 문화적 배경과 평행을 이루는 가장 초기에 속하는 알려진 자료는 시리아 북부에서 출토된 에블라 썩기문자 서판으로서 주전 2500 년 경에 속하며 아카디아어로 기록되었다.
2. 창조
  - ㄱ. 창조의 내용을 가장 비슷하게 다룬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인 *에누마 엘리쉬*는 주전 1900-1700 년경에 속하는데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바니팔의 도서관과 다른 여러 곳에서 발굴되었다. 일곱 개의 썩기문자 서판이 아카디아어로 기록되었는데 마르둑에 의한 창조에 대해 설명한다.
    - 1) 신들 곧 *앞수*(민물 - 남신)과 *티아맛*(짠물 - 여신)에게 다루기 힘들고 시끄러운 자녀들이 있었다. 이 두 신은 어린 신들을 조용하게 만들려고 애썼다.
    - 2) 그 신의 한 자녀인 *마르둑*이 *티아맛*을 물리치도록 도왔다. 그는 그 여신의 몸을 가지고 땅을 만들었다.
    - 3) *마르둑*은 자신에게 패한 또 다른 신인 *킹우*로써 인간을 만들었다. *킹우*는 *앞수*가 죽은 후에 *티아맛*의 남자 배우자가 된 신이었다. 인간은 *킹우*의 피에서 나왔다.
    - 4) *마르둑*은 바벨론 만신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 ㄴ. “창조의 문장(seal)”은 썩기 서판에 있는 그림으로서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가 열매있는 나무 옆에 있는데, 그 나무 기둥을 한 마리의 뱀이 휘감고 있으면서 여인의 어깨 위에서 여자에게 말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3. 창조와 홍수—*아트라하시스 서사시*는 낮은 계급의 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낮은 신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과다한 양의 일 및 일곱 쌍의 인간을 창조하여 인간이 이들 낮은 신들이 감당할 의무를 행하게 함을 인해 반란을 일으켰다. 사람들의 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1) 인구의 증가와 (2) 소음을 인해 *엔릴*이 한 번의 역병과 두 번의 기근과 한 번의 최종적인 홍수를 계획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요 사건이 창 1-8 장에 있는 것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 이 썩기문자 작품은 *에누마 엘리쉬* 및 *길가메쉬 서사시*와 같은 시기인 주전 1900-1700 년 경의 것이다. 모두 아카디아어로 기록되었다.
4. 노아의 홍수

- ㄱ. 뉘푸르에서 발굴된 수메르의 한 서판은 *에리두의 창세기*로 불리는데 주전 1600년 경에 속한다. 이 서판은 *지브수드라* 및 임할 홍수에 대해 말한다.
- 1) 물의 신인 *엔카*가 올 홍수에 대해 경고했다
  - 2) *지브수드라*라는 왕인 제사장은 커다란 배로써 구조받았다
  - 3) 홍수가 7일 동안 계속되었다
  - 4) *지브수드라*가 배의 창을 열었고 여러 종류의 새를 놓아 보내어 마른 땅이 나타났는지의 여부를 알려고 했다
  - 5) 그는 또한 배에서 나온 후에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 ㄴ. 바벨론의 홍수 기록은 길가메쉬 서사시로 알려진 4개의 수메르 이야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주전 2500-2400년 경에 속하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아카디아 썩기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훨씬 후에 속한다. 이것은 홍수에서 살아 남은 *웃나피스탐*이 *우룩*의 왕인 *길가메쉬*에게 자신이 대홍수에서 어떻게 살아 남았고 또 어떻게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한다.
- 1) 물의 신인 *에아*가 올 홍수에 대해 경고하며 *웃나피스탐*(바벨론의 *지브수드라*)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한다
  - 2) *웃나피스탐*과 그의 가족이 몇 가지 약초와 더불어 홍수에서 살아 남았다
  - 3) 홍수가 7일 동안 계속되었다
  - 4) 배가 페르시아의 북동쪽에 있는 니실 산에 와 멈추었다
  - 5) 그가 세 종류의 새를 내 보내어 마른 땅이 드러났는지를 알려고 했다
5. 고대의 홍수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의 문학작품은 같은 자료에서 왔다. 이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그 구성은 같다. 그 한 가지 예는 *지브수드라*, *아트라하시스*, *웃나피스탐*이 모두 인간인 왕이라는 점이다.
6. 창세기의 나오는 초기의 여러 사건과 평행을 이루는 역사적 내용은 인간이 세상에 흠어지기 이전(창 10-11장)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참된 역사적 핵심을 이루는 이러한 기억은 전세계에 걸쳐 현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홍수 이야기로 다듬어지고 신화화되었다. 다음 사항, 곧 창조(창세기 1-2장) 및 인간과 천사의 결합(창세기 6장)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7. 족장들의 시대(청동기 중엽)
- ㄱ. 마리 서판 - 주전 1700년 경에 아카디아어로 기록된 썩기문자 본문으로서 법(암몬 사람들의 문화)과 개인에 관련된 내용임
  - ㄴ. 누지 서판 - 주전 1500-1300년 경에 속하는 썩기문자로 된 고문서로서 니느웨에서 남동쪽으로 16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굴되었으며 아카디아어로 기록된 어떤 가족들의 문서임(호리족 혹은 후르족의 문화). 이것은

가족과 사업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한 예들에 대하여는 왈톤의 책 52-58 쪽을 보라.

- ㄷ. 알랄락 서판 - 주전 2000 년 경에 속하는 뿔기문자 문서로서 시리아 북쪽에서 발굴됨
- ㄹ.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이름과 지명이 마리 서판에 나온다: 스투, 벨렉, 테라, 나홀. 성경에 있는 다른 여러 이름도 흔하게 나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반, 요셉.
- 8. “역사적 연구의 비교 연구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기록이 히타이트 사람들의 기록과 더불어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근동의 역사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기록이었음을 나타낸다,” R. K. 해리슨이 쓴 *성서비평*, 5 쪽.
- 9. 고고학은 성경의 역사성을 확립함에 있어서 아주 유용함이 입증되었다. 그렇지만 주의 사항이 한 가지 있다. 고고학은 다음의 이유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안내가 되지 못한다:
  - ㄱ. 초기에 행해진 좋지 않은 기술
  - ㄴ. 이미 발굴된 자료에 대해 상당히 다양하면서도 매우 주관적인 해석들
  - ㄷ. 고대 근동의 연대기에 대해 일치한 연대가 없는 점(비록 하나가 나무의 나이테에서 개발되었지만)
- 나. 창조에 대한 이집트의 기록을 요한 W. 왈톤의 책 *고대 이스라엘의 문학과 그 문화적 문맥*,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존더반 출판사, 1990(23-34, 32-34 쪽)에서 보라.
  - 1. 이집트의 창조 문학은 구조를 갖지 못한 혼란스러운 태고의 물과 더불어 시작한다. 혼란스러운 물에서 창조가 발전된 구조인 것으로 제시한다.
  - 2. 멤피스에서 발굴된 이집트의 문학에서 창조를 *프타*가 한 말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말한다.
- 다. 여호수아서의 문학은 고대 근동의 것과 평행을 이룬다
  - 1. 고고학은 가나안의 성벽이 있는 커다란 성이 대부분 파괴되어 주전 1250 년 경에 급히 재건되었음을 보여준다
    - ㄱ. 하솔
    - ㄴ. 라기스
    - ㄷ. 벨엘
    - ㄹ. 드빌(이전에는 *그리웃 세벨*로 불림, 수 15:15)
  - 2. 고고학은 여리고의 멸망에 대한 성경의 기록(참조, 수 6 장)을 확증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 사항으로 인해 그 장소가 좋은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 ㄱ. 기후/위치
    - ㄴ. 나중에 옛 자재를 사용하여 이전의 자리에 재건축을 함
    - ㄷ. 각 층의 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음

3. 고고학은 예발 산에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는데, 그 제단은 수 8:30-31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신명기 27:2-9). 이것은 미쉬나(탈무드)에 있는 기록과 매우 비슷하다.
4. 라스 샴라 본문이 우가릿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주전 1400 년 대에 속한 가나안인의 생활 모습과 종교를 나타낸다:
  - ㄱ. 다신교적 성격을 가진 자연신 숭배(다산의 신)
  - ㄴ. *엘*이 주요한 신임
  - ㄷ. *엘*의 배우자는 *아세리*였다(후에 그녀는 *바알*의 배우자가 됨). 후자는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조각한 나무나 살아 있는 나무의 형태로서 숭배됨
  - ㄹ. 그들의 아들은 폭풍의 신인 *바알(하트)*임
  - ㅁ.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의 만신전에서 “높은 신”이 되었다. *아눗*이 그의 배우자였다
  - ㅂ. 이집트의 *이시스*와 *오시리스*에 대한 것과 같은 종류의 예식이 행해짐
  - ㅅ. *바알* 숭배는 각 지역에 있는 “산당” 혹은 “돌로 된 판(의식상의 성매매)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졌다
  - ㅇ. 세운 돌기둥이 *바알*을 상징했다(남근의 상징)
5. 고대 도시의 정확한 목록은 후기의 편집자(들)가 아닌 당시의 저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 ㄱ. 예루살렘이 *여부스*로 불림, 수 15:8; 18:16,28
  - ㄴ. 헤브론이 *기랴 아르바*로 불림, 수 14:15; 15:13,54; 20:7; 21:11
  - ㄷ. *기랴 여아림*이 *바알랏*으로 불림, 수 15:9,10
  - ㄹ. 두로가 아니라 *시돈*이 페니키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서 언급됨, 수 11:8; 13:6; 19:28. 후에는 두로가 수도가 됨

## 당시의 근동 문화와 비교하여 본 구약의 역사적 기록

### 메소포타미아의 자료

1. 대부분의 고대 문학에서와 같이 왕 혹은 어떤 국가적 영웅을 주제를 삼는다.
2. 사건들이 종종 홍보용으로 각색되었다.
3. 대개는 부정적인 내용이 없다.
4. 그 목적이 현재의 정부를 지지하거나 혹은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5. 역사적 왜곡이 나타난다
  - ㄱ. 커다란 승리를 주장하기 위한 각색을 통해
  - ㄴ. 이전에 일어난 일(성취)을 현재의 것으로 바꿈으로써
  - ㄷ. 전적으로 긍정적인 면만 기록함으로써
6. 선전을 위해서 뿐 아니라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러한 문학이 사용되었다.

### 이집트의 자료

1. 이 자료는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의 정적인 면을 매우 강조한다
2. 왕과 그의 가족이 이 문학에서 주된 대상이 된다.
3. 이들의 자료는 메소포타미아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선전을 위한 것이다.
  - ㄱ. 부정적이 부분이 빠져 있고
  - ㄴ. 각색된 모습을 제시함

### 랍비들의 자료(후기)

1. 성경이 미드라쉬와 관련이 있도록 시도한다. 미드라쉬는 해석자의 믿음에서 본문으로 강조점을 옮기며, 저자의 의도나 본문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초점을 두지 않는다
  - ㄱ. *할락카*는 삶과 관련이 있는 진리나 규칙을 다룬다
  - ㄴ. *학가다*는 삶에 대한 적용점과 삶에 격려를 주는 내용을 다룬다
2. 페셰르 - 사해 사본에 있는 후기에 발전된 내용임.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현재의 상황을 보게 하는 모험론적 접근을 사용했다. 현재의 상황은 예언된 종말(오는 새 시대)이다.

고대 근동의 장르 및 후기에 속하는 유대 문학이 구약 성경과 분명히 다르다. 구약의 장르가 당시의 문학이 갖는 일부 특징을 종종 가짐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여러 면에서 독특한데 특히 역사적 사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그러하다. 히브리인의 역사기록과 가장 비슷한 것은 히타이트 문학이다.

고대의 역사 기록이 오늘날의 서구적 역사기록과 어떻게 다른 지를 인식하여야만 한다. 여기에 해석의 문제가 놓여 있다. 오늘날의 역사기록은 객관적(그것이 가능하다면, 선전을 하지 않는)인

접근을 시도하며 연대적으로 “정말로 일어난” 일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자료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상세한 기록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근동의 역사가 오늘날의 역사와 같지 않다는 점은 그것이 잘못되었고 열등하며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서구의 현대 역사는 그것을 쓴 사람의 편향(전제들)을 반영한다. 성경의 역사는 그 본질(영감)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성경의 역사가 영감을 받은 저자의 믿음의 눈을 통해 신학적 목적을 위해 기록된 것이지만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역사적 기록이다.

이러한 구약의 역사성이 나에게 중요한데 이는 나의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제창할 수 있게 한다. 만일 성경이 역사적인 것이라면 성경의 신앙적 주장은 더욱 강력하게 불신자들의 관심을 끈다. 나의 믿음은 고고학이나 인류학의 역사적 확인에 기초하지 않지만, 이러한 종류의 자료는 성경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것의 신빙성을 더하게 돕는다.

요약하자면 성경의 역사성은 영감의 영역에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과 복음전도에 있어서 기여한다.

## 장르와 해석: 구약의 이야기체

### I. 들어가는 말

가. 구약과 사건을 연대적으로 나타내는 다른 방법의 비교

1. 다른 고대 근동의 문학은 신화적이다

ㄱ. 다신론적임(대개 인간성을 가진 신들이 자연의 능력을 나타내면서도 비인간적 갈등의 국면을 갖고 있다)

ㄴ. 자연의 순환에 기초함(신들이 죽고 다시 살아남)

2. 헬라와 로마의 문학은 역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보다는 흥미와 격려를 주기 위함이었다(호머는 여러 면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주제를 반영한다)

나. 역사의 종류나 정의의 차이점을 제시함에 있어서 세 가지 독일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1. “Historie,” 사건의 기록(단순한 사실)

2. “Geschichte,” 사건의 해석으로서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나타냄

3. “Heilsgeschichte,” 이것은 역사의 진행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과 활동을 특별히 가리킴

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Geschichte”로서 구속사적 이해를 돕는다.

그 내용은 신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선별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룬다

1. 선택된 사건만 다룬다

2. 연대적 순서보다 신학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다룬다

3. 진리를 계시하기 위하여 사건들을 다룬다

- 라. 이야기체는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장르이다. 이것은 구약의 40%를 차지하는 분량이다. 따라서 이 장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성품을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내심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은 명제적 제시(신약의 서신서에서와 같이)가 아닌 함축, 요약, 혹은 선택된 대화/독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는 왜 이것이 왜 기록되었는가?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무엇이 이 기록의 신학적 목적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만 한다.

이것은 역사를 폄하시키려는 말이 전혀 아니다. 한편, 역사는 계시의 종이요 통로이다.

## II. 성경의 이야기체

- 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세계에서 활동적으로 일하신다.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어떤 사건들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구약의 주인공이시다.
- 나.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다:
1.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세계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2. 하나님께서 개인과 나라를 다루심을 통하여 인간이 누구인가를 드러낸다
  3. 한 가지 예로서, 여호수아가 거둔 군사적 승리는 언약의 실행과 관련이 있음을 특별히 주목하라(참조, 수 1:7-8; 8:30-35).
- 다. 이야기체 본문은 종종 서로 합쳐져 하나의 커다란 문학적 단락을 이루어 한 가지의 신학적 진리를 드러낸다.

## III. 구약의 이야기체를 해석함의 원리들

- 가. 구약의 이야기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읽을 것인가*이다(83-84 쪽).
1. 일반적으로 구약의 한 이야기체 본문은 직접적으로 어떤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2. 구약의 한 이야기체 본문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명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어떤 교리나 교리들을 예시한다
  3. 이야기체 본문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일어났어야 하는 일 혹은 언제라도 일어날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이야기체 본문이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의 어떤 뛰어난 도덕성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4. 이야기체로 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종 그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5. 구약의 이야기체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사람이며 그들이 하는 행동도 그러하다.

6. 그 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계없이 이야기의 끝 부분에서 그 일어난 일에 대한 평가를 언제나 말해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일의 평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 및 성경의 다른 곳에서 명확히 제시하는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7. 모든 이야기체 본문은 선정된 내용이며 불완전하다. 그 이야기와 관련된 자세한 모든 사항이 항상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참조, 요 21:25). 영감을 받은 저자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체 본문이 담고 있다.
  8. 이야기체 본문은 우리가 가진 모든 신학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니다. 각 본문이 독특하며 특정하게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주제만 다루고 있다. 그 밖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루게 내버려 두고 있다.
  9. 이야기체 본문은 직접적으로(어떤 것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혹은 암시적으로(실제로 어떤 것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 명확히 암시적으로 말함으로써) 가르친다.
  10.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체 본문에서 주인공이시다.
- 나. 이야기체 본문을 해석함에 관한 또 다른 좋은 설명이 왈터 카이저의 *석의적 신학에 대하여*에 나온다:

“성경의 이야기체 본문이 갖는 독특한 모습은 저자가 제시하려고 하는 핵심을 자신의 이야기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제시하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진술로써 교리나 가르침을 나타내는 성경 본문과는 달리, 이야기체 본문의 저자는 눈에 띄지 않는 뒤쪽에 위치하여 자신이 말하려는 직접적인 가르침이나 평가적인 진술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가 속한 더 큰 문맥을 파악하는 일과 왜 저자가 이러한 특별한 사건을 선택하여 사용하며 왜 이 순서를 따르고 있는가를 묻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무척 많은 양의 대화, 인물, 사건들 가운데서 *선택한* 내용 및 일어난 일을 제시하는 *순서*는 이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쌍둥이적 힌트가 될 것이다. 또한 저자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된 사건의 절정에서 나타내게 하는 반응으로부터 종종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및 이 사람들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파악하게 된다—곧, 일어난 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저자가 자기 자신(이 경우는 하나님)의 생각을 제시하려고 이야기의 흐름을 끊지 않는다면 그러하다” (205 쪽).

- 다. 이야기체 본문에서는 어떤 세세한 내용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학적 단락을 통하여 진리를 제시한다. 구약의 이야기체 본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 하거나 혹은 이를 당신의 삶을 위한 선례로 삼지 않도록 주의하라.

#### IV. 두 단계의 해석

- 가. 아브라함의 씨를 위한 야웨의 구속적이며 계시적 행위
- 나. 모든 신자들의 삶을 향한 야웨의 뜻(모든 세대에서)
- 다. 처음 것은 “하나님을 앎”(구원)에 초점을 두며,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둔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 참조, 롬 15:4; 고전 10:6,11)

# 출애굽기 1 장

## I. 책의 이름

- 가. 히브리어 본문(MT)에서는 이 책의 처음 부분이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단어들)이다”로 시작하여 출애굽기와 창세기를 서로 연결시킨다. 창 46:8 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온다.
- 나. 70 인역에서는 이 책의 이름을 “출구” 또는 “출로”를 뜻하는 *에크 호도스*로 번역하였다.
- 다.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역에서는 이것을 “*엑소더스*”로 번역하였다.

## II. 정경화

- 가. 이 책은 “토라”나 “가르침” 또는 “율법”으로 불리며, 히브리 정경의 처음 그룹에 속한다.
- 나. 70 인역에서는 오경(다섯 개의 두루마리)으로 이 그룹을 부른다.
- 다. 영어역에서는 때로 이 그룹을 “모세의 다섯 권의 책”으로 부른다.
- 라. 이 그룹은 창세기에서 신명기에 이르며, 모세가 기록한 역사적 기록인 창세의 일로부터 모세의 삶에 이르기까지 일들이 이어져 제시된다.

## III. 장르 – 네 가지 문학적 장르가 출애굽기에 나온다.

- 가. 역사적 이야기체, 출 1-19 장; 24 장; 32-34 장
- 나. 시, 출 15 장
- 다. 법, 출 20-23 장
- 라. 성막에 대한 자세한 사항(출 25-31 장) 및 성막의 완성(출 35-40 장)

## IV. 저자

- 가. 오경은 통일된 기록이다. 출애굽기는 접속사인 “그리고”로 시작한다.  
온라인([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의 창세기 주석에서 자세한 설명을 보라.
- 나. 모세가 기록하였음을 말하는 구절이 출애굽기의 여러 곳에서 나온다:
1. 출 17:14
  2. 출 24:4,12
  3. 출 34:27,28
- 다. 수 8:31 에서는 출 20:25 을 인용하며 그 내용을 모세의 것으로 돌리고 있다. 예수께서는 출 20:12,17 을 인용하시며 그 내용을 모세의 것으로 돌리셨다(막 7:10).
- 라. 나는 고대 근동 문화의 구전에 관하여 새로 출판된 책을 통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저자 및 사본적 차이와 관계된 많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존 H. 왈튼과 D. 브렌트 샌디가 저술한 *성경의 잃어버려진 세계*이다.

## V. 출애굽기의 연대

- 가. 출애굽기의 연대에 관하여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1. 왕상 6:1 에서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한다(참조, 알처, *성경의 어려운 말 백과사전*, 191-198 쪽).
    - ㄱ. 솔로몬의 통치는 주전 970 년에 시작되었다. 이 연대는 칼카르 전투(주전 853 년)의 연도에 기초하여 얻은 것이며 확실하다.
    - ㄴ. 성전 건축이 그의 재위 4 년에 시작되었으므로(주전 965 년), 출애굽은 주전 1445/6 년을 전후하여 일어난 일이다.
  2. 이 사건은 이집트의 제 18 왕조 때에 일어났을 것이다.
    - ㄱ. 이스라엘을 억압한 바로는 토티세 III 세(주전 1490-1436 년)였을 것이다.
    - ㄴ. 출애굽 때의 바로는 아멘호텝 II 세(주전 1436-1407 년)였을 것이다.
      - (1) 어떤 이는 아멘호텝 III 세(주전 1413-1377 년)가 다스린 시기에 이집트와 여리고 사이에 아무런 외교적 상호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여리고에서 나온 증거를 받아들인다.
      - (2) *아마르나* 편지는 아멘호텝 III 세의 통치 때에 가나안 땅을 횡횡했던 하비루들에 대한 외교적 내용을 도자기 파편에 기록한 본문이다. 따라서 출애굽은 아멘호텝 II 세의 재위 기간 중에 일어났을 것이다.

(3) 13세기(즉, 주전 1290년)에 출애굽을 한 것으로 볼 경우에, 사사들이 활동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게 된다.

3. 이 연대와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다:

ㄱ. 70인역(LXX)에서는 480년이 아니라 440년으로 되어 있다.

ㄴ. 480년은 40년으로 이루어진 12세대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상징적 표현이다.

ㄷ. 아론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12세대에 속하는 제사장이 있었고(참조, 대상 6장), 솔로몬에서 제2성전에 이르기까지 12세대에 속하는 제사장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과 마찬가지로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았다. 따라서 앞 뒤로 480년의 기간이 나오는 것이다(수의 상징적 용법, 참조, 빔슨의 *출애굽과 정복의 시기를 다시 계산함*).

4. 시기에 대하여 언급하는 본문이 세 가지 더 있다:

ㄱ. 창 15:13,16(참조, 출 7:6), 400년의 종살이

ㄴ. 출 12:40-41(참조, 갈 3:17)

(1) 맛소라 본문 - 430년 동안 이집트 거주

(2) 70인역 - 215년 동안 이집트 거주

ㄷ. 삿 11:26 - 입다의 시대부터 정복까지 300년이 됨(1445년설을 지지함)

ㄹ. 행 13:19, 출애굽, 광야유랑, 정복 - 450년

5. 열왕기서의 저자는 특별한 역사적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어림 수를 사용하지 않았다(에드윈 티엘레,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83-85 쪽).

나. 고고학을 통하여 제시되는 잠정적인 자료는 주전 1290년 또는 이집트의 제 19 왕조가 출애굽의 시기일 것이라고 말해준다.

1. 요셉이 같은 날 자신의 아버지와 바로를 방문할 수 있었다(즉, 출 2:1-10). 이집트의 수도를 테베에서 고대 힉소스의 수도로서 *아바리스/소안/타니스*로 불린 나일 강 삼각주로 옮긴 최초의 원주민 바로는 세티 I 세(1309-1290년)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바로였을 것이다.

ㄱ. 이것은 힉소스가 이집트를 통치한 것과 관련을 가진 두 가지 사항과 일치한다.

(1) 람세스 II 세의 시대에 속하는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아바리스가 400년 전에 건설된 것을 축하하는 내용이다(주전 1700년 경 힉소스에 의하여)

(2) 창 15:13에 기록된 예언에서 400년 간의 억압에 대하여 말한다.

ㄴ. 이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일이 힉소스(셈족) 출신인 바로의 통치 때에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출 1:8에서는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에 대하여 말한다(즉,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2. 힉소스는 “외국인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집트어에서 왔으며, 그 왕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셈족이었다. 그들은 제 15 왕조와 16 왕조(주전 1720-1570 년)의 시기에 이집트를 지배하였다. 어떤 이는 이들이 요셉을 총리로 삼은 것으로 본다. 출 12:40 에서 언급하는 430 년을 주전 1720 년에서 뺀다면, 출애굽의 시기는 대략 주전 1290 년이 된다.
3. 세티 1 세의 아들은 람세스 II 세(1290-1224)였다. 이 이름은 출 1:11 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건설한 국고성의 하나이다. 또한 고센 근처에 있는 이집트의 한 지역이 이 이름으로 불렸다(창 47:11). *아바리스/소안/타니스*는 주전 1300-1100 년 때부터 “람세스의 집”으로 알려졌다.
4. 토포세 III 세도 람세스 II 세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건축가로 알려졌다.
5. 람세스 II 세에게 47 명의 딸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살았다.
6. 가나안에서 아주 큰 규모의 성벽을 가진 여러 도시(하솔, 드빌, 라기스)가 파괴되었다가 주전 1250 년 경에 신속히 재건되었음을 고고학을 통하여 보게 된다. 광야유랑 기간을 38 년으로 계산할 때에 이 점은 주전 1290 년 설과 적합하다.
7. 고고학적 자료로서 람세스의 후계자인 메르넵타(주전 1224-1214 년)의 기념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부에 있었음을 말한다[참조, 메르넵타 비문, 주전 1220 년].
8. 에돔과 모압은 주전 1300 년대 후반에 강력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15 세기에는 이 두 나라의 국가적 조직이 강력하지 않았다(글릭).
9. 존 빔슨이 저술한 *출애굽과 정복의 시기를 다시 계산함*(쉐필드 대학 출판, 1978 년)에서는 모든 고고학적 증거에 반박하여 이른 시기의 출애굽을 주장한다.

다. “출애굽을 해독함”이라고 불리는 역사 방영물을 통하여 널리 퍼진 새로운 이론이 있는데, 그 설에 의하면 요셉에게 친절을 베푼 바로가 힉소스 왕이었다고 말한다. 요세푸스는 힉소스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마네토 역사를 인용하였다(즉, *아피온에 대항하여* 1:73:7). 힉소스는 주전 1720-1570 년 경에 이집트의 일부분을 다스렸다. 이 내용은 가항의 시기보다 더 이른 시기를 뜻할 것이다.

출애굽의 경로는 “팔레스타인의 길”로 불리는 도로의 지중해 해안을 따르는 경로였을 것이다. 따라서 시내 산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까웠을 것이다.

라. 이집트 사람들을 죽인 “흑암”과 “물결”은 북서쪽으로 800 킬로미터 떨어진 산토린 섬에 있는 테라의 화산분출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제시되었다. 그 시기는 주전 1477 년으로 추정된다. 이 설명은 가항의 연대보다 약간 앞선 시기로 여겨진다. 1986 년에 “사이언스” 학술지에 실린 글을 참조하라. 존 홉킨스 대학의 이집트 학자인 한즈 골딕과 스밋소니안 연구소의 해양학자인 다니엘 진 스탠리가 제시하는 증거가 소개되었다.

- 마.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에 대하여 이집트인이 남긴 기록이나 상형문자가 없다. 이집트의 역사는 왕들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성경의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임).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 VI. 출애굽과 관련하여 불확실한 다른 사항들

### 가. 수 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한 것에 대한 의문

1. 민수기 1:46; 26:51 에서는 60 만 명의 전투병(20-50 세의 연령, 참조, 출 38:26)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여자, 아이들, 노인을 계산에 넣는다면 그 수는 150 만 명에서 250 만 명에 이른다.
2. 한편, 히브리어에서 천을 뜻하는 *알레프*는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 ㄱ. 가족 또는 부족의 단위, 수 22:14; 삿 6:15; 삼상 23:23; 속 9:7
  - ㄴ. 군사적 부대의 단위, 출 18:21,25; 신 1:15
  - ㄷ. 정확하게 천 명, 창 20:16; 출 32:28
  - ㄹ. 상징적 용법, 창 24:60; 출 20:6(신 7:9); 34:7; 렘 32:18
  - ㅁ. 우가릿어(셈족어에 속하는 언어임)에서 같은 자음으로 이루어진 *알루프*는 “족장”을 뜻한다(참조, 창 36:15). 이 점은 민 1:39 에서 단에서 60 족장과 2,700 명이 왔음을 뜻한다.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어떤 부족에서는 족장의 수가 상당히 많은데 비하여 사람의 수가 적다는 점이다.
  - ㅂ. NIV 연구성경 186 쪽에 좋은 논의가 나온다.
3. 고고학에서는 이집트와 앗시리아 군대의 규모가 이 시기에 수만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호수아서의 어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 대략 4 만 명의 군대가 있었음을 시사한다(참조, 수 4:13; 7:3; 8:3,11,12).

### 나. 출애굽의 경로에 대한 의문

1. 다음 사항의 위치는 모두 불확실하다.
  - ㄱ. 이집트의 도시들
  - ㄴ. 물이 있던 곳
  - ㄷ. 히브리인들이 초기에 진을 친 장소들
2. “홍해”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 *얄 수프*(특별주제: 홍해를 보라)로서 다음을 뜻한다:
  - ㄱ. 그 의미는 “해초의 바다” 또는 “갈대의 바다”를 뜻한다. 이것은 바닷물을 가리키거나(은 2:5; 왕상 9:26) 담수를 가리킨다(출 2:3; 사 19:26). 70 인역에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홍해”라고 번역하였는데 벌게이트역과 킹제임스역이 이를 따랐다.

ㄴ. “남쪽에 있는 바다” 또는 “(땅)끝에 있는 바다”를 가리킨다. 이것은 오늘날의 홍해, 인도양, 또는 페르시아만을 일컫는 표현이다.

ㄷ. 구약에서 여러 용법을 나타내었다(참조, 민 33:8,10).

3. 세 종류의 물과 관련하여 세 가지 경로를 고려할 수 있다:

ㄱ. 북쪽 경로 - 이것은 지중해 해안을 뜻하며 “팔레스타인의 길”로 알려진 상업용 고속도로로 연결된다. 이 경로는 약속의 땅에 이르는 지름길이었다. 그들이 직면한 물은 깊이가 얇은 늪지인 시르보니스 호수 또는 멘잘크 호수였을 것이다. 그러나 출 13:17 의 기록을 고려할 때 이 경로를 고려에 넣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집트인의 성채가 이 도로에 줄지어 위치한 점을 볼 때 이 견해는 설득력을 잃는다.

ㄴ. 중간 경로 - 이것은 중앙에 위치하여 다음과 같이 불린 호수와 관련을 가진다:

- (1) “쓴 호수”
- (2) “발라 호수”
- (3) “팀사 호수”

이 경로는 술 광야를 통과하는 대상의 행로를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ㄷ. 남쪽 경로 - 이 경로는 오늘날 홍해로 불리는 큰 규모의 바다와 관련을 가진다. 이 경로에도 에시온게벨에서 “왕의 고속도로”(요단강 건너편의 길을 따라 다메섹에 이르는 도로)와 연결되는 대상의 행로가 있었다.

- (1)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물에 갈대가 없다는 점이다.
- (2) 이것과 관련하여 왕상 9:26 에서 “에시온게벨이 옴수프에 있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아카바만 또는 홍해의 일부를 뜻하였을 것이다(참조, 민 21:4; 신 27 장; 사 11:16; 렘 49:12).

ㄹ. 민수기 33 장에서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민 33:8a 에서는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로 말하고, 33:10 에서는 그들이 “홍해 가에 진 쳤다”라고 기록하여 다른 종류의 물로 말한다.

ㅁ. 어떤 종류의 물을 건넜던지 그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물에 죽은 이집트 병사의 시신이 이스라엘 쪽의 물가로 떠올라 그들의 무기를 이스라엘이 취하게 된 일은 또 다른 기적이었다(출 14:30; 15:4-5).

ㅂ. 다른 자료에서는 “암 수프”가 남쪽에 있지만 그 위치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물로 제시한다. 또 어떤 자료에서는 인도양이나 벥겔만을 “암 수프”로 불렀다.

4. 시내산의 위치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 ㄱ. 모세가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에서 바로에게 삼일의 여정을 요구한 것이라면(출 3:18; 5:3; 8:27), 전통적으로 시내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여기는 그 장소에 이르기에는 삼일은 충분치 않은 시간이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그 산이 가데스바네아의 오아시스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본다.
- ㄴ. 신 광야에 있는 “에벨 무사”라는 장소는 전통적으로 여러 면에서 지지를 받는다:
  - (1) 산 앞에 있는 큰 평지
  - (2) 신 1:2 에서는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11 일이 걸렸다고 말한다
  - (3) “시나이”라는 용어는 히브리 용어가 아니다. 이것은 사막에 있는 작은 덩굴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신 광야와 관련을 가진다. 그 산을 가리키는 히브리 이름은 호렙(광야)이다.
  - (4) 시내산은 주후 4 세기부터 전통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이 장소는 “미디안 땅”에 있으며, 시내 반도와 아라비아의 많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 (5) 출애굽기에서 언급한 몇 도시(*엘림, 도브카, 르피툼*)의 위치가 시내 반도의 서쪽에 있었음을 고고학적 자료가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 ㄷ. 시내산의 전통적 위치가 주후 385-8 년 경에 기록된 *실비아의 순례* 이전에는 확립되지 않았다(참조, F. F. 브루스, *사도행전 주석*, 151 쪽).
- ㄹ. “출애굽을 해독함”이라는 역사 방영물에서는 이 산이 가나안으로 가는 대상의 북쪽 경로에 있었다고 말한다(즉,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지름길).

VII. 역사적 배경을 입증하는 자료들:

- 가. 이집트의 자료 가운데 출애굽에 대하여 말하는 문서가 전혀 없다. 다음 사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 1. 야웨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철저히 패배시키심
  - 2. 이집트 글의 문학적 성격(즉, 왕을 높이는 일)
- 나. 십계명과 유사한 법률이 일부 문화권에서 나타난다:
  - 1. *리핏이쉬탈 법*(수메르), 이신 왕의 것(주전 1934-1924 년)
  - 2. *에쉬눈나 법*(고대 바벨론), 주전 1800 년 경, 아쉬눈나의 왕인 다두샤의 통치기에 속함
  - 3. 함부라비 법전(고대 바벨론), 바벨론 왕인 함무라비의 것(주전 1728-1686 년)
  - 4. 히타이트 왕의 법령, 몹실리스 I 세 또는 핫투실리스 I 세, 주전 1650 년에 속함
  - 5. 메소포타미아의 법령은 주로 민사법에 강조점을 두었으나, 성경에 나오는 법은 주로 종교/제사법에 강조점을 두었다 “. . .쌌기문자로 된 모든 법에서는 민사적 편향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제사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 . , 궁극적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범죄를 사회에 대한 것으로 여겼고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범죄를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여겼다”(왈튼, 80 쪽).

6. 알브레흐트 알트(*구약의 역사와 종교에 대한 에세이*, 옥스포드, 1966 년, 81-132 쪽)는 두 종류의 법을 제시하였다:

ㄱ. 증례적 법, 이 법은 조건절을 사용한다. 이 법은 “만일 . . .하다면 이렇다”라는 구조를 특징적으로 가진다. 이것은 종교적 또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금지 및 그 결과를 제시하는 법이다.

ㄴ. 필연적 법, 이 법은 조건절을 사용하지 않는다.

(1) 출 21 장과 신 27:15-26 에서는 개인 및 특별한 사건과 관련하여 삼인칭을 사용한다.

(2) 레 18:7-17 과 출 20 장/신 5 장에서는 이인칭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보다 더 일반적인 관점을 나타낸다.

ㄷ. 메소포타미아의 법은 주로 증례적 법이었으나, 이스라엘의 법은 주로 필연적 법이었다.

다. 글을 어떻게 쓰는지 모세가 알지 못했다라고 옛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였으나, 고고학은 이른 시기에 속하는 가나안의 알파벳이 존재하였고 이 알파벳을 모세 당시에 이집트에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였다.

1. 시나이 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의 광산에서 일하던 셈족 노예에 관한 주전 1400 년대 자료가 발견되었다(참조, 올브라이트, BASOR, #110[1948], 12-13 쪽).

2. 테베 에 있는 왕비의 계곡에서 도편자료(도자기 조각에 기록한 자료)가 발견되었다(올브라이트, BASOR, #110[1948], 12 쪽).

## VIII. 문학적 단위(문맥)

가. 간략한 개요

1.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다(열 가지 재앙), 출 1-11 장

2.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다(출애굽), 출 12-18 장

3.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물다, 출 19-40 장

ㄱ. 시내산에서 언약의 법을, 출 19-24 장

ㄴ. 시내산에서 예배의 법을, 출 25-40 장

(1) 성막의 식양, 출 25-31 장

(2) 반역과 언약의 갱신, 출 32-34 장

(3) 성막의 완성, 출 35-40 장

나. 재앙

1. 그들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창 1 장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섬긴 신들에 대한 경시를 나타낸다). 재앙이 18 개월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재앙이 자연적 사건과 관련을 가지면서도 다음 사항과 관련이 있다:
  - ㄱ. 초자연적 시간
  - ㄴ. 초자연적 집중성
  - ㄷ. 초자연적 위치
2. 열 가지 재앙에 대한 간략한 개요
  - ㄱ. 나일 강이 피로 변함, 출 7:14-25
  - ㄴ. 개구리, 출 8:1-15
  - ㄷ. 이, 각다귀, 출 8:16-19
  - ㄹ. 파리, 출 8:20-32
  - ㅁ. 가축의 질병, 출 9:1-7
  - ㅂ. 종기, 출 9:8-12
  - ㅅ. 우박, 출 9:13-35
  - ㅇ. 메뚜기, 출 10:1-20
  - ㅈ. 어두움, 출 10:21-29
  - ㅊ. 죽음의 천사, 장자의 죽음, 출 11:1-8

다. 출 23 장에 있는 축제일/금식일 목록:

1. 매 주의 안식일, 출 23:3
2. 유월절(니산 달의 제 14 일), 출 23:5; 출 12 장
3. 무교절(니산 달의 제 15-21 일), 출 23:6-8; 신 16:1-8
4. 첫 열매(니산 달의 제 22 일), 출 23:9-14
5. 오순절 또는 여러 주의 축제(니산 달의 제 21 일로부터 50 일, 시반 달의 제 6 일), 출 23:15-21; 신 16:9-12
6. 나팔을 불기(티스리 달의 제 1 일), 출 23:23-25; 민 29:1-6
7. 속죄일(티스리 달의 제 10 일), 출 23:26-32; 민 29:7-11
8. 초막절(티스리 달의 제 15 일), 출 23:33-44; 민 29:12-40; 신 16:13-17

라. 자세한 개요

1. 밥이 제시한 자세한 개요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출애굽기의 자세한 개요를 보라
2. R. K. 해리슨, *구약개론*, 560-562 쪽을 보라
3. E. J. 영, *구약개론*, 63-72 쪽을 보라

4. NIV 연구성경, 85-87 쪽을 보라

IX. 주요 진리

- 가. 이 책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역사를 이어 나간다. 이 책은 택함을 받은 가족이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 발전되어 감을 제시한다. 그들이 비록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창 12:1-3; 15:12-21).
- 나. 이 책은 시내산(호렙)에서 주신 언약의 율법에 대한 기록이다
1.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십계명과 부수조항)
  2.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성막, 제사장, 절차들, 시기, 예식)
  3. 이것은 성막에 관하여 “어떻게”를 제시하는 지침서이다(레위기)
- 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바(창 15:12-21)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제시한다.
- 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대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균형을 제시한다:
1.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
    - ㄱ. 출 7:3,13
    - ㄴ. 출 9:12,34-35
    - ㄷ. 출 10:1,20,27
    - ㄹ. 출 11:10
    - ㅁ. 출 14:4,8
  2.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였다
    - ㄱ. 출 8:15,32
    - ㄴ. 출 9:34

# 출애굽기 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번성하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받은 고통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속박받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잔인하게 대우받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함
1:1-7	1:1-7	1:1-7	1:1-7	1:1-7 억압받은 히브리인들
1:8-14	1:8-14	1:8-14	1:8-14	1:8-14
1:15-22	1:15-22	1:15-22	1:15-18 1:19-22	1:15-21 1:2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로 구분한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의 것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이다. 각 문단은 오직 한 가지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출애굽기 1 장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시한다(참조, 창 15:12-21).

1. 번영/하나님의 축복
2. 억압받음

나. 출애굽기는 창 12 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백성의 역사를 이어 나간다. 출애굽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사건과 기적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 확실함을 드러낸다.

출애굽기 1 장은 이 책의 다른 모든 본문을 위한 문학적 장을 이룬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1-7

1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3잇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4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5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칠십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6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아내의 가족은 다 이집트로 갔으니 이집트에 가솔은 세백삼십이요 베냐민은 백이요 가솔이요 므낫세

1:1 “이름은 이러하니” 이집트로 여행한 자들에 대해 묘사하기 위하여 창 46:8 에서 똑같은 구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밀접한 문학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라는 히브리 접속사로 출애굽기가 시작한다.

▣ “이스라엘” 특별주제: 이스라엘(이름)을 보라.

### 특별주제: 이스라엘(이름)

- I. 이 이름의 뜻이 불확실하다(BDB 975).
  - 가. *엘*이 끝까지 해내신다
  - 나. *엘*이 끝까지 해내십시오(지시형)
  - 다. *엘*이 보존하신다
  - 라. *엘*이 싸우십시오
  - 마. *엘*이다투신다

1:1 “들” 이

1:1 “들” 이

▣ “들” 이

1:1 “들” 이

1:1 “들” 이

▣ “들” 이

1:1 “들” 이

1:1 “들” 이

마. 어떤 경우에는 유다에게 사용되었다(예, 사 1 장; 미 1:15-16).

바. 앗시리아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야곱의 후손을 가리키는 통칭적인 명칭으로 다시 사용되었다(예, 사 17:7,9; 렘 2:4; 50:17,19).

기. 케시자드과 그브디는 이와 비슷한 이르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대산 2:2; 사 40:25).

▣ “야곱”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은 창 32 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창 32:27-28 에서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 “가족” 이것은 모든 친척과 종들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1:2-4**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을 그들의 어머니에 따라서 제시한 목록이다. 기업을 받게 될 요셉의 두 아들(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이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요셉과 그의 가족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출 1:5). 그들이 기업의 두 몫을 받기 때문에, 열 세 지파가 된다.

1. 레아에게서
  - ㄱ. 르우벤
  - ㄴ. 시므온
  - ㄷ. 레위
  - ㄹ. 유다
2. 라헬에게서
  - ㄱ. 요셉(이미 이집트에 있으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음)
  - ㄴ. 베냐민(가장 어린 아들이었으나, 그가 사랑한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
3. 빌하에게서(라헬의 몸종)
  - ㄱ. 단
  - ㄴ. 납달리
4. 실바에게서(레아의 몸종)
  - ㄱ. 갓
  - ㄴ. 아셀

**1:1 “사람”** 이것은 *넬페쉬*(BDB 659; 온라인에서 창 2:7 에 있는 설명을 보라)라는 히브리 명사이다.

▣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것은 히브리 관용어(문자적, “밖으로 나오다,” BDB 422, KB 425, *칼 분사*)로서 다음의 사람에게서 나온 자녀를 가리킨다

1. 아버지 – 창 35:11; 46:26; 삿 8:30; 삼상 7:12; 16:11; 왕상 8:19; 왕하 20:18
2. 어머니 – 민 12:12; 욥 3:11; 렘 1:5; 20:18

▣

NASB, NKJV

NRSV, TEV, NJB           **“칠십”**

70 인역, 사해사본(4QExa)   **“칠십오”**

70 인역과 사해사본에서는 창 46:26 과 행 7:14 을 반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어역본에서는 맛소라 본문을 따라 “칠십”으로 번역하고 있다(참조, 신 10:22). UBS 본문 프로젝트(88 쪽)는 “칠십오”에 B 등급(약간 의심스러움)을 주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수는 대략적 수이다(특별주제: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를 보라). 후기에 속하는 랍비들은 이것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참조, 70 인역, 신 32:8).

## 특별주제: 성경에서 사용한 상징적 수

가. 어떤 숫자는 수와 상징 양쪽을 다 나타낸다:

1. 하나 - 하나님(예, 신 6:4; 엡 4:4-6)
2. 넷 - 지구 전체(즉, 네 모퉁이, 네 바람)
3. 여섯 - 인간의 불완전성(7에서 하나 적음, 예, 계 13:18)
4. 일곱 - 하나님의 완전성(7 일 간의 창조). 계시록에서의 상징적 용법을 주목하라.

ㄱ. 일곱 촛대, 1:13,20; 2:1

ㄴ. 일곱 별, 1:16,20; 2:1

ㄷ. 일곱 교회, 1:20

ㄹ. 하나님의 일곱 영, 3:1; 4:5; 5:6

ㅁ. 일곱 등잔, 4:5

ㅂ. 일곱 인, 5:1,5

ㅅ. 일곱 뿔과 일곱 눈, 5:6

ㅇ. 일곱 천사, 8:2,6; 15:1,6,7,8; 16:1; 17:1

ㅈ. 일곱 나팔, 8:2,6

ㅊ. 일곱 우뢰, 10:3,4

ㅋ. 칠천, 11:13

ㅌ. 일곱 머리, 13:1; 17:3,7,9

ㅍ. 일곱 재앙, 15:1,6,8; 21:9

ㅎ. 일곱 접시, 15:7

ㄱ. 일곱 왕, 17:10

5. 십 - 완전성

ㄱ. 복음서에서의 용법:

(1) 마 20:24; 25:1,28

(2) 막 10:41

(3) 눅 14:31; 15:8; 17:12,17; 19:13,16,17,24,25

ㄴ. 계시록에서의 용법:

(1) 2:10, 십일 간의 환란

(2) 12:3; 17:3,7,12,16, 열 뿔

(3) 13:1, 열 면류관

ㄷ. 계시록에 나오는 10의 배수.

스. 계시록에서의 용법:

- (1) 인침을 받은 만 이천명, 7:5-8
- (2) 열 두 별, 12:1
- (3) 열 두 문, 열 두 천사, 열 두 지파, 21:12
- (4) 열 두 사도의 이름을 딴 열 두 기초석, 21:14
- (5) 새 예루살렘은 사방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다, 21:16
- (6) 열 두 진주로 만든 열 두 문, 21:12
- (7) 열 두 가지 과일을 맺는 생명나무, 22:2

7. 사십 - 시간의 길이를 뜻하는 숫자

ㄱ.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출애굽과 광야 방랑시기, 예, 출 16:35); 신 2:7; 8:2

ㄴ. 문자적 혹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우로써

- (1) 홍수, 창 7:4,17; 8:6
- (2) 시내산에서의 모세, 출 24:18; 34:28; 신 9:9,11,18,25
- (3) 모세의 삶의 구분
  - (ㄱ) 이집트에서의 40 년
  - (ㄴ) 광야에서의 40 년
  - (ㄷ) 이스라엘을 인도한 40 년
- (4) 예수께서 40 일을 금식하심, 마 4:2; 막 1:13; 눅 4:2

ㄷ. 성경에서(성구사전에 의하면) 많은 경우 이 수는 시간의 명칭으로 나타남을 주목하라!

7. 칠십 - 사람들에게 대해 사용한 어림 수:

ㄱ. 이삭기엔 출 16:5

1:7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숫적으로 이렇게 번성한 일은 다음 사항의 성취이다:

1.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창 1:28; 9:1,7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예언
  - ㄱ. “큰 민족”
    - (1) 창 12:2a
    - (2) 창 17:4,5
    - (3) 창 18:18
  - ㄴ. “수가 많아 셀 수 없음”
    - (1) 창 16:10
    - (2) 창 17:20
  - ㄷ. “땅의 티끌 같음”
    - (1) 창 13:16
    - (2) 창 28:14
  - ㄹ. “바닷가의 모래같음”
    - (1) 창 22:17
    - (2) 창 32:12
  - ㅁ. “하늘의 별들같음”
    - (1) 창 15:5
    - (2) 창 22:17
    - (3) 창 26:4
    - (4) 출 32:13
    - (5) 신 1:10
    - (6) 신 28:62

또한 이것은 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번성함을 묘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1. “생육하였다” - BDB 826, KB 983, *칼* 완료형
2. “불어났다” - BDB 1056, KB 1655, *칼* 미완료형과 *와우*(문자적, “우글거렸다,” 참조, 창 1:20,21)
3. “번성하였다” - BDB 915, KB 1176, *칼* 미완료형과 *와우*
4. “매우 강하게 되었다” - BDB 782 I, KB 868, *칼* 미완료형과 *와우*, 또한 부사(BDB 547)
5.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 BDB 569, KB 583, *니/팔* 미완료형과 *와우*

▣ “온 땅에”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착한 삼각주 지역에 있는 고센 땅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참조, 창 45:10; 46:28,29,34; 47:1,4,6,27; 50:8). 또한 이곳은 행정부의 중심지가 되었다(즉, 창 45:10).

**개역개정 1:8-14**

<sup>8</sup>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sup>9</sup>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sup>10</sup>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sup>11</sup>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sup>12</sup>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sup>13</sup>이스라엘 자손에게 입을 엄하게

1:8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것은 약 200 년의 시간적 간격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은 430 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다(참조, 출 12:40).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이것은 히소스 왕들(셈족, 아마 후리족)로부터의 멍에를 벗어버린 이집트의 새 왕조(즉, 아모시스, 주전 1570-1546 년)를 가리킨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행정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새 왕 또는 요셉의 영향력을 시기한 왕을 가리킨다(즉, “알다”는 개인적 관계를 나타냄; 특별주제: 알다를 보라).

**특별주제: 알다(대부분 신명기를 전형적인 예로 사용함)**

히브리어의 “알다”(BDB 393)는 *칼* 동사형에서 여러가지 의미(의미의 장)를 나타낸다.

1. 선과 악을 이해하다 – 창 3:22: 신 1:39: 사 7:14-15: 욥 4:11

3. 경험으로 알다 – 신 3:19; 4:35; 8:2,3,5; 11:2; 20:20; 31:13; 수 23:14
4. 고려하다 – 신 4:39; 11:2; 29:16
5. 개인적으로 알다
  - ㄱ. 사람 – 창 29:5; 출 1:8; 신 22:2; 28:35,36; 33:9
  - ㄴ. 신 – 신 11:29; 13:2,6,13; 28:64; 29:26; 32:17
  - 야웨 – 신 4:35, 39; 7:9; 29:6; 사 1:3; 56:10-11
  - ㄷ. 성적으로 – 창 4:1,17,25; 24:16; 38:26
6. 습득한 기술 또는 지식 – 사 29:11,12; 암 5:16
7. 지혜로운 – 시 29:4 · 잠 1:2 · 4:1 · 사 29:24

1:9 출 1:8 에 대한 해석가의 견해에 따라 이것은 다음 사항을 가리킨다

1. 이스라엘의 수
2. 이스라엘이 인종적으로 셈족에 속함(참조, 출 1:10)

1:10 “자” 이것은 *칼* 명령(BDB 396, KB 393)으로서 이 본문에서는 “허용하다” 또는 “~에 관심을 두다”를 뜻한다. 새 바로 왕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기 원하였다.

1. 이스라엘의 수
2. 이스라엘이 셈족에 속함
3. 이스라엘의 반란과 출애굽의 가능성

▣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것은 *히트파엘* 청유형(BDB 314, KB 314)이다. 이 문장의 의미는 “잠재적인 문제(즉, 이스라엘의 번성과 그들의 인종적 배경)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기선을 제압해 버리는 행동을 취하자”라는 것이다.

이 말은 히브리 청중에게 모순으로 들렸을 것이다. 야웨를 알고 따르는 것을 떠나서는 지혜가 없다.

1:11 바로(이 호칭은 출 3:10 에서 처음 나온다, BDB 829; 여기서는 “왕”으로 불린다)가 자신이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한 일은 이스라엘 노예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

한영받은 손님에서 종으로 바뀌는 일이 얼마나 커다란 변화인지!

▣ “감독들을” 이 용어(BDB 978 과 BDB 586 I 의 조합)는 노동자들을 각 단위별로 감독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월터 덕캣의 책, *거지부터 왕까지: 성경의 모든 시대에 나오는 직업*(251 쪽)을 보라.

▣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이 두 도시는 삼각주 지역에 위치하였을 것이다(아마 창 46:28 과 연결됨). “비돔”(BDB 837)이라는 이름은 “*아툼*의 집”(즉, 이집트인이 섬긴 해의 신, 높은 신)이라는 이집트의 표현에서 왔다. “집”은 다음과 관련을 가진다

1. 신전
2. 성채

이 도시는 지중해안을 따라 뻗은 동쪽의 도로로서 “팔레스타인의 길”로 불린 고속도로를 따라 세워진 성채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라암셋”(또는 “라메셋”)은 이집트 왕의 이름이었다(즉, 세티 I 세의 부친). 출애굽 때의 바로는 라암셋 II 세였을 것이다. 이 이름은 삼각주 지역을 일컫는 명칭이었다(참조, 창 47:11).

이 도시는 나일 강의 주요 지류의 한 곳(즉, 펠루사일 지류)에 위치한 성채로서 왕이 거주하던 장소였다. 이 도시는 규모가 크고 장관을 이룬 도시였다. 어떤 파피루스(즉, 파피루스 라이덴 348)에서는 “아피루” 노예들을 시켜 신전에 사용할 돌들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이 노예들은 히브리인 노예들을 가리킬 것이다.

1:12

NASB, NKJV,

NRSV, JPSOA “두려움으로”

TEV, NJB “무서워하다”

NEB, REB “싫어하다”

70 인역 “혐오하였다”

KJV, 페쉬타 “슬퍼하였다”

이 히브리 동사(BDB 880 I, KB 1089, *칼* 미완료형과 *와우*)는 “혐오감을 느끼다,” “혐오하다” 또는 “매우 두려워하다”를 의미한다. BDB 에서 제시하는 마지막 의미를 이 문맥에서 나타낸다(또한 민 22:3; 사 7:16 의 설명을 보라). 보통 이 단어는 혐오를 나타낸다(즉, 레 20:23; 민 21:5).

1:14 이스라엘의 감독자들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과제를 어떻게 해냈는지를 주목하여 보라.

1.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다(BDB 600 I)
2. 어려운(BDB 904) 노동으로(BDB 715; 출 2:11; 5:4,5; 6:6,7 을 주목하라)
3. 모두 엄하였더라(70 인역, BDB 827)

이것은 두 영역에서 행해졌다.

1. 건축
2. 농사짓기

**개역개정 1:15-22**

<sup>15</sup>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sup>16</sup>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sup>17</sup>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sup>18</sup>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sup>19</sup>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던이다 하매 <sup>20</sup>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배서온 버서한 그 배우 가채지니라 <sup>21</sup> 그 사피드으 쉰이 니으 경이하여으므르 쉰이 니이

**1:15**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줄이려는 처음 시도가 실패한 후에(참조, 출 1:12-13), 그들은 새롭고 혹독한 두 번째 계획을 생각해 내었다(즉, 남자 아이를 죽이는 일, 출 1:16,22; 행 7:19).

“낳다,” “출산하다,” “자식을 낳다”(BDB 408, KB 411)라는 용어가 이 문단에서 8 번 나온다 (즉, 출 1:15-22).

▣ “히브리” 이 용어(BDB 720 I)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민족과 구분하여 말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용어가 다음 사항을 알려준다

1. 산파가 속한 민족(즉, 그들의 이름이 이집트 이름이 아니라 셈족의 이름임)을 정의함
2. 그들이 섬기는 민족을 가리킴(70 인역, 벌게이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2.9.2; 이 경우 이스라엘인이 아닌 산파의 믿음을 더욱 드러낸다)

▣ “십브라 . . . 부아” 이 두 이름은 셈족의 이름이다(즉, “아름다움”과 “광채”). 수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단 두 명의 산파를 언급하는 점이 이상스럽다. 이러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다. 이들은 삼각주 지역에 있는 바로의 수도에 가까이 또는 수도 안에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용감하게

야웨를 따르는 자들이었다(참조, 출 1:17,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특별주제: 경외함[구약]을 보라).  
하나님께서서는 출 1:21 에서 그들을 높이셨다.

### 특별주제: 경외함(구약)

#### I. 창세기 22:12 에서 제시한 설명

이 용어(BDB 431, KB 432)는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로써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는 “두려움”을 뜻할 수 있지만 (참조, 창 3:10; 18:15; 20:8; 28:17; 32:8; 42:35; 43:18),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자세를 말하는 어떤 문맥에서는 “경외심,” “존중,” “존경” 등으로 번역되었다. 다음의 본문을 참고하라: 창 42:18; 출 1:17; 9:30; 18:21; 레 19:14,32; 25:17,36,43; 신 6:2,24; 10:12,20; 14:23; 17:19; 25:18; 28:58; 31:12-13; 시 33:8. 이 “두려움”은 예배와 순종에서 출발한다(참조, 출 20:20; 신 6:13,24; 특별주제: 지키다를 보라). 이것은 삶과 관련이 있는 모습이지, 어떤 사건, 장소, 신조, 규칙 등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순종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에서가 아니라 존경과 사랑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다. 불순종이 법을 거스리는 일임은 물론이지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사랑에 거스리는 일이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창 15:6)은 창 22 장에서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났다!

#### II. 사 41:10 에서 제시한 설명

이것은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다(참조, 사 41:13,14; 43:1,5; 44:2,8; 51:7,12; 55:4,14).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주목하여 보라.

1. 야웨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신다(즉, 시 23:4)
2. 야웨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즉, 창 15:1; 출 14:13; 사 6:23; 사 41:10)
3.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 것이다

바로의 이름을 빠져 있지만 이 두 산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이것은 역사적 기술이라기 보다는 신학적 기술이다!

성경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 시대적으로 기록된 서양의 역사서가 아니라 동양의 역사서임을 기억하라. 성경의 역사는 선택적이고 신학적인 역사이다. 특별주제: 구약의 역사적 이야기체 및 특별주제: 근동의 문화와 비교하여 본 구약의 역사기록을 보라. 또한 구약 구전의 초기성에 관하여 알톤과 샌디가 최근에 저술한 *성경의 잃어버려진 세계*를 보라.

▣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이것은 남성형 명사로서(BDB 7) 일반적으로 토기장이의 작업대를 가리킨다(참조, 렘 18:3). 이것은 명백히 두 개의 돌로 되어 있다(히브리어로 복수형임).

1. 하나는 평평하게 놓였고 다른 하나는 세워져 있었다. 여인이 그 하나 위에 웅크린 후 다른 돌을 붙잡았다.
2. 두 넓적다리 밑에 각각 돌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 임신한 여인이 그곳에 앉았다(ZPEB, 제 1 권 617 쪽). 시리아역에서는 “두 무릎”으로 되어 있다.
3. 이 단어는 산파가 앉는 의자를 가리켰을 것이다(KB 16).
4. 70 인역에서는 “해산의 때에”로 되어 있다(녹스역).
5. 이것은 남자의 성기를 가리킬 수 있다(에드가 굿스피드, 로더햄스 강조 성경; 즉, 아기의 성별을 봄; 이 히브리 어근의 여성형은 “돌”을 뜻함, BDB 6).

1:17 “하나님” 이것은 *엘로힘*(BDB 43, KB 52)이라는 이름으로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자주 사용하였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

가. *엘*(BDB 42, KB 48)

1. 비록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가 아카디아어의 “강하다” 또는 “능하다”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신을 일컫는 이 고대 용어의 고유한 의미는 불확실하다(참조, 창 17:1; 민 23:19; 신 7:21; 시 50:1).
2. 가나안 만신전에서 높은 신은 *엘*이다(라스 삼라 본문)
3. 성경에서 *엘*은 일반적으로 다른 용어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이 단어가 들어있는 합성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낸다.
  - ㄱ. *엘-엘론* (“아주 높으신 하나님,” BDB 42 & 751 II), 창 14:18-22; 신 32:8; 사 14:14
  - ㄴ.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또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BDB 42 & 909), 창 16:13
  - ㄷ.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또는 “공홀이 많으신 하나님” 또는 “산의 하나님,” BDB 42 & 994), 창 17:1; 35:11; 43:14; 49:25; 출 6:3
  - ㄹ.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BDB 42 & 761), 창 21:33. 이 용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다. 삼하 7:13,16

표. “나의 구원,” 사 12:2

ㅎ. “크고 능하신,” 렘 32:18

ㄱ. “값으심,” 렘 51:56

5. 수 22:22 에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함께 나온다(*엘, 엘로힘, 야웨*가 반복됨)

나. *엘론* (BDB 751, KB 832)

1. 이 이름의 기본적인 뜻은 “높은,” “존귀하신,” 또는 “높이 들리신”이다(참조, 창 40:17; 왕상 9:8; 왕하 18:17; 느 3:25; 렘 20:2; 36:10; 시 18:13).
2. 이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칭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 ㄱ. *엘로힘* - 시 47:1-2; 73:11; 107:11
  - ㄴ. *야웨* - 창 14:22; 삼하 22:14
  - ㄷ. *엘 샤다이* - 시 91:1,9
  - ㄹ. *엘* - 민 24:16
  - ㅁ. *엘라* - 다니엘 2-6 장, 에스라 4-7 장에서 많이 사용됨; 단 3:26; 4:2; 5:18,21 에서는 *일라이르* (아람어로 “높으신 하나님”)와 연결됨
3. 이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위해 종종 사용하였다.

7. 이스라엘의 유일신인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점은 특이하다! 비록 아주 분명하지만 않지만, 여기에는 여러 이론이 있다:

ㄱ. 히브리어에는 많은 복수형이 있는데 이것은 종종 강조를 나타낸다. 이것은 복수형이 어떤 개념을 극대화하는 후기의 히브리어 문법적 특징으로서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의 개념을 가진다.

ㄴ. 이것은 히브리어의 특이한 현상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크드크 만니크





3.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 언약적 이름을 매우 거룩하게 여겼다(4 자음으로 된 하나님의 이름). 따라서 유대인들은 출 20:7; 신 5:11; 6:13 의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에 히브리어로 “주인,” 남편,” “주”-*아돈* 혹은 *아도나이*(나의 주)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야웨가 나올 때마다 “주”로 발음했다. 이것이 왜 야웨를 주(LORD)라고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다.
4. *엘*처럼 야웨는 종종 다른 용어와 함께 사용되어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강조한다. 가능한 조합의 여러 경우 가운데 그 일부를 여기에 제시했다.
  - ㄱ. *야웨-이레*(야웨께서 공급하신다, BDB 217 & 906), 창 22:14
  - ㄴ. *야웨-로페카*(야웨는 너의 치료자이시다, BDB 217 & 950, *칼* 분사), 출 15:26
  - ㄷ. *야웨-니시*(야웨는 나의 깃발, BDB 217 & 651), 출 17:15
  - ㄹ. *야웨-메카디스켄*(야웨는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BDB 217 & 872, *피/엘* 분사), 출 31:13
  - ㅁ. *야웨-샬롬*(야웨는 평화이시다, BDB 217 & 1022), 사 6:24
  - ㅎ. *야웨 사바오*(마그이 야웨 BDB 217 & 872) 사사 1:2, 11, 14, 15, 2, 조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을 사용한다.

1. *엘*
2. *엘로힘*
3. *아돈*
4. 야웨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여러 이름이 여러 저자들을 나타낸다고 본다. 즉, 오경의 편집자들이 그 여러 자료를 오경으로 결합시켜 놓은 것이라고 여긴다(즉, J, E, P, D 자료; 특별주제: 오경의 자료비평을 보라).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견해는 히브리어적 용법에 기초한 것이라기 보다 오늘날의 서구적 문학 이론에 의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각각 하나님의 다른 성품을 나타낸다. 창 1:1 에 있는 설명을 보라.

**특별주제: 모세오경의 문서비평 (J,E,D,P)**  
(창세기 1-11 장의 서론[IV 항]에서 가져옴)

가. 오늘날의 학자들

1. 분명히 오경에 약간의 편집으로 추가된 부분이 있다(이집트 서기관이 가진 특징과 같이 고대의 것을 당시의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ㄱ. 창세기 12:6; 13:7; 14:24; 21:34; 32:32; 36:31; 47:11

ㄴ. 신명기 3:14; 34:6

ㄷ. 고대 서기관들은 고도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본문을 다루는 방법은 나라마다 달랐다:

- (1) 메소포타미아의 서기관들은 어떤 것도 고치지 않기 위해 조심했고 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들이 한 내용을 점검했다. 고대 수메르 서기관은 기록하기를: “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복사되고, 개정되고, 비교되고, 지속적인 서명에 의해 입증되었다.” 주전 1400 년경.
- (2) 이집트 서기관들은 고대문서를 그 시대의 독자에게 맞도록 하기 위해 자유롭게 수정했다. 콥란(즉, 사해사본)의 서기관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했다.

2. 19 세기의 학자들은 오경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자료들로 이루어진 문서라고 이론화했다 (그래프-웰하우젠). 이 이론은 다음을 기초로 한다:

- ㄱ.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름의 사용
- ㄴ. 본문 속에서의 분명한 중복들
- ㄷ. 내용의 문학적 형식
- ㄴ. 내용에 나타난 다른 신학적 배경

3. 가정되는 자료와 시기:

- ㄱ. J 자료(남방 이스라엘에서 야웨라는 이름을 사용) - 주전 950 년
- ㄴ. E 자료(북방 이스라엘에서 엘로힘을 사용) - 주전 850 년
- ㄷ. J 자료와 E 자료가 결합됨 - 주전 750 년
- ㄴ. D 자료(요시아 왕의 개혁 때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 발견된 “율법책”[왕하 22:8]은 요시아 왕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그 시대의 알려지지 않은 제사장에 의해 쓰여진 신명기로 추측되었다.) - 주전 621 년

(L) *엘로힘*-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 공급자, 유지자이신 하나님(참조, 시 19:1-6:104).

(D) 다른 고대근동 본문은 높은 신을 묘사하기 위해 여러 이름을 사용한다(참조, *성경 난제 백과사전*, 글리슨 L. 아처, 68 쪽).

(3) 통일된 문학 작품에서 형식과 어휘의 다양성이 발생하는 것은 성경 이외의 근동 문학에서 일반적이다(R. K. 해리슨, *구약개론*, 522-526 쪽).

나. 고대근동 문학으로부터의 증거는 모세가 창세기를 쓰기 위해 설형문자로 쓰여진 문서나 메소포타미아 형식(족장적)의 구전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코 영감의 줄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문학 현상(참조, P. J. 와이즈만의 *창세기에 대한 바벨론 자료의 새로운 발견*)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문체, 형식, 어휘에 대한 이집트어 영향이 현저한 창 27 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어 이집트어

**1:19**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출 1:20-21). 윤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수 2:1-7 에서 라합과 정탐군들에 관한 내용과 비슷하다. 이것은 제 2 차 세계대전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나찌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어느 윤리가 더 가치 있는가?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욱 더 “두려워”하였다.

윤리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하여는 *성경의 어려운 말*(137 쪽)과 글리슨 알처의 *성경의 어려운 말 백과사전*(109-110 쪽)을 보라.

**1:22 “나일 강에 던지고”** 나일 강은 이집트에서 주요 신 가운데 하나였다(즉, *하피*, 이집트에 매년 생명을 가져오는 홍수의 신). 어떤 면에서 이러한 죽임은 제물을 바치는 행위였다. 이 절에서 죽임의 수단으로 언급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 즉각적으로 물에 빠트림
2. 짐승에게 공격을 받게 함
3. 모세의 경우처럼 바구니에서 물에 떠내려 가다가 영양실조에 의한 사망

나는 1 항의 설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3 항은 모세를 살리기 위한 시도였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출 1:7 은 창 12:1-3 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2.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던 일은 벌이었는가?
3. 왜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였는가?
4. 단 두 명의 산파만 있었는가?
5. 왜 히브리인의 아이들이 나일 강으로 던져졌는가?

# 출애굽기 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모세의 새로운 삶	모세가 태어나다	모세의 유아기와 초기의 일	모세의 출생	모세의 출생
2:1-4	2:1-4	2:1-4	2:1-4	2:1-4
2:5-10	2:5-10	2:5-10	2:5-6 2:7 2:8-10	2:5-10
2:11-14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다 2:11-15	2:11-15a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 2:11-13 2:14-15a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 2:11-15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 2:15		2:15b-22	2:15b-18	
2:16-22	2:16-25		2:19 2:20	2:16-22
2:23-25		모세를 부르심 (2:23-4:17) 2:23-25	2:21-22 2:23-2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다 2:23-25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로 구분한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의 것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이다. 각 문단은 오직 한 가지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참조, 히 11:27)이 활동하여 이스라엘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다(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 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

나는 독자인 당신에게 내가 이 점에 있어서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나의 조직신학은 칼빈주의나 세대주의의 것이 아니라 대위임에 기초한 복음주의이다(즉, 마 28:18-20; 눅 24:46-47; 행 1:8).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예, 창 3:15; 12:3; 출 19:5-6; 렘 31:31-34; 겔 18 장; 36:22-39; 행 2:23; 3:18; 4:28; 13:29; 롬 3:9-18, 19-20, 21-31), 즉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이(참조, 창 1:26-27)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는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된다(참조, 갈 3:28-29; 골 3:11). 예수님은 감추어져 계셨지만 지금은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이시다(참조, 엡 2:11-3:13)! 성경의 열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이다.

이 점은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 미리 갖고 있는 모든 색채이다(즉, 요나). 나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본문을 읽는다. 이것은 정말 어떤 편향을 나타낸다(모든 해석자가 편향을 가진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사실에 기초한 전제조건이다.

창세기 1-2 장의 초점은 야웨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과 교제하기 위한 장소를 만드신 일에 있다(참조, 창 1:26, 27; 3:8). 물질세계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이러한 관계를 위한 무대가 된다.

1. 성어거스틴은 이것이 각 사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을 닮은 구멍으로서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하였다.
2. C. S. 루이스는 이 지구를 “만져주심을 받은 행성”이라고 불렀다(즉,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구약에서는 이러한 신적 의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

1. 창 3:15 은 야웨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반역으로 인해 상당히 엉망인 상태에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임을 처음으로 약속하시는 본문이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창 12 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6. 야웨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우주적 구속계획을 계속적으로 계시하셨다.

ㄱ. 이사야 – 2:2-4; 12:4-5; 25:6-9; 42:6,10-12; 45:22; 49:5-6; 51:4-5; 56:6-8; 60:1-3; 66:18,23

ㄴ. 예레미야 – 3:17; 4:2; 16:19

ㄷ. 미가 4:1-3

ㄹ. 말라기 1:11

이 우주적 강조는 “새 언약”(참조, 렘 31:31-34; 겔 36:22-38)의 제시를 통하여 촉진되었다. 새 언약은 타락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야웨의 공휟하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새 심장”과 “새 마음”과 “새 영”이 제시된다. 순종이 중요한데, 이것은 단지 외적 모양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이어야 한다(참조, 롬 3:21-31).

신약에서는 우주적인 구속계획을 여러 방법으로 강조한다.

1. 대 위임 – 마 28:18-20; 눅 24:46-47; 행 1:8

2.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즉, 예정) – 눅 22:22; 행 2:23; 3:18; 4:28; 13:29

3.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 요 3:16; 4:42; 행 10:34-35; 딤후 2:4-6; 딤후 2:11; 벧후 3:9; 요일 2:2; 4:14

4. 그리스도께서 구약과 신약을 연합시키신다 – 갈 3:28-29; 엡 2:11-3:13; 골 3:11. 모든 인간이 가진 장애물과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이스라엘의 곤경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라(참조, 창 15:12-21).

- 나. 모세는 한 노예 가정의 세 번째 아기였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 교사, 행정가가 된다.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가 뛰어난 위치를 가졌으나(특별주제: 장자를 보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장자가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종종 선택하셨다. 족장들의 경우, 그들의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나 아기를 낳게 됨으로써 이 같은 신학을 나타낸다.

#### 특별주제: 장자

“장자”(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1. 이것의 구약적 배경은 가족의 장자가 갖는 뛰어난 위치를 가리킨다(참조, 시 89:27; 눅 2:7; 롬 8:29; 히 11:28)
2. 골 1:15 에서 이 단어는 예수께서 창조의 처음이 되심을 말하는데 이는 아마도 잠 8:22-

3. 골 1:18; 고전 15:20(또한 이곳)에서 이 단어는 예수께서 죽은 자들의 장자됨을 가리킨다
4. 이것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칭호로 사용되었다(참조, 시 89:27; 히 1:6; 12:23). 이것은 예수의 중요성과 그의 중심되심과 관련된 여러 모습을 묶어 제시하는 칭호였다. 이 무덤에서 3 학과 4 학이 선명히 잘 만났다

- 다. 모세는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즉, 바로의 왕궁에서, 참조, 행 7:22).
1. 법과 질서(다른 고대 근동의 문화)
  2. 군사
  3. 학문(즉, 지리, 문학, 수학, 과학, 의학 등)
  4. 사막에서의 생존법(이집트 문명과 미디안에서의 생활)
- 라. 모세가 어디에서 언약을 맺으시는(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유일신 신앙(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곧 하나님과 야웨(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께 대한 내용을 배웠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1. 그가 집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로부터(가장 가능성이 높다)
  2. 노예들의 종교에 대해 이집트 교사들이 가르친 내용을 통하여
  3. 이드로로부터,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음

####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

“유일신 신앙”이라는 개념(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신교의 “높은 신” 혹은 이란의 이원론 (조로아스터교)에서 말하는 선한 신과 구별이 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이다(아브라함, 주전 2000 년). 이집트에서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이 개념이 나타났다(아멘호텝 4 세, 아케나텐으로도 알려짐, 주전 1367-1350 혹은 1386-1361 년).

이 개념은 구약에서 여러 번 나타난다.

1. “우리 *하나님* 야웨와 같은 이가 없다,” 출 8:10; 9:14; 신 33:26; 왕상 8:23
2.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신 4:35,39; 32:39; 삼상 2:2; 삼하 22:32; 사 45:21; 44:6,8; 45:6,21
3. “야웨는 한 분이시다,” 신 6:4; 롬 3:30; 고전 8:4,6; 딤후전 2:5; 약 2:19
4. “당신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삼하 7:22; 렘 10:6
5. “당신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시 86:10; 사 37:16
6.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사 43:10
7.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사 45:5,6,22
8.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사 45:14,18
9.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사 45:21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심(철학적 유일신론)을 나타내는 처음 본문은 이른 시기에 속한다(참조, 출 8:10; 9:14; 신 4:35,39; 33:26). 이에 대한 완전하고 긴 형태의 주장은 이사야서 43-46 장에서 발견된다(참조, 43:11; 44:6,8; 45:7,14,18,22; 46:5,9).

신약은 롬 3:30; 고전 8:4,6; 엡 4:6; 딤후 2:5; 약 2:19 에서 신 6:4 의 내용을 암시한다. 예수께서는 마 22:36-37; 막 12:29-30; 눅 10:27 에서 이것을 첫 계명으로 말씀하셨다. 신약은 물론 구약도 다른 영적 존재(귀신, 천사)의 실재성을 인정하지만,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만을 주장한다(야웨, 창 1:1).

성경적 유일신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유일하시다(존재적 의미를 가정하지만 이를 특정적으로 말하지 않음)
2.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참조, 창 1:26-27; 3:8)
3. 하나님은 윤리적인 분이시다(참조, 출 34:6; 느 9:17; 시 103:8-10)
4.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창 1:26-27) 교제를 위해(즉, 2 항)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는 시기하시는 분이시다(참조, 출 20:2-3)

신약에서 볼 때

1.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이겨지지 않으신 분이시다(참조, 1코 8:4-6; 12:2-3)

마. 이 장에서는 진정한 역사적 배경을 나타내는 여러 이집트 용어가 나온다.

1. “궤”/“바구니”(BDB 1061), 출 2:3
2. “골풀”(BDB 167), 출 2:3
3. “갈대”(BDB 693 I), 출 2:3
4. “나일 강가”(문자적, “강의 입술”; 여러 셈족어에서 이 어근이 잘 알려져 있었음), 출 2:3

바. 마지막 문단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과 자기 백성’에게 집중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구약])!

사. 모세의 출생과 삶에 대하여 행 7:17-39 과 히 11:23-31 에서 말한다.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

1. 자비하심(BDB 933) - 출 34:6; 신 4:31; 대하 30:9; 시 86:15; 103:8; 111:4;  
느 9:17,31; 율 2:13; 온 4:2

3. 노를 더디내심(BDB 74 와 BDB 60) - 출 34:6; 시 86:15; 103:8; 느 9:17; 율 2:13; 온 4:2
4. 인자가 많으심(BDB 912 I 과 BDB 338)  
- 출 34:6-7; 시 86:15; 103:8; 느 9:17; 율 2:13; 온 4:2
5. 신실하심(BDB 54) - 출 34:6; 시 86:15
6. 용서가 많으심(BDB 699) - 느 9:17
7. 버리지 않으심(BDB 736 I) - 느 9:17,31
8. 악을 버리심(BDB 636, KB 688, *ניפול* 분사 + BDB 948) - 율 2:13; 온 4:2
9. 위대하심(BDB 42, 152) - 느 1:5; 9:32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1-4

<sup>1</sup>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sup>2</sup>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sup>3</sup>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 <sup>4</sup>그의 누이가

2:2 “아들을 낳으니” 우리는 다른 본문을 통하여 모세에게 형과 누나가 있었음을 안다(참조, 출 7:7). 이것은 히브리인의 역사적 이야기체가 서구의 역사와 다름을 나타낸다. 특별주제: 구약의 역사적 이야기체 및 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문화와 비교하여 본 구약의 역사 기록을 보라.

### 특별주제: 당시의 근동 문화와 비교하여 본 구약의 역사적 기록

#### 메소포타미아의 자료

1. 대부분의 고대 문학과 같이 주제가 대개 왕 혹은 어떤 국가적 영웅을 되어 있다.
2. 사건들이 종종 선전용으로 각색되었다.
3. 대개는 부정적인 내용이 없다.
4. 그 목적이 현재의 정부를 지지하거나 혹은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5. 역사적 왜곡이 수반되었다
  - ㄱ. 커다란 승리를 주장하기 위한 각색
  - ㄴ. 이저세 이이나 이서차오 형제이 거으르 도리

### 이집트의 자료

1. 이 자료는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의 정적인 면을 매우 강조한다
2. 왕과 그의 가족이 이 문학에서 주된 대상이 된다.
3. 이들의 자료는 메소포타미아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선전을 위한 것이다.
  - ㄱ. 부정적이 부분이 빠져 있고
  - ㄴ. 각색된 모습을 제시함

### 랍비들의 자료(후기)

1. 성경이 미드라쉬와 관련이 있도록 시도한다. 미드라쉬는 해석자의 믿음에서 본문으로 강조점을 옮기며, 저자의 의도나 본문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초점을 두지 않는다
  - ㄱ. *할락카*는 삶과 관련이 있는 진리나 규칙을 다룬다
  - ㄴ. *학가디*는 삶에 대한 적용점과 삶에 격려를 주는 내용을 다룬다
2. 페쉴르 - 사해 사본에 있는 후기에 발전된 내용.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예언의 성취를 현재의 상황을 보게 하는 모험론적 접근을 사용했다. 현재의 상황은 예언된 종말(오는 새 시대).

고대 근동의 장르 및 후기에 속하는 유대 문학이 구약 성경과 분명히 다르다. 구약의 장르가 당시의 문학이 갖는 일부 특징을 종종 가짐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여러 면에서 독특한데 특히 역사적 사건을 기술함에 있어서 그러하다. 히브리인의 역사기록과 가장 비슷한 것은 히타이트 문학이다.

고대의 역사 기록이 오늘날의 서구적 역사기록과 어떻게 다른 지를 인식하여야만 한다. 여기에 해석의 문제가 놓여 있다. 오늘날의 역사기록은 객관적(그것이 가능하다면, 선전을 하지 않는)인 접근을 시도하며 연대적으로 “정말로 일어난” 일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자료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상세한 내용으로 특징되어 진다!

근동의 역사가 오늘날의 역사와 같지 않다는 점은 그것이 잘못되었고 열등하며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서구의 현대 역사는 그것을 쓴 사람의 편향(전제들)을 반영한다. 성경의

▣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어떤 어머니라도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이 히브리 형용사(BDB 373)는 “멋지게 생긴 것”을 뜻한다(참조, 창 6:2; 삼상 9:2; 왕상 20:3; 단 1:15).

▣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왜 이 기간을 언급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마 이 표현은 그를 숨길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었음을 나타낼 것이다.

1. 그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졌다(알란 코울)
2. 그가 너무 커졌다(F. B. 후에이)
3.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스파이가 남자 아기를 찾아내기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2:3

NASB, JPSOA “버들가지 바구니”

NKJV “꿀풀 상자”

NRSV, NJB “파피루스 바구니”

TEV “갈대로 만든 바구니”

페쉬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

맛소라 본문에서는 “바구니”(BDB 1061)와 “파피루스”(BDB 167)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 “파피루스”라는 단어는 “들이키다(BDB 167)라는 동사에서 파생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물을 빨아들이는 식물이다. 사 18:2 에서는 파피루스 갈대를 엮어서 만든 배에 대하여 언급한다.

“바구니”라는 용어는 노아의 방주에 대하여 사용한 것과 같은 단어이다. 이 단어의 어근은 “상자”를 뜻하는 이집트 용어일 것이다.

▣ “역청과 나무 진” 두 가지(BDB 330 과 278) 다 석유에서 왔으며(참조, 창 11:3; 14:10) 역겨운 물질이다(NIDOTTE 제 2 권 711 쪽). 여기에 열을 가해 파피루스 갈대를 엮어 놓은 것 위에 바르면 방수처리가 된다.

▣ 출 2:3 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집트 공주가 아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모세의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계획하였음을 시사한다(참조, 출 2:4-7).

2:4 “그의 누이” 우리는 출 15:20 을 통하여 그녀의 이름이 미리암인 것을 안다(참조, 출 7:7; 민 26:59; NIDOTTE 제 4 권 942-943 쪽).

개역개정 2:5-10

<sup>5</sup>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sup>6</sup>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sup>7</sup>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sup>8</sup>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sup>9</sup>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값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2:5 나일 강은 이집트의 신화에서 신으로 여김을 받았다(즉, 생명을 주는 홍수를 해마다 일으키는 *하피*). 그 강에서 목욕하는 일은 종교적 행위였다.

2:6 바랐던 그대로 공주가 아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공주는 즉시 왜 그 아기가 나일 강에 있는지를 알았을 것이다. 모세의 누이가 도움을 주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 “아기... 아기... 아기” 모세에 대하여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였다.

1. 아기 – BDB 409(단수형)
2. 아기 – BDB 654
3. 아기 – BDB 409(복수형)

NIDOTTE 제 3 권 125 쪽에서는 “아기”(BDB 654)라는 용어가 다양한 연령에 대하여 사용되었음을 제시한다.

1. 태어나지 않은 아기 – 삿 13:5,7,8,12
2. 갓난 아기 – 삼상 4:21
3. 생후 3 개월된 아기 – 출 2:6
4. 젖을 떼지 않은 아이 – 삼상 1:22
5. 젖을 떼는 아이 – 삼상 1:24
6. 17 세인 소년 – 창 37:2
7. 30 세인 사람 – 창 41:12,46

2:8 “소녀” 이 단어는 *אלמא*(BDB 761)로서 결혼적령기의 젊은 여자를 가리킨다. 고대 근동에서는 12 세 이상을 뜻하였다. 이 단어가 사 7:14 에서도 사용되었다(온라인에서 자세한 설명을 보라). 미리암은 처녀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결혼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에게 대하여도 사용되었다(NIDOTTE 제 3 권 415-419 쪽).

2:9 모세가 얼마나 어머니와 함께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다. 고대 근동에서 여인들은 수 년간 자기 자녀를 돌보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처한 곤경에 대하여 그녀가 모세에게 얼마나 자주 말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모세가 자신의 민족적 배경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그들의 고초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그의 어머니가 무언가 말해주었음이 분명하다.

▣ “내가 그 샅을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설적 일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다.

2:10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공주가 “바구니 아기”에게 “모세”(BDB 602, KB 642)라는 이집트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 이름은

1. “~에게 태어난”을 뜻하는 이집트어 어근인 *모쉬*에서 왔는데, “신에 의해 태어난 또는 신에 의해 보호받은”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그 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KB); 문자적으로는 “~의 아들”임(즉, 툏-모세).
2. 히브리어 분사인 *마사*라는 용어의 소리에 기초한다(“끌어내는 자,” 참조, 삼하 22:27; 시 18:16; NIDOTTE 제 2 권 1120 쪽). 이 설명은 출 2:10 에 대한 설명으로 더 적절하다.

#### 개역개정 2:11-14

<sup>11</sup>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sup>12</sup>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sup>13</sup>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sup>14</sup> 그가 이르되 누가

2:11-12 모세의 과격한 행동을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1.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2. (일부) 기독교 주석가들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어떤 이는 모세가 자기 백성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한 것인데 실패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모세의 동기에 대해 지나치게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정심으로 행한 일이 한 이집트인의 죽음을 가져와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도망하여 40 년동안 사막에서 살게 했다. 이 일은 다음과 같다

1. 모세가 후에 감당할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심(참조, 행 7:25)
2.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성취하려는 시도에 대한 벌

모세의 행동은 다음 사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1. 그의 백성에 대한 그 자신의 동정심
2. 허풍을 떠는 히브리 종에게 그가 배신을 당한 느낌
3. 그가 바로를 무서워함(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2.10.11)

**2:11** 모세의 나이는 밝히지 않지만, 그가 “장성한 후에”(BDB 152)라고 말한다. 이 용어를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였다

1. 창 21:8 에서 젓을 떤 이삭에게 대하여
2. 창 25:27 에서 젊은 이에 대하여
3. 창 38:11,14 에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아마 13 세 정도)
4. 행 7:23 에 나오는 스테반의 설교에서 그 때에 모세가 40 세였다고 말함

모세의 생애를 40 년으로 이루어진 세 부분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적어도 전통에 근거할 때).

1. 출 2:11 까지는 이집트의 왕가의 일원이었다(즉, 그가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짐)
2. 80 세가 될 때까지 이드로와 함께 살았다(즉, 출 2:23; 7:7; 그가 “아무 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겨짐)
3. 80-120 세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그가 배웠다

40 이라는 숫자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상징적 수를 보라.

▣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것은 모세가 느낀 깊은 동정심을 시사한다. 깊은 동정심 때문에 그가 자신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1. 무거운 짐을 짐 - 출 1:11
2. 고역함 - 출 2:11
3. 역사 - 출 5:4,5
4. 무거운 짐 - 출 6:6,7

2:12 이 절은 모세가 막 행하려는 일이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그는 그 일을 행하였다(참조, 히 11:24-27)!

2:13-14 모세의 동정심이 또다시 명백히 드러난다. 한편, 그가 이미 행한 일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잘 알려진 일이 되어 버렸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았고 또 말하였다!

#### 개역개정 2:15

<sup>15</sup>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2:15 바로의 궁전에 긴장이 감돌았다. 바로의 관심은 노예 감독자의 죽음이나 암살이 아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로는 자신의 가족에서 모세를 제거할 기회를 잡은 것이다.

▣ “미디안” 이 이름은 구약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장소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1.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얻은 아이로서 동쪽으로 보내진 자(참조, 창 25:1-6; 대상 1:32)
2. 이스마엘과 관련이 있는 상인의 그룹(참조, 창 37:25-36)
3. 모세가 도망을 친 시나이 반도의 어떤 지역(참조, 출 2-4 장; 특히 3:1-2)
4. 요단강 저편의 남쪽에 있는 어떤 지역(참조, 왕상 11:18)
5. 민 22:4,7 에서는 모압의 지도자들과 관련이 있는 미디안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함
6.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원수(참조, 사 6-8 장)
7. 수 13:21 에서는 그들의 다섯 왕에 대하여 말한다. 그들은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의 형태였을 것이다. 요단강 이편의 남쪽에서 아카바만의 동쪽에 이르는 지역에는 팔레스타인의 도시국가가 있었다

#### 개역개정 2:16-22

<sup>16</sup>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 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sup>17</sup>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떼에게 먹이니라 <sup>18</sup>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sup>19</sup>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떼에게 먹였나이다 <sup>20</sup>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sup>21</sup>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를 버려두고 왔나니 <sup>22</sup>그가

**2:16 “미디안 제사장”** 이 사람은 구약에서 여러 이름/호칭으로 불린다.

1. 르우엘(“ 열의 친구,” 출 2:18)
2. 이드로(“뛰어남,” 출 3:1; 4:18; 18:2,5,6,9,10,12)
3. 예달(이드로의 또 다른 철자법, 출 4:18 에는 두 가지가 함께 나온다)
4. 호밥(“친애하는,” 민 10:29; 삿 4:11)

그가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겐 사람이라고 말하는 전통도 있다(삿 1:16; 4:11).

▣ **“일곱 딸”** 사람들은 다음 사항을 궁금하게 여긴다:

1. 그에게 아들이 하나도 없었는가
2. “일곱”이 상징적 수인가(특별주제: 성경에서의 상징적 수를 보라)
3. 왜 일곱 딸 모두 물을 길러 보냈는가

나는 세 번째 항에 대하여 두 가지 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ㄱ. 짐승의 떼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했다
- ㄴ. 딸들이 물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하였다(분명히 그들은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로부터 언제나 어려움을 겪었다, 참조, 출 2:18)

**2:17 “모세가 일어나”** 이 동사(BDB 877, KB 1086, 칼 미완료형과 ㄹ우)는 다음 내용을 의미한다.

1. 그가 앉아 있다가 지금은 자기 발로 일어서 있다
2. 목자들을 제지하고 젊은 여인들을 돕기 위해 그가 행동을 취하였다
  - ㄱ. 목자들의 방해를 멈추게 하였다
  - ㄴ. 직접 짐승들에게 물을 먹였다
    - (1) 물을 길었다
    - (2) 그 물을 구유로 가져갔다

모세가 취한 여러 행동에 대해 본문에서 침묵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것은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전승이 아니다. 다른 이를 도우려 애쓰는 사람으로 모세를 묘사하고 있다(참고 출 2:11,17).

**2:19 “한 애굽 사람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의 복장을 하였고 이집트어를 사용하였다. 이 젊은 여인들은 셈족과 이집트 사람의 미묘한 인종적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였다.

▣

NASB, NKJV

TEV, NJB “그가 심지어 물을 길었다”

NKJV “그가 물을 충분히 길었다”

이것은 같은 어근(BDB 194, KB 222)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완료형 동사의 용법으로서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충분히 한 행동을 나타낸다. 모세가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이 할 일을 감당하였다.

**2:20** 이것은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환영을 나타낸다. 즉각적인 환영이 지속적인 관계로 바뀌었다.

**2:21-22** 이 두 절은 모세와 이 가족 사이에 형성된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다(참조, 출 2:23). 출 3:1 에서는 긴 기간을 생략하였음을 시사한다.

**2:21 “십보라”** 이 용어(BDB 862, KB 1047)는 어떤 종류의 작은 새를 뜻한다.

**2:22 “게르솨”** 이 이름(BDB 177)은 두 개의 히브리 단어인 *게르* *솨*에서 왔다(“그곳에 있는 나그네,” NASB 난외주에서; “나그네”라는 단어[BDB 85 II]는 출 12:48 에 나온다). 모세의 장자를 구약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다(참조, 출 2:22; 18:3; 대상 23:15,16; 26:24).

#### 개역개정 2:23-25

<sup>23</sup>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sup>24</sup>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

**2:23 “애굽 왕은 죽었고”** 나는 이 왕이 세티 I 세(주전 1309-1290 년)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단순히 추측일 뿐이다(서론의 V 항을 보라).

▣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러한 사항이 출 2:25; 3:7,9; 신 26:7 과 약 5:4 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참조, 출 2:24; 특별주제: 중보기도를 보라).

#### 특별주제: 중보기도

##### I. 서론

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1. 개인 기도, 막 1:35; 눅 3:21; 6:12; 9:29; 22:29-46

- 라. 기도의 주된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및 그 분과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 마. 기도의 범위는 신자와 관계된 일이나 사람을 포함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단 한 번 구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생각이나 염려가 생길 때마다 거듭해서 계속 기도할 수도 있다.
- 바. 기도는 여러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 1.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
  - 2. 하나님의 임재, 교제, 공급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림
  - 3. 과거와 현재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함
  - 4. 우리가 갖고 있는 필요나 원하는 것을 위해 간구함
  - 5.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의 필요에 대해 성부 앞에 증보함
- 사. 증보기도는 신비하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그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종종 우리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변화, 응답, 혹은 필요에 영향을 미친다.

## II. 성경의 자료

### 가. 구약

- 1. 증보기도의 몇 가지 예
  - ㄱ.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간구함, 창 18:22 이하
  - ㄴ.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
    - (1) 출애굽기 5:22-23
    - (2) 출애굽기 32:31 이하
    - (3) 신명기 5:5
    - (4) 신명기 9:18,25 이하
  - ㄷ.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함
    - (1) 사무엘상 7:5-6,8-9
    - (2) 사무엘상 12:16-23
    - (3) 사무엘상 15:11

ㄴ. 교회들을 위한 기도

- (1) 로마서 1:9
- (2) 에베소서 1:16
- (3) 빌립보서 1:3-4,9
- (4) 골로새서 1:3, 9
- (5) 데살로니가전서 1:2-3
- (6) 데살로니가후서 1:11
- (7) 디모데후서 1:3
- (8) 빌레몬서 4 절

ㄷ. 바울이 교회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함

- (1) 로마서 15:30
- (2) 고린도후서 1:11
- (3) 에베소서 6:19
- (4) 골로새서 4:3
- (5) 데살로니가전서 5:25
- (6) 데살로니가후서 3:1

2. 교회의 증보기도 사역

ㄱ. 서로를 위한 기도

- (1) 에베소서 6:18

다. 다른 측면

1. 인내

ㄱ. 눅 18:1-8

ㄴ. 골로새서 4:2

2. 계속 구함

ㄱ. 마태복음 7:7-8

**2:24 “들으시고... 기억하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묘사함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의 용어와 범주를 가지고 임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신인동형적 표현이라고 부른다.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으며(참조, 출 3:7,9; 6:5; 신 26:7) 또 지금도 듣고 계신다!

####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신인동형적 언어)**

I. 이러한 용법은 구약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종류의 표현이다(일부만 예로 들었음)

가. 신체의 일부분

1. 눈 - 창 1:4,31; 6:8; 출 33:17; 민 14:14; 신 11:12; 속 4:10
2. 손 - 출 15:17; 민 11:23; 신 2:15
3. 팔 - 출 6:6; 15:16; 신 4:34; 5:15; 26:8
4. 귀 - 민 11:18; 삼상 8:21; 왕하 19:16; 시 5:1; 10:17; 18:6
5. 얼굴 - 출 33:11; 민 6:25; 12:8; 신 34:10
6. 손가락 - 출 8:19; 31:18; 신 9:10; 시 8:3
7. 소리 - 창 3:8,10; 출 15:26; 19:19; 신 26:17; 27:10

나. 신체적 행동

1. 창조의 방편으로 말씀하심 - 출 1:3,6,9,11,14,20,24,26
2. 에덴에서 걸으심(즉, 소리) - 창 3:8; 레 26:12; 신 23:14
3.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심 - 창 7:16
4. 번제를 흠향하심 - 창 8:21; 출 29:18,25; 레 26:31
5. 내려 오심 - 창 11:5; 18:21; 출 3:8; 19:11,18,20
6. 모세를 묻으심 - 신 34:6

다. 인간의 감정(일부만 예로 들었음)

1. 후회하심/회개하심 - 창 6:6,7; 출 32:14; 사 2:18; 삼상 15:29,35; 암 7:3,6
2. 화내심 - 출 4:14; 15:7; 민 11:10; 12:9; 22:22; 25:3,4; 32:10,13,14; 신 6:15; 7:4; 29:20
3. 시기하심 - 출 20:5; 34:14; 신 4:24; 5:9; 6:15; 32:16,21; 수 24:19
4. 싫어하심/혐오하심 - 레 20:23; 26:30; 신 32:19

라. 가족적 용어(일부만 예로 들었음)

1. 아버지
  - ㄱ. 이스라엘의 - 출 4:22; 신 14:1; 사 1:2; 63:16; 64:8
  - ㄴ. 왕의 - 삼하 7:11-16; 시 2:7
  - ㄷ. 아버지의 행동을 은유적으로 - 신 1:31; 8:5; 시 27:10; 잠 3:12; 렘 3:4,12; 31:20; 호 11:1-4; 말 3:17
2. 부모 - 호 11:1-4
3. 어머니 - 시 27:10(젓먹이는 어머니에 대한 유추); 사 49:15; 66:9-13
4. 신실한 젊은 연인 - 호 1-3 장

II. 이러한 종류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 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특별히, 창 15:12-21)은 다음의 이유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1. 하나님의 성품
2. 하나님의 약속
3.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창 22:16-18)
4. 이스라엘의 기도
5. 이스라엘의 믿음의 행동(이것이 불신앙의 행동과 섞여 있었음에도)

야웨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또 우리의 죄를 잊으신다)는 이 진리는 모든 신자의 소망이며 믿는 내용이다.

2:25

NASB, NRSV, JPSOA “그들을 돌아보셨다”

NKJV “그들을 인식하셨다”

70 인역, TEV 각주,

모פת역 “그가 그들에게 알려지셨다”

페쉬타 “그들의 속박을 주목하셨다”

맛소라 본문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셨다”로 되어 있다. “알다”(BDB 393, KB 390, *כָּלַם* 미완료형과 *וָיָדַע*)라는 동사는 다음 사항을 가리킬 수 있다

1.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계셨다(아랍어 어근의 뜻을 취할 때)
2.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하심으로)
3.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백성에게 대하여 친밀한 사랑을 가지셨다(특별주제: 알다를 보라)

4. 예루살렘 성경(81 쪽, K 항)의 각주에서는 맛소라 본문의 해당 문장에 결론부분(“그리고 그가 아셨다”)이 들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이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70 인역에서는 “그들을”을 삽입하였다.

**특별주제: 알다(대부분 신명기를 전형적인 예로 사용함)**

히브리어의 “알다”(BDB 393)는 *칼* 동사형에서 여러가지 의미(의미의 장)를 나타낸다.

1. 선과 악을 이해하다 – 창 3:22; 신 1:39; 사 7:14-15; 온 4:11
2. 이해하여 알다 – 신 9:2,3,6; 18:21
3. 경험으로 알다 – 신 3:19; 4:35; 8:2,3,5; 11:2; 20:20; 31:13; 수 23:14
4. 고려하다 – 신 4:39; 11:2; 29:16
5. 개인적으로 알다
  - ㄱ. 사람 – 창 29:5; 출 1:8; 신 22:2; 28:35,36; 33:9
  - ㄴ. 신 – 신 11:29; 13:2,6,13; 28:64; 29:26; 32:17
  - 야웨 – 신 4:35, 39; 7:9; 29:6; 사 1:3; 56:10-11
  - ㄷ. 성적으로 – 창 4:1,17,25; 24:16; 38:26
6. 습득한 기술 또는 지식 – 사 29:11,12; 암 5:16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아므람이 자기 숙모와 결혼한 일은 죄인가?
2. 바로의 딸이 아기를 발견하도록 모세의 어머니가 계획을 짰 것인가 아니면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3.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4. 이드로는 누구이며 왜 그를 네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가?
5. 정말로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해내려 한 것인가?
6. 미디안은 어디에 있는가?

# 출애굽기 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불타는 가시떨기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심 (2:23-4:17)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	불타는 가시떨기
3:1-6	3:1-6	3:1-6	3:1-3 3:4 3:5-6	3:1-6 모세의 사명
3:7-9	3:7-12	3:7-12	3:7-10	3:7-10
모세의 사명				
3:10-12			3:11 3:12	3:11-12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3:13-22	3:13-22	3:13-22 (3:15)	3:13 3:14-17 3:18-20 3:21-22	3:13-15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받다 3:16-20 강탈당하게 될 이집트 사람들 3:21-2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야웨의 특별한 집중과 관계를 인하여 이 장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참조, 출 2:24).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 원수로부터 구해주심에 있어서 이 일이 중요한 사항이다!
- 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셨음을 2 장에서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임명하신다. 이것은 창 15:12-21 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이다(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언약적 이름을 계시하시며 설명하신다. 이 본문은 구약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유일한 곳이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라함을 보라.
- 라. 이스라엘이 떠나는 일은 이집트의 재물을 취하는 일로써 확고해 질 것이다(출 3:22). 이것은 군사적 승리를 나타내는 묘사이다. 야웨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지배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꺾이지 못하게 하신다(즉, 재앙들).
- 마. 모세를 부르심에 대한 이곳의 기록은 출 6:2-13 및 6:28-7:7 에 나오는 기록과 상당히 비슷하다. 서양인들은 “이러한 기록이 여러 저자를 뜻하는가?”(즉, J, E, D, P, 특별주제: 오경의 문서비평을 보라)를 질문한다. 한편, 이러한 기록은 단순히 구전적 면을 나타낼 것이다(알톤과 샌디, *성경의 잃어버려진 세계*를 보라).
- 바. 모세가 다섯 번에 걸쳐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야웨께서 그 때마다 응답하셨음을 여러 주석가들이 언급한다.
  1. 출 3:11-12 – 내가 누구이기예?
  2. 출 13:22 – 누가 너를 보낸 것이냐고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3. 출 4:1-9 – 만일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4. 출 4:10-12 –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5. 출 4:13-17 –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3:1-6

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3: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이것에 대하여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1. 이드로에게 아들이 없었다
2. 야곱이 라헬을 위해 일하였듯이, 모세가 자기 아내를 위하여 지불할 돈을 갚는 중이었다(참조, 창 29:20)

▣ “이드로” 출 2:18 에 있는 설명을 보라.

▣ “미디안 제사장” 출 2:15 에 있는 설명을 보라.

▣ “호렙” 율법을 주신 장소가 “호렙”으로 불리는 점을 주목하라. 호렙은 “황무한” 또는 “황량한”(BDB 352, KB 349)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이다. 시나이(BDB 696)는 히브리 단어가 아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야웨를 만나도록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장소로 보인다(예, 호렙, 출 3:1; 신 1:6,19; 4:10,15; 5:12; 시나이, 출 19 장; 레 7:38; 25:1; 26:46; 27:34; 민 1:1,9; 3:1,4,14; 9:1,5).

왜 신명기서에서는 “호렙”을, 출애굽기에서는 “시나이”를 주로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모세의 글에는 문학적 다양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다음 사항을 가리킬 것이다:

1. 구전적 전승을 여러 서기관이 기록함

2. 모세가 여러 서기관을 사용함
3. 후기의 서기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에서 바꿈
4. 문학적 다양성

▣

NASB, REB	“서쪽”
NKJV	“~의 뒤”
NRSV	“너머”
NJB	“먼 쪽”
70 인역	“너머”

맛소라 본문에서는 “뒤에 있는 장소”(BDB 29)로 되어 있다. 요세푸스(*유대 고대사* 2.12.1)는 시나이가 가장 높은 산이었으며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하였는데 그곳을 “하나님의 산”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곳의 풀이 상당히 좋았으나 그곳에서 짐승을 먹이지 않았다. 모세가 모험하듯 그곳에 간 것이다.

▣ “하나님의 산” 호렙/시나이는 출 4:27; 18:5; 24:13 에서 이렇게 불린다. 다음과 같은 관련성 때문일 것이다

1. 모세 이전에 거룩한 장소로 여겨짐(*유대 고대사* 2.12.1)
2. 출 3:1,12; 19:24 이후에 거룩한 장소로 여겨짐

**3:2 “여호와와 사자”** 이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야웨)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심을 뜻한다. 특별주제: 주의 사자를 보라.

▣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을 나타낸다(즉, 야웨, 영어역에서는 LORD 로 표기함, 참조, 창 2:4).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라함을 보라.

이곳은 이 이름이 처음으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본문이다.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 출 3:14-16 에서 나올 것이다.

▣ “떨기나무” 이것(BDB 702, 이 본문과 신 33:16 에서만 나옴)은 사막의 전형적인 관목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장소로 이것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나무였다.

▣ “불이 붙었으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참조, 출 13:21). 특별주제: 불을 보라.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신을 불로써 묘사한다. 야웨께서는 신체적 모양을 가지지 않으시기에, 불은 단순히 모세의 주의를 끌기 위함이었다.

**특별주제: 불**

성경에서 불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가. 긍정적 의미

1. 따뜻하게 함(참조, 사 44:15; 요 18:18)
2. 빛을 비춤 (참조, 사 50:11; 마 25:1-13)
3. 음식을 익힘(참조, 출 12:8; 사 44:15-16; 요 21:9)
4. 정화함(참조, 민 31:22-23; 잠 17:3; 사 1:25; 6:6-8; 렘 6:29; 말 3:2-3)
5. 거룩함(참조, 창 15:17; 출 3:2; 19:18; 겔 1:27; 히 12:29)
6. 하나님의 인도하심(참조, 출 13:21; 민 14:14; 왕상 18:24)
7.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심(참조, 행 2:3)
8. 보호하심(참조, 속 2:5)

나. 부정적 의미

1. 태움(참조, 수 6:24; 8:8; 11:11; 마 22:7)
2. 멸망시킴(참조, 창 19:24; 레 10:1-2)
3. 화냄(참조, 민 21:28; 사 10:16; 속 12:6)
4. 벌함(참조, 창 38:24; 레 20:14; 21:9; 수 7:15)
5. 거짓된 종말론적 표식(참조, 계 13:13)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써 나타난다

1. 기이 지나가 부타기 이다/차지 흥 2.5. 스 2.2)

3:3 모세가 이 현상을 보기 위하여 몸을 돌이켰는데(BDB 693, KB 747, 칼 청유형) 그 이유는 어떤 종교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호기심 때문이었음을 주목하라.

**3:4 “여호와... 하나님”** 이 문단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성호가 신학적인 평행을 이루고 있다.

1. 여호와와 사자, 출 3:1(출 3:2,4 에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가 1 항과 3 항을 서로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주목하라)
  2. 야웨, 출 3:4(참조, 출 3:7,13-16)
  3. *엘로힘*, 출 3:4(참조, 출 3:6)
- 1 항과 2 항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다항과 라항을 보라.

▣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계시하심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임하심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알 수 없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계시”라고 부른다.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분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 여러 가지 내용의 기록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다(참조, 창 12:1-3; 13:14-17; 21:12-13; 22:1-2).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다

1. 환상
2. 꿈
3. 야웨의 천사(이곳에서도 이렇게 하셨다)

▣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이름을 거듭하여 부르심은 강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참조, 창 22:11; 삼상 3:10). 예수께서도 이 방법을 여러 번 사용하셨다(참조, 눅 10:41; 22:31,32; 행 9:4).

야웨께서는 모세의 이름과 그의 가족을 알고 계신다(참조, 출 3:6)!

▣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듣고 응답하여야 함을 제시하는 또 다른 히브리 관용어이다(참조, 창 22:1,11; 삼상 3:4; 사 6:8). 그러나 여기서부터 7 장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부르심에 따르지 않으려 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3:5**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하여 가시떨기와 그 주위가 “거룩한”(특별주제: 거룩한을 보라) 장소가 되었다.

#### **특별주제: 거룩한**

##### **I. 구약의 용법**

- 가. 이 용어(*카도쉬*, BDB 872)의 어원은 불확실하지만, 가나안어에서 왔을 것이다. 이 단어의 일부 어근(즉, *카드*)이 “나누다”를 뜻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함”(가나안 문화로부터, 참조, 신 7:6; 14:2,21; 26:19)을 뜻하는 보편적인 정의의 기원이다

- 나. 예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참조, 눅 1:35; 4:34; 행 3:14; 4:27,30). 그는 거룩한 분이시며 의로운 분이시다(참조, 행 3:14; 22:14).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거룩하시다(참조, 요 8:46; 고후 5:21; 히 4:15; 7:26; 벰전 1:19; 2:22; 요일 3:5).
-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한다(참조, 레 11:44-45; 19:2; 20:7,26; 마 5:48; 벰전 1:16). 예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를 따르는 자들은 거룩해야

▣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칼 미완료형이다(BDB 675, KB 730, 참조, 수 5:15). 왜 벗어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었다. 신발을 벗는 일은 다음과 관련이 있다:

1. 솔직함과 친밀성의 상징
2. 가족이 됨을 상징
3. 종/노예임을 상징
4.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염물(즉, 짐승의 똥)을 처리함을 상징(또한 신 23:12-13 에 대한 설명을 보라)

하나님께서 임하심(모세야, 모세야)과 하나님의 초월성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을 주목하여 보라.

땅은 다음 사항을 가리킬 것이다

1. 하나님의 산의 모든 지경
2. 가시떨기 인근의 지역

**3:6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명사인 “조상”이 창 26:24 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수형임을 주목하라(UBS 본문 프로젝트는 이것에 A 등급[즉, 아주 확실함]을 준다). 이것은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구의 전형적인 용법과는 차이가 있다(참조, 출 3:15,16).

여기서 이 구는 야웨께서 그의 조상들(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참조, 출 15:2)의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역할을 한다. 모세의 아버지는 믿는 자의 계보에 속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 그의 근본, 그의 환경을 알고 계셨다!

▣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그들에게 알려졌다. 야웨께서 이 세 사람에게 각각 자신을 계시하셨고 언약에 따른 약속을 주셨다(참조, 출 32:13).

1. 아브라함 – 창 12:1-3; 15:1-11; 17:1-8; 18:17-19; 22:16-18
2. 이삭 – 창 26:2-4,24
3. 야곱 – 창 28:12-27; 35:10-12

예수께서는 마 22:32 에서 이 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름의 영원성을 강조하셨다! 영생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속성에 기초한다!

▣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일은 죽음을 가져온다고 믿었다(참조, 창 16:13; 32:30; 출 33:20; 사 6:22-23; 13:11; 왕상 19:13; 사 6:5). “구름”의 목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하심을 가리기 위함이었다.

#### 개역개정 3:7-9

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헛

3:7 이것은 출 2:23-25 에서 반복되었다(참조, 신 26:7; 느 9:9; 사 63:9; 행 7:34).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이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참조, 출 34:6;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구약]).

▣ “분명히 보고” 이 번역은 같은 어근(BDB 906, KB 1157)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완료형 동사의 용법이다. 이 구문은 문법적으로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 “내 백성의” 와! 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지금은 비록 핍박받는 노예이지만, 히브리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족장들의 자손이며 언약백성이다!

3: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한다

1. 강력한 신인동형적 묘사(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보라, 참조, 창 11:5; 출 19:11; 민 11:25)
2. 특수한 묘사(특별주제: 하늘의 가항을 보라); 이것은 구약의 우주론을 나타낸다; 존 왈튼, *고대의 우주론인 창세기 1 장*

구해주는 일(BDB 664, KB 717, *히/필* 부정사 연계형과 또 다른 *히/필* 부정사 연계형인 “가져옴”)이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임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범죄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셨다(즉, 모세, 아론, 참조, 출 3:10).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망가지고 흠 있는 자를 택하고 준비시키며 보내신다(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죄 없는 분이신 예수님을 사용하실 것이다).

#### 특별주제: 하늘들

이 히브리 용어(BDB 1029, “천국,” “하늘,” “궁창,” “공중”으로 번역됨)는 여러 가지 것을 가리킨다(즉, 창조된 여러 층의 둥근 천장 또는 둥근 구):

1. 창 1:8-20 에서 이것은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지상 위의 대기층을 가리킨다.
2.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이 둥근 천장(참조, 창 1:6,20; 사 40:22; 42:5)’에서 비를 보내신다(즉, “하늘의 창,” 참조, 시 78:23-29; 말 3:10 또는 “하늘의 물통,” 참조, 욥 38:37).
3. 이 둥근 천장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을 나타낸다(즉, 삼층 천 혹은 칠층 천).

이 고의 하늘에서 가자 노은 곳이다(즉, 시 10:14, 왕사 8:27, 28, 29, 시 2:4, 119:4).

르. 실재의 영역이나 공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지상
- 2) 지구 위의 영역
- 3) 보이지 않는 영역/천사들의 영역(참조, 골 1:16)

▣ “애굽인의 손에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의 손에서”이다. 특별주제: 손을 보라.

#### 특별주제: 손 (에스겔서에서 사용한 용법)

“손”(BDB 388)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와 용법을 가진다.

1. 문자적(즉, 사람의 손)
  - ㄱ. 한 사람 전체를 상징함, 3:18; 18:8,17; 33:6,8
  - ㄴ. 사람의 약함을 상징함, 7:17,27; 21:7; 22:14
  - ㄷ. 외국의 적을 상징함, 7:21; 11:9; 16:39; 21:31; 23:9,28; 28:10; 30:12; 34:27; 38:12; 39:23
  - ㄹ. 손, 8:11; 12:7; 16:11; 37:17,19,20
  - ㅁ. 거짓 지도자의 힘을 상징함, 13:21,22,23; 34:10
  - ㅂ. 국가를 상징함, 23:31,37,42,45; 25:14; 27:15; 28:9; 30:10,22,24,25; 31:11; 39:3
2. 신을 뜻하는 신인동형적 표현
  - ㄱ. 계시를 받아들임, 1:3; 3:14,22; 8:1; 33:22; 37:1; 40:1(2:9 은 또 다른 은유적 표현인 손에 있는 두루마리)

▣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은 곡물과 가축이 매우 번성하는 곳이었다(참조, 민 13:18-19,23-24,27; 느 9:35).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염소의 젖과 대추나무의 과즙을 가리킨다(랍비들에 의하면). 이것은 비옥하고 풍요한 땅을 가리키는 묘사이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문서에서 가나안을 뜻하는 묘사적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 “가나안 족속” 원래 가나안에 살던 부족들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창 15:19-21 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특별주제: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거한 자들을 보라.

#### 특별주제: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거하던 사람들

가. 여러 민족들의 목록이 나타나고 있다.

1. 창 15:19-21(10)

- |        |        |         |        |
|--------|--------|---------|--------|
| ㄱ. 겐   | ㄴ. 헛   | ㄷ. 아모리  | ㄹ. 여부스 |
| ㄱ. 그니스 | ㄴ. 브리스 | ㄷ. 가나안  |        |
| ㄱ. 갓몬  | ㄴ. 르바  | ㄷ. 기르가스 |        |

2. 출 3:17(6)

- |        |        |
|--------|--------|
| ㄱ. 가나안 | ㄴ. 브리스 |
|--------|--------|



- 네겔에 거주
- “동쪽의 사람들”에 관련되었을 것임(참조, 욕 1:3)
- 4. 헛
  - BDB 366
  -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
  - 헛의 후손
  - 아나톨리아 왕국에서 욕(소아시아, 터키)
  - 가나안에 일찍부터 거주함(참조, 창 23 장; 수 11:3)
- 5. 브리스
  - BDB 827
  -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 아마도 후리 족속
  - 유다의 산림지역에 거주(참조, 창 34:30; 삿 1:4; 16:10)
- 6. 르바임
  - BDB 952
  - 이스라엘 족속이 아님, 아마도 거인들(참조, 창 14:5; 민 33:33; 신 2:10-11,20)
  - 요단 강의 동쪽에 거주(참조, 창 15:20; 수 12:4; 13:12; 신 2:8-11,20; 3:13)  
혹은 요단 강 서안(참조, 수 15:8; 17:15; 삼하 5:18,22; 23:13; 대상 20:4)
  - 전사들/영웅들의 계보
- 7. 아모리
  - BDB 57
  - 함으로부터 기인한 셈족의 북서쪽 종족(참조, 창 10:16)
  -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일반적 명칭이 됨(참조, 창 15:16; 신 1:7; 수 10:5; 24:15; 삼하 21:2)
  - 이 이름은 “서쪽”을 의미함
  - ISBE 제 1 권 119 쪽은 이 용어에 대해 말하기를
    - ㄱ. 일반적으로 팔레스틴 거주자
    - ㄴ. 해안가 평야 지대에 반대되는 지역인 산지에 거한 사람들
    - ㄷ. 특별하게 자기들의 왕을 가진 족속
- 8. 가나안
  - BDB 489
  - 함의 후손(참조, 창 10:15)
  - 일반적으로 요단 강 서쪽에 살던 모든 족속들
  - 가나안의 뜻은 불확실하다. 아마도 “상인” 또는 “붉은 자주 염색”을 의미
  - 해안가 평야를 따라 살던 민족(참조, 민 13:29)
- 9. 기르가스
  - BDB 173
  - 함의 후손(참조, 창 10:16), 또는 적어도 “가나안[지경]의 사람으로부터,”  
ISBE 제 2 권 1232 쪽)

▣ “여부스 족속” 특별주제: 여부스를 보라.

**특별주제: 모리아, 살렘, 여부스, 시온, 예루살렘**

이 용어(모리아, BDB 599, KB 635)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다.

1. 벌게이트와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환상”으로 되어 있다
2. 탈군에서는 “예배”로 번역하였다
3. 70 인역에서는 “높은”으로 되어 있다
4. 페쉬타에서는 “암논족속의”로 되어 있다
5.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야웨께서 나타나심”으로 번역하였다
6. 어떤 사람들은 “선택된”으로도 번역하였다
7. 또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신 장소”로 번역하였다

“나타나신 장소”는 이 용어를 대하 3:1 에서 사용한 것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본문에서는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장소임을 언급한다. 이것은 삼하 24:16 이나 대상 21:18-30 도 가리킬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한 일에 대하여 이 문맥에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일이 상당히 잘 알려졌기 때문에 또는 역대상의 저자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모리아는 멜기세덱의 성인 살렘과도 관련을 가진다(창 14:18). 이곳은 후에 여부스 또는 예루살렘으로 불렸다.

1.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창 22:2 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일과 관련을 가지며, 후에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되었다(참조, 대하 3:1).
2. “살렘”(BDB 1024 88, KB 1539, 참조, 창 14:18; 시 76:2; 히 7:1,2),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로서 멜기세덱과 관련을 가진다.
3. 이곳은 후에 “여부스”라는 가나안 도시였다(BDB 101, KB 382, “여부스족속”에서 옴, 참조, 창 10:16; 15:21; 출 3:8,17; 수 18:16,18; 삿 19:10-11). 다윗이 이곳을

### 개역개정 3:10-12

<sup>10</sup>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sup>11</sup>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sup>12</sup>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3:10**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에 두 가지 명령형이 나온다.

1. 이제 보내어(문자적, “가라”) - BDB 229, KB 246, *갈* 명령
2. 인도하여 내게 - BDB 422, KB 495, *하/플* 명령; 이 동사는 출 3:10,11,12 에서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출애굽을 의미한다

**3:11-4:17**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모세가 겁낸다. 그는 여러 번 사양한다.

1. 내가 누구이기에? - 출 3:11-12
2.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 출 3:13-22
3. 누가 나의 말을 믿겠습니까? - 출 4:1-9

#### 4.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 출 4:10-17

**3:12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커다란 축복의 약속이다(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하심, 참조, 출 4:12,15; 33:14-16; 창 26:3,24; 28:15; 31:3; 수 1:5; 사 43:2; 렘 1:8; 학 1:13; 마 28:20; 행 18:10).

어떤 의미에서 이 약속은 출 3:14-16 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과 관련을 가진다. 초점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야웨의 임재에 있다!

▣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증거를 주셨다. 하지만 그 증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믿음으로써 행하여야만 했다(참조, 출 19:1-2).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도 믿음과 행함이 요구된다(참조, 행 7:7).

이 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몇 가지 해석이 더 가능하다.

1. NJB 역에서는 12 절을 끝마치지 않고 세 점으로 이루어진 생략표(“...”)를 사용하여 어떤 내용이 빠져 있음을 나타낸다. 각주에서는 출 4:1-9 에서 모세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별한 증거를 그 내용으로 제시한다.
2. 브레바드 차일드스(*출애굽기*, 60 쪽)는 불타는 가시떨기 자체가 증거였다고 주장한다.

▣ **“섬기리니”** 특별주제: 예배를 보라.

#### 특별주제: 예배

##### I. 서론

##### 가. 중요한 질문들

1. 예배란 무엇인가?
2.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예배가 시작되었는가?
3. 예배의 내용은 무엇인가?
4. 누가 참여하는가?
5. 어디서 그리고 언제 예배가 이루어지는가?

나. 이 질문들은 우리의 연구를 위한 개요를 제공할 것이다. 이 질문들에 대한 결정적인 답이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성경적 암시와 역사적 발전과정이 있다.

나. 구약의 중요한 용어는:

1. ‘아보다, “섬기다” 또는 “일하다”(BDB 715)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왔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번역된다.
2. *히쉬타하와*, “구부리다” 또는 “(자신을) 엎드리다”(BDB 1005, 참조, 출 4:31)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왔다.

다. 신약의 중요한 용어는 히브리어 용어를 따른다.

1. ‘아보다에 대해서는 고용된 일꾼이나 종의 상태를 말하는 *라트레이아*를 사용한다.
2. *히쉬타하와*에 대해서는 “(자신을) 엎드리다,” “숭배하다,” 또는 “예배하다”를 의미하는 *프로스퀴네오*를 사용한다.

라. 예배가 강한 영향을 주는 두 면이 있음을 주목하라.

1. 우리의 존경하는 태도
2. 삶에서의 우리의 행동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참조, 신 11:13).

### III.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예배가 시작되었는가?

가. 구약은 예배의 기원에 대해 특별히 진술하지 않지만 창세기에 여러 가지 암시가 있다.

1. 창 2:1-3 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나중에 중요한 예배인 매 주의 예배로 발전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일주일 단위의 구분을 지음으로써 인간의 휴식과 예배를 위해 선례를 정하신 것을 창세기에서 말한다.
2. 창 3:21 에서 타락함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타락한 인간 부부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 그들의 옷을 지으신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동물을 사용하는 희생제사의 체계를 발전시킬 여지를 주신 것처럼 보인다.
3. 창 4:3 이하에서의 가인과 아벨의 희생제사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정기적인 사건으로 보인다. 이 본문은 채소를 헌물하는 것을 알보거나 혹은 동물로 희생을 드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적절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심과 거부하심을 어떻게 듣지 전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4. 셋의 경건한 메시아적 계보는 창 4:25 이하에 전개된다. 26 절에 있는 분명한

8. 성경의 자료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경외심과 존경심에 기초한 예배가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희생제사로 발전된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ㄱ. 십계명과 성결 법전

ㄴ. 성막 예식

#### IV. 예배의 내용은 무엇인가?

가. 인간의 태도가 희생을 드리는데 있어서 열쇠인 것은 분명하다(참조, 창 4:3 이하). 개인적 요소는 계시된 성경적 믿음에 있어서 항상 기등을 이룬다(참조, 신 6:4-9; 11:13; 30:6; 렘 31:31-34; 겔 36:26-27; 롬 2:28-29; 갈 6:15).

나. 그러나 인간의 경건한 태도는 매우 일찌기 예식으로써 성문화되었다.

1. 정결 예식(죄의 의미와 관련된)

2. 섬김의 예식(절기, 희생, 예물 등)

3. 개인적 예배 예식(공공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찬양)

다. 내용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계시의 세 가지 자료를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참조, 렘 18:18).

1. 모세와 예식(제사장들)

2. 지혜서의 현인들

3. 예언서

라. 교회적 상황에서 족장적 방식은 보존되었지만 여자의 은사와 동등성에 대한 강조가 더해졌다(참조, 고전 11:5; 갈 3:28; 행 21:9; 롬 16:1; 딤후 3:11). 이 동등성은 창 1:26-27; 2:18 에서 나타난다. 이 동등성은 창 3 장의 반역으로 손상을 입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다.

어린이가 항상 부모를 통해 예배에 참여했지만 어쨌든 성경은 어른 중심의 책이다.

▣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산”이었다. 출 19:16-20; 20:18 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야웨께서 임하실 때에 일어난 두려운 광경을 주목하여 보라.

개역개정 3:13-22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16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17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9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족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7 나라를 치 후에야 7가 너희를

3:13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누구이시냐”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야웨라는 성호는 호칭 이상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나타낸다. 오직 그 분만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다(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3:14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이름의 의미에 관하여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다(참조, NIDOTTE 제 4 권 1295-1300 쪽).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라향을 보라. 이곳에 여전히 신비로움이 있다. 모세의 질문은 호칭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참으로 많다. 하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1. 나는 상당히 신비로워서 네가 파악할 수 없다.

2. 나는 항상 있는 자이다.
3. 나는 주권자이며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그는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알브라이트).
4. 이 *히/플*형은 원인자이다. 따라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5. 존 알톤, 관계를 형성하시는 하나님(즉,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6. 유대인의 연구 성경(111 쪽)은 이것이 “나의 본질은 나의 행함을 통해 분명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7. 요약하여, NIDOTTE 제 1 권 1024-1025 쪽을 보라. 또한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라항을 보라.

우리가 어원이나 회화적 표현을 찾아보아야만 하는가? JPSOA 에서는 이 히브리 용어에 대한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1. 나는 바로 나인 것이다
2. 나는 바로 나인 자이다
3. 내가 되려는 것을 나는 될 것이다

**3:15** 사람들은 그 이름이 다음 사항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궁금해 한다

1. 출 3:14 에 나오는 나(야웨)
2. 출 3:15(참조, 3:6)에 나오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완전한 족장들의 이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하나님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신지를 참으로 알기 원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것은 “영원한 이름” 또는 “이것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와 평행을 이룬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참조, 출 3:16)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계시, 약속, 행하심은 언제나 기억되어야 하며 찬양을 받아야 한다(참조, 시 30:5; 97:12; 112:12; 135:13; 사 26:8; 호 12:5). 그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즉, 우상들은 보지도 듣지도 걸지도 응답하지도 못한다)!

**3:16 “장로들”** 특별주제: 장로를 보라.

#### 특별주제: 장로

1. 천사들의 회의에서 구성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참조, 사 24:23). 이 용어가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에게 사용되었다(참조, 4:4,10; 5:5,6,8,11,14; 7:11,13; 11:16; 14:3; 19:4).
2. 구약에서 지파의 지도자들(자켄)을 가리킨다(참조, 출 3:16; 민 11:16). 후에 신약에서는

▣

NASB	“내가 참으로 염려한다”
NKJV	“내가 정말로 방문했다”
NRSV	“내가 주의를 기울였다”
NJB	“참으로 방문했다”
JPSOA	“내가 주목하였다”
REB	“내가 지켜보았다”
70 인역	“내가 염려한 염려로써”
페쉬타	“내가 정말로 기억했다”

맛소라 본문에서는 “주목하다” 또는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BDB 823, KB 955)의 부정사 절대형과 완료형로 되어 있다. 이 구문은 문법적으로 이집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커다란 돌보심과 알고 계심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3:17** 가나안에 있던 여러 민족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거한 자들을 보라.

▣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나안 땅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한 묘사적 호칭이었다. 출 3:8 에 대한 설명을 보라.

3:18 “여호와” 이것은 야웨라는 성호이며 출 3:14-16 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가리킨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다항을 보라.

▣ “하나님” 이것은 엘로힘이라는 성호이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위의 두 이름이 창 2:4 에서 처음으로 함께 나타난다. 이 두 이름이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음을 주목하라.

▣ “히브리 사람” 출 1:15 에 대한 설명을 보라.

▣ “우리가 ...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것은 칼 청유형으로 된 두 단어이다. 이 본문은 제사가 모세의 율법 이전에 있었음을 제시한다(참조, 창 4 장; 9 장). 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제사 제도를 보라.

### 특별주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에서 드린 제사 및 그 중요성

#### I. 메소포타미아의 제사법

가. 제사는 전적으로 어떤 신에게 드리는 음식이었다. 제단은 음식을 배설하는 신의 탁자였다. 제단 옆에는 그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향단을 두었다. 피를 드리는 예식은 없었다. 칼을 든 자가 짐승의 목을 잘랐다. 신들과 왕인 제사장과 참석자들이 음식을 나누었다. 제물을 가져온 자는 아무 것도 가지지 않았다.

나. 속죄제사가 없었다.

다. 질병과 통증을 신들에 의한 벌로 여겼다. 한 짐승을 가져와 죽였다; 이러한 행위는 제물을 드리는 자를 대신하는 행위였다.

라. 이스라엘의 제사는 달랐고 독특했다. 이 일은 사람이 자신이 일한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한 의도에서 원래 시작되었다 (참조, 창 4:1-4; 8:20-22).

#### II. 가나안의 제사법(이스라엘의 경우와 비슷함)

가. 자료

1. 성경의 자료

2. 페니키아의 문서

3. 라스 샴라 서판, 주전 1,400 년 경에 속하는 이 서판은 우가릿에서 발굴됨, 가나안의 신들과 신화에 대한 내용임

나.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제사는 상당히 비슷하였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에서 희생제물의 피에 대한 강조점은 없었다.

#### III. 이집트의 제사법

가.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강조점은 없었다

나. 제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다. 제사는 신들이 지누를 멈추기 위한 이두였다

4. 제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제단 위에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경의를 나타내어야만 했다.
5. 제단은 제물을 올려 놓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였다.
6. 제사는 예배의 외적 행위였다(외적으로 드러난 기도).
7. 제사의 정의는 “드러진 기도” 또는 “의식화된 기도”이다. 예식의 중요성과 제사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문화적 차이를 고든 J. 웬함(틴델 주석 시리즈, “민수기,” 25-39 쪽)이 잘 드러낸다. 레위기와 민수기는 제사와 관련된 많은 양의 자료를 담고 있으며, 제사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 나. 관련된 제사

1.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 ㄱ. 온 땅이 야웨의 것임을 인정함과 관련이 있음
  - 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뜻함
  - ㄷ.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일이 바른 것임
  - ㄹ.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헌물이나 선물이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실존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일이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것을 드리는 것, 그 이상이었다. 제사는 그가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
  - ㅁ. 선물을 파괴하는 일이었기에, 그것을 환원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 ㅂ. 번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라갔다
  - ㅅ. 초기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에 세워졌다. 제단이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기에, 그곳으로 제물을 가지고 왔다
2.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생명을 봉헌함을 나타냄
  - ㄱ. 번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세 가지 제사 가운데 하나였다.
  - ㄴ. 짐승을 전체를 번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깊은 존경을 표현하였다.

▣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소요 기간에 대한 이 언급(참조, 출 5:3; 8:27)은 출애굽의 여정과 목적지에 관련하여 언제나 문제를 야기시킨다. 전통적인 장소인 호렙산/ 시내산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특별주제: 시내산의 위치를 보라).

이 구는 시간적으로 긴 기간을 나타내기 위한 관용적 표현일 것이다. 한편, 이 기간은 출애굽의 경로로서 제시된 여러 여정 중 한 가지에 적합한 기간이다. 즉, 지중해를 끼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의 도로”로 불리는 경로이다(그러나 출 13:17 에 있는 설명을 보라; 특별주제: 출애굽의 경로를 보라).

따라서, 이 기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미했을 것이다

1. 그곳에 가기 위한 하루, 제사를 위해 하루, 돌아오기 위한 하루
2. 그곳에 가기 위한 삼일

3. 동양의 대화로는 노예가 영구히 출애굽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바로의 체면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참조, F. F. 브루스, *질문에 대한 답*, 7 쪽)

**3:19** 이 절은 야웨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고 계시며(참조, 출 3:20) 또 바로가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야웨께서는 이집트의 만신전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재앙을 사용하실 것이다.

“강한 손”의 주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약간 모호함이 있다(즉, 하나님 의 손 또는 바로의 손; UBS 본문 프로젝트 92-93 쪽 또는 NIDOTTE 제 2 권 81 쪽에서 본문과 관련을 가진 세세한 사항을 보라).

**3:20** “내가 내 손을 들어” 이것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과 특별주제: 손을 보라.

▣ “**여러 가지 이적으로**” 완고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략 18 개월에 걸쳐 행하시게 된다. 열 재앙은 각각 이집트의 우상을 치고 그것의 무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이집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한편, 이집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기회로도 삼으시려 하신다. 이러한 이적은 자연적인 시기 및 초자연적인 시기와 관련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다.

**3:21-22** 이것은 군사적인 패배를 나타내는 묘사이다(즉, “강탈,” BDB 664). 이스라엘이 노예로서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떠나게 될 것이다(참조, 출 11:2-3; 12:35-36; 시 105:37)! 이 일은 창 15:14 의 성취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운명이나 그들 자신의 힘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커다란 목적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좌우된다(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3:22**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을 구하여**” 킹제임스역은 “그의 이웃으로부터 빌려”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빌린다는 것은 그들이 나중에 되돌려 주겠다는 것을 뜻하므로 히브리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된다. 이 본문에서 사용한 히브리 단어는 “빌리다”가 아니라 “취하다”를 나타낸다.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이 특별한 산이 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2. 불타는 떨기나무 또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장소에 어떤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가?
3. 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신을 벗어야 했는가? 그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 왜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는가?
5.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로 부터 땅을 가져 가셨고(참조, 창 15:12-21), 왜 드러나게 히브리인들에게 호의를 보이셨는가?
6. “야웨”라는 용어는 무엇을 뜻하는가?
7. 정말 모세가 단 사흘의 여정을 원하여 그 후에 이집트로 되돌아가려 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말로써 나타낸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함축하는 동양적 흥정의 모습인가?
8.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언제나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이에 대하여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그렇게 답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

# 출애굽기 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능력을 받은 모세	바로를 향한 기적의 증거들	모세의 부르심 (2:23-4:17)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의 능력을 주시다	기적의 능력을 받은 모세
4:1-5	4:1-9	4:1-5	4:1 4:2 4:3-5	4:1-5
4:6-9		4:6-9	4:6-9	4:6-9 모세의 입인 아론
4:10-13	4:10-17	4:10-17	4:10 4:11-12	4:10-12
모세의 입이 될 아론			4:13 4:14-17	4:13-17
4:14-17	모세가 이집트로 가다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다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다
4:18-20	4:18-23	4:18-20	4:18 4:19-20	4:18 4:19-23
4:21-23		4:21-23	4:21-23	할레받은 모세의 아들
4:24-26	4:24-26	4:24-26	4:24-26	4:24-26 모세가 아론을 만나다
4:27-31	4:27-31	4:27-31	4:27-31	4:27-31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로 구분한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의 것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이다. 각 문단은 오직 한 가지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출 3장과 4장이 문학적으로 볼 때 하나의 문맥을 이루는 것이 분명하다.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의 대변인과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가 계속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두 장에 나온다. 출 3:11에 대한 설명을 보라.
- 나. 출 4:18-31에서는 모세가 이집트가 돌아가는 여행 및 히브리 사람들과의 최초의 만남을 제시한다.
- 다. 출 4:24-26은 주석가들이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본문이다. 사실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용어와 관용적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지금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것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도 없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4:1-5

<sup>1</sup>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sup>2</sup>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sup>3</sup>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sup>4</sup>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sup>5</sup>이는

4:1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세는 출 2:14 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떠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그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출 3:10 에서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모세가 간과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고 애썼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장점은 물론 그들의 결점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게 한다. 성경은 “뛰어난 성인”들만 위한 책이 아니다(그러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믿다”(BDB 52, KB 63, *히/פל* 미완료형)라는 용어가 이 장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출 4:5,8,9,31). 이것은 구약 신학에서 핵심적 주제이다.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신실함을 보라.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충성됨(*아멘*)**

I. 들어가는 말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이 신학적 개념이 구약에서는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고 사용됨을 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약에 이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몇 핵심 귀절 및 사람들과 관련되어

구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섞여있다

가. 개인과 공동체

나. 개인적 경험과 언약에의 순종

믿음은 개인적 경험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양식이다! 이것을 사전적 형태(즉, 단어 연구)보다는 사람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쉽다. 이러한 개인적 측면은 다음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가. 아브라함과 그의 씨

나. 다윗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철저히 바뀌었다(완벽한 삶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시험이 그들이 가진 약점과 강점을 드러내지만, 믿음으로 시작된 관계는 생애를 거쳐 지속된다! 그들이 시험을 받고 정화되지만, 그들의 헌신과 헌신된 삶의 양식은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한다.

II. 사용한 주요 어근

가. *아멘*(BDB 52)

1. 동사

ㄱ. *칼*형 - 지지하다, 공급하다(즉, 왕하 10:1,5; 예 2:7, 신학적 용어가 아님)

ㄴ. *니팔*형 - 분명히 하다 또는 확실히 하다, 달성하다, 확인하다, 신실하다 또는

III. 바울이 사용한 이 구약 개념

가.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에 야웨와 구약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이해의 기초를 두고 있다(참조, 행 9 장; 22 장; 26 장).

나. 그는 *아만*이라는 어근이 있는 구약의 두 가지 핵심 본문에 기초하여 자신이 말하려는 새로운 의미를 설명한다.



- ㄱ. 예수 안에(요 12:11; 행 19:4; 갈 2:16)
- ㄴ. 빛 안에(요 12:36)
- ㄷ. 하나님 안에(요 14:1)
- 2. *안*은 “안”을 뜻한다, 요 3:15; 막 1:15; 행 5:14
- 3. *επι*는 “안” 또는 “위”를 뜻한다, 마 27:42; 행 9:42; 11:17; 16:31; 22:19; 롬 4:5,24; 9:33; 10:11; 딤후전 1:16; 벧전 2:6
- 4. 전치사 없이 쓰인 여격, 갈 3:6; 행 18:8; 27:25; 요일 3:23; 5:10
- 5. *πιστι*는 “믿다”를 뜻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밝힌다
  - ㄱ.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다(요 6:69)
  - 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요 8:24)
  - ㄷ. 예수님은 성부 안에 성부는 그 안에 계신다(요 10:38)
  - ㄹ.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요 11:27; 20:31)
  - 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요 11:27; 20:31)
  - ㅂ.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시다(요 11:42; 17:8,21)
  - ㅅ. 예수님은 성부와 하나이시다(요 14:10-11)
  - ㅇ.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오셨다(요 16:27,30)
  - ㅈ.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의 언약적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시 하셨다(요 8:24; 13:19)
  - ㅊ.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롬 6:8)
  - ㅋ.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살전 4:14)

## VI. 결론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약속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일을 시작하신다(즉, 요 6:44,65). 한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화는 다음과 같은 인간의 응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

1. 신뢰
2. 언약적 순종

구원에 대한 신약적 관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 인간이 처음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보내셨고 공급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참조, 엡 2:8-9,10)!

▣ “듣지” 이 동사(BDB 1033, KB 1570, *칼* 미완료형)는 “행하기 위해 듣다”를 뜻한다(참조, 신 6:4). 목적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참조, 신 5:29,31,32,33; 6:1,2,3,4,17,24,25; 특별주제: 지키다를 보라).

### 특별주제: 지키다(신 5:10 에서)

야웨의 언약에 대한 순종을 야웨께 대한 사랑과 연결시키는 것은 신명기의 특징이다(참조, 6:5; 7:9; 10:12; 11:1,13,22; 13:3; 19:9; 30:6,16,20).

야웨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히 정의되어 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언약적 사랑은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유지된다.

“지키다” (BDB 1036, KB 1581)는 신 5 장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참조, 5:1,10,12, 29,32, 또한 신명기에서 여러 번 나온다). 구약은 야웨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행동에 기초한다. 야웨께서는 인간에게 그들이 적합하게 응답할 수 없음을 보이기 원하셨다(참조, 갈라디아서 3 장). 신약(참조, 롬 31-34 장; 겔 36:22-38)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기초한다. 신자들은 의롭게 될 운명이지만(참조, 엡 1:14; 2:10), 믿음을 통한 은혜를 따라 받아들여졌고 용서받았다(참조, 엡 2:8-9). 이제 그들은 감사의 마음과 가족적 사랑(즉,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서 순종하고 행동한다. 의로운(그리스도를 닮은) 백성이 되는 목적은 같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방법은 인간적 행함에서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바뀌었다(참조, 막 10:45; 고후 5:21).

신 6:4 에 나오는 어근인 “듣다”(BDB 1033, KB 1581)도 “행하기 위해 듣다”라는 의미를

**4:2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이것은 야웨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으며 그에게 구속의 사명을 맡기셨음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세 가지 특별한 증표의 하나였다.

1.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
2. 문둥병에 걸리고 고침받음
3. 피로 변한 나일 강

▣ **“지팡이니이다”** 이것은 목자가 사용하는 갈고리 모양의 지팡이일 것이다(참조, 시 23:4). 목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직업이었기 때문에(참조, 창 46:34) 모세가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에게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어떤 이는 추정한다. 하지만 단지 이집트인들이 목축을 싫어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의 상징이며 자기 자신을 목자로 드러내는 전통적 상징’인 목자의 굽은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참조, 출 4:20).

이 “지팡이”(BDB 641)는 모세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출 4:17; 14:16; 17:9).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성품을 상징하게 될 것이다(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목자이심).

**4:3 “그것을 땅에 던지라 . . . 그것이 뱀이 된지라”** “뱀”(BDB 638)을 가리키는 이 일반적 용어는 출 7:9 에서 사용한 용어(BDB 1071)와 다르다. 후자의 경우는 모세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그 숨씨를 행한 일에 사용되었다. 모세가 뱀을 피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 뱀이 코브라였다고 여겨진다. 코브라는 바로의 권세를 상징하였고 머리에 쓰는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이집트에 행하신 대부분의 기적이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들에 대한 야웨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 일은 그러한 기적 가운데 처음 것이다.

**4:4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두 가지 칼 명령이 나온다. 모세의 부르심에 관한 켈 메데마의 뮤지컬이 적절하게 시사하듯이, 독이 있는 뱀의 꼬리를 잡는 일은 모세의 믿음을 요구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하고 계셨다.

**4:5 “여호와”** 이 성호는 출 3:14-16 에서 계시하신 이름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였다.

1. 야웨
2. ~의 하나님(다음 항목을 보라)

▣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본문을 출 3:6 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곳에서는 단수형 “조상”을 모세의 조상에게 대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히브리 백성의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킨다(참조, 출 3:13,15-16). 반복되는 “~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를 제시한다.

#### 개역개정 4:6-9

<sup>6</sup>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 같이 된지라 <sup>7</sup>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sup>8</sup>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4:6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 같이 된지라” 모세가 자신의 손을 가슴 가까운 품에 넣었을 때, 그 손이 나병에 걸렸다. 나병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흔한 질병이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레 13:4 에 나온다. 우리가 아는 한 이 기적을 바로 앞에서는 결코 행하지 않았다. 출 4:30 에 비추어 볼 때, 이 세 가지 기적을 모두 히브리인 앞에서 행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임을 확신하였다. 같은 기적이 기록된 유일한 본문은 민 12:10 인데, 그 본문에서는 모세가 흑인 여성과 결혼한 일(민 12:1)에 대하여 미리암이 화를 냄으로써 나병에 걸린다.

4:9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기서도 나일 강(즉, 하피)이 이집트의 주요한 신으로서 등장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신다. 이 기적은 열 가지 재앙의 하나로써, 모세가 나일 강을 건드릴 때에 온 강이 피가 된다(참조, 출 7:14-19). 이 기적은 그 재앙을 제한된 범주에서 일어나도록 축소시킨 형태로서, 히브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세를 부르셨고 보내셨음을 확신시키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관하고 계심은 구약의 강력한 메시지이다. 특별주제: 물들을 보라.

**특별주제: 물들**

야웨께서 물에 대하여 행하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1. 혼돈의 물에 대하여 승리하심(참조, 창 1:2)
2. 창세기에 나오는 물들을 분리하심(물의 창조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음)
  - ㄱ.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의 분리(창 1:6-7)
  - ㄴ. 소금 물과 민물의 분리(창 1:9-10)
3. 심판을 위하여 물을 사용하심
  - ㄱ. 홍수(즉, 창 6-9 장)
  - ㄴ. 피(즉, 출 7:17-20)
  - ㄷ. 우박(즉, 출 9:18,23)
  - ㄹ. 비가 내리지 않음(신 11:17; 28:20-26; 왕상 8:35; 17:1; 렘 14 장에서)
  - ㅁ. 여인들에 대한 경우(민 5 장)
4. 언약적 축복인 물(즉, 신 11:14-15; 28:12)
5. 정결케 함의 상징인 물
  - ㄱ. 제사장들(즉, 출 29:4; 30:18-21; 민 19:7)
  - ㄴ. 예배자들(즉, 민 19:8)

**개역개정 4:10-13**

<sup>10</sup>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sup>11</sup>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매이시디게 하였느냐 <sup>12</sup>이제 내가 내 혀를 네 입에 함께 이시니 하 마으

4:10 “주여. . .주” 야웨(LORD, 주)와 *아도나오*(my Lord, 나의 주, 4:13)의 번역을 영어역에서 어떻게 다르게 제시하는지를 주목하라. 이 두 가지 이름이 시 110:1 에서도 함께 나온다.

▣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것은 모세의 또 다른 핑계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바울이 뛰어난 대중 연설가는 아니었음도 접한다(참조, 고후 10:1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말을 잘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참조, 행 7:22)! 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취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하게 하심으로써(참조, 고전 1:26-31), 영광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신다.

모세가 말을 더듬었음을 이 절이 나타낸다고 랍비들은 설명하였다.

▣ “주의 종에게” 이것은 영예로운 호칭이다. 특별주제: 나의 종을 보라.

**특별주제: 나의 종**

이것은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사용한 존칭이다(참조, 사 42:1-4; 49:1-6; 50:4-9; 52:13-53:12). 어떤 이는 이 본문이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참조, 사 41:8-9; 42:19; 43:10; 44:21). 하지만 사 52:13-53:12 는 개인 즉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킨다(사 53:8 에 대한 설명을 보라). 종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을 수 없다! 마 27:38,59 에 대한 설명을 보라. 하나님께서 역사와 사람과 나라와 사탄을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된다(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주께서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다(참조, 사 53:10).

**4:11**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야웨라는 용어가 시사하는 의미임), 모세가 말을 함에 있어서 가진 어려움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확증하는 본문이다!

**4:12 “내가 . . . 함께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행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문법적 구문이다(참조, 출 4:15). 그는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4:13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영어역에서 이 문장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행하기 원하신 것을 이제 자원하여 행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에서 볼 때, 이 문장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지 않으려는 모세의 마지막 시도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출 4:14 에서 하나님의 노가 발한다. 이 본문은 모세가 자기의 형 아론을 무시하지 않으려 해서 구실을 대는

것이라고 랍비들은 설명한다. 랍비들이 이처럼 모세에 대하여 좋게 말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였는데, 이 본문도 그중의 하나이다.

**개역개정 4:14-17**

**14**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 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4:14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야웨)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달리 여호와의 노하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어렵다. 두 가지 다 인간의 감정적 요소를 하나님께 투영시킨 것이다(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보라). 이 둘이 진리의 어떤 면을 제시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극단적인 내용을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지만, 주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여전히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것은 오경에서 야웨의 “노하심”(BDB 60 l)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본문이다. 이 주제는 민수기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참조, 민 11:1,10; 12:9; 22:22; 25:3,4; 32:10,13,14).

▣ **“레위 사람 네 형 아론”** 아론을 레위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그가 레위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사장과 관련이 없이 사용한 용법이다. 모세도 레위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오고 있던 것임을 주목하라. 아론은 자기 동생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바로가 죽자마자 길을 떠난 것일 수 있다.

▣ **“그가 말 잘 하는 것을”** 이것은 같은 어근(BDB 180, KB 210)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의 용법으로서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아론의 말주변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론을 아셨다. 마찬가지로 그는 모든 인간을 아신다.

▣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미래도 아신다. 그는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다. 모든 역사가 그 분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과거나 미래로 아시는 것이 아니다. 들으시며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4:16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것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용어와 관련을 가진 용법이다(비슷한 경우가 출 7:1 에 나온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 번역되었으나 천사들(참조, 시 8:5) 또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참조, 시 81:1,6)을 뜻할 수도 있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다항을 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것을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4: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1. 이집트에 내린 재앙, 출 7:15,17,20; 9:23; 10:13
2. 홍해가 갈라지게 함, 출 16:14
3. 물의 공급, 출 17:5
4. 아말렉을 무찌름, 출 17:9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다(참조, 출 4:20).

이것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재앙이 내려진 기적을 가리킨다.

1.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이적”으로 불렸다(BDB 16, 참조, 출 4:8,9,17,28,30)
2. 바로에게는 이것이 “기적”으로 불렸다(BDB 68, 참조, 출 4:21; 7:9; 11:9,10)
3. 일반적 용어로는 “놀라운 일들”로 불린다(참조, 출 4:21; 7:3; 11:9,10; 신 4:34; 6:22; 7:19; 26:8; 28:46; 34:11; 특별주제: 놀라운 일들을 보라)

**특별주제: 놀라운 일들(펠라)**

이 단어(BDB 810)는 놀라움과 경이를 일으키는 행동으로서 인간이 스스로 이를 수 없거나 설명할 수도 없는 행동을 가리킨다(참조, 창 18:14; 렘 32:17,24; 슥 8:6).

동사

1. 출애굽 사건, 출 3:20; 34:10; 미 7:15
2. 재앙, 신 28:59
3. 요단강을 건넌, 수 3:5
4.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 삿 6:13; 대상 16:9,12,24; 느 9:17
5. 삼손의 출생, 삿 13:19
6.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사랑, 삼하 1:26
7. 욱기에서 종종 사용함, 5:9; 9:10; 10:16; 37:5,14; 42:3
8. 시편에서 32 회 사용됨
9. 야웨의 모사, 사 28:29
10. 야웨의 행하심, 사 29:24(2 회); 율 2:26

명사

- 1 출애굽 출 15:11 시 77:11 14: 78:12

#### 개역개정 4:18-20

18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9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4:18** 여기서 모세는 동양의 일반적인 풍습을 따라 장인에게 자신이 떠나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청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나 자신이 떠나야 하는 참된 이유를 그가 장인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흥미롭다. 서구의 역사에서 제시하는 흥미로운 세세한 내용을 성경은 생략하고 있다. 이 책은 신학적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다. 특별주제: 구약 역사의 이야기체를 보라.

#### 특별주제: 장르와 해석, 구약의 이야기체

##### I. 들어가는 말

##### 가. 구약과 사건의 연대를 나타내는 다른 방법의 비교

##### 1. 다른 고대 근동의 문학은 신화적이다

- ㄱ. 다신론적임(대개 인간성을 가진 신들이 자연의 능력을 나타내면서도 비인간적 갈등의 국면을 갖고 있다)



2. 일반적으로 구약의 한 이야기체 본문은 직접적으로 어떤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3. 구약의 한 이야기체 본문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명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어떤 교리나 교리들을 예시한다
  4. 이야기체는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일어났어야 하는 일 혹은 언제라도 일어날 것을 말함이 아니다. 따라서 인식할 수 있는 개인의 도덕성을 모든 이야기체 본문이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5. 사람들이 이야기체 본문에서 행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종 그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6. 구약의 이야기체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며 그들이 하는 행동도 그러하다.
  7. 한 이야기체 본문에서 그것이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그 종말을 항상 말해주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 및 성경의 다른 곳에서 명확히 제시되는 내용에 기초하여 우리가 판단을 내리게 된다.
  8. 모든 이야기체 본문은 선정된 내용이며 불완전한 것이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모든 내용이 항상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참조, 요 21:25). 이야기체 본문은 영감을 받은 저자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9. 이야기체 본문은 우리가 가진 모든 신학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록된 것은 아니다. 각 본문이 특별하면서 특정하게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주제를 다루며, 그 외의 문제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루게 내버려 둔다.
  10. 이야기체 본문은 직접적으로(어떤 것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혹은 암시적으로(실제로 어떤 것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 명확히 암시적으로 말함으로써) 가르친다.
  11.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체 본문에서 주인공이시다.
- 나. 이야기체 본문을 해석함에 관한 또 다른 좋은 논의는 왈터 카이저의 *석의적 신학에 대하여*이다:

“성경의 이야기체 본문이 갖는 독특한 모습은 저자가 제시하려고 하는 핵심을 자신의 이야기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제시하는

다. 이야기체에 있어서 어떤 세세한 내용을 통해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학적 단락을 통해 제시한다. 구약의 이야기체 본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 하거나 혹은 당신의 삶을 위한 선례로 삼지 않도록 주의하라.

#### IV. 두 단계의 해석

가. 아브라함의 씨를 위한 야웨의 구속적이며 계시적 행위

나. 모든 시자들이 샅을 향하 야웨이 뜻(모든 세대에서)

▣ “**평안히 가라**” 모세가 아내에 대한 지참금을 지불하였음을 기억하라. 이드로는 그를 축복하며 보낸다.  
 특별주제: 평안을 보라(구약).

**특별주제: 평화(שלום)**

이 히브리 용어(BDB 1022, KB 1532)는 셈족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가. 아카디아어

1. 무사한 것
2. 잘 지낸다
3. 좋은 상태에 있는 것

나. 우가릿어(가나안어)

1. 무사한 것
2. 건강한

다. 아라비아어

1. 건강하게 있는 것
2.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

마. 아람어

1. 완전하게 된 것
2. 끝/완성에 이른 것
3. 평화로 끝맺다
4. 무사하게 지내다

바. 히브리어의 함축적 의미

1. 안식

4:19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것은 그가 누구였든 이스라엘을 억압한 바로를 가리킨다(참조, 출 2:15,23).

4:20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지금까지 우리는 출 2:22 을 통하여 그의 장자인 게르솜에 대하여 알고 있다. 나중에(출 18:4) 우리는 둘째 아들인 엘리에젤에 대하여 듣게 된다. 우리는 이 때에 두 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지는 못한다.

**개역개정 4:21-23**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 주지 아니하리니 22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 내가 네게 이르기를

4:21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은 믿을 것이지만 바로는 그렇지 않을 것임을 모세에게 알려주신다. 이 본문 및 이와 비슷한 본문은 서구의 신학자들에게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다. 우리는 이 본문이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질문을 묻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았던(즉, 칼빈주의) 내용을 이 본문이 말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이 본문이 원 문맥에서 나타내는 바를 말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고대 근동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천이셨다(즉, 한 분의 원인자, 참조, 욥 2:10; 전 3:38; 사 6:10; 45:7; 54:16; 애 3:37; 겔 14:9; 암 3:6b).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과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상충된다고 여기지 않았다.

교회에 신비한 모순이 되는 문제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하여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신약의 점진적인 계시에 비추어 이해해야만 한다 (특별주제: 예정을 보라).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극대화시키기 보다는 두 진리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더 좋다(특별주제: 동양의 문학[역설적 내용]을 보라. 성경에서 이 두 진리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로마서 9 장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로마서 10 장이다.

출애굽시 바로가 완악하게 됨을 세 가지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1.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출 4:21; 7:3; 9:12; 10:1,20,27; 11:10; 14:4,8; (참조, 롬 9:34)
2.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출 8:15,32; 9:34
3.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출 7:13,14,22; 8:19; 9:7,35  
완악하게 됨을 묘사하기 위하여 세 가지 종류의 동사를 사용한 점은 흥미롭다.
  1. “강하다”(BDB 1, KB 1), 냉담하다는 의미에서, 출 4:21; 7:13,22; 8:19; 9:12,35; 10:20,27; 11:10; 14:4,8
  2. “무겁다”(BDB 549, KB 540), 따라서 민감성이 떨어짐, 출 7:14; 8:15,32; 9:7,34; 10:1

3. “단단하다”(BDB 904, KB 1151), 출 7:3

한편, 이 세 동사는 모두 동의어적 관계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다고 성경은 강조하여 가르친다(바로와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임).

**특별주제: 동양의 문학**

큰 그림 - 성경의 역설

1. 이 통찰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인 나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서로 다른 본문이 조직적으로 정리된 진리가 아니라 취사선택한 방법에 따라 다르게 진리를 드러내고 있음을 성경을 진지하게 다루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영감받은 본문은 영감받은 다른 본문을 취소하거나 그 뜻을 약화시킬 수 없다! 진리는 성경 전체를 알 때 얻게 되는 것이지(단지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영감받은 것이다, 참조, 딤후 3:16-17), 어떤 본문을 인용함으로써(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2. 대부분의 성경적 진리(동양의 문학)는 변증법적으로 혹은 역설적인 쌍으로 제시된다(누가를 제외한 신약의 저자들은 히브리적 사고를 가졌고 대중적인 헬라어로 기록했다. 지혜문학과 시문학은 평행을 이루는 행으로 진리를 표현한다. 반의적 평행법은 역설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동의어적 평행법은 평행을 이루는 귀절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어쨌든 양자가 똑같이 참이다! 이러한 역설적 표현은 단순한 전통적 방법에 익숙한 우리에게서 어려움을 된다!
  - ㄱ. 예정 대 인간의 자유의지
  - ㄴ. 신자의 안전 대 인내의 필요
  - ㄷ. 원죄 대 의지적 죄
  - ㄹ. 하나님이신 예수 대 인간이신 예수
  - ㅁ. 예수께서 성부와 동등하심 대 예수께서 성부께 복종하심
  - ㅂ.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대 인간이 저자인 성경
  - ㅅ. 죄없음(완전함, 참조, 로마서 6 장) 대 죄를 적게 지음
  - ㅇ. 최초의 즉각적인 칭의와 성화 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 ㅈ. 믿음으로 의롭게 됨(로마서 4 장) 대 행함으로 확인되는 의롭게 됨(참조, 약 2:14-

**4:22 “여호와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말하는 이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다(특별주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보라). 이것이 구약의 특별한 개념은 아니지만, 신 1:21; 8:5; 32:6; 호 11:1; 사 1:2; 63:16; 렘 3:19; 말 1:6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은 창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및 하나님의 언약백성됨(특별주제: 언약을 보라)에 기초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내 아들”이라는 똑 같은 개념은 후에 메시아에 대하여 사용된다(참조, 호 11:1; 마 2:15). 또한 이 본문에서는 “장자”라는 중요한 개념이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장자는 가족에서 빼어난 위치를 가졌고, 유산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가족 및 가족의 권리를 지키는 자였다(특별주제: 장자를 보라).

또 여기에는 내가 보기에 중요한 암시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은 구속적 관점에서만 그러한데, 나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모든 인류(참조, 창 1:26-27)의 구속이라고 생각한다. “장자”(즉,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들의 나라, 출 19:4,5)인 이스라엘의 목적은 다른 자녀들을 격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다. 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 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 I. 구약

가.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이시다라는 의미이다:

1. 창 1:26-27
2. 말 2:10
3. 행 17:28

나. 아버지는 유추적으로 여러 의미를 나타낸다:

1. 이스라엘의 아버지(선택에 의해)
  - ㄱ. “아들” – 출 4:22; 신 14:1; 39:5; 사 1:2; 63:16; 64:8; 렘 3:19; 31:20; 호 1:10; 11:1; 말 1:6
  - ㄴ. “첫 태생” – 출 4:22; 렘 31:9
2.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메시아적)
  - ㄱ. 삼하 7:11-16
  - ㄴ. 시 2:7; 행 13:33; 히 1:5; 5:5
  - ㄷ. 호 11:1; 마 2:15
3. 사랑하는 부모에 대한 유추
  - ㄱ. 아버지(은유)
    - (1)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다 – 신 1:31
    - (2) 훈련하다 – 신 8:5; 잠 3:12
    - (3) 공급(즉, 출애굽기) – 신 32:1

ㄴ. 어머니(은유)

(1)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 시 27:10

(2) 젖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 -사 49:15; 66:9-13; 호 11:4(“멍에”를 “젖 먹는 자식”으로 바꾸기를 제시한 본문에서)

II. 신약

가. 삼위 일체(삼위가 모두 언급된 본문들)

1. 복음서

ㄱ. 마 3:16-17; 28:19

ㄴ. 요 14:26

2. 바울 서신

ㄱ. 롬 1:4-5; 5:1, 5; 8:1-4, 8-10

ㄴ. 고전 2:8-10; 12:4-6

ㄷ. 고후 1:21; 13:14

ㄹ. 갈 4:4-6

ㅁ. 엡 1:3-14, 17; 2:18; 3:14-17 4:4-6

ㅂ. 살전 1:2-5

ㅅ. 살후 2:13

ㅇ. 딤후 3:4-6

3. 베드로서 - 벵전 1:2

4. 유다서 - 20-21 절

나. 예수

1. “독생자”로서의 예수 - 요 1:18; 3:16, 18 요일 4:9

2.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 마 4:3; 14:33; 16:16; 눅 1:32, 35; 요 1:34, 49; 6:69; 11:27

3. 사랑하는 아들이로서의 예수 - 마 3:17; 17:5

4. 예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를 사용함 - 막 14:36

5.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께서 사용하신 대명사

ㄱ. “나의 아버지,” 예, 요 5:18; 10:30, 33; 19:7; 20:17

ㄴ. “너의 아버지,” 예, 마 17:24-27

## 특별주제: 언약

언약을 뜻하는 구약 용어인 **ברית**(BDB 136)은 정의하기에 쉬운 용어가 아니다. 히브리어에는 이것에 해당하는 **동사**가 없다.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개념의 중요성은 학자들로 하여금 이 단어가 갖는 기능적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단어의 용법을 연구하도록 이끌었다.

언약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다. 성경의 계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언약, 계약, 혹은 동의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은 언약의 개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성과 행동에 기초하고 있다:

1. 창조 자체(참조, 창세기 1-2 장)
2. 아브라함을 부르심(참조, 창세기 12 장)
3. 아브라함과의 언약(참조, 창세기 15 장)
4. 노아를 보전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심(참조, 창세기 6-9 장)

그러나 언약은 그 특성상 응답을 요구한다

1. 아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에덴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했다
2.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가족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야 했고 장차 후손을 갖게 될 것을 믿어야 했다
3. 노아는 믿음으로 무에서 머지 떠날지 고에 키티라 배르 거츨하야 하고 또 도무드으

### 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 사용한 주요한 칭호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임을 뜻한다. “아들” 또는 “내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점은 예수께서 하나님임을 뜻한다. 이 칭호는 신약에서 124 회 이상 사용되었다. 예수님이 자신을 칭하신 용어인 “인자”는 단 7:13-14 에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구약에서 “아들”이라는 호칭은 다음의 특별한 네 그룹을 지칭할 수 있었다.

1. 천사들(대개 복수형, 참조, 창 6:2; 욥 1:6; 2:1)



**4:23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것은 10 번째 재앙인 마지막 재앙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가는 것을 바로가 막듯이, 그는 자신의 장자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태양신인 *R*의 아들로 여겨지는 자신의 아들 뿐 아니라 온 이집트의 장자도 포함하여 잃게 될 것이다(이것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야웨의 권능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실례이다).

**개역개정 4:24-26**

**24**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25**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26**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4:24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이곳은 여러 여행자들이 천막을 치는 보통 장소로서 물가에 있었을 것이다. 이곳은 미국의 길가에 있는 공원과 비슷한 장소였을 것이다.

▣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출 4:24-26 에 나오는 인칭대명사들에 모호성이 있지만, “그를”은 모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본문에서 모세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70 인역의 저자들은 야웨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을 인하여 고충을 겪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것을 “야웨의 천사”라고 바꾸어 번역하였다. 랍비들(즉, 유대인의 민간 전승)은 야웨의 천사가 뱀의 모양을 취하여 모세를 삼켜버리려 했으나, 뱀이 모세가 할레받은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완전히 삼킬 수가 없었는데 십보라가 이것을 보고서 문제를 인식하고는 그들의 아들에게 할레를 행하였다고 말한다. 여기서 “그를”이 큰 아들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작은 아들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4:25** 모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데 십보라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성경의 어려운 말 백과사전*, 139-140 쪽을 보라). 그 일이 할레 예식(모세나 그의 아들)과 어떤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할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이었다(참조,

창 17:1,9-14).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십보라가 출 4:25 에서 세 가지의 특별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1.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한다
2. 그녀가 잘라낸 포피를 가지고 모세에게 어떤 일을 한다
3. 그녀가 “피의 신랑”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여 모세를 부른다

이러한 모호성을 인하여, 이 문단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NASB 에서는 “그것을 모세의 발에 던졌다”라고 번역하여 기본적으로 70 인역을 따른다. “모세”라는 용어가 헬라어로 된 70 인역에는 없다. 히브리어로 된 맛소라 본문에서는 “그의 발에 닿았다”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이 (1)아들의 발인지 (2) 모세의 발인지 아니면 (3) 여기서 발이 완곡어법으로 성기를 가리키는 것인지(남자의 것, 출 4:25; 샷 3:24; 삼상 24:3; 사 7:20; 여자의 것 - 신 28:57; 겔 16:25, 참조, NIDOTTE 제 4 권 1199 쪽)를 확실하게 알지는 못한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경에서 사용한 번역문이다.

마지막 구인 “피 남편”이 출 4:26 에서 반복됨으로써 십보라가 할례를—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바 난 지 8 일에 행하는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남자가 되는 의식으로 여겨—내키지 않아 했음을 알 수 있다.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됨에 있어서 지장을 주어 모세의 생애가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라고 어떤 이는 생각한다.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이것이 어떻게 문맥과 관련을 가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창 32:25-33 과 비슷하다. 이 본문이 할례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에 있어 순종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다. 이 내용이 상당히 이상하기에, 분명히 역사성을 가진다. 누구라도 이것을 지어낼 수는 없다!

#### 개역개정 4:27-31

<sup>27</sup>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sup>28</sup>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sup>29</sup>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sup>30</sup>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4:27 “가서 모세를 맞으라” 야웨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모세가 어디서 살고 있었는지(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의 산 근처에)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아론이 이전에 모세를 보냈기 때문에 야웨께서는 아론이 올 줄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러 핑계를 댈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

▣ “광야” 이것은 사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건조한 목초지를 가리킨다.

▣ “하나님의 산에서”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산(출 3 장)이며,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올 곳(출 19 장)이다. 이 산을 히브리인들이 아닌 자들은 시내산으로 불렀고 히브리인들은 호렙산으로 불렀다. 특별주제: 시내산의 위치를 보라.

4:29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모든 사람에게 단 번에 말하는 일은 아주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각각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4:30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 4:2-9 에서 주신 세 가지 이적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이 믿었음을 나타낸다(출 4:31).

4:31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살피셨다 함을 듣고” 70 인역에서는 “즐거워 했다”라고 되어 있다. “들었다”와 “즐거워 했다”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비슷하다(NET 성경, 122 쪽, 12 항). 문맥을 통하여 볼 때, 야웨께서 자신들의 곤경을 아셨고(참조, 출 3:7,9)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함을 인하여 백성들은 아주 들떠 있었다(참조, 출 3:8,19).

▣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성경에서는 기도할 때 취하는 신체의 자세를 여러 가지로 묘사한다.

1. 무릎을 꿇다 – 왕상 8:54; 19:18; 대하 6:13; 스 9:5; 시 95:6; 사 45:23; 단 6:10; 10:10; 막 15:10; 눅 22:41; 롬 14:11; 엡 3:14; 빌 2:10
2. 두 손을 들다 – 시 28:2; 63:4; 134:2; 141:2; 143:6; 애 2:19; 딤후 2:8
3. 1 항과 2 항 모두 – 출 9:29,33; 왕상 8:38,54; 욥 11:13; 시 143:6; 사 1:15
4. 머리를 숙이다 – 창 47:31; 출 4:31; 마 26:39; 막 14:35

이것은 신체적 자세보다는 마음자세를 나타낸다.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를 내키지 않아 한 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2. 출 4:4 은 시험인가?
3.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4. 왜 출 4:22 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중요한가?
5. 당신은 출 4:24-26 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왜 그렇게 이해하는가?

# 출애굽기 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바로와의 처음 만남	바로와의 처음 만남	바로와의 첫 만남이 실패로 돌아가다 (5:1-6;1)	이집트 왕 앞에 선 모세와 아론	바로를 처음 대면함
5:1-9	5:1-9	5:1-9	5:1 5:2 5:3 5:4-5 5:6-9	5:1-5   감역관에게 내린 지침 5:6-9
5:10-14	5:10-14	5:10-14	5:10-14	5:10-14  히브리 기록원들이 향의하다
5:15-21	5:15-19  5:20-21 확실해진 이스라엘의 구원 (5:22-6:13)	5:15-21	5:15-16 5:17-19  5:20-21 모세가 주께 불평하다	5:15-18  백성의 비탄 - 모세의 기도 5:19-6:1
5:22-23	5:22-23	5:22-6:1	5:22-6:1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처음 만난 이야기와 그 결과이다.
-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여러 명사와 구에 주목하라.
1. 여호와(야웨), 출 5:1,2,3,17,21,22
  2. 이스라엘의 하나님(*엘로힘*), 출 5:1
  3. 히브리인의 하나님(*엘로힘*), 출 5:3
  4. 여호와 우리 하나님(야웨, *엘로힘*), 출 5:3
  5. 우리 하나님, 출 5:8
  6. 주의 이름(BDB 1027), 출 5:23
- 야웨와 *엘로힘*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다항과 라항을 보라.
- 다. 햇볕에 구워 벽돌을 만드는 노역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여러 단어에 주목하라.
1. 노역, 출 5:4,13 - BDB 795
  2. 일, 출 5:4,5,13 - BDB 688
  3. 벽돌에 쓸, 출 5:7 - BDB 527 과 BDB 527 의 조합(부정사와 명사)
  4. 노동, 출 5:9,11 - BDB 715
  5. 수고롭게 하다, 출 5:9,16 - BDB 793(동사)
  6. 매일의 일, 출 5:13,19 - BDB 182 와 BDB 398 의 조합
  7. 수효, 출 5:14 - BDB 349(만드는 벽돌의 수, BDB 527, 출 5:7,14)
  8. 일하라, 출 5:18 - BDB 712(동사)
  9. 수량대로, 출 5:18 - BDB 527 과 BDB 670(동사)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5:1-9

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5:1 “바로”** 이 호칭은 원래 “큰 집”(BDB 829)을 뜻한다. 이것은 이집트의 모든 통치자에게 사용한 호칭으로서, 바로가 신이라는 이집트인의 개념과 관련을 가진다. 그는 태양신 *르*의 아들로 여겨졌다. 세티 I 세가 수도를 삼각주 지역 가까이 옮긴 최초의 바로이기 때문에, 출 5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는 틀림없이 그의 후계자인 라암세스 II 세(주전 1290 년에 통치를 시작함)일 것이라고 많은 이(나를 포함하여)가 믿고 있다.

▣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이 민족의 이름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야웨”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을 나타내는데(출 3:14 에서), 이 성호는 “~이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와 관련을 가진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엘로힘*으로서,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뜻하는 *엘*이라는 이름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이 두 이름은 창 2:4 에서 처음으로 함께 나타난다.

▣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니라”** 함께 나오는 문장인 “내 백성을 보내라”(BDB 1018, KB 1511, *피/엘* 명령)은 야웨와 그의 언약백성의 관계를 드러낸다. 이집트는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분만 가졌다(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이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절기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참조, 출 5:3)을 포함한 종교적 순례를 가리킨다. 유목적인 셈족 사람들에게는 정규적으로 지키는 여러 절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 본문이 단지 며칠 간의 축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훨씬 더 긴 기간을 뜻하였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영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일이었지 며칠 동안만 그들을 건져내려는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5:2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는 자신을 신으로 여겼다. 그 당시에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의 질문은 노예민족의 신에게 “좌지우지 당하는 일”을 그가 상당히 혐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신이 그렇게 힘이 있었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이 노예가 되게 한단 말인가?

▣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 동사(BDB 393, KB 390, 칼 완료형)는 다음 사항을 뜻한다

1. ~에 대한 지식
2. ~와의 관계

특별주제: 알다를 보라. 야웨께서는 이집트의 신들과 세계관을 낮추는 재앙을 통하여 자신을 바로에게 드러내실 것이다. 이 대면의 신학적 목적은 고대 근동 세계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생동력 있게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당시에 이집트보다 더 강력한 나라는 없었다!

**5:3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히브리인”이라는 용어의 원래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어떤 유대인은 이들이 창 10:21 에 나오는 고대의 친척인 *에벨*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당시의 셈족 유목민인 *하비루*와 관련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강 건너”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주전 2000 년 이후에 셈족 유목민이 대규모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왔음을 우리는 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히소스*(또는 목자인 왕들)로 불리는 자들로서 주전 1700-1500 년에는 이집트 땅도 지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이것은 다음 사항을 의미한다

1. 문자적으로(그리고 이것이 맞다면), 시내 산은 이 산의 전통적 위치인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있을 수가 없다
2. 회화적으로(그리고 이것이 맞다면), 바로가 이해했을 기간은 이보다 더 긴 기간이었을 것이다(즉, 동양적 대화)
3. 책략

유대인 주석가들이 이 주제에 대하여 아주 조금 다룬 반면, 기독교 주석가들은 3 항을 놓고 고민했다.

▣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 동사(BDB 803, KB 910)의 주어로 사용된 유일한 본문이다. 이것은 바로에 대한 은근한 협박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벌을 받게 된다면, 바로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5:4

- NASB “백성을 빼내려느냐”
- NKJV, NRSV “백성을 데려가려느냐”
- TEV “백성을 무책임하게 하여”
- NJB, JPSOA, REB “백성의 관심을 흐트러”
- 70 인역 “백성의 주의를 돌려”

이 동사(BDB 828 III, KB 970, *히/플* 미완료형)는 “가게 하다” 또는 “홀로 있게 하다”를 의미한다. 이곳에서만 *히/플*형으로 되어 있어 “백성들로 하여금 그만두게 하다”를 뜻한다.

나는 여기에 단어유회가 사용되었다고 본다. 이 동사의 어근은 *파라*(פָּרַע)이다. 바로의 호칭은 *파르오*(פָּרֹעַ)이다.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잡아두려는 바로의 소원은 “참으로” 그의 파멸을 가져온다!

▣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는 자신의 명령(BDB 229, KB 246, *칼*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노예인 노동자들로 히브리인들을 보았다.

5:5 “이 땅의 백성이” 이 구는 구약에서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로랜드 드보, *고대 이스라엘*, 제 1 권 70 쪽을 보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

1. 창 23:12-13 에서는 히타이트 족속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2. 창 42:6 에서는 이집트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3. 민 14:9 에서는 가나안 사람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이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지만, 나라가 시대마다 독특하게 바뀔 때 따라 이것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1. 이것은 시민 대 귀족계급(왕)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2. 이것은 율법에 따른 음식을 먹지 않는 일반 민족 대 율법에 따른 음식을 먹는 종교적인 사람들(신약)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이 문맥에 있어서, JPSOA(유대인의 연구 성경, 114 쪽)에서는 “지금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즉, 이집트인)보다 수가 더 많다”로 읽는 사마리아 오경을 따라 한 가지를 수정한다. 이것이 문맥에 더 적합하다(참조, TEX, NRSV, REB).

▣ “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 히브리인의 수에 대한 이같은 두려움이 출 1:10 에서 제시된다. 그들의 수가 많음으로 인한(또한 그들의 민족적 배경을 인한) 두려움 뿐 아니라 그들의 노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 동사(BDB 991, KB 1407, *히/플* 완료형)는 “안식”과 같은 어근을 가진다. 둘 다 “쉬” 또는 “노동을 그침”을 의미한다.

5:6 “백성의 감독들과” “공사 감독들”(BDB 620)이라는 용어는 이집트 사람인 감독자들을 가리키고, “감독들/십장”(BDB 1009)이라는 용어는 히브리 사람인 감독자를 가리킨다(참조, 출 5:14). 이것은 힘든 노동 시간을 늘림으로써 모세와 히브리인 지도자들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바로가 직접적인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혹독하게 다룸으로써 모세에 대한 신임을 떨어뜨리려 했다(참조, 출 5:15-21).

5:7 좋은 짚의 부족은 바로의 건축물을 약하게 만들 것이다! 그가 히브리인들의 많은 수를 두려워 하였으나 곧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요세푸스(유대 고대사 2.13,4)는 그들이 낮에는 벽돌을 만들고 밤에는 짚을 모아들여야만 했다고 말한다.

5:8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게으르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두려워 했던 문제는 그들의 숫자였고 또 그들이 다른 셈족 나라(즉, 히타이트 족속)와 연맹을 맺게 되는 일이었다.

▣

NASB, NRSV,

NJB, REB “게으른”

NKJV, 폐쉬타 “나태한”

JPSOA “게으름뱅이들”

이 용어(BDB 951, KB 1276, *니팔* 분사)가 출 5:17 에서는 두 번 나온다.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가라앉다,” “떨어뜨리다,” 또는 “느긋이 쉬다”이다. *니팔*형은 이 문맥에서만 사용되었다.

이 말은 모세/아론과 히브리 일꾼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거짓 비난이다.

5:9 “거짓말을” 이것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규정짓는 표현이다.

**개역개정 5:10-14**

10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11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흠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13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5:12 이것은 과장적인 진술이다. 히브리인들은 삼각주 지역에만 거주하였다. 국고성들이 이 지역에 세워졌다.

▣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곡초 그루터기”(BDB 905, NIDOTTE 제 3 권 996 쪽)라는 용어는 “작은 조각들”을 뜻하여, 이것이 질이 낮은 짚임을 시사한다.

5:14 매맞은(BDB 645, KB 697, *호플* 미완료형과 *와우*) 사람들은 히브리인 감독들이었다.

**개역개정 5:15-21**

15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17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19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환기 모세 미척 조 아구 20 그대이 바르르 띠 나니 오 폐세 르세아 이르시 기세 내 이느 겨오

5:16 바로는 과외의 일과 매맞는 것에 대한 비난을 모세에게로 돌린다(참조, 출 5:8,17). 맛소라 본문에서는 “죄” 대신에 동사(BDB 306, KB 305, *칼* 완료형)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것은 문맥에 들어맞지 않는다. NASB 에서 제시하는 “흠”은 그 의미를 바꾸어 놓는다(참조, 창 41:9). 70 인역과 시리아역에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백성에게 죄를 짓고 있소”라고 번역하여, 이 본문을 모세에 대한 비난으로 제시한다.

5:21 히브리 감독자들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소망(지시형)을 말한다. 모세/아론의 행동과 말을

1. 살피시고
2. 판단하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에 대한 위협도 느꼈다(출 5:21).

**개역개정 5:22-23**

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5:22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구약의 어떤 본문에서 하나님께 선하심이나 축복 뿐 아니라 악을 돌리는 점은 신학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삼하 24:1 과 대상 21:1 을 비교하여 이러한 이해의 관계성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삼상 16:14 은 이런 면에서 유용한 본문이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원인자라고 믿었다(참조, 사 45:7; 렘 20:7; 겔 14:9; 암 3:6).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 넘는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장기적으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지만 죄와 반역(특별주제: 타락을 보라)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그 사실을 혼동한다(참조, 사 55:6-13).

**특별주제: 신약에서의 타락(창 3 장; 온라인에서 창세기 주석에 있는 석의를 보라)**

롬 5:12-21 에서 바울이 분명히 설명한 것처럼 타락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끼쳤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인간이 범죄하였다는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킨다. 복음의 “좋은 소식”의 처음 사항은 인간의 필요에 대하여 말하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바울은 롬 1:18-3:18 에서 이것을 발전시킨다(롬 3:19-31 이 이에 대한 요약이다). 로마서에서는 모든 인간의 상실됨과 범죄함과 필요에 대해 제시한다.

1. 부도덕한 이교도인들
2. 도덕적인 이교도인들
3. 유대인들

모든 사람이 다음의 이유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자연계시, 롬 1:18-23
2. 내재하는 도덕적 증거, 롬 2:14-16

롬 5:12-21 은 둘째 아담(참조, 고전 15:21-22,45-49; 빌 2:6-8)이신 예수님께 대한 논의이다. 이것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공동체의 범죄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강조한다. 아담 안에서의 인간의 타락(또한 피조물의 타락, 참조, 롬 8:18-23)을 발전시킨 바울의 방법은 독특하여 랍비들의 것과는

**5:23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진술은 같은 어근(BDB 664, KB 717)을 가진 *히/필* 부정사 절대형과 *히/필* 완료형 동사의 용법으로서 문법적으로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모세는 출애굽기 3-4 장에 있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스라엘을 구해주시는 것에 실패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상황이 더욱 더 나빠지게 만드셨다(출 5:22).

모든 신자들이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좋은 충고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투덜거리고 비난한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서로 대치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2. 출 5:3 의 마지막 부분은 경고인가 아니면 전망인가?
3. 출 5:22-23 은 모세의 최초의 중보기도이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행동을 취하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모세가 상당히 당황하는가?

## 출애굽기 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하실 것을 약속하시다	확실해진 이스라엘의 구출 (5:22-6:13)		모세가 주께 불평하다 (5:22-6:1)	
6:1		모세를 부르심과 아론을 임명하심 (6:2-7:7)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모세를 부르신 일에 대한 또 다른 기록
6:2-9	6:2-9	6:2-9	6:2-9	6:2-9
6:10-13	6:10-13	6:10-13	6:10-12 6:13	6:10-13
이스라엘의 어른들	모세와 아론의 가족		모세와 아론의 가족에 대한 기록	모세와 아론의 족보
6:14-27	6:14-19	6:14-25	6:14-19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0-22	6:20 6:21

				6:22
			6:23-25	6:23
				6:24
				6:25
	6:26-27	6:26-27	6:26-27	6:26-27
			모세와 아론에 대한 주의 명령 (6:28:7:7)	모세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됨 (6:28:7:6)
6:28-30	6:28-7:7	6:28-7:7	6:28-29	6:28-30
			6:30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가. 어떤 의미에서 출 6 장은 이전에 기록한 여러 가지 사항을 반복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다.

1. 반복되는 내용은 두 명의 저자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이 장은 제사문서에서 왔다. UBS *핸드북*(129 쪽)에서는 “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스타일과 어휘와 신학적 차이는 제사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임을 학자들이 발견했다”라고 말한다. 특별주제: 오경의 문서비평을 보라.
2. 구약에는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것은 구전적 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존 H. 왈튼과 D. 브렌트 샌디, *성경의 잃어버려진 세계*를 보라. 이 책에서는 고대 근동의 구전적 자료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브레바드 차일드스는 그의 출애굽기 주석(112 쪽)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비슷한 내용은 다른 내용과 더불어 공통적인 구전적 전통이 긴 기간의 독립적인 발전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에게서는 여겨진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제사장/레위인과 왕들의 가계(즉, 룯기)는 더욱 중요하였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6:1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6:1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출 6:1 은 출애굽기 5 장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강한 손으로”이다. 이 문장이 두 번 사용되었다. 출 12:33,39 에서 이 일을 역사적으로 제시한다. 문자적으로 강렬한 의미를 가지는 “쫓아내다”(BDB 176, KB 204, *פי/אל* 미완료형)라는 동사와 관련하여 어떤 문학적 기교가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이 동사가 모세에게 대하여 전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즉, 그가 타국에서 나그네/떠도는 자가 되었다, 참조, 출 2:22).

▣

NASB	“강요에 의해”
NKJV, 폐쉬타	“강한 손으로”
NRSV, NJB, 70 인역	“힘센 손으로”
JPSOA	“아주 센 힘”
REB	“강요받을 것이다”

맛소라 본문을 NKJV 가 반영하고 있다(참조, 출 3:19-20; 13:3). 특별주제: 손을 보라.

▣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일은 출 12:31,33,39; 13:3 에서 나타난다.

#### 개역개정 6:2-9

<sup>2</sup>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sup>3</sup>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sup>4</sup>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sup>5</sup>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sup>6</sup>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sup>7</sup>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sup>8</sup>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6:2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야웨라는 이름 및 이 이름과 “~이 있다”(참조, 출 6:6,7,8,29)라는 히브리 동사의 어원적 관계와 관련하여 언어유희가 또 나타난다. 이 성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참조, 출 34:6). “그 이름”에 대하여는, 출 3:14-16 에 있는 상세한 설명을 보라. 또한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라향을 보라.

6: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엘 샹다오*로 족장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제시한다; 특별주제: 전능자(*샹다오*)를 보라. 이 성호는 창세기의 앞 부분에서 종종 사용되었다. 하지만 야웨라는 성호도 그러하다(참조, 창 2:4; 4:26).

####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

“전능한”은 *샹다오*(BDB 994, KB 1420)라는 명사이다. 이 어원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고대 히브리 본문과 랍비들은 이 이름이 “스스로 충족함”을 뜻한다고 말했다.
2. 어떤 학자(올브라이트)는 이 용어가 아카디아어 어근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산이나 바위를 뜻한다고 주장했다(참조, 시 18:1,2). 만일 이 용어가 “산의 하나님”을 정말로 의미하는 용어라면 이 이름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화(참조, 사 14:13; 겔 28:2)나 바벨론의 종교(즉, 지구랏이 사람들이 건축한 산 위에 세워져 있었음, 참조, 창

4. 이것은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강탈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근인 *שאדד*(BDB 994, KB 1418)에서 왔을 수 있다.
5. 이것은 여인의 가슴을 뜻하는 히브리어근인 *שאד*(BDB 994)에서 왔을 수 있다(즉, “아기를 기르시는 분이신 하나님” 또는 “보호자와 공급자이신 하나님).
6. 이것은 “쏟다”를 뜻하며 드물게 사용된 단어(BDB 994, KB 1420)에서 왔을 수 있다(즉,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추측은 모두 어근의 불확실함을 나타낸다. 이 성호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및 욥기에서 야웨와 평행을 이룬다.

초기의 족장들은 하나님을 *엘 שאדאי*로 불렀다(“전능하신 하나님,” 참조, 창 17:1; 28:3; 35:11; 43:14; 48:3; 출 6:3).

▣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창세기 1-3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과 창 4:26 에 있는 특별한 언급을 고려할 때, 이것은 약간 특이하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이렇다:

1. 히브리인들이 때로 이 성호를 하나님께 사용하였지만, 이 성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지는 못하였다
2. 후기에 속하는 저자가 이 언약적 성호를 초기의 자료에 거슬러 올라가 사용한 것이다(시대착오적 용법)

특별주제: 야웨의 이름을 보라.

#### 특별주제: 야웨라는 “이름”

야웨 자신을 나타내는 “이 이름”의 사용은 출 23:20-33 과 평행을 이룬다. 그 본문에서는 이 이름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라고 불리는 “천사”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대치는 “그의 영광”(예, 요 1:14; 17:22)이라는 표현에서도 보여진다. 이 모든 경우는 야웨의 직접적이고 신인동형적 임재하심을 부드럽게 나타내기 위한 시도이다(참조, 3:13-16; 6:3).

브며히 아웨께니 이가이 마르 마쓰라셔지마 아웨께니 여저으르 이제라 시고 게시오 그의 차저르

야웨의 이름을 “부르는”(즉, 예배하는) 개념은 이른 시기에 속하는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1. 4:26, 셋의 가게
2. 12:8, 아브라함
3. 13:4, 아브라함
4. 16:13, 하갈
5. 21:33, 아브라함
6. 26:25, 이삭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1. 5:23,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다
2. 9:16, 온 땅에 나의 이름을 나타내라(참조, 롬 9:17)
3. 20:7,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참조, 레 19:12; 신 5:11; 6:13; 10:20)
4. 20:24,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참조, 신 12:5; 26:2)
5. 23:20-21, 천사(“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6. 34:5-7, 모세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다(또는 “소리쳐 부르다”). 이것은 야웨의 성품을 묘사하는 여러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참조, 느 9:17; 시 103:8; 율 2:13).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은 친밀함을 나타낸다(참조, 출 33:12). 모세는 여호와와 이름을 알았고, 33:17 에서 볼 때 여호와는 모세의 이름을 아셨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6:4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것은 거듭되는 언약의 약속을 가리킨다. 이 언약을 창 12 장, 15 장, 17 장, 22 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가나안 땅은 야웨의 언약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다(참조, 출 6:9). 이 본문은 창 15:16-18 에 있는 약속을 특별히 가리키는 한편,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그 이후의 역사도 가리킨다.

**6:5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이것은 출 2:24; 3:6,7 을 가리킨다.

▣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것은 예언의 성취 곧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 뿐 아니라 창 15:16 에서 제시한 구출(즉, 정복)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히브리 사람들이 그 땅을 대신 차지하게 하신 것이라고 사람들이 종종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을 바라본다면,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같은 죄를 계속하여 지었기에 그들 역시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을 알게 된다(즉, 앗시리아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대한 즉각적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가득차기까지 심판이 유보되어야만 했다(참조, 창 15:16).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다.

6: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여기서는 야웨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맺으신 세 가지의 특별한 약속을 제시한다.

1.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낼 것이다, 출 6:6
2.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출 6:7
3.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출 6:8

▣ “속량하여” 어원적으로 볼 때, 이 용어는 가까운 친족이 빛이나 포로가 된 자를 값을 지불하여 그를 회복시키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즉, *고엘*). 이 동사를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이고 친밀한 속량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구약적 이해의 기반을 가지게 된다.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를 보라.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

I. 구약

가. 이 개념을 표현하는 중요한 히브리어 법적 용어가 두 가지 있다:

1. *가알*, 기본적으로 값을 지불하여 “자유하게 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에서 나온 *고엘*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일원인(즉, 친척인 속량자) 개인적 중재자의 개념을 추가한다. 물건, 동물, 땅(참조, 레 25, 27 장)이나 친척(참조, 룻 4:15; 사 29:22)에 대한 권리를 되돌리는 이 문화적 일이 신학적으로 사용되어 야웨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심을 나타낸다(참조, 출 6:6; 15:13; 시 74:2; 77:15; 렘 31:11). 그는 “구속자”가 되신다(참조, 욥 19:25; 시 19:14; 78:35; 잠 23:1; 사 41:14; 43:14; 44:6,24; 47:4; 48:17; 49:7,26; 54:5,8; 59:20; 60:16; 63:16; 렘 50:34).
2. *파다*(BDB 804), 기본적으로 “구해내다” 또는 “구출하다”라는 뜻이다
  - ㄱ. 첫 태생의 속량(출 13:13,14; 민 18:15-17)
  - ㄴ. 신체의 속량은 영적 속량과 대조를 이룬다(시 49:7,8,15)
  - ㄷ. 야웨는 이스라엘을 죄와 반역으로부터 구속하실 것이다(시 130:7-8)

나. 신학적 개념은 다음에 나오는 여러 영역과 관련을 갖는다.

1. 필요, 속박, 상실, 감금의 상태가 있다.
  - ㄱ. 육체적
  - ㄴ. 사회적
  - ㄷ. 영적(참조, 시 130:8)
2. 자유, 해방, 회복을 위해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 ㄱ. 이스라엘 민족의(참조, 신 7:8)

구속은 야웨의 개인적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값이 지불되었고 구속이 성취되었다!

## II. 신약

가. 여러 단어가 이 신학적 개념을 나타낸다:

1. *아고라조*(참조, 고전 6:20; 7:23; 뱀후 2:1; 계 5:9; 14:34). 이것은 어떤 것을 위해 값을 지불함을 의미하는 상업용 용어이다.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2. *엑싸고라조*(참조, 갈 3:13; 4:5; 엡 5:16; 골 4:5). 이것 역시 상업용 용어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일인 행위에 기초한 율법(즉, 모세의 율법, 참조, 엡 2:14-16; 골 2:14)에 의한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참조, 막 10:45; 고후 5:21) 저주를 담당하셨다(참조, 신 21:23)!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한 용서, 받아들여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융합된다!
3. *뤼오*, “자유롭게 하다”
  - ㄱ. *뤼트론*, “지불된 값”(참조, 마 20:28; 막 10:45). 이 용어는 예수께서 자신이 지지 않은 죄의 빚을 갚으심으로써(참조, 요 1:29)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오신 자신의 목적을 생각하시며,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강력한 단어이다.
  - ㄴ. *뤼트루*, “해방하다”
    - (1) 이스라엘을 구속하심, 눅 24:21
    - (2) 백성을 구속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 딤후 2:14
    - (3) 죄 없으신 대속물이 됨, 뱀전 1:18-19
  - ㄷ. *뤼트로시스*, “구속, 구출, 해방”
    - (1) 예수님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 눅 1:68
    - (2)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드린 안나의 찬양, 눅 2:38
    - (3) 예수님께서 단 번에 드리신 더 나은 제사, 히 9:12
4. *아포리트로시스*
  - ㄱ. 재림 때의 구속(참조, 행 3:19-21)
    - (1) 누가복음 21:28
    - (2) 로마서 8:23

나. 신약이 내포하는 신학적 개념:

1.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다(참조, 요 8:34; 롬 3:10-18; 6:23).
2. 죄에게 인간이 속박을 받음은 구약의 모세율법(참조, 갈 3 장)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참조, 마 5-7 장)에 의하여 드러났다.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사형이 선언되었다(참조, 골 2:14).
3. 하나님의 죄없는 어린양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참조, 요 1:29; 고후 5:21). 우리를 죄로부터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참조, 롬 6 장).
4. 함축적으로 말하면 야웨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시다. 이것은 가족적 은유의 연속이다(즉, 아버지, 남편, 아들, 형제, 가까운 친척).
5. 구속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즉, 중세 신학) 하나님의 말씀 및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및 완전한 섭리와 화목을 이룸을 말한다. 십자가에서 평화가 회복되었고, 인간의 반역이 용서받았으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친밀한 교제 안에서 다시 완전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6. 구속의 미래적인 면이 아직 남아 있다(참조, 롬 8:23; 엡 1:14; 4:30). 구속은 우리 몸의 부활 및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체적 친밀함을 포함한다. 우리의

▣ “편 팔과” 이것은 신인동형적인 은유이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 위하여 인간의 유추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신 4:34; 5:15; 26:8).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보라(신인동형적 표현).

▣ “여러 큰 심판들로써” 이 구를 출 7:4; 12:12; 민 33:4 에서 사용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큰 일을 가리키는데, 이집트 신들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6: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것은 언약적 표현이다(참조, 출 19:5-6; 레 26:12; 신 4:20; 렘 7:23; 11:4).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결혼에 대한 공식적 진술이다(즉, 호 1-3 장). 여기서는 가족적 용어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친밀한 언약을 가리킨다(즉, 호 11:1-4). 특별주제: 아버지를 보라.

“알다”(참조, 출 6:3)라는 용어는 결혼에 대하여도 사용되었다(참조, 창 4:1; 특별주제: 알다를 보라).

#### 특별주제: 아버지

구약은 친밀한 가족적 은유인 아버지로 하나님을 소개한다

1. 이스라엘 민족은 종종 야웨의 “아들”로서 묘사된다(참조, 호 11:1; 말 3:17)
2. 심지어 신명기 앞 부분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유추가 사용된다(신 1:31)
3. 신명기 32 장에서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로 불린다
4. 이 유추는 시 103:13 에 진술되고 시 68:9 에서 발전된다(고아의 아버지)
5. 예언서에서 이것은 일반적이었다(참조, 사 1:2; 63:8; 아들로서의 이스라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63:16; 64:8; 렘 3:4, 19; 31:9).

예수님은 아랍어로 말씀하셨는데 헬라어의 *πατήρ*로서 “아버지”라고 되어있는 것 중 많은

6:8 이것은 창 12:1-3; 15:12-21 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다음 사항과 관련이 있었다

1. 자손
2. 국토

가나안은 “야웨의 땅”이었다(참조, 레 25:23). 어떤 의미에서 모든 땅이 야웨의 것이지만(참조, 출 19:5), 가나안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게 될” 특별한 장소였다.

▣ “내가... 맹세한 땅으로”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내 손을 들어 올린”이다. 이것은 맹세를 할 때의 자세이다(참조, 창 14:22; 민 14:30; 겔 20:5). 신학적으로 이것은 창 15:12-21 에 나오는 무조건적 약속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에는 커다란 목적이 있었다(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6:9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낙심(즉, “심령이 짧아짐,” 참조, 잠 14:29)은 전염성이 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아주 좋은 자녀에게도 일어난다(참조, 왕상 19-20 장).

#### 개역개정 6:10-13

<sup>10</sup>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sup>11</sup>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sup>12</sup>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sup>13</sup>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왕 바로에게 면류관 주라

6:11 이 절은 다음과 같은 동사로 되어 있다

1. 두 명령형
  - ㄱ. 가라 - BDB 97, KB 112, *갈*
  - ㄴ. 말하라 - BDB 180, KB 210, *피엘*
2. 지시형,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 BDB 1018, KB 1511, *피엘*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그들이 바로 나가도록 바로가 전혀 허락하지 않고 있기에(참조, 출 3:18; 5:1,3; 8:27) 더 잘된 일이었다(참조, 출 6:13; 7:2). 동양적 흥정을 위한 기회는 지나갔다.

6:12 이 절은 다음 사항을 가리킬 것이다

1. 모세가 출 2:11-15 에서 처음으로 자기 백성을 도우려 했던 일
2. 출 4:1 에서 제시된 모세의 두려움
3. 출 4:31 에서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었으나, 바로가 노역을 더 힘들게 하자(즉, 출 5:21) 곧 바로 모세를 낙담시켰던 일(출 5:22-23)
4. 단순히 출 3 장에 있는 내용의 중복
5. 출 6:9 에 나오는 내용

▣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할레받지 않은 입술”을 뜻한다(또한 출 6:30).

성경에서는 종종 할레받지 않은 신체의 명칭을 사용하여 관계와 반역의 개념을 나타낸다(즉, 할레받지 않은 심장 또는 귀, 참조, 신 10:16; 30:6; 렘 4:4; 6:10). 구약에서도 믿음은 일련의 규정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참조, 렘 9:26).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신실함을 보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믿음과 의심의 사람이었다.

6:13 “그들로 . . .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 동사(BDB 845, KB 1010, *피엘* 미완료형과 *와우*)는 메시지의 전달을 명하는 권위있는 명령을 나타낸다(참조, 출 25:22; 레 27:34; 에 3:12; 8:9).

#### 개역개정 6:14-27

14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เบน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เบน의 족장이요 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백삼십삼 세였으며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조부대로 레위의 조장이요 20 아르람은 그들의 아버지가 느이 오게베의 아내로 만이카였고

**6:14-25** 이 족보는 히브리인의 사고에 있어서 족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이 문맥에서 제시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깨트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NIDOTTE 제 4 권 654-664 쪽). 이 족보는 아론과 모세를 소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즉, 특히 대제사장이 될 아론). 이 족보는 여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삶에 일어날 사건들의 배경도 제공한다. 이 족보가 부분적인 내용임에도,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과 차자인 시므온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셋째 아들인 레위에게 대하여 상세하게 다룬다(이 족보의 신학적 목적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족보로서, 야곱의 처음 세 아들로부터 아론의 시대에 이르는 자손들에 대해 다룬 것이다.

**6:14 “집의 어른”** 특별주제: 머리를 보라.

**특별주제: 머리(케팔레)**

“머리”(케팔레)의 의미에 대하여 많은 신학적 논의가 있었다. 이 용어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이에 상응하는 구약의 히브리 단어는 *로쉬*(BDB 910, KB 1164)이다. 그 의미는
  - ㄱ. 머리
  - ㄴ. 우두머리
  - ㄷ. 시작 또는 기원(참조, 잠 8:23; 전 3:11; 사 41:4)
  - ㄹ. 전체의 양
 (참조, *구약 신학과 석의 사전*, 제 3 권 1015-1020 쪽)
2. 70 인역에서는 *로쉬*를 다음과 같은 헬라어로 번역하였다
  - ㄱ. *아르케*(시작, 참조, 시 137:6)
  - ㄴ. *프로토토코스*(첫째, 참조, 대상 5:12)

**6:16** “므라리” 이 용어(BDB 601 I)와 출 6:24 에 나오는 “앗실”(BDB 64)과 6:25 에 나오는 “비느하스”(BDB 810)는 모두 이집트 이름이다. 또한 출 6:25 에 나오는 “부디엘”(BDB 806)은 절반은 이집트 이름이고 절반은 히브리 이름이다. 이점은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과의 혼인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 **“백삼십칠 세였으며”** 아론의 직계조상인 세 인물의 수명을 제시하고 있다.

1. 레위 – 137 세, 출 6:16
2. 고탓 – 133 세, 출 6:18
3. 아므람 – 137 세, 출 6:20

이들의 수명이 매우 비슷하다. 아마 이러한 수명은 “장수한” 삶 또는 “축복받은” 삶을 가리킬 것이다.

**6:20**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나중에 레 18:12-13 에서 이러한 일을 금하였다. 따라서 레위지파인 모세와 아론의 중요한 족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본문의 역사성을 드러낸다. 70 인역에서는 “그의 아버지의 형제의 딸”로 이 문장을 바꾸어 놓았다.

**6:21 “고라”** 그에 대한 내용은 민 16:1 이하에 나오는 고라(BDB 901)의 반역에서 더 자세히 나올 것이다.

**6:22** 레 10:4-5 에서는 미사엘(BDB 567)과 엘사반(BDB 45)에 대하여 언급한다.

**6: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의 처음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레 10:1-5 에서 목숨을 잃었다. 엘르아살(BDB 46)은 아론의 후임자가 된다(참조, 민 20:26-28).

▣ **“비느하스”** 그의 아들 엘르아살은 민 25:1-13 에서 백성들을 벌하는 일에 야웨의 쓰임을 받는다.

**6:26-27** 후기에 속하는 편집자/서기관/제시자가 이 요약적 내용을 제시한다.

#### 개역개정 6:28-30

2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 모세가 여호와

**6:28-30** 많은 사람이 이 본문을 출 3:10-13 또는 6:10-13 의 중복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 본문은 중복이 아니라 재확증의 내용으로 여겨진다. 만일 우리가 기록된 문서들을 구분해 내기 위하여 중복된 내용을 찾는다면, 그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본문을 결정짓게 된다. 고대 근동의 구전에 대한 새롭게 출간된 존 H. 왈튼과 D. 브렌트 샌디의 책, *성경의 잃어버려진 세계를 보라*.

**6:28** 모세는 바로에게 야웨의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이다. 이 내용은 그의 계시가 아니라 야웨의 계시이다. 모세는 자신이 받은 모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출애굽기 6 장은 출애굽기 3 장의 중복인가?
2. 하나님의 백성이 “야웨”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었다면(창 6:3), 왜 창세기의 앞부분에 “야웨”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인가?
3. 출애굽기 6 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나타내는가?
4. 왜 출애굽기 6 장의 역사적 문맥에 족보가 들어가 있는가?

## 출애굽기 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내가 내 손을 펴리라”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다	모세를 부르심과 아론의 임명  6:2-7:7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주의 명령  6:28-7:7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됨  6:28-7:5
7:1-7	6:28-7:7			7:6-7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다	아론의 신비한 지팡이	열 가지 재앙	아론의 지팡이	뱀이 된 지팡이
7:8-13	7:8-13	7:8-13	7:8-13	7:8-13
물이 피로 바뀌다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재앙이 이집트를 치다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바뀌다
7:14-19	7:14-18  7:19-25	7:14-19	7:14-18	7:14-18  7:19-25
7:20-25		7:20-24  두 번째 재앙	7:19  7:20-24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출애굽기의 이 부분(7-11 장)은 열 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이다.

1. 나일 강의 오염, 출 7:14-25
2. 개구리 떼, 출 8:1-15
3. 수 많은 이, 각다귀, 모기, 출 8:16-19
4. 파리 떼, 출 8:20-32
5. 짐승에 생긴 질병, 출 9:1-7
6. 사람에게 생긴 질병, 출 9:8-12
7. 우박, 출 9:18-35
8. 메뚜기, 출 10:1-20
9. 흑암, 출 10:21-29
10. 장자의 죽음, 출 11:1-8

나. 이러한 재앙은 이스라엘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교리를 이루지 않는다. 출애굽 사건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거듭거듭 언급된 반면, 재앙은 신학적으로 발전되지 않았다(즉, 시 78:44; 105:29). 한편, 첫 번째 재앙을 상징하는 내용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다(참조, 계 8:8; 11:6; 16:4).

다. 열 재앙의 기간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6 개월에서 18 개월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차이는 (1) 그 재앙들에 적합한 계절에 따른 자연적 현상과 (2) 적합한 계절에 따른 것이 아닌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해석적 불일치에 기인한다. 내가 평가하기에, 이러한 기간은 야웨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물론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는 신학적 진리를 강하게 부각시켜 놓았다(즉, 이집트의 신들을 낮추어 놓기; 참조, 출 12:12; 민 33:4; 버나드 램, *나의 백성을 가계 하라*를 보라).

열 재앙은 이집트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켄넬 A. 키친, “이집트에서의 재앙” *성경사론*에서, 그레타 홀트에 따르면; NIDOTTE 제 4 권 1056-1059 쪽을 보라).

하지만 다음과 같은 면에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났다

1. 강도에 있어서
2. 시기에 있어서
3. 장소에 있어서

재앙은 히브리인들이 정착한 삼각주 지역이 아니라 이집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라. 내가 일하는 신학교의 교수인 F. B. 후아이는 그의 저서인 *연구 안내* 주석(51 쪽)에서 재앙의 여러 목적에 대하여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1.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하기 위해(출 7:4)
2. 야웨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출 7:5,17; 8:22)
3. 이집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기 위해(출 9:27,34)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7:1-7

<sup>1</sup>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sup>2</sup>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내내게 할지니라 <sup>3</sup>내가 바로의 마음을 와악하게 하고 내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sup>5</sup>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sup>6</sup>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7:1 “볼지어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여러 호칭 가운데 하나와 같은 어근(BDB 906)에서 온 *칼* 명령이다(*로예*, BDB 906, “보는 자”; 특별주제: 구약의 예언을 보라).

여기서 사용한 명령형은 바로에게 말하라는 야웨의 명령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표현이다.

### 특별주제: 구약의 예언

#### I. 서론

##### 가. 들어가는 말

1. 어떻게 예언을 해석할 것인가에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예언 이외의 진리는 수 세기를 거치면서 정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
2. 구약 예언의 여러 단계가 잘 정의되었다:
  - ㄱ. 왕정 이전:
    - (1) 선지자로 불린 사람들
    - (ㄱ) 아브라함 - 창 20:7
    - (ㄴ) 모세 - 민 12:6-8; 신 18:15; 34:10

## 나. 성경의 용어

1. *로에*= “예언자,” 삼상 9:9. 이 용어는 *나비*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로에*는 “보다”를 뜻하는 일반적 용어에서 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이해했고,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를 찾아 갔다.
2. *호저*= “예언자,” 삼하 24:11. 이것은 기본적으로 *로에*의 동의어이다. 이것은 “보다”를 뜻하는 말로서 드물게 사용된 용어에서 왔다.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이 단어의 분사형이 자주 사용되었다(즉, “보는 자”).
3. *나바*= “선지자,”는 아카디아어의 동사 *나부*= “부르다”와 아라비아어 *나바아*= “알리다”와 같은 어근을 가진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것은 300 번 이상 사용되었다. 이것의 정확한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부르다”가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여진다. 아마 이



다.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뜻을 앎에 있어서 대제사장직과 균형을 이루고(렘 18:18) 그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림과 둠림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전하는 구두 메시지로 대체되었다. 또한 선지자직은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400 년 후의 침례(세례)요한이 있기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신약에서의 “예언”의 은사가 구약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신약의 예언자들(행 11:27-28; 13:1; 14:29,32,37; 15:32; 고전 12:10,28-29; 엡 4:11)은 새로운 계시나 성경을 계시한 자들은 아니지만, 언약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라. 예언은 본질상 전적 혹은 우선적으로 예견하는 것은 아니다. 예견은 그의 직분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구약에서 예언의 2%도 안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다. 새 언약의 시대를 특별히 묘사하는 것이 5%도 안된다. 아직 오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관계된 것이 1%도 안된다”는 것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피와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66 쪽).

마.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해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진술이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은 예외이다.

바. 선지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책이 어떤 구조를 갖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책들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 책들이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상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지는 않다. 종종 거기에는 역사적 배경과 시간의 틀이 분명하지 않으며 예언 사이의 분명한 구분도 없다. 이러한 책들은 (1) 단번에 전체를 읽는 일 (2) 주제를 따라 개요를 말하기 (3) 각 예언의 중심 진리나 저자의 의도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 IV. 예언의 특징

가. 구약에서 “선지자”와 “예언”의 개념이 발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선지자들의 교제는 이스라엘의 초기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영향력이 강한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때때로 “선지자의 아들들”이란 구절이 이런 무리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왕하 2 장). 선지자들은 항흥상태로 특징지어졌다(삼상 10:10-13; 19:18-24).

나. 그러나 이런 시대는 개인 선지자들의 시대로 빠르게 바뀌었다. 왕에게 인정받고 왕궁에서 살았던 선지자들(참 또는 거짓의)이 있었다(갓, 나단). 또한 독립적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때때로 이스라엘인의 사회와는 전혀 관계 없이 지낸 선지자도 있었다(아모스). 선지자들은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다(왕하 22:14).

다. 선지자는 종종 사람의 즉각적인 응답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래를 드러내는 자였다. 선지자의 임무는 종종 인간의 반응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창조 세계에 대한

2. 장례식 애가 – 이런 종류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특징인 “슬프도다”와 같은 특별한 운율은 이 애가들을 특별한 형태로 분리시킨다(사 5 장; 합 2 장).
3. 언약적 축복의 선언 – 언약의 조건적 본질이 강조되었고, 미래에 나타날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자세하게 설명되었다(신 27-28 장).

V. 예언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

- 가. 역사적 배경과 각 예언에 대한 문학적 문맥을 주의해 보면서 원 선지자(편집자)의 의도를 발견하라. 보통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모세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것이다.
- 나. 부분이 아닌 전체 예언을 읽고 해석하라; 내용에 따른 개요를 말하라. 그것이 다른 예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라. 전체 책의 개요를 만들어 보라.
- 다. 본문 자체에서 어떤 것이 비유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해지기 전에는 그 구절에 대하여 문자적 해석을 하라; 그 다음에는 비유적인 표현을 산문으로 나타내라.
- 라. 역사적 배경과 평행 구절에 비추어 상징적인 활동을 분석하라. 고대 근동의 문학은 서양문학이나 현대문학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라.
- 마. 조심스럽게 예언을 다루라:
  1. 그것이 저자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인가?
  2.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로 성취되었는가?
  3.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가?

▣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설명 중 하나와 관련이 있다: (1) 이것은 모세의 권위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출 4:16) 또는 (2) 바로가 자신을 신으로 여겼듯이, 재앙은 모세가 하나님을 참되게 대표하는 자임을 제시한다.

▣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예언자라는 용어의 기본적 의미는 “대변인이 됨”을 뜻한다. 특별주제: 구약의 예언을 보라.

7:2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출 4:28 에서, 모세는 야웨의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말하였다. 출 4:30 에서, 아론은 자신이 모세에게 들은 모든 것을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본문에서, 야웨의 “모든” 말씀을 바로에게 말할 사람은 모세임을 강조한다. 대변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대변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모세나 아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주목하라. 이 말씀은 야웨의 말씀이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간과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이다.

▣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것은 반복되는 구이다.

1. 출 7:2 - *피/엘* 완료형
2. 출 7:14 - 부정문, *피/엘* 부정사 연계형
3. 출 7:16 - *피/엘* 명령형
4. 출 7:26(영어역 8:1) - *피/엘* 명령형
5. 출 8:4(영어역 8:8) - *피/엘* 미완료형

의지에 대한 신학적 목적의 시험이 ‘마음이 완악하게 된 바로’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사이에 계속된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인하여, 야웨께서 이집트의 우상인 자연신들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다.

####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

“유일신 신앙”이라는 개념(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신교의 “높은 신” 혹은 이란의 이원론(조로아스터교)에서 말하는 선한 신과 구별이 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내용이다(아브라함, 주전 2000 년). 이집트에서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이 개념이 나타났다(아멘호텝 4 세, 아케나텐으로도 알려짐, 주전 1367-1350 혹은 1386-1361 년).

이 개념은 구약에서 여러 번 나타난다.

1. “우리 *하나님* 야웨와 같은 이가 없다,” 출 8:10; 9:14; 신 33:26; 왕상 8:23
2.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신 4:35,39; 32:39; 삼상 2:2; 삼하 22:32; 사 45:21; 44:6,8; 45:6,21
3. “야웨는 한 분이시다,” 신 6:4; 롬 3:30; 고전 8:4,6; 딤후전 2:5; 약 2:19
4. “당신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삼하 7:22; 렘 10:6
5. “당신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시 86:10; 사 37:16
6.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사 43:10
7.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사 45:5,6,22
8.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사 45:14,18
9.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사 45:21
10.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사 46:9

이 중요한 교리가 점진적으로 드러난 것임을 잘 인식해야 한다. 이른 시기의 진술은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한 신을 믿는 것” 혹은 실행적인 유일신 주의(여러 신이 있지만 우리를 위한 신은 오직 한 분 이시다, 참조, 출 15:11; 20:2-5; 신 3:28; 5:7; 6:4,14; 10:17; 32:12; 왕상 8:23; 시 83:18·86:8·136:1-2)인 것이다

성경적 유일신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유일하시다(존재적 의미를 가정하지만 이를 특정적으로 말하지 않음)
2.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참조, 창 1:26-27; 3:8)
3. 하나님은 윤리적인 분이시다(참조, 출 34:6; 느 9:17; 시 103:8-10)
4.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창 1:26-27) 교제를 위해(즉, 2 항)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는 시기하시는 분이시다(참조, 출 20:2-3)

신약에서 볼 때

1.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격적인 세 분으로 나타내셨다(8:11 의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7: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 본문은 중요한 신학적 논의를 야기시켰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을 출 4:21 에서 처음으로 언급한다(7:14 에 있는 설명을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이 본문에서 여러 번 말한다. 또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고도 말한다. 한 본문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주어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다(4:21 에 있는 설명을 보라). 이 일이 항상 기적 및 이적과 관련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마음을 완악하게 함은 구속적인 목적을 위함이다. 바로는 야웨께 대한 신앙을 거부하였다. 하나님의 주권 및 인간에게 기대되는 응답에 대한 성경의 주장을 이 한 가지 예가 침해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일은 유다와 관련된 신학적

문제와도 매우 비슷한 경우이다. 모든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전체적 계획을 우리가 본다면, 한 사람의 완고함(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든 또는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든 관계없이)은 신학의 정립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이적을 통해 일어난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출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게 된다. 이 사건은 바로(출 8:10)는 물론 마술사들(출 8:14)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출 9:14-15)과 전 세계(출 9:16)에 대한 복음전도적 내용도 가지게 된다. 이 기적들이 구속적 목적을 이름에 있어서 효과적임을 출 5:20; 11:3 을 통해 명료하게 볼 수 있다.

▣ “내 표징과” 여러 사람에게 이 용어(BDB 16)를 사용하였다.

1. 모세에게, 출 3:12
2.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 4:8,9,17,28,30; 13:9,16; 31:13,17(안식일); 신 4:34; 6:22; 7:19
3. 바로에게, 재앙들, 출 7:3; 8:23; 10:1,2; 신 11:3
4. 죽음의 천사에 대하여, 출 12:13

▣ “내 이적을” 이 용어(BDB 68)도 바로 앞에서 행한 놀라운 여러 이적에 대하여 사용되었다(참조, 출 4:2; 7:3,9; 11:9,10). 그 이적은 (1) 뱀으로 바뀐 지팡이와 (2) 열 가지 재앙을 포함한다.

“표징”과 “이적”이라는 용어는 종종 함께 사용되는데,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행하신 커다란 일들을 동의어적으로 나타낸다. 특별주제: 놀라운 일들을 보라.

7:4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손”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히브리 관용어이다. 특별주제: 손을 보라.

▣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서 “군대”(BDB 838)라는 용어는 수 많은 군중 또는 군대(BDB 838, 참조, 출 6:26; 12:41; 또한 출 13:18 에 대한 설명도 보라, BDB 332, “군대의 배치”; 또한 민 10:14,18,22,25)를 명백히 의미한다. 이것은 “*쓰바웃*”이라는 용어로서, “만군의 주”라는 구에서 사용되었다. 특별주제: 만군의 여호와를 보라.

### 특별주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다음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 1:1 의 특별주제:하나님의 이름을 보라
- 나. “만군”(BDB 838)은 다음을 뜻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천사(참조, 느 9:6)
  2. 천사로 이루어진 군대(참조, 삼상 17:45; 단 8:10; 눅 2:13)
  3. 천사들의 회의(참조, 왕상 22:19; 단 7:10)
  4. 인간의 군대(즉, 민 2:4,6; 삿 8:6; 9:29)
  5. 밤 하늘에 있는 빛은 영적인 능력들로 여겨졌다(즉, 바벨론 사람들의 별 숭배,

▣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을 그 땅에서” 신으로 여김을 받는(즉, *라*의 아들) 이집트의 왕, 이집트의 우상들(특히 나일 강[즉, *하피*] 및 동물의 우상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세가 직접 대면한 일은 중요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로 이집트의 종교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놓으신다. 우리는 후에 중대한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함을 보게 된다(참조, 출 12:38). 그들이 비록 여러 문제를 일으키지만(참조, 민 11:4),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목적의 성취라고 나는 믿는다(참조, 출 7:5).

**7:5** 야웨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즉, 지식)이라는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온다(참조, 출 7:5,17; 8:19; 10:7). 야웨께서는 보다 큰 구속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것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손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그는 영원한 영적 존재이시다.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보라.

**7:7 “모세는 팔십 세였고”** 오경에서 뿐 아니라 행 7:23-30 에서도 모세의 생애를 40 년씩 세 등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1. 그가 사십 년간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다
2. 그가 사십 년간 사막 지역으로 도망가 지냈는데, 나중에 바로 그곳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게 된다
3.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고 사십 년간 광야에서 유랑한다(참조, 신 34:7)

#### 개역개정 7:8-13

<sup>8</sup>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sup>9</sup>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sup>10</sup>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sup>11</sup>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오술사들도 그들이 오술러 그가 같이 행하니 <sup>12</sup>간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니

**7:9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 처음 이적을 이미 출 4:3 에서 언급하였다. 그 본문에서는 모세를 격려해주기 위함이었다. 출 4:30 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음을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바로가 아마 히브리인들 앞에서 행해진 이 기적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바로는 자신의 마술사들을 준비시켜 그들도 그것을 따라할 수 있게 하였다. 출 7:9,10,12 에서 사용한 용어인 “뱀”은 “*תנאף*”(BDB 1072)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파충류(참조, 신 32:33)
2. 커다란 바다 생물(참조, 창 1:21; 시 148:7)
3. 바다의 괴물(참조, 욥 7:12; 시 74:13; 사 27:1; 아마 이것은 *아포피스*를 암시한다, *아포피스*는 이집트사람들이 숭배하는 ‘혼돈의 생물’로서 뱀의 모양을 하였다)

그러나 뱀을 뜻하는 일반적 용어(BDB 638)가 출 4:3 과 7:15 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둘은 동의어적 의미로 이곳에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뱀이 바른 해석이다.

**7:11** 이 현인들을 묘사하는 여러 용어가 사용되었다.

1. “현인들” – BDB 314, KB 314, 이 그룹에는 과학, 수학, 의학, 천문학, 종교 등에 있어서 학식 있는 자들이 속했을 것이다
  - ㄱ. 이집트 – 창 41:8; 사 19:11,12
  - ㄴ. 바벨론 – 사 44:25; 렘 30:35; 51:57
  - ㄷ. 페르시아 – 에 1:13; 6:13
 이들은 인간의 지혜를 대표하였을 것이다.

딤후 3:8 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들의 이름과 숫자에 대한 랍비적 전통이 있다.

주석가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흉내낼 힘을 정말 가졌는가(즉, 주술) 아니면 이들이 단순히 요술과 술수(즉, 마술)에 능했던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2. “마술사들” – BDB 506, KB 503, 이것은 *피알* 분사로서 “마술을 행하기”를 의미하는데, 미래의 일을 주장하거나 예언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남성형 명사가 왕하 9:22; 사 47:9,12;

미 5:11; 나 3:4 에서 사용되었다. 여성형 명사는 출 22:18 에서만 한 번 사용되었다. 동사는 대하 33:6; 신 18:10; 단 2:2; 말 3:5 에서 사용되었다.

3. “요술사들” – BDB 355, KB 352,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기록하다”(BDB) 또는 “읽다”(KB)를 뜻한다. 이 용어는 신접한 자, 점성술자, 요술사, 이집트의 성문서를 해석하는 자들을 포함한다(즉, 징조를 읽거나 기록한 책을 지키는 자들, 참조, 창 41:8,24; 출 8:14,15; 9:11; 단 1:20; 2:2). 이 단어는 종종 “점쟁이 제사장들”로 번역되었다.
4. NASB, NRSV – “그들의 비밀스런 행동” – BDB 532,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비밀스럽게”를 뜻한다(참조, 사 4:2; 룻 3:7; 삼상 18:22). 그러나 여기서는 “비밀스런” 지식을 사용하는 자를 뜻한다(참조, 출 7:11,22; 8:6,18; 9:11; NIDOTTE 제 2 권 794 쪽). 가능한 다른 번역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ㄱ. NKJV – “그들의 마법들”
- ㄴ. TEV – “그들이 행한 마술”
- ㄷ. NJB, JPSOA, REB – “그들의 주문”
- ㄹ. LXX – “그들의 마술 용액”

이러한 종류의 거짓 현인의 목록에 대하여는, 신명기 18 장에 대한 설명을 보라. 또한 로버트 B. 거들스톤 *구약의 동의어*(297-302 쪽)에 있는 설명을 보라.

▣ “그와 같이 행하되” 이집트의 현인들이 처음 세 가지 재앙을 따라서 한 일은 야웨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였다. 야웨께서는 도전을 받은 동양의 교만한 왕이 할 일이 무엇일지를 알고 계셨다. 그 결과 처음 세 가지 “이적”과 “놀라운 일”의 효과가 약화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따라 행한 이적은 악령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특별주제: 천사들과 귀신들을 보라. 그러나 그들의 것은 제한적이고 뒤지는 종류임을 주목하라!

#### 특별주제: 천사들과 귀신

- 가. 고대인들은 정령 숭배자들이였다. 그들은 자연의 힘, 동물, 자연물에 인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과 이런 영적 존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명을 이해하였다.
- 나. 이와 같은 의인화는 다신교(많은 신들)로 나타났다. 보통 귀신(켄나)은 개별적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좀 더 낮은 신 또는 반신반인(중거나 악한)이었다.
  1. 메소포타미아, 혼돈과 투쟁
  2. 이집트, 질서와 기능
  3. 가나안, W. F. 알브라이트의 *고고학과 이스라엘의 종교*(제 5 판, 67-92 쪽)
- 다. 구약은 강한 유일신 사상으로 인해 낮은 신, 천사, 또는 귀신의 주제를 다루거나 이를 발전시키지 않는다(참조, 출 8:10; 9:14; 15:11; 신 4:35,39; 6:4; 33:26; 시 35:10; 71:19;

인격화시킨 악에 대한 유대교의 신학은 알프레드 에더슈aim의 *메시아 예수의 일생과 시간*(제 2 권, 부록 XIII[749-863 쪽]과 XVI[770-776 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잘 제시하고 있다. 유대교는 악을 세 가지로 인격화시킨다.

1. 사탄이나 삼마엘
2.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의도(*에트저 하라*)
3. 죽음의 천사

에더샤임은 이것을 (1) 고소자 (2) 유혹자 (3) 처벌자라고 특징짓는다(제 2 권 756 쪽). 포로시대 이후의 유대교와 신약에서의 악에 대한 제시와 설명은 신학적으로 분명히 다르다.

- 마. 신약(특별히 복음서)은 사람에게와 야웨께 대한 악한 영적 존재의 실재와 방해를 주장한다(유대교에서 사탄은 인간의 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왕국을 반대한다.

예수님은 이런 악마적 존재와 마주 대하시고 내쫓으셨으며 또한 사람으로부터 (1) 더러운 영(참조, 눅 4:36; 6:18) 또는 (2) 악한 영(참조, 눅 7:21; 8:2)을 불러 내셨다.

예수님은 병든 것(육체적 그리고 정신적)과 귀신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셨다.

예수님은 악한 영을 인식하시고 내쫓으시는 것을 통해 그의 능력과 영적 통찰력을 나타내셨다. 악한 영은 종종 예수님을 인식했고 예수님께 말하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증언을 거부하시고 그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명령하셨으며 그들을 내쫓으셨다. 귀신을 내쫓는 일은 사탄의 왕국을 쳐부수는 표이다.

신약의 사도들이 쓴 서신서에는 놀라우리만큼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이 적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은사 목록에 전혀 없고, 또한 사역자나 믿는 자들의 장래 세대를 위해 주어진 축사의 방법이나 절차도 없다.

- 바. 악은 실재한다; 악은 인격체이다; 악은 현존한다. 이것의 기원이나 목적은 전혀 계시되지 않았다. 성경은 악의 실재를 단언하고 그것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실제로 궁극적인 이원론은 없다. 하나님께서 전체를 주장하신다; 악은 패배하였고

7: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어떤 이는 이것이 뱀을 경직시키는 특별한 취급법으로 이해한다. 또 어떤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거나 따라하는 것으로 본다(즉, 주술). 뱀을 매료시키는 것을 성경에서 종종 언급한다(즉, 요술사들, 마술사들, 참조, 시 58:5; 전 10:11; 렘 8:17).

▣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현인들이 표적을 따라 했음에도, 야웨의 능력이 확연하게 더 강력했다!

똑같은 내용이 출 7:22 에서 명백하게 제시된다. 현인들이 적은 양의 물을 붉게 바꾸었으나, 야웨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을 붉게 바꾸셨다.

이집트의 요술 책에서는 “삼키다”라는 동사가 다른 사람/신의 능력을 합체시키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개역개정 7:14-19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7:14-19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우리는 출 7:18 을 통하여 물고기가 죽어 가고, 물에서 냄새가 나고, 이집트인들이 물을 마시기에 어려움을 겪게 됨을 안다(출 7:21,24 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냄새가 물고기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물에 있는 어떤 자연적 변화(조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또다시 주석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이디오피아를 통과하는 지류에서 나오는 붉은 점토에 의해 나일 강이 때때로 붉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새 옥스포드 주해 성경, 77 쪽의 각주 및 NET 성경 129 쪽, 16 항을 보라). 우리는 “붉은 조수”로 불리며 해수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초자연적 기적에 속한다. 시기에 있어서 초자연적이며, 강도에 있어서도 초자연적이다(즉, 이집트에서 모든 그릇에 담긴 모든 물이 일시에 바뀌었다, 참조, 출 7:19). 한편, 물이 실제로 인간의 피로 바뀐 것이라고 나는 생각지 않는다. 색이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물이 물고기를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색의 변화 그 이상이었다. 이 본문에 있는 기적 역시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의 혼합이라고 여겨진다. 나일 강이 이집트의 주요 신의 하나(즉, *하피*)로 여겨졌음은 중요한 사항이다. 이 기적을 시작하며, 야웨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세가 이집트의 통치자이며 이집트의 최고의 신(즉, *라*의 아들)인 바로를 대면한다.

**7:14** 바로의 마음(출 4:21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여러 용어가 이 문맥에 나온다.

1. “완악하게 하고,” 출 7:3 – BDB 904, 이것은 “완악하게 하다”도 의미한다, 참조, 신 2:30
2. “완악하여,” 출 7:13,22 – BDB 304, 문자적으로 “강한” 또는 “단단한,” 참조, 출 4:21; 8:15; 9:12,35; 10:20,27; 11:10; 14:4,8,17; 수 11:20
3. “완강하여,” 출 7:14 – BDB 457, 문자적으로 “무거운,” 참조, 출 8:15,32; 9:7,34; 10:1

이러한 의미는 여기서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의도하고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서로 다른 구전적 전통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존 H. 왈튼과 D. 브렌트 샌디, *성경의 잃어버려진 세계*를 보라).

**7:16**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야웨)와 “하나님”(엘로힘)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다항과 라항을 보라. “히브리 사람”에 대하여는 출 1:15 의 설명을 보라.

**7:17**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는 출 5:2 에서 야웨께 대한 “지식”이 없음을 주장했다. 재앙은 야웨의 권능과 야웨께서 이집트의 신들/우상들보다 뛰어나심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참조, 출 8:10,22; 9:14,29).

언어유희가 명백히 나타난다

1. “알다” – BDB 393, KB 390
  - ㄱ. 정보
  - ㄴ. 인격적 관계(특별주제: 알다를 보라)
2. “나를 여호와인 줄” – 출 3:14-16 에 대한 설명을 보라

**7:18** “악취가 나리니” 이 동사(BDB 92, KB 107, *칼* 완료형)은 출애굽기에서 세 번 사용되었다.

1. 죽은 물고기로 인하여 나일 강에서 악취가 남, 출 7:18
2. 죽은 개구리로 인하여 땅에서 악취가 남, 출 8:14
3. 다음 날까지 남겨진 만나에서 악취가 남, 출 16:20

**7:19** 이 재앙은 다음 사항에 영향을 주었다

1. 이집트의 주요 신(즉, 바로가 나일 강에서 목욕을 하고/성수를 바르는 일에 있어서)
2. 이집트의 음식(즉, 물고기)
3. 이집트의 마실 물
  - ㄱ. 강의 물
  - ㄴ. 못/우물의 물
  - ㄷ. 운하의 물
  - ㄹ. 그릇의 물

출 7:24 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마실 물을 구하려고 애쓴 것을 주목하라.

IVP 성경 배경 주석(83 쪽)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의 문자적 의미가 “막대기들과 돌들”로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우가릿 문학에서 “외지고 황무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표현은 물의 모든 근원이 오염된 것임을 가리킨다.

▣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이 기적은 나일 강에 있는 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집트의 모든 물의 원천이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그릇에 담아 놓은 물도 영향을 받았다.

#### 개역개정 7:20-25

<sup>20</sup>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sup>21</sup>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sup>22</sup>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와의 말씀과 같더라 <sup>23</sup>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sup>24</sup> 애굽

**7:22** 요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였듯이(출 7:11), 물도 붉게 만들었다(7:22). 그들이 출 8:7 에서 개구리에 대하여도 이같이 행할 것이지만, “이”의 재앙을 흉내낼 수는 없었다(7:18).

요술사들이 주술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야웨의 능력에 비교하여 볼 때 제한적이었고 보잘 것 없었다.

7:24 이집트 국민(즉, 포도주를 먹을 수 없는)의 곤경은 심각했다. 그들의 유일한 기대는 나일 강 근처에 새로운 우물을 파서 모래/침전물이 정수기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 뿐이었다.

7:25 “이레가 지나니라” 왜 이 초기의 재앙이 이레 동안 지속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아마 히브리 사람들에게 대하여 일곱이라는 수가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상징적 수를 보라.

모세가 다른 재앙의 경우는 그것을 멈추게 하였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러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라.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인가?
2. 어떠한 사건이 바로로 하여금 야웨의 능력에 대하여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하였는가?
3. 출애굽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4. 야웨께서 나일 강을 붉게 바꾸신 일이 왜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가?
5. 바로의 현인들은 어디서 그들의 “비밀스런 기술”을 얻었는가?

# 출애굽기 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개구리가 땅을 뒤덮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두 번째 재앙: 개구리 (7:25-8:15)	개구리	(MT 의 절을 따라) 두 번째 재앙: 개구리 7:26-8:3
8:1-7	8:1-4	8:1-7	8:1-4	8:4-11
	8:5-7		8:5-7	
8:8-9	8:8-15	8:8-15	8:8	
			8:9	
8:10-15			8:10a	
			8:10b-15	세 번째 재앙: 모기
곤충의 재앙	세 번째 재앙: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	이	8:12-15
				네 번째 재앙: 말파리
8:16-19	8:16-19	8:16-19		8:16-20
	네 번째 재앙: 파리		파리	
8:20-24	8:20-24	8:20-24	8:20-24	
				8:21-28
8:25-29	8:25-32	8:25-29	8:25	
			8:26-27	
			8:28	
			8:29	
8:30-32		8:30-32	8:30-3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맛소라 본문의 7:26 에서 영어역(또한 한글 성경도)의 출애굽기 8 장이 시작한다. 새에루살렘 성경은 맛소라의 절 구분을 따르고 있다.
- 나.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앙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1. 개구리(출 8:1-15)
  2. 이(출 8:16-19)
  3. 곤충(출 8:20-32)
- 다. 재앙을 제시함에 있어서 반복적 형태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8:1-7

<sup>1</sup>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sup>2</sup>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sup>3</sup>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sup>4</sup>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sup>5</sup>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8:1 이것은 반복되는 형태의 서론이다(참조, 출 4:23; 5:1; 7:16; 8:1,20; 9:1,13; 10:3). 각 재앙에 있어서 이 진술을 그 목적으로 제시한다.

8:2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집트가 큰 강을 끼고 있었기에 개구리(BDB 862; 이 히브리 단어가 13 회만 사용되었는데, 놀랍게도 11 회가 이 문맥에 나온다)에 친숙하였다. 또다시 설명하지만, 이 기적은 단지 개구리라는 존재 때문이 아니라 출현한 개구리의 숫자와 시기와 장소의 선택성에 있다(즉, 고센에는 없었다, 참조, 출 8:22). 이집트에는 개구리를 상징으로써 사용하는 특별한 신이 들어 있었다: 여신인 *헤크트*와 남신인 *하프*(후자는 해마다 나일 강의 범람을 감당함).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하여 자신이 우월함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도 자신을 믿게 되기를 원하셨다(참조, 사 19:23-25).

8:4 이 재앙은 직접적으로 바로와 그의 궁전에 대한 것이다. 그 땅의 백성들도 고통을 받았지만 바로의 집은 더욱 고통을 받았다(참조, 동사, “두었다” 또는 “~에 있게 하였다,” BDB 962, KB 1321, *칼완*료형, 참조, 출 8:12).

8:5 야웨께서 같은 절차를 따라 나일 강을 피로 바꾸어 놓으셨음을 주목하라(참조, 출 7:19).

8:7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출 7:11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이집트인들에게 더 많은 개구리가 정말 필요했는가!! 이렇게 그들이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위하여 야웨께서 사용하신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 요술이 귀신의 능력에서 왔다고 나는 생각한다(출 7:11에 대한 설명을 보라).

#### 개역개정 8:8-9

<sup>8</sup>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sup>9</sup>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8:8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흥미롭게도 이 양보가 즉각적으로 바뀐다. 연속적인 동양적 흥정과정을 통하여 모세와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떠나는 것의 세부조항을 놓고 왔다갔다 한다.

1. 출 8:25에서, 바로는 그 땅에서 제사드릴 것을 말한다

2. 출 8:28 에서,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말한다
3. 출 8:27-28 에서는 8:8 에서와 같이, 바로는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를 저버린다
4. 출 10:8 에서, 바로는 남자만 갈 것을 말한다
5. 출 10:16-20,24 에서, 바로는 가되 가축을 두고 갈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의지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본다. 하지만 그는 히브리 종들이 떠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8:9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 히브리 관용어의 의미는 이렇다: “나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하겠소; 그것을 위한 시간을 제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바로를 배려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연적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그 시기와 강도와 지역적 범위에 있어서 초자연적이다. 제안에 따라 바로는 재앙이 그칠 정확한 시간을 정해야 한다(참조, 출 9:5).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주관하심을 드러낸다.

#### 개역개정 8:10-15

<sup>10</sup>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sup>11</sup>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sup>12</sup>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sup>13</sup>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sup>14</sup>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sup>15</sup> 그러나 바로가 숨을

**8:10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여기서 또다시 재앙의 신학적이고 구속적인 목적이 제시된다. 또한 유일신 신앙에 대한 강조를 주목하라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8:15** 이것은 반복되는 내용이다. 재앙이 그쳐지면, 바로는 자신의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 “숨을 쉴 수 있게 됨” 이 용어(BDB 926)는 기본적으로 “널찍하게 되다 또는 공간이 생기다”를 뜻한다. 이곳과 애 3:56 에서만 이것은 “경감” 또는 “한숨 돌림”을 뜻한다. 단어가 오직 문맥 안에서 의미를 가짐을 기억하라!

개역개정 8:16-19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8:16

NASB, NRSV,

TEV, LXX “각다귀들”

NKJV, 페쉬타, 탈군 “이들”

NJB “모기들”

JPSOA “벌레들의 떼”

REB “구더기들”

예루살렘 탈군,

JPSOA 각주 “들 짐승들”

이 날아다니는 곤충의 정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NIDOTTE 제 2 권 665 쪽). 어떤 이는 이것이 모기(NJB, 비슷한 이집트 어근), 각다귀(헤로도투스 2:95) 또는 쇠가죽파리라고 주장한다. 강조점이 이 곤충의 정체에 있지 않고 그들의 수에 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용어(BDB 487 IV, KB 483 II)는 이곳과 시 105:31(여기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묘사함)과 사 51:6 에서만 나온다.

8:18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그들이 이전의 재앙들은 따라 할 수 있었지만 왜 이 재앙을 따라 할 수 없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야웨께서 이집트의 신들과 현인들보다 우월하심을 나타낸다.

8:19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물론 이것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또는 “어떤 신의 활동”; *엘로힘*이 사용됨. 특별주제: *엘로힘*을 보라) 활동을 묘사하는 신인동형적 표현이다(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보라). 이것은 그 요술사들이 믿었거나, 아니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인 야웨의 능력과 임재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을만큼 감명을 받았음도 나타낸다. 이것은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려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

▣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문맥상 이것은 요술사들이 출 8:19 에서 한 말을 가리킨다.

**개역개정 8:20-24**

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그러하리라 22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8: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바로가 아침마다 물을 살펴보는 일은 하나의 종교의식이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아침 일찍 또는 물 있는 곳에서 바로를 만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즉, 출 7:15). 나일 강은 이집트의 여신이기에 이곳에서 아침에 물을 붓거나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을 것이다(참조, 출 2:5,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왔다).

8:21

NASB, JPSOA “곤충의 떼”

NKJV, NRSV, REB “파리의 떼”

TEV “파리들”

NJB “집파리들”

LXX “쓰는 파리들” 또는 “개를 무는 파리들”

이것은 출 8:16-19 과는 구별되는 재앙이다. 이 용어(BDB 786)는 “떼”를 뜻하지만, 어떤 것의 떼인지를 밝히지는 않는다(NIDOTTE 제 3 권 525 쪽).

이 용어를 사용한 두 시편에서는 출 8:16-24 를 한 가지 재앙으로 제시하는 것 같다(참조, 시 78:45; 105:1).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두 가지의 구전적 전통이 후에 한 편집자에 의해 합쳐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존 H. 왈튼과 D. 브렌트 샌디, *성경의 잃어버려진 세계*를 보라. 성경은 “열” 가지 재앙이 있었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는다.

**8:22**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네가”는 단수형이며, 바로를 가리킨다. 이 본문은 재앙의 지역적 범위를 처음으로 특별하게 언급하는 곳이다(참조, 출 9:4,26; 10:23; 11:7). 그러나 나는 모든 재앙이 이러한 특색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항을 이곳에서 처음으로 바로에게 언급하였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신학적 진리의 언급은 중요한 사항이다. “임마누엘”(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라는 용어로 표현된 이 진리는 에덴 동산과 메시아의 오심에서는 물론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서도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되었다.

**8:22** 이것은 재앙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야웨께 있었음을 나타낸다. “고센 땅”은 삼각주의 동부에 있는 지역으로서 가축과 양을 많이 기르는 곳이었다(참조, 창 45:10).

▣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자신의 자비하심을, 이집트인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계속하여 드러내셨다.

**8:23**

NASB, 페쉬타 “간격을 두어”

NKJV “다르게 하여”

NRSV, TEV, NJB,

JPSOA, REB, LXX “구별하여”

맛소라 본문에서는 “구속”(BDB 804, KB 913)으로 되어 있다. 어떤 이는 본문을 수정하여 “간격” 또는 “구별”을 제시한다.

1. *프두트*(KB 913) – 속량
2. *프루트*(KB 936) – 분리
3. *프루돌*(BDB 825) – 나누다(NIDOTTE 제 3 권 581 쪽)

UBS 본문 프로젝트(99 쪽)는 “속량/구속”에 A 등급(즉, 매우 확실함)을 준다. 이 문맥에서 이러한 뜻은 이상하다. 오히려 “지역적 구분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야웨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다.

**개역개정 8:25-29**

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가구하라 29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왔을 때 떠나가서 여호와께 가구하리니 내인이며 파리 떼가

8:25 출 8:8 의 설명을 보라.

8:26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채소에 고기조각을 곁들인 제사를 드렸음을 안다.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제사가 어떤 종류의 것인가에 대하여 고대 주석가들 사이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탈군 온켈로스에서는 이것이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 탈군에서는 이것이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 짐승들이 이집트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그들이 적의를 가지고 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 “싫어하는 바인즉” 특별주제: 혐오를 보라(구약).

**특별주제: 혐오**

“혐오”(BDB 1072)는 다음의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1. 이집트인들과 관계된 것들:
  - ㄱ. 그들은 히브리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창 43:32
  - ㄴ. 그들은 양치는 자들을 몹시 싫어했다, 창 46:34
  - ㄷ. 그들은 히브리인의 제사를 몹시 싫어했다, 출 8:26
2.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야웨의 감정과 관계된 것들:
  - ㄱ. 부정한 음식, 신 14:2
  - ㄴ. 우상, 신 7:25; 18:9,12; 27:15

- ㄱ. 가나안의 우상숭배, 신 13:14; 17:4; 20:17-18; 32:16; 사 44:19; 렘 16:18; 겔 5:11-6:9; 11:18,21; 14:6; 16:50; 18:12
- ㄴ. 흠있는 동물의 제사, 신 17:1(참조, 15:19-23; 말 1:12-13)
- ㄷ. 우상에게 제사함, 렘 44:4-5
- ㄹ. 이혼한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 신 24:2
- ㅈ. 남자의 의복을 입는 여자(가나안의 예배에서), 신 22:5
- ㅊ. 창기가 번 돈(가나안의 예배), 신 23:18
- ㅋ.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렘 2:7
- ㅌ. 동성애(가나안의 예배에서), 레 18:22; 20:13
- ㅍ. 거짓 추의 사용, 신 25:16; 잠 11:1; 20:23
- ㅎ. 음식규정을 범하는 것(가나안의 예배에서), 신 14:3

3. 지혜서의 예:

- ㄱ. 잠 3:32; 6:16-19; 11:1,20; 12:22; 15:8,9,26; 16:5; 17:15; 20:10,23; 21:27; 28:9
- ㄴ. 시 88:8
- ㄷ. 욥 30:10

4. 다니엘(참조, 9:27; 11:31; 12:11)에서 “가증한 것”이란 종말론적 구절이 반복된다.

이것은 세 가지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중복적인 예언 성취):

- ㄱ 시구약 주가기 마카비아 시대의 아티오커스 4 세이 에피파네스/참조 마카비아

**8:27 “우리가 사흘길쭉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이끄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출 3:18). 문제는 그곳으로 가기에 삼일은 너무 짧았다는 점이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이것에 대해 추정한다.

1. 모세가 여기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이것은 보다 긴 기간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참조, 출 10:23)

3. 우리는 시내산의 위치를 잘못 알고 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주요 관심은 시내산의 위치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들에게는 시내산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주된 관심사였다(즉, 창 15:12-21). 만일 이 기간을 문자적으로 택한다면, 가능한 설명이 한 가지 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가 가까이 있는데, 그 장소는 사흘길의 여정에 적합하다. 특별주제: 시내산의 위치를 보라.

**8:28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동양적인 흥정이 계속된다(참조, 출 8:8).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하지 않는 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법적으로 볼 때, 이 구는 같은 어근(BDB 934, KB 1221)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의 용법으로서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8:29 “바로는 . . .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것은 바로가 어떤 것을 말한 뒤에, 재앙이 그치면 생각을 바꾸어(참조, 출 8:15) 그 일을 또다시 하고 있음을 가리킨다(참조, 출 8:32).

**개역개정 8:30-32**

<sup>30</sup>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sup>31</sup>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sup>32</sup> 그러나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많은 재앙이 행해졌는가?
2. 요술사들이 어떻게 처음 세 재앙을 따라 하였는가?
3. 출 8:9 에 나오는 관용적 표현을 설명하라.
4. 재앙이 직접적으로 바로에 대한 것임을 출 8:11 이 어떻게 제시하는가?

5. 출 8:27 이 왜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인가?
6. 출 8:26 을 설명하라.

# 출애굽기 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이집트인의 가축이 죽다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이 병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	짐승의 죽음	다섯 번째 재앙: 이집트인의 가축이 죽음
9:1-7	9:1-7	9:1-7	9:1-5 9:6-7	9:1-7
종기의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종기		종기	여섯 번째 재앙: 종기
9:8-12	9:8-12	9:8-12	9:8-12	9:8-12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일곱 번째 재앙: 우박
9:13-17	9:13-21	9:13-21	9:13-21	9:13-19
우박의 재앙				
9:18-21				9:20-21
9:22-26	9:22-26	9:22-26	9:22-26	9:22-26
9:27-35	9:27-35	9:27-35	9:27-28 9:29-30 9:31-32 9:33-35	9:27-32
				9:33-35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출애굽기 9 장은 네 가지 재앙에 대한 기록이다.
1. 짐승에 생긴 질병, 출 9:1-7
  - 2,3. 짐승과 사람에게 생긴 질병, 출 9:8-12
  4. 우박, 출 9:1-7(다른 어떤 재앙에 대한 것보다 더 긴 내용임)
- 나. 이집트의 현인들이 재앙들을 흉내낼 수 있었던 일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에 있어서 초기의 원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참조, 출 9:12,35). 그는 믿기를 거부하고 있다(참조, 9:30).
- 다. 출 9:14-16 은 이 재앙의 독특한 면을 드러낸다. 이 본문은 재앙이 가진 특별한 신학적 목적과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신학적 목적(같은 이유에서)을 제시한다(출 9:29 의 설명을 보라; 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 라. 야웨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향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참조, 출 9:14,16,29)은 보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참조, 9:20-21).
- 모든 종류의 “가축”에 생긴 질병은 이집트의 신들이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9:1-7

<sup>1</sup>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sup>2</sup>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sup>3</sup>여호와와 그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들림병이 있을 것이며 <sup>4</sup>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sup>5</sup>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sup>6</sup>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9:1 문학적 특징이 계속된다.

9:2 “네가 만일 . . . 면”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두 가지 경고를 제시한다.

1. 출 9:2-7
2. 출 9:13-16

9:3 “여호와와 의 손” 특별주제: 손을 보라.

▣ “더하리니” NET 성경(134 쪽, 5 항)에서는 이 형태(즉, “~있다”[BDB 224, KB 243]라는 동사의 *칼* 능동 분사, 여성 단수)가 여기서만 나옴을 지적하고 있다. NET 성경은 이것을 “정말로 가져 올 것이니”로 번역하였다.

브레바드 차일드스는 G. S. 옥덴(129 쪽)의 말을 인용한다. 옥덴은 분사형의 사용이 출애굽기에 있는 양식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즉, 출 7:17,27; 9:3; 10:4).

이것은 석의적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는 부류의 문법적 세부사항이다(즉, 랍비들의 문자주의). 적합한 해석의 열쇠는 각 문단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 “가축” 출 9:19 의 내용을 인하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 출 9:3 은 가축의 모든 종류를 제시한 목록인가?
2. 이것은 과장적인 표현인가(참조, 출 9:6)?
3. 남아 있는 가축이란 출 9:19-20 에 나오듯이 사람들이 집안에 두고 기르는 짐승을 가리키는가?

9:4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출 8:22 의 설명을 보라. 출 9:6 의 마지막 부분과 9:7 의 앞 부분에 나오는 강조형 진술을 주목하라.

9:5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출 8:10 에서는 재앙을 언제 그치게 하길 원하는지 그 시간을 제안하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다. 여기서 다른 재앙이 시작할 시간을 야웨께서 정하신다.

바로가 왕궁의 벽에 손가락으로 명료하게 쓰여진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단 5 장에서 취한 관용적 표현임).

9:7 히브리인의 가족/집승 때에 대한 모세의 예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바로가 종들을 보낸다.

**개역개정 9:8-12**

<sup>8</sup>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sup>9</sup>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sup>10</sup>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sup>11</sup>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sup>12</sup>그러나 여호와께서

9:8

NASB, NRSV, NJB

JPSOA, REB “검댕”

NKJV, TEV, 페쉬타 “재들”

구약에서 이 용어(BDB 806, KB 925)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비슷한 어근인 “불다” 또는 “숨을 내쉬다”(즉, 말하다)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추정일 뿐이다.

9:9 “종기” 이 용어(BDB 1006, KB 1460, 참조, 신 28:27)는 염증, 궤양, 발진을 나타낸다. KB 에서는 이것이 나병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출 4:6-8 에서 모세에게 주신 처음 증거 가운데 하나와 연결이 된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의 어근이 동족어인 아랍어에서 “열”을 뜻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즉, 피부에서 열이 나는 장소).

똑같은 단어가 (1) 거의 죽다 살아난 히스기야의 병(참조, 왕하 20:7)과 (2) 움의 병(참조, 움 2:7)에 대한 설명에 나온다.

▣ “악성” 이 용어(BDB 101, KB 9)는 이곳에서만 나온다(즉, 출 9:9,10). 아카디아어에서 이 어근은 “물집” 또는 “궤양”을 뜻한다고 KB 는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종기”와 동의어적 관계에 있다.

출 9:15 에서는 더욱 일반적 용어인 “악성 전염병”(BDB 184)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재앙을 뜻한다(참조, 출 5:3; 레 26:25; 민 14:12; 신 28:21).

9:11 이 절에서는 이집트의 우상숭배가 무력함을 강조하여 제시한다!

9:12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출 4:21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9:13-17**

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4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15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9:14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모든”이라는 용어는 비, 우박, 번개, 강력한 폭풍과 함께 오는 모든 것을 뜻할 것이다(참조, 출 9:23-24).

우박은 출 9:8-12 에서 나오는 재앙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가축에게 영향을 주었다(출 9:25).

9:14-16 “은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재앙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속적 목적을 본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구속적 목적이다. 창 12:3 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 세상을 구속(속량)하기 위한 것임을 안다. 출 19:5-6 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함을 안다. 또 이사야 53 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구속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실패하였지만 참 이스라엘이신 메시아께서 어느 날 모든 백성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이끌 것임도 안다(참조, 사 41-42 장).  
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과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9:16 야웨께서 바로(참조, 롬 9:16)와 이집트(참조, 출 9:15;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음)에 대하여 긍휼로 대하신 것은 온 세상(즉, “*에렛츠*,” 특별주제: 땅을 보라)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려는 목적을 위해서였다.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심은 그의 사랑을 나타낸다(또한 출 9:20-21 에서 자비하심에 대한 설명을 보라).

**특별주제: 땅, 나라, 세계(*에렛츠*)**

모든 히브리어 어근에서처럼 문맥이 각 단어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제한된 수의 히브리어근(즉, 고대 셈족 언어)은 각 단어가 여러 다른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갖게

1. 전체 행성(비록 고대인들이 이것의 크기나 모양을 알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알려진 세상”을 나타냈다)
  - ㄱ. 창 1-2 장; 6-9 장; 10:32; 11:1,4,8,9; 14:19; 18:18,25; 22:18 기타
  - ㄴ. 출 9:29; 19:5
  - ㄷ. 시 8:1,9; 24:1; 47:2,7; 렘 25:26,29,30
  - ㄹ. 잠 8:31
  - ㅁ. 사 2:19,21; 6:3; 11:4,9,12; 12:5
2. 하늘에 대조되는 땅
  - ㄱ. 창 1:2
  - ㄴ. 출 20:4
  - ㄷ. 신 5:8; 30:19
  - ㄹ. 사 1:7; 37:16
3. 인간이 거하는 행성을 나타내는 은유
  - ㄱ. 창 6:11; 11:1
  - ㄴ. 왕상 2:2; 10:24
  - ㄷ. 욥 37:12
  - ㄹ. 시 33:8; 66:4
4. 나라 혹은 지경
  - ㄱ. 창 10:10,11; 11:28,31
  - ㄴ. 특별히 이스라엘(야웨께로부터 온 선물,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유하신다)
5. 땅, 참조, 수 7:21

▣ “내 이름” 특별주제: 야웨의 “이름”을 보라.

### 특별주제: 야웨라는 “이름”

야웨 자신을 나타내는 “이 이름”의 사용은 출 23:20-33 과 평행을 이룬다. 그 본문에서는 이 이름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라고 불리는 “천사”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대치는 “그의 영광”(예, 요 1:14; 17:22)이라는 표현에서도 보여진다. 이 모든 경우는 야웨의 직접적이고 신인동형적 임재하심을 부드럽게 나타내기 위한 시도이다(참조, 3:13-16; 6:3). 분명히 야웨께서

“이 이름”이 야웨의 신적 본질과 그의 인격적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예가 있다:

1. 신 12:5; 삼하 7:13; 왕상 9:3; 11:36
2. 신 28:58
3. 시 5:11; 7:17; 9:10; 33:21; 68:4; 91:14; 103:1; 105:3; 145:21
4. 사 48:9; 56:6
5. 겔 20:44; 36:21; 39:7
6. 암 2:7
7. 요 17:6,11,26

야웨의 이름을 “부르는”(즉, 예배하는) 개념은 이른 시기에 속하는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1. 4:26, 셋의 가계
2. 12:8, 아브라함
3. 13:4, 아브라함
4. 16:13, 하갈
5. 21:33, 아브라함
6. 26:25, 이삭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1. 5:23,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다
2. 9:16, 온 땅에 나의 이름을 나타내라(참조, 롬 9:17)
3. 20:7,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참조, 레 19:12; 신 5:11; 6:13; 10:20)
4. 20:24,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참조, 신 12:5; 26:2)

9:17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이 동사(BDB 699 I, KB 757, *히트파일* 분사)는 이곳에서만 이 의미로 사용되었다. 보통 이 동사는 다음 사항의 건설을 가리킨다

1. 포위 작업(이집트어에서 빌려온 어휘일 것임)
2. 고속도로

이 본문과 가장 밀접하게 평행을 이루는 것은 잠 4:8 인데, 거기서는 “지혜”가 높아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바로는 자신의 마음 주위에 방호벽을 건설하여 놓았다.

야웨와 그의 백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그 중 어느 한 쪽에 대하여 자신을 높이는 일은 두 쪽 모두에 대하여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된다(즉, 행 9:4; 22:7; 26:14).

#### 개역개정 9:18-21

<sup>18</sup>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sup>19</sup>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차셔다 차라 차시니라 <sup>20</sup> 바르이 시라 후에 영혼아이 마쓰은 드려와차는 자들으 7

**9:18**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다시 말하지만, 시기와 강도와 지역의 선택이 신학적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에서 우박이 드문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문서로 입증될 수 없으며 이 시점에서는 단지 추정엔 불과하다. 요세푸스(*유대 고대사* 2.14,4)는 이 우박이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고 말한다.

이집트의 신화에서는 불과 물을 신으로 여겼다(즉, *세라피스* 신전). 야웨께서 이 둘을 주관하고 계신다.

▣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러한 문학적 과장법은 마지막 날에 대한 표준적 묘사방법이 된다(참조, 단 12:1; 마 24:21; 막 13:19; 계 16:18; 또한 마카비 1서 9:27의 설명을 보라).

**9:19**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이것은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첫 번째 재앙이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는 이 재앙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바로의 어떤 종들이 야웨를 믿었고 믿음으로 행하였음을 출 9:20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다. 이 일은 바로가 본받아 행해야 했던 모본이었다!

**9:21** “여호와와 말씀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동사(BDB 962, KB 1321, *히/플* 완료형)는 출 7:23에서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의 종들 가운데 어떤 이는 그와 똑같이 행하고 있다(참조, 출 9:34).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을 격려하고 불순종을 경고하기 위하여 신 32:46에서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였다.

#### 개역개정 9:22-26

<sup>22</sup>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sup>23</sup>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렛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sup>24</sup>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 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sup>25</sup>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9:23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것은 번개가 계속적으로 치는 것을 묘사한다.

9:24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불이 그것 자체를 붙들고”(BDB 542, KB 534, *히트파일* 분사)이다. 이것은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이쪽저쪽에서 지속해서 번쩍임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

9:25 우박이 사람과 짐승을 죽였고 대부분의 식물을 파괴하였다.

9:26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센에는 우박이 전혀 내리지 않았다(참조, 출 8:22).

#### 개역개정 9:27-35

27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28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렛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29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렛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30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31 그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32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33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렛소리와 우박이

9:27 이것은 바로가 한 놀라운 말이다. 자신의 불신앙과 완악한 마음으로 범죄하였음을 바로가 인정한다(참조, 출 10:16-17). 야웨의 뛰어난심과 의로우심(특별주제: 의를 보라)을 바로가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과 더불어 야웨께서 재앙을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또 재앙의 성취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의미이다(단 9:14 의 설명을 보라).

## 특별주제: 의

“의”는 성경학도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 또는 “의”(BDB 841)로 설명된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단어는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벽과 울타리가 수평적으로 곧은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축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곧은 날(자)이시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재판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참조, 창 1:26-27; 5:1,3; 9:6).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무대요 배경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에 있어서 절정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 인간의 충성된 여부를 시험하셨으나(참조, 창 3 장), 최초의 부부는 이것에 실패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는 결과를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행하신 첫 번째 일은 언약의 개념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와 인간이 회개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반응에 기초한다. 타락을 인하여 인간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3:21-31; 갈 3 장). 언약을 깨트린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셔야만 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갖고 다음의 일을 하셨다

1.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심(즉, 법적인 의)
2.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에게 의를 거저 주심(즉, 전가된 의)
3. 의(즉, 그리스도를 닮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를 이루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심
4. 에덴 동산에서의 교제를 회복하심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따른 반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고(즉, 거저 주시고) 공급하시지만, 인간은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1. 회개
2. 믿음
3.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
4. 인내

내 생각에는 창세기 4 장부터 계시록 20 장까지 이르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에덴에서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배경으로 시작하고(참조, 창 1-2 장) 같은 배경으로 마친다(참조, 계 21-22 장).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은 회복될 것이다!

이안느 이를 이주하기 위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행위가 단 한 번은 제시되는 신약성경의



6.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ㄱ. 사도행전 17:31

ㄴ. 디모데 후서 4:8

의는 하나님의 특성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이것은

1. 하나님의 선언이고
2. 하나님의 선물이며
3.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4. 이렇게 살아야 할 삶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됨의 과정은 활발하면서도 견실하게 추구해야 하는 일로서 재림의 때에 하루에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을 받음으로 회복되지만 삶을 사는 동안 계속 진행되어 우리가 죽는 날 혹은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만남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결론으로서 인용할 좋은 내용이 있다. 이것은 IVP 에서 출판한 *바울과 바울서신 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의가 관계에 미치는 면에 대하여 루터가 했던 것 보다도 더 강조했다.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면제의 측면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갖는 놀라운 특징 혹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강조했다” (834 쪽).

나에게 있어서 신자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세 가지 측면을 갖는다:

1. 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동방 교회와 칼빈의 강조점)
2. 보은의 지킴(인격성)과 복음이 가져다

9:28

NASB, NRSV, JPSOA “하나님의 천둥”

NKJV, 폐쉬타, “강력한 천둥들”

TEV, NJB, REB “이것”

LXX “하나님의 목소리들”

맛소라 본문에서는 “우박”(BDB 876)과 *엘로힘*(BDB 43)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 *엘로힘*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소유격 - NASB
2. 형용사 - NKJV
3. 지시대명사 - NJB

(UBS *핸드북* 228 쪽을 보라).

천둥을 종종 야웨의 목소리로 여겼다(참조, 출 19:16,19).

9:29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취하는 자세는 두 손과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드는 자세였다(참조, 출 9:33; 왕상 8:54; 대하 6:13; 스 9:5; 욕 11:13; 시 88:9; 사 1:15).

▣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똑같은 신학적 강조가 출 19:5; 20:11 에서 나온다.

9:30 바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 번 보았으나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모세는 그가 또다시 그렇게 할 것을 알았다(참조, 출 9:34-35).

“두려움”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경외함(구약)을 보라. 야웨와 *엘로힘*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다항과 라항을 보라.

9:31-32 이것은 편집자의 설명으로서, 어떻게 우박이 1 월과 2 월에 작물을 상하게 하였으며 메뚜기가 3 월과 4 월에 그 나머지 작물을 파괴하였는지를 말한다.

9:31 “삼” 이 작물은 일반적으로 남성형 명사(BDB 833)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여성형(BDB 834)으로 되어 있다. BDB 에서는 이것이 “올라오고 있는 어린 삼”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9:32 “쌀보리” 이것(BDB 493, KB 490, 참조, 사 28:25; 겔 4:9)은 밀의 한 종류이지만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의 여러 이집트 무덤에서 이것이 발견되었다. 겔 4:9 에서 여러 곡물의 목록을 확인하라.

9:34-35 저자가 자유의지(출 9:34)와 하나님의 주권(9:35 은 이에 대한 전형적인 진술이다)을 나란히 제시함에 있어서 아무런 상충이 일어나지 않음을 주목하라! 특별주제: 선택/예정 및 신학적 균형의 필요성을 보라. 또한 특별주제: 예정(칼빈주의) 대 인간의 자유의지(알미니안주의)를 보라.

### 특별주제: 선택/예정 및 신학적 균형의 필요성

선택은 놀라운 교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편애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이의 구속을 위한 통로가 되거나 혹은 방편이 되라는 부르심이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우선적으로 섬김을 위한 것이었고, 신약에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섬김을 낳는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있는 표면상의 모순을 화해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 둘을 다 인정하고 있다! 로마서 9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로마서 10 장에 있는 인간이 해야 할 반응(참조, 10:11,13) 사이의 긴장은 성경에 있는 이러한 긴장의 좋은 예이다.

이러한 신학적 긴장에 대한 열쇠를 엡 1:4 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는 그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칼 바르트). 예수는 타락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예”가 되신다(칼 바르트). 에베소서 1:4 도 예정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거룩함(그리스도를 닮음)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종종 복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끌리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소홀히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은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임은 물론 현재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교리는 다른 진리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지 따로 떨어진 하나의 진리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좋은 유추는 성운 대 한 개의 별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서양이 아닌 동양의 장르로

1. 죄없음(완전함) 대 죄를 적게 지음
2. 최초의 즉각적인 칭의와 성화 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3.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 특별주제: 예정(칼빈주의) 대 인간의 자유의지(알미니안주의)

디도서 2:11 은 선택에 관한 신약의 다른 본문과 균형을 이룬다. 나는 롬 8:29 과 9 장 및 엡 1 장에 대한 주석에서 내가 설명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I. 로마서 8:29 – 바울은 “예지하다”(프로기노스코, “미리 알다”)라는 단어를 이곳과 11:2 에서 사용하였다. 11:2 에서 이 단어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가리킨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용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그와의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함을 기억하라(참조, 창 4:1; 렘 1:5). 여기서 이 단어는 일련의 영원한 사건들을 포함한다(참조, 롬 8:29-30). 이 용어는 예정과 관련을 가진다. 한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은 선택의 기초가 되지 않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만일 범죄한 사람이 미래에 행할 반응에 기초한 선택이라면 이는 인간의 행위를 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행 26:5; 벰전 1:2,20; 벰후 3:17 에서도 나온다.

가. “예지하다”(프로기노스코, “미리 알다”)

“미리 알다”와 “예정하다”라는 용어는 “미리”라는 전치사와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이것을 “미리 알다”, “미리 범위를 정하다” 또는 “미리 표시하다”로 번역해야 한다.

신약에서 예정을 다룬 중요한 본문은 롬 8:28-30; 엡 1:13-14; 롬 9 장이다. 이 본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맞추어 이미 설정하신 계획이 있다. 한편 이 계획은

임의적이거나 취사선택적이지 않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지하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왜곡시키는 우리의 서구적(미국인의) 개인주의 혹은

벧후 3:9).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단 말인가(참조, 롬 8:31-39)?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현재로 보신다; 인간은 시간에 묶인 존재이다. 우리의 관점과 지적 능력은 제한적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다. 이것은 언약적 구조를 갖는다. 이것은 변증법적 긴장으로 제시된 진리의 한 예이다. 성경의 교리는 다른 종류의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그것은 종종 역설적으로 나타난다. 서로 반대를 이루는 쌍으로 보이는 것 사이에 진리가 위치한다. 우리는 이 진리들의 어느 한 쪽을 취함으로써 그 긴장을 제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진리라도 그것을 따로 격리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택의 목적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천국 뿐 아니라 현재 가질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있음도 강조되어야 한다(참조, 롬 8:29; 엡 1:4; 2:10).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살도록” 선택을 받았다. 우리의 바뀐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예정하심은 우리의 개인적 특권이 아니라 언약적 책임을 나타낸다. 이것이 이 본문의 주요 진리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목적이다. 거룩함은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특별한 지위를 뜻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의미한다(참조, 엡 1:4). 창조 때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26; 5:1,3; 9:6)은 회복되어야 한다.

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따르다”—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형상의 회복에 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미리 정해졌다(참조, 엡 1:4).

## II. 로마서 9 장

가. 로마서 9 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신약의 가장 강력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다른 본문으로는 엡 1:3-14 이 있음). 한편, 10 장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명확하게 또 반복하여 언급한다(참조, “모든 사람” 4 절; “누구든지” 11,13 절; “모든” 12 절 [2 회]). 바울은 결코 이러한 신학적 긴장을 조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성경의 어떤 강조점을 택하여 다른 강조점을 놓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동양 사람들이 진리를 변증법적 혹은 긴장으로 가득찬 쌍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교리에 긴장이 나타난다. 반드시 다른 교리와의 관계에서 교리들을 이해해야 한다. 모자이크 형태로 진리가 이루어져 있다.

### III. 에베소서 1 장

가. 선택은 놀라운 교리이다. 한편, 이것은 편애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속을 돕기 위한 통로, 도구, 방법으로의 부르심이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우선적으로 섬김을 나타낸다; 신약에서 이 용어는 섬김을 가져 오는 구원을 뜻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나타나는 모순을 결코 화해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둘을 모두 확증한다! 성경에 나타난 긴장에 대한 좋은 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로마서 9 장과 인간이 해야 할 응답에 대한 로마서 10 장의 경우일 것이다 (참조, 10:11,13).

이 신학적 긴장에 대한 열쇠가 1:4 에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시며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을 가능성을 가진다(칼 바르트). 예수께서는 범죄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예”(yes)이시다(칼 바르트). 엡 1:4 은 또한 예정의 목적이 오직 천국만이 아니라 거룩함(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있음을 확증함으로써 이 주제를 명확하게 해준다. 우리는 종종 복음의 혜택에 의해 끌림을 받지만 책임있는 삶은 무시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선택)은 영원은 물론 일시적인 삶을 위한 것이다!

교리는 따로 떨어진 별개의 진리로서가 아니라 다른 진리들과의 관계성에 비추어서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는 성운 대 한 개의 별이다. 하나님께서는 서구의 장르가 아니라 동양의 장르를 취하여 진리를 나타내신다. 우리는 변증적(역설적) 쌍을 이룬 교리적 진리들로 인한 긴장을 제거해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초월적인 하나님 대 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안전함 대 인내함; 성부와 동등하신 예수 대 성부께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 언약의 형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기타).

“언약”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항상 주도권을 갖고 일을 시작하시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시는 분)을 인간이 취하여야 하는 믿음의 처음 응답 및 지속적인 회개의 믿음과 하나로 엮는다. 역설적 진리의 한 쪽을 성경 구절로써 입증함으로써 다른 쪽을 무시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이 좋아하는 교리나 조직신학만을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 엡 1:4 에서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는 표현은 주어를 강조하는 부정과거 중간태

롬 8:28-29; 갈 4:19)과 관련을 가진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대해 갖고 계신 뜻은 어느 날 천국에서의 삶과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대한 것이다!

엡 1:4 에서는 “그 분 안에서”가 핵심 개념이다. 성부의 축복, 은혜,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른다(참조, 요 14:6). 이 문법적 형태(공간을 말하는 위치격)가 반복되어 나타남을 주목하라—3 절, “그리스도 안에서”; 4 절, “그 분 안에서”; 7 절, “그 분 안에서”; 9 절, “그 분 안에서”; 10 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 안에서”; 12 절, “그리스도 안에서”; 13 절, “그 분 안에서”(2 회).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예”였다(칼 바르트). 예수께서는 선택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은 그 분 안에서 선택의 가능성을 가진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 온다.

“세상이 형성되기 전에”라는 구는 마 25:34; 요 17:24; 벰전 1:19-20; 계 13:8 에서도 나온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적 행동이 창 1:1 이전에 속함을 나타낸다. 인간은 시간적으로 제한을 갖는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인식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예정하심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지 특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담의 자녀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참조, 창 1:26-27) 하나님을 닮도록(참조, 살전 5:23; 살후 2:13) 하기 위함이다. 예정하심을 거룩한 삶이 아닌 신학적 교리로 바꾸는 일은 비극이다. 종종 우리의 신학이 성경 말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

“흠없는”(아모모스) 혹은 “책망할 것 없는”이라는 용어가 (1) 예수님(참조, 히 9:14; 벰전 1:19) (2) 스가랴와 엘리사벳(참조, 눅 1:6) (3) 바울(참조, 빌 3:6) (4)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참조, 빌 2:15; 살전 3:13; 5:23)에 대해 사용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천국에서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참조, 롬 8:28-29; 갈 4:19; 벰전 1:19). 신학은 복음의

혹은 오늘날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참조, 겔 18:21-23,32; 요 3:16-17; 딤후 2:4; 4:10; 딤후 2:11; 벧후 3:9). 예정하심을 다룬 또 다른 본문인 롬 9-11 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열쇠가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하나님의 성품)는 이 본문에 있어서 신학적 열쇠가 된다(참조, 6a, 7c, 9b 절).

범죄한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있다(참조, 사 53:6 및 롬 3:9-18 에서 인용한 구약의 여러 본문).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앞부분의 장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바울이 인간의 행함과 완전히 상관없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9:34 “다시 범죄하여” 이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됨에 있어서 바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요술사들은 일찌기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재앙들이 하나님(또는 신들)의 손가락이라고 출 8:19 에서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바로를 가까이서 모시는 종들로서 모세의 말을 들었고 기적적인 징조를 본 자들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참조, 출 9:21,30,34; 10:1). 불신앙은 전염성이 있다!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출애굽기 9 장에서는 재앙이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임을 어떻게 계속해서 나타내는가?
2. 출 9:14-16 의 신학적 중요성을 설명하라.
3. 출애굽기의 이 부분에서 출 9:20-21 이 왜 독특한 본문을 이루는가?
4. 출 9:27 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은 신학적 의미인가 아니면 법적 의미인가?
5. 출 9:30 이 9:34 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6. 출 9:31-34 은 편집자의 설명인가? 왜 그러한가?

# 출애굽기 1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메뚜기 재앙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메뚜기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10:1-2	10:1-2	10:1-2	10:1-2	10:1-7
10:3-11	10:3-11	10:3-6 10:7-11	10:3-6 10:7 10:8 10:9 10:10-11	10:8-11
10:12-20	10:12-15 10:16-20	10:12-20	10:12-15 10:16-20	10:12-13 10:14-15 10:16-20
땅을 덮은 흑암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아홉 번째 재앙: 질은 흑암	흑암	아홉 번째 재앙: 흑암
10:21-29	10:21-23 10:24-26 10:27-29	10:21-29	10:21-23 10:24 10:25-26 10:27-28 10:29	10:21-23 10:24-26 10:27-29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0:1-2

<sup>1</sup>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sup>2</sup>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10:1** 출 10:1 은 신학적으로 출 9:14-16 과 평행을 이룬다. 야웨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바로의 경향성과 고집스러움을 사용하신다!

**10:2** F. B. 후아이는 그의 저서인 *연구 안내 주석, 출애굽기*(51 쪽)에서 다음과 같이 좋은 관점을 제시한다: “이전에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지만(7:5),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재앙의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10:2).”

“표징”(BDB 68)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사람들에게 야웨의 능력을 나타내며 야웨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1. 바로에게 – 출 7:3,17
2. 이스라엘에게 – 출 10:2; 31:13; 신 4:35
3. 이집트로 도망친 유대인들에게 – 렘 44:29
4. 미래의 성경 독자에게 – 고전 10:6,11

▣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인 훈련을 시켜야 함(참조, 출 12:26-27; 13:8,14-15)에 대한 강조가 신명기서에서 확장되어 제시된다(참조, 신 4:9; 6:7,20-25; 32:7,46). 자기 자녀에게 신학적인 훈련을 시킴에 있어서 부모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혼련의 기본적인 요점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에 있다(참조, 출 5:2; 7:5,17; 8:19; 10:2,7). 재앙의 목적은 온 세계에 야웨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함이다(참조, 출 9:14).

**개역개정 10:3-11**

<sup>3</sup>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sup>4</sup>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sup>5</sup>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sup>6</sup>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sup>7</sup>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sup>8</sup>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10:3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출 1:15 과 9:1 의 설명을 보라.

▣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적절한 질문이다. 바로의 종들조차 이러한 필요를 느꼈다(참조, 출 10:7). 바로가 드높인 마음에 대하여 일찌기 출 9:17 에서 지적하였다.

**10:4 “메뚜기”** 메뚜기는 우박, 개구리, 이와 더불어 이집트에 흔하였다. 하지만 그 시기와 강도와 지역적 선택성은 이 재앙의 초자연적 성격을 나타낸다. 동풍에 의해 메뚜기 떼가 몰려왔고 서풍에 의하여 몰려갔음도 기억하라.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징표를 행함에 있어서 자연적 방법을 사용하심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이같이 강한 동풍을 사용하시(참조, 출 14:20) 물이 갈라지게 하시며 바다의 바닥을 말리신다.

**10:5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이것은 출 10:12,15 에서 언급된다. 남은 작물에 대한 언급은 출 9:31-32 에 나온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 남아 있는 채소와 곡물과 과일은 하나도 없었다. 이집트가 이제 거의 모든 가축과 짐승의 떼와 양식이 될 작물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이 출 10:17 에서 결론적으로 제시되는 바로의 말에서 엿보인다.

▣ **“지면을”** 이것은 문자적으로 “땅의 눈”을 뜻한다(BDB 744, 참조, 출 10:15; 민 22:5,11). 언어 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에게는 의미가 전달되지만, 외부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 이러한 종류의 관용적 표현이 있다.

**10:6** 메뚜기로 인한 재앙의 심각성이 여기서 강조되어 제시된다. 우박의 심각성에 대한 내용은 출 9:18,23 에서 제시되었다.

이집트를 보호해주기를 이집트의 우상들에게 또다시 기대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10:7** 이 “신하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긴다.

1. 요술사들(참조, 출 8:19)
2. 왕궁에 있는 종들로서, 마음이 이전에 완악하게 된 자들(참조, 출 9:34)
3. 왕궁에 있는 종들로서, 야웨의 경고를 심각하게 여기고 가축을 대피시킨 사람들(참조, 출 9:20-21)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모든 논리와 충고를 물리쳤다. 의지에 대한 시험이 계속된다!

자문을 주는 이 사람들은 “남자”만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제안함을 주목하라(참조, 출 10:8-9). 이 자문은 동양적 흥정을 반영하는 말이다. 출 8:8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10:8-11** 이것은 동양적 흥정이다. 출 8:8 에 있는 설명을 꼭 보라.

**10:10** “내가 . . . 보내면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바로의 입으로 한 풍자적 맹세이다. 이 말은 나중에 그 자신을 삼킬 것이다.

▣

NASB	“너희 마음에 악이 있기에”
NKJV	“너희 앞에 악이 있기에”
NRSV	“솔직히 말하건대, 너희가 마음에 어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TEV	“너희가 반역을 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NJB	“솔직히 말하건대, 너희는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

JPSOA “분명히 말하건대, 너희는 못된 짓을 하기로 작정하였다”  
 REB “너희는 어떤 불길한 목적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  
 LXX “악함이 너희 앞에 누워있다”

문제는 “누가 악을 행하려 하는가”이다

1. 바로(카수토, “나를 너무 밀어붙이지 말라”)
2. 모세

두 가지가 문맥에 맞는다. 대부분의 영어역에서는 2 항을 취한다.

10:11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BDB 518 과 BDB 485 의 조합)은 강조형이다! 나는 너희 모두와 너희의 가족이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똑같은 동사(BDB 176, KB 206, *피/열* 미완료형)를 출 6:1 에서 앞으로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쫓아낼 것이다라는 야웨의 말씀에서 사용하였고 또 출 11:1 에서 다시 사용하였다(출 12:39 에서는 *히/플*형).

**개역개정 10:12-20**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3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14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15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16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18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할 때

10:13 “동풍” 하나님께서 자연적 방법을 초자연적인 시간에 사용하심을 주목하라.

1. 동풍, 출 10:13(2 회)
2. 서풍, 출 10:19
3. 출 10:21-23 에 나오는 흑암의 재앙은 사막의 바람이 일으키는 모래폭풍일 것이다

4. 출 14:21 에서 강한 동풍이 홍해의 물을 가르고 물을 쌓아 올리며 바다의 바닥을 마르게 한다; 출 14:26 에서는 그 바람이 그친 것이 확실하다(참조, 출 15:10)
5. 민 11:31 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를 몰고 온 바람 “동풍”(즉, 뜨거운 사막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종종 나온다(참조, 시 48:7; 사 27:8; 렘 18:17; 겔 17:10; 19:12; 27:26; 호 13:15; 욥 4:8).  
*루아흐*(BDB 924)의 다른 용법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영을 보라.

**특별주제: 성경에 나오는 영**

I. 헬라어 용어

가. *프네오*, 불다

다. *프누마*, 영, 바람

라. *프누마티코스*, 영에 관한

마. *프누마티코스*, 영적으로

II. 헬라 철학적 배경(*프누마*)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용어를 출생 때부터 시작하여 자기 훈련의 시기까지 가지는 생명력으로 사용했다

나. 스토아학파는 이 용어를 오감 및 인간의 지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프쉬케*(혼) 또는 *누스*(마음)의 동의어로 사용했다

다. 헬라의 사상 - 이 용어는 신적 활동을 뜻하였다(즉, 신탁, 마술, 주술, 예언 등)

III. 구약(*루아흐*)

가. 유일신의 행동(즉, 성령, 구약에서 약 90 회 사용됨)

1. 긍정적, 창 1:2

2. 부정적, 삼상 16:14-16,23; 왕상 22:21-22; 사 29:10

나.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주신 생명력(즉, 하나님의 호흡, 참조, 창 2:7)

다. 70 인역은 *루아흐*를 *프누마*로 번역한다(70 인역에서 100 회 정도 사용됨)

라. 후기에 속하는 랍비들의 글, 묵시 문학, 사해사본에서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프누마*를 천사들과 악령에 대해 사용함

IV. 신약(*프누마*)

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능력, 힘주심

나.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을 가지심

1. 예언

2. 기적행함

3. 담대히 복음을 선포함

4. 지혜(즉, 복음)

- ㄱ. 새로운 마음가짐, 2:12; 14:14,32
- ㄴ. 새 성전, 3:16; 6:19-20
- ㄷ. 새 생명(즉, 도덕성), 6:9-11
- ㄹ. 침례(세례)로 상징되는 새 생명, 12:13
- ㅁ. 하나님과 하나됨(즉, 회심), 6:17
- ㅂ.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2:12-15; 14:14,32,37
- ㅅ. 모든 신자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받는 영적 은사, 12 장과 14 장
- 4. 영이 육체와 대조를 이룸, 9:11; 10:3; 15:44
- 5. 영적 영역이 육체의 영역과 대조를 이룸, 2:11; 5:5; 7:34; 15:45; 16:18
- 6. 인간의 영적/내적 삶을 육신과 구별하여 말함, 7:34
- 바. 인간은 창조된 세계의 두 영역에서 산다(즉, 물리적 및 영적).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떨어져 나왔다(창 3 장).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죽으심,

**10:14-15** 이 두 절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의 강도에 대하여 설명한다.

히브리어에는 메뚜기(NIDOTTE 제 1 권 491 쪽)를 일컫는 여러 단어가 있다. 이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메뚜기가 흔한 곤충이었음을 시사한다.

**10:14**

**NASB** “많으니”

**NKJV** “심하니”

**NRSV, REB** “두터우니”

**TEV** “크니”

**NJB, LXX** “엄청나니”

**JPSOA** “두꺼우니”

이것은 “영광”을 뜻하는 용어인 *카도드*(BDB 458)의 함축적 의미를 나타낸다; 특별주제: 영광(구약)을 보라.

1. 출 9:3 에서는 가축에 내린 재앙에 대하여 사용됨
2. 출 9:18,24 에서는 우박 재앙에 대하여 사용됨
3. 여기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 사용됨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물건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진 초자연적 면이 재앙이었다.

1. 강도
2. 지역
3. 그것들이 일어나고 그치는 시간적 요소

### 특별주제: 영광(독사)

“영광”이라는 성경의 개념은 정의하기가 어렵다. 복음을 알고 영광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 신자의 영광이다(참조, 1:29-31; 롬 9:23-24).

구약에서 “영광”(카보드, BDB 217)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는 원래 저울 (“무겁다”)과 관련된 상업 용어였다. 무게가 나가는 것은 가치가 있거나 내재적인 가치를 가졌다. 종종 밝음의 개념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여기에 첨가되었다(참조, 출 19:16-18; 24:17; 사 60:1-2). 하나님은 홀로 귀하시며 영예로우시다. 그는 매우 빛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그를 볼 수 없다(참조, 출 33:17-23; 사 6:5).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야웨를 알 수 있다(참조, 요 14:8-11; 골 1:15; 히 1:3). “영광”이란 단어는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다:

1.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행을 이룬다
2.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혹은 “온전하심”을 가리킨다

10:15

NASB, NKJV, JPSOA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NRSV, REB “땅이 검게 되었으며”

NJB “땅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LXX, 벌게이트 “땅이 파괴 되었으며”

맛소라 본문에서는 “어둡게 된”으로 되어 있다(BDB 364, KB 361, 존 오웬의 *구약의 분석적 열쇠*에서는 이것을 *호플*형으로 부른다. 하지만 빌, 벅크스, 스미스의 *구약의 분해 안내*에서는 이것을 미완료형으로 부른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이것에 B 등급(약간 의심스러움)을 준다. 70 인역과 NJB 의 것은 본문을 수정시킨 번역이다.

1. 어둡게 된, *와테흐샤크*
2. 파괴된, *와테스하트*

“어두움”(BDB 365)이라는 명사는 출 10:21,22 에서 사용되었다. 한편, “파괴되었다”도 이 문맥에 적합하다. 메뚜기가 상당히 많아 그것들이 태양(궤를 모욕하여) 빛을 가릴 뿐 아니라 땅도 완전히 파괴시켰다. “파괴된” 이집트라는 개념이 출 10:7 에 나오지만, 다른 단어(BDB 1)를 사용하였다.

**10:16** 이 반전은 출 9:27 로 연결된다. 바로가 실재와 금지 사이에서 중요하고 있음이 마치 요요와 같다! 이 지도자가 자기 자신의 금지와 교만함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나 무서운 흔들림을 경험하였는지!

이것은 바로가 처음으로 모세에 대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본문이다. 사람들은 이것이 어느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궁금하게 여긴다

1. 히브리인들을 떠나게 한다는 자신의 진술을 반복한 일
2. 궁정에서 그들이 어릴 때에 일어난 어떤 일

**10:17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것은 분명히 관용적인 표현일 것이다. 바로는 출 9:27-28 에서 용서를 구하였다. 이 문장이 정확히 무엇을 시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바로가 아직 히브리인들을 떠나지 않게 할 것이 분명하다.

▣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것은 황폐화 시키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이집트의 봄 작물이 모두 파괴되었음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가축과 짐승의 떼는 이미 거의 다 죽었다(참조, 출 9:19,21).

**10:19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이렇게 자연의 힘을 주장하는 것이 요나서에서 강조된다.

1. 물고기
2. 식물
3. 벌레
4. 바람

예수께서도 이러한 능력을 여러 번 나타내셨다!

▣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홍해”는 문자적으로는 *궤 수프*인데, 이것은 “갈대의 바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닷물이나 민물에서 자라는 갈대를 가리킨다. 이 이야기에서 볼 때, 메뚜기를 몰아넣으신 물은 큰 규모의 물이었음이 분명하다. 이 물이 어디에 위치하였는가에 대하여 여러 이론이 제기되었다:

1. 북부 이론에 의하면, 지중해 쪽의 습지를 따라서
2. 중부 이론에 의하면, 오늘날 수에즈 운하의 일부가 있는 육지의 가운데 주위에 있는 쓴 물의 호수에

3. 오늘날 홍해로 알려진 곳이 그 윗쪽 끝에 있는 물에  
특별주제: 홍해를 보라.

▣ “**애굽 은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수 많은 메뚜기로 인한 재앙의 정반대 모습이다. 야웨께서 완전히 주관하고 계신다! 바로가 자기 자신의 죄(참조, 롬 1:24,26,28)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참조, 사 45:5-7; 암 3:6)에 걸려 들었다

**개역개정 10:21-29**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22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삼 일 동안 애굽 은 땅에 있어서 23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24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25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27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0:21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많은 이들이 이것을 어떤 종류의 모래폭풍으로 추정한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흔한 것이었다(3-5 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 시기와 강도(즉, “**캄캄한 흑암,**” 출 10:22)와 지역의 선택(참조, 출 10:23)은 초자연적 이었다. 이집트의 주요한 신인 태양신 *르*가 야웨께서 보내신 흑암의 한 가운데서 빛을 그 땅에 비출 수 없었다는 점은 모순이다. 이집트는 창 1:2 에서의 땅처럼 어두웠다.

10:22 “**캄캄한 흑암**” 이것은 “어두움”을 뜻하는 두 히브리 단어의 조합이다(BDB 365, BDB 66). 흑암과 메뚜기가 출 2:2 에서 함께 나타난다. 사 8:22 과 습 1:15 에서 두 용어가 함께 사용되었다.

▣ “**삼 일 동안**” 이것은 삼 일이 시간적으로 긴 기간을 뜻하는 관용어였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한다(참조, 출 8:28).

▣ “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또다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이 있었다(참조, 출 8:22; 9:4,6,24; 10:23; 11:7). 출 8:22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10:24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바로는 여기서 또다시 자기 백성들 앞에서 체면을 살리고자 흥정을 시도한다. 이집트의 가축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고센 땅의 양과 소를 머물러 두게 하는 일은 크게 요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출 8:8 에서 동양의 흥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보라.

**10:26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모세가 희생제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짐승이 필요하며 어떤 종류의 짐승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다.

**10:29**

**NASB, TEV, REB** “당신이 맞다”

**NKJV** “당신이 잘 말했다”

**NRSV** “바로 당신이 말한 대로”

**NJB** “당신 자신이 그것을 말했다”

**JPSOA** “당신이 바르게 말했다”

**LXX** “당신이 말했다”

바로의 명령(즉, “너는 나를 떠나가고”와 “스스로 삼가,” 출 10:28)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바로는 그렇게 할 기회가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대화나 시위는 소용이 없다. 최후의 무서운 재앙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1. 바로는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참조, 출 12:31). 그의 위협조차 무력할 뿐이다!
2. 이집트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에게 떠나달라고 애걸할 것이다(참조, 출 12:33).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하나님께 대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출 10:2 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2.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3. 바로와 모세의 흥정에 관한 모든 것을 열거하라(출 8:8 에서 자세한 설명을 보라).
4. 홍해는 어디에 있는가?
5. 출 19:21 은 모래폭풍에 대한 묘사인가?
6. 출 10:28 과 12:31 의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출애굽기 1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마지막 재앙	선언된 장자의 죽음	최종 재앙의 선언, 장자의 죽음	모세가 장자의 죽음을 선언하다	장자의 죽음의 선언
11:1-3	11:1-3	11:1-3	11:1-3	11:1-3
11:4-8	11:4-8	11:4-8	11:4-8	11:4-8
11:9-10	11:9-10	11:9-10	11:9-10	11:9-10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 통찰** - 나는 출 11:5 의 첫 문단에 대한 나의 주석이 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나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아래에서 반복하여 제시한다.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가 죽임을 당한 일은 신학적 의미 및 법적 의미를 가진다.

1. 야웨께서 더 강하시다(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바로의 아들은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다.

2. 이집트가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취하였듯이(이스라엘은 야웨의 장자였다, 참조, 출 4:22-23), 이제는 야웨께서 이집트 자손의 생명을 취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충격적인 법적 행위임을 나는 안다. 하지만 나는 “책임을 지는 나이”가 있음을 믿는다 (특별주제: 책임을 지는 나이를 보라). 이 아이들은 사후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곳은 그들이 다신교적 환경에서 자랐다면 결코 이르지 못하였을 곳이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첫 아들에 대하여도 나는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그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인하여 죽었다). 모든 신자의 죽음, 젊은 이의 죽음, 정신지체자들의 역경, 어린아이들이 고의로 죽임을 당하는 일은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구약). 비록 나의 마음으로는 못마땅하지만, 어느 날 내가 창세기 3 장의 두려운 결과(특별주제: 타락을 보라)를 이해하게 될 것을 인하여 나의 가슴은 평온하다. 이 영역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준 책은 존 웨햄의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 특별주제: 책임질 나이

교회는 바울을 따라 창세기 3 장을 인간의 죄/악의 근원으로 강조했다. 이것은 어거스틴/칼빈주의에서 전적타락(즉, 인간이 도움없이 하나님께 반응하기가 불 가능함)에 대한 강조점으로 발전했다. 이것은 칼빈주의 5 대 기둥의 하나를 이루었고 기독교의 기초원리가 되었다.

그러나 랍비들은 창세기 3 장을 악의 출발로 여기지 않았고(어떤 이는 창세기 6 장을 강조함), 오히려 지식과 헌신에 기초한 개인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들은 선하고 악한 두 가지 의도(*넷제르*)를 말했다. 고전적인 예는 다음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악하고 다른 하나는 선하다. 음식을 가장 잘 먹이는 쪽이 가장 큰 녀석이 된다.” 따라서 성장하고 언약적 지식/헌신을 할 수 있는 나이 이후에야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예, *바르 미쯔바*는 13 세의 소년을, *발 미쯔바*는 12 살의 소녀를 지칭한다). 이 신학적 관점에 대한 성경의 다른 예는 요나서 4:11 과 이사야서 7:15-16 이다.

이것은 대립되는 용어이다:

1. 바울/어거스틴/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능력을 강조했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1:1-3

<sup>1</sup>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sup>2</sup>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sup>3</sup>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11:1 히브리어의 특징적 접속사(*와우*)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출 11장에서 새로운 단원이 시작됨을 시사한다.

인칭대명사와 선행사가 모호하다. 이것을 인해 학자들은 출 11:1-3을 편집자가 삽입시킨 것으로 본다. 출 11:4에서 모세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같은 문제가 11:8에서도 나타난다.

▣

NASB “여기에서 완전히”

NKJV “여기서 다 함께”

JPSOA “여기서 모두”

REB “퇴짜맞은 신부를 남자가 내쫓듯이”

LXX “날날이”

문제가 되는 단어는 부사인 “완전히”(BDB 478, *칼라 kllh*)인데, NEB와 REB에서는 본문을 수정하여 자신의 지참금을 가지고 간(출 11:2) 신부를 뜻하는 *칼라(kllh)*로 바꾼다(“신부,” NIDOTTE 제 2권 644-651 쪽).

“쫓아내다”(BDB 17, KB 204)라는 동사는 아내를 내어 보내는 의미로 레 21:7,14; 22:13; 민 30:9; 겔 44:22에서 사용되었다.

▣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것은 같은 어근(BDB 176, KB 204)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의 용법으로서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문법적으로 강력한 의미를 나타내는 이 구문의 사용은 바로가 출 9:28에서 모세를 협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뜻할 것이다.

이 재앙에 대하여 시 78:49-51; 105:36; 135:8-9; 136:10 에서 언급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다음 사항에 대한 최상의 표였다

1.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심, 창 15:12-21
2.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심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별”하심(출 8:22 의 설명을 보라)

**11:2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킹제임스역은 “구하라”(BDB 981, KB 1371,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를 “빌리라”(참조, 샛 8:34; 삼상 1:27, 이것을 의미할 수 있음)로 번역하였다. 여기서 이 단어는 그들이 갚지 않기 위해 구하라는 의미로 여겨진다. 이렇게 이집트의 재물을 강탈하는 일이 출 3:21-22 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12:5 에서 성취되었으며, 시 105:37 에서 암시하여 말하고 있다. 이것에는 성막 건설을 위해 필요한 귀금속도 들어 있었다. 이 일은 상징적으로 이집트에 대해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으며 전리품을 취하였음을 나타낸다.

**11:3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행위(즉, 재앙들)의 결과이거나 야웨께서 그들의 마음이 호의적이게 하셨음(야웨께서 바로의 마음을 부정적이게 하셨던 것처럼)의 결과이다.

#### 개역개정 11:4-8

4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5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멧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7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11:4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야웨께서 모세의 목소리, 지팡이, 아론 등 인간적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이번 재앙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의 방편을 사용하시게 된다. 장자의 죽음은 여러모로 중요성을 가진다.

1.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라암세스 II 세를 그의 맏아들(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진 아들임)이 아닌 아들 메르넵타가 왕위를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인하여 나로서는 출애굽의 시기를 주전 1290 년으로 보게 된다

2. 이집트 사회에서 장자가 받는 유산은 부모의 노년에 봉양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형제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이 재앙이 이집트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충격을 주었는가를 알게 된다.

**11:5 “모든 처음 난 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특별주제: 장자를 보라)가 죽임을 당한 일은 신학적 의미 및 법적 의미를 가진다.

1. 야웨께서 더 강하시다(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바로의 아들은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다.
2. 이집트가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취하였듯이(이스라엘은 야웨의 장자였다, 참조, 출 4:22-23), 이제는 야웨께서 이집트 자손의 생명을 취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충격적인 법적 행위임을 나는 안다. 하지만 나는 “책임을 지는 나이”가 있음을 믿는다 (특별주제: 책임을 지는 나이를 보라). 이 아이들은 사후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곳은 그들이 다신교적 환경에서 자랐다면 결코 이르지 못하였을 곳이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첫 아들에 대하여도 나는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그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인하여 죽었다). 모든 신자의 죽음, 젊은 이의 죽음, 정신지체자들의 역경, 어린아이들이 고의로 죽임을 당하는 일은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구약). 비록 나의 마음으로는 못마땅하지만, 어느 날 내가 창세기 3 장의 두려운 결과(특별주제: 타락을 보라)를 이해하게 될 것을 인하여 나의 가슴은 평온하다. 이 영역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준 책은 존 웬함의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나이적 제한은 어디까지였는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이것은 장자로서 성인인 자도 포함하였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13 세로 보는데, 이것은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재앙은 아이들에게만 임했다. 결혼한 성인들의 경우, 그들이 형제의 장남인 경우라도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이전에 모든 가축이 죽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신실한 종들에 의해 일부 가축이 살아 남았음이 분명해 진다(출 9:20-21 을 보라). 가축의 죽음은 다음 사항도 나타낸다.

1. 사람과 그의 가축에 대해 히브리인들이 가진 공동체적 개념
2.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가축의 신들에 대한 심판을 나타낼 수 있다

**11:6** 이것은 과장적 표현이다. 출 9:18 의 설명을 보라.

이집트에서 난 “커다란 울부짖음”은 자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함을 인하여 출 2:23 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었던 커다란 울부짖음에 대한 심판이다!

11:7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다음 사항을 의미할 것이다

1. 히브리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은 반면에, 이집트 전역에 걸쳐 난 커다란 울음소리를 대조하는 관용적 표현(참조, 출 11:6, JPSOA)
2. 히브리인들에게 대하여 그 어느 것도 위협을 주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
3. 이집트의 또 다른 신을 가리킴(즉, *아누비스*, 사후세계의 주로서 자칼이라는 동물의 머리를 가진 신)

▣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구별하다”(BDB 811, KB 930, *히/פל* 미완료형)에 대하여는 출 8:22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유월절과 장자에 대한 소유권이 출 12 장과 13 장에서 확대되어 제시된다. 이집트인들이 이 재앙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고 또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도 들었다(참조, 출 9:19,20). 히브리인들 역시 같은 재앙에 대하여 경고를 받으며 또 이 재앙의 피해를 그들의 집이 입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도 듣는다.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해야만 했다. 죽음의 천사가 정말로 고센 땅에 왔고, 집의 문설주와 기둥에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 임하였다. 그러나 분명히 모든 히브리 사람들과 일부 이집트 사람들(참조, 출 9:20-21)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하여 재앙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11:8 “왕의 이 모든 신하가”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출 11:2 을 가리킨다. “내게”라는 인칭대명사는 야웨가 아니라 모세를 가리킨다.
2. 이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내용으로서 출 10:28-29 에 상응하는 말이다. “내려 오다”(BDB 432, KB 432, *칼* 완료형과 *와우*)라는 동사는 바로, 바로의 가까운 고문, 단 위에 있는 그의 종들을 시사한다.

한편, “절하다”(BDB 1005, KB 299, *히/סתפ* 완료형과 *와우*)라는 이 인칭대명사가 야웨를 가리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 개역개정 11:9-10

<sup>9</sup>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였고 <sup>10</sup>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부내지

**11:9-10** 이 두 절은 처음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에 대한 요약적 진술이다(참조, 출 7:3-4).  
바로 의 완악함에 대하여는, 출 4:21 의 설명을 보라.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재앙들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가?
2. 재앙의 신학적 목적은 무엇인가?
3. 재앙의 목록을 기억에 의지하여 제시할 수 있는가?
4. 모세와 바로 사이의 동양적인 흥정과정을 설명하라.
5. 재앙들이 자연적인 것이었는가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이었는가? 이에 대하여 설명하라.

# 출애굽기 1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유월절 양	제정된 유월절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	유월절
12:1-13	12:1-20	12:1-13	12:1-11	12:1-14
무교절			12:12-14	
12:14-20		12:14-20	무교절	무교절
			12:15-20	12:15-20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에 관한 명령
12:21-22	12:21-28	12:21-27	12:21-27a	12:21-28
구속하심을 기억함				
12:23-27				
			12:27b-28	
12:28		12:28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남	장자의 죽음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12:29-32	12:29-30	12:29-32	12:29-32	12:29-34
	출애굽			
이스라엘의 출애굽	12:31-36			
12:33-34		12:33-36	12:33-36	강탈당한 이집트
12:35-36				12:35-36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다	이스라엘의 출발
12:37-39	12:37-39	12:37-39	12:37-39	12:37-42
12:40-41	12:40-42	12:40-42	12:40-42	
유월절의 제정				
12:42	유월절의 규례		유월절에 관한 규례	유월절을 위한 제정
12:43-49	12:43-49	12:43-49	12:43-51	12:43-46
				12:47-51
12:50-51	12:50-51	12:50-51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봄에 열리는 이러한 축제(유목민 목동들의 의식, NIDOTTE 제 3 권 642 쪽; *IVP 성경배경 주석* 84 쪽과 *제롬 성경주석* 52 쪽을 보라)가 출애굽 이전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할례의 경우처럼, 여기서 이것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 나. 유월절은 봄의 행사로서(보름달일 때) 오늘날의 3 월과 4 월 사이에 열린다. 바벨론의 달력에서는 이 달을 니산월(민 2:1)로 불렀고, 가나안인의 달력에서는 아빍월(민 13:4)로 불렀다. 특별주제: 근동의 달력을 보라.

### 특별주제: 고대 근동 달력

---

가나안 (왕상 6:1, 37-38; 8:2)	수메리안-바벨론 (니푸르 달력)	히브리 (계절 달력)	현대의 월
아빍(보리의 "초록 이삭")	니사누	니산	3-4 월
진(봄의 반짝임)	나야루	리야르	4-5 월
	시마누	시반	5-6 월

	두-우주	탐무즈	6-7 월
	아부	압	7-8 월
	우루루	에를	8-9 월
	테스리투	티스리	9-10 월
에타님(영원한 물의 근원)	아라-삼나	마체스반	10-11 월
불(곡식위의 비)	키슬리무	키스레브	11-12 월
	테비투	테벳	12-1 월
	샤바투	쉐밧	1-2 월
	아다루	아달	2-3 월

이 국가적 축제에 대한 지침이 다음의 여러 본문에서 나온다

1. 출 12:1-28,43-49
2. 출 13:3-10
3. 출 23:15
4. 레 23:5-8
5. 민 28:16-25
6. 신 16:1-8

이 본문들을 비교하여 볼 때, 후기의 저자/편집자가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가나안에서의 삶과 결합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누가 이것을 기록하였는가에 대하여 나는 확실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모세의 저작(출애굽기 - 신명기)
2. 초기의 구전적 전통(창세기)
3. 후기의 편집자들

특별주제: 오경의 저자인 모세를 보라. 나는 고대 근동 사회의 구전 문학적 성격에 관한 새로운 책인 존 H. 왈튼과 D. 브렌트 샌디, *성경의 잃어버려진 세계*를 보기를 강력히 권한다. 성경의 궁극적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다. 바벨론 사람들은 새해를 봄에 경축하였고, 가나안 사람들은 새해를 가을에 경축하였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봄에는 유월절을 경축하고 새해(로쉬 하샤나)는 가을에 경축한다.

라. “유월절”을 뜻하는 동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절뚝거리다”(BDB 820 II, 왕상 18:21)

2. “절다”(BDB 820 II, 삼하 4:4)

그러나 여기서는 이 단어가 “경충 뛰어넘다”(BDB 820, KB 947, *칼완료형*, 참조, 출 12:13,23,27) 또는 “남기다”(참조, 사 31:5)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 유월절이 예수님의 희생을 예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참조, 요 1:29; 뵤전 1:19)

2. 주의 만찬이 유월절 식사의 문맥에 들어 있다

3. 출애굽이 이집트에서의 구출을 가졌왔듯이, 예수께서는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4. 양의 뼈를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았듯이(참조, 출 12:46)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참조, 요 19:33)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새 모세(즉, 율법을 주시는 이, 즉, 마 5-7 장)

2. 온 세상을 위한(참조, 막 10:45; 고후 5:21) 새 유월절(즉, 구출/구원)

3. 생명을 주는 새 만나(요 6 장)

4. 유월절 양(참조, 고전 5:7)

5. 새롭고 더 나은 대제사장과 희생(히브리서)

히브리서에서는 메시아께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고 신약이 구약보다 더 우월함을 명확히 제시한다.

바. 요세푸스는 이 사건과 매년의 기념에 대하여 *유대 고대사* 3.10.5 와 3.15.1 에서 말한다.

사. 특별주제: 유월절을 보라.

### 특별주제: 유월절

#### I. 들어가는 말

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은 야웨의 사랑과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우신 것에 대한 시금석이다(즉, 특히 선지서에서).

나. 출애굽은 창 15:12-21 에서 야웨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특별한 성취이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다.

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야웨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열 개의 재앙중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광범위하며 (지리적으로, 즉, 이집트와 고센) 가장 호된(인간과 가축의 첫 태생을 죽였다) 것이었다.

#### II. 단어 자체(BDB 820, KB 947)

가. 메시야 이미는 부부며한다



2. 이것이 중앙 성소에서의 행사가 되었다
3. 지역의 제사(즉,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한 양의 피)와 중앙 성소에서의 맥추절의 결합은 *아빔* 또는 *니산* 달의 14 일과 15-21 일 어간으로 이루어졌다

다. 사람과 가축의 모든 첫 태생의 상징적 소유권과 그들의 구속은 출애굽기 13 장에서 설명되었다.

#### IV. 그것의 준수에 대한 역사적 기록

- 가. 이집트에서 첫 번째 유월절의 거행, 출애굽기 12 장
- 나. 호렙산/시나이산에서, 민수기 9 장
- 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 거행(길갈), 수 5:10-12
- 라. 솔로몬의 성전 헌당식 때, 왕상 9:25 과 대상 8:12(특별히 진술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 마. 히스기야 통치기간 동안 한 번, 역대하 30 장
- 바. 요시아의 개혁기간 동안 한 번, 왕하 23:21-23; 대하 35:1-18
- 사. 왕하 23:22 과 대하 35:18 에서 이 절기 지키기를 이스라엘이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 V. 중요성

- 가. 이것은 일년 중 꼭 지켜야 되는 세 절기 중 한 가지였다(참조, 출 23:14-17; 34:22-24; 신 16:16):
  1. 유월절/무교병
  2. 칠칠절
  3. 초막절

## 본문의 간략한 개요

- 가. 유월절에 대한 야웨의 지시, 출 12:1-14.
- 나. 무교병에 대한 야웨의 지시, 출 12:15-20.
- 다. 모세가 백성에게 준 지시, 출 12:21-27(그들의 응답, 12:28).
- 라. 그 날 밤 일어난 일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체, 출 12:29-42.
- 마. 외국인에 대한 야웨의 지시, 출 12:43-49.
- 바. 요약, 출 12:50-51.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2:1-13

1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 이 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8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와의 유월절이니라 12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드루신 다스림을 시키니 이집스는 만민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히브리 나그네

12:2 “이 달을 ...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은 *니산월*이다(3 월-4 월, 참조, 레 23:5,24-25).  
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달력을 보라.

12:3 “**이스라엘 은 회중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함께 있는 것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와 구가 있다.

1. 출 12:1,6,4 - “이스라엘 회중”(BDB 414 II)
2. 출 12:6 - “전 회중”(BDB 874), 특별주제: 교회(*에클레시아*)를 보라
3. 출 12:16(2 회) - “성회”(BDB 896 과 형용사인 BDB 872)
4. 출 12:41 - “여호와와 그의 군대”(BDB 481 과 BDB 838 의 조합; 특별주제: 만군의 주를 보라)
5. 출 12:31,35,37,42,50,51 - “이스라엘 자손”(BDB 119 와 BDB 975 의 조합)

**특별주제: 교회(*에클레시아*)**

헬라이어인 *에클레시아*는 “~로 부터”와 “부르심을 입은”의 두 단어에서 왔다. 따라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불러 내신 사람들을 뜻한다. 초대교회는 세속적 용법(참조, 행 19:32,39,41)에서 이 용어를 가져와 사용하였는데, 70 인역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말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카할*, BDB 874, 참조, 민 16:3; 20:4). 초대교회는 이 용어를 하나님의 구약 백성의 연속으로서 자신들에게 사용했다. 그들은 새 이스라엘이었고(참조, 롬 2:28-29; 갈 6:16; 벰전 2:5,9;

이 용어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다.

1. 도시에서 가진 세속적 모임, 행 19:32,39,41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주적 백성, 마 16:18 과 에베소서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역 교회의 믿는 회중, 마 18:17; 행 5:11(이 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 “이 달 열흘에” 이집트인들은 한 달을 10 일씩 나누었다.

12:4 “식구가 너무 적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셨다(특별주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에서의 제사 및 그 중요성을 보라). 후에 유대교에서는 성인 열 명이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BDB 961).

12:5 “흠 없고” 이것은 색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건강도와 그 품종의 신체적 특징을 가리킨다(참조, 출 29:1; 레 1:3,10; 3:1,6,9; 4:3,23,28,32 등).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특별주제: 흠없는, 무죄한, 죄없는, 책망받을 것 없음을 보라.

**특별주제: 흠없는, 무죄한, 죄없는, 책망받을 것 없는**

가. 들어가는 말

1. 이 개념은 신학적으로 인간의 처음 상태(즉, 창 1 장, 에덴 동산)를 말한다.
2. 죄와 반역은 이 완전한 교제의 조건을 대폭 파괴했다(즉, 창 3 장)
3. 인간(남자와 여자)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사모했다(즉, 창 1:26-27).
4.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과 여러 면으로 관계하신다
  - ㄱ. 경건한 지도자들(즉,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 ㄴ. 희생 제도(즉, 레 1-7 장)
  - ㄷ. 경건한 삶의 본(즉, 노아, 욥)
5.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예비하셨다
  - ㄱ. 자신의 완전한 계시로서
  - ㄴ.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으로서
6. 그리스도인들이 흠 없게 되었다
  - ㄱ. 법적으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 ㄴ. 점진적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성경은 같은 주제로 시작하고 같은 주제로 끝 맺는다.

ㄱ.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 교제

ㄴ. 동산의 배경에서(창 1-2 장과 계 21-22 장)

ㄷ. 동물이 함께 있고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에 대한 예언적 진술에 의해(참조, 사 11:6-9)

#### 나. 구약

1. 히브리어의 많은 단어들이 완전함, 흠없음, 죄없음의 개념을 말하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모두 다루고 그 복잡한 관계를 모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완전함, 죄없음, 혹은 무죄함의 개념을 뜻하는 주요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로버트 B. 거들스톤, *구약의 동의어*, 94-99 쪽):

ㄱ. *샬롬* (BDB 1022)

ㄴ. *타맘* (BDB 1070)

ㄷ. *칼라* (BDB 478)

3. 70 인역(즉, 초대교회의 성경)은 많은 경우 이 개념들을 신약에서 사용한 코이네 헬라어의 용어로 번역했다.

4. 기본 개념은 제사제도와 관련이 있다.

ㄱ. *아모모스*(참조, 출 29:1; 레 1:3,10; 3:1,6; 민 6:14)

ㄴ. *아미안토스*와 *아스피루스*도 제사적 의미를 갖는다

ㄷ. 헬라어의 법적 의미(참조, 고전 1:8; 골 1:22)

#### 다. 신약

1. 법적 개념

ㄱ. 히브리어의 법적 제의적 의미는 *아모모스*로 번역되었다(참조, 엡 5:27; 빌 2:15; 벧전 1:19)

ㄴ. 헬라어의 법적 의미(참조, 고전 1:8; 골 1:22)

2. 그리스도는 죄없고 흠없으며 무죄한 분이시다(*아모모스*) (참조, 히 9:14; 벧전 1:19)

3.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그를 본받아야 한다(*아모모스*) (참조, 엡 1:4;

라. 이 개념을 갖는 많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들은 이 개념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우셨고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되도록 부르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하여 신자들은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옳은,” “바른,” “흠없는” 자라고 선언받았다. 이제 신자들은 자기의 신분을 갖도록 되어 있다. “그가 빛에 거하시듯이 빛 안에서 행하라”(참조, 요일 1:7).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참조, 엡 4:1,17; 5:2,15).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 친밀한 교제가 이제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 “일 년 된” 이 히브리 용어가 정확히 일 년 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 년 안에 태어난 것을 뜻한다고 랍비들은 설명한다.

12:6 “간직하였다가” “간직하다”(BDB 1038, 출 16:23; 민 19:9)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지키다” 또는 “주시하다”를 가리킨다. 각 가정마다 건강한 양이나 염소를 고른 후에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즉, 그 달의 제 10일부터 14일까지) 주의 깊게 먹이고 보살펴야만 했다.

▣ “해 질 때에”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두 저녁 사이의 시간”(BDB 107 과 BDB 787, 참조, 출 16:12; 29:39,41; 30:8; 레 23:5; 민 9:3,5,11,35; 28:4,8)을 의미한다. 어떤 이는 이것이 늦은 오후를 가리킨다고 말하고(탈무드), 다른 이는 이것이 해가 진 후 처음 별이 나타날 때를 가리킨다고 말한다(사마리아 오경). 해 질 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음을 기억하라(즉, 창 1:5,8 등). 특별주제: 날(יום)을 보라.

#### 특별주제: **יום**

존 해리스 박사(동부 텍사스 침례대학의 기독교 연구과 학장이며 구약학 교수)의 구약총론 1 권 강의를 인용하여 취하여 수정한 **יום** (날)의 의미에 대한 이론들:

1. 문자적인 24 시간의 이론

이것은 단도직입적인 접근이다(참조, 출 20:9-11). 이 접근에 대해 갖는 의문이 있다:

- ㄱ. 제 4 일이 될 때까지 태양이 창조되지 않았는데 첫 째 날에 어떻게 빛이 있었는가?
- ㄴ. 어떻게 하루 만에 모든 동물(특히 세상의 다른 쪽에 토착적으로 사는 것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는가(참조, 창 2:19-20)?

2. 날이 시대를 말한다는 이론(Day-Age, 장일설)

이 이론은 성경과 과학(특히 지질학)을 조화시키려 한다. 이 이론은 “날들”이 “지질학적 기간”을 말하는 긴 기간이었다고 설명한다. 그 길이는 서로 같지 않으며 균일성에 기초한 지질학의 다양한 지층(기)에 근접한다. 과학자들은 창 1 장의 일반적인

- ㄱ. 태양이 없이 식물이 “시대들” 동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 ㄴ. 만일 이후의 “시대들”이 될 때까지 곤충이나 새들이 없었다면 행성 안에서 수분작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3. 대체 장일설

날들은 실제로 24 시간이지만 각 날은 피조물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의해 구분된다. 이 접근에서 발생하는 질문은:

- ㄱ. 날-시대의 이론에서와 똑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 ㄴ. 본문에서 “날”이 24 시간으로서 또한 한 시대를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는가?

4. 점진적 창조-지각의 격변 이론

이 이론은 다음을 주장한다: 지질학적 시대들이 발생했던 무한정의 긴 시간이 창 1:1 과 창 1:2 사이에 있었다; 이 기간동안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있었던 피조물들이 화석에 의해 제시된 순서대로 창조되었다; 200,000 년 전경에 초자연적 재난이 일어났고 지구 상의 많은 생명체가 파괴되었으며 많은 동물들이 사라졌다; 그 후에 창 1 장의 날들이 생겼다. 이 날들은 최초의 창조라기보다 재창조를 가리킨다.

5. 오직 에덴 이론

창조의 이야기는 오직 에덴동산의 창조와 이의 물리적인 면만을 가리킨다.

6. 간격이론

창 1:1 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 1:2 에 기초하여 루시퍼(사탄)는 세상을 담당하도록 되었고 그(사탄)는 반역했다고 이해한다. 하나님은 루시퍼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멸망시키셨다. 수 백만년 동안 세상은 버려져 있었고 여러 지질학적 시대를 거쳤다. 창 1:3-2:3 에 기초하여, 주전 4004 년에 하루가

**12:7 “그 피를 . . . 바르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없었다. 이 일은 가족이 할 일이었다. 이 일은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였다(참조, 히 11:28). 각 가정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여야만 했다.

피는 나중에 짐승의 몸에서 생명을 대표하는 부분이 되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다(참조, 레 17:11,14).

▣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이것은 문지방이 거룩하다고 여긴 고대 근동의 신앙과 관련을 가진다(참조, 창 4:7; 신 6:9; 11:20). 오늘날 미국에서 신부를 문지방 너머로 들고 가는 풍습은 이러한 미신의 한 가지 예이다.

나중에 메주자(히브리어로 “문기둥”을 뜻함, 참조, 신 6:9; 11:20)를 오른쪽 문설주에 둔 일은 우연이 아니다. 야웨께서 자신의 말씀으로써 그들을 구해주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여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다. 야웨의 백성은 반드시 계속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

▣ **“인방”** 이것(BDB 1054)은 윗쪽 판 또는 문 위에 있는 작은 창문을 가리킨다.

**12:8 “그 고기를 . . . 먹되”** 이것이 속죄제물이 아님을 나타낸다.

▣ **“불에 구워”** 이것은 고대의 조리법이었는데, 집 밖에서 바베큐 하는 것과 비슷하다. 요점은 재빨리 요리함에 있다; 정상적인 준비과정을 위한 시간이 없었다.

“삶아서”(BDB 143)가 가지는 의미의 범주에 대한 설명을 F. F. 브루스의 *질문에 대한 답*(211-212 쪽)에서 참조하라. 이것은 다음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참조, NIDOTTE 제 4 권 433-435 쪽)

1. 요리하다(참조, 신 16:7)
2. 굽다(참조, 삼하 13:8)
3. 물에 끓이다(참조, 출 12:9)
4. 물에 굽다(참조, 대하 35:13)

여기에 있는 “물에 삶아서”는 끓이는 것(3 항)을 금하는 말이다.

▣ **“무교병”** 무교병과 불에 굽는 일은 시간적으로 서둘렀음을 나타낸다. 누룩이 언제나 죄를 상징한 것은 아니다(특별주제: 누룩을 보라).

▣ **“쓴 나물”** 랍비들은 쓴 나물이 히브리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받은 쓰라린 고통(참조, 출 1:14; 신 16:3)을 상징한다고 믿고 있다. 이 용어(BDB 601)는 애 3:19 에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12:11** 이 절은 여행을 위한 그들의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집 안에서는 보통 신발을 신지 않았다.

▣ “이것이 여호와와 유월절이니라” 이 음식을 급히 준비하여 먹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곧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호와와 마지막 재앙은 다음 사항을 상당히 황폐하게 하였다

1. 이집트인의 가정
2. 이집트인의 신들(참조, 출 12:12)
3. 이집트인의 사회

야웨께서 문에 있는 피를 보실 것이며 그의 죽음의 천사(참조, 출 4:24; 삼하 24:16-17; 왕하 19:35)는 그 집을 살려 둘 것이다.

▣ “여호와와 유월절” 민족적으로 지키는 이 희생제사의 축제는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1. 출 12:11,27 에서 “여호와와 유월절,” 이것은 피가 발라진 집을 야웨께서 살려 두심 또는 보호하심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2. 출 12:27 에서 “여호와와 유월절 제사라,” 이것은 야웨께 드려진 양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3. 출 34:25 에서 “유월절 희생,” 이 용어는 이 축제에 대한 직접적인 명칭으로서 사용된다 “유월절”의 정의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유월절을 보라.

### 특별주제: 유월절

#### I. 들어가는 말

- 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은 야웨의 사랑과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우신 것에 대한 시금석이다(즉, 특히 선지서에서).
- 나. 출애굽은 창 15:12-21 에서 야웨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특별한 성취이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다.

디 이거우 그비르 투레 사에케니 이집트세 네키시여 케인 케야주 기자 미기마이크 기자

#### II. 단어 자체(BDB 820, KB 947)

- 가. 명사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1. “재앙”에 관계되어, “강타를 치다”(즉, 출 11:1); 야웨의 천사가 사람과 가축의 첫 태생을 치다
- 나. 동사의 의미:
  1. “절뚝거리다” 또는 “다리를 절뚝거리다”(참조, 삼하 4:4)는 “표시된 집을 넘어가다”의 의미에서 사용했다(즉, 출 12:13, 23, 27, BDB 619, 일반적인 어원론)
  2. “춤을 추다”(참조, 왕상 18:21)
  3. 아키디아어 – “가라앉히다”

- 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 거행(길갈), 수 5:10-12
- 라. 솔로몬의 성전 헌당식 때, 왕상 9:25 과 대상 8:12(특별히 진술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 마. 히스기야 통치기간 동안 한 번, 역대하 30 장
- 바. 요시아의 개혁기간 동안 한 번, 왕하 23:21-23; 대하 35:1-18
- 사. 왕하 23:22 과 대하 35:18 에서 이 절기 지키기를 이스라엘이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V. 중요성

- 가. 이것은 일년 중 꼭 지켜야 되는 세 절기 중 한 가지였다(참조, 출 23:14-17; 34:22-24; 신 16:16):
  - 1. 유월절/무교병
  - 2. 칠칠절
  - 3. 초막절
- 나.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것을 중앙의 성소(다른 두 절기처럼)에서 지켜져야 하는 날로서 예시한다.

**12:12 “내가 심판하리라”** 출 12:12-13 에서 일인칭 대명사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주목하라. 야웨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이집트의 우상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할 것이다(즉, 보호를).

▣ **“모든 처음 난 것을”** 이것은 선택적인 심판을 뜻한다. 이집트 사람들이 수 년에 걸쳐 히브리 사람들의 모든 남자 아이를 죽였던 사실을 기억하라! 바로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신(즉, 태양신 *라*의 아들)으로 여김을 받았음도 기억하라. 우리는 라암세스 II 세의 장자가 그를 이어 왕이 되지 못한 것도 알고 있다. 특별주제: 장자를 보라.

유월절과 무교병의 결합은 이 둘이 “처음” 것과 관련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 1. 유월절은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관련이 있다(대개는 봄, 참조, 출 13:1-16).

2. 무교병은 처음 열매(아마 보리의 추수)를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봄은 처음 곡물의 추수철임)

▣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것은 사람과 그의 소유물을 함께 취급함을 나타낸다(참조, 수 7:24-25). 이 내용은 야웨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었을 것이다(참조, 민 33:4).

▣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모든 재앙이 각각 이집트의 어떤 신에 대한 것이었다. 장자는 바로가 태양신인 *르*의 아들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이었다. 이 재앙은 그의 장자의 생명도 요구하였다.

▣ “나는 여호와라” 출 3:14-16의 설명을 보라.

이 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야웨로 제시함을 주목하라. 여기서 이집트의 신들은 *엘로힘*(즉, “신들,” gods)으로 부르고 있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다항과 라항을 보라.

**12:13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것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표적이었는데, 이에 못지 않게 죽음의 천사(즉, 하나님의 대리자)를 위한 정보이기도 했다.

구약에는 여러 종류의 “표적들”(BDB 16)이 나온다.

1.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표(또는 표시) – 창 4:15
2. 홍수가 더 이상 없을 것을 나타내는 무지개 – 창 9:12-17
3. 문에 바른 피 – 출 12:13
4. 안식일 – 출 31:12-17; 겔 20:12,20
5. 고라의 향로로 만든 접시 – 민 16:36-40
6. 성구함과 이마에 있는 장식 띠 – 신 6:8; 11:18
7. 요단 강 한 가운데서 가지고 나온 돌 – 수 4:6
8.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에게 한 어떤 말 – 삼상 14:10
9. 세 해에 걸친 농업 작황 – 왕하 19:29-34; 사 37:30
10. 별들의 그림자의 진행 – 왕하 20:8-11; 사 38:5-8
11. 아하스 왕에게 한 아들이 태어남 – 사 7:11,14
12. 이집트에 있는 제단, 사 19:19-22
13. 야웨께서 열방에 알려지심 – 사 66:18-19(참조, 사 11:10,11-16; 19:22)
14. 예루살렘에서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의 이마에 있는 표 – 겔 9:4(참조, 계 7:3; 14:1)

NIDOTTE 제 4 권 1224-1228 쪽에서 “표적과 상징: 그 신학적 의미”를 보라.

▣ “내가 피를 볼 때에” 이것은 신인동형적 표현으로서, 야웨께서 영원하신 영이 아니라 마치 신체를 가지신 것처럼 묘사한다.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보라.

▣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계속된다 (출 8:22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12:14-20**

14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지니라  
15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6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어 가지니라  
17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키지니라 18 첫째 달 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이십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9 이레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12:14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스라엘은 야웨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참조, 출 13:9). 그들은 자녀들에게 이 사건과 그 의미에 대한 것을 매년 가르쳐야 한다 (참조, 신 4:9,10; 6:7,20-25; 11:19; 12:26; 31:13; 32:46).

후에 랍비들은 매년 행해진 것은 유월절 식사 뿐이었고 문에 피를 바르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 “영원한 규례로” 이 “영원한”이란 단어는 *올람*이다(BDB 761, 참조 출 12:17; 레 3:17; 7:36; 민 10:8). 특별주제: 영원히(*올람*)를 보라. 이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두 가지 문맥 즉, 오경과 정경(참조, 행 15 장; 갈 3 장; 히브리서)에 비추어 해야 한다.

“규례”(BDB 349)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보라.

이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난 역사적/신학적 사건이었지만, 모세의 언약 밑에 있는 모든 세대에게 대한 진리이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구약).

12:15-20 이 문단은 유월절과 이레 동안의 무교절을 연결시키기 위해 후에 편집자가 추가시킨 내용으로 여겨진다.

12:15 “이레 동안” 이것은 고대 근동의 독특한 시간 구분법이다(참조, 창 2:1-2). 이것은 아마 달의 상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 “누룩” 누룩은 구약에서 여러 목적을 가진다.

1. 급함을 상징
2. 죄를 상징
3. 침투함을 상징
4. 정기적인 제사의 일부분

특별주제: 누룩을 보라.

**특별주제: 누룩**

“누룩”( *취매* )는 구약과 신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 부패함의 의미로서 악을 상징
  - ㄱ. 출 12:15; 13:3,7; 23:18; 34:25; 레 2:11; 6:17; 신 16:3
  - ㄴ. 마 16:6,11; 막 8:15; 눅 12:1 갈 5:9; 고전 5:6-8
2. 발효의 의미로서 영향력(악의 상징이 아님)
  - ㄱ. 레 7:13; 23:17; 암 4:5

▣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관용적 표현(NIDOTTE 제 2 권 729-731 쪽)은 다음 사항을 나타낼 것이다.

1. 죽음(참조, 출 31:14; 레 20:2; 23:30)
2. 자녀가 없음
3.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함(참조, 출 12:19)

**12:16 “성회”** “성회”(BDB 896)는 안식일의 집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규적인 축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참조, 레 23 장). 이스라엘은 신학적 및 교육적 목적으로 축제를 사용하였다.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축제를 보라.

“거룩한”(BDB 872)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거룩함을 보라.

▣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음식준비에 관한 실제적인 지침을 주목하라.

일을 멈추는 것은 그 날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이 점은 매주 지키는 안식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참조, 출 20:9-10; 31:14-15; 렘 17:22; 또한 레 16:29 에 나오는 금식일 즉, 속죄일).

**12:17 “무교절”** 농업과 관계된 축제가 어떻게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사용되었는지를 주목하라(참조, 신 16:1-8).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축제를 보라.

▣ **“너희 군대를”** “군대”(BDB 838)라는 용어는 군사적 의미를 가진다(참조, 출 7:4; 12:41). 이스라엘은 지파별 조직을 갖추며 군대의 명령을 따라 여행을 하게 된다.

▣ **“대대로”** 한 세대가 얼마만큼의 기간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NIDOTTE 제 1 권 931 쪽에서는 세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제시한다.

1. 창 15:16 – 대략 100 년
2. 민 1:1-25:18 – 대략 40 년
3. 오늘날의 학자들은 25 년을 제안한다(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문 것에 대하여 말하는 여러 본문을 고려하여)

**12:19** 이것은 이방인들이 포함되고 이스라엘의 예식이 순전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을 나타낸다. 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 개역개정 12:21-22

<sup>21</sup>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sup>22</sup>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12:21 “모든 장로”** 이것은 각 지파의 나이가 많은 남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특별주제: 장로를 보라.

## 특별주제: 장로

1. 천사들의 회의에서 구성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참조, 사 24:23). 이 용어가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에게 사용되었다(참조, 4:4,10; 5:5,6,8,11,14; 7:11,13; 11:16; 14:3; 19:4).
2. 구약에서 지파의 지도자들(자켄)을 가리킨다(참조, 출 3:16; 민 11:16). 후에 신약에서는 산헤드린으로 불리는 유대인의 최고법정을 이루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가리켰다(참조, 마 21:23; 26:57). 예수님 당시에 이 70 명의 지도자들은 타락한 제사장직에 의해 조종되었다.
3. 지역에 있는 신약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세 동의어 가운데 하나였다(목사, 감독, 장로, 참조, 딤후 1:5,7; 행 20:17,28). 베드로와 요한은 이 용어를

▣ “너희는 나가서...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기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온다. 이 지시는 그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한 방법이었다.

1. 가라(문자적으로, “끌어내다”) – BDB 604, KB 645, 칼명령
2. 택하라 – BDB 542, KB 534, 칼명령
3. 죽여라 – BDB 1006, KB 1458, 칼명령

▣ “유월절 양으로” 이 용어(BDB 820)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각 가정 또는 여러 가족을 위한 양이나 염소를 가리킨다.

12:22 “우슬초 묶음” 이 식물(BDB 23)은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털이 많은 잎을 가진 작은 덩굴이다(참조, 왕상 4:33). UBS의 성경의 동식물 129-130 쪽을 보라.

제임스 M. 프리만의 책 성경의 관습과 풍습(223 쪽)에서는 우슬초가 정화라는 개념과 관련을 가지며 사람들이 정화의 목적으로 먹기도 했음을 말한다.

▣ “그릇에 담은” 똑같은 단어(BDB 706 I)가 “문지방”(BDB 706 II, 참조, 70 인역과 벌게이트역)을 뜻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이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의미라면, 이 단어는 문에서 닳는 부분이 피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장소임을 가리킬 수 있다. F. F. 브루스는 질문에 대한 답(8 쪽)에서 이것이

“문지방”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문의 네 부분(즉, 인방, 두 기둥, 바닥에 있는 “문지방”)을 모두 포함하게 되기 때문이다.

F. F. 브루스의 이 책은 나에게 상당히 소중하다. 나는 성경학도들에게 이책을 강력하게 권한다.

▣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피는 야웨의 천사에게 주는 표식이었다. 이것은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보호와 돌보심을 상징하였다. 그 날 밤 이집트인의 거리는 위험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장자가 아닌 자들에게도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월절은 집에서 지키는 축제로서 가족에 의하여 행해지고 각 처소에서 행해진 축제이다(이웃도 포함될 수 있었음).

#### 개역개정 12:23-27

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24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25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키라 26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12:23 “여호와께서... 멸하는 자에게” 여기서는 이 둘 사이에 구분이 있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참조, 출 4:24). “멸하는 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창 19:15; 삼하 24:15-17; 왕하 19:35; 대상 21:15; 대상 10:10; 히 11:28 에서 보라. 야웨와 관련이 없는 어떤 악한 존재가 죽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웨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이다. 죽음의 신은 없다!

야웨의 특별한 천사가 출 14:19; 23:20-23 에서도 나온다. 천사인 이 종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함이 분명하다

1. 멸망시키는 자(출 12:23; 33:2; 대상 21:12)
2. 보호자와 안내자(출 14:19; 23:20,22,23; 민 20:16; 시 78:14)
3. 벌을 주는 자(출 23:21; 32:34; 시 78:49; 사 63:10)
4. 야웨의 직접적인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참조, 출 33:14-16; 신 4:37; 사 63:9)

이 특별한 천사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인하여 출 33:14-17 에서 떠나간다.

때로 멸망에 여러 천사가 관련을 가진다(참조, 시 78:49; 겔 9:1-8).

12:24,26 이 교육적 강조는 신 4:9; 6:7-9,20-25; 11:29; 32:46 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적인 내용을 훈련시키는 일이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다(참조, 시 78:5-6).

12:25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것은 창 15:12-21 과 관련이 있으며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 야웨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초의 약속(참조, 창 12:1-3)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씨(남자 아기)
2. 땅(고향)

구약에서는 땅을 강조하고 신약에서는 “씨”를 강조한다.

12:27 “이는 여호와와 유월절 제사라” 이것은 레 17:11 과 어떤 연결성을 가진다! 이 용어(BDB 820)는 희생제사 또는 축제를 가리킨다.

▣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출 8:22 의 설명을 보라.

#### 개역개정 12:28

28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12:28 이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순종이 중요하다. 특별주제: 지키다를 보라.

#### 개역개정 12:29-32

29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30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31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12:30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 일은 출 11:6 에서 미리 예고한 내용이다. 이 큰 부르짖음은 바로의 명령으로 자신들의 남자 아기가 죽임을 당할 때 히브리인들이 울부짖던 고통의 외침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출 1:22).

12:32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여섯 가지 명령을 한다(즉, 명령형). 이 내용은 출 10:28 에 비추어 볼 때 놀랍다.

1. 일어나라 – BDB 877, KB 1086, *칼* 명령
2. 떠나라 – BDB 422, KB 425, *칼* 명령
3. 가라 – BDB 229, KB 246, *칼* 명령
4. 예비하라(문자적, “섬겨라”) – BDB 712, KB 773, *칼* 명령
5. 가져가라 – BDB 542, KB 524, *칼* 명령
6. 가라 - 3 항과 같음

12:32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수수께끼같은 이 문장은 다음의 의미로 여겨진다

1. 야웨께서 최고의 능력을 가지심과 그분의 실재성을 인정함
2. “나와 이집트를 제발 내버려두라”는 의미의 풍자(즉, 당신들이 떠나감으로써)
3. 그가 이 사항을 일찌기 요청했었다(참조, 출 8:8,28); 어쩌면 그들이 3 일 동안만 가는 것으로 그가 생각했을 수 있다(참조, 출 3:18; 5:3; 7:16; 8:27). 출 14:5 에서 이스라엘이 영구히 떠나갔음을 바로가 처음으로 인식하였다
4. 모세에게 더 이상의 재앙이나 저주가 있지 않게 해 주기를 바로가 요청하는 내용이거나 (참조, 출 8:8,28; 9:28), 야웨께 대하여 그의 믿음과 존경이 커졌음을 뜻한다

#### 개역개정 12:33-34

<sup>33</sup>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12:33 이집트 사람들의 행동(즉, 그들을 재촉하여 내보내고 재물을 그들에게 준 일)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일이었다! 출 12:36 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야웨께 한 것이라고 말한다. 야웨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듯이 그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셨다.

#### 개역개정 12:35-36

<sup>35</sup>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sup>36</sup>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12: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것은 출 3:21-22 및 11:2 의 성취이다. 그들은 이러한 물품을 사용하여 성막을 만들 수 있었다(출 25-31 장). 이것은 창 15:14 의 내용을 가리킬 수 있다(그러나 이 본문은 가축을 가리킬 것이다).

옷(BDB 971)이 중요한 물건(은, 금)에 포함되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재산을 모으거나 그 가치를 재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다.

1. 양식을 저장함
2. 귀금속의 무게를 잴
3. 옷, 종종 보석을 매달고 금이나 은으로 단장하거나 엮음
4. 보석(즉, 드물고 아름다운 보석, 참조, 출 28:17-20), 그러나 여기서는 이것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음

12:36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킹제임스역에서는 “빌리다”(가능성이 있는 한 가지 의미임)로 번역하였으나, 이 본문에 있는 히브리 단어는 “주다”(BDB 981, KB 1371, *ה/פל* 미완료형과 *ואו*)를 의미한다. 문맥이 의미를 결정짓는다.

▣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것은 군사적 용어로서(BDB 981, KB 1371, *פ/אל* 미완료형과 *ואו*) 전리품을 가리킨다(참조, 출 3:22)!

#### 개역개정 12:37-39

3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속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38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39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밭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12:37 “라암셋을 떠나서 속곳에 이르니” 이 두 곳의 지리적 위치는 확실하지 않다. 라암셋(BDB 947, 참조, 출 1:11)은 라암세스 II 세와 그의 아들이 좋아한 수도로서 삼각주에 있었다. 이 성은 동부 삼각주에 있는 고센 근처에 있었다.

속곳(BDB 697, 참조, 출 13:20)은 “가축의 오두막들”(참조, 창 33:17) 또는 “임시적인 작은 공간들”을 뜻한다.

특별주제: 출애굽의 경로를 보라.

▣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똑같은 숫자가 출 38:26 과 민 11:21 에서 나온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추가하면 그 수가 2-3 백만명으로 된다. 이 수가 상당히 많기에 학자들은 그 수를 줄이는 방법을

고안하였다(F. F. 브루스, *질문에 대한 답*, 9 쪽을 보라).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천”이라는 용어와 관련이 있다. 이 용어는 “씨족” 또는 “부족”을 의미할 수 있다(참조, 사 6:15; 삼상 10:19; 미 5:2). 특별주제: 천(*알레프*)을 보라.

**특별주제: 천(*알레프*)**

이것은 “천”(BDB 48)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진다.

1. 가족의 단위, 수 22:14; 사 6:15; 삼상 23:23; 숙 9:7; 12:6
2. 군대의 단위, 출 18:21, 25; 신 1:15
3. 글자 그대로 천, 창 20:16; 출 32:28
4. 사지저이 스킨 차 24:60. 추 20:6. 24:7. 시 7:0. 레 22:10

▣ “장정” 남자(BDB 149)를 뜻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힘과 생명력이 있는 남자를 가리킨다(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연령, 참조, 삼상 16:18; 대상 12:8,28; 대하 13:3). 출 10:11 에서는 이 용어가 단순히 활동력이 있는 연령의 남자를 가리키고 있음을 주목하라.

**12:38 “수많은 잡족과 . . .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잡족은 민 11:4 에서 문제의 원천이 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1. 이집트 사람인 아내들
2. 다른 셈족 노예들
3. 이집트의 범죄자들
4. 개종한 이집트인들(참조, 출 9:20-21)

**12:39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이 동사(BDB 176, KB 204)는 단 두 번만(이곳과 욥 30:5 에서) *푸알*형으로 사용되었다. *피알*형은 출 6:1 과 11:1 에서 야웨의 예고에서 나온다. 그들은 야웨께서 내리신 재앙을 인하여 쫓겨났다.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 한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인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개역개정 12:40-41**

<sup>40</sup>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삼십 년이라 <sup>41</sup>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그 날에

12:40-41 이 두 절은 요약을 제시한다.

12:41 “사백삼십년” 이 수를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1. 창 15:13 에서는 이 기간이 “400 년”이라고 말하고, 창 15:16 에서는 “네 세대”라고 말한다
2. 행 7:6 에서는 창 15:13 을 따른다
3. 갈 3:7 은 출 12:41 과 일치한다
4. 랍비들은 이것이 이삭의 출생부터 출애굽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5. 70 인역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유랑한 기간이라고 말한다
6. 칼빈은 이것은 대략적인 수라고 말한다

특별주제: 출애굽의 연도를 보라.

존 H. 왈튼과 D. 브렌트 샌디가 최근에 저술한 *성경의 잃어버려진 세계*에서는 고대 근동의 구전 문화가 어떻게 그들의 문학적 전통과 내용으로 전달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이 책은 성경의 여러 책에 기록된 서로 다른 몇 가지 세부 사항(즉, 여기서는 숫자)을 이해함에 있어서 내게 크게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한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저자 가운데 한 명인 F. F. 브루스는 *질문에 대한 답*(169-170 쪽)에서 간략하면서도 유익한 설명을 한다.

▣ “끝나는 그 날에” 이것은 다음 사항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1. 예언의 정확한 성취
2. 이 사건의 정확한 날짜(참조, 출 12:51)
3. 과거의 일/사건을 입증하기 위한 관용적 표현(참조, 창 7:11,13; 17:23,26; 출 12:51; 19:1; 신 32:48; 수 5:11)

특별주제: 날(יום)을 보라.

#### 개역개정 12:42

<sup>42</sup>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12:42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영속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바뀌어서는 안된다(참조, 출 12:28,50; 신 4:2; 12:32).

▣ 다음 사항 사이에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1. 야웨께서 지켜보심 – BDB 1037
2. 이스라엘이 이 날로부터 계속하여 매년 지킴(즉, “준수함”) – BDB 1037

같은 어근(BDB 1036)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돌봄
2. 지켜봄
3. 준수함

여기서 이 용어는 깨어 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스라엘은 이를 지켜보았고 급히 떠날 시간을 기다렸다.

#### 개역개정 12:43-49

<sup>43</sup>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sup>44</sup>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sup>45</sup>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sup>46</sup>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sup>47</sup>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sup>48</sup>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12:44-45** 이 본문은 언약백성이 아닌 자들을 특수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1. 돈으로 산 종들
2. 자유로운 외국인 거류인들
3. 자유로운 외국인으로서 품꾼인 자들

**12:44**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종을 소유하는 일은 금해지지 않았다(참조, 레 22:11; 25:44-45).

고대 근동에서 노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하여 흔하였다

1. 출생에 의하여

2. 팔려서
3. 전쟁으로

로랜드 드보의 *고대 이스라엘*(제 1 권 80-90 쪽)을 보라.

▣ “**할례를 받은 후에**” 이것(BDB 557 II 과 로랜드 드보의 *고대 이스라엘*, 제 1 권 80-90 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에 의한 것이다(참조, 창 17:9-14). 이것에 대하여 레 12:3 에서 설명하고 있다.

할례(BDB 557 II)는 고대 근동에서 흔히 행해진 예식이었다. 주위의 거의 모든 민족들은 그들의 자녀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에 할례를 행하였다. 아시리아와 바벨론, 히위족, 팔레스타인의 중부에 있던 호리족, 주전 1200 년경에 팔레스타인의 남부 해안에 침공해 온 팔레스타인들(에게 사람들)의 경우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참조, 렘 9:25-26). 한편,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목적을 가졌다. 언제나 이것은 내적 믿음의 외적 표였다(참조, 신 10:16; 렘 4:4; 9:26; 롬 2:28-29; 골 2:11-13).

**12:46-48** 이 본문은 누가/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한 집에서 먹음
2. 희생제물의 어떤 고기도 집 밖으로 가지고 가지 못함
3.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못함(참조, 민 9:12)
4. 이것은 할례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본국인과 거류인)이 지켜야 하는 내용임

**12:49**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공정하여야 했고 종교적인 특징과 초점을 나타내야 했다(참조, 레 24:22; 민 9:14; 15:15,16,29). “**법**”(BDB 435)에 대해서는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보라.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는 용어(신명기와 시편에서)**

I. “규례” BDB 349, “법령, 명령, 혹은 규정”

가. 남성형, **후** - 신 4:1,5,6,8,14,40,45; 5:1; 6:1,24,25; 7:11; 11:32; 16:12; 17:19; 26:17; 27:10; 시 2:7; 50:16; 81:4; 99:7; 105:10,45; 148:6

나. 여성형, **후카**- 신 6:2; 8:11; 10:13; 11:1; 28:15,45; 30:10,16; 시 89:31; 119:5,8, 12,16,23,26,33,48,54,64,71,80,83,112,124,135,145,155,171

II. “율법” BDB 435, “가르침”

- 신 1:5; 4:44; 17:11,18,19; 27:3,8,26; 28:58,61; 29:21,29; 30:10; 31:9;



**개역개정 12:50-51**

<sup>50</sup>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sup>51</sup>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유월절의 주요 진리는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2. 양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3. 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합쳐졌는가?
4. 여기서 누룩은 죄의 상징인가?
5. 장자의 죽음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중요한가?
6. 무엇이 칠 일로 이루어진 한 주간의 기원인가?
7. 누가 멸망시키는 자인가? 그는 악한 천사인가?
8. 왜 학자들은 출애굽한 사람의 숫자를 줄이려고 애쓰는가?
9. 왜 출 12:41 에서 제시하는 “430 년”이 문제가 되는가?
10. 출 12:49 의 중요성은 무엇 때문인가?

# 출애굽기 1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태에서 처음 나온 것을 기록히 함	태에서 처음 나온 것이 기록하게 됨	태에서 처음 나온 것을 기록히 함	태에서 처음 나온 것을 봉헌함	태에서 처음 나온 것
13:1-2	13:1-2	13:1-2	13:1-2	13:1-2
	무교절		무교절	무교절
13:3-10	13:3-10	13:3-10	13:3-10	13:3-10
	태에서 처음 나온 것에 대한 법		태에서 처음 나온 것	태에서 처음 나온 것
13:11-16	13:11-16	13:11-16	13:11-16	13:11-1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다	광야 길	이스라엘의 구출 (13:17-14:31)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스라엘의 출발
13:17-22	13:17-22	13:17-22	13:17-22	13:17-20
				13:21-22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기타

**문맥적 통찰**

가. 간략한 개요

1. 출 13:1-2 에서는 야웨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2. 출 13:3-16 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다.
3. 출 13:17-22 은 후기의 요약이다.

나. 주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주목하라.

1. 출 13:1-2 에서는 태에서 처음 나온 것에 대하여 다룬다(즉, 이스라엘은 야웨의 장자이다, 참조, 출 4:22).
2. 출 13:3-10 에서는 무교절에 대하여 다룬다.
3. 출 13:11-16 에서는 1 항의 주제로 돌아간다.
4. 출 13:17-22 에서는 출애굽의 경로를 소개하며, 야웨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특별히 임재하셨음을 말한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13:1-2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13:2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카보드”(BDB 872, KB 1073)라는 동사의 *피/엘* 명령형이다. 특별주제: 거룩한을 보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러진 것을 의미하였다. 장자(문자적, “태를 열다”)는 야웨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야웨께 속한다!

▣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이것은 주인이심을 제시하는 방법이었다. 이같은 표현이 다음의 경우에서도 사용되었다

1. 일 주일의 하루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었다; 특별주제: 안식일(구약)을 보라.
2. 10 퍼센트(특별주제: 십일조를 보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었다
3. 하나님께 드린 추수의 첫 열매는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 속함을 나타내었다
4. 출 4:22 에서 집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한 용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심을 특별하게 나타낸다(참조, 출 19:5-6)

▣ “**이스라엘**” 특별주제: 이스라엘(이름)을 보라.

▣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그들의 가족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었다. 마지막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인 아이와 남아 있는 가족의 처음 난 것이 죽었음을 기억하라(참조, 출 12:12).

나중에 신 15:19-23 에서는,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에 대한 지침을 자세히 제시한다. 민 18:15-20 에서는 정결한 짐승의 초태생이 제사장의 음식이 되었음을 말한다. 레 27:26-27 에서는 정결하지 않은 짐승의 초태생을 어떻게 속량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 개역개정 13:3-10

<sup>3</sup>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sup>4</sup>아빕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sup>5</sup>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sup>6</sup>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sup>9</sup>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13:3 “**기념하여**” 이것은 칼 부정사 절대형이 칼 명령형의 역할을 하는 구문이다. 이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온다(참조, 신 5:15; 7:18; 8:2,18; 9:7,27; 11:2; 15:15; 16:3,12; 24:9,18,22; 25:17; 32:7)!

나는 NIDOTTE 제 1 권 1103 쪽에 있는 내용(레슬리 C. 알렌의 글)을 인용하기를 좋아한다:

“출애굽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창이다. 이 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또한 모든 세대에서 믿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속적 의지를 한눈에 보게 된다.”

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 “**그 손의 권능으로**” 이것은 신인동형적 표현으로서(즉, 출 3:19) 출 13:9,16 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특별주제: 손을 보라.

▣ “여호와께서”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라함(야웨)을 보라.

▣ “유교병을” 이 문맥에서 이것은 누룩이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급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특별주제: 누룩을 보라.

13:4 “아빱월” 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달력을 보라.

13:5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여러 족속들에 대한 설명을 특별주제: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거한 자들을 보라.

야웨께서는 창 15:12-21 에서 이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다.

▣ “여호와께서 . .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이 약속이 여러 번 반복된다.

1. 아브라함 – 창 12:7; 13:15,17; 15:18; 17:8
2. 이삭 – 창 26:3-4
3. 야곱 – 창 28:4,13-14; 35:12

▣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것은 가나안 땅의 농업적 축복을 나타내는 표현방법이다(참조, 출 3:8,17; 13:5; 33:3; 레 20:24; 민 13:27; 14:8; 16:13-14; 신 6:3; 11:9; 26:9; 27:3; 31:20; 수 5:6). 이 구는 나중에 요단 강 이편(즉, 가나안)을 가리키는 페르시아식 이름이 된다.

▣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이 섬김을 섬겨라”이다.

1. 동사 - BDB 712, KB 773, *칼* 완료형과 *와우*
2. 명사 - BDB 715

순종이 중요하다(참조, 출 13:10; 신 27-30 장; 눅 6:46; 약 2:14-20; 특별주제: 지키다를 보라; 또한 신 4:2,6; 16:12; 30:8 에 대한 설명을 보라; 야웨의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었다).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13:6-10 이 본문은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다. 출 12 장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다. 이 두 절기는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한 가지 연례 절기로 합쳐졌다(참조, 레 23 장).

13:8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절기(특별주제: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라)는 다음 세대에게 야웨께서 행하신 큰 일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참조, 출 12:26-27; 13:14; 10:2; 신 4:9-10; 5:29; 6:2,13,20-25; 11:19; 32:46). 부모가 집에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주어야 했다!

13:9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기억하고 자신들에 대한 야웨의 사랑을 기억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기억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1. 네 손의 기호 - 출 12:4; 13:9,16; 신 6:8; 11:18; 다음 사항은 신 6:8 에 대한 나의 주석에서 퍼온 내용이다:

신 6: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원래 이 구절은 은유로서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참조, LXX). 이 문맥은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를 말한다. 그러나 랍비들은 이 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토라에서 취한 말씀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테필린)를 그들의 왼손 주위에 가죽끈으로 묶기 시작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상자를 그들의 이마에 묶었다. “성구함” 또는 “이마의 상자”(BDB 377)에 대하여 신 11:18; 마 23:5 에서도 언급한다.

2. 네 미간의 표(문자적, “두 눈 사이”) - 이것은 성구함”으로 불렸다(참조, 신 6:8; 11:18; 마 23:5; 제임스 프리만의 책 *성경의 관습과 풍습*(367-377 쪽을 보라)

3. 나중에 여러 성경 구절을 담은 금속 상자(즉, 출 13:1-10,11-16; 신 6:4-9; 11:13-21)를 집의 문틀에 놓았다(즉, 유월절의 피를 발랐던 곳). 다음 사항은 신 6:9 에 대한 나의 주석에서 퍼온 내용이다:

신 6: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 역시 집에서의 삶 뿐 아니라 사회적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묘사이다(즉, 바깥문, 참조, 21:19; 22:15,24). 집의 문지방(BDB 265)이 종종 헬라나 로마세계에서 귀신의 장소로 여겨졌으나, 유대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다(즉, 유월절에 피를 놓아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참조, 출 12:7,22,23).

“바깥문”(BDB 1044)은 사회적 모임과 재판의 자리를 의미할 것이다(즉, 성문과 같이). 일반적으로 문에 설치한 이 작은 상자(메주자) 안에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이 들어있었다: 신 6:4-9; 11:13-21; 출 13:1-10,11-16.

▣ “율법”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보라.

13:10 “규례”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보라.

#### 개역개정 13:11-16

11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12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와 것이니라 13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14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새 15 그 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13:11 이 절이 유월절의 밤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라. 출 13:1-10 은 후에 기록되었다.

▣ “가나안 사람의 땅에” 여러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특별주제: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거한 자들을 보라). 그러나 그들을 대표하는 집합적 용어으로써 두 족속을 언급한다.

1. 가나안 족속 – 그들의 모든 족속을 나타내되 특히 해변가에 살았던 자들을 뜻한다
2. 아모리 족속 – 그들의 모든 족속을 나타내되 특히 산지에 살았던 자들을 뜻한다

▣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것은 창 12:12-21 에 있는 약속을 가리킨다. 출 13:5 의 설명을 보라.

13:12

NASB “봉헌하라”

NKJV, NRSV,

JPSOA, LXX “구별하라”

TEV “드려라”

NJB, REB “양도하라”

이 동사(BDB 716, KB 778, *ḥ/ḥl* 완료형과 *와우*)는 출 12:12 에서 피로 표시된 집을 야웨께서 “건너가신 일”( *ḥl* 미완료형과 *와우*)에 대하여도 사용되었다. 야웨께서 “건너가셨듯이” 이제는 장자들이 야웨께로 건너간다.

남자인 장자들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 죽었듯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자인 장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야웨께 속한다.

13:13 “대속할 것이요” 이 동사(BDB 840, KB 911)가 이 절에서 세 번 나온다. 이 단어는 종이 된 사람을 되사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가리킨다.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를 보라.

이것은 인간이나 짐승에 대한 값을 지불함 또는 제사를 드릴 짐승의 값을 지불함과 관련이 있다. 야웨의 “장자”인 종들은 후에 레위족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바뀐다.

민 18:16 에서, 장자인 아들을 대속하는 값은 5 세겔이었다. 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무게와 길이(도량형)를 보라.

###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무게와 부피(도량형)

상업적으로 사용한 무게와 양은 고대 농업경제에 있어서 중요했다. 성경은 유대인이 서로 공정하게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참조, 레 19:35-36; 신 25:13-16; 잠 11:1; 16:11; 20:1). 실제적인 문제는 정직성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된 표준화 되지 않은 용어와 체계였다. 두 개의 저울 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양에 대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성경 해석자의 사전* 제 4 권 831 쪽을 보라). 또한 이집트의 10 진법(10 을 기초로 하는)은 메소포타미아의 60 진법(6 을 기초로 하는)과 결합되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용된 “크기”와 “양”은 어느 것도 규격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신체의 일부분이나 동물에 실을 수 있는 적재량, 혹은 농부의 용기를 기초로 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오직 어렵짐작이었고 임시적이었다. 무게와 양을 나타내는 가장 이른 시기의 방법은 상호관계를 도식화함으로써 이다.

2. 레텍(또는 레덱, BDB 547, 아마도 호 3:2 에서 암시됨)
3. 에바(BDB 35), 예, 출 16:36; 레 19:36; 겔 45:10-11,13,24
4. 스아(BDB 684), 예, 창 18:6; 삼상 25:18; 왕상 18:32; 왕하 7:1,16,18
5. 오멜(BDB 771 II, 아마도 “곡물 한 단” [벤 곡식 한 단], BDB 771 I), 예, 출 16:16,22,36; 레 23:10-15
6. 잇사론(BDB 798, 에바의 “십분의 일”), 예, 출 29:40; 레 14:21; 민 15:4; 28:5,13
7. 카브(또는 캡, BDB 866), 참조, 왕하 6:25

#### 나. 액체의 양

1. 고르(BDB 499), 예, 겔 45:14(이는 또한 마른 것의 부피를 재는 것이었다, 참조, 대하 2:10; 27:5)
2. 바트(BDB 144 II), 예, 왕상 7:26; 대하 2:10; 4:5; 사 5:10; 겔 45:10-11,14
3. 힌(BDB 228), 예, 출 29:40; 레 19:36; 겔 45:24
4. 록(BDB 528), 참조, 레 14:10,12,15,21,24

- 다. 도표(로랜드 드보의 *고대 이스라엘* 제 1 권 201 쪽과 *유대 백과사전*, 제 16 권, 379 쪽에서)



나. 도표

1. 출애굽기에 기초하여

달란트	1				
미나	60	1			
세겔	3,000	50	1		
베카	6,000	100	2	1	
게라	6,000	1,000	20	10	1

2. 에스겔서에 기초하여

달란트	1	
미나	60	1

13:14 출 13:8 의 설명을 보라.

13:15 “완악하여” 이것은 “단단하게 된”(BDB 904, KB 1151, *히/플* 완료형)이라는 히브리 동사이다. 출 7:3 의 설명을 보라.

▣ “여호와께서 . . . 다 죽이셨으므로” 천사가 아니라(참조, 출 12:23) 야웨께서 직접 행하셨음을 (참조, 출 11:4; 12:12,29) 주목하라. 한편,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기억하라(참조, 사 45:7; 암 3:6).

▣ “내가 . . . 내 아들” 맛소라 본문에서는 “나”(BDB 58)라는 인칭대명사와 2 인칭 동사형을 시사한다. 이 인칭대명사는 *아/나*인데, TEV 에서는 집합적 의미를 가지는 “우리”( *아/누*)로 번역하였다. 후자는 이 문맥에서 적합한 의미를 나타낸다(UBS *핸드북*[321 쪽]을 보라).

▣ “대속하리니” 출 13:13 의 설명을 보라.

13:16 출 13:9 의 설명을 보라.

### 개역개정 13:17-22

17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다 20 그들이 속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13:17 특별주제: 출애굽의 경로를 보라.

▣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것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난 길로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하지만 이 길을 따라서 이집트인의 수 많은 성채가 있었다. 이집트인들은 이 길을 “호루스의 도로/길”로 불렀다.

이 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지름길로 이끌지 않으셨는지에 대하여 말한다(참조, 출 14:11-12; 민 14:1-4; 신 17:16).

“블레셋”이란 용어는 시대착오적 용어이다(참조, 대상 1:12). 왜냐하면 라암세스 III 세(주전 1187-1156 년) 이전에는 가나안에 이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 “이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이것은 “후회하다” 또는 “회개하다”(BDB 636, KB 688, *נ/פלא* 미완료형)라는 히브리 동사이다. RSV 에서는 이 동사를 “회개하다”로 번역하였다. NRSV 에서는 이것을 “그들의 마음을 바꾸다”로 바꾸어 놓았다(참조, NJB). JPSOA 에서는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로 번역하였다. 특별주제: 회개(구약)를 보라.

###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회개

이 개념은 중요하지만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 취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히브리(또한 헬라어) 단어가 신학적으로 “고정된” 어떤 정의를 특별히 뜻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단어가 그렇게 “고정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신약의 저자들(누가를 제외하고는)은 코이네 헬라어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히브리 단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개념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nhm*(*נחם*, BDB 636, KB 688)

2 *swb*(*שב*, BDB 996, KB 1427)

원문 단어가 *נחם*와 *שב*의 원래 사용 기원 또는 어원 연구는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영적 행동이 나오는 경우는 아모스서에서 찾을 수 있다:4:6-11,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5 회]와 암 5:4,6,14, “나를 찾으라 . . . 야웨를 찾으라 . . .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회개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커다란 예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밋세바와 관련하여 범죄하였을 때이다(참조, 삼하 12 장; 시 32 편; 51 편). 다윗 자신과 그의 가정 및 이스라엘에 계속적인 영향이 미쳤지만 다윗과 하나님의 교제는 회복되었다! 악했던 므낫세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참조, 대하 33:12-13).

이 두 용어는 시 90:13 에서 병행하여 나타난다. 죄를 인식하고 죄로부터 의식적이고 개인적으로 돌아서는 일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것이 요구된다(참조, 사 1:16-20) 회개는 인식적이 면 이격적이 면 두덕적이 면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13:18 “홍해” 특별주제: 홍해를 보라.

**특별주제: 홍해**

I. 이름

가. 문자적으로는 *궤 수프*이다.

1. “풀의 바다” 또는 “갈대의 바다”(이집트어 어원)
2. “(땅)끝에 있는 바다”(셈어 어원)

나. 이것은 다음을 말할 수 있다

1. 바닷물, 왕상 9:26(아카바 만); 온 2:5(지중해)
2. 민물, 출 2:3; 사 19:26

다. 70 인역은 이 단어를 처음으로 “홍해”로 번역하였다. 아마도 이들 번역가들은 이것을 에돔(붉음)의 바다로 연결시킨 것이다. 이 지칭은 라틴 벌게이트역과 후에 흙정역에 이어졌다.

II. 위치

가. 이 이름과 관련이 있을 여러 개의 장소(물이 있는)가 있다:

1.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있으며 약 300 킬로미터에 이르는 좁은 바다(수에즈 만)
2.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사이에 있으며 약 180 킬로미터에 이르는 바다(아카바 만)

나. 이것은 멘잘레 호수(늪 지대임)의 남쪽 해안에 있는 타니스, 소안, 아바리스, 람세스에서 가까운 나인 사간조이 동부쪽에 있는 물이 약은 늪지대를 말할 수 있다

### III. 민수기 33 장에서의 습

- 가. 민 33:8 에서 기적적으로 나누어진 이 물은 습으로 불린다.
- 나. 민 33:10,11 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얌 습* 옆에 진을 쳤다고 말한다.
- 다. 물이 있는 두 개의 장소는 서로 다르다.
  - 1. 처음 것은 홍해(수에즈 만)가 아니다
  - 2. 두 번째 것은 홍해(수에즈 만)일 수 있다
- 라. 습은 구약에서 3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 1. 야웨께서 물을 갈라 놓아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지나갔지만 이집트 군인들은 빠져죽은 곳
  - 2. 홍해(수에즈 만)가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곳
  - 3. 홍해(아카바 만)가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곳
- 마. *얌 습*은 “갈대 바다”를 의미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1. 홍해(짚물)에는 갈대(파피루스)가 자라지 않거나/없었다

▣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 형용사(BDB 332)는 “전투 대열”을 뜻한다(참조, 수 1:14; 4:12-13; 삿 7:11). 이 의미를 “만군”이라는 단어에서 시사한다(참조, 출 12:41; 특별주제: 만군의 주를 보라).

70 인역에서는 이것을 “이제 다섯 번째 세대에서”라고 번역하였다(참조, NEB, REB). 하지만 이러한 번역은 본문의 수정을 요구한다. UBS 본문 프로젝트는 맛소라 본문에 “C” 등급(많이 불확실함)을 준다. 이 프로젝트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룹에서”를 가능성이 있는 번역으로 제안한다.

아람어 탈굼, 벌게이트, 라쉬역에서는 이것이 무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하였다(“무기로 무장하여”). 이 무기는 홍해에 빠져 죽었다가 이스라엘이 진친 쪽으로 떠내려온 이집트 병사의 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한 무기일 것이다.

구약에 관한 자료로서 내가 좋아하는 저자는 로랜드 드보이다(*고대 이스라엘*, 제 1-2 권). 그는

이 어근이 아람어 사전에서 다음과 같은 대열로 행진하는 군대를 가리킨다고 언급한다

1. 선봉 부대
2. 본대
3. 왼쪽 부대
4. 오른쪽 부대
5. 후방 부대

따라서, 이것은 “다섯”을 뜻하는 어근이다(216-217 쪽).

**13:19 “요셉의 유골을”**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의 몸에 방부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였다(참조, 창 50:24,25; 수 24:32; 히 11:22).

▣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것은 같은 어근(BDB 989, KB 1396)을 가진 *하/פל* 부정사 절대형과 완료형 동사의 용법으로서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것은 같은 어근(BDB 823, KB 955)을 가진 또 다른 부정사 절대형(*אל*)과 미완료형 동사의 용법으로서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13:20 “숙곳을 떠나서... 에담”** 특별주제: 출애굽의 경로를 보라.

▣ “**광야**” 특별주제: 출애굽의 광야를 보라.

**13:21-22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은 야웨의 직접적인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특별한 구름 (“기둥,” BDB 765)을 가리킨다. 야웨께서는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와 광야에서 유랑할 때에 이 구름을 사용하여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참조, 출 13:21-22; 14:19,24; 33:9,10; 신 1:33; 느 9:12,19; 시 78:14; 105:39). 이 구름/기둥은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 갔을 때에 사라졌다.

랍비들은 이것을 “영광의 *쉬/כי/נא* 구름”으로 불렀다(참조, 출 13:21-22; 14:19,24; 33:9-10; 시 78:14; 99:7).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성취하였다.

1. 야웨의 직접적인 임재하심의 상징(*쉬/כי/נא*는 “함께 거하시다”를 뜻함)
2. 이것은 이스라엘과 바로의 정예부대를 분리시켰다(참조, 출 14:19-20)
3. 이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참조, 출 13:21-22; 민 9:17-23)
4. 이것은 이스라엘을 덮어 그들을 더위로부터 보호하였다(참조, 시 105:39)
5. 이것은 밤에 진을 밝게 하였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밤에 여행할 수 있게 하였다(참조, 출 13:21; 느 9:12,19)

6. 이것은 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참조, 출 23:27; 신 2:25; 11:25; 수 2:9)
7.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넌 후에 마침내 사라졌다가(참조, 출 16:35; 수 5:12) 솔로몬의 성전 헌당식 때에 다시 나타났다(왕상 8 장).

**13:21 “불”** 이것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다.

1. 타오르는 햇불 – 창 15:17
2. 불타는 가시떨기 – 출 3:2
3. 불 기둥 – 이곳, 시 78:14
4. 시내 산 위의 불과 연기 – 출 19:18; 20:18; 24:17
5. 멸망시킬 때 불이 떨어짐 – 창 19:24; 욥 1:16
6. 불에 응위되어 강림하심 – 사 66:15
7. 불로써 심판을 행함 – 레 10:2; 민 11:1-3; 사 30:30; 66:16; 살후 1:7
8. 하나님의 보좌가 “불타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다(참조, 사 62:2-3, 즉, *세라핌*, 특별주제: *세라핌*을 보라).

특별주제: 불을 보라.

**특별주제: 스랍**

- 가. 이 절은 그들에 대해 성경에서 언급한 유일한 곳이다. 14:29; 30:5 에 나오는 “날라다니는 뱀”(BDB 977 I 과 BDB 733)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집트 단어인 “셀랏”(“사자 몸통에 목수리 머리와 날개를 가진 수호신)에서 이 명칭이 왔을 가능성도 있다.
- 나. 그들은 천사의 특별한 계급에 속했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불타는 자들”(BDB 977 II)을 뜻한다. 이 단어는 “태우다”(BDB 976)라는 어근에서 왔다.

다. 레비 16:8 에서는 스랍이 그를 향하여는 경우 그 부인인 “진수”의 두 날개(출 25:18)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출애굽기 12 장에서 언급한 규정이 왜 출애굽기 13 장에서 다시 나오는가?
2. 왜 장자가 야웨께 속하는가?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는가?
3. 왜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이 땅은 다른 민족에게 안 속하였는가?
4. 야웨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어디서 또 누구에게 주셨는가?
5. 장자인 남자가 어떻게 속량을 받았는가?
6. 출 13:8 과 14 절의 실제적 중요성은 무엇인가?
7. 출 13:17 에서 “블레셋”이란 이름이 특이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8.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왜 지름길을 사용하지 않으셨는가?
9. 홍해는 어디에 있는가?

# 출애굽기 1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뒤쫓는 바로	홍해를 건너기	이스라엘의 구원 (13:17-14:31)	홍해를 건너기	에담에서 홍해로
14:1-4	14:1-4	14:1-4	14:1-4	14:1-4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뒤쫓다
14:5-9	14:5-9	14:5-9	14:5-9	14:5-14
14:10-12	14:10-14	14:10-14	14:10-12	
바다가 갈라지다				
14:13-14			14:13-14	바다의 기적
14:15-18	14:15-18	14:15-18	14:15-18	14:15-18
14:19-20	14:19-20	14:19-20	14:19-20	14:19-31
14:21-25	14:21-25	14:21-25	14:21-25	
14:26-29	14:26-29	14:26-29	14:26-29	
14:30-31	14:30-31	14:30-31	14:30-31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출애굽기 14 장은 출애굽에 대한 산문적인 묘사이고, 출애굽기 15 장은 출애굽에 대한 시적 묘사이다. 사사기 4 장과 5 장에 대한 설명도 보라.
- 나. 전쟁의 신이신 야웨(즉, 사 59:15c-20)에 대한 좋은 설명을 NIDOTTE 제 4 권 545-549 쪽에서 보라.
- 다. 출애굽의 경로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이론이 있다(특별주제: 출애굽의 경로를 보라).
  1. 북쪽의 길로서, 지중해를 따라 형성된 늪지
  2. 중앙에 있으며, 쓴 호수로 불리는 늪지
  3. 남쪽에 있으며, 오늘날 홍해로 불리는 바다의 북쪽 끝을 횡단하는 길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4:1-4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므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3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조 비록 그가 그의 티르 띠르키니 내가 그의 귀에 그대르 마리아신 여파오

14:2 “명령하여” 이것은 *פ/אל* 명령(BDB 180, KB 210)이다. 야웨께서 온전히 주관하신다.

1. 야웨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출 14:4,8,17
2. 야웨께서 그들을 구하셨다, 출 14:13
3. 야웨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 출 14:14,25
4. 야웨(그의 천사)께서 밤새도록 이집트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이를 떼어 놓으셨다, 출 14:20
5. 야웨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모세의 손에 있는 야웨의 지팡이로), 출 14:21
6. 야웨께서 이집트의 군대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야웨께서 가나안 정복시에도 그들의 군대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출 14:24

7. 야웨께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셨다(동사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음), 출 14:25
8. 갈라졌던 홍해가 합쳐져 이스라엘을 뒤쫓던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전멸시키셨다, 출 14:27-28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주목하여 보라, 출 14:31!

▣ “돌이켜 . . .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은 그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 가라는 명령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일은 목적 없는 방향으로 여겨졌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에 갇힌 것으로 보였다.

▣ “비하히룻” F. B. 후아이는 그의 저서인 *연구 안내 주석, 출애굽기*(63 쪽)에서 이 지명이 이집트의 지명이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졌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1. “짠물의 늪지대”
2. “햇출 여신의 집”

이 히브리어근(BDB 809, 참조, 민 33:7)은 “목초지”를 의미한다. 이 지명의 위치는 확실하지 않다.

이 구가 “땅파기의 입구”를 뜻하며, 당시(즉, 주전 1290 년, 세티 I 세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 관타라 근처를 지나는 운하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다(참조, IVP 성경 배경 주석, 90 쪽).

▣ “믹돌” 이것(BDB 154)은 “망대”를 뜻한다. 많은 도시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도시의 위치는 이 문맥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명과 마찬가지로 확실하지 않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연구 지도는 출애굽의 여정에 관한 세 가지 이론(북부, 중부, 남부) 가운데 출판사가 주장하는 의견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 “바알스본” 이것(BDB 128)은 “북부의 주”를 뜻한다(참조, 시 48:2; 사 14:13). 이 “바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다산숭배가 이집트에도 퍼졌음을 나타낸다.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숭배를 보라.

###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 숭배

#### I. 섬기는 까닭

- 가. 고대인들이 사냥을 하고 양식을 수집하는 삶에서 유목생활을 거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곡식과 짐승의 떼에 대한 필요를 가지게 되었다.
- 나. 고대 근동의 주민들은 자연의 힘 앞에 무력했다.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들은 계절의 규칙적인 질서에 의존하게 되었다.
- 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의 힘은 신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탄원하고 또 이를 조종하려 했다.

#### II. 어디서 왜

- 가. 다산의 신을 숭배하는 일은 다음의 장소에서 발전되었다

#### IV. 이스라엘 사람들

- 가. 다산 숭배적 종교(특히 가나안의)를 피하라고 야웨의 백성이 경고를 받았다(즉 레위기와 신명기).
- 나. 이러한 종교는 인간의 존재를 대신하며 성적 행위에 강조점을 두었기에 매우 널리 대중화 되었다.

▣ “바닷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와 사막과 이집트 군대에 의해 갇혀졌다. 이곳은 지중해, 쓴 호수, 또는 홍해를 가리킨다. 특별주제: 출애굽의 경로를 보라.

14:3

NASB, NRSV	“목표 없이 방황하는”
NKJV	“갈피를 못잡는”
TEV	“방황하여 빙빙도는”
NJB	“이리저리로 방황하여”
JPSOA	“땅에서 길을 잃다”
REB	“어려운 지역에서”
LXX	“땅에서 방황하는”
페쉬타	“땅에서의 나그네들”

이 동사(BDB 100, KB 115, *ניפל* 능동 분사)는 드물게 사용된 단어로써 구약에서는 3 곳에서만 사용되었다.

1. 출 14:3 – 백성들의

2. 에 3:15 – 백성들의

3. 을 1:18 – 가족의

기본적 개념은 “당황하여”이다.

**14:4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강조한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음을 여러 번 말하며,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음도 여러 번 말한다(출 4:21 의 설명을 보라). 이 두 가지의 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셨으며 그 결과에 있어서 바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특별주제: 예정을 보라)! 이것은 가롯 유다의 경우와 비슷하다.

▣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것은 출 4:21 의 성취이다. 야웨께서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 **“내가 ... 영광을 얻어”** 이것(BDB 457, 출 14:17-18)은 *카보드*(영광)라는 히브리 단어이다. 특별주제: 영광(*카보드*, 구약)을 보라.

▣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바로가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군대는 자신의 왕궁 호위대였다. 이들은 600 승의 전차였다고 출 14:7,23 에서 언급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전 군사가 아니었다. 전 군대는 이집트의 모든 성채에 두루 흩어져 있었을 것이다.

▣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재앙은 대략 18 개월에 걸쳐 일어났는데, 이 재앙들은 각각 어떤 특정한 이집트의 신에 대하여 당혹함을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히브리인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행하셨듯이(참조, 출 14:18; 7:5,17) 이집트인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행하고 계셨다(참조, 출 9:20-21; 10:7).

특별주제: 알다를 보라.

#### 개역개정 14:5-9

<sup>5</sup>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sup>6</sup>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sup>7</sup>선발된 병거 육백 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sup>8</sup>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sup>9</sup>애굽

14:5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히브리인들이 얻은 자유는 이집트인의 삶에 있어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을 가져다 주었다.

14:6 “병거” 이 전쟁 무기는 소아시아의 히타이트가 개발한 것이다. 그들은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타는 병거를 사용하였다. 그 당시 사용한 이집트의 병거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특별주제: 병거를 보라.

14:7 “선발된 병거” 이것(BDB 103, KB 119, 칼능동 분사)은 이들이 최고의 정예부대 또는 가장 새로운 병거를 가진 병사임을 뜻한다. 이들은 삼각주에 있는 수도에 주둔한 정예 부대로서 왕의 친위부대였다. 이들은 바로의 경호부대였다.

▣ “지휘관들이” 이 용어(BDB 1026 III)는 각 병거에 있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사람을 가리킨다. 이집트 병거의 그림에서는 두 명만 병거를 타고 있다(로랜드 드보, *고대 이스라엘*, 122 쪽을 보라).

14:8

NASB, NRSV	“답대하”
NKJV	“답대하게”
TEV	“의기양양하여”
NJB	“확신있게”
JPSOA, REV, NET	“도전적으로”
LXX	“멋대로”
페쉬타	“승리를 거두어”

이 형용사(BDB 926, KB 1202, 칼능동 분사)는 기본적으로 “높게 되다”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높이 들린 손”을 뜻한다. 이 단어는 지리적 위치, 소리, 태도를 가리킬 수 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를 나타낸다(참조, 민 33:3). 같은 형태로 이 단어가 민 15:30 에 나오는데, “도전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로 번역되었다.

14:9 “그들의 뒤를 따라” 이 동사(BDB 922, KB 1191, 칼 미완료형과 와우)는 사냥과 관련을 가진 용어 혹은 군대가 맹렬히 추격함을 나타내는 군사적 용어이다(참조, 창 31:25).

개역개정 14:10-12

10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14:10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하여 공격적인 말을 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였다(참조, 출 14:11-12). 이것은 출 13:17 에서 야웨께서 미리 예고하셨던 바와 똑같은 일이다.

**14:11-12** 이것은 이집트에서 나온 “중대한 잡족”의 여러 가지 불평 가운데 처음 내용이다(대부분은 출 15-17 장과 민 14-17 장에 나옴). 그들은 아직 언약백성이 아니었고 그저 어중이떠중이들의 무리였을 뿐이었다!

1. 신실하지 않은 어떤 자, 참조, 출 15:25; 16:2; 17:2-3,7; 민 20:3,13; 겔 16 장; 호 2:16
2. 어떤 신실한 자, 참조, 렘 2:2; 호 2:14-15,20

#### 개역개정 14:13-14

<sup>13</sup>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13** 이 절에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한 여러 명령이 나온다.

1. 두려워하지 말고 - BDB 431, KB 43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2. 가만히 서서 - BDB 426, KB 427, *히트파일* 명령
3.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 BDB 906, KB 1157, *칼* 명령; “보다”라는 동사가 이 절에서 세 번 나온다.
  - ㄱ. 야웨의 구원을 보라
  - ㄴ-ㄷ.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 “구원” 이 구약 용어(BDB 447)는 “육체적 구출”을 뜻한다. 이것은 “넓게 되다”라는 어근에서 왔다(참조, 약 5:15). 특별주제: 구원(구약)을 보라.

이사야서에서는 여러 번 여호와를 “구주”로 부른다(참조, 사 19:20; 43:3,11; 45:15,21; 49:26,60; 60:16; 63:8). 이것은 신약에서도 이어진다(참조, 눅 1:47; 딤펢전 1:1; 2:3; 4:10; 딤펢 1:3; 2:10-11; 3:4; 유 25 절). 이 얼마나 위대한 호칭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 특별주제: 구원(예슈아)

이 용어(BDB 447)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복지, 번영, 읍 30:15
2. 육체적 영적 면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
  - ㄱ. 창 49:18
  - ㄴ. 신 32:15
  - ㄷ. 시 3:2,8; 22:1; 35:3; 62:2; 69:29; 70:5; 78:22; 80:3; 89:26; 91:16; 106:4; 140:7
  - ㄹ. 사 12:2; 33:2; 51:6,8; 52:7,10; 56:1; 59:11; 60:18; 62:1
3. 육체적 영적인 구원의 개념은 온 2:9-10 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4. “기쁨”은 종종 야웨의 구원과 관계된다, 삼상 2:1; 사 25:9; 26:1; 시 9:14; 13:5; 35:9

▣ “영원히” 특별주제: 영원히(올람)를 보라.

### 특별주제: 올람(영원히)

히브리 용어인 올람(BDB 761, KB 798)의 어원은 분명치 않다(NIDOTTE 제 3 권 345 쪽). 이것은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보통 문맥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 다음은 오직 몇 가지 예이다.

1. 고대의 것
  - ㄱ. 사람, 창 6:4; 삼상 27:8; 렘 5:15; 28:8
  - ㄴ. 장소, 사 58:12; 61:4
  - ㄷ. 하나님, 시 93:2; 잠 8:23; 사 63:16
  - ㄹ. 물건, 창 49:26; 읍 22:15; 시 24:7,9; 사 46:9
  - ㅁ. 시간, 신 32:7; 사 51:9; 63:9,11
2. 미래의 시간
  - ㄱ. 사람의 생명, 출 21:6; 신 15:17; 삼상 1:22; 27:12
  - ㄴ. 왕에 대한 과장, 왕상 1:31; 시 61:7; 느 2:3
  - ㄷ. 계속 존재하는 것

- (4) 시 93:2
- (5) 사 40:28
- (6) 렘 10:10
- (7) 단 12:7

ㄱ. 언약

- (1) 창 9:12,16; 17:7,13,19
- (2) 출 31:16
- (3) 레 24:8
- (4) 민 18:19
- (5) 삼하 23:5
- (6) 시 105:10
- (7) 사 24:5; 55:3; 61:8
- (8) 렘 32:40; 50:5

ㄴ. 다윗에게 하신 특별한 약속

- (1) 삼하 7:13,16,25,29; 22:51; 23:5
- (2) 왕상 2:33,45; 9:5
- (3) 대하 13:5
- (4) 시 18:50; 89:4,28,36,37
- (5) 사 9:7; 16:5; 37:35; 55:3

ㄷ. 하나님의 메시아

- (1) 시 45:2; 72:17; 89:35-36; 110:4
- (2) 사 9:6

ㄹ. 하나님의 법

- (1) 출 29:28; 30:21

(3) 사 26:4; 45:17

(4) 단 9:24

표. 시편이 말하는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할 것

(1) 감사하라, 시 30:12; 79:13

(2)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시 41:12; 61:4,7

(3)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라, 시 52:8

(4)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 52:9

(5) 찬양하라, 시 61:7; 89:1

(6)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 시 75:9

(7)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시 86:12; 145:2

(8)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시 145:1

3. 시간적으로 이전과 이후(“영원부터 영원까지”)

14:14 이것은 “거룩한 전쟁”의 핵심이다. 야웨께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은 지켜본다(참조, 출 15:3; 신 1:30; 3:22; 20:4).

**개역개정 14:15-18**

<sup>15</sup>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sup>16</sup>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sup>17</sup>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14:15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하여야 할 때가 있고 행동을 하여야 할 때가 있다!

14:15-16 야웨께서 백성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여러 명령이 나온다.

1. 명령하라, 출 14:15 – BDB 180, KB 210, *피/엘* 명령
2.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출 14:15 – BDB 652, KB 704,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3. 네 지팡이를 들라, 출 14:16 – BDB 926, KB 1202, *히/필* 명령
4.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출 14:16 – BDB 639, KB 692, *칼* 명령. 이것은 종종 재앙을 내리는 일과 관련을 가졌다(참조, 출 6:6; 7:5,19; 8:5,6,16,17; 9:22,23; 10:12,13,21,22)

5.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출 14:16 – BDB 131, KB 149, 칼 명령, 참조, 출 14:21; 느 9:11; 시 78:13; 사 63:12

6. 바다 가운데서 행하라, 출 14:16 – BDB 97, KB 112,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지팡이가 야웨의 능력을 나타내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모세에게 믿음의 행동이 요구되었다(출 14:21).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참조, 출 3:7-10)!

**14:16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주장하신다(참조, 창 1:9-10; 나 1:4).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신다(참조, 출 14:16,27,29; 15:19; 수 2:10; 느 9:11).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시 요단 강을 가르시고 마르게 하셨다(참조, 출 14:16,27,29; 15:19; 수 2:10; 느 9:11).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위하여 왕하 2:8 에서 강을 가르시고 마르게 하신다.

**14:17** 이 절은 명백하게 야웨의 주권을 나타낸다. 출 14:2 의 설명을 보라.

**14:18** 출 14:4 의 설명을 보라.

#### 개역개정 14:19-20

<sup>19</sup>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sup>20</sup>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14:19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와 기둥은 한 가지 실재를 대표한다—하나님의 임재(참조, 창 16:7-14; 22:15; 출 3:2). 특별주제: 여호와와 천사를 보라.

#### 특별주제: 주의 천사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기 자신을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이 분명하다. 삼위일체에 관한 질문은 삼위일체의 어느 위격이 이 역할을 감당하시는가에 대한 것이다. 어느 때에도 성부(야웨)와 성령은 육체를 가지신 위격이 아니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위격은 성육신 이전의 메시아였다는 제안이 가능성있게 보인다.

다음에 나오는 목록은 천사와의 만남에서 신의 현현을 구별하려고 노력할 때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실례이다.

##### 1. 천사로서의 주의 천사

ㄱ. 창 24:7,40

ㄴ. 출 23:20-23; 32:34

ㄷ. 민 22:22

ㄹ. 삿 5:23

ㅁ. 삼하 24:16

14:20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일반적으로 기둥은 밤에 빛을 내었다. 따라서 이 구는 다음 사항을 제시한다.

1. 구름의 두 가지 면(즉, 낮의 그늘, 밤의 불)
2.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구별(즉, 이스라엘에게는 빛을, 이집트 사람에게는 어두움을; 탈굽, 심마커스역)

▣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 이 구름은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항복시키려고 그들을 공격하는 일을 못하게 하였다. 야웨께서 또다시 자연적 요소를 사용하시되(즉, 바람, 출 14:21) 초자연적 강도로써 초자연적 시기에 사용하신다. 바람이 땅(즉, 바다의 바닥, 참조, 출 14:16)을 마르게 함에 있어서 “온 밤”이 걸렸다.

한 가지 내용을 추가한다면, 이 사건에 나타난 명백한 초자연적 요소는 양 편에 있는 물기둥들이다(출 14:22,29). 한 편의 것은 강한 동풍으로써 설명이 되지만(14:21), 양 편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없다!

또한 목격자에 의한 세세한 내용을 주목하라!

#### 개역개정 14:21-25

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3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14: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세 가지에 대하여 언급함을 주목하라: 하나님, 모세, 바람.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연적인 것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 “동풍” 이것은 *루아흐*(BDB 924)로서, “바람” “숨” 또는 “영을 의미할 수 있다.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영을 보라.

14:23 “그 마병들” 이들은 각 병거에 탄 두 명 혹은 세 명의 사람을 가리킨다.

14:24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 2 시부터 6 시 사이에 건넜다. 목격자의 진술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주목하라.

▣ “여호와께서 . . . 보시고” 이것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참조, 출 3:7-9).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보라.

▣ “불과 구름 기둥” 이 본문에서만 이 둘이 함께 나온다. 보통은 이들이 따로 나오지만, 때로는 둘이 모두 언급되기도 한다(즉, “구름 기둥,” “불 기둥,” 참조, 출 13:21,22; 민 14:14; 신 31:15).

▣ “어지럽게 하시며” 이 동사(BDB 243, KB 251, *칼* 미완료형과 *와우*)는 야웨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무찌르심을 말하는 본문에서 여러 번 나온다(참조, 출 15:16; 23:27; 신 7:23; 수 10:10; 사 4:15; 삼상 7:10; 삼하 22:15; 대하 15:6; 시 18:15; 144:6). 야웨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것은 야웨의 승리였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내용이다.

14:25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이 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을 출 14:2 에서 보라.

이 동사(BDB 693, KB 747, *히/필* 미완료형과 *와우*)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

NASB “벗어나다”

NKJV “벗겨졌다”

NRSV, NJB, 페쉬타 “막혔다”

TEV “걸렸다”

JPSOA “잠겼다”

LXX “축들이 묶어버렸다”

UBS 본문 프로젝트(105 쪽)는 맛소라 본문의 “벗어났다”(와이야사르)를 “묶었다”(와이에에소르)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프로젝트는 후자에 B 등급(약간 의심스러움)을 준다.

#### 개역개정 14:26-29

<sup>26</sup>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sup>27</sup>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sup>28</sup>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14:26 이것은 출 14:16 과는 정반대이다.

14:27 “엎으시니” 똑같은 히브리어근(BDB 654 II, KB 707, *פ/ל* 미완료형, 문자적으로 “뿌리쳤다”)이 야웨께서 전사이심과 관련을 가진다(참조, 사 59:17).

14:29 바로는 자신의 군대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는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

#### 개역개정 14:30-31

<sup>30</sup>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sup>31</sup>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4:30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 . . 구원하시매” 이것은 출 14:13 에 나오는 명사인 “구원”의 동사형이다(BDB 446, KB 448, *ה/פ/ל* 미완료형과 *וואו*). 특별주제: 구원(구약)을 보라.

▣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동풍이 신비롭게 불어 그들의 시신(무장을 한 채 떠오른)을 바닷가로 불어 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갑옷과 무기를 취할 수 있었다(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2.14,6 을 보라).

14:31 “능력” 이것은 문자적으로 “손”이다(참조, 신 34:12). 특별주제: 손을 보라.

▣ “경외하며” 특별주제: 경외함(구약)을 보라.

▣ “믿었더라” 이것은 “아멘”이라는 어근으로서 “확실하다”를 뜻한다. 이 용어는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음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 되었다. 이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구약의 용어이다(참조, 합 2:4; 특별주제: 구약에서의 믿다, 신뢰하다, 믿음, 신실함을 보라). 신약의 이 단어는 영어성경에서 세 가지 용어로 번역이 되었다: 믿음, 신뢰하다, 믿다(특별주제: 신약에서의 “믿다”를 보라).

**특별주제: 믿음( *피스티스*[명사], *피스티오*[동사], *피스토스*[형용사])**

가.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이다(참조, 히 11:1, 6). 이것은 예수님의 초기 설교의 주제였다(참조, 막 1:15). 새언약의 두 가지 요구조건은 회개와 믿음이다(참조, 1:15; 행 3:16, 19; 20:21).

나. 이 단어의 어원

1.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용어는 충성, 충실성, 혹은 신뢰할 수 있음을 뜻하며,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2. 이것은 히브리어(*에문*, *에무나*)로서 “확실하거나 안정적인 것”을 뜻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진리의 내용), 도덕적 삶(생활양식), 그분에 대한 우선적이고 개인적(그를 환영함)이며 의지적인 헌신(결단)을 말한다.

다. 구약에서의 용법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아들을 낳고 후손을 갖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었음이 강조되어야 한다(참조, 창 12:2; 15:2-5; 17:4-8; 18:14).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약속에 응답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13 년이나 걸렸던 약속에 대해 그는 아직 의심과 어려움을 가졌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인간의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위해 기꺼이 일하신다(참조, 마 17:20).

라. 신약에서의 용법

“믿다”라는 용어는 헬라어(*피스티오*)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믿다,” “믿음,” 혹은 “신뢰하다”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명사형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동사형은 자주 사용된다. 요 2:23-25 에서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서 진실되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믿다”라는 용어가 피상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예들은 요 8:31-59 과 행 8:13, 18-24 에 나온다. 성경적인 믿음은 초기 단계에 나타내는 응답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제자도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참조, 마 13:20-22, 31-32).

마. 전치사와 함께 사용된 용법

1. *에이스*는 “안으로”를 뜻한다. 이것은 믿는 자가 그들의 신뢰/믿음을 예수님 안에

3. *ε/ϐ*는 “안” 또는 위를 뜻한다, 마 27:42; 행 9:42; 11:17; 16:31; 22:19; 롬 4:5, 24; 9:33; 10:11; 딤펢전 1:16; 뵤전 2:6
4. 전치사 없이 쓰인 여격, 갈 3:6; 행 18:8; 27:25; 요일 3:23; 5:10
5. *호ε*는 “믿다”를 뜻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을 밝힌다
  - ㄱ.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요 6:69)
  - 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요 8:24)
  - ㄷ.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그 안에 계신다(요 10:38)
  - ㄹ. 예수님은 메시아다(요 11:27; 20:31)
  - 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요 11:27; 20:31)
  - ㅂ.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요 11:42; 17:8, 21)
  - ㅅ.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다(요 14:10-11)
  - ㅇ.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왔다(요 16:27, 30)

▣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특별주제: 나의 종을 보라.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출 14:2 에 나오는 “바다”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2. 왜 출 14:4 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가?
3. 출 14:10 은 13:17 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4. 구약의 “구원”을 정의하라.
5. 구약의 “영원히”를 정의하라.
6. 누가 “하나님의 천사인가”(출 14:19)?  
그가 어떻게 구름과 관련이 있는가?
7. 왜 출 14:22 에서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가?  
ㄱ. 문학적 표현  
ㄴ. 기적
8. 기둥의 역할(들)은 무엇인가?
9. 이스라엘이 어디서 전쟁무기를 획득하였는가?

## 출애굽기 15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에루살렘성경 (NJB)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	모세의 노래	찬송의 노래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
15:1-18 (1-18)	15:1a	15:1a	15:1a	15:1-3 (1-3)
	15:1b-5 (1b-5)	15:1b-10 (1b-10)	15:1b-3 (1b-3)	
			15:4-5 (4-5)	15:4-8 (4-8)
	15:6-10 (6-10)		15:6-10 (6-10)	
				15:9-13 (9-13)
	15:11-13 (11-13)	15:11-12 (11-12)	15:11-18 (11-18)	
		15:13-18 (13-18)		
	15:14-17 (14-17)			15:14-18 (14-18)
	15:18 (18)		미리암의 노래	
15:19	15:19	15:19	15:19	15:19

	미리암의 노래			
15:20-21 (21)	15:20-21 (21b)	15:20-21 (21)	15:20-21 (21)	15:20-21 (21)
주께서 물을 공급하시다	쏟은 물이 단 물이 됨	광야에서의 위기 (15:22-16:36)	쏟은 물	마라
15:22-25a	15:22-26	15:22-25a	15:22-25a	15:22-25 (25)
15:25b-26		15:25b-26	15:25b-26	15:26
15:27	15:27	15:27	15:27	15:27

###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출애굽기 14 장과 15 장은 사사기 4 장과 5 장과 더불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역사적 사건을 산문과 운문으로 기록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오늘날의 서구인들은 고대 근동의 역사적 기록(특별주제: 역사로서의 구약을 보라; 또한 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문화와 비교하여 본 구약의 역사 기록을 보라)과 시(특별주제: 히브리 시를 보라)를 이해하지 못한다.

고대 근동의 문학적 범주가 오늘날의 문학적 범주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나에게 도움을 준 책은, D. 브렌트 샌디의 *보습과 전정고리: 성경의 예언과 묵시문학에서의 표현을 재고함*이다.

## 특별주제: 히브리 시 서론

### I. 서론

- 가. 이 문학 장르는 구약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 장르는 히브리 정경 가운데 특히 “예언서”(학개서와 말라기서를 제외한 모든 예언서에 시가 들어 있다)와 “성문서”에서 자주 나온다.
- 나. 히브리 시는 영어의 시와 매우 다르다. 영어의 시는 주로 소리에 기초한 시인 헬라어와 라틴어의 시에서 발전되었다. 히브리 시는 가나안어로 된 시와 많은 유사점을 가진다. 근동의 시에는 강세가 있는 행이나 리듬이 없다(하지만 운율에 강음이 있다).
- 다. 이스라엘 북쪽의 우가릿(라스 샴라)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굴은 학자들로 하여금 구약의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시들은 주전 15 세기에 속하며 성경에 나오는 시와 매우 깊은 문학적 관계를 가진다.

다. 히브리 시는 구두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기록을 통해 전해졌다. 히브리 시는 매우 특별한 구조를 갖는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균형을 이룬 행(평행법)
2. 단어유희
3. 소리유희

### III. 구조 (R. K. 해리슨 *구약개론*, 965-975 쪽)



- 마. 동양의 시에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소리 유형
1. 알파벳에 관련된 유희(알파벳 시, 참조, 시 9, 34,37, 119 편; 잠 31:10 이하; 애 1-4 장)
  2. 자음과 관련된 유희(두음법, 참조, 시 6:8; 27:7; 122:6; 사 1:18-26)
  3. 모음과 관련된 유희(모음운, 참조, 창 49:17; 출 14:14; 겔 27:27)
  4. 비슷한 소리를 나타내지만 다른 의미를 갖는 단어의 사용과 관련된 유희(동음이의어)
  5. 발음을 하였을 때 나는 소리가 그 이름이 되는 단어와 관련된 유희(의성어)
  6. 특별한 시작과 끝(포괄법)

바. 구약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있다. 어떤 종류는 주제와 관련이 있고 어떤 종류는 형태와 관련이 있다.

1. 헌신의 노래 – 민 21:17-18
2. 일하며 부르는 노래 – (삿 9:27 에서 암시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나타나지는 않음); 사 16:10; 렘 25:30; 48:33
3. 민요 – 민 21:27-30; 사 23:16
4. 술을 마심에 대한 노래 – 부정적 의미, 시 5:11-13; 암 6:4-7; 부정적 의미, 사 22:13
5. 사랑의 노래 – 애가서, 결혼식 수수께끼 – 삿 14:10-18, 결혼 노래 – 시 45 편
6. 애가/만가 – (삼하 1:17 과 대하 35:25 에 암시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나타나지는 않음) 삼하 3:33; 시 27,28 편; 렘 9:17-22; 예레미야 애가; 겔 19:1-14; 26:17-18; 나 3:15-19
7. 전쟁의 노래 – 창 4:23-24; 출 15:1-18,20; 민 10:35-36; 21:14-15; 수 10:13; 삿 5:1-31; 11:34; 삼상 18:6; 삼하 1:18; 사 47:1-15; 37:21
8. 지도자의 특별한 축도 혹은 축복 – 창 49 장; 민 6:24-26; 신 32 장; 삼하 23:1-7
9. 마법의 본문 – 발람, 민 24:3-9
10. 거룩한 시 – 시편
11. 알파벳 시 – 시 9, 34, 37, 119 편; 잠 31:10 이하; 애 1-4 장

라. 시로 어떻게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 사사기 4 장과 5 장은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된다. 사사기 4 장은 산문이고 사사기 5 장은 같은 사건을 시로 나타낸 것이다(또한 출애굽기 14 장과 15 장을 비교하라).

나. 출애굽기 15 장에는 두 노래가 나온다(참조, NIDOTTE 제 4 권 1238-1241 쪽).

1. 모세의 노래, 출 15:1-18

ㄱ. 출 15:1-5 은 야웨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다

ㄴ. 출 15:6-17 은 야웨 자신에 대한 내용이다(즉, 출 15:18)

2. 미리암의 노래, 출 15:19-21(출 15:1b-5의 내용을 반복한다; 아마 모세의 노래를 미리암이 불렀을 것이다)

다. 출애굽기 15:22-27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호렙 산으로 여행한 것을 제시한다. 그 여정은 확실하지 않다(특별주제: 출애굽의 경로를 보라). 왜냐하면 시내/호렙 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특별주제: 시내산의 위치를 보라).

라.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는지를 주목하여 보라.

1.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출 15:1,21
  2.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를 높이리로다, 출 15:2
  3.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출 15:6
  4. 주의 큰 위엄으로, 출 15:7
  5.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출 15:11
  6. 놀람과 두려움이 주의 원수들에게 임합니다, 출 15:16
  7. 주께서 영원무궁 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출 15:18
- 야웨께서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시다!

마. 모세가 부른 승리의 노래의 문학적 성격은 고대 근동의 다른 승리의 노래와 비슷하다.

1. 툫모세 III 세
2. 아멘오피스 III 세
3. 라암세스 II 세
4. 메르넵타

그러나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야웨를 높이는 면에서 이 본문은 이러한 노래와는 다르다.  
(K. A. 키친, *고대 동양세계와 구약*, 133 쪽 89 항을 보라).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5:1-18

<sup>1</sup>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sup>2</sup>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sup>3</sup>이 노래는 유대인들



15:1 “이 노래로 . . . 노래하니”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노래를 기록하였고 불렀다. 노래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문화를 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 “여호와께” 이 분은 야웨이시다(BDB 217;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이 성호의 완전한 철자(즉, *야웨*)가 이곳과 이 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데, 출 15:2 에서는 약어의 형태로 나온다(*야*). 이 축약된 성호는 출 17:16 및 시편에서 자주 나온다. “할렐루야”에는 약어로 된 성호가 다른 단어와 결합된 것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이것은 같은 어근(BDB 144, KB 168)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완료형 동사의 용법이다. 강조를 나타내는 이 같은 구문이 출 15:21 에서 사용되었다(즉, 미리암의 노래).

이 히브리 어근의 기본적 의미는 “일어나다”인데, 나쁘거나(즉, 자랑한다는 의미) 좋은(야웨의 승리, 이 본문) 의미를 나타낸다.

▣ “말과 그 탄 자를” 이것은 600 대의 친위대 병거를 가리킨다(참조, 출 14:7)—이집트의 최고의 군대!

▣ “던지셨음으로다” 이것은 야웨께서 이집트의 가장 뛰어난 병거부대에 행하신 일을 묘사하는 여러 동사 가운데 처음 것이다.

1. “던지셨다,” 출 15:1,21 - BDB 941 I, KB 1239, *칼* 완료형
2. “던지시니,” 출 15:4 - BDB 434, KB 436, *칼* 완료형
3. “가라앉았도다,”(문자적, “잠겼다”), 출 15:4 - BDB 1, KB 1, *푸알* 완료형
4. “부수시니이다,” 출 15:6 - BDB 950, KB 1271, *칼* 미완료형
5. “엎으시니이다,” 출 15:7 - BDB 248, KB 256, *칼* 미완료형
6. “덮으니,” 출 15:10 - BDB 491, KB 487, *피알* 완료형(참조, 출 14:28)
7. “잠겼나이다,” 출 15:10 - BDB 853 II, KB 1027, *칼* 완료형, 이곳에서만 나옴
8. “삼켰나이다,” 출 15:12 - BDB 118, KB 134, *칼* 미완료형(즉, 땅)

9. “바다에 들어가매,” 출 15:19 - BDB 97, KB 112, 칼 완료형

출애굽기 14 장의 산문적 기록에서는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였다.

1.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출 14:26 - BDB 996, KB 1427, 칼 미완료형과 와우
2. “앞으시니,”(문자적, “뿌리치셨으니”), 출 14:27 - BDB 654 II, KB 707, ㄷ/엘 미완료형과 와우
3. “덮으니,” 출 14:28 - BDB 491, KB 487, ㄷ/엘 미완료형과 와우(참조, 출 15:10)

15:2

NASB, NKJV, NJB “노래”

NRSV, JPSOA “힘”

TEV, REB, LXX “강력한 보호자”

페쉬타 “영광스러운”

이것은 출 15:1 에 있는 “노래”(BDB 1010)보다 더 어려운 단어(BDB 274 I)이다. 이 구는 시 118:14 과 사 12:2 에서 반복된다. 이것은 예식서가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용어의 의미(출 15:2 에 나오는 이 단어)는 확실하지 않다. 맛소라 본문에서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맥에 어울린다(벌게이트). 하지만 “힘”을 나타내는 비슷한 어근이 더 적합할 것이다(즉, 한 아랍어 어근에서, 참조, 70 인역).

▣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 14:13 의 설명을 보라.

▣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처음에 나오는 성호인 “하나님”은 엘(BDB 42)이고 나중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BDB 43)이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즉, 야웨 엘로힘)라는 긴 성호가 출 15:26 에 나온다.

출 15:2 의 점진적인 평행법도 주목하라.

1. 엘은 모세의 하나님이시다
2. 엘로힘은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즉, 족장들, 참조, 출 3:13)

이 하나님(즉, 유일하신 하나님, 참조, 출 15:11;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께서는 다음 내용에 합당하시다

1. 찬송할 것이다(문자적, “아름답게 하다,” BDB 627 I, KB 687, 히필 미완료형; 동사로는 이곳에서만 나오는데 렘 6:2 에서는 형용사가 나온다)
2. 높이리로다(BDB 926, 이것은 “높으심”[BDB 144, 출 15:1,21 에서]과 평행을 이룬다)

▣ “찬송할 것이요” 이 동사(BDB 627 I, KB 678, *h/pil* 미완료형)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이 단어의 어원은 “아름답게 하다”이다. d 행에 나오는 “높이리로다”(BDB 926, KB 1202, 참조, 시 99:5,9; 사 25:1)와의 평행법을 고려할 때, 이것을 “찬송으로써 하나님을 아름답게 할 것이요”로 이해해야 한다.

15:3 “여호와와 용사시니” 이것은 “만군의 주”라는 구가 의미하는 내용이다(참조, 신 1:30; 수 5:13-15; 대상 20:29). 이것은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용사라는 이미지를 반영한다(참조, 신 1:30; 시 24:8; 76:3-6; 사 42:13; 59:17; NIDOTTE 제 4 권 545-549 쪽).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용어이다. 여기서는, 야웨께서 행하셨고 이스라엘은 지켜보았다(참조, 출 14:14).

▣ “여호와와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것은 “야웨”이다. 이것은 “~이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온 성호이다. 이 성호는 출 3:14-16 에서 모세에게 계시되었다. 출 6:3 에 의하면, 이 성호는 새로운 이름처럼 보인다. 이것은 일찌기 나타났다(즉, 창 4:26). 따라서 이 성호의 참된 의미는 그 때까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라함을 보라.

15:4 “최고의 지휘관들이” 이것은 출 14:7 을 가리킨다. 600 승의 병거와 그것을 탄 자들은 이집트 군대의 정예부대였다. 바로의 친위대는 삼각주에 있는 왕궁에 주둔하였다.

▣ “홍해” 특별주제: 홍해를 보라.

15:5 “깊은 물” 물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여러 용어와 구가 나온다. 야웨께서 물(특별주제: 물들을 보라)을 주관하고 계심은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1. 창조주이신 야웨(참조, 시 104:6-9)
2. 물의 혼돈을 이긴 분이신 야웨(참조, 시 74:12-17)

여러 단어가 사용됨:

1. “물들”(문자적, 홍수들), 출 15:5 – BDB 1062, 참조 출 15:8; 창 1:2
2. “깊음,” 출 15:5 – BDB 841
3. “물”(문자적, 홍수들), 출 15:8 – BDB 633, KB 683, *kal* 능동 분사
4. “큰 물,” 출 15:8 – BDB 1062, 참조, 출 15:5
5. “바다 가운데,” 출 15:8 – BDB 523 과 BDB 410 의 조합
6. “홍용한 물,” 출 15:11, 형용사, BDB 523, 명사는 “바다”를 가리킴, BDB 410

출 15:22-27 에서, “물들”을 뜻하는 단어는 BDB 565 의 단어이다(출 15:22,23,25[2 회]에서).

▣ “돌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나중에 그들이 떠 올라 해안으로 밀려 왔다(참조, 출 14:30). 바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군장을 갖추었다.

**15:6 “오른손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행하신 일을 제시하기 위한 몇 가지 신인동형적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인간의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말한다.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보라. 또한 특별주제: 손을 보라.

**15:7 “큰 위엄”** 이 명사(BDB 144)를 여러 번 야웨께 대하여 사용하였다(참조, 욥 37:4; 40:10; 사 2:10,19,21; 24:14; 미 5:4).

▣ **“진노를 발하시니”** 이것은 또 하나의 신인동형적 구이다(참조, 시 78:49,50). 특별주제: 불을 보라.

▣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며,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사 5:24; 33:11; 47:14; 욥 2:5; 말 4:1).

**15:8 “주의 콧김에”** 이것은 동풍을 묘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신인동형적 표현이다(참조, 출 14:21).

▣ **“물이 쌓이되”** 이것은 출 14:22,29의 내용을 가리킨다(참조, 시 78:13). “쌓이다”(BDB 790, KB 886, *ㄴ/ㅍ* 완료형)라는 동사는 구약의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와 평행을 이루는 “언덕 같이 일어서고”는 이 희귀한 단어가 가진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NIDOTTE 제 3 권 539 쪽).

**15:9** 이것은 교만한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들은 아직 잘 배우지 못하였다!

**15:10 “바람을 일으키시매”** 이 동사(BDB 676, KB 730)는 *칼* 동사형으로는 두 번만 사용되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신인동형적으로 제시한다.

1. 바로의 군대, 이곳
2. 우상숭배자들의 농작물, 시 40:24

“바람,” *쿠아흐*(BDB 924)과 관련을 가진 언어유희가 나온다. 이 단어는 “바람” “숨” 또는 “영을 의미할 수 있다(특별주제: 성경에서의 영을 보라).

▣ **“주의 바람”** 이것은 출 14:21 과 15:8 에 나오는 “동풍”을 암시한다(즉, “주의 콧김”). 여기서 이것은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다시 내어 밀었을 때 쌓였던 물이 덮은 것을 가리킨다(참조, 출 14:26-28).

**15:1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이것은 야웨께서 유일하심을 신학적으로 강조한다(즉, 이 노래 전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야웨께 대한 것이다).

가리킨다. 야웨께서 성경의 주인공이시다). “신들 중에”라는 구는 “천상의 회의”를 가리킨다(참조, 창 1:26; 3:22; 11:7; 왕상 22:19; 느 9:6; 욥 1:6; 2:1; 16:19; 19:25-27; 시 82:1,6; 89:5-8; 97:7; 138:1).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 “거룩함으로” 특별주제: 거룩함을 보라.

▣

NASB, NRSV,

JPSOA, LXX “어마어마한”

NKJV “두려운”

NJB “무시무시한”

REB “경외할 만한”

페쉬타 “존경받는”

이것은 *니팔* 분사(BDB 431, KB 432)이다. 이 단어는 *니팔*형에서는 “두려워지다” 또는 “존경받다”를 기본적으로 의미한다. 이것은 종종 야웨께 대하여 직접 사용되었다(참조, 출 15:11; 신 7:21; 10:17; 대상 16:25; 느 1:5; 4:18; 사 64:3; 단 9:4 및 시편에서 여러 번). 이것은 야웨의 이름에 대하여 사용되었으며(참조, 신 28:58; 시 99:3; 111:9; 말 1:14), 야웨의 직접적인 임재하심에 대하여도 사용되었다(참조, 사 13:6; 욥 37:22; 사 64:3).

야웨의 강력한 구원행위(즉, 출 15:1-12,14-16)는 반드시 그의 자비하시며 신실하신 성품(참조, 출 15:12-13,17-18; 또한 출 34:6; 느 9:17 을 주목하라)과 균형을 취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야웨께 대한 것이다!

▣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특별주제: 놀라운 일들을 보라.

15:12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것은 *스울*을 의인화한 것이다(참조, 민 16:32; 26:10; 신 11:6; 특별주제: *스울*을 보라). 여기서는 그들을 삼킨 바다를 뜻한다. 구약에 나오는 이 은유적 표현에 대한 좋은 설명을 D. 브렌트 샌디의 *보습과 전정가위*(58-74 쪽)에서 보라.

15:13 “**인자하심**” 이것은 *헤세드*(BDB 338)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특별한 언약적 용어이다. 특별주제: 인자한 사랑(*헤세드*)을 보라.

### 특별주제: 인자한 사랑(*헤세드*)

이 용어는 넓은 범주의 의미를 갖는다. BDB 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338-339 쪽).

가. 인간과 관련된 용법

1. 동료 인간에 대한 친절(예, 삼상 20:14; 대하 24:22)
2.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에 대한 친절(예, 미 6:8)

▣ “구속하신” 이 동사(BDB 145, KB 169, *칼* 완료형)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여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놓아주시심으로써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참조, 출 15:16).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를 보라.

▣ “인도하시되 . . .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두 동사(BDB 634, KB 685 와 BDB 624, KB 675, 참조, 시 23:2)는 야웨께서 자기 백성을 다음의 장소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나타내신 직접적인 임재를 가리킨다

1. 약속의 땅인 가나안
2. 야웨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장소(즉, 중앙 성소가 세워질/건축될 장소)

야웨께서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1. 그의 천사(참조, 출 14:19; 23:20,23; 32:34; 33:2)
2. 그의 구름/기둥(참조, 느 9:12)
3. 그의 직접적인 임재(참조, 출 13:21)

▣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 문맥에서 이것은 정복(출 15:14-17) 및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 (특별주제: 모리아 산을 보라)에 세워질 성전을 가리킨다(참조, 15:17; 시 68:16; 76:2; 132:13-14).

이것이 북쪽에 있는 산을 가리킬 가능성도 있다(즉, 시 48:1-3; 사 14:13). 북쪽의 산은 가나안인들의 신화에서 차폰 산과 관련이 있다(참조, 출 14:1).

▣ “거룩한” 특별주제: 거룩한을 보라.

**15:14-16** 이 세 절은 야웨의 큰 구원행위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들(특별주제: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거한 자들을 보라)과 요단 강 저편에 살던 족속들(즉, 출 23:27; 신 2:25; 수 2:9)에게 야기된 두려움(BDB 33)과 놀라움(BDB 808)을 가리킨다.

야웨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였음을 주목하라.

1. 그들이 떨었다, 출 15:14a – BDB 919, KB 1182, *칼* 미완료형, 참조, 신 2:25
2. 두려움에 잡혔다, 출 15:14b – BDB 28, KB 31, *칼* 완료형
3. 놀랐다, 출 15:15a – BDB 96, KB 111, *니/팔* 분사
4. 떨림에 잡혔다, 출 15:15b – 2 항과 같은 동사이지만 미완료형임
5. 다 낙담하였다, 출 15:15c – BDB 556, KB 555, *니/팔* 완료형
6.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출 15:16a – BDB 656, KB 709, *칼* 미완료형

야웨께서 행하신 구원행위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일으킨 두려움에 대한 이 얼마나 위대한 시적 이야기인가!

수 2:9,11,24 에 나오는 라합의 언급을 주목하라.

**15:14b** 이것은 출산에서 가져온 회화적 표현이다.

▣ “블레셋 주민이” 블레셋은 그들이 라암세스 III 세 때에 침략을 시도하기 이전에는 가나안에 거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곳과 출 13:17 에서 이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1. 시대적 착오
2. 아마 어떤 에게해 사람들이 가나안 남부에 좀 더 이른 시기에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장의 기록 시기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긴다. 어떤 부분은 상당히 오래 되었다.

1. 미리암의 노래, 출 15:21
2. 어떤 시행은 예식의 내용이 되었다, 출 15:2,11
3. 우가릿의 기록과 여러 평행본문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은
  - ㄱ. 정복
  - ㄴ. 시온 산에 성전 또는 성막을 건설함

매우 후기에 속한다. 편집과정과의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우가릿 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출 15:17a 와 비슷한 구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이 시의 연대가 이른 시기에 속함을 확증할 것이다.

**15:17b** 이 시행은 신명기에서 자주 반복된다(참조, 신 12:14,18,26; 14:25; 16:7,15-16; 17:8,10; 18:6; 31:11).

**15:17c “여호와여”** NASB 의 1970 년 판에서는 이것을 “야웨”로 인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주”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인 *야훼*로 볼 수 있었다(NASB 1995 년판). 맛소라 본문에서는 야웨로 되어 있다.

**15:18 “여호와께서 . . . 다스리시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가리킨다(참조, 민 23:21; 신 33:5; 삿 8:23; 왕상 22:19; 삼상 8:1-22; 10:4-22; 12:11-19; 시 10:16; 29:10; 사 6:5). 이 문장은 출 15:16c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식에서 사용되었다.

▣ **“영원무궁 하도록”** 이것은 영원성을 가리키는 관용어이다(즉, BDB 761 과 BDB 723 I, 참조, 시 10:16). “영원히”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영원히(*올림*)를 보라.

이 개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구를 사용하였음을 주목하라.

1. 시 10:16 –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다
2. 시 29:10 –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셨다
3. 시 90:2 – 주께서는 영원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다
4. 시 93:2 –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5. 시 102:24 – 주의 년대는 대대에 무궁합니다(참조, 12 절; 욥 36:26)
6. 시 102:27 – 주의 년대는 무궁하리이다(참조, 약 1:17)
7. 렘 10:10 – 여호와와 사시는 하나님이지요 영원한 왕이시다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라(신약).

####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라(신약)

가. “왕” – 이것은 딤후 6:15-16 에 나오는 송영과 비슷한데, 신 10:17 에서 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후기의 회당(“우주의 왕,” 참조, 계 15:3) 및 흠어진 유대인의 표현을 반영한다.

바울이 딤후 3:16; 6:15-16; 딤후 2:11-13 에서 하였듯이 초대교회의 신경이나 찬송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영원하신” – 이것은 강력한 네 가지 형용사 가운데 처음 것이며, 딤후 1:16 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은 단어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세대들의”(아이오니온)로서, 영원함의 은유적 표현이거나 유대인이 가진 두 시대라는 개념을 가리킨다:

1. 현재의 악한 세대로서 독립과 반역으로 특징지어짐(천사와 인간)

라. “볼 수 없는” – 이것은 영적 영역의 개념(참조, 골 1:15)이나 야웨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심을 나타낸다(즉, 형체가 없으심, 참조, 출 33:20; 신 4:15; 딤편 6:16).

하나님께서서는 영원한 영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마. “유일하신 하나님” – 이것은 유대인의 유일신 신앙을 가리킨다(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세계관을 제시한다. 성경은 오감을 넘어서는 믿음의 관점을 인간에게 제공한다.

1.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신다(참조, 창 1:1; 출 8:10; 9:14; 신 4:35-39; 삼상 2:2; 삼후 7:22; 22:32; 왕상 8:23; 시 86:8,10; 사 43:11; 44:6,8; 45:6-7,14,18,21-22; 46:5,9; 렘 2:11; 5:7; 10:6; 16:20).

2. 그는 인격적이며,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시다(참조, 창 1-2 장; 3:15; 시 103-104 편).

3. 그는 메시아를 통한 소망과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참조, 사 53 장).

4.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반역을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복음).

5. 누구든지 메시아를 믿으면 영생을 누리다(복음).

전수성경은 대문자체 헬라어 사본인  $\kappa^c, D^c, K, L, P$  를 따라서 “지혜로우신”을 삽입하고 있다(NKJV,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러한 삽입어가 헬라어 사본인  $\kappa^*, A, D^*, F, G, H^*$  에는 없다. 이것은 서기관이 롬 16:27 에서 취하여 넣은 내용일 것이다.

UBS<sup>4</sup> 에서는 짧은 본문에 “A”등급(확실함)을 준다.

바. “존귀와 영광이” –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카보드*라는 용어를 뜻한다(참조, 딤편 1:11). 계시록에서 이것이 다른 찬송과 함께 여러 번 사용되었다(참조, 계 4:9,11; 5:12,13; 7:12).

구약에서 “영광”(카보드, 특별주제: 영광[구약]을 보라)을 뜻하는 용어로서 아주 많이

**15:19** 이 절이 요약적 내용인데, 사건들의 역사적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 **“마른 땅으로”** 창세기에서는하나님께서 “물”을 직접 만드신 것(“그가 말씀하시니...”)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마른 땅”이 있게 하신 일은 주요한 창조 사건이다(참조, 창 1:9-10; 시 104:7-9). 야웨께서 물의 한계를 정하신다(특별주제: 물들을 보라).

야웨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특별주제: 홍해를 보라)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뒤쫓아 오는 이집트 군대를 멸하기 위함이었다(참조, 출 14:16,21-22,29; 15:19; 느 9:11; 시 66:6). 야웨께서는 요단 강도 가르셨다.

1. 이스라엘로 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게 하시려고(참조, 수 3:7-13,16-17; 4:3,7,18,22-24)
2. 엘리야와 엘리사를 위하여(참조, 왕하 2:8,14)

물과 관련을 가진 또 다른 내용이 출 15:24 에 나온다. 만일 야웨께서 태고의 물과 지금의 물을 다스리셨다면, 왜 그가 마실 물을 주실 수 없겠는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야웨를 의심하였다 (참조, 출 17 장; 민 20 장).

**개역개정 15:20-21**

20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15:20 “선지자 미리암” 이 사람은 모세의 누나이다(참조, 출 2 장). 구약에서 여러 여인이 영적 지도자였다(참조, 민 12:2; 미 6:4). 특별주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라.

▣ “춤추니” 군사적 승리를 인해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 춤을 추는 일은 구약에서 자주 나온다(즉, 삿 11:34; 삼상 18:6; 렘 31:4).

**개역개정 15:22-25a**

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15:22-27 이것은 여러 장에 걸쳐 계속될 광야 유랑 시기의 시작을 가리킨다.

15:22 “수르 광야” 특별주제: 출애굽의 광야를 보라.

15:23 “마라” 민수기 33 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라.

15:24 “백성이... 원망하여”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된다(참조, 출 14:10-12; 16:4; 17:3; 민 14:2; 16:11,41; 신 8:2,16).

15:25 이것은 어떤 화학적 반응이 아니라, 창 30:37-39 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적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다.

**개역개정 15:25b-26**

25b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15:25b “그들을 시험하실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백성을 시험하시는데, 이는 그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다(참조, 출 16:4; 20:20; 신 8:2,16). 특별주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구약)를 보라.

**특별주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시다**

“시험하다”(BDB 650, KB 702, *ㅍ/엘* 완료형)라는 용어는 “시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어떤 이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우선순위를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함을 나타내는 장소로 그를 데려옴을 뜻한다. 창세기 12 장에서 22 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상황(랍비들은 10 가지라고 말함)을 통해 나타나셔서 오직 하나님께 그의 믿음과 신뢰의 초점을 두도록 이끄심이 분명하다.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있는 일이며,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기 위해 가족, 집, 친구, 유산, 전통, 미래(그가 약속으로 받은 아들)까지 포기하도록 요청받았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그들이 우선순위를 갖는 영역에 대해 시험하신다(참조, 마 4:1 이하; 히 5:8; 12:5-13).

하나님께서서는 알아 보시려고(BDB 393) 시험하신다(BDB 650).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시험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참됨을 입증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로써 고백한 믿음과 충성을 입증할 기회를 주실 것이다.

1.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공동체적으로 시험하셨다
  - ㄱ. 출 15:25; 16:4; 20:20
  - ㄴ. 신 8:2,16; 13:3
  - ㄷ. 사 2:22; 3:1,4
2.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개인적으로 시험하셨다

15:26 “너희가 . . .하면” 이 언약의 조건적 요소(참조, 출 23:25-26; 신 7:12-15;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를 주목하라. 또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 관계(참조, 레 26 장; 신 27-30 장)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구속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언약이 조건적임을 주목하라. 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이것은 같은 어근(BDB 1033, KB 1570)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의 용법으로서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에 야웨의 강조점이 있다!

▣ “계명 . . .규례”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보라.

▣ “지키면” 특별주제: 지키다를 보라.

▣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이것은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들을 가리킨다. 보통은 이것을 “치심”으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서는 “질병들”로 표현한다(참조, 신 28:60).

▣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의 문맥에서. 이 문장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나타낸다. 이 호칭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가능성과 야웨께서 정복하심(이것은 육신적 병고침을 말하는 것이 아님)에 있다! 특별주제: 병고침을 보라.

**특별주제: 병고침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1. 병고침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2. 이 일이 의도한 바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왕국에 대해 전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함이었다.
3. 이 일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4.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말 3:6), 병을 고쳐주심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신다.
5.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예들이 있다.

나는 아래에 시 103:3 에 대한 나의 석의적 설명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시 103: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용서함”을 뜻하는 이 용어(BDB 699, KB 757)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말하기 위하여만 사용되었다. 시 103:11-13 은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묘사하는 세 가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야웨께서 송축받으셔야 할(즉,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이유를 제시하는 일련의 분사를 주목하라.

1.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 BDB 699, KB 757, *칼*
2. 그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신다 - BDB 950, KB 1272, *칼*
3. 그가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신다 - BDB 145, KB 169, *칼*
4. 그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 BDB 742, KB 815, *피/엘*
5. 그가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 BDB 959, KB 1302, *히/필*

이 다섯 가지 분사는 땅 위에서의 삶과 미래에 누릴 천국에서의 삶을 모두 망라한다.

▣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질병”(BDB 316)이라는 히브리 명사와 동사(BDB 317 I)가 신 29:21 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에 불순종함을 인해 받는 저주의 개념에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법 및 죄의 고침에 대하여 말하는 구약의 여러 본문(참조, 시 41:4; 사 1:6; 6:10; 53:5) 때문에, 이 절에서 분명히 병고침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에도(참조, 출 15:26; 신 32:29; 시 147:3) 이 절의

강조점이 육체적 병고침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의문스럽다. 유대인들은 죄와 질병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다(참조, 약 5:13-18). 여기서 이 내용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와 평행을 이룬다.

#### 개역개정 15:27

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출애굽기 14 장과 15 장의 차이를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2. 무엇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였는가?
3. 홍해가 갈라지게 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4. 백성들이 이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고서도 어떻게 아직도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인가?
5. 모세의 언약은 조건적인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야웨의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가?

# 출애굽기 16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주께서 만나를 공급하시다	하늘로부터의 떡	광야에서의 위기 (15:22-16:36)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16:1-3	16:1-3	16:1-3	16:1-3	16:1-3
16:4-7	16:4-8	16:4-8	16:4-5	16:4-5
주께서 고기를 공급하시다			16:6-8	16:6-8
16:8-12				
	16:9-12	16:9-12	16:9-12	16:9-12
16:13-21	16:13-21	16:13-21	16:13-15a	16:13-16
			16:15b-16	
			16:17-21	16:17-18
안식일을 지킴				16:19-21
16:22-26	16:22-31	16:22-26	16:22-26	16:22-30
16:27-30		16:27-30	16:27-30	
16:31-36		16:31-36	16:31-36	16:31
	16:32-36			16:32-34
				16:35-36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출애굽기 16 장은 출애굽의 후기에 속하는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출 16:33-34 은 명백히 성막에 관한 본문이다. 안식일에 대한 내용(참조, 출 16:23)도 분명하다. 이 두 가지는 후기에 속하는 계시이다.
- 나. 히브리인의 역사적 이야기체에 대하여 오늘날 인과관계에 의해 시대별로 제시하는 서구의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에 조심하여야 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특별주제를 보라.
1. 특별주제: 역사로서의 구약을 보라
  2. 특별주제: 구약의 역사적 이야기체를 보라
  3. 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문화와 비교하여 본 구약의 역사 기록을 보라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6:1-3

<sup>1</sup>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십오일이라 <sup>2</sup>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sup>3</sup>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떼으 배부키 머더 께세 어후아이 소세 조어디키며 조아오 겨오 니취기 이 과사르 으기르 이드 쉼

16: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우리는 출 15:27 을 통하여 이곳이 중요한 오아시스였음을 안다. 이곳은 아마 시나이 반도의 서편에 위치했을 것이다. 이곳의 이름은 “큰 나무”를 뜻한다. 이 장소가 출애굽한 수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할 만큼 넓지는 않았으나, 필요한 휴식처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 “신 광야에 이르니” 시나이 반도에는 여러 광야가 있다(특별주제: 출애굽의 광야를 보라). 지중해안을 향하여 수르 광야가 있고, 북쪽에는 바란 광야가 있으며, 중부의 브엘세바 바로 아래에는 신(Zin) 광야가 있으며, 남쪽에 있는 것은 신(Sin) 광야이다.

“산(Sin)은 셈족의 용어가 아니지만(BDB 695 II), 시나이(BDB 696)는 어떤 면에서 신(Sin) 광야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남쪽에 있는 이 건조한 지역의 토양 또는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의 모양에 대하여 묘사하는 용어로 여겨진다.

호렙(BDB 352)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같은 산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것은 셈족의 용어이지만 그 어원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

▣ “둘째 달 십오일이라” 우리는 출 12:6,31 을 통하여 그들이 15 일에 이집트를 떠난 것을 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정확히 두 달이 된다. 그들이 음력에 따라 갔던 것임을 기억하라. 음력은 오늘날 사용하는 양력 만큼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출 19:1 을 고려할 때, 날짜가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했음을 알게 된다. 그 본문에서 모세는 3 개월 후에 그들이 시내 산으로 왔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목격자가 시기별로 세세하게 말하는 내용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에 대한 기록인 출애굽기 16 장의 시간과 민수기 11 장의 시간을 서로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 서로 다른 두 문학적/구전적 전통이 서로 결합됨
2. 광야에서의 방랑은 시간적 순서를 따른 것이 아님
3. 복음서에서 성전을 두 번 정화한 것과 똑같은 종류의 내용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만나는 맨 처음에 주시기 시작한 한 가지 사건이지만(출 16 장) 메추라기는 두 번의 특별한 경우에 주신 것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구약에 나오는 “증복”과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한 좋은 설명을 존 H. 왈튼과 D. 브렌트 샌디가 저술한 *성경의 잃어버려진 세계*에서 보라. 이 책에서는 고대 근동의 구전 문화에 대하여 설명하며 또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전통으로 전달되었는지를 설명한다.

**16:2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것은 출애굽 이후 거듭 반복하여 나타나는 주제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자인 모세와 아론은 섞여 있는 잡족이 거듭하여 일으키는 불평과 반역의 목표물과 대상이 된다(참조, 출 12:38; 민 11:4). 우리가 문맥을 통하여 알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불평임을 아신다(참조, 출 16:7-8).

맛소라 학자들은 주전에 속하는 히브리어 본문을 표준화하였는데, 본문에 대한 사항과 모음부호를 추가시켰으며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케라*)를 제안하였다. 출 16:2,7 에 나오는 “불평하다” 또는 “원망하다”(BDB 534, KB 524)는 이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중 하나이다. 맛소라 본문에서는 출 16:2 이 *히/פל*형으로 되어 있고, 16:7 에서는 *니/פל*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맛소라 학자들은 이 두 용어의 동사형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16:3 “우리가 애굽 땅에서 . . . 여호와와 손에 죽었다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같은 종류의 불평이 출 14:11 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비록 불평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독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라고 그들은 실제로 믿었다. 우리는 출 16:7-8 을 통하여 이러한 비난을 밝히 보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출애굽을 경험했으면서도 정작 그들이 얼마나 쓴 마음으로 원망하고 있는가를 출애굽기를 읽으며 보고 놀라게 된다. 그들은 나중에 역사에서 이 기간이 그들과 야웨의 “밀월기”였음을 인정한다. 생각을 조금 달리하였을 뿐인데, 우리가 아주 나쁘다고 여기던 것이 갑자기 좋게 여겨지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닌가?!

▣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노예가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그들은 아주 간혹 고기를 맛볼 뿐이었다. 이것은 “옛날에는 아주 좋았지”라는 사고방식의 전형적 모습이다. 실제로 그 일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만큼 좋지는 않다!

▣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것은 터무니 없는 소리이다. 모세(또는 실제로 야웨)가 일부러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안락하고 익숙한 삶에서 어떠한 것이 바뀔 때 사람들이 겪는 좌절감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16:4-7**

<sup>4</sup>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sup>5</sup>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sup>6</sup>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sup>7</sup>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16:4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 . .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이것은 이 장 전체의 주제이다. 즉, 하늘에서 만나를 초자연적으로 주심을 근본적으로 제시한다. 빵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식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일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셨다. 만나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참조, 출 16:14). 어떤 이는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식물의 분비물이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곤충의 분비물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나가 일 주일에 칠 일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단 육 일만 내렸고, 금요일만 빼고는 썩어버렸기 때문에, 이 만나가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 사건이었음을 보게 된다. 더욱이,

주석가들이 설명하는 자연적 방법으로는 수 많은 백성에게 충분한 양의 음식을 절대로 공급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별주제: 만나를 보라.

#### 특별주제: 만나

가. 이것은 출애굽과 광야유랑기간 동안에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공급하신 초자연적 양식이었다.

나. 만나는 “너희가 먹도록 주께서 주신 양식”으로 출 16:15b 에서 불린다(참조, 느 9:15; 요 6:31,49,51,53,58). “만나”(출 31:1)라는 이 이름은 출 16:15a 에서 백성들이 한 질문에서 왔다(즉,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 “만 후”에서 왔음, BDB 577 과 BDB 214).

다. 만나는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내렸다(참조, 출 16:13,21; 민 11:9). 태양이 떠 오르면서 이슬이 사라질 때(참조, 출 16:14), 하얀 가루가 잠시 남았다. 그 후에는 태양이 이것을 모두 태워버렸다(참조, 출 16:21).

그들이 매일 가족 별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 만큼 만나를 거둬들여야 했다(참조, 출 16:16-18). 그러나 그것은 단 하루를 위한 양이었다(참조, 출 16:20). 안식일(참조, 출 16:5, 즉,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에 일(즉, 거둬 들이는 것과 요리하는 일, 참조, 출 16:23)을 하지 않도록 금요일에는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었다. 이 특별한 날에 거두어 들인 만나는 그 다음날까지도 먹을 수 있게 남아 있었다(참조, 출 16:22,24).

라.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상하지 않은 채로 보존되어 있었다(참조,

▣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것은 핵심적 사항이다. 어떻게 이 만나를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참조, 신 8:2-3).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였으며 시험의 방법이기도 했다(특별주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보라). 이에 대한 성경의 수 많은 증거는 이렇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특별주제: 시험(*페이라조*와 *도키마조*)을 보라.

시험을 뜻하는 히브리 용어가 두 가지 있다: (1) 한 용어는 금속을 점검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2) 다른 용어는 냄새를 가지고 점검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본문에 나오는 특별한 히브리 단어는 냄새로써 시험함을 뜻한다(BDB 650, 참조, 출 15:25; 20:20; 신 8:2,16).

“준행하다”(BDB 1229, KB 241)라는 동사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삶”을 종종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다. 즉, 하나님의 길을 따름 또는 불순종함을 나타낸다(참조, 레 26:3; 신 8:6; 11:22; 왕상 2:3; 3:3; 9:4; 11:4,6,38; 대하 17:4; 21:12-13). 아래에 제시하는 신약의 몇 가지 예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사항이다.

1. 긍정적 – 엡 2:10; 4:1; 5:2; 골 1:10; 2:6
2. 부정적 – 엡 2:2; 4:17,22; 5:15

**특별주제: 헬라어에서 “시험”을 뜻하는 용어들과 그 용어들의 함축적 의미**

고의로 사람을 시험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둘 있다.

1. *도키마조, 도키미온, 도키마시아*

이것은 금속제련과 관련된 용어로서 어떤 물질(은유적으로는 사람)의 순수성을 불로써 알아보는 시험을 가리킨다. 불은 찌꺼기를 태워버림(정화)으로써 순수한 금속을 드러낸다. 이 물리적 과정은 ‘하나님, 사탄, 혹은 사람이 시험함’을 가리키는 강력한 속어가 되었다. 이 시험은 받아들여짐을 뜻하는 긍정적 관점만을 나타낸다.

신약에서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시험하는 것을 나타낸다.

- ㄱ. 소, 눅 14:19
- ㄴ. 우리 자신, 고전 11:28
- ㄷ. 우리의 믿음, 약 1:3
- ㄹ. 심지어 하나님, 히 3:9

이러한 시험은 긍정적 결과를 가정한다(참조, 롬 1:28; 14:22; 16:10; 고후 10:18; 13:3; 빌 2:27; 뱀전 1:7). 따라서 이 용어는 어떤 사람을 시험하여 다음의 내용을 입증함을 뜻한다

- ㄱ. 가치있음
- ㄴ. 좋음
- ㄷ. 진실됨
- ㄹ. 값 있음
- ㅁ. 영예로움

▣ “**율법**” 이 장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지침을 묘사하기 위한 여러 용어가 나온다.

1. “율법”(문자적, “법”), 출 16:4 - BDB 435
2. “명령한 것,” 출 16:16,32,34 - BDB 845, KB 1010, *피/일* 완료형
3. “명령들,” 출 16:28 - BDB 846
4. “교훈들,” 출 16:28 - 1 항과 같음
5. “증거”(문자적, “언약궤”), 출 16:34 - BDB 730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보라.

**16:5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여기에 초자연적 요소가 있다—금요일(즉, 제 6 일)에는 그들이 안식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거두게 된다(참조, 창 2:1-3). 따라서 그들은 그 특별한 날에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안식일”이라는 용어는 “노동을 그치다”를 뜻한다. 특별주제: 안식일(구약)을 보라.

## 특별주제: 안식일

이 용어는 “휴식” 혹은 “활동을 중단함”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다. 이날은 창조의 제 7 일과 관련이 있다. 그 날 하나님은 초기의 창조를 마치신 후 일을 멈추셨다(참조, 창 2:1-3).

하나님께서서는 피곤하여 쉬신 것이 아니라 (1)

창조를 마치셨으며 이 일이 좋았기 때문이며(참조, 창 1:31) 또한 (2) 사람들에게 예배와 쉼을 위한 정규적인 질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안식일은 창 1 장에 있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저녁에 시작된다. 따라서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 때까지가 공식적인 안식일 기간이다. 이날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모든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특히 16, 20, 31, 35 장)와 레위기(특히 23-26 장)에 있다. 바리새인들은 이 지킨 규정들의 내용을 그들의 구전적 전통이 다루어 제시하는 것 및 이 규정들을 해석하여 여러 세부 규정을 추가시킨 내용을 지켰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까다로운

**16:6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급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은 다음 날의 시작이었다(참조, 창 1:5).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다라는 창세기 1 장에 기초하여 하루를 저녁 황혼의 때에 시작하여 그 다음 날 저녁 황혼의 때까지로 보았다.

이 문장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 매일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음을 나타낸다. 마 6:11 에서도 이러한 신학적 진리를 제시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탐욕스럽게 시간을 들여 모아놓은 재산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 **“알 것이요”** 특별주제: 알다를 보라.

**16:7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와 영광을 보리니”**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 어떤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나타내는 만나의 도래를 뜻하였다고 주장한다.
2. 또 어떤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 *쉐키나*를 뜻하였다고 주장한다(참조, 출 16:10).

▣ **“영광”** 특별주제: 영광(구약)을 보라.

## 특별주제: 영광(구약)

### I. 기본적인 의미

70 인역에서 “영광”(독사)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히브리 단어가 20 개가 넘는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어는 *카보드*(BDB 458-459, KB 455-458)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거움을 뜻한다. 이것은 매매에서 사용한 상업적 용어이다(즉, 저울의 추). 무게라는 개념을 지닌 이 용어는 물건과 사람과 장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다.

### II. 야웨께 대한 용법

가. 이것은 야웨의 직접적 임재를 나타내었다. 이 용어는 야웨의 능력, 위대하심(즉, 초월성)을 야웨께서 친히 물질적인 실재에 나타내심(내재하심)을 결합시켜 제시하였다.

나. 이것은 창조주이신 야웨를 나타내었다, 참조, 시 19:1; 29:3,9; 104:31

다. 이것은 언약백성의 형성과 관련을 가진 야웨의 현현을 나타내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 참조, 삼상 15:29

1. 이집트에서의 출애굽, 참조, 민 14:22(창 15:12-21 에서 예언됨)

2. 백성을 이끌며 동행한 영광의 특별한 구름, 참조, 출 16:7,10

3. 시내 산에서 주의 율법을 주심, 참조, 출 24:16,17

4. 광야유랑기에 야웨께서 공급하시며 심판하심

가. 열두 정탐꾼의 보고와 관련된 최초의 반역, 참조, 민 14:9-10

나.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 참조, 민 14:20-21

다. 고라의 반역, 참조, 민 16:19

라. 물이 없음으로 인한 위기, 참조, 민 26:6

라. 모세가 야웨를 보기를 간청함, 참조, 출 33:18-23

마. 야웨께서 자신에 대하여 사용함(즉, 하나님의 본질)

1. 대상 29:11

2. 시 106:20; 렘 2:11; 호 4:7; 롬 1:23

3. 사 42:8; 45:7; 48:11; 58:8; 60:1-2,19(계 21:23; 22:5)

4. 속 2:5,10

바. 이것은 다음과 관련을 가진 야웨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1. 회막, 참조, 출 16:7,10; 29:43; 40:34-35; 레 9:6,23

2. 성전, 참조, 왕상 8:11; 대하 5:14; 7:1-3; 사 6:3; 학 2:3,9

3. 언약궤, 참조, 삼상 4:22; 시 63:2; 78:61

사. 이것은 야웨의 왕권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참조, 대상 29:12-13; 시 24:7-10; 45:3

나. 나라

1. 이집트
2. 에브라임, 참조, 호 9:11
3. 사마리아, 참조, 호 10:5

다. 왕

1. 아하수에로, 참조, 에 1:4
2. 이스라엘, 참조, 시 21:6
3. 안티오커스 IV, 참조, 단 11:39

라. 군대

1. 앗시리아, 참조, 사 8:7
2. 이스라엘, 참조, 사 17:4
3. 그달, 참조, 사 21:16

IV. 마지막 날에 대한 용법(종말론)

- 가. 야웨께서 자신의 새 성전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참조, 겔 43:2,4,5; 44:4
- 나. 야웨께서 세상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이다, 참조, 사 40:5; 59:19; 60:1-3; 66:18-19
- 다. 야웨께서 자신의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참조, 사 66:10; 슥 12:7

V. 창조의 목적은 야웨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개역개정 16:8-12**

<sup>8</sup>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sup>9</sup>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sup>10</sup>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sup>11</sup>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8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이것은 이 특별한 경우에 공급해 주신 메추라기에 대한 것이다.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일에 대하여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본문은 민 11:13 이다. 민수기 11 장의 본문이 상당히 부정적인 문맥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하여 두 번 언급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본문은 고기를 일회적으로 주신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양의 고기를 소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뿐 아니라 지금도 메추라기가 유럽에서 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상당히 먼 거리를 날아 오느라 매우 지쳐있기에 땅에 내린 이 새들을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다.

**16:9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출 16:7,8 을 통하여 그들의 원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가까이 나아오라”(BDB 897, KB 1132, *칼* 명령)은 구는 이곳에서 풍자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나아갈 성소가 없었다. 따라서 이것은 구름을 가리킴이 명백하다(참조, 출 16:10).

**16:10 “여호와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것은 후에 랍비들이 일컫는 *쉬키나* 영광의 구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쉬키나*라는 단어는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어근에서 왔다. 광야를 유랑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이 구름은 야웨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다(참조, 출 16:7; 40:34-38).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 강을 건넌 후에는, 구름이 아니라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였다.

야웨께서 구름 속에서 불타는 듯이 임재하심을 시사하는 이 구의 표현은 다른 곳에서보다 더욱 강렬한 것으로 여겨진다(참조, 출 24:17). 이것은 보통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다.

**16:12 “해 질 때에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두 저녁 사이”를 뜻한다(BDB 787). 성경에서의 용법을 통하여 볼 때, 이것은 해가 진 후 첫 번째 별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을 가리킨다(참조, 출 12:6; 16:12; 29:38,41; 30:8; 민 9:3,5,11; 28:4,8). 후에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낮의 열 이후에”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저녁 소제는 오후 3 시에 행해졌다.

▣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야웨”와 “*엘로힘*”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다항과 라항을 보라.

다시 말하지만, 야웨께서는 자기 백성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행하신 것이었다(참조, 출 16:6). 이 일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행하신 것과 평행을 이룬다.

#### 개역개정 16:13-21

<sup>13</sup>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sup>14</sup>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sup>15</sup>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sup>16</sup>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둔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둔지니라 하셨느니라 <sup>17</sup>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sup>18</sup>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sup>19</sup>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16:13** 만나는 매일 주셨지만 메추라기는 한 번 또는 짧은 기간(즉, 새의 이동)에만 주신 것으로 여겨진다.

**16:14**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랍비들은 이슬에 대해 유난을 떠다. 만나가 서리의 두 층 사이에 들어 있었는데, 윗 층이 녹으면서 만나가 드러난 것이라고 그들은 설명한다. 만나의 정확한 본질은 확실하지 않다(즉, “조각 같은,” BDB 341, 참조, 탈군). 그것의 색은 흰색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 모양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다. 랍비들은 이것이 깻씨(참조, 출 16:31)처럼 둥근 모양이었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이것이 출 16:14 에 나오는 “조각 같은”과 같은 용어와 마찬가지로 “가루의”를 뜻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조각 같은”은 비늘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이 마지막 설명은 대대에 걸쳐 유대인의 전통적 해석이 되었다. 특별주제: 만나를 보라.

**16:15**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만 후*”(BDB 577 과 BDB 214)라는 히브리어로서, “만나”라는 용어의 어원적 배경을 이룬다(참조, 출 16:13).

**16:16** “오멜” 이것(BDB 771 II)에 대하여 출 16:36 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무게와 길이(도량형)를 보라.

이것의 양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달랐다. 원래 이것은 한 컵 가득함을 뜻하였는데 후에는 약 4 리터의 양을 의미하였다(참조, 알란 코울, *틴델 구약 주석, 출애굽기* 132 쪽).

▣

NASB	“각각”
NKJV	“각 사람의”
NRSV, TEV, NJB, JPSOA	“너희 각자”

이 단어(BDB 166)는 문자적으로 “해골”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곳과 출 38:26 과 민 3:47 에서는 “사람”을 뜻한다.

**16:17-18** 이 두절은 또 다른 기적을 시사한다. 이것은 랍비들의 전통적 해석이 되었다: 어떤 이는 조금 거두었으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정확히 필요로 하는 만큼의 양이 되었고, 어떤 이는 많이 거두었으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정확히 필요로 하는 만큼의 양이 되었다. 한편, 바울은 고후 8:14-15 에서 이 절을 인용함으로써 기적적인 거둠의 과정에 대하여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이와 서로 나눔에 대하여 가르친다.

16:19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다(BDB 451, KB 451, *하/플* 지시형, 참조, 출 16:23). 똑같은 시간적 요소가 다른 예식과 관련을 가지고 나타난다(참조, 출 12:10; 23:18). 왜 그러한지는 확실하지 않다.

16:20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출 16:4 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시험을 또 실패하였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위가 이끄는대로 행하였다. 출 16:27,28 에서 이러한 불순종의 예를 보게 된다. 이것은 광야 유랑의 때에 거듭되는 내용이다. 이 주제는 전 구약 성경의 주제일 것이다(참조, 갈 3 장):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 및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아와 불신앙을 향해 나아간다. 이 사실은 옛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적합한 방안을 결코 제공할 수 없었음을 나타낸다(즉, 갈라디아서 3 장과 히브리서를 보라). 필요로 했던 것은 내적이며 초자연적인 변화였다— 새 언약(즉, 새 심장, 새 마음, 새 영, 참조, 레 31:31-34; 겔 36:22-36).

▣ “벌레” 이것(BDB 1069)은 파리(아마 딱정벌레)의 애벌레(즉, 구더기들)를 가리킨다.

▣ “냄새가 난지라” 이 동사(BDB 92, KB 107, *칼* 미완료형과 *와우*)는 기본적으로 “악취를 풍기다” 또는 “역겹게 되다”를 뜻한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참조, 출 7:18,21; 8:14; 또한 이곳)와 묘사적인 의미(참조, 시 78:5; 전 10:1)로 사용되었다.

16:21 “햇별이 뜨겁게 쪼면 그것이 스러졌더라” 이것은 만나를 가리킨다. 하지만 랍비들은 후에 이것이 만나를 신선하게 보존한 서리의 윗층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 개역개정 16:22-26

22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2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4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25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와

16:22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오멜”이라는 용어는 고대의 다른 모든 도량형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도량형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기가 다소 어렵다. 출 16:36 에서는 한 오멜이 십분의 일 에바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랍어에서 이것은 단순히 “한 컵 가득”을 의미한다. 후기의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4 리터 정도로 정의하였다. 우리는 이것의 양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중세의 유대인 주석가인 라쉬는 한 에바가 세 셀라에 해당하고, 한 셀라는 여섯 캡에 해당하고, 한 캡은 네 록에 해당하며, 한 록은 여섯 개의 달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 오멜은 달걀 43 과 1/5 개에 해당한다고 말하였다. 이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네?! 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무게와 길이(도량형)를 보라.

▣ “모든 지도자가” 이것(BDB 672)은 가족의 지도자들 또는 지파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장로들”이 되었다(참조, 출 34:31).

**16:23 “거룩한”** 특별주제: 거룩함을 보라.

▣ “안식일” 특별주제: 안식일(구약)을 보라.

**16:24** 이것은 안식일을 위한 만나의 보존과 관련을 가진 초자연적 요소를 나타낸다. 모든 준비를 금요일에 마쳐야만 했다(참조, 출 16:23).

**16:25-27** 안식일에는 만나가 썩지 않았다. 만나의 출현과 사라짐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었다.

**16:26 “일곱째 날은”** 안식일의 기원에 대한 고대의 자료는 없다(로랜드 드보, *고대 이스라엘*, 제 2 권 473-483 쪽을 보라). 이 날의 중요성은 창조에 대한 기록에서 칠일로 이루어진 한 주에 이 날이 위치함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집트에서는 열흘로 순환되는 체계를 사용하였다. 어떤 이는 제 칠일이 바벨론에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 바벨론에서는 매달의 제 칠일, 제 십사일, 제 이십 일일, 제 이십 팔일을 특별한 날로 여겼다. 그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들이 칠일 주기와 관련이 없는 다른 두 날을 함께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칠일로 이루어진 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독특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식일”은 “그치다”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다.

특별주제: 안식일(구약)을 보라.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는 시간적 표시였으며, 신학적으로는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께 속함을 나타낸다. 이같은 진리가 십일조, 장자, 첫 열매에서도 나타난다.

#### 개역개정 16:27-30

27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16:29** 이 절에는 제 칠일과 관련을 가진 여러 명령이 나온다.

1. 불지어다 - BDB 906, KB 1157, *칼* 명령이 “분명히 알라”라는 의미로 사용됨
2.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문자적, “앉고” 또는 “거주하고”) - BDB 442, KB 444, *칼* 명령
3.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 BDB 422, KB 425,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야웨께서 만나에 대한 특별한 지침(그것을 언제 사용하고 누가 그것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을 가지고 계셨다.

#### 개역개정 16:31-36

<sup>31</sup>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sup>32</sup>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sup>33</sup>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향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sup>34</sup>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 대로 그것을 좃겨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여고 <sup>35</sup>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16:31** “갓씨”(BDB 151 I)라는 용어는 이곳과 민 11:7 에서만 나온다(UBS 의 *성경의 동식물* 110-111 쪽을 보라). 이 씨의 색은 다양하지만 주로 회색인데, 작고 하얀 색 꽃을 가지고 있다. 특별주제: 만나를 보라.

▣ “꿀” 꿀(BDB 185)은 두 가지에서 온 것을 가리킨다.

1. 꿀벌(참조, 사 14:8-9,18; 삼상 14:26-27; 잠 16:24)
2. 농축시킨 과일 주스(일반적인 용법)

**16:32** “모세가 이르되 . . .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모세”라는 이름이 3 인칭으로 사용되었지만, 이것은 자동적으로 또 다른 저자나 후기의 편집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의 문화에서 어떤 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저자 자신을 가리키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만나로 불리는 이 물질의 기적적인 면을 본다: 이것을

아침까지 간수하면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겼지만 안식일을 위해서는 이를 동안 간수할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어떤 만나는 대대로 보관되었음을 제시한다.

출 16:33-34 에서, 어떤 이는 이것을 언약궤에 보관한 것인지(참조, 히 9:4) 아니면 그 안에 둔 것인지(“증거궤 앞에서,” 출 16:34; 26:33; 27:21; 30:6,26,36)를 궁금해 한다. 사실상 그 당시에는 언약궤가 아직 없었다(참조, 출 25 장). 그 궤는 후에 만들어졌다. 이 장에서는 성막이 존재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요소가 나온다.

**16:33 “항아리”** 이 용어(BDB 897, KB 1039)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그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이론이 제기되었다.

1. 항아리(대부분의 번역본)
2. 바구니(아랍어)
3. 단지
4. 꽃병(벌게이트)
5. 주전자
6. 작은 병(탈굼)
7. 남비(NKJV)
8. 황금 항아리/남비(참조, 히 9:4)

**16:35 “사십 년 동안”** 이것은 정확하게 40 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긴 기간을 가리킨다.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상징적 수를 보라.

**16:36** 이것은 후에 편집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보인다. 모세가 오경의 저자임을 내가 확신하고 있지만, 편집자가 추가시킨 이같은 내용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모세의 추후 생각 또는 후기에 속하는 편집자, 즉, 여호수아, 예레미야, 또는 에스라같은 사람에 의한 것이다. 특별주제: 신명기의 추가적 내용을 보라.

존 H. 왈튼과 D. 브렌트 샌디가 최근에 저술한 *성경의 잃어버려진 세계*에서는 구전 문화의 성격 및 그 구전문화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소개한다.

#### 특별주제: 나중에 신명기에 추가된 글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신 10:6-9)을 모세의 저작에 나중에 추가 편집된 여러 글 중의 하나로 본다. 이 요약이 모세의 시대로부터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번 편집상의 삽입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스라엘은 수 세기 동안 이집트에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 서기관들과 다르게 이집트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본문을 고치도록 훈련받았다.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영감과 본문의 보존을 믿는 우리들은 구약에서 이렇게 추가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 성령의 인도가 있었음을 확신한다. 그것들은 중심 교리에 영향을 주지않고 주변에 있는 본문의 역사성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그렇다고 솔직히 인정해야만 한다: 그것은 구약의 가장 이른 시기의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심하게 원망하였는가?
2. 하나님께서 40 년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심에 있어서 왜 매일 매일 주시는 방법으로 하셨는가?
3. 메추라기를 주신 것에 대해 이 장에 기록된 사건은 민수기 11 장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인가?
4. 하나님께서 광야 유랑 기간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셨는가?

# 출애굽기 17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바위 안의 물 17:1-7	바위에서 나온 물 17:1-7	광야에서 경험한 다른 여러 시험 17:1-7	바위에서 나온 물 17:1-2a 17:2b 17:3 17:4 17:5-6 17:7	바위에서 나온 그 물 17:1-7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 17:8-13	아말렉에 대한 승리 17:8-13	17:8-13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 17:8-13	아말렉 사람들에게 대항한 싸움 17:8-12a 17:12b-16
17:14-16	17:14-16	17:14-16	17:14-16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기타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7:1-7

<sup>1</sup>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와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sup>2</sup>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sup>3</sup>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sup>4</sup>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sup>5</sup>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sup>6</sup>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sup>7</sup>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 또는 프리바라 불렀으니

17:1 “신 광야에서” 특별주제: 출애굽의 광야를 보라.

▣

NASB, NRSV,

NJB, JPSOA, REB “단계별로”

NKJV, LXX “출발하다”

TEV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이 단어(BDB 652)는 문자적으로는 “뺏다”(즉, 천막의 말뚝을)를 의미한다.

▣ “여호와와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여정을 따라 진을 칠 곳을 야웨께서 지시하셨는데(참조, 민 33:12-14) 이는 그들을 시험하며(특별주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를 보라) 야웨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 “르비딤” 이 장소(BDB 951)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장소를 출 19:2 과 민 33:14-15 에서도 언급하였다.

▣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것은 반복되는 문제였다. 비슷한 사건이 민 20:2-13 에서 나오지만, 그것은 모세가 불순종한 사건이었다(즉, 야웨께 순종하여 바위에게 명하는 대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바위를 쳤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관하신/주관하시는 일은 사막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특별주제: 물을 보라.

17:2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다(즉, 출 14:11-12; 16:2-3 등). 많은 주석가들은 이 일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비이스라엘 백성이 부추긴 일이라고 추정한다(즉, 중대한 잡족, 참조, 출 12:38; 민 11:4). 한편, 구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기록이다. 진정한 문제는 창세기 3 장의 사건이었다(특별주제: 타락을 보라)!

▣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사실상 백성들은 야웨와 다투고 있는 것이었으며 공급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야웨의 약속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었다(참조, 출 16:7-8,12; 민 14:27; 17:5). 이 일은 “나쁜 소식을 가져온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였다!

17:3 이것은 출 16:3 과 매우 비슷하다.

17:4 모세의 좌절감이 표출되고 있다! 그가 노예생활에서 데리고 나온 자들이 이제는 돌을 던져 그를 죽이려 한다(참조, 민 14:10). 모세가 그들을 “이 백성”라고 부름을 주목하라!

17:5 “백성 앞을 지나서” 이것은 모세의 지도력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 “네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있는 이 목자의 지팡이는 야웨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즉, 인간은 통로의 역할을 함, 참조, 출 3:7-10).

17:6 “내가...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이것은 구름 기둥 안에 계신 야웨를 분명히 가리킨다.

▣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이 계시의 산은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1. 호렙 산(히브리어근)
2. 시내 산(비셀족 어근)

한편, 이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시내 산(특별주제: 시내산의 위치를 보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스라엘이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므리바의 위치로서 가능한 두 장소가 있다: [1] 시내 산 근처, 참조, 출 19:1 또는 [2] 가데스 근처, 참조, 민 20:13,14; 겔 48:28). 어떤 랍비들과

바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참조, 시 18:2)을 상징하는 이 특별한 바위가 광야 유랑 기간동안 줄곧 이스라엘을 따라왔다고 생각하였다(참조, 고전 10:4).

▣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동사(BDB 645, KB 697)는 *와우*와 함께 사용된 *히/필* 완료형으로서 명령의 의미를 가진다.

▣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공개적으로(참조, 출 17:5) 행하였기에 지파의 지도자들이 야웨의 능력을 명료하게 볼 수 있었다. 모세가 장로들 앞에서 진을 통과하여 걸은 일은 자신의 지도력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었다.

17:7 “맛사” 이것은 “시험”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이다(BDB 650 III, 참조, 신 6:16; 9:22; 33:8; 시 95:8).

▣ “므리바” 이것은 “다툼”(BDB 937 II)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이다(참조, 창 13:8; 민 27:14).

#### 개역개정 17:8-13

<sup>8</sup>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sup>9</sup>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sup>10</sup>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sup>11</sup>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sup>12</sup>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17:8 “아말렉” 이 사막 족속은 에서의 자손이다(참조, 창 36:11,12). 그들은 후에 에돔이 된 지역과 관련이 있다(참조, 창 36:15,16). 그들은 구약에서만 알려져 있다. 그들은 사나운 유목민족이었다.

이스라엘은 이 족속과 여러 번 맞닥뜨렸다.

1. 이곳
2. 민 14:43; 24:20
3. 신 25:17-19
4. 삿 3:13; 5:14; 6:3,33; 7:12; 10:12; 12:15
5. 삼상 14:48; 15:6-8,15,18,20,32; 27:8; 28:18; 30:1,13,18
6. 대상 4:41-43

야웨의 언약백성에 대한 그들의 잔인성을 인하여 그들이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었다(참조, 부정사 절대형과 완료형 동사의 용법인 “완전히 도말하라,” 출 17:14 에서, 참조, 신 25:19). 한편, 출 17:13 에서는 “약하게 되다”(BDB 325, KB 324, *칼* 미완료형과 *와우*)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대상 4:43 에서 언급하는 완전한 패배(출 17:14 에서 암시하는 내용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17: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린다(여호수아란 이름은 “야웨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야웨는 구원이시다”를 의미한다; 이 이름은 동사를 필요로 한다; 원래의 이름은 눈의 아들인 호세아이다, 참조, 민 13:16).

1. 사람들을 택하라 - BDB 103, KB 119, *칼* 명령
2. 나가라 - BDB 422, KB 425, *칼* 명령
3. 싸우라 - BDB 535, KB 526, *니팔* 명령

여호수아는 모세의 군대 사령관이며 후계자였다.

▣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은 모세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출 17:5 의 설명을 보라. 전투에 있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니라 모세와 지팡이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17:10 “출”** 이 사람은 이곳과 출 24:14; 31:2 에서만 언급되고 있지만, 그는 잘 알려진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그가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라고 말한다.

이 본문도 목격자가 진술한 자세한 내용이다.

**17:11-12** 이것은 야웨(즉, 지팡이)의 무력함이나 약함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향한 여정과 그들의 승리에 있어서 모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제시하기 위한 본문이다. 모세는 그들의 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지도자였다.

#### 개역개정 17:14-16

<sup>14</sup>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sup>15</sup>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sup>16</sup>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17:14-16** 야웨께서는 아말렉에 대하여 거둔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하고 제단을 쌓음으로써 기념하기를 원하셨다(참조, 창 33:20; 35:7; 수 22:26-27).

이것은 자료의 기록에 대하여 구약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다(참조, 출 24:4,7; 34:27,28; 민 33:2; 신 31:9,22,24-26). 구전적 전통이 어떻게 역사와 전통으로 전달되었는가에 대한 좋은 설명에 대하여는, 존 H. 왈튼과 D. 브렌트 샌디의 *성경의 잃어버려진 세계*를 보라.

17:14 “책” 이 용어(BDB 706)는 “서류”(참조, 신 24:1,3)나 “책” 또는 “두루마리”(참조, 수 18:9)를 가리킬 수 있다. NIDOTTE 제 3 권 285 쪽에서는 “청동”을 뜻하는 다른 어근(KB 767 II)을 제시하며, 욥 19:23 과 사 30:8 이 이러한 물질 위에 기록한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

17:15

NASB	“여호와와 나의 기치이시다” (My Banner)
NKJV	“여호와와-나의-기치-이시다”(My Banner)
NRSV	“여호와와 나의 기치이시다”(my banner)
TEV, REB	“여호와와 나의 기치이시다”(my Banner)
NJB	“야웨 닛시”
JPSOA	“아도나이 닛시”
LXX	“여호와와 피난처이시다”

이것은 야웨와 한 가지 명사로 이루어진 여러 성호 가운데 하나이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라항 4 번 항목을 보라.

“기치”(BDB 651)는 “깃발” 또는 전쟁시 사용하는 기를 가리킨다.

17:16

NASB, NKJV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NRSV	“여호와의 기치 위의 손”
TEV	“여호와의 기치를 높이 들어라”
NJB	“야웨의 기치를 잡아라!”
JPSOA	“여호와의 보좌 위에 손을!”
REB, 페쉬타	“내 맹세를 그 위에”
LXX	“비밀스런 손을 인하여”

NRSV 역이 맞소라 본문에 가장 가깝다. UBS 본문 프로젝트(110 쪽)는 “(한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대항하여 (들렸기에)”라고 제안한다. 이것은 “보좌”에 “B”등급(약간 의심스러움)을 준다. 손이 다음 사항 가운데 어느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1. 야웨께서 하신 맹세(탈굄, 라쉬)

2. 모세가 한 맹세(NEB)
3. 아말렉이 취한 경멸의 태도(AV 의 난외주)

이 어려운 구가 어느 것을 의미하든지, 이것은 모세의 지도력과 야웨의 왕권을 확증시키기 위한 방법이였다!

유대인의 연구성경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뜻을 제시한다(343 쪽).

1. “보좌”( *케스*, BDB 490)는 “기치”( *네스*, BDB 651, 즉, 전투시 사용하는 기)의 본문적 오류일 것이다
2. 맹세를 나타내는 방법일 것이다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르비딤이 호렙에 가까운가 아니면 가데스에 가까운가? 이것은 우리가 출 17:6 에 나오는 “바위”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게 하는가?
2. 이스라엘이 출애굽 기간과 광야 유랑 시기에 마실 물이 없어 원망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3. 야웨께서 왜 아말렉을 멸하기를 원하셨는가?
4. 흠은 누구인가?
5. 출애굽기처럼 이른 시기의 문맥에서 나오는 “책”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가?
6. “기치”라는 용어를 정의하라.

# 출애굽기 18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드로의 충고	이드로의 방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
18:1-4	18:1-12	18:1-9	18:1-12	18:1-4
18:5-12		18:10-12		18:5-11
				18:12
			재판관들의 임명	재판관들의 임명
18:13-23	18:13-23	18:13-23	18:13-14	18:13-23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주다			18:15-16	
18:17-23			18:17-23	
18:24-27	18:24-27	18:24-27	18:24-26	18:24-26
			18:27	18:27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독서의 세 번째 단계, xvi 쪽).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모세의 장인은 다음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과 기독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

1.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그럼에도 아론과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참조, 출 18:12).
2. 모세가 깊은 존경을 나타내며 그를 맞이한다(참조, 출 18:7).
3. 그가 야웨를 송축한다(참조, 출 18:10).
4. 그가 야웨의 특별하심에 대한 강력한 신학적 진술을 한다(참조, 출 18:11).
5. 비록 그가 이교도이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사법제도를 어떻게 구성하여야 할지에 대한 그의 조언을 받아들인다(참조, 출 18:13-23,24).
6. 이 사람은 적어도 네 가지 이름으로 알려졌다.
  - ㄱ. 예델, 출 4:18
  - ㄴ. 르우엘, 출 2:18(참조, 민 10:29)
  - ㄷ. 호باط, 민 10:29; 샏 4:11
  - ㄹ. 이드로, 출 18:1

나. 이 장은 모세의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에 대하여 말하는 유일한 본문이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도우미시다”(BDB 45)를 의미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그에 대하여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이름은 “객”(BDB 177)을 뜻하는 첫째 아들의 이름인 게르솜보다 더욱 흥미로운 이름이다. 우리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BDB 862, 이 이름의 의미는 “작은 새”임)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녀가 모세와 함께 이집트로 가는 길에 있을 때 였다. 그런데 18장에서 우리는 그녀가 친정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었음을 명확히 알게 된다(참조, 출 18:2). 이 장과 출 4:20의 정확한 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8:1-4

<sup>1</sup>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sup>2</sup>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sup>3</sup>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내가 이방에서 내게서 데려다 왔으니 <sup>4</sup>하나의 이름은

**18:1 “이드로”** 문맥적 통찰의 가향에 있는 설명을 보라.

▣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며(출 18: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듣는 것을 그가 기뻐하고(출 18:9) 또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야웨주의적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출 19:10,11), 많은 사람들은 그가 모세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야웨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심지어 어떤 이는 모세가 이드로로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배운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겐 족속 이론”으로 불렸는데, 이는 미디안 족속과 겐 족속이 서로 연관이 있으며 또 이 연관은 그 전에 야웨를 따랐던 자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러한 이론이 흥미롭긴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 **“하나님 . . .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두 가지 중요한 성호이다. *엘로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 번역되었고 “야웨”는 일반적으로 “여호와”로 번역되었다(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다항과 라항을 보라). JEPD 문서설에서는 이 두 가지 성호가 두 명의 저자에 의한 것이라고 상정한다. 하지만, 이 이론을 과도하게 주장할 때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이론이 되는지를 이 장이 잘 드러내 준다. 문학적으로 한 단위를 이루는 이 장에서 하나님의 두 성호인 *엘로힘*과 야웨가 거듭하여 사용되었다. 특별주제: 오경의 문서비평을 보라(J.E.P.D).

**18:2-4** 이것은 모세의 가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회상장면으로 여겨진다. TEV에서는 출 18:3b-4 이 괄호 안에 들어 있다.

**18:2 “십보라”** 이 이름은 “작은 새”(BDB 862)를 뜻한다. 어떤 이는 이 이름이 “취파람새”를 특별히 지칭한다고 말한다(참조, 출 2:21).

▣ **“모세가 돌려 보냈던”** 이 용어는 랍비적 유대교에서는 “이혼”을 의미하였다(참조, 신 24:1).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단순히 일정 기간동안 그녀를 처가에 보냄을 뜻한다. 그것은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랍비들은 이 일이 아론의 주도과 격려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이 본문이 아주 어렵고 모호한 본문인 출 4:24-26 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확히 “무엇이” 또 “왜”에 대하여는 확실하지 않다. 이전에 모세와 십보라가 함께 언급되었을 때에는 단 한 명의 아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두 명의 아들이 나온다(참조, 출 18:4).

**18:3 “게르숨 . . . 엘리에셀”** 게르숨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소개된 바 있는 장자이다. 그의 이름은 “나그네”를 뜻하여, 모세가 낙심된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데, 그는 상당히 격려가 되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다(참조, 출 18:4).

여기서는 이 아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 기록의 역사성을 잘 입증한다(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문화와 비교하여 본 구약의 역사 기록을 보라). 이 사실은 히브리인의 역사적 이야기체가 가진 선택성도 드러낸다(특별주제: 히브리 이야기체를 보라).

**개역개정 18:5-12**

<sup>5</sup>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 친 곳이라 <sup>6</sup>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sup>7</sup>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sup>8</sup>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sup>9</sup>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sup>10</sup>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sup>11</sup>이제

**18:5 “하나님의 산”** 이 장소는 셈족이 아닌 자들이 이 산을 일컫는 이름인 시내 산으로 종종 불린다. 이것은 신 광야의 토질, 기후, 식물 등과 관계를 가진 이름으로 여겨진다. 이 산은 히브리 이름인 호렘으로도 불렸다(참조, 출 3:1; 4:27; 24:13). 그러나 우리는 그 어원적인 배경에 대하여 잘 모른다.

**18:6** 이스라엘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무리에 대하여 경계하였을 것이다.

70 인역과 시리아역에서는 맞소라 본문의 인칭대명사인 “나”(JPSOA, NRSV) 대신에 “보라!”(참조, RSV, REB, NJB, 참조, 창 48:2)라고 번역하였다. 전자는 이드로가 이스라엘이 진친 곳에 이르기 전에 모세에게 직접 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직접화법은 미리 종을 보내어 모세에게 전한 메세지에서 온 내용일 수 있다(USB *핸드북* 430 쪽).

**18:7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랍비적 유대교에서는 이 절을 인하여 당혹해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불신자인(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이드로에게 과도하게 인사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자세라기 보다는 동양의 일반적 인사법으로 여겨진다.

▣ “서로 문안하고”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살롬이다. 특별주제: 평안을 보라(구약). 그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좋아한 것으로 보인다(창 43:27 에 나오는 같은 관용적 표현을 주목하라).

18:8 이것은 고대 근동의 구전적 문화를 나타낸다. 존 H. 왈튼과 D. 브렌트 샌디의 *성경의 잃어버려진 세계*를 보라.

▣ “구원하신” 이 동사의 *히/플*형(BDB 664, KB 717, 참조, 출 18:10[2 회])은 다른 이의 손(즉, 권세)에서 어떤 것을 잡아채냄을 뜻한다(참조, 출 2:19; 삼하 14:16; 19:9; 22:1; 왕하 20:6; 대하 32:11; 스 8:31). 이 동사의 *피/엘*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에 이집트의 물건을 “탈취한 일”에 대하여 사용되었음을 주목하라(참조, 출 3:22; 12:36).

강조점이 모세나 이스라엘의 군대에 있지 않고 야웨의 능력(즉, 거룩한 전쟁)에 있음을 주목하라.

18:9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야웨 및 언약과 관련이 있는 여러 특징적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이 만남이 있기 이전에 이드로가 야웨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나는 믿고 있다. 랍비들은 그가 이 만남을 통하여 개종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드로가 이전에 가진 야웨께 대한 지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 야웨께서 계속적으로 선택하시며 약속을 지키심을 인하여 그가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18:11 “여호와와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것은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증하는 말이다.

랍비들이 주장하듯이 이드로가 야웨께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든지 아니면 히브리인의 관용적 표현을 나타낸다(참조, 시 135:5).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이 절의 마지막 부분은 특이하다. 예루살렘 성경의 각주(101 쪽)에서는 어떤 부분이 탈락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브레바드 차일드스도 *출애굽기 주석*(320 쪽)에서 그렇게 말한다. 이 본문은 특별히 이집트의 우상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앙과 출애굽은 이집트 신들/우상들의 언약성을 나타낸다(참조, 출 12:12; 민 33:4).

야웨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야웨께 대한 인격적 믿음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1. 라합 – 수 2:8-11
2. 한 여인 – 왕상 17:24
3. 나아만 – 왕하 5:15
4. 고레스 II 세 – 사 45:3
5. 느부갓네살 – 단 2:46-47; 3:28-30; 4:2-3,37
6. 다리우스 – 단 6:25-27

7. 요나서에 나오는 뱀사공들 – 온 1:9,14

8. 니느웨 사람들 – 온 3:5-10

야웨께 대한 믿음은 언제나 이스라엘에만 제한되지 않았다(즉, 멜기세덱, 참조, 창 14 장; 아비멜렉, 참조, 창 20:3-7; 욥; 갈렙; 우리야; 이것은 단지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이 “신자들”은 야웨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입은 모든 인간이 야웨께 대한 개인의 인격적 믿음과 경외함으로써 야웨와의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야웨께서 소원하고 계심을 부각시켜 제시한다(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18:12** “희생제물들”은 친교적 언약 또는 화목제물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창 31:54). 모세가 희생제물로써 이드로와 어떤 언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아론과 장로들이 함께 한 가운데 가지는 공동 식사로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드로와 함께 드리는 이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가 아니라면, 이것을 드리는 정확한 이유를 확실히 설명하기는 어렵다(참조, 출 18:8-9).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희생제사에 대하여 언급한다.

1. 번제, 보통은 제단 위에 놓은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드렸다
2. 화목제, 제물을 드리는 자와 그의 손님들이 드러진 짐승의 어느 부분을 먹었다(즉,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 개역개정 18:13-16

<sup>13</sup>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sup>14</sup>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이니라 <sup>15</sup> 모세가 그의 자이에게 대답하되 배서이 취니 너께 무으려구 내게르 오이라 <sup>16</sup> 그드이

**18:13**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앉아 있었다”와 “서 있었다”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이다.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은 상당히 긴 기다림을 수반하였다. 이같은 일이 나중에 다윗의 통치 시기에 이르러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드로가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보았다. 그가 의도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본 것인데, 이에 대하여 모세에게 매우 실제적인 제안을 하였다.

“재판하다”(BDB 1047, KB 1622)라는 동사가 이 장에서 종종 나온다(참조, 출 18:13,16,22[2 회],26[2 회]). 특별주제: 재판/심판/정의를 보라.

#### 특별주제: 이사야서에서의 심판하다, 심판, 정의(사필)

이것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BDB 1047)이다. NIDOTTE 제 4 권 214 쪽은 이 단어의 분포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오경, 13%, 사람 재판관
2. 역사서, 34%, 사람인 지도자

이스라엘은 야웨의 성품을 열방에게 나타내어야 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따라서 야웨는 “이상적”인 한 이스라엘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을

**18:15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이 시기에는 아직 제사장들이 없었음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막과 제사장 직분은 이후에 생겼다(참조, 출 25-31 장; 35-40 장). 당시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서 있었다(참조, 출 18:19). 그는 또한 백성들을 가르치고(참조, 출 18:20) 백성들을 재판하였다(참조, 출 18:15). 이 마지막 세 가지 사항은 후에 아론의 제사장직이 감당하는 일이 된다.

#### 개역개정 18:17-23

<sup>17</sup>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sup>18</sup>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sup>19</sup>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sup>20</sup>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18:18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쇠하다”라는 용어는 “나뭇잎처럼 지다”를 뜻한다. 이것은 같은 어근(BDB 615, KB 663)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의 용법으로서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법제도는 모세와 백성 양쪽을 쇠하게 할 것이었다.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모세에게만 좋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지도력에 동참하는 자들 및 그들의 봉사를 받는 자들에게도 유익하다.

**18:20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다. 장로들로 하여금 각각 많은 그룹의 사람들을 책임지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실제적인 충고이다.

“율례,” “법도,” “길”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계시는 출애굽기 19 장에서 시작된다. 출 20-24 장에 나오는 율법의 수여는 이드로의 이 제안을 아마 반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내용을 모세가 언약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가르치다”(BDB 264, KB 265, *하/필* 완료형과 *와우*)라는 동사는 어떤 정보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경고함을 뜻한다. 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신학적으로 *שמע*(참조, 신 6:4)와 평행을 이룬다. *שמע*는 “행할 수 있게 들으라”를 뜻한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순종함에 기초한 조건적 언약이었다(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18:21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서”** 이곳에 나오는 네 가지 자격은 행 6:3 에서 특별하게 선출되는 자들에 대한 것 및 딤페전 3:1 이하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 제시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신 1:9-19 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의하면, 모세가 각 지파에게 재판관들을 선택하라고 요구한다(참조, 신 1:13).

▣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 이것은 군대의 단위를 가리킨다(참조 삼상 29:2; 삼하 18:1). 산헤드린 19A 라는 탈무드의 한 글에서는 재판관들의 수가 출 12:37 에서 언급한 백성의 수를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계산을 하여, 재판관의 수가 78,600 명이었다고 제시한다. 특별주제: 천 (*알레프*)을 보라.

18:23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이드로가 동양적인 정중함을 가지고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그 제안의 신학적인 기반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모세가 배우려 하는 자세도 돋보인다(참조, 출 18:24).

#### 개역개정 18:24-27

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26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18:25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 명사(BDB 298)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즉, “힘,” “능률,” “부,” “군대”). 그러나 여기서는 도덕적이고 사법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이 본문이 어떤 특정한 지파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라.

18:27 이것은 민 10:29-32 의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드로는 누구이며, 왜 그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는가?
2. 십보라는 누구이며, 왜 둘째 아들에 대하여 이제서야 언급하는가?

3. 왜 모세가 이드로에게 상당한 존경을 나타내는가?
4. 출 18:11 은 믿음의 고백인가?

# 출애굽기 19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에루살렘성경 (NJB)
시내 산 위에 있는 모세 19:1-6	시내 산에 있는 이스라엘 19:1-9	시내 산에서의 하나님의 현현 19:1-6	시내 산에 있는 이스라엘 19:1-3a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 도달하다 19:1-2  야웨께서 언약을 약속하시다 19:3-8
19:7-9		19:7-9a	19:3b-8	언약을 위한 준비 19:9
19:10-15	19:10-13 19:14-15	19:9b-15	19:9a 19:9b-13	19:10-13 19:14-15
19:16-17 여호와께서 시내 산을 방문하시다 19:18-25	19:16-25	19:16-25	19:16-22  19:23 19:24-25	19:16-25  시내 산에서의 하나님의 현현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은 출 3:12 의 성취이다.
- 나. 이 장은 시내/호렙 산에서 있었던 야웨의 계시의 시작이다. 이 계시의 내용은 여러 장에 걸쳐 제시된다(참조, 출 19 장; 민 10 장).
- 다. 출 19 장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1. 이스라엘에게 아직 아무런 제사장도 없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제사장들의 나라”로 불릴 수 있는가? (또한 출 19:22,24 에 대한 설명을 보라).
  2. 모세가 몇 번이나 산에 올라가고 내려왔는가?(참조, 출 19:3,7,8,14,20,21,24)
  3. 모세가 누구를 데리고 갔는가?
    - ㄱ. 아론 - 출 19:24
    - ㄴ. 여러 사람들 - 출 24:1
    - ㄷ. 여호수아 - 출 24:13
- 우리는 이것이 글로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구전적 전통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특별주제: 히브리 이야기체를 보라). 존 H. 왈튼과 D. 브렌트 샌디의 *성경의 잃어버려진 세계*를 보라.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19:1-6

<sup>1</sup>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sup>2</sup>그들이 르비딴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sup>3</sup>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sup>4</sup>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sup>5</sup>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19:1 “삼 개월이 되던 날”** 이것은 문자적으로 “세 번째 초승달”인데, 그 때가 6 월이었을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종종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정확한 날짜를 제시한다(참조, 출 12:6; 16:1; 19:1).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약 일 년간 머물렀을 것이다(참조, 민 10:11).

▣ **“광야”** 시내 광야는 신 광야와 같은 말이다. 특별주제: 출애굽에서의 광야를 보라.

▣ **“시내”** 이 산은 종종 “호렙”으로 불렸다(출 3:1). 호렙은 그 지경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고 시내는 어떤 특별한 봉우리를 뜻한다고 학자들은 제시하였다. 이 산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다. 특별주제: 시내산의 위치를 보라.

**19:2 “르비딤”** 이곳은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적으로 원망하며 반역했던 곳이다(참조, 출 16-18 장).

▣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것은 출 3:12 의 성취이다. 이 산은 종종 “하나님의 산”으로 불렸다(참조, 출 3:1; 4:27; 18:5; 24:13).

**19:3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야웨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셨음을 주목하라!

▣ **“야곱의 집...이스라엘 자손들”** 평행을 이루는 이 두 호칭은 족장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나타낸다. 야곱의 이름은 창 32:28 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이스라엘(이름)을 보라.

**19:4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본문은 하나님을 어미 새로 묘사한다(참조, 창세기 1:2; 신명기 32:9-11; 마태복음 23:27; 누가복음 13:34). 온라인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하나님의 여성성”이라는 제목을 가진 비디오 설교를 보라. 이것은 “어렵고 논란이 있는 본문”의 제 111 항에 있다.

▣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 절에서는 “너희”라는 복수형 인칭대명사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를 나타낸다. 야웨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야웨께서 원하셨다. 언약은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진다

1. 적합한 믿음의 자세(즉, 신 30:6)

## 2. 적합한 삶

ㄱ. 예식(참조, 신 30:1-5)

ㄴ. 일상생활(참조, 미 6:8)

NET 성경(164 쪽 27 항)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신방으로 이꿈을 이 구가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혼인이라는 은유적 표현이 마 9:14-15; 25:1-13; 요 3:29; 엡 5:22-24; 계 18:23 에서도 나온다. 경건한 결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누리는 관계'를 나타냄에 있어서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모형이다.

**19:5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건적 요소가 있음을 주목하라.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눅 6:46; 특별주제: 지키다를 보라).

▣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같은 어근(문자적으로 “듣다,” BDB 1033, KB 1570)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이다.

강조를 나타내는 이 구문에 이어서 비슷한 소리를 가진 동사(BDB 1036, KB 1581)인 “지키다”가 나옴을 주목하라. 후자는 *와우*와 함께 있는 *칼* 완료형으로서, 지속적인 순종을 나타낸다.

▣ **“내 말”** 이것은 모세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야웨의 말씀이며 야웨의 생각이다.

▣ **“내 언약”**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

NASB	“내 자신의 소유”
NKJV	“내게 있어서 특별한 보물”
NRSV, JPSOA	“나의 보배스런 소유”
NJB	“나의 개인적 소유”
REB	“나의 특별한 소유”

이 여성 단수 명사(BDB 688)는 “자기 자신을 위해 보관해 놓은 값진 소유”를 뜻한다. 후에 이 용어는 왕들의 보화를 나타내었다(참조, 대상 29:3; 전 2:8; 유대인의 연구성경 146 쪽을 보라). 이 구는 반복적으로 사용된 암시이다(참조, 신 7:6; 14:2; 26:18; 시 135:4; 말 3:17; 엡 1:14; 딤후 2:14; 벧전 2:9). 이스라엘은 순종을 통해 야웨와의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 야웨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에 있어서, 그들은 야웨의 도구가 되어야 했다(참조, 창 3:15; 12:3).

▣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것은 유일신 신앙을 시사한다(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한 민족에게 주신 언약에서조차 전 세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음을 주목하라(참조, 창 12:3; 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19:6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야웨를 드러내야 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택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용한 똑같은 묘사적 표현이 이제는 교회에 대하여 사용됨을 또한 주목하라(참조, 벰전 2:5; 계 1:6).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참조, 롬 2:28,29; 9:6; 갈 3:29; 엡 2:11-3:13).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특별주제: 왜 구약의 언약적 약속이 신약의 언약적 약속과 상당히 다르게 보이는가?를 꼭 보기 바란다.

“거룩한 백성”에 대하여는, 신 7:6; 14:2,21; 26:19 를 보라. 야웨께서는 “거룩한”(특별주제: 거룩함을 보라) 백성이 모든 민족에게(참조, 레 11:45; 19:2; 마 5:48; 벰전 1:16) 야웨의 성품을 (특별주제: 거룩하신 분을 보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구약에서 거룩함은 언약에 대한 순종이지만, 신약에서는(참조, 롬 31:31-34; 겔 30:22-36)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가리키고 있다. 성경적인 믿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우리는 절대로 의롭게 됨과 성화를 서로 분리시켜 놓아서는 안된다.

**특별주제: 왜 구약의 언약적 약속이 신약의 언약적 약속과 상당히 다르게 보이는가**

내가 여러 해 동안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마지막 때에 대한 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영역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 심리적 또는 교단적 이유에서 그렇게 한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만 복음전도의 긴급성에 대하여는 놓치고 있다! 신자들이 종말론적(마지막 때) 사항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복음전파의 대위임에는 참여할 수 있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때에 완성됨을 받아들인다. 이 일이 완성되는 시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따르는 해석적 어려움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개의 역설에 기인한다.

1. 구약 언약의 예언적 모델과 신약 언약의 사도적 모델 사이의 긴장
2. 성경의 유일신론(모든 이에게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선택(특별한 한 민족) 사이의 긴장
3. 성경에 있는 언약과 약속의 조건적인 면(“만일...그때에는”)과 범죄한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신실하심 사이의 긴장
4. 근동 문학의 장르와 현대 서구 문학적 모델 사이의 긴장
5.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와 ‘아직 미래’ 사이의 긴장

하지만 예수님과 신약의 사도들은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구약이 영감받지 않은 책인가(참조, 마 5:17-19)? 신약의 저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을 생략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의 끝에 관하여 알려 주는 여러 자료가 있다:

1. 구약의 예언서(이사야, 미가, 말라기)
2. 구약의 묵시적 글(참조, 겔 37-39 장; 단 7-12 장; 스가랴)
3. 신구약 중간기의 정경이 아닌 유대의 묵시적 글(에녹 1 서의 경우 유다서에서 암시함)
4. 예수님 자신(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
5. 바울의 글(참조, 고전 15 장; 고후 5 장; 살전 4-5 장; 살후 2 장)
6. 요한의 글(요한일서와 계시록)

이 자료들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사항(사건, 시간적 순서, 인물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한가? 그들은 다 영감을 받았는가(신구약 중간기에 속하는 유대인의 글을 제외하고는 그렇다)?

성령은 구약의 저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범위에서 진리를 그들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나 점진적인 계시를 통하여 성령께서 구약의 이러한 종말론적 개념을 세계적인 것으로 확장하셨다(“그리스도의 신비,” 참조, 엡 2:11-3:13. 10:7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와 관련을 가진 예를 여기서 일부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시온). 그러나 신약에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제시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계 21-22 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의미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일이 창 3:15 에서 예시하듯이 범죄한 인간을 속량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보여졌다. 그 때는 유대인도, 유대인의 수도도 전혀 없었던 시기였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경우에도(참조, 창 12:1-3)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었다(참조, 창 12:3; 출 19:5).
2.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고대 근동에 있는 주변나라들이었는데, 신약에서는 그 개념이 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사탄의 조종을 받는 모든 자들로 확대되었다. 국지적 개념의 싸움이 전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싸움으로 바뀌었다(참조, — — — — —)

예언의 모델(즉, D. 브렌트 샌디, *보습과 전정가위*)이 성취되었고 확장되어 상당히 포괄적이 되었다. 예수님과 사도인 저자들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때를 제시하지 않았다(참조, 마틴 원가덴, *예언에 나타난 왕국의 미래와 성취*). 구약의 모델을 문자적이고 규범적으로 해석하려는 자들은 계시록을 상당히 유대적인 책으로 왜곡시키며, 예수님과 바울이 사용한 모호하면서도 따로 떨어져 있는 구에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를 나타내도록 강요한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예언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우주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시한 것이다. 예수님과 바울은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로 종말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구원적이고 목회적인 목적을 가졌다(참조, 고전 15:58; 살전 4:18).

한편, 신약 저자들 사이에도 긴장이 나타난다. 그들은 종말적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분명히 제시하지 않는다. 여러 면에서 볼 때, 놀랍게도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묘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대신에(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또는 바울의 글) 구약의 암시를 사용한다! 처음에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가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신구약 중간기(유대인의 묵시문학)에 발전된 문학적



“만일... 그 때에는”의 형식이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 이러한 긴장은 많은 혼동을 일으켰다. 해석가들은 “진퇴양난의 경우”에서 단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가졌다—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주권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 두 가지 모두 성경적이며 또 함께 가야 한다.

지 않았다

이것은 종말론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구약의 약속과 관련이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에 묶여 계시다; 하나님의 명성이 이 일에 달려 있다(참조, 겔 36:22-38).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이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었다(참조, 사 53 장)! 하나님의 지고한 신실하심이 회개하여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에 나타나는 것이지, 누가 당신의 아버지요 어머니인가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언약과 약속의 열쇠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참조, 행 7 장 및 갈 3 장).

복음 선포를 통한 세계선교가 교회에게 전해졌다(참조, 마 28:19-20; 눅 24:47; 행 1:8). 이것은 여전히 조건적인 언약에 속한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거부하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참조, 롬 9-11 장). 마지막 때에 믿는 이스라엘이 설 장소가 있으며 그들을 향한 목적이 있다(참조, 속 12:10).

#### 네 번째 긴장(근동 문학의 장르 대 서구의 문학적 모델)

장르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회는 서구(헬라)의 문화적 배경에서 발전했다. 동양의 문학은 오늘날 서구문화의 문학 양식에 비하여 상당히 회화적이고 은유적이며 상징적이다. 이것은 분명한 명제적 진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만남, 사건에 관심을 둔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예언(구약과 신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사 및 문학적 모델을 사용’하는 잘못을 범한다.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각각 자신의 시대와 지역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와 문학적성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들 모두 잘못되었다! 성경의 예언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날의 서구 문화가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은 건방진 견해이다!

영감을 받은 원저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장르는 ‘독자와 맺은 하나의 문학적 협약’이다. 요한계시록은 역사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 이 책은 편지(1-3 장)와 예언과 묵시문학(주로 이 형태임)이 결합된 형태이다. ‘성경의 원저자가 의도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내용을 성경이 말하게 하는 일’은 ‘성경의 원저자가 의도했던 것 보다 더 적은 내용을 성경이 말하게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계시록과 같은 종류의 책을 다룸에 있어서 해석가들의 거만함과 교조주의는 더 더욱 부적합하다.

서구의 해석가들은 이 책에 수 많이 있는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계시록의 주요한 취지는 박해받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낸다(구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역사가 정해진 끝(심판과 축복)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구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1 세기 유대인의 묵시문학적 어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능력과 통치를 확증해 준다!

이 책은 신학적으로 같은 방법으로써 각 시대의 신자들에게 말한다. 이 책은 선과 악의 우주적 대결을 묘사한다. 1 세기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책이 증거하는 강력한 진리를 안다. 오늘날 서구의 해석가들이 계시록의 세부적인 내용을 자신들의 현재 역사에 대한 것이 되도록 강요함으로써, 잘못된 해석의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지도자(참조, 살후 2 장)와 그러한 문화에서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세대를 사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책의 세부적인 내용이 놀랍도록 실제적인 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으심과 관련된 구약의 본문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의 말씀(참조, 마 24 장; 막 13 장; 눅 21 장)과 바울의 가르침(참조, 고전 15 장; 살전 4-5 장; 살후 2 장)이 역사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에는 누구도 이 계시록의 문자적 성취 여부를 알 수 없다. 추측과 짐작과 교리적 주장은 모두 부적합하다. 묵시문학은 이러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기술을 뛰어 넘는 이미지와 상징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주석은 장르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오늘날 서구의 해석가들은 종종 유대인의 묵시문학적 장르가 가진 ‘모호하고 상징적이며 드라마적인 면’을 다름에 있어서 빈약한 접근을 하는 반면, 명백하고 논리적인 신학적 구조를 추구한다. 이러한 모습을 랄프 P. 마틴이 *신약의 해석*(I. 하워드 마샬 편저)에 실린 “신약 석의를 위한 접근”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잘

사건들이 역사적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사건들은 역사상에 일어날 수 있다: 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나 저자는 사건을 제시하되 이미지와 암호를 통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137 쪽).

리켄이 편집한 *성경의 이미지 사전*에서 윌호스트와 롱맨 III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이 장르에 의해 종종 당황하고 당혹해 한다. 예상치 못했던 이미지 및 이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경험들은 이상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 본문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학적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 들이는 일은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질서한 상태에 처하게



내용이다. 신자들은 반드시 '마치 예수께서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하지만, 만일 그의 오심이 지체된다면 대위임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며 살아야 한다(참조, 마 28:19-20).

복음서(참조, 막 13:10; 눅 17:2; 18:8)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어떤 본문은 지연된 재림(*파루시아*)에 기초한 본문이다. 어떤 일들이 반드시 역사적 사건으로 먼저 일어날 것이다:

1. 전세계적 복음전도(참조, 마 24:14; 막 13:10)
2. “죄의 사람”이 드러남(참조, 마 24:15; 살후 2 장; 계 13 장)
3. 대박해(참조, 마 24:21,24; 계 13 장)

의도적인 모호함이 있다(참조, 마 24:42-51; 막 13:32-36)! 매일 매일이 마치 당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되, 미래의 사역을 위해 계획하고 또 훈련을 받아야 한다!

### 지속성과 균형

오늘날 종말론적 해석을 하는 모든 종류의 학파는 '반쪽 진리'만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어떤 본문에 대하여 그들은 잘 설명하고 또 잘 해석한다. 문제는 지속성 및 균형이라는 면에서 생긴다. 종종 미리 가진 여러 전제를 사용함으로써 성경의 본문을 미리 설정한 신학적 주형에 짜 맞춘다. 성경은 논리적이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되는 조직적인 종말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가족 앨범과 같다. 사진들이 모두 진짜지만, 시간적 순서나 문맥이나 어떤 논리적 틀에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진들은 앨범의 원래 자리에서 떨어졌는데, 나중 세대에 속하는 가족이 그것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는 원저자가 선택하여 사용한 문학적 장르를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많은 해석가들은 신약의 다른 장르를 해석하는데 사용한 자신의 도구와 절차를 가져와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그들은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신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또 계시록으로 하여금 회화적인 내용이 되게 하는 대신에' 구약에 집중한다.

내가 이 주석을 저술함에 있어서 계 22:18-19 에 나오는 저주를 인하여서가 아니라, 이 책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또 그 논란이 계속됨을 인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랑한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인 경우에도 이것은 진실되다(참조, 롬 3:4)! 이 주석이 당신에게 어떤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촉구하는 것이 되고, 약도가 아니라 교통표지판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만일 그렇다면 무엇을...”이 되기를 바란다. 나 자신이 부적합하며

## 특별주제: 기록하신 분

- I.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분”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주 사용한 성호이다(참조, 사 1:4; 5:19; 10:17,20; 12:6; 17:7; 29:19,23; 30:11,12,15; 31:1; 37:23; 40:25; 41:14,16,20; 43:3,14,15; 45:11; 47:4; 48:17; 49:7; 54:5; 55:5; 60:9,14).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에” 그의 백성도 기록해야 한다(참조, 레 19:2; 마 5:48; 벘전 1:16).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기록함의 표준이 되시는 분에게로 나아오는 일을 인하여 이 호칭은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긴장을 나타낸다. 모세의 언약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었다(참조, 수 24:19; 행 15 장; 갈 3 장; 히브리서). 옛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나타낸다(갈 3 장).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으며, 그들의 타락한 상태에 대한 자신의 답을 그들에게 준비하여 주셨다(즉,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메시아를 통하여 이것을 제공하신다. 새 언약(참조, 렘 31:31-34; 겔 36:22-38)은 언약에 따른 믿음과 회개이지 인간의 공로로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이루게 한다(참조, 약 2:14-26).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민족들에게 제시하기를 원하신다(참조, 마 5:48).

- II. “기록하신 분”은 다음을 가리킬 수 있다.

1. 성부 하나님(참조,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분”을 말하는 수 많은 구약의 본문)
2. 성자 하나님(참조, 막 1:24; 눅 4:34; 요 6:69; 행 3:14; 요일 2:20)
3. 성령 하나님(하나님의 성호, “성령,” 참조, 요 1:33; 14:26; 20:22).

행 10:38 은 하나님의 세 위격이 함께 기름부으심을 말하는 본문이다. 예수께서

**개역개정 19:7-9**

<sup>7</sup>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sup>8</sup>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sup>9</sup>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뽕뽕한 구름 가운데서

**19:8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맨 처음 공식적으로 언약을 받아들인 사건이다(또 다른 경우가 수 24:19 에 있다).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응답을 하여야만 했다(참조, 출 24:3,7; 신 5:27). 특별주제: 예정(칼빈주의) 대 인간의 자유의지(알미니안주의)를 보라.

**19:9 “뽕뽕한 구름”** 랍비들은 이것을 영광의 구름 *שוֹכֵן*로 부른다(참조, 출 19:16; 13:21; 14:19; 33:9-10; 왕상 8:10,12; 사 6:4; 단 7:13; 행 1:9; 살전 4:17). 이 구름은 야웨의 직접적인 임재하심을 상징하였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함이었다

1.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하심을 나타냄
2.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인임을 나타냄(참조, 출 19:9)
3. 하나님을 뵈므로써 백성들이 죽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임(참조, 출 19:21; 창 32:30; 출 3:6; 33:20; 사 6:22-23; 13:22; 왕상 19:13; 사 6:5)

▣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영영히”(BDB 761)가 어떤 한정적 시간(즉, 모세의 생애)을 가리킴을 말하는 좋은 예이다. 특별주제: 영원히(을림)를 보라.

**개역개정 19:10-15**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2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19:10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이 동사(BDB 872, KB 1073, *피/엘* 완료형과 *와우*)는 명령을 나타낸다. 본문에서는 이 명령과 관련을 가진 여러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1. 시간적 요소
2. 그들의 옷을 빨는 예식(즉, 민 8:7,21)
3. 아내와의 성관계를 금함(참조, 레 15:18)

요세푸는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여 말한다(*유대 고대사* 3.5.1):

1. 모세를 위한 특별기도
2. 야채중심의 축제음식
3. 아내와 자녀들이 “보통 때 입는 의복보다 더 품위있는” 예식용 옷

▣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외적으로 상징하는 방법이었다(참조, 창 35:2; 민 8:7; 19:10,19). 이것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침례(세례)라는 상징과 비슷하다. 특별주제: 침례(세례)를 보라.

**특별주제: 침례(세례)**

쿠티스 보간의 *사도행전* 28 쪽에 흥미로운 각주가 있다.

“헬라어에서 ‘침례(세례)받다’는 3 인칭 명령으로 되어있고, ‘회개하다’를 뜻하는 단어는 2 인칭 명령으로 되어있다. 보다 직접적인 2 인칭 명령이 아닌 보다 덜 직접적인 3 인칭으로

이러한 점은 침례(세례)요한(참조, 마 3:2)과 예수님(참조, 4:17)의 설교에서 강조점을 드러낸다. 회개는 영적 열쇠로 침례(세례)는 이러한 영적 변화의 외적표현으로 보인다. 신약에는 침례(세례)받지 않은 신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초대교회에서 침례(세례)는 바로 믿음의 공적 고백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적 표현의 방법이었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서 회개는 언급되고 있지만 침례(세례)는 언급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3:19; 눅 24:17). 침례(세례)는 예수님이 세우신 모본이었다(참조, 마 3:13-18). 예수님은 침례(세례)를 명하셨다(참조, 마 28:19). 구원을 받기 위해 침례(세례)가 필요한가 하는 현대인의 질문은 신약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신자는 회개(세례)받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11 “나 여호와와 . . . 강림할 것임이니”** 헬라나 로마의 신들과는 달리, 야웨께서는 산에서 살지 않으셨다. 그가 하늘에서 사시지만 그가 내려오셨다(내재하심).

1. 바벨탑 사건을 조사하시기 위하여 – 창 11:5
2. 소돔의 죄를 조사하시기 위하여 – 창 18:21
3.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기 위하여 – 출 3:8
4.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 출 19:11,18,20

**19:12 “은 백성”** 사마리아 본문에서는 “산”으로 되어 있다. 둘 다 문맥에 들어맞는다.

▣ **“경계를 정하고”** 거룩함의 한 가지 특징은 분리/구분함이다(참조, 출 19:23). 어떤 지역이나 물건의 거룩성은 그것에 대한 출입금지를 가져온다(참조, 출 3:5; 40:35; 레 16:2; 민 1:51; 18:22; 삼하 6:7).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였다(즉, 초월성, 참조, 출 19:9). 또한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는 일도 마찬가지로였다!

▣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것은 같은 어근(BDB 559, KB 562)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의 용법으로서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19:13 “둘로 쳐죽이거나” 이것은 같은 어근(BDB 709, KB 768)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의 용법으로서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형방법이었다(참조, 출 19:13; 21:28,29,32; 레 20:2,27; 24:14,16,23; 민 14:10; 15:35,36; 신 32:21; 수 7:25; 왕상 12:18).

▣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이것은 같은 어근(BDB 434, KB 436)을 가진 또 다른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의 용법이다. 분명히 이것은 활 쏘는 것을 가리킨다.

산을 건드리는 자(또는 짐승)는 “거룩하게” 되므로 백성 가운데 머물 수 없게 됨을 주목하라 (“금지되어,” *헤렘*, BDB 356 과 비슷함, 즉, 신 20:16-17; 수 6:17-19). 이렇게 반드시 돌이나 화살을 사용하여 그(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나 짐승이 그(그들)와 접촉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었다.

▣ “나팔” 랍비들이 후에 양의 뿔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공급하신 양을 상징하기 때문이었다(참조, 창 22 장). 또한 암소나 황소의 뿔을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 뿔이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설명하였다(참조, 출 32 장). 양의 뿔은 크고 깊이 파고드는 소리를 낸다. 특별주제: 이스라엘이 사용한 뿔을 보라.

#### 특별주제: 이스라엘이 사용한 뿔

히브리어에는 뿔/나팔과 관련된 단어가 4 개 있다.

1. “그 수양의 뿔” (BDB 901) – 소리를 내는 도구로 뿔, 참조, 수 6:5. 같은 단어가 창 22:13 에서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이 사용한 뿔이 걸려 있던 양에 대해 사용되었다.
2. “나팔” (BDB 1051) – 들 양(야생 염소)을 말하는 앓시리아 단어이다. 이것은 출 19:16,19 에 있는 시내산/호렙산에서 사용되었다; 1 항과 2 항은 수 6:5 에서 병행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예배와 전투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였다(즉, 여리고의 경우 두 가지 목적을 가졌다, 참조, 6:4).
3. “수양의 뿔” (BDB 385) – 수양을 말하는 페니키아어(참조, 6:4,6,8,13). 이것은 또한 희년을 나타냈다(참조, 레 25:13,28,40,50,52,54; 27:17,18,23,24).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아무런 구분이 없이 사용되었다. 미쉬나[RH 3.2]는 소의 뿔을 제외하고는 어느 동물의 뿔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양, 염소, 또는 영양)

4. “나팔” (BDB 348) – 아마도 “내뿔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똑바른 뼈(동물의 뿔처럼 굽지 않은 것)를 뜻한다. 은으로 이것을 만들었다(이집트에서 사용하던 것의 모양과 형태를 따라서)

19:15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반드시 문화적 면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 본문은 성이 불결함을 입증하는 성경본문이 아니다. 성적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인류에 대한 명령이다(참조, 창 1:28,31; 9:1,7). 몸에서 어떤 액체라도 나오는 것을 예식상의 불결함으로 여긴 셈족의 문화에 이 본문이 기초하고 있다(참조, 레 13-15 장; 삼상 21:4-5; 삼하 11:6 이하). 이것은 이스라엘과 그 주위의 다산적 신앙을 철저히 대조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다.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숭배를 보라.

#### 개역개정 19:16-17

16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뽐뽐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19:16 “우레와 번개와” “우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리킬 수 있다(참조, 삼상 7:10; 삼하 22:14-15; 욕 37:2-5; 시 29:3-9).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써 표현하려는 시도이다(참조, 신 4:11-12).

세상의 창조주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위엄을 사용하신다(즉, 신의 현현, 참조, NIDOTTE 제 4 권 1247-1249 쪽). 여기서 이것은 강력한 천둥과 폭풍을 뜻한다(즉, 구름 기둥의 한 특징). 이 이미지는 신의 현현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삿 5:4-5; 왕상 19:11-13; 욕 36:24-33; 37:2-5; 38:25-30; 시 8:1,3; 18:7-15; 29:3-9; 68:7-9; 144:5-6; 147:8; 사 13:2-13; 학 2:6).

▣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나팔”(BDB 1051, 참조 출 19:19)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 출 19:13 에서 사용한 단어(BDB 385)와는 다르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나팔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마 24:31; 고전 15:52; 살전 4:16; 계 8:2; 11:15-19).

#### 개역개정 19:18-25

18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19:18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은 종종 다음 사항과 관련을 가진다

1. 하나님의 임재 – 창 15:17; 출 3:2; 13:21; 19:16,18; 20:18; 24:17; 신 5:4
2. 하나님의 거룩하심 – 신 4:24; 9:3; 히 12:29
3. 하나님의 심판 – 창 38:24; 레 9:24; 20:14; 21:9; 왕상 18:38; 나 1:6
4. 깨끗게 함 – 민 31:22-23; 잠 17:3; 사 1:25; 6:6-8; 렘 6:29; 마 2:2-3

이외에도 “불”에 대한 본문이 많이 있다. 특별주제: 불을 보라.

▣ “**은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현현의 물리적 영향에 대한 내용이 시 68:7,8 에서도 기록되어 있다. 70 인역에서는 “진동한” 것은 바로 백성들이었다고 이 절을 번역하였다.

이 절은 화산활동에 대한 묘사인가 아니면 강력한 영적 사건에 대한 은유적 표현인가?

**19:19** 이 절은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경의 진술일 것이다(참조, 출 33:11; 민 12:8; 신 34:10). 모세는 특별하게 야웨께 나아갔다.

**19:21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출 19:9 의 설명을 보라.

**19:22 “제사장들에게”** 이들은 각 가정의 대표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 자들을 분명히 가리킨다(즉, 율과 아브라함). 왜냐하면 그 때에는 아직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없었고 출 13 장에 나오는 장자인 종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로더햄스 강조 성경*(103 쪽, a 항)에서는 이들이 “족장들”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확실히 시대착오적 내용이다.

불순종에는 그 결과가 따름을 주목하라(무심코 불순종한 경우에도, 참조, 삼하 6 장).

**19:24 “아론”** 모세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는 이유는 아론의 지도력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기 위함이었음이 명확하다.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장에 나오는 언약은 창 12 장의 언약과 어떻게 다른가?
2.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시내 산에서 계시하기를 원하셨는가?
3. 유일신 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4. 왜 성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는가? 이것은 우주적 진리인가 아니면 문화적 상황인가?
5.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들의 왕국”을 이해할 수 있었는가?

# 출애굽기 2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십계명	십계명	십계명	십계명	십계
20:1	20:1	20:1-3	20:1-2	20:1-2
20:2	20:2-3			
20:3			20:3	20:3
20:4-6	20:4-6	20:4-6	20:4-6	20:4
				20:5-6
20:7	20:7	20:7	20:7	20:7
20:8-11	20:8-11	20:8-11	20:8-11	20:8-11
20:12	20:12	20:12	20:12	20:12
20:13	20:13	20:13	20:13	20:13
20:14	20:14	20:14	20:14	20:14
20:15	20:15	20:15	20:15	20:15
20:16	20:16	20:16	20:16	20:16
20:17	20:17	20:17	20:17	20:17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다	하나님의 현현 장면 에 대한 결론	백성들의 두려움	
20:18-21	20:18-21	20:18-21	20:18-21	20:18-21
	제단의 법	언약법전 (20:22-23:33)	제단에 대한 법들	제단에 관한 법
20:22-26	20:22-26	20:22-26	20:22-26	20:22-23
				20:24-26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기타

## “십계명”에 대한 서론

### I. 용어들

- 가. 문자적으로 이것은 “열 단어”이다(BDB 796 과 BDB 182 의 조합, 참조, 출 34:28; 신 4:13; 10:4).
- 나. 이것을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열 가지 가르침”(데카 로구스)으로 불렀는데 초기 교부들이 이 명칭을 따라서 사용하였다.
- 다. 성경에서 이것은 다음으로도 불린다:
  1. “언약” – 출 34:28; 신 4:13; 9:9,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 ㄱ. 바리에서 – 먹는 것
    - ㄴ. 비르투에서 – 묶는 것
    - ㄷ. 베히릿에서 – 사이
  2. “증거”(BDB 730) – 출 25:16,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보라

### II. 목적

- 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1. 특별하고 권세 있는
  2. 윤리적인(사회와 개인과 모든 시민에게 대하여)
- 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백성을 위해 가지신 계획을 드러낸다.
  1. 하니컷 – 선택받은 백성을 위해서만(9 쪽)
  2. 후아이 – 인간의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원리들(84 쪽)

“이것이 인간관계에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원리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범위에 있어서 우주적이며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어떤 개인이나 사회도 이것을 무시하고서는 더 좋은 상태로 될 수가 없다.”

3. 성경주석(F. C. 쿡 편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가진 죄적인 경향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증거로써”(52 쪽).
4. C. S. 루이스 – 원시적인 주민들에게도 내적인 도덕적 감각이 있음을 이것이 나타내 보여준다(롬 1:19-20; 2:14-15)

다. 고대의 모든 법전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다음 사항을 위한 것이었다(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법전들을 보라).

1. 사람들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어하기 위함
2.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

라. 이것은 이질적 그룹인 종들과 이집트에서 버림받은 자들(참조, 출 12:28; 민 11:4)을 믿음과 율법의 공동체 안으로 묶어 놓았다.

B. S. 차일드스, *구약 도서*, “출애굽기” – “여덟 가지의 부정적 면은 언약적 범주의 바깥 경계를 나타낸다. 이것의 위반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그 끈 자체를 끊어버리는 일이 된다. 두 가지의 긍정적 내용은 삶에 대한 정의를 언약 안에서 제시한다. 십계는 안쪽과 바깥쪽을 다 내다본다; 이것은 죽음의 길에 대하여 조심하게 하고 생명의 길을 제시한다”(398 쪽).

### III. 평행을 이루는 내용

가. 성경에서

1. 십계명은 두 번 기록되었다(출 20 장과 신 5 장에서). 4 번째, 5 번째, 10 번째 계명이 다소 다른데, 이는 이러한 일반적 원리가 달라진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되었음을 나타낸다.
2. 한편, 두 기록의 일치는 이것을 전수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유지했음을 나타낸다.
3. 수 24 장에서 나타내듯이, 이것을 주기적으로 읽고 그 내용을 재확인 하였을 것이다.

나. 문화적으로

1.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법전들
  - ㄱ. 우르-나아무(수메르, 주전 2050 년), 우르라는 도시에서 출토됨

- ㄴ. 리핏-이스탈(수메르, 주전 1900 년), 이신이라는 도시에서 출토됨
  - ㄷ. 에쉬눈나(아카디아, 주전 1875 년), 에쉬눈나라는 도시에서 출토됨
  - ㄹ. 함무라비 법전(바벨론, 주전 1690 년), 바벨론의 것이나 비석은 수사에서 발견됨
2. 출 20:18-23:37 에 나오는 여러 법이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십계명은 그 권위를 시사하고 있는 점에서 독특하다(2 인칭 명령-명백한 진리).
3. 가장 분명한 문화적 연결성은 주전 1450-1200 년 경의 히타이트 조약을 통하여 제기된다. 특별주제: 히타이트(종주권) 조약을 보라. 이러한 유사성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 ㄱ. 십계명
  - ㄴ. 신명기서
  - ㄷ. 수 24 장
- 이 조약의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왕에 대한 언급
  - (2) 그 왕의 치적에 대한 내용
  - (3) 언약에 따른 의무사항
  - (4) 대중 앞에서 읽을 수 있도록 조약을 성소에 보관할 것을 명하는 지시사항
  - (5) 증인으로서 관련을 가진 신들
  - (6) 충성에 대한 축복 및 위반에 대한 저주
4. 이 주제에 관한 좋은 자료들
- ㄱ. 조지 멘덴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의 법과 언약*
  - ㄴ. 듀위 비글, *야웨의 종 모세*
  - ㄷ. W. 베자린, *기원과 역사*
  - ㄹ. D. J. 맥카씨, *조약과 언약*

#### 특별주제: 히타이트(봉신) 조약

- 가. 1-13 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대하여 야웨께서 행하신 일의 요약이다.
- 나. 주전 2,000 년 이후에 있었던 히타이트 조약은 신명기서의 구조와 역사적으로 같은 시대에 속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출-레 및 수 24 장도 그러함). 이 조약의 형식은 주전 1,000 년 이후에 바뀌었다. 이 사실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의 역사성을 입증한다. 이 분야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G. E. 멘덴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의 법과 언약* 및

#### IV. 내적 구조

- 가. 알트(*이스라엘의 법의 기원*)는 필연적 법과 증례적 법을 처음으로 구분해 제시한 사람이다.
  - 1. 증례적 법은 고대 근동에서 공통적 형태의 법이었으며, “만일...그 때에는”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2. 필연적 법은 드물게 사용된 형태이며, “너는 ~해라” 또는 “너는 ~해서는 안된다”라는 직접적인 명령의 법이었다.
3. 로랜드 드보(*고대 이스라엘: 사회적 기관*, 제 1 권 146 쪽)는 증례적 법은 세속적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필연적 법은 성스러운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나. 십계명은 주로(10 가지 중에서 8 가지) 부정적이다. 이것의 형식은 2 인칭 단수형(즉, “너”)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은 언약 공동체 전체를 일컫거나 공동체의 각 구성원을 가리키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다. 두 돌판(출 24:12; 31:18)은 십계명의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면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종종 해석된다. 야웨와의 관계에 대하여 4 가지 계명에서 다루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6 가지 계명에서 다룬다. 한편 히타이트의 봉신 조약에 의한다면 이것은 전체 명령을 기록한 두 판이다.

라. 십계명의 수에 대한 역사적 이해

1. 10 가지 항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분명한 구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출 20:2 을 첫 계명으로 제시한다. 그들은 열 가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 20:3-6 을 두 번째 계명으로 말한다.
3.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에서는 어거스틴을 따라서 출 20:3-6 을 첫 계명으로 말하고 열 가지 항목이 되게 하기 위하여 출 20:17 을 두 개의 계명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4. 개혁신교에서는 오리겐 및 초기의 동방과 서방 교회를 따라서 출 20:3 을 첫 계명으로 삼는다. 이것은 필로와 요셉이 대표하는 고대 유대인들의 견해이었다.

## V. 10 계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

가. 예수께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마 5-7 장에 있는 산상설교에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 5:17-48 이 이 주제의 심각성을 제기한다. 예수님의 설교는 대부분의 경우 십계명 또는 십계명의 적합한 적용에 대한 것으로 여겨진다(즉, 예수께서 성경의 주이시다).

나. 관계성에 대한 이론들

1. 신자들을 위한 것
  - ㄱ. 로이 하니컷, *이 열 가지 단어*

- (1) “우리에게 십계명이 결코 쓸모없게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쓸모없는 분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7 쪽).
- (2)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증거이다. 한편, 십계명의 적절성과 하나님의 관련성이 서로 상당히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상당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계시다면, 십계명도 깊은 적절성을 가진다. 그 이유는 이 계명이 하나님의 성품과 요구를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8 쪽).
- L.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방향성이 이미 형성된 믿음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에서 이 지향성을 제거시키는 일은 그것을 파괴시키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점에서 이 방향성은 보편적이다. 이 지향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내적 증거와도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 사실을 바울이 롬 1:19-20; 2:14-15 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십계명은 내재적 관련성을 지닌 안내의 빛을 모든 인류를 향하여 제시한다.
2. 모든 시대에 걸쳐 각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
- ㄱ. 엘톤 트루블러드, *재건의 기초*  
 “히브리인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적 법의 재발견은 쇠퇴의 여지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해독제 가운데 하나를 발견한 것이라는 점이 이 작은 책의 논지이다”(6 쪽).
- L. 조지 로린슨, *꿀핍 주석, 출애굽기*  
 “그것들은 인간이 언제나 가지는 의무를 축약하여 요약한 것이다. 그것의 표면에 신적 요소를 담고 있어 어떠한 인간 사회에도 적합하며, 세상이 존재하는 한 폐기될 수 없는 내용이다. 크리스찬 공동체가 십계명을 도덕률의 가장 좋은 요약으로 유지시킨 일은 이러한 근거 때문에 당연하다. 또 그 자체가 뛰어난 개요에 대한 강한 증거를 제공한다”(130 쪽).
3.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영적으로 속량하심에 있어서, 십계명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며 구원의 방법이었던 적도 없었음을 확실히 해야만 한다(특별주제: 모세의 율법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보라). 바울이 갈 2:15-4:31 과 롬 3:21-6:23 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십계명은 인간 사회를 위한 도덕적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다음으로 우리의 동료 인간을 가리킨다. 처음 요소를 놓치는 것은 두 쪽을 다 놓치는 것이 된다! 변화된 마음이 없는 도덕률은 타락한 인간의 소망이 없는 모습을 제시할 뿐이다(특별주제: 타락을 보라). 십계명의 유효성은 그것이 우리의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점에

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십계명은 속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쓸모없는 지침이 될 뿐이다!

## 참고도서

차일드, 브레바드 S. *출애굽기, 구약 도서*.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출판사, 1976.

코올, R. 알란. *틴델 구약 주석, 출애굽기*. 다운너스 그로우브, 일리노이스, 1973.

데이빗맨, 조이 산 *위의 연기*.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웨스트민스터 출판사, 1954.

하니컷, 로이 L. *이 열 단어들*. 내쉬빌, 테네시: 브로드만, 1966.

후아이, F. B. 주니어. *출애굽기 연구안내 주석*. 그랜드래피즈, 미시간: 존더반, 1977.

### 특별주제: 모세의 율법에 대한 바울의 견해

- 가. 이것은 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참조, 롬 7:12,16)
- 나. 이것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이것은 저주가 될 수 있다, 참조, 갈 3 장)
- 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여전히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바울은 신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종종 구약을 인용한다)
- 라. 신자들이 구약을 통해 깨닫게 되지만(참조, 롬 4:23-24; 15:4; 고전 10:6,11), 구약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참조, 행 15 장; 롬 4 장; 갈 3 장; 히브리서)
- 마. 이것은 새 언약에서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축복과 영원히 거함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신학적 내용의 범위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 바울이 가진 생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제임스 스튜어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울의 사상과 글에 나타난 역설적 모습에 대해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나타내게 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교리의 체계를 구성하려는 사람을 당신은 기대할 것이다. 그가 자신의 주된 개념을 표현하는 구의 사용에 있어서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기를 당신은 기대할 것이다. 당신의 저자가



# 출애굽기 20:1-3

(독자들을 위한 설명. 내가 이전에 십계명에 대하여 저술하였는데 여기서 그 자료를 사용하였다. 양식은 조금 다르다. 온라인 [www.freebiblecommentary.org](http://www.freebiblecommentary.org) 에서 이 장에 가면 13 개의 비디오/오디오 강의가 있다. 처음 파란 색 상자인 “구약 연구” 오디오와 비디오에 있다)

## 문맥적 통찰

### I. 문맥

#### 가. 큰 문학적 단위(출 19:1-23:33)

1. 출애굽은 창 15:13-16 에 있는 예언의 성취이다.
2. 구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주셨다.
3. 출 19 장은 토라를 주시기 위한 영적 준비의 장이다.
4. 열 가지 말씀에 이어 나오는 “언약의 책”(출 20:18-23:33)이 그 내용을 확대시킨다.  
후자는 다음 영역에 있어서의 언약적 삶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담고 있다:(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법전들을 보라)
  - ㄱ. 예배와 의식
  - ㄴ. 민사법
  - ㄷ. 도덕법과 종교법

### 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법전들

#### 가. 로랜드 드보는 *고대 이스라엘*, 제 1 권, 143-144 쪽에서 구약의 법전을 열거한다:

1. 십계 – 출 20:2-17; 신 5:6-21
2. 언약 법전 – 출 20:22-23:33
3. 신명기 법전 – 신명기 12-26 장
4. 성결 법전 – 레위기 17-26 장
5. 제사 법전 – 레위기 1-7, 11-16 장

이 모든 법전은 *토라*로 여겨졌다. 이 법전들은 어떤 행위나 태도에 대해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말한다.

#### 나. 이스라엘 법의 유형

1. 결의론적 법 – 이 법은 “만일... 하면 그때는”의 구조를 갖는다.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가 따른다. 이것은 대개 사회적 관행을 규정짓는다.
2. 필연적 법 – 이 법은 일반적인 금지사항을 말한다(대개의 경우 2 인칭 복수형으로 말해진다 – 너희는... 해서는 안된다”). 이 법은 대개 영적 삶을 위한 규정을 다룬다.

#### 다. 문화적 영향

라. 이스라엘의 법은 여러 면에서 이 법전들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공동체의 힘있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자 뿐 아니라

나. 전후의 문맥

1. 십계명은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앞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이고 뒷 부분은 그의 동료인 언약적 동반자에 대한 내용이다. 출 20:1-3 은 수직적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써 시작한다. 다른 모든 사항이 바로 이것에 기초한다—즉, 야웨의 유일하심과 독특하심(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다. 역사적 형태

1. 이 계시는 주전 2000 년대에 속하는 히타이트의 봉신 조약과 문화적 유사성을 가진다(특별주제: 히타이트의 봉신조약을 보라).
2. 이 인칭 단수 명령형(“너는”) 십계명에만 나오는 독특한 요소이다.
3. 고대 근동 문화에 비추어 본 십계명에 대한 좋은 설명을 존 H. 왈튼의 *고대 근동의 사상과 구약*(155-161 쪽)에서 보라.

II. 중요한 용어의 연구

## 첫째로

가. **엘로힘**= “하나님”(BDB 43,KB 48), 이 성호는 구약에서 2,570 번 사용되었다(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다항을 보라)

나. 가능한 어원

1. 관련이 있는 다른 히브리 용어들

ㄱ. **엘**(BDB 42, KB 48) = 아마 “강한 분”을 뜻하는 아카디아 어근임(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가항을 보라)

ㄴ. **엘라**(아람어 형태임)  
(주로 에스라 4-7 장과 다니엘서 2-6 장에 나옴)

ㄷ. **엘로아**(단수)  
(주로 욥기에 나옴)

2. **엘로힘**(이 성호는 구약에서 2,570 번 사용되었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다항을 보라)

ㄱ. 복수형(다음 항목의 번역을 위한 가능성이 있음)

- (1) 야웨를 대표하는 통치자, 재판관
- (2) 신적 존재, 즉 하나님과 천사들과 다른 신들을 포함함

ㄴ. 강조적 복수형(다음 항목의 번역을 위한 가능성이 있음)

- (1) 남신 또는 여신
- (2) 신과 같은 자

다. 랍비들은 **엘**이나 **엘로힘**은 창조주, 재판장, 물질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참조, 창 1 장)-전능하신 하나님!

## 둘째로

가. 야웨 = “여호와,” 이 성호는 구약에서 5,500 번 사용되었다(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라항을 보라)

(이 성호의 약어형이 출 15:6; 17:16; 사 12:2; 20:4; 38:11; 및 시편에서 35 회 나옴)

나. 가능한 어원 – 중요한 본문이 출 3:12-15 에 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성호가 “~이 있다”라는 히브리 동사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특수한 어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원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다. 번역상의 다양성(출 3:13-17 에 대한 설명을 온라인에서 보라)

1.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출 3:12)
2. “나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출 3:14)
3. “그것이 되게 하실 그 분”(출 3:15)
4. “나는 바로 나인 그 분이다”
5. “나는 바로(who) 나인 자이다”
6. “존재하시는 그 분”
7. “나는 바로(that) 나인 자이다”
8. “나는 바로(who) 나인 자이다”
9.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나는 될 것이다”
10. “여호와”(작은 글자체인 대문자-대부분의 영어역)
11. 70 인역, “나는 살아 있는 자이다”

라. 이 성호는 종종 *엘로힘*과 함께 사용되었다 - 여호와 하나님(창 2:4 에서 처음으로 사용됨).

마. 야웨는 자비롭고, 사랑하시며,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랍비들은 말한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적 약속을 주신 그 분의 특별한 성호이다(참조, 출 3 장).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0:1

יְהוָה אֱלֹהֵינוּ יְהוָה אֱלֹהֵינוּ יְהוָה אֱלֹהֵינוּ

20: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히브리어 본문인 맛소라에서는 “말씀하여”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로힘*이 나온다. 이 어순은 이 명령의 계시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함이다(특별주제: 영감을 보라).

### 특별주제: 영감

“단 한번”과 관련된 믿음은 기독교의 진리, 교리, 개념, 세계관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한다(참조, 벧후 2:21). ‘단번에’에 주어진 강조점은 신약의 책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제한된 영감을 적용하는 성경적 근거가 되며, 또한 이후에 속하는 기록이나 다른 모든 종류의 책을 계시로 여기지 않게 한다. 신약에 애매하고 불확실하며 불분명한 면이 많이 있음에도, 신자들은 믿음과

이 개념은 “계시의 삼각형”으로 불리는 것으로 명확해진다

1.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역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계시)
2.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 저자를 택하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하고 설명하게 하셨다(영감)
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주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이러한 기록을 이해하여(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님) 구원을 받으며 또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조명)

이것의 핵심은 영감이 성경의 저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성경 이외에는 어떠한 권위를 가진 기록이나 비전이나 계시가 없다. 정경은 마쳐졌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고

그러 기때 시계 한기에 피우하 모든 지킴의 기지크 이다

#### 개역개정 20:2

이 는 나 를 세 구 땅 중 되 었 던 집 에서 인 도 하 여 낸

20:2 “나는 ... 여호와니라” 이것은 유대교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여겨진다. 이 계명들은 믿고 응답하며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지(참조, 출 6:2) 아무 사람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 계명들은 언약에 따른 믿음의 관계에 기초한다(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야웨께서는 은혜로운 역사적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다(출 13:3). 야웨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이 구속의 일을 행하겠다고 친히 말씀하셨던 바(즉, 창 12:1-3; 15:1-21)를 그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능가한다;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구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같은 시기에 속하는 히타이트 조약의 전형적 특징이다. 십계명은 이 시내 산 사건의

역사성을 확립한다(특별주제: 히타이트의 봉신조약을 보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사랑하시며, 인격적이시며, 관련을 가지시는 분이심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참조, 시 81:9-11). 이 사실은 신학의 모든 장을 제공한다.

### 개역개정 20:3

31 너는 나 이외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부정된 2 인칭 단수 미완료형이 사용되어 강력한 명령을 나타냄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이며 단순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와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필연적 법; 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법전들을 보라).

“신들”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복수형 단어와 똑 같다(창 1:1 의 *엘로힘*). 이것을 단수형 또는 복수형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용어를 야웨에 대하여 사용할 때는 언제나 단수형으로 번역한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완전한 유일신 신앙의 초기적 선언이다(사 45:5; 46:1-2). 여러 신들을 섬기다가 한 가지 신을 섬기는 변화를 이집트에서도 볼 수 있다—바로 아메노피스 IV 세 또는 아케나텐(참조, 신 4:35,39; 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

▣

NASB, NKJV,

NRSV, LXX “내 앞에”

NRSV 각주,

JPSOA, REB “내 곁에”

TEV “나외에는”

NJB “나의 적수로”

페쉬타 “나를 제외하고는”

이 구는 고대 세계에서 두 번째 부인을 취하는 것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야웨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족적인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이 용어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종종 함께 나온다(참조, 출 20:5; 34:14).

어떤 이는 이 구가 문자적으로 “내 얼굴 앞에”이므로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 절의 의미는 “오직 나만 예배하고 섬겨라!”일 것이다. 하나님의 배타성에 있어서 평행을 이루는 본문은 출 22:20; 23:13; 34:14; 신 13:2 이하의 내용이다.

### 역사적 및 문화적 통찰

- 가. 이 십계명은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히타이트의 봉신 조약도 마찬가지이다(즉, 신명기서와 수 24 장). 그러나 이 법은 필연적인 형식(이 인칭, 단수형 명령)인 점과 다신교적 견해를 거부함에 있어서 독특하다.
- 나. 이 양식은 모세의 법에서 핵심에 있다. 십계명은 다소 변이가 있는 형태의 신명기적 평행본문이 나타내듯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거쳐서 각색되고 확장되며 적용되었다(참조, 신 5 장).

### 신명기서의 평행본문

- 가. 신 5:1-5 에 나오는 서론의 중요성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 1. 신 5:1 에 나오는 동사인 “들으라”는 “행하기 위해 듣다”를 뜻하는 *שמע*이다(참조, 출 6:4). 모든 면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였다.
  - 2. 신 5:3 의 중요성은 언약의 역동적인 지속적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각 세대가 이것에 응답하여야 했다. 이것은 죽은 글자에 지나지 않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 3. 신 5:5 에서는 율법을 수령함에 있어서 모세가 행한 중보자적 사역을 강조한다. 한편, 율법의 참된 저자는 야웨이심이 드러난다.
  - 4. 신 6:6-9 도 중요한데,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물론 자신들의 믿음을 자녀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 현대적 적용

- 가. 히브리 본문과 관련이 있는 신학적 요점은 다음과 같다.
  - 1. 이 계명들은 야웨의 권위를 나타낸다(참조, 출 31:18). 이 계명들은 야웨의 성품을 계시할 뿐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인간과 인간 사회를 향한 목적을 제시한다.
  - 2. 2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대로 은혜를 따라 행하셨음을 나타낸다(창 12 장; 15 장; 17 장; 22 장).
- 나. 적용점
  - 1. 십계명은 인간의 종교적 배고픔과 필요를 상정한다.
  - 2.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되 철학적 명제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이며 도덕적 존재로 계시하셨다.

3. 인간은 어떠한 대상을 예배하고 섬기게 된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다.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어느 것에 끌리며 그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당신의 우상들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섬기며 예배한다:

- ㄱ. 개인주의
- ㄴ. 국가주의
- ㄷ. 교단주의
- ㄹ. 물질주의
- ㅁ. 쾌락
- ㅂ. 안전주의/사회
- ㅅ. 과학과 기술
- ㅇ. 지식주의

### 생각할 질문

1. 출애굽기 20 장은 신명기 5 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2. 십계명이 고대 근동의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와 어떻게 다른가?
3. 하나님의 성호인 *엘로힘*과 야웨는 각각 어떻게 다른 강조점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하라.
4. 단일신 주의와 유일신 주의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라.

# 출애굽기 20:4-6

## 문맥적 통찰

### I. 문맥

- 가. 출애굽기 20 장의 처음 11 절이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자세가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과 모두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 나. 사람이 드리는 예배 뿐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이 야웨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유무를 나타낸다.
- 다. “율법”이라는 장르에 대한 좋은 설명을 다음 자료에서 보라
  - 1. 리차드 E. 아벤벡, “율법,” *구약의 법전을 분석함*의 113-138 쪽
  - 2. 더글라스 스튜아트, “율법(들):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적 규정”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163-180 쪽).

### II. 중요한 용어의 단어 연구

#### 첫 번째

- 가. “우상” 또는 “형상”(BDB 820), 출 20:4
- 나. 가능성이 있는 어원은 “쪼아내다” 또는 “쪼아서 모양을 만들다”(나무나 돌을)이다.
- 다. 번역상 나타난 다양성
  - 1. “새긴 형상”
  - 2. “조각된 형상”
  - 3. “우상”

#### 두 번째

- 가. “섬기다”(BDB 712, KB 773, *호플 미완료형*), 출 20:5
- 나. 가능성이 있는 어원

1. “일하다” 또는 “섬기다” – 이것은 제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김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다. 같은 용어가 땅에서 일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것을 알 수 있다. 이 단어는 세 가지 대상에 대한 섬김을 말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사람, 거짓 신들, 야웨.
2. 같은 어근이 “중,” “노예,” 또는 “백성”을 의미할 수 있다.

다. 번역상 나타난 다양성

1. “섬기다”
2. “예배하다”
3. 70 인역 – “섬기다” – 헬라어에서는 인간을 섬기는 것과 신을 섬기는 것을 구분하였다. 이 단어는 성스러운 섬김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세 번째

가. “질투하는” 또는 “열성적인”(BDB 888), 출 20:5

나. 가능성이 있는 어원

1. 명사 - “얼굴이 붉게 되다”
  - ㄱ. 질투하는 – 잠 6:34
  - ㄴ. 열심 – 민 25:11; 왕하 10:16
  - ㄷ. 대적함- 전 4:4; 9:6
  - ㄹ. 전투에서의 열심(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 사 42:13; 62:15; 속 1:14; 8:2
  - ㅁ. 분노하는 열심 – 겔 35:11; 시 119:139; 욥 5:2
2. 동사 – 이 동사형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나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사용되었다 – 출 20:5; 34:14; 신 4:25; 5:9; 6:15

다. 번역상 나타난 다양성

1. “열정적인”
2. “열정의”
3. “열심”
4. “매우 소유욕이 강한”
5. 70 인역 – “질투하는” 또는 “열심”

- 라. 이 용어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다른 여러 용어와 마찬가지로, 친밀한 가족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서 왔다.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을 호 2-3 장과 11 장에서 명확히 볼 수 있다.

#### 네 번째

가. “죄악”(BDB 730), 출 20:5

나. 가능성이 있는 어원

1. “구부리다” 또는 “뒤틀다”
2. “길에서 벗어나다”
3. 이것은 아주 자주 사용된 용어로서 영어역에서는 “죄악”으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세 가지 용법을 가진다
  - ㄱ. 죄악
  - ㄴ. 죄책감
  - ㄷ. 죄악의 결과 또는 죄악에 따른 형벌

다. 번역상 나타난 다양성

1. “응징하는”
2. “벌하는”
3. “죄책”
4. 70 인역 – “배상하는”

#### 다섯 번째

가. *헤세드* - “친절함” 또는 “선함”(BDB 338), 특별주제: 인자한 사랑(*헤세드*)을 보라, 출 20:6

나. 가능성이 있는 어원

1. “친절하다” 또는 “선하다”
  - ㄱ.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 대개의 경우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하여(참조, 삼상 20:15; 삼하 16:17; 시 141:4; 잠 19:22; 20:6); 특별히 낮고 불쌍하며 도움이 없는 자에 대한 친절을 뜻함(참조, 잠 20:28; 욥 6:14)
  - 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친절과 긍휼하심
    - (1) 언약적 사랑
      - (ㄱ) 대적들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심, 창 19:29; 39:21; 출 15:13
      - (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심, 시 6:5; 86:17; 욥 10:12

- (ㄷ) 영적 생명을 활기있게 하심, 시 109:26; 119:41,76,88,124, 149,159
- (ㄹ) 죄에서 속량하심, 시 25:7; 51:3
- (ㄴ) 언약을 지키심, 미 7:20; 신 7:9,12
- (2) 종종 야웨의 다른 성품과 함께 제시됨(진리, 신실하심, 의로우심, 친절하심, 성실하심, 참조, 창 24:17; 시 25:20; 40:22; 57:4; 61:8; 85:11; 115:1; 138:2);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구약)
- ㄷ. 하나님께서 친절하심의 범주
  - (1) 풍성하고 많으심, 민 14:18; 느 9:17; 시 86:5; 103:8; 온 4:2
  - (2) 그 정도가 크심, 출 34:7; 민 14:19; 시 145:8
    - (ㄱ)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른다, 출 20:6; 신 5:10; 7:9
    - (ㄴ) 하늘에까지 다다른다, 시 57:11; 107:11
    - (ㄷ) 땅이 인자하심으로 충만하다, 시 33:5; 119:64
  - (3) 영원하심, 대상 16:34,41; 대하 5:13; 7:3,6; 20:21; 스 3:11; 시 100:5; 106:1; 118:1,2,3,4,29; 136:26
- ㄹ. 이스라엘에 대한 자비하심과 선하심의 행위, 창 32:11; 사 63:7; 시 25:6; 89:2

다. 번역상 나타난 다양성

1. “친절하심”
2. “공홀하심”
3. “불쌍히 여기심”
4. “호의”
5. “선하심”
6. “인자하심”
7. 70 인역 - 135 본문에서 “공홀하심”으로 번역하였다(출 20:6 은 이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임)

라. 랍비들의 통찰 – 이것은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과 관련을 가지는 특별한 용어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며 친절하시며 자비하심을 인간이 경험한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본을 따라 자신의 언약적 동료에게 행해야 한다(참조, 미 6:8; 7:18).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0:4-6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20:4a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부정문이 강조적으로 제시된다. 종교적 인간은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영적세력’을 자신이 조정하려는 경향과 미신적인 경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야웨를 정령숭배의 수준으로 낮추거나 피조물에 의하여 조종될 수 있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그는 이교도들이 섬기는 바 조악한 피조물인 땅의 것들과 구분이 되신다! 우상은 대개 여러 가지 신들 가운데 하나를 대표하여 나타내었다. 각 신은 대개 자연의 단 한 가지 면만을 대표하였다. 홀로 참 하나님이신 야웨께서는 단 한 가지 형태로서는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으셨다. 그래서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것도 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시지(참조, 신 4:12,15-18) 어떤 물질적 존재가 아니시다(요 4:24);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신약).

**20:4b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스라엘이 그룹들, 황소, 백합, 석류를 성소에서 사용하였고 모세가 놋뱀을 만든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모양인 것으로 보인다. 이 본문이 앞의 명령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야웨를 예배함에 있어서 다른 신들을 상징하는 어떤 모양도 그 옆이나 앞에 둘 수 없으며 그런 것이 야웨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제시해서도 안됨을 의미한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은 이 명령을 위반한 일이었다(참조, 출 32 장).

이 본문은 우주가 3 층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묘사적 표현일 뿐이다. 이 본문은 오늘날의 과학과 상충되지 않는다. 이것은 후자보다 앞선 시대의 표현으로서, 은유적 지칭을 사용하여 물질세계의 질서를 제시하였을 뿐이다(즉, 현상학적 표현).

**20:5a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출 20:3 의 내용을 말한다(즉, 우상들). “절하다”(BDB 1005, 문자적으로 “엎드리다”)와 “섬기다”(BDB 712)라는 두 히브리 용어는 종교적 예배 행위와 관련을 가진다.

▣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세 가지 주요 용어의 어원적 의미에 관한 내용을 보라: “야웨,” “*엘로힘*,” “질투하는.” 이 “질투하는”은 또 다른 가족적 용어로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한다(참조, 호 1-3 장). “질투하는”이라는 용어가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여러 평행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참조, 출 34:14; 신 6:14-15; 수 24:19). 신명기 4:15-19에서는 아무런 형상도 볼 수 없었던 시내 산 계시에 비추어 이 명령을 설명한다.

**20:5b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은 가족이 행한 죄(특히 다세대 가정에서)와 사회적 죄(참조, 출 34:7)의 결과를 자손이 거둠을 시사한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단지 죄의 결과 뿐 아니라 죄악된 삶도 전해준다(참조, 렘 16:10-12).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개인의 책임에 대한 구약적 강조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참조, 신 24:16; 왕하 14:6; 렘 31:29,30; 겔 18:1-4). 마지막 단계에 흑백으로 분명한 대조가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다. 우리가 야웨를 알며 사랑하며 따르든지, 아니면 야웨를 미워한다고 말하게 되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홀로 참 하나님이신 창조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중간한 회색지대는 없다!

▣ **“나를 미워하는 자의”** “미워하다”(BDB 971, KB 1338, *칼* 능동 분사)라는 용어는 비교를 나타내는 히브리 관용어이다(참조, 창 29:31-33; 신 21:15; 말 1:2-3; 눅 14:26; 요 12:25).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2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을 신 5:10; 7:9 과 비교하여 보라. *헤세드*라는 어원에 대하여 설명한 단원을 보라.

▣ **“천 대까지”** 신 7:9 본문에 나타난 히브리 평행법을 고려할 때 “천 대”는 분명히 천 세대를 가리킨다; 특별주제: 천(*אלפים*)을 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의 진정한 관계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응답을 가져온다! 순종이 중요하다(참조, 눅 6:46; 특별주제: 지키다를 보라). 그렇지만 이 순종은 그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영역에 있어서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 것을 뜻한다(참조, 신 30:6).

▣ **“계명”**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보라.

## 생각할 질문

1. 우상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가?
2. 이 본문에서는 예술이 죄악된 것이라고 시사하는가?
3. 이 본문에서는 우주가 3 층으로 되어 있다고 가르치는가?
4.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

5.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두 성호—(1) 야웨 (2) 엘로힘—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 출애굽기 20:7

### 문맥적 통찰

#### I. 중요한 용어의 연구

##### 첫 번째

가. “이름”(BDB 1027) – 이것은 “이름”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이며 구약 전체에서 두루 사용되었다.

나. 가능한 어원 – 어근이 확실하지 않다

다. 특별한 용법

1. 이것은 다음 사항을 뜻하는 일반적 용어이다
  - ㄱ. 사람의 이름(노아의 아들 셈의 경우처럼)
  - ㄴ. 사람에 대한 평판, 명성, 명망
2. 이 용어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가리키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이름(특별히 야웨라는 성호 또는 그 성호와 의 조합어)은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드러낸다; 특별주제: 야웨의 “이름”을 보라(구약). 이 특별한 언약적 성호는 후에 유대교에서 아주 거룩하게 여겨져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을 레 24:11 과 시 75:2 에서도 볼 수 있다.
3. 이 용어는 거짓 신들에 대하여 가끔 사용되었다(참조, 출 23:13; 욕 23:7; 호 2:19; 시 16:4).
4. 이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를 기억하는 일을 나타낸다(참조, 삼하 8:15; 사 55:13).

##### 두 번째

가. “비어 있음” 또는 “헛됨”(BDB 996)

나. 특별한 용법

1. 비어 있음, 아무 것도 없음, 헛됨, 참조, 시 60:13; 108:13(23 회 사용됨)
2. 말의 헛됨, 참조, 잠 30:8; 시 12:3; 41:7; 144:8,11; 사 59:4; 겔 13:8(14 회 사용됨)
3. 사람의 헛됨, 쓸모없는 인간, 참조, 시 26:4; 욕 11:11(5 회 사용됨)

다. 번역의 다양성

1. 영어역 - “가볍게 취급하다,” “경솔히,” “그것을 오용하는 일,” “모독함”
2. 70 인역 - “헛된,” “유익이 없는,” “쓸모없는”

세 번째

가. “죄 없다 하다”(BDB 667, KB 720, *피엘* 미완료형), 출 20:7

나. 특별한 용법

1. *니팔* 미완료형 - “처벌을 받지 않다”
2. *니팔* 완료형
  - ㄱ. 깨끗하게 되다; 정하게 된 - 사 3:26
  - ㄴ. 깨끗하다, 죄에서 벗어나다 - 렘 2:35
  - ㄷ. 무죄한, 형벌을 면한 - 출 21:19
  - ㄹ. 의무에서 벗어난 - 창 24:8,41
3. *피엘* 완료형
  - ㄱ. 무죄하다고 여기다, 무죄판결하다 - 욕 9:28
  - ㄴ. 처벌하지 않고 놔두다 - 왕상 2:9

다. 번역의 다양성

1. 영어역 - “죄없는,” “처벌받지 않은,” “무죄판결하다,” “깨끗게 하다”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0:7**

**7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20:7a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앞에 있는 두 계명과 명백하게 연결된다. 어떤 이는 이것이 맹세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부르다”(BDB 669, KB 724)가 “들어 올리다”를 뜻하여 마 5:33-34(참조, 출 23:1; 레 19:12)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랍비들은 이 의미로 이해하였다(참조, 요나단의 탈굼, 메킬타, 페쉬타, 라쉬).

나는 “망령되게”(BDB 996, 특별주제: 헛된, 빈, 아무 것도 없음을 보라)가 일상적인 대화나 행동은 물론 삶의 두 영역에서 주님을 경술하고 경박하게 대하는 자세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두 영역으로는 법적(증인으로서 맹세함, 참조, 레 19:12)인 것과 예배(주의 이름을 부름)가 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야웨(특별주제: 야웨의 “이름”을 보라)는 특별하며 거룩한 성호이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목적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바로 이 성호를 줄곧 사용하며 행하셨기 때문이었다. 이 성호를 후기의 유대교에서 상당히 거룩하게 여겼기에 속죄일에 대체사장만 이 성호를 발음할 수 있었다(참조, 레 16 장). 이 성호가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특별한 개념(참조, 신 12:5; 14:24; 마 6:9)은 이 명령의 핵심적 사항이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주석가인 폰 라드는 모빙클과 생각을 같이하여 “마술적 의미”가 이 명령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신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자연과 영적 세력을 좌우하려는 일이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서는 흔히 행하여졌다. 석의적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후기에 우상숭배적으로 이 본문을 남용한 문화적 배경을 통하여 이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오늘날의 마술적이고 주술적 배경에서 야웨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이 명령의 위치가 출 20:4-6 에 있는 목록에서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강조점을 재확인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사회에 있어서 이 명령은 습관적인 믿음—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에 대하여 말한다! 오늘날 실질적인 무신론이 서구의 여러 “기독교” 국가에 나타나고 있다.

**20:7b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처벌이 없는”)**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강조하는 여러 본문에서 나타난다(참조, 출 34:7; 민 14:18; 나 1:3). 이것은 인간이 야웨를 신뢰하고 헌신할 때 야웨께서 기꺼이 그의 죄를 사해주시는 것이지(참조, 신 30:1-10), 그의 죄를 그냥 간과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죄는 심각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요구하였다!

**20:7c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문맥상 이것은 언약의 사람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일은 더 큰 잘못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이름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삶과도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성호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 모든 인류의 속량을 반영하기 때문이다(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 생각할 질문

1.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 상당히 중요한가?

2.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문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3. 이에 대한 형벌은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가져오는가?

## 출애굽기 20:8-11

### 문맥적 통찰

#### I. 배경

- 가. 이것은 처음으로 나오는 두 가지 긍정적 명령이다.
- 나. 이 처음 계명은 신명기 5 장에 나오는 것과 차이가 있다.
- 다. 신명기에 나오는 계명은 신 5:1-11 에서 명확히 볼 수 있듯이 출애굽기 20 장의 계명과 분명하게 평행을 이룬다.
- 라. “듣고 행하라”를 의미하는 *שמע*(BDB 1033)라는 동사가 신명기의 두 곳(신 5:1; 6:4)에서 나오고 있음은 중요하다. 또한 신 6:6-9 에서 제시하는 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점은 다음 세대에 있어서 중요하다.
- 마. 출 20:8-11 에서 안식일은 지키는 것의 강조점을 창조에 두고 있지만, 신 5:12-15 에서는 출애굽에 두고 있다. *אלוהים*(즉, 창조주)과 야웨(즉,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호 또한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 II. 중요한 용어에 대한 단어 연구

##### 첫 번째

가. “안식일”(BDB 992), 특별주제: 안식일(구약)을 보라, 출 20:8

나. 가능한 어근

1. 그치다, 그만두다, 쉬다
2. 중지

다. 다양한 용법

1. 안식일, 출 16:25; 20:10; 신 5:14
2. 속죄일, 레 16:31; 23:32
3. 안식년, 레 25:4; 26:34,43; 대하 36:21

라. 번역의 다양성

1. “안식일”
2. “제 칠일”(특별주제: 성경에서의 상징적 수를 보라)

두 번째

가. 카도쉬= “거룩한” = 하나님께 사용하기 위하여 구별함(특별주제: 거룩함을 보라), 출 20:8

나. 특별한 용법

1. 하나님께서 떨어져 계심, 성스러우심, 거룩하심(특별주제: 거룩한 자를 보라)
2.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장소
3. 거룩한 장소와 접촉한 물건
4. 거룩한 장소나 물건에 접촉하여 거룩해진 사람
5. 예배를 위하여 정해 놓은 시간, 창 2:3; 출 20:8,11
6. 예식적으로 정결하게 된 물건과 사람

다. 관련을 가진 용어

1. 성스러운, 거룩한
2. 구별해 놓은 또는 봉헌한
3. 성소
4. 거룩한(출 20:8 에서만 사용됨)
5. 거룩한 장소
6. 구별해 놓은(다니엘 4 장과 5 장에서만 사용됨)

라. 번역의 다양성

1. “거룩한”
2. “신성하게 하다”
3. “그것을 거룩하게 하다”

4. “일반적인 사용에서 회수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 세 번째

가. “객”(BDB 158, 출 20:10)

나. 용법

1. 제한된 권리를 가진 일시적 거주자
2. 1 항과 같지만,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

다. 번역의 다양성

1. “체류자”
2. “낯선 사람”
3. “이방인”
4. “집에 있는 객”

### 네 번째

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BDB 793, KB 889, *칼* 미완료형)

나. 용법

1. *칼* 동사형
  - ㄱ. 쉬다, 정착하여 남다
  - ㄴ. 휴식하다. 조용히 있다, 휴식을 취하다
2. *히/필* 동사형
  - ㄱ. 쉬게 하다 또는 쉬을 주다
  - ㄴ. 정착하게 하다
  - ㄷ. 놓다
  - ㄹ. 남게 하다
  - ㅁ. 떠나다
  - ㅂ. 버리다
  - ㅅ. 가만 놓아두다
  - ㅇ. 허용하다
3. *호/필* 동사형
  - ㄱ. 어떠한 쉬도 허용되지 않다

## L. 개방된 장소

다. 안식일 용법과 관련을 가진(참조, 창 2:2,3; 출 16:30; 23:12; 31:17; 34:32; 레 26:34,35)

### III. 역사적 발전

#### 가. 안식일

1. 이 날이 바벨론의 달축제인 *샤팍투*(“만월일”)와 관련을 가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7 일씩 구분하는 것은 음력과는 관계가 없다. 게다가 바벨론에서 제 7 일, 제 14 일, 제 19 일, 제 21 일, 제 28 일을 불운한 날로 여겼기에 대중들은 이 때에 모든 활동을 자제하였다.
2. 이 날이 겐 족속이 금기시한 날과 관련을 가진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축제일로서의 안식일과는 달리, 그들도 이 날을 악한 날로 여겼다. 이 겐 족속 이론은 야웨를 섬기는 것이나 안식일과 어떠한 관련이나 증거도 가지지 못한다.

#### 나. 칠일로 이루어진 일주일

1. 이집트에서는 30 일로 이루어진 주기를 10 일 단위로 나누었다.
2. 음력은 대략 29와 1/2 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7 일로 나누기는 자연스럽지 않으며 쉽지도 않다. 보름이 대략 달의 15 일에 해당하는데, 앗시리아와 바벨론에서는 이 날을 *샤팍투*로 불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중요한 축제일은 제 15 일이 아니라 제 19 일 또는 제 14 일이었다.
3. 창세기 2 장에 제시된 강조는 7 일로 일주일을 구분하는 일이 상당히 오래된 것임을 뒷받침한다. 불행하게도 이 구분에 대한 것을 제사 및 할례의 기원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오래 전에 잃어버렸다.
4. 칠일로 이루어진 일주일의 개념에 대한 기록은 출 16:22 이하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 IV. 신약과의 관계

가. 유대인들은 이것을 딱딱하게 경직된 규정으로 여기는 율법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구약의 다른 모든 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가지고 있다. 구약에서 어떠한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이러한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막 2:27 과 마 27:8 에서 규칙이 아니라 사람에게 강조점을 두셨다!

나. 교회는 주일을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1. 회당과 교회의 분리가 더욱 커짐
2. 예수께서 이전에 여러 번 연속적으로 주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나타나신 일(참조, 요 20:19,26)
3. 부활의 중요성은 예배를 드리는 새 날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제공하였다(참조, 행 20:7; 고전 16:2)
4. 칠일 가운데 하루라는 개념이 계속 유지되었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0:8-11

<sup>8</sup>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sup>9</sup>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sup>10</sup>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sup>11</sup>이는 엿새 동안에 나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 20:8 에 나오는 두 동사가 명령형이 아니라 부정사로 되어 있지만, 강한 명령을 시사한다. 안식일은 “첫 열매”나 “장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함을 나타낸다. 칠일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하루는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신명기에서 평행을 이루는 본문에는 이 명령에 약간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지만 주요 진리를 바꾸는 사항은 아니다. 출애굽기 20 장에서는 창조가 그 배경을 이루지만(창 2:3), 신명기 5 장에서는 출애굽이 그 배경을 이룬다.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말한다.

이것은 긍정적 형태를 가진 최초의 계명이다(또한 출 20:12). 이것은 가장 긴 계명이기도 하다. 원래 모든 계명이 짧았다고 우리가 추정한다면, 계명들은 어떠한 확장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짧은 형태의 계명이 나오는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다: 출 23:12; 31:15; 34:21; 계 23:7; 렘 17:27.

안식일을 어기는 일은 사형에 해당되었다(참조, 출 31:14; 민 15:32-36).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범죄이다!

**20:8a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를 행함으로써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다. 이 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하나님의 특별한 사용과 목적을 위하여 구분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특별주제: 거룩함을 보라).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다. 사람들과 장소와 물건과 시간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련에 있어서 거룩하며, 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심과 관련하여서만 거룩하다. 실제적 의미에서, 모든 생명과 피조물이 거룩한데 그 이유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에 연관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됨”을 뜻하는 *카도쉬와 하기오스*라는 용어와 관련을 가지는 특별한 용법이 있다.

안식일은 할례와 마찬가지로 언약의 표였다(참조, 출 31:12-27).

**20:9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BDB 712)**은 타락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참조, 창 3 장). 아담에게는 에덴동산을 돌보는 일이 주어졌다(참조, 창 2:15). 여기서는 일 자체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참조, 출 34:21; 35:2,3), “언제” 일하는가에 그 핵심이 있다. 사람들은 육일 동안만 일할 수 있다(즉, 하나님께서 창조시 일하셨듯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칠일에 안식하셨듯이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인간의 고된 수고는 아담의 반역으로 인하여 임한 땅의 저주와 관련이 있다(창 3:17-19). 우리는 주기적으로 저주의 경감을 누린다. 비록 신명기서의 평행본문에서 이러한 방향을 이미 나타내고 있지만, 레 23:3 에서 안식일이 특별한 예배일로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음을 주목하라. 기독교인들은 이 날이 축제의 날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구약의 문맥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일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지키는 일은 이 날이 축제의 날임을 더 더욱 상기시킨다!

**20:10a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다른 어떤 것 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매일의 교제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매주 드리는 예배는 개인적 관계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도우미의 역할을 실제로 한다. 언약적 성호인 야웨와 개인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인 “네”가 사용되었음을 주목하라.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은 바로 매주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 강조였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출 20:1 에서는 *엘로힘*(복수형)이라는 성호를 사용하였는데, 출 20:2 의 “네 하나님 여호와”에서는 단수형인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다(20:5,7,12 및 이곳).

**20:10b-g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고대 근동에서 아내를 소유물(즉, 개인의 재산, 참조, 신 5:21)로 여긴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목록에서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언뜻 보기에 놀랍다. 제 칠일에 안식하는 것이 창세기 1-2 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창 1:26-27 에 있는 친밀성이 존중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일을 하지 않는다(또는 쉬)는 개념이 히브리서 3 장과 4 장에서 천국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신약의 문맥에서 “안식”은 여러 독특한 의미를 나타낸다.

1. 창조시 제 칠일에 쉼
2. 약속의 땅
3. 천국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짐승에 대하여 배려하시는 특별한 내용이 나온다. 짐승은 사람의 가정을 집합적으로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참조, 수 7:15,24). 하나님께서는 종종 동물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나타내시었다(참조, 창 8:1; 온 4:11). 신명기의 평행본문에서는 “소와 나귀”를 “가축”에 대한 항목에 추가하였다.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은 문자적으로 “너의 대문 안에”를 뜻한다. 이 구는 사회적 공동체와 법적 제도와 종교적 제도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20:11a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계명이 창세기 1 장 및 2 장과 관련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출애굽기 20 장에서는 창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신명기 5 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창 1-2 장에서는 그러한 언급이 없지만 여기서는 “바다”를 야웨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20:11b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날에 “쉬셨고” “복되게 하셨다”(존 H. 왈튼의 *고대의 우주론인 창세기 1 장*을 보라). 신명기에 있는 평행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였다”는 강조의 구를 추가하여 제시한다.

### 생각할 질문

1. 달이나 해를 칠일로 이루어진 주간으로써 구분한 일은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
2. “거룩한”이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주 마다 드리는 예배/쉬는 날과 관련이 있는가?
3. 일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4. 왜 출애굽기 20 장과 신명기 5 장에 나오는 이 계명이 서로 다른가?

## 출애굽기 20:12

### 문맥적 통찰

## I. 배경

가. 이것은 십계명을 다음과 같이 나눌 때 일반적으로 처음 계명을 이룬다:

1. 언약백성과 야웨와의 관계(출 20:1-11)
2. 언약백성과 믿는 공동체와의 관계(출 20:12-17)

나. 이러한 구분은 ‘모든 생명을 종교적 문맥에서 보는 히브리인의 전체적 개념’이 아닌 서구적 구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의구심이 든다.

다. 히타이트의 봉신조약 양식(특별주제: 히타이트의 봉신조약을 보라)에 비추어 볼 때, 십계명이 주제에 따라 구분된다는 일반적 해석, 즉 두 돌판이 이러한 구분을 나타낸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II. 중요한 용어에 대한 단어 연구

### 첫 번째

가. “공경하라” “무겁게 하라”(BDB 457, KB 455, *피/엘* 명령, 한편 *피/엘* 부정사 절대형으로 분해하는 것도 가능함), 출 20:12

나. 특별한 용법

1. *칼* 동사형
  - ㄱ. 무게가 무겁다
  - ㄴ. 감각이 없음이나 우둔함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무겁다
  - ㄷ. 영예로움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무겁다
2. *니팔* 동사형
  - ㄱ. 수동적
    - (1) 무겁게 되다
    - (2) 영예롭게 되다
  - 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다
3. *피엘* 동사형
  - ㄱ. 무겁게 만들다, 감각할 수 없게 하다
  - ㄴ. 영화롭게 하다, 출 20:12
4. *푸알* 동사형 - 높임을 받다
5. *히필* 동사형

- ㄱ. 무겁게 하다
- ㄴ. 둔하게 하다 또는 무감각하게 하다
- ㄷ. 높임을 받게 하다
- 6. *히트파일* 동사형
  - ㄱ. 자신을 무겁게, 진하게, 수가 많게 하다
  - ㄴ. 자신을 높이다

- 다. 번역의 다양성
  1. “영예롭다”
  2. “배려하다”
  3. “마땅한 무게를 주다”

#### 두 번째

가. “연장하다,” BDB 73(참조, 창 26:8; 출 20:12)

- 나. 관련이 있는 히브리 용어
  1. 지연시키다 또는 길게 하다(참조, 사 5:28)
  2. 수나 양이 많다(참조, 신 14:25; 19:6; 삼상 7:2)

- 다. 번역의 다양성
  1. “긴”
  2. “연장하다”
  3. “길게 하다,” “견디다”
  4. “일생의”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0:12

20:12a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20:12a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라는 용어는 “마땅한 무게를 주라”를 뜻한다. 이것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은 가치가 있고 존경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영광”이라는 용어의 용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가벼운 것은 “헛된”이라는 용어의 용법과 마찬가지로 존경하지 않음을 뜻한다(참조, 신 27:16).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도 존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 본문은 족장사회의 체계에서 조차도 부인이 존중을 받았음을 나타낸다(참조, 잠 31 장).

부모는 신 6:6-9 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권위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는 언약에 대한 내용을 훈련시킬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레 29:3 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인 “경외하다”를 부모에게 대하여도 사용한다. 부모는 물론 노인들도 공경해야 한다(레 19:32). 종종 선생을 부모로 학생을 아들로 불렀다(참조, 창 1:24; 잠 1-9 장).

한 지붕 아래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의 문맥에서 볼 때, 계명이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해당되었다! 공경하는 일은 평생하여야 할 일이다(참조, 딤후 5:4,8). 이것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돌봄의 자세에 대한 것이다.

**20:12b “그리하면 . . .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문장이 신 4:40 과 5:33 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개인의 장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가족의 안정과 사회적 안정과 관련을 가진 사회적 약속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이는 엡 6:2 과 신 6:2 을 인용하고 또 “자기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는 아들은 그가 그렇게 한 일의 결과로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아들은 그가 순종함 때문에 행복해 질 것이다; 그는 장수할 것이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고 가르친 이집트의 현인 프타홀렛의 말에 근거하여 이 내용이 개인의 장수를 가리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개인의 장수는 안정되고 경건한 사회를 통하여 누리는 부산물이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은 항상 그들이 언약을 지키는 일과 관련을 가졌다!

이와 정반대로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 출 21:15,17; 레 20:9 에 나온다. 불순종의 결과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이다(참조, 레 26 장; 신 21:18-22). 예수께서는 당시에 이러한 남용에 대하여 깊이 지적하셨다(참조, 마 15:3-9).

**20:12c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 장, 15 장, 17 장, 22 장에서 주신 언약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1) 땅과 (2) 자손이다. 구약에서는 땅을 강조하지만 신약에서는 자손을 매우 강조한다. 이 절에서도 출 20:2,5,7,10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많은 주석가들이 언급한다. 이 본문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를 다룬다. 이후에 있는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어떤 이는 이 계명이 우리의 수직적 관계를 다룬 계명에서 우리의 수평적 관계를 다룬 계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한편, 이 절은 주로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을 가진다. 이 태도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우리 인생의 대표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로 나타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에서 어떻게 행하는가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 관계에서 똑 같이 나타나야 한다. 잃어버려진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알려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참조, 출 19:6; 뱀전 2:5,9; 계 1:6). 믿는 가정의 누리는 기쁨과 안정성은 혼란 속에 있는 세상에 희망의 밝은 빛을 제공한다.

## 생각할 질문

1.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2. 이 계명은 특별히 대가족 제도에서 얼마만큼 중요한가?
3. 이것은 개인에 대한 약속인가 아니면 사회에 대한 약속인가? 왜 그러한가 또는 왜 그렇지 않은가?
4.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출애굽기 20:13

개역개정 20:13

13 살인하지 말라

## 문맥적 통찰

### I. 문맥

- 가. 사회적 영역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는 계명도 실제로는 종교적인 내용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속량을 이러한 계명에서 시사하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 핵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며(참조, 창 1:26,27) 또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낸다.

나. 각 계명이 믿음 공동체에 대한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목숨을 불법적으로 끊어버리는 일을 금하는 것은 원래 믿음의 공동체에 둔 초점을 전적으로 나타낸다. 이 계명의 함축적 의미는 인간 생활의 다양성만큼 광범위하다!

## II. 중요한 용어에 대한 단어 연구

가. “살인하다” – 생명을 취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드물게 사용된 용어(*라차흐*, BDB 953, KB 1283)로서 구약에서는 45 회만 나온다.

나. 이 용어(*라차흐*)는 제한적인 원래의 의미와 확대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1. 원래 이 용어는 언약의 동반자의 생명을 합법적이며 계획적으로 죽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종종 “친족인 피의 복수자”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이 용법은 법적으로 원수를 갚는 의미에서 고의성을 가진다(참조, 민 35:30-34; 레 24:13-23). 사실상,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형법(참조, 창 9:5-6)은 원수 갚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후에 설정된 도피성(신 4:41; 수 20:3)은 사고나 걱정으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을 죽인 언약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가족의 분노로부터 도망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2. 후기에 이 용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의 동기나 태도를 나타내게 되었다. “고의성”이라는 개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참조, 출 21:12-14; 민 35:11,22; 신 28:24).
3. 이러한 구분이 이 명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문맥에서 볼 때, 이 계명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친족인 피의 복수자에 관한 것이다. 한편, 후기에 속하며 십계명을 반영하는 본문인 호 4:2 과 렘 8:9 에서는 이 용어가 살인자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법은 물론 동기도 다룬다. 이 계명의 범위는 이웃을 뜻하는 것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다. 이 용어는 명백히 사형제도(참조, 출 21:12-17)나 전쟁(참조, 신 20:10-18)이라는 오늘날의 윤리적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유대인들은 공동체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나 거룩한 전쟁(또는 그 점에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한 문제를 전혀 가지지 않았다.

라. 오늘날의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이 계명이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III. 문맥적 통찰

- 가. 여섯 번째 계명과 일곱 번째 계명과 여덟 번째 계명은 각각 단 두 개의 히브리 단어로 이루어졌다. 각 계명이 매우 간략하며 명료하다.
- 나. 모든 생명이 하나님과 관련을 가진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을 나타낸다.

#### IV. 신약에서의 평행 본문

- 가. 예수님
  - 1. 이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참조, 마 5:21-26)은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를 제공한다.
  - 2. 예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을 행동의 영역에서 동기의 영역으로 옮기셨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우리의 참 모습이다! 삶에서 생각의 영역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상관성 및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 나. 요한
  - 1. 요한일서 3:5 - 미워함을 살인으로 여기는 똑같은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 2. 마 5:21 이하와 요일 3:5 에서 사용한 헬라 용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같다.
  - 3. 요일 4:19-21 에 나오는 긍정적 면을 주목하라.

#### V. 적용할 진리

- 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피의 복수자로부터 피할 수는 있었지만(참조, 민 35 장; 수 20 장), 대제사장이 죽는 때까지 그 성에 갇혀지냄으로써 그는 벌을 받아야만 했다. 그가 행한 일의 결과가 여전히 남아 있다!
- 나. 이 절의 내용은 자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특별주제: 자살을 보라). 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본문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하여 어떤 영적 원리를 여전히 제시한다. 이 본문은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력히 말한다.

- 다. 한편, 이 본문에서는 (1) 사형제도나 (2) 전쟁에 관한 현대인의 질문에 대하여 단호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모두 관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생명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원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를 이룬다.
- 라. 이 본문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가진 존엄성과 신성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믿는 공동체에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에 대하여 청지기들이다. 생명은 개인과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학대에 대하여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학대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 곧 어떤 것에 대하여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다!

## 출애굽기 20:14

개역개정 20:14

14 가오랴지 마라

### I. 문맥

- 가. 이 명령이 ‘이웃의 생명, 부인, 자산을 존중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존중과 관련을 가짐은 분명하다(참조, 렘 5:8). 70 인역에서는 이 계명들이 다른 순서로 되어 있어 이 사실을 입증한다.
- 나. 신명기에 있는 평행본문은 이 고대의 진리를 우리의 문화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임을 나타낸다.
- 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이 계명도 안정된 사회를 이룸에 있어서 열쇠가 된다.
- 라. 이 계명에서도 우리의 성생활과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인되시며 이를 주관하심을 시사한다.

## II. 단어 연구

이 본문에서 중요한 용어는 “간음”이다(*나아프*, BDB 610, KB 658). 이 계명을 고대 히브리 문화에 비추어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가. 이것은 “간음”에 대한 구약의 문맥에서 뚜렷이 제시되는 용어이다. 간음은 결혼한 자의 성적 관계에서 적어도 한 쪽과 관련을 가진다. “간음”이라는 용어는 둘 다 결혼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참조, 잠 29:3; 31:3). 이것은 종종 다산승배적 예배를 나타낸다(참조, 겔 16:15,26,29;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승배를 보라). 신약의 헬라 용어에서는 그 뚜렷한 차이가 사라졌다.

나.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하여 주신 약속과 관련을 가진 상속권의 문제(즉, 수 12-19 장)와 연결이 된다는 점은 결혼한 상태를 왜 강조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 매 50년(희년) 마다 모든 땅이 원래 지파의 소유주에게로 환원이 되었다(참조, 레 25:8-17,23-24; 27:17-24).

다.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간음을 문화적으로 정죄하였다(참조, 창 12:10 이하; 26:7 이하; 39:9).

라. 간음은 다음 사항에 대한 범죄로 여겨졌다

1. 이웃 – 출 20:14; 신 5:18
2. 결혼 – 레 18:20
3. 하나님 – 창 20:2-13; 26:7-11

마. 이 행위에 대한 처벌은 두 편의 사형이었다

1. 레 20:10
2. 신 22:22-24
3. 겔 16:40(은유적 표현)
4. 엄격한 경고가 잠언 1-9 장에 나온다

## III. 신약과의 관계

가. 예수께서는 레 19:18 을 구약의 요약으로 사용하셨다(참조, 눅 10:27). 이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십계명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확증하여 준다.

나. 예수께서는 마 5:28 에서 이 계명을 강화시켜 제시하셨다. 그는 행동보다 동기를 강조하셨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영혼의 모판으로 보았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였는가는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제시한다(잠 23:7).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바로 이것이 십계명의 목적이다!(참조, 갈 2:15-3:29).

#### IV. 오늘날의 적용

가.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의 헌신이 평생 계속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현대적 유추이다(즉, 엡 5:22-33).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 있는 언약적 개념의 실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말 2:14). 우리가 성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절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나. 결혼의 안정성과 충실한 결혼생활은 부모를 공경함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회의 중요한 기둥이다.

다. 인간의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창 1:27,28; 9:1,7). 이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다. 규정들이 있는 것은 인간의 자유나 기쁨을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에게 몇 가지 경건한 지침을 주기 위함이다.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경계의 설정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모든 선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듯이 성생활도 인간이 잘못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배와 안내를 받아야 할 인간의 강력한 추구이다.

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창 1:27), 인간(여자나 남자)의 성스러움을 존중하기 위한 성생활의 지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나”를 강조하는 서구 사회의 타락성은 이 영역에 있어서 분명히 드러난다.

## 출애굽기 20:15

개역개정 20:15

15 드르지 말지 마라

## I. 일반적 사항

- 가. 십계명에 나오는 다른 모든 규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존경은 일상생활의 성스러운 영역과 세속적 영역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언약적 동료를 착취하는 일은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행위이다(참조, 요일 2:7-11; 4:20-21).
- 나. 이 명령은 언약 공동체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러한 영적 교제의 삶을 통하여 ‘혼란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을 찾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된다. 하나님은 성경의 목적이시다.
- 다. 다른 계명이 모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듯이, 이 계명도 그러하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타락된 추구는 이 금지 명령의 배경을 이룬다(참조, 시 50:10-12).

## II. 중요한 용어에 대한 단어 연구

- 가. 이것은 십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며 단 두 개의 히브리 단어로 이루어진 세 번째 명령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BDB 170, KB 198, *칼 미완료형*).
- 나. 이 명령에서 금하는 내용이 제시 되지 않고 있다. 유괴를 말하는 것이라고 대개 생각한다:
  - 1. 이전의 두 계명에서 으뜸가는 범죄에 대하여 다루었다.
  - 2. 직접적인 문맥(출 21:16)과 좀 떨어진 문맥에서(신 24:7) 적용을 위해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 있다. 창세기 37 장도 보라.
  - 3. b. 산헤드린 86a 는 유대적 전통을 반영한다.
- 다. 한편, 짧은 형태의 본문도 지지를 받는다(도둑질하지 말라).
  - 1. 이 계명은 우리를 위하여 영감으로 기록된 내용이다.
  - 2. 이 계명은 경고의 범위를 넓게 가지고 있다.
  - 3. 도둑질과 관련을 가진 가까운 문맥에 평행본문인 출 22:1(유괴하지 말것)이 나타난다. 그러나 20:16 에 대한 설명을 보라.
  - 4. 이 계명이 도둑질에 대한 것이라고 요세푸스와 이븐 에스라가 생각하였다.
  - 5. 예수께서 도둑질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분명히 이 본문을 인용하셨다(참조, 마 19:18).

라. 도둑질을 고대의 다른 법전에서도 다루었지만, 대부분 그 형벌로서 죽음, 신체의 절단, 또는 30 배의 배상을 제시하였다.

마. 이 진리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몇 가지 중요한 평행본문이 있다:

1. 레위기 19:1-18 –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이다”

ㄱ.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분이 가지신 가족적 특성을 반영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참조, 레 19 장).

ㄴ. 바른 동기에 의해 긍정적 행동을 행하고 또 부정적인 일을 금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일상생활에 반드시 영향을 주어야 한다(참조, 레 19 장).

ㄷ.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에 대한 동정(레 19:9-10,13)은 우리로 이웃의 것을 뜯어 먹는 일을 거부하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레 19:11).

2. 아모스 8:4-7 – 하나님께서는 착취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3. 미가 6:6-8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적절한 동기를 원하신다. 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4. 출애굽기 22:1 이하 – 오늘날 강도질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빼먹는 진리는 배상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비용을 언제나 치러야 한다!

### III. 적용할 진리

가. C. S. 루이스의 부인인 조이 데이빗맨은 십계명에 관하여 유쾌한 책을 저술하였다. 그녀는 이 계명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너희는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고서 어떤 것을 가지려 하지 말라.” 이 해석은 확실히 계명의 범주를 소유에 관한 것 이상으로 넓히고 있다. 그녀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산은 죄도 아니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속한 것도 아니다. 단지 하나의 빛, 즉 하나님께서 신탁하신 재산이다.”

나. 도둑질은 타락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종류의 죄와 마찬가지로 새 마음으로써 다루어져야 한다(참조, 렘 31:31-34; 겔 36:26; 엡 4:28). “가지려는” 옛 성품이 “나누어 주려는” 새 성품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가 참으로 놀랍다!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언약의 동반자인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이 진리가 십계명의 배경을 이룬다.

라. 타락한 자들은 여러 방법으로 도둑질한다!

## 생각할 질문

1. 현대인은 어떻게 도둑질을 하는가?
2. 회개와 배상하는 일이 서로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
3. 이 절은 자본주의적 재물관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

## 출애굽기 20:16

### 개역개정 20:16

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20:16 “거짓 증거”** 이 계명(BDB 772, KB 861, 칼 미완료형, 다음 사항과 같음, “살인하다,” 출 20:3; “간음,” 출 20:14; “도둑질,” 출 20:15; “탐내다,” 출 20:17)은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와 관련이 있다(참조, 출 23:1; 신 19:15-21; 왕상 21:8-14). 거짓 증거는 거짓되게 비난받은 사람의 죽음으로 보통 끝났다. 따라서 거짓 증인은 사형을 당하였다(참조, 신 19:15-21). 이것은 언약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일이었다(참조, 출 23:7; 시 101:5). 신자는 자신을 사랑하듯(참조, 레 19:18) 이웃(즉, 언약적 동반자)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구약에서는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요구하였다(참조, 민 35:30; 신 17:6; 19:15). “그가 . . . 말했다, 그녀가 . . . 말했다”는 사건은 이스라엘의 사법체계에서 유효하지 않았다. 두 명의 목격자가 있기 전에는 “무죄라는 추정”이 내려졌다.

## 출애굽기 20:17

### 개역개정 20:17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 가. 서론

1. 마지막 다섯 계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 ㄱ. 제 6 항, 7 항, 8 항은 언약적 동반자를 공개적으로 해치는 일을 금한다.
  - ㄴ. 제 9 장은 언약적 동반자를 말로써(또는 법정에서) 해치는 일을 금한다.
  - ㄷ. 제 10 항은 언약적 동반자를 생각으로 해치는 일을 금한다.
2. 탐내는 행위(BDB 326, KB 325)는 어떤 물건이나 이웃이 아니라 바로 탐내는 자를 해롭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 명령에서는 사고가 행동에 앞서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3. 많은 사람들은 이 명령이 이스라엘의 고대 법전에서만 있는 독특한 것으로서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이해한다. 이 새로운 개념은 생각을 금하는 내용이었다. 이스라엘은 악한 행위가 사고의 영역에서 출발한다고 인식하였다(참조, 잠 23:7; 약 1:14-15). 한편, 이 절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본문에서 “탐하다”라는 용어를 그 행동의 결과와 관련시켜 제시한다(참조, 신 7:25; 수 7:21; 미 2:2).
4. 이 계명의 강조점이 이 목록의 처음 항목과 마지막 항목에 있는 것이라면, 이 명령의 참된 중요성이 드러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지만, 세상의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참된 헌신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두 가지 강조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제시된다(마 6:33)—“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참조, 19-32 절)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나. 단어와 구의 연구

1. 출애굽기 20:17 과 신명기 5:21 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 ㄱ. 출애굽기 20 장에서는 아내가 “집”이라는 커다란 개념에 포함되거나 남자의 재산목록에 들어 있다. 신명기 5 장에서는 아내에 대한 내용이 분리되어 있는(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항목에서 나온다.
  - ㄴ. 출애굽기 20 장에서는 “소유하기를 욕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탐하다”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신명기 5 장에서는 “탐하다”와 더불어 “욕망하다”라는 또 다른 용어가 사용되었다. “탐하다”는 가지기 원하는 대상을 손에 넣으려 행동을 취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의 욕망이지만 “욕망하다”는 자세만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 ㄷ. 출애굽기 20 장은 광야 유랑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기록한 본문으로서 “밭”이 소유물의 목록에 들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 5 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사회에 주는 명령으로서 같은 내용이지만 목록을 조정하여 제시한다.
2. “탐하다”라는 용어는 중립적 용어이다. 이것은 좋은 물건을 가지기 원하는 것도 나타낼 수 있다(참조, 시 19:10; 고전 12:31).

3. 부적절한 욕망은 사탄의 타락은 물론 아담과 하와 및 우리 모두의 타락에 있어서 근원적 원인이다. 바울은 롬 7:7-8 에서 자신이 탐하는 일로 씨름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탐하는 일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불만족과 신뢰의 부족을 기본적으로 나타낸다.
4. 신약의 여러 본문에서 탐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 ㄱ. 사람의 문제는 불만족과 탐욕에 있다(참조, 눅 12:15; 딤후전 6:8-10).
  - ㄴ. 탐욕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사람을 더럽히는 죄의 목록에 들어 있다(참조, 막 7:17-23; 고전 5:10; 엡 5:5; 골 3:5).

다. 적용할 진리

1. 음란한 욕심과 불만족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 ㄱ. 사랑 - 롬 13:8-10
  - ㄴ. 만족함 - 히 13:5; 빌 4:11-13(또한 나누어 줌, 빌 4:14)
2. 계명은 “멈추라”고 말하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3.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마음을 아신다
  - ㄱ. 역대상 28:9
  - ㄴ. 잠언 20:27
  - ㄷ. 시편 139:1,23
  - ㄹ. 예레미야 17:10
  - ㅁ. 로마서 8:27
  - ㅂ. 계시록 2:23
4. 사물이 악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는 그것이 죄로 된다. 사물은 궁극적인 것도 아니며 영원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궁극적이며 영원한 존재이다! 탐욕은 암암리에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언약의 공동체에게 영향을 준다!

**내가 신명기 5:21 에 대하여 주석한 내용에서 가져 온 추가적인 석의적 설명**

**신 5:21 “탐내지 말지니라 . . . 탐내지 말지니라” 이 두 동사는 동의어적이다:**

- 가. “탐내다” - BDB 326, KB 325, *칼* 미완료형, 이것은 물질에 대한 “강한 욕망”을 뜻하며 긍정적 의미나 부정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 문맥에서 이것은 조절이 안되는 이기적 욕망으로서 언약적 관계에 있는 형제에게 속한 어떤 물건을 탐내는 것을 말한다(참조, 마 22:34-40; 롬 13:8-10).



**20:18-19** 백성들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며 시내 산 위에 임함을 인해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죽게 될까봐 무서워했다(참조 창 32:30; 출 3:6; 19:21; 33:20; 신 4:34; 사 6:22-23; 13:22; 왕상 19:13; 사 6:5). 그들은 모세가 야웨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중계해 주기를 원하였다(참조, 신 5:4-5).

**20:18 “그들이 불 때에”** 이것은 산을 가리킨다. 70 인역에서는 “보다”(라아, BDB 906, KB 1157, 이 절에서 두 번 사용됨)를 “두려워 하다”(아래, BDB 431)로 바꾸었다. 이러한 수정을 NRSV, NJB, REB 에서 따른다.

**20:20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형이 아니라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칼 미완료형이다(출 20:13, 14,15 에 대한 설명을 보라).

이 진술의 이유가 두 가지 있다.

1. 야웨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다(특별주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신다를 보라).
2. 그들이 이 날과 이 말을 기억하게 함으로써(참조, 신 4:10; 6:24), 불순종을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다(참조, 레 26 장; 신 27-30 장; 렘 32:40).

**20:21** 이러한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이며 율법의 수여자임을 분명히 나타낸다.

#### 개역개정 20:22-26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3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4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5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20:22-23:33** 출애굽기의 이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켜 제시한다. 이 단락은 보통 “언약의 책”으로 불린다.

**20:22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이것은 시내 산의 정상을 가리킨다(참조, 신 4:36; 느 9:13). 특별주제: 하늘과 삼총천을 보라.

십계명(즉, 출 20:1-7)이 이곳에 삽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후속적 계시를 가리키며, “하늘로부터”를 일반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0:23** 이 절은 출 20:3 을 더욱 확장시켜 제시한다. 우상숭배는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유혹이 되었고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숭배를 보라) 그들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참조, 신 29:14-21; 특별주제: 우상숭배의 결과를 보라).

**20:24-26** 이 본문은 야웨를 예배하기 위해 준비된 장소와 관련을 가지는 내용이다(즉,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 그 제단은 단순하여야 하며, 자연적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즉, 흙과 다듬지 않은 돌, 신 27:5-6). 이러한 단순한 형태의 제단은 가나안 사람들의 다산숭배를 위한 장소와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20:24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이것은 신명기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다(참조, 신 12:5,11,14,18,21,26; 14:23-25; 15:20; 16:2,6,11,15; 17:8,10; 18:6; 26:2; 31:11). 이것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써 절정에 이를 것이다.

▣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심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의 처소와 예배 시간에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야웨의 목적이었다(참조, 레 26 장; 신 27-30 장).

**20:26** 이스라엘의 예배는 가나안 사람들의 다산숭배와 아주 달랐으며 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참조, 출 28:42-43). 이스라엘의 예배 규정은 많은 경우(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의 예배가 그들의 주위에 있는 다신교적 다산숭배자들의 예배와 상당히 다름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내가 신명기 5:6-21 에 대한 주석에서 제시한 석의적 설명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 개역개정 5:6

6 나는 너를 애굽 땅 조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라

**5:6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나는 ‘나인’ 자이다.” 이것은 ‘나는 항상 살아 있는 유일한 살아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실존하는 자이다’로 풀어쓸 수 있다. 야웨는 “~있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형태이다(참조, 출 3:14).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 **“너를 애굽 땅, 조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야웨의 은혜와 선택적인 택하심이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있었음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 창 15:12-21 에 기록된 무조건적 약속/언약인 이러한 택함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해졌다.

## 개역개정 5:7

기타 언어는 다른 시트으 내게 두지 말지니라

5:7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앞에”(BDB 818 #7)는 문자적으로는 “나의얼굴 앞에”로서 “나의 영역에 있는 다른 어떤 이”(참조, 출 20:3,23)를 가리키는 관용어이다. 야웨는 홀로 유일하시며 항상 계신 분이시다! 이것은 유일신 신앙의 선언이다(참조, 출 8:10; 9:14; 신 4:35,39; 33:26; 삼상 2:2; 삼하 7:22; 22:32; 사 46:9). 고대 근동의 다신교적 환경에서, 이 첫 번째 선언이자 계명은 이스라엘이 가진 신앙의 독특한 모습이다! 신 6:4 에 대한 설명을 보라.

## 개역개정 5:8-10

<sup>8</sup>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sup>9</sup>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5:8 “우상” 이것은 문자적으로 “새긴 형상”(BDB 820)이다. 이것은 (1)야웨를 대신하는 어떤 모양(참조, 4:12,15-19,23,25)을 가리킬 수 있다. 출애굽기 32 장의 금송아지는 야웨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혹은 (2) 이방인의 우상들(참조, 레 19:4; 26:1)을 가리킬 수 있다.

5: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부정의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진다:

1. “절하다” – BDB 1005, KB 295, *히쉬타펠* 미완료형 혹은 *히트파엘* 미완료형으로서 “몸을 굽혀 절하다,” “엎드리다”(참조, 신 4:19; 8:19; 11:16; 출 20:5; 23:24)를 의미한다.
2. “섬기다” – BDB 712, KB 773, *호플* 미완료형으로서 “행하다” “종으로 섬기다” 혹은 “예배의 의식을 행하다”(참조, 13:2; 출 20:5; 23:24)를 의미한다.

야웨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종교적”이고 “미신적” 경향을 아셨고, 근동의 우상숭배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계시와 자신의 목적을 보호하려 하셨다.

▣ “질투하는” 4:24 에 대한 설명을 보라.

▣ “갚되”라는 동사(BDB 823, KB 955, *칼* 능동 분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 축복하기 위해 방문하다 – 창 21:1; 50:24,25; 출 13:19; 룻 1:6; 시 65:9; 106:4; 렘 27:22; 29:10; 32:5
2. 벌하기 위해 방문하다 – 출 20:5; 34:7; 렘 11:22; 13:21; 21:14; 24:25; 암 3:2,14; 호 1:4; 2:15; 4:14; 12:2

▣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여기서 “죄”(BDB 730)는 비슷한 어근을 가지는 “뒤틀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예, 삼하 19:20; 24:17; 왕상 8:46; 시 106:6). 이스라엘은 자신의 불순종을 인하여 벌을 받았다(예, 출 20:5; 34:7; 레 18:25; 민 14:18; 신 19:15; 렘 25:12; 36:31; 암 3:2).

▣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처벌이 아무렇게나 혹은 아무에게나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야웨를 “미워하는”(BDB 971, KB 1338, *칼* 능동 분사)자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라. 이것은 불신앙이 가족을 통해 이어짐을 뜻한다. 부모의 영향은 믿음의 형성에 있어서 절대적이다(신 4:10의 설명을 보라). 고대 근동에서 여러 세대에 속한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다. 한 세대의 불신앙이나 불순종은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히브리적 관념의 일부이다(즉, 한 명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아담, 아간, 다윗, 예수).

믿음에 있어서 이 공동체적 개념과 개인이 가지는 믿음의 측면이 반드시 더해져야 한다(참조, 24:16; 왕하 14:6; 렘 31:29-30; 겔 18장)!

**5:10 “지키는”** 이 동사(BDB 793, KB 889)는 *칼* 능동 분사이다. 이것은 신 5:9 에 있는 동사의 계속되는 행동과 연결된다.

▣ “은혜” 특별주제: 인자한 사랑(*헤세드*)을 보라.

▣ “천 대까지” 이 두 절은 내가 야웨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벌하신다(특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자들, 즉 언약백성). 이 두 절에 나오는 숫자는 나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1. 삼사 대까지 죄를 갚으심
2. 천 대까지 언약에 따른 사랑을 나타내심(참조, 신 7:9)

▣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야웨의 언약에 대한 순종을 야웨께 대한 사랑과 연결시키는 것은 신명기의 특징이다(참조, 신 6:5; 7:9; 10:12; 11:1,13,22; 13:3; 19:9; 30:6,16,20).

야웨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히 정의되어 있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언약적 사랑은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유지된다.

“지키다” (BDB 1036, KB 1581)는 이 장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참조, 5:1,10,12,29,32, 또한 신명기에서 여러 번 나온다). 구약은 야웨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행동에 기초한다. 야웨께서는 인간에게 그들이 적합하게 응답할 수 없음을 보이기 원하셨다(참조, 갈라디아서 3 장). 신약(참조, 롬 31-34 장; 겔 36:22-38)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기초한다. 신자들은 의롭게 될 운명이지만(참조, 엡 1:14; 2:10), 믿음을 통한 은혜를 따라 받아들여졌고 용서받았다(참조, 엡 2:8-9). 이제 그들은 감사한 마음과 가족적 사랑(즉,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가지고 순종하며 행한다. 의로운(그리스도를 닮은) 백성이 되는 목적은 같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방법은 인간의 행함에서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바뀌었다(참조, 막 10:45; 고후 5:21).

### 개역개정 5:11

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5:11 “너는 ... 일컫지 말라” 이 동사(BDB 669, KB 724, *칼* 미완료형)은 “들어 올리다,” “나르다,” 혹은 “취하다”를 뜻한다. 이것은 말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예배에서 “그 이름”을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참조, 신 6:13; 10:20)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 강조는 창 4:25-26 에서 시작되는데, 그 본문에서는 셋의 후손이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증거한다. 아브라함(창 12:8; 21:33)도, 이삭(창 26:25)도 이같이 했다. 이와 똑같은 개념이 요엘 2:28-32 의 종말론적 배경에서 나온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에 의해 오순절 때에 계속되었고 성취된 것으로 말해진다(참조, 행 2:14-21). 사도 바울은 롬 10:9-13 에서 우주적 구원을 제시하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한다.

야웨의 이름은 야웨의 인격과 성품을 대표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상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참조, 출 19:5-6). 하지만 비극적인 일은 다음의 일로 인해 세상에 향하여 전해질 말씀이 뒤떨어졌다는 점이다. 즉, 그들이 언약에 불순종하여 야웨께 벌을 받음으로써 일어난 결과이다(참조, 신명기 27-29 장):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대신 심판을 행하심
2.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들에게 향함
3. 하나님의 백성이 거만하게 되고 배타적이 되며 자기 의로 가득차게 됨!

▣ “망령되이” 이 용어(BDB 996)는 “빈,” “실재하지 않는,” “헛된”을 뜻한다(참조, 출 20:7; 시 139:20). 이것은 신 5:20 에서 사용한 “거짓” 증거와 같은 단어이다. 이 계명은 야웨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참조, 신 6:13; 10:20), 오히려 거짓으로 법적 증언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야웨의 심판으로 결말을 맺은 그들의 반복적인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었다(참조, 신명기 27-29 장). 특별주제: 헛된, 빈, 아무 것도 없음을 보라.

▣ “나 여호와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동사(BDB 667, KB 720, *Ⅱ/일* 미완료형으로서 “사면하다”를 뜻함)는 깨끗한 것에 대한 은유이며, 이로써 무죄함 혹은 죄없음을 뜻한다(참조, 출 20:7; 34:7; 민 14:18; 렘 30:11; 46:28; 율 3:21; 나 1:3). 인간의 죄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야웨를 잘못 전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죄인데, 특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렇다(참조, 눅 12:48; 히 10:26-31)!

**개역개정 5:12-15**

12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5:12 “지켜” 이 동사(BDB 1036, KB 1581, *칼* 부정사 절대형)은 “지키다”를 뜻하며, 신명기에서 반복되어 사용된다.

▣ “거룩” 특별주제: 거룩을 보라.

▣ “안식일” 특별주제: 안식일(구약)을 보라.

5:13 “일” 신 5:13-14 과 같은 율법은 계승된 구전(참조, 마 5:21-48)이 기록되도록 기여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일인가?”와 같은 질문이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랍비들이 일의 정의를 고안해 내었기에 신실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할 수 없었다. 기록된 율법의 애매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구전의 발전을 가져왔다.

5:14 “일곱째 날은 . . . 안식일인즉” 안식일은 휴식의 날이었다(BDB 992). 안식일의 기원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1) 출애굽기 20:11 은 이 날이 창세기 1-2 장에 기인한 것으로 제시하지만, 신명기는 이 날의 기원을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로 돌린다(참조, 신 5:15). 이 날은 야웨의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의

표식(할레처럼)이 되었다(참조, 출 31:13,17; 겔 20:12,20). 순종이 요구되었다(참조, 사 56:2; 58:13; 렘 17:21-22).

해와 달처럼(참조, 창 1:14) 안식일은 인간의 활동을 시간적으로 구분하였다(참조, 전도서 3 장). 칠일로 구성된 주간은 특별한 날과 년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었다(참조, 출애굽기 23 장과 레위기 23 장). 특별히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졌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1 장에 있는 방법("저녁과 아침," 참조, 창 1:4,8,13,19,23,31)으로 날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5:15 "너는 기억하라" 신 7:18 에 대한 설명을 보라.**

▣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모세는 노예생활의 경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사회에 있는 빈민들에 대하여 동정을 베풀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1. 종(과 짐승)에게 쉬는 날을 허용하는 것 - 신 5:12-15; 16:12
2. 히브리인 종을 돈을 받지 말고 놓아주고 그들을 힘있게 하는 것 - 신 15:12-15
3. 가난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을 공평과 정의로 대하는 것 - 신 24:17-18
4. 가난한 자를 위해 밭의 모퉁이를 남기며 떨어진 곡식을 거두지 않는 것 - 신 24:19-22

이러한 귀절은 야웨께서 선물로 땅을 주신 은혜에 따라 이스라엘이 적합하게 행하고(예, 신 6:10-15) 언약을 순종함으로써(예, 신 8:1-10) 심각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예, 신 8:11-20) 경고를 주기 위해 여러 번 사용되었다.

#### 개역개정 5:16

<sup>16</sup>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주 땅에서 네 생명이 기쁘게 복을 누리리라

**5:16 "공경하라"** 이 동사(BDB 457, KB 455, *פ/אל* 명령)는 원래 "무겁다"를 의미하는 말로서 은유적으로는 "마땅한 무게를 주다" 또는 "공경하다"를 뜻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이 공경은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위와 존경에 기초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모본으로 한다. 권위에 대하여 복종하는 자세는 종교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러한 명령을 신명기의 다른 부분과 함께 여러 번 언급하셨다:

1. 신 5:16 - 마 15:4; 막 7:10
2. 신 5:16-20 - 마 19:18-19a; 막 10:19; 눅 18:20
3. 신 5:17 - 마 5:21
4. 신 6:4-5 - 마 22:37; 막 12:29-30; 눅 10:27
5. 신 6:13 - 마 4:10; 눅 4:8

6. 신 6:16 - 마 4:7; 눅 4:12
7. 신 19:15 - 마 18:16
8. 신 19:15 - 마 5:38

또한 바울도 자주 신명기를 인용하였다:

1. 신 5:16 - 엡 6:2-3
2. 신 5:21 - 롬 7:7
3. 신 19:15 - 고후 13:1
4. 신 21:23 - 갈 3:13
5. 신 25:4 - 고후 9:9; 딤편 5:18
6. 신 27:26 - 갈 3:10
7. 신 30:12-14 - 롬 10:6-8
8. 신 32:21 - 롬 11:8
9. 신 32:35 - 롬 12:19-20
10. 신 32:43 - 롬 15:10

(참조, 리처드 N. 롱넥커, *사도시대의 성경석의*, 42-43, 92-95 쪽).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폭 넓게 사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율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 **“그리고 너의 어머니”** 이것은 동양 사회에서 여자들의 지위가 법적으로는 가재도구나 재산 정도였을 지라도 어머니를 많이 존중했던 것을 보여준다. 히브리 어머니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존경을 받았다. 부모의 권위는 엄격하게 존중되었다(참조, 출 21:17; 신 27:16). 부모는 양쪽 다 존중받았고 그들에게 자녀들이 순종했다(참조, 잠 1:8; 6:20; 15:20; 19:26; 20:20; 23:22-25; 30:11,17).

▣ **“네 생명이 길고”** 신명기 5:33; 4:40; 11:9 은 이것이 사회에 주신 약속이었지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주신 약속이 아님을 보인다. 만일 어떤 사회가 ‘가정에서의 존경’과 ‘가족에 대한 존중’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면 그 사회는 안정되며 또 오래 지속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신 4:40 의 설명을 보라.

**5:17** 모든 동양사회에 공통적인 법들이 있다. 고고학적 발견을 통하여 우리는 모세의 법전보다 수 백년 앞선 시기에 속하는 바벨론의 리핏-이스탈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이 있음을 안다. 함무라비 법전은 십계명과 비슷하다. 이 유사성은 (1) 각 상황과 사회마다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어떤 사항’이 있었다는 점과 (2)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시사한다.

**개역개정 5:17**

**17 살인하지 말지니라**

**5:17 “살인”** 히브리어 동사인 “살인하다”(BDB 953, KB 1283, 칼 미완료형)는 원래 “격렬하게 부딪히다”를 뜻한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형제도(예, 민 35:30)와 거룩한 전쟁(예, 신 20:13,16-17)의 규율은 이스라엘에 어떤 종류의 살인도 없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계명은 “너희는 이기적 이유나 보복을 인하여 살인을 범하지 말라” 혹은 “비합법적이고 미리 계획된 살인을 하지 말라”를 말하고 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군복무나 사형제도를 성경적으로 반대하기 위해 이 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별주제: 평화와 전쟁을 보라.

**개역개정 5:18**

**18 간음하지 말지니라**

**5:18 “간음”** 구약에서 간음(BDB 610, KB 658, 칼 미완료형)은 혼인관계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말한다. 사후의 삶에 대한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중대한 범죄에 속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자신의 씨를 통하여 산다고 믿었다. 또한 야웨께서 그들에게 할당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면에서 중요했던 지파적 개념을 가지고 간음을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었다.

첫 계명은 부모에 대한 신실함이요, 두 번째 계명은 형제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신실함이요, 세 번째 것은 가정에서의 신실함이다. 약혼한 여자들은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어 언급된다(참조, 신 22:23 이하). 마리아는 그녀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았다.

간음에 대한 이 같은 견해는 종종 은유적으로 우상숭배를 가리켰다. 에스겔서와 호세아서는 둘 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따라 간 일은 “매춘하는 것”으로 불렸고 영적 간음 혹은 신실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개역개정 5:19**

**19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5:19 “도둑질”** 이웃 나라들의 법을 고려할 때, 이것은 아마도 유괴하여 파는 것을 말한다(BDB 170, KB 198, 칼 미완료형, 참조, 신 24:7; 출 21:16). 이것은 ‘언약적 형제로서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한 신실함과 관련이 있다. 이웃 나라의 모든 법은 이 경우에 사형을 실시했다. 좀 도둑질에 대한 처벌로서는 심하게 여겨진다.

### 개역개정 5:20

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5:20 “거짓 증거하다” 오늘날의 미국 사법제도의 관행처럼 그가 죄 있는 것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일로 고소받을 때 고소인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었다. 만일 고소인의 잘못임을 당신이 입증한다면 그가 비난했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그가 당하게 되어 있었다(참조, 신 19:16-21). 십계명의 불순종은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엄중한 죄였다!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거짓말은 명예를 실추시키고 언약관계에 있는 형제나 자매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말을 중요하게 다루신다(참조, 욥 17:5; 시 101:5; 잠 11:9; 렘 9:8-9).

### 개역개정 5:21

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인종이나 그의 산나물이나 그의 밭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5:21 “탐내지 말지니라 . . . 탐내지 말지니라” 이 두 동사는 서로 동의어적이다:

1. “탐내다” - BDB 326, KB 325, *칼 미완료형*, 이것은 물질에 대한 “강한 욕망”을 뜻하며 긍정적 의미나 부정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 문맥에서 이것은 조절이 안되는 이기적 욕망으로서 언약적 관계에 있는 형제에게 속한 어떤 물건을 탐내는 것을 말한다.
2. “갈망하다” - BDB 16, KB 20, *히트파엘 미완료형*, 이것은 “욕망”(참조, 신 14:26) 혹은 “탐욕”(신 5:21 에서와 같이 종종 성적 의미를 나타낸다)을 뜻하는 말로서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나를 위해 더 많이 가지겠다는 의미이다(예, 민 11:4; 시 106:14; 잠 13:4; 21:26; 23:3,6; 24:1).

이것은 사람의 내적 태도와 동기와 관련된다. 이것은 다른 모든 계명의 모퉁이돌이다. 이것은 어떻게가 아닌 왜를 말하는 유일한 계명이다. 이 계명은 “~을 하지 말라”만 아니라 “이것을 생각지 말라”도 말한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살인만 아니라 미워함, 또는 살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계명을 취하여 다른 계명들이 말하는 외적 행동에 구별되는 내적 동기와 태도를 다루는 것으로 삼으셨다(참조, 마 5:17-48). 도둑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의 세계와 붙잡히게 될까봐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의

세계에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한 쪽은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자이고 다른 한 쪽은 이기적 이유에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 출애굽기 21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사람을 위한 규정	종에 관한 법	언약 법전 (20:22-23:33)	종을 대하는 규정	종에 관한 법 (맛소라 본문의 절 구분을 따름)
21:1	21:1-11	21:1-6	21:1-6	21:1-11
21:2-6				
21:7-11		21:7-11	21:7-11	
개인에 대한 상해	폭력에 대한 법	사람을 보호하는 법	폭력 행위에 대한 법	살인
21:12-14	21:12-13	21:12-14	21:12-14	21:12-14
	21:14			
21:15	21:15	21:15	21:15	21:15-17
21:16	21:16	21:16	21:16	
21:17	21:17	21:17	21:17	구타와 말
21:18-21	21:18-19	21:18-19	21:18-19	21:18-19
	21:20-21	21:20-21	21:20-21	21:20-21
21:22-25	21:22-25	21:22-25	21:22-25	21:22-25
21:26-27	21:26-27	21:26-27	21:26-27	21:26-27
	집승에 관한 법		주인의 책임	
21:28-32	21:28-32	21:28-32	21:28-32	21:28-32
		재산에 관한 법 (21:33:22-17)		
21:33-34	21:33-34	21:33-34	21:33-36	21:33-36
				가축을 훔치는 일 (21:37-22:3)
21:35-36	21:35-36	21:35-36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좀 더 계시된 본문은 “언약의 책”으로 불린다. 이 본문은 출 20:22 에서 시작하여 출 23:33 에 이른다.
- 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정직한 사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 일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있다(참조, 창 18:19). 이러한 사회는 ‘타락하여 착취하고 탐욕적이며 이기적인 세상’(특별주제: 타락을 보라)에서 불신자들을 야웨께로 이끄는 강력한 자석이다!
- 다. 강조를 나타내는 문법적 구문(즉, 같은 어근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의 용법)이 출애굽기 21-23 장에 여러 번 나온다.
  1. 출 21:5 – “분명히 말하기를”(BDB 55, KB 65)
  2. 출 21:12 – “반드시 죽일 것이나”(BDB 559, KB 562)
  3. 출 21:15 – 2 항과 같음
  4. 출 21:16 – 2 항과 같음
  5. 출 21:17 – 2 항과 같음
  6. 출 21:19 –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BDB 950, KB 1272)
  7. 출 21:20 –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BDB 667, KB 721)
  8. 출 21:22 – “반드시 벌금을 내되”(BDB 778, KB 859)
  9. 출 21:28 –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BDB 709, KB 768)
  10. 출 21:36 – “값을 것이요”(BDB 1022, KB 1532)
  11. 출 22:3 –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BDB 1022, KB 1532)
  12. 출 22:4 –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BDB 592, KB 619)

13. 출 22:6 – “반드시 배상할지니라”(11 항과 같음)
14. 출 22:12 –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BDB 170, KB 198)
15. 출 22:13 – “찢겼으면”(BDB 382, KB 380)
16. 출 22:14 – “반드시 배상하려니와”(11 항과 같음)
17. 출 22:16 – “납폐금을 주고”(BDB 555, KB 554)
18. 출 22:17 –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BDB 549, KB 540)
19. 출 22:19 – “반드시 죽일지니라”(BDB 559, KB 562)
20. 출 22:23 –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BDB 776, KB 853)
21. 출 22:23 –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BDB 858, KB 1042)
22. 출 22:23 –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BDB 1033, KB 1570)
23. 출 22:26 – “전당 잡거든”(BDB 286, KB 285)
24. 출 23:4 –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BDB 996, KB 1427)
25. 출 23:5 – “그 집을 부릴지니라”(BDB 736, KB 806)
26. 출 23:22 –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BDB 1033, KB 1570)
27. 출 23:24 –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BDB 248, KB 256)

와! 강조형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예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라. “만일 . . .하면, 그 때에는”이라는 형태의 법(즉, 증례적 법은 고대 근동의 특징적 법이다, 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법전들을 보라)은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가지는 조건적 성격을 시사한다. 야웨의 임재하심과 축복하심이 그들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참조, 레위기 26 장; 신명기 27-30 장;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마. 알란 코울의 틴델 주석에서는 이 문맥에 대하여 적절한 개요를 제시한다(164-170 쪽).

1. 히브리 종 – 출 21:1-11
2. 엄격한 처형법 – 출 21:12-17
3. 다툼과 상해 – 출 21:18-27
4. 짐승에 의한 상해 – 출 21:28-36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1:1

1네가 백성 안에 세운 번규는 이러하니라

21:1 “법규”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보라.

존 H. 왈튼의 *고대 근동의 사상과 구약*(292-294 쪽)에서는 “증례적 법”(즉, 사례의 법, “만일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 . .이렇게 한다”)이 필연적 법(즉, 십계명)과 구별이 됨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출애굽기 21 장에 나오는 사례에 관한 법은 모세가 재판장으로서 내린 결론이었다는 추측을 292 쪽에서 제시하였다(참조, 출 18:13-27). 모세가 어떤 판결을 그 경우와 비슷한 주제나 분쟁에 있어서 지침으로 삼았을 것이다. 이 법규들도 출 20 장에 있는 법과 마찬가지로 야웨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법의 수여자인 모세의 역할을 통해서 왔다(참조, 출 20:19).

#### 개역개정 21:2-6

<sup>2</sup>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sup>3</sup>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sup>4</sup>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sup>5</sup>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고대 세계에서 노예제도는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유용한 설명을 로랜드 드보, *고대 이스라엘*(80-90 쪽)에서 보라. 구약의 독특성은 종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언약적 형제와 외국인 사이에 구별을 두었다는 점이다. 히브리 종에 대한 내용을 레 25:39-43 과 신 15:12-18 에서 다룬다. 사려깊은 배려와 형제애적 도움이 이러한 성경 본문의 특징을 이룬다. 외국인 종에 대한 내용은 레 25:44-46 에 나온다. 실질적으로는 히브리 종들은 일정 기간 고용된 종이였다.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6 년간 일했다. 일곱째 해(또는 희년이 이보다 먼저 오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되었다(참조, 레 25:8-17,23-33). 그들이 그냥 종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면서 존엄성을 가지고 놓인 것이다(참조, 신 15:13-14).

▣ “일곱째 해”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상징적 수를 보라.

▣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유인”이라는 용어는 사회의 특정한 계층을 가리킨다(NET 성경, 170 쪽 8 항을 보라).

▣ “히브리 종” “히브리”(BDB 720 I)라는 용어는 고대의 셈족계 유목민을 가리켰다. 아브라함은 창 14:13 에서 히브리인으로 불렸다. 이 용어가 *하비루*(이 단어는 “강 건너편에서 온”을 뜻한다)로 알려진 셈족계 유랑민들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만일 관련이 있다면, “히브리인”이라는 용어는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더 광범위한 민족들을 포함하게 된다(참조, 신 26:5). 어떤 이는 이것의 기원이 아브라함의 조상인 에벨의 이름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참조, 창 11:16).

이 호칭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의 말이 기록된 본문에서 종종 발견된다.

1. 창 14:13 – 아브라함에게 온 전령
2. 창 39:14,17; 40:15; 41:12; 43:32 – 이집트인들
3. 삼상 4:6,9; 13:3,7,19; 14:16,21; 29:3 – 블레셋 사람들
4. 렘 34:9,14 – 바벨론 사람들
5. 욥 1:9 – 이방인 뱃사람에게
6. 행 6:1 –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21: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단신으로”라는 용어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문자적으로 이 용어는 “몸,” “자신”(BDB 172)을 뜻한다. 이 본문의 의미는 만일 그가 옷만 걸치고 왔다면 옷만 걸치고 떠나야 함을 뜻한다. 이 본문을 반드시 신 15:13,14 과 비교하여 이해해야 한다. 후자에서는 일정 기간 종으로 고용되었다가 떠나는 자에게 주인이 친절히 양식을 주어야 할 것을 명한다. 출 21:4-11 에서는, 주인이 그에게 가정을 이루게 한 경우에 그가 주인에게 영구히 종으로 남아 있기를 원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제시된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귀를 뚫는 의식이 행해졌는데, 그 종의 주인의 집에서 행해졌음이 분명하다(성전에서 행했을 수도 있음). 이렇게 함으로써 그를 그 가족의 영원한 종으로 삼았다(참조, 출 21:4-6; 신 15:16-17).

**21:5** 히브리 종이 주인에게 영구히 종으로 남는 일은 종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참조, 신 15:16-18). 때로는 노예의 삶이 빈궁한 삶 보다 훨씬 더 양호하였다.

**21:6**

NASB, NRSV

NJB, JPSOA, REB “하나님께서로”

NKJV “재판장에게로”

TEV “에배 장소로”

LXX “하나님의 재판소로”

맛소라 본문에서 이 용어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다(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다항을 보라). 이곳과 삼상 2:25, 시 82:6 에서는 이스라엘의 재판장을 가리킨다(참조, 출 18:13-27; 22:8-9,28; 70 인역, 페쉬타, 탈굼).

그 당시에는 아직 회막이 없었다. 어떤 이는 신 15:17 에 있는 평행본문을 통하여 이것이 종의 주인의 집문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 “**종신토록**” 이것은 *올랴*(BDB 761)이라는 용어이다(특별주제: 영원히[*올랴*]를 보라). 이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문맥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종신토록을 뜻한다.

**개역개정 21:7-11**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21:7-11** 히브리인의 법전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사회에서 여자를 존중하였으며 여자들에게 제한된 권리를 주려고 했던 점이다. 이 단락은 족장제도 안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공정한 대우를 받게 하려는 저자의 시도를 제시한다. 특별주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라.

**21:8** 이 절에 나타난 본문적 사항에 대한 설명을 UBS 본문 프로젝트(117 쪽)에서 보라.

1. 맛소라 본문 – “아니하여,” *로(케투빔, NEB; 로더햄의 강조 성경, 영의 문자적 성경 번역)*
2. 수정안 – “그에게,” *로(케레, 70 인역, 시리아역, JPSOA, NASB)*

이 프로젝트에서는 2 항에 “B”등급(다소 의심스러움)을 준다.

▣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이 동사(BDB 804, KB 911, *히/필* 완료형과 *와우*)는 *히/필*형으로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이 용어는 신학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를 보라.

▣

NASB, NRSV “그 여자에게 공정하지 않음”

NKJV “그 여자를 속여서”  
 NJB, JPSOA “그 여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  
 REB “그 여자의 신뢰를 깨트렸다”

이 동사(BDB 93, KB 108, *칼* 능동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기만적으로 행하다”를 뜻한다(참조, 사 9:23; 사 33:1; 렘 3:8,11; 합 1:13; 2:5). 여기서는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에서 그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부당함을 나타낸다(예, 수 24:15; 렘 40:4).

**21:10** 고대 근동에서 결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오늘날의 서구인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여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법이 얼마나 세세하게 배려하였는지를 주목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사항이다.

다음과 같은 선택이 가능하였다.

1. 남자가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사음(또는 첩으로)
2. 그가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 여자를
  - ㄱ.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 수 있었다(즉, 문자적, “속량하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함(BDB 648; 참조, 출 2:22; 18:3; 신 14:21; 17:15)
  - ㄴ. 자기 아들에게 줄 수 있었다
  - ㄷ.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누리는 혜택을 줄일 수는 없었다(NET 성경[171 쪽 6 항]에서는 “음식”과 “의복”과 “기름”은 수메리아와 아카디아의 본문에서 생명을 위한 필수품으로 여겼음을 말한다).

▣

NASB, JPSOA, 페쉬타 “부부의 권리”  
 NKJV “혼인의 권리”  
 NRSV, NJB, LXX “첫 번째 부인의 혼인의 권리”  
 TEV “같은 권리”  
 JPSOA 각주 “기름”

이 여성형 명사(BDB 773, KB 855)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번역가들은 KB 852 II 을 고려하여 이것을 성적인 교합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JPSOA 각주에서는 “기름” 또는 “연고”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 항목은 수메리아와 아카디아의 본문에서 생명을 위한 필수품으로 여긴 세 가지 물품을 가리키는 표현이 된다(즉, 음식, 의복, 기름).

영의 *문자적 번역*에서는 이 단어가 집/거주장소를 뜻한다고 설명하였다.

**개역개정 21:12-14**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21: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것은 심각한 상해에 관한 일련의 법의 처음  
부분이다. 언뜻 보기에 이 내용이 매우 가혹하게 보이지만, 이 문맥에서는 실제로 가족 사이에 피  
흘리는 반목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눈에는 눈”이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출 21:12,14-17,23; 22:18-  
20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눈에는 눈” 또는 “이에는 이”라는 이 규정이 제한적인 보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본문인 출 24:17-22 과 신 19:21 을 보라.

로랜드 드보는 *고대 이스라엘*(158 쪽)에서 사형을 당하는 범죄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 언약의 동반자와 사회에 대한 죄

1. 의도적인 살인 – 출 21:12; 레 24:17; 민 35:16-21
2. 유괴 – 출 21:16; 신 24:7
3. 부모에 대한 잘못 – 출 21:15,17; 레 20:9; 신 21:18-21; 27:16
4. 간음 – 레 18:20; 20:10; 신 22:22
5. 근친상간 – 레 20:11,12,14,17
6. 납색 – 레 20:13
7. 짐승과 교합함 – 레 20:15-16

나. 하나님께 대한 죄

1. 우상숭배 – 출 22:19; 레 20:1-5; 민 25:1-5; 신 13:2-19; 17:2-7
2. 신성모독 – 레 24:15-16
3. 안식일을 어김 – 출 31:14-15; 민 15:32-36
4. 마법을 행함 – 출 22:17; 레 20:27; 삼상 28:3,9
5. 제사장의 딸이 음행함 – 레 21:9

**21: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 서두는 히브리  
법이 행위의 배경이 되는 동기를 염두에 두었음을 제시하는 중요한 내용이다(출 21:14 에 대한 설명을  
보라). 제사제도는 사람의 열정, 무지, 사고로 인한 범죄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제사제도는  
고의적으로 범한 죄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제사제도와 더불어 “도피성”으로 불리는  
일련의 성을 설정해 놓았다. 그곳은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에 도망쳐 피할 수 있는 장소였다  
(참조, 민 35:6-32; 신 19:1-21; 수 20:1-9).

▣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것이 삶의 정규적인 활동을 뜻하는 단순한 문화적 표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신학적 확인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두 강조점의 균형은 신학에 있어서 많은 긴장을 야기하였다. 한편, 둘 다 맞는다(참조, 시 139 편; 롬 9-10 장; 엡 1:4,7,11). 특별주제: 예정(칼빈주의) 대 인간의 자유의지(알미니안주의)를 보라.

21:14

NASB	“주제넘게”
NKJV, NRSV	“미리 계획함”
NJB	“자세하게 계획을 세움”
JPSOA	“계획적으로”
REB	“의도적으로”
LXX	“부지중에”

이 단어(BDB 791)는 드물게 사용된 동사를 반영한다(BDB 841 I, KB 1000, 칼완료형, 문자적으로, “엎드려 기다리다,” 참조, 삼상 24:11). 후자는 출 31:13 에서 의도/미리 계획함을 뜻한다(참조, 민 35:11,22,23; 신 19:4). 민 35:20,22 에서 이와 관련을 가지며 드물게 사용된 용어를 보라. 특별주제: 부지중에 범하는 죄(구약)를 보라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는 오직 미리 계획하지 않은 죄를 위한 것이었다!

▣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동식 제단이 아직 없었다. 이러한 물건은 대부분 후기에 속하였다. 이것은 도피의 장소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특별한 암시이다. 제단의 뿔은 예배를 위한 물품 가운데 가장 거룩한 부분이었다. 사람이 도망친 후 피신을 위해 제단의 뿔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죄가 있다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 그를 죽일 수 있었음을 이 본문에서 제시한다(참조, 왕상 1:50; 2:28).

**개역개정 21:15**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절은 각 가정에 대한 존경을 강조한다. 이같은 진리가 출 21:17 에서 확대되어 제시된다. 출 21:15 에서는 존경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말하고(아마 살인도 포함함, BDB 645, KB 697, *히/필* 분사), 출 21:17 에서는 존경하지 않는 동기에 대하여 말한다(참조, 레 20:9; 신 21:18-21).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개역개정 21:16**

**16** 사람을 난처한 자가 **그** 사람을 파악든지 자기 수취에 두었든지 **그**를 바드시 죽이지니라

**21:16** 출 20:15 이 도둑질에 대한 것이라면, 이 절은 분명히 유괴를 가리킨다(참조, 신 24:7). 이 본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제시한다(이 전체 단락도 그러하다).

**개역개정 21:17**

**17**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중하는 **그**를 바드시 죽이지니라

**21:17** 이 절은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강조하여 제시한다.

1.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참조, 출 21:15)
2. 남자와 여자의 친밀한 관계가 창 1-2 장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타락으로 인하여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참조, 창 3:16), 이것은 여전히 부모에게서 나타난다.
3. “저주하는”(BDB 886, KB 1103, *피/엘* 분사)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자세를 뜻한다(참조, 창 12:3; 출 22:28; 레 19:14; 삿 9:22; 삼하 16:5,7,10,11,13; 시 62:4; 109:28). 따라서 이것은 “영예”의 반대말이다(참조, 출 20:12). 따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는 다음 사항에 대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 ㄱ. 그의 부모
  - ㄴ. 그의 사회
  - ㄷ. 그의 언약의 하나님

**개역개정 21:18-21**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0** 사람이 때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바드시 형벌은 바드시니라** **21** 그가 권리로 시키는 영면하면 형벌은 면하되 **그는 사적이**

21:18-19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이 두 절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였지만, 고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지는 않은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출 21:18 에 나오는 “주먹”(70 인역)이라는 용어는 “삽”(친족어인 아랍어에서, 참조, 탈굼, NEB) 또는 사실상 족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건(즉, 무기)을 가리킨다. 이 본문에서는 미리 계획하지 않고 상대방을 치는 일에 대한 것이다. 한편, 이것이 걱정에 의하여 행해진 행동이라 할지라도, 가해자는 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반드시 배상해야만 되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완전히 낫게 될 때까지 상대방을 돌아보아야 했다(참조, 출 21:19).

21:20-21 이 두 절(또한 출 20:26-27)은 종에 대한 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간결히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서 가혹하게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는 주인의 책임과 종의 권리(즉, 인격)에 관한 혁신적이고 긍정적인 진술이다. 이 진리의 좀 더 명료한 진술에 대해서는 레 25:43 을 보라. 그 본문에서는 종들에게 잔인하게 행하지 말 것을 주인들에게 훈계한다(참조, 엡 6:9).

**개역개정 21:22-25**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21:22 이것은 유산이라는 주제에 대한 본문이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좋은 설명을 밀라드 에릭슨의 *기독교 신학*(제 2 판, 570-572 쪽)에서 보라. 이 본문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죽음을 경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종 사용되었다. 그러나 문맥에서 볼 때, 이것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산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히브리어 본문은 문자적으로 “그녀의 아기가 나온다”로 되어 있다. 만일 아기가 죽게 된다면 금전적 면에서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 “눈에는 눈”이라는 방식의 사형집행이 가능하였다.

21:24-25 이 본문이 우리에게서 가혹하게 여겨지지만, 이것은 보복을 제한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참조, 레 24:20; 신 19:21). 후기의 유대교에서는 종종 신체를 절단(또는 사형을, 참조, 출 21:30)시키는 대신에 벌금형을 부과하였다. 이 형벌은 보통 “동해형법”을 가리켰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마 5:38-39 에서 참고하라.

**개역개정 21:26-27**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개역개정 21:28-32**

<sup>28</sup>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sup>29</sup>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sup>30</sup>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sup>31</sup>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sup>32</sup>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21:28-32** 이것은 사람을 죽인 짐승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다. 이 일이 죄와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였음을 주목하라(참조, 창 9:5). 이 본문은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짐승의 주인이 져야할 책임을 이 단락에서 강조한다(참조, 출 21:29).

**21:32** 이 본문은 짐승이 종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은 삼십 세겔”이라는 용어(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도량형을 보라)는 속 11:12 과 마 26:15 을 인하여 매우 중요한 예언의 내용이 되었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배신함에 있어서 속죄금을 받은 것임이 명백하다. 그 금액은 종의 일반적 가격이었다.

**개역개정 21:33-34**

<sup>33</sup>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21:33-36** 이 규정들은 농업적/목양적 배경을 명백하게 가리킨다(즉,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언약의 동반자가 언약의 다른 동반자에게 행하는 일에는 결과가 뒤따른다. 배상을 하는 것은 용서의 한 부분임이 분명하다.

**21:33 “구덩이”** 이 용어(BDB 92)는 다음 사항을 가리킬 수 있다

1. 요리를 위한 구덩이(아랍어 어근)
2. 빗물을 받기 위한 구덩이(즉, 웅덩이, 참조, 레 11:36; 신 6:11; 삼하 23:15,16; 왕하 18:31)
3.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구덩이(삼상 19:22; 느 9:25)
4. 동물을 빠트리기 위한 구덩이(삼하 23:20)
5. 죄수들을 가두기 위한 구덩이(창 37:22; 41:14; 왕하 10:14; 렘 38:6; 37:16; 속 9:11)

**개역개정 21:35-36**

<sup>35</sup>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sup>36</sup>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 출애굽기 2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재산권	재산에 대한 책임	언약 법전 (20:22-23:33)	상환에 관한 법	집승의 도둑질 (21:37-22:3)
22:1	22:1-4	22:1	22:1-4	
22:2-4		22:2-3		보상을 요구하는 범죄
		22:4		22:4
22:5	22:5	22:5	22:5	22:5
22:6	22:6-8	22:6	22:6	22:6-7
22:7-9		22:7-8	22:7-8	
				22:8
	22:9-13	22:9	22:9	22:9-12
22:10-13		22:10-13	22:10-13	
				22:13-14
22:14-15	22:14-15	22:14-15	22:14-15	처녀를 범하는 일
다양한 법	도덕적 예식적 원리들		도덕적 종교적 법	22:15-16
22:16-17	22:16-17	22:16-17	22:16-17	도덕적 종교적 법
		잡다한 사회적 종교적 법		22:17
22:18	22:18	22:18	22:18	22:18
22:19	22:19	22:19	22:19	22:19
22:20	22:20	22:20	22:20	22:20-23
22:21-24	22:21	22:21-24	22:21-24	
	22:22-24			22:24
22:25-27	22:25-27	22:25-27	22:25-27	22:25-26
				22:27
				첫 열매와 초태생
22:28	22:28	22:28	22:28	22:28-29
22:29-30	22:29-30	22:29a	22:29a	
		22:29b-30	22:29b-30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여러 문법적 강조구문의 목록을 출애굽기 21 장의 문맥적 통찰(다항)에서 제시하였다.
- 나. 이 장은 출애굽기 21-23 장에 있으며 “언약의 책”으로 불리는 문맥에 들어 있다. 주인이 알아야 할 사항과 주인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출 21:33-22:14 에서 연속하여 나온다.
- 다. “만일...그 때에는”이라는 형식을 가지는 종례적 법(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법전들을 보라)이 계속 나온다(즉, 출 22:1-17). 이 법들은 “사례”법으로 알려졌다. 한편 십계명은 출 22:18-24 에 나오는 법처럼 일반적이며 부정적 형태를 가지며 금지를 나타낸다(즉, 필연적 법).
- 라. 이 장의 앞 부분에서 제시하는 핵심은 언약적 동반자를 마땅하게 존중하라는 것이다. 잘못 대하였다면, 반드시 배상하여야 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게 된다.
  1. 재산을 가진 주인의 권리
  2. 범법자의 권리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22:1

<sup>1</sup>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22: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이것은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반드시 존중해야 할 것을 가리킨다. 계획적인 도둑질이나 유괴나 사회에서 행해지는 다른 모든 종류의 잘못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했다 (참조, 출 22:1,3,5,6,7,9,11,12,13,14,15,16). 출 22:3 에서 범죄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시하는 점은 흥미롭다.

▣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길들여진” 소에 대한 배상액이 상당히 높았다. 왜 소에 대한 배상액이 양에 대한 배상액보다 더 높았는지는 알 수 없다.

높은 배상액은 도둑질을 억지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 개역개정 22:2-4

<sup>2</sup>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sup>3</sup>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sup>4</sup>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22:2 “뚫고 들어오는 것을” 유대인의 연구성경(155 쪽)에서는 JPSOA 역에 나오는 하이픈(“-”) 용법이 독립적 법률을 삽입한 것으로 해석한다(즉, 출 22:2-3a 은 출 22:1 및 3b 와 관련이 없다). 이 독립적 법률은 짐승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참조, RSV, NJB; F. F. 브루스의 *질문에 대한* [10 쪽]을 보라).

이 명사(BDB 369)는 이곳과 렘 2:34 에서만 나온다. 이것은 “파내다”라는 동사에서 왔다. 고대 근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말린 진흙 벽돌로 집을 지었다. 도둑들이 벽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

NASB, NRSV, JPSOA “피 흘린 죄”

NKJV	“그의 피를 흘림에 있어서 죄가 없음”
TEV	“살인죄가 없음”
NJB	“그의 피에 대한 복수를 하지 못한다”
REB	“그것은 살인이 아니다”
LXX	“그것은 살인행위가 아니다”

맛소라 본문에서는 복수형의 “피”(BD 196)로 되어 있다. 이 문맥에서, 고의적으로 행한 불법적 살인을 가리킨다. 집주인이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밤에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이 날이 밝을 때 행해진 것이라면, 범죄자를 죽이지 않고(참조, 출 22:3) 그를 붙잡아 벌을 받게 해야 했다(즉, 배상하게 함).

22:3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목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 장에서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한다. 주인의 권리가 범법자의 권리보다 앞선다. 한편, 이스라엘의 사법제도에서 도둑질한 사람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도둑질한 사람이 가난한 경우에 그를 사형에 처하였다.

종으로 팔려 6 년간 지냈다.

22:4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언약의 동반자에게 행한 불법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했다.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함이 중요하다.

#### 개역개정 22:5

<sup>5</sup>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22:5 “짐승을 먹이다가” 이 어근(BDB 129)은 “~위에서 먹이다” 또는 “태우다”를 뜻한다(참조, NET 성경, 173 쪽 12 항). 문맥에서 볼 때 이러한 어원적 의미가 이 절에 적합한가는 확실하지 않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 행한 일에 대하여도 그 주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이 절에서 나타낸다(즉, 히브리인의 가족 공동체적 개념).

▣

NASB, NKJV

NRSV, REB, LXX “그가 소유한 밭의 가장 좋은 것에서”

TEV “그가 소유한 땅에서”

NJB “땅의 가장 좋은 작물에 준하여”

JPSOA “땅의 손상에 대하여”

형용사(BDB 29)에 있어서 약간의 불일치가 나타난다. JPSOA 에서는 “빠어남”이라는 문자적 의미에 대하여 언급한다. 배상에 있어서 핵심은 반드시 다음 사항에 준해야 한다는 점이다.

1. 동등할 것
2. 더 좋을 것
3. 새로운 땅을 줄 것(즉, 유대인의 연구성경, 156 쪽)

#### 개역개정 22:6

<sup>6</sup>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땀겨 날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22:6 “가시나무에” 이것은 짐승이나 사람이 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한 울타리(BDB 881 8)를 가리킨다.

#### 개역개정 22:7-9

<sup>7</sup>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sup>8</sup>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sup>9</sup>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이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록 이것이 그 것이라 하며 약편이

22:7-9 이 문단은 “배임죄”에 대한 내용이다(출 22:9, BDB 833, 이것은 사람 사이에 일어난 고의적인 위반을 뜻한다, 참조, 창 31:36; 50:17; 삼상 24:11; 25:28; 잠 10:19; 17:19; 28:24; 29:6,16,22). 그렇지만, 고의적이지 않은 손실의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경제적 배상의 책임이 부과되었다.

▣ “재판장”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엘로힘앞에”로 되어 있다(세 번 사용됨). 여기서 “엘로힘”은 “재판장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용법은 출 21:6 과 시 82:1,6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야웨 앞에서 행하는 어떠한 공식적 행동이 출 22:7-13 의 문맥적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출 22:11 에서 시사한다.

**개역개정 22:10-13**

<sup>10</sup>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sup>11</sup>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sup>12</sup> 만일  
자기에게만 드트 만약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한 것이니 <sup>13</sup> 만일 찌겨으면 그 것은 간권다가 죽어하

**22:10-13** 이것은 일상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본문이다. 만일 그들이 서로에게 공정하지 않게 행하였다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여호와 앞에 가서 맹세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사용한 확실한 방법이었다. 특별주제: 야웨의 이름을 보라.

**22:11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이것은 야웨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나타내는 일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가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름을 인해 그 자신이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된다.

출애굽기 21-23 장(즉, “언약의 책”)에서 야웨라는 성호가 드물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확실히 모른다.

**22:13** 짐승이 죽었거나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맹세 뿐 아니라 그 증거도 요구되었다(참조, 창 31:39; 암 3:12).

**개역개정 22:14-15**

<sup>14</sup>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sup>15</sup>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22:14-15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빌리다”(BDB 981, KB 1371, 칼 미완료형)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돌려줄 것을 전제로 요구하다”(참조, 왕하 4:3; 6:5)와 “가지기 위해 요구하다”(참조, 출 3:22; 11:22)이다. 똑같은 사전적 의미를 가진 사항이 출 12:35 에서도 나온다.

이 문단(출 22:14-15)은 출 22:7-13 의 요약이다.

## 개역개정 22:16-17

16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꺾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 22:16-17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꺾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여인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여겨졌다. 약혼은 결혼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졌다(참조, 신 22:23,24). 사실상 이것은 아내를 실제로 사는 행위가 아니었고, 가족에게 있어서 그녀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보상해 주기 위한 일이었다(참조, 신 22:28-29). 이 경제적 보상은 대개 은 50 세겔로 행해졌다. 문화적으로 행해진 이러한 결혼지참금에 대해 성경에서 상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을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다.

“꺾다”라는 동사(BDB 834, KB 984, *ㅍ/열* 미완료형)는 “유혹하다”나 “속이다”를 뜻한다. 이 동사의 *ㅍ/열*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사기 또는 속임수 – 삼하 3:25; 잠 1:10; 16:29; 24:28; 렘 20:7
2. 성적인 유혹 – 호 2:14(UBS *핸드북*의 529 쪽을 보라)
3. 설득 – 삿 14:15; 16:5

어떻게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구애를 받았는가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나, 그녀가 다른 남자와 혼인하는 일은 금해졌다!

출 22:17 에서는 자기 딸을 꺾어 동침한 자에게 딸을 시집보내기를 여자의 아버지가 거부하는 경우에, 그녀를 꺾어낸 자가 여전히 “*모할*”(즉, 그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 참조, 창 34:12; 삼상 18:25)을 지불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것은 피해를 받은 여자(즉, 강간은 아님)가 더 이상 처녀(BDB 143)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는 일이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그 소녀가 약혼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녀가 이미 법적으로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참조, 신 22:23-39).

## 개역개정 22:18

18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22:18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것은 필연적인 법이다(출 22:18-24). 이 내용은 신 18:9-13 의 것과 비슷하다. “무당”(BDB 506, 여성형)이라는 용어는 마술을 뜻하며, 레 19:31; 20:27; 렘 27:19; 말 3:5 에서 이것에 대하여 정죄하였다. 이것은 사람이 영적 영역에 속하는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변상황을 조종하려는 시도이다.

무당(BDB 506, KB 503)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쫓개다”를 뜻하여 (1) 마술을 위한 약을 만들기 위해 첨가물을 갈기갈기 찢는 일이나 (2) 신의 주목을 받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자르는 것(즉, 시리아에서의 용법, 참조, 왕상 18:28)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바로의 지혜로운 자들을 일컫기 위하여 출 7:11 에서 사용되었고, 단 2:2 에서 느부갓네살의 지혜로운 자들을 일컫는데 사용하였다.

**개역개정 22:19**

19 지스기 해으린느 기느 바드 시 즈이기니 니

22:1 “집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행해진 이방인의 예배의식을 가리킨다. 어떠한 신을 상징하는 동물과의 행음은 그 신과의 연합으로 여겨졌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이교도적 풍습을 정죄한다(참조, 레 18:23; 20:15,16; 신 27:21).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은 많은 경우 이교도의 예배의식과 관련을 가진다(호로도투스 2.46 을 보라).

**개역개정 22:20**

20 여호와 이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 니

22: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야웨의 독특하심을 확증함(즉, 유일신 신앙)
2. 고대 근동의 다신교 사상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방법

야웨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특별주제: 유일신 신앙을 보라)을 이스라엘이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구약에서 다른 “신들”(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다항[“*엘로힘*”]을 보라)을 인식하고 있다.

1.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는 천사들
2. 귀신들(특별주제: 천사들과 귀신들을 보라)
3. 이방인의 만신전(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그들의 실재성을 인정한 것은 아님)

그것들을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금지되었다(참조, 출 20:2-6; 22:20; 23:13,32-33; 34:11-17; 신 4:19-24; 7:1-5).

▣ “**멸할지니라**” “**멸할지니라**”(BDB 355, KB 353, 호플 미완료형)는 “엄금함”을 뜻한다. 이것은 고대의 전투에서 적군을 완전히 멸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신 20:16-18; 수 6:18-19,21; 삼상 15:3).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 비추어 이것을 정죄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 당시의 문화에 비추어 이것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개역개정 22:21-24**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22:21-24** 이 단락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낸다. 이 같은 주제가 종종 신명기서에서 반복되어 제시된다(즉, 신 1:16-17; 10:18-19; 24:17; 27:19).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외국인들, 객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옹호자가 되실 것이다(참조, 특별히 출 22:23,27).

**22:24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이것은 군사적으로 패하여 가나안에서 포로로 잡혀감(즉, 앗시리아에게 포로가 되며 바벨론에게 포로됨, 또한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여러 번 패한 일)을 가리킨다. 언약을 불순종하는 일의 결과는 심각하다(참조, 레 26 장; 신 27-30 장; 갈 6:7-8)!

**개역개정 22:25-27**

**25** 네가 만일 나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22:25-27** 이것은 돈을 꾸어 주는 것에 대한 본문이다. 언약적 형제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과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언약적 형제에게서 이자를 받을 수 없었다(참조, 레 25:35-37; 신 23:19-20).

**22:26 “옷을 전당 잡거든”** 옷은 겉옷을 가리킨다. 잠잘 때 이 옷으로 종종 몸도 덮을 수 있었다(참조, 신 24:12-13). 빌려준 돈에 대한 전당물로 옷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자애로운 언약적 동반자는 그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었다/돌려주어야만 했다(참조, 출 22:27). 낮에 일하는 노동자(“고용인,” 출

22:15 은 일일 노동자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 출 12:45)가 저녁에 임금을 받게 될 때까지 채주가 종종 이러한 전당물을 저당잡아 노동자로 하여금 빌린 돈을 갚게 하였다.

### 개역개정 22:28

28 나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2:28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일반적으로는 “신”을 뜻하는 이 용어가 실제로 재판장을 가리키는 “엘로힘”(elohim)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를 나타내는 대문자체로 이 단어를 표기해서는 안된다(참조, 출 22:8-9; 사 21:6; 시 82:1. 그 이유는 이 “엘로힘”(elohim)이라는 용어가 재판장을 뜻할 수 있으며, 뛰어나신 하나님을 언제나 시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조, 페쉬타와 TEV 각주). 이 절에서는 우리가 권세자들에 대해 합당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에 행 23:5 에서 바로 이 절을 인용하였다.

“지도자”(BDB 672 I)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위로 올려진 사람”을 뜻한다. 출 16:22(참조, 수 9:15,18; 22:30)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즉, 지파의 지도자들, 참조, 민 1:16,44). 이 용어는 종종 왕같은 지도자들을 가리킨다(즉, 왕하 11:34).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군주)이 없었다.

### 개역개정 22:29-30

29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22:29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출애굽기 22 장에서 28 절과 29 절은 모두 백성들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다. 처음 열매와 초태생과 십일조는 이스라엘의 신정왕국을 지원하기 위한 고대의 방법이었다. 약속의 땅에 사는 농민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시기를 따라 요구된 세 종류의 십일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주제: 모세의 율법에서의 십일조를 보라.

이 절은 추수한 곡식과 과일의 처음 부분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 용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1. “네가 추수한 것”(문자적으로, “가득함,” BDB 571)
  - ㄱ. 발의 - 출 22:29
  - ㄴ. 포도즙 틀의 - 민 18:27
  - ㄷ. 씨의 - 신 22:9
2. “네가 짜낸 즙”(문자적으로, “눈물들,” BDB 199, 구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옴), 이것은 다음 항목을 뜻한다

ㄱ. 포도주

ㄴ. 올리브 기름

### 개역개정 22:31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22: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출애굽기 22:31 은 이러한 법의 목적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족적 특징을 드러내야 한다. 언약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으로 보였다(참조, 레 19:5,6). 그들의 삶이 모든 면에서 다르고 독특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본문에서는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성스럽고 거룩한 삶’을 인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한다. 피가 이러한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이교도적 행습(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숭배를 보라)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했다 (특별주제: 거룩함을 보라).

▣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이것은 다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먹을 수 있는 짐승’(즉, 정결한)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체의 살에는 피가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이것은 위생과 관련을 가졌을 뿐 아니라 종교적인 사항이 되었다.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학자들은 처음 네 절이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2. 이 장에서는 어떻게 사유재산권을 제시하는가?
3. 이 장에서는 어떻게 주인의 책임을 제시하는가?
4. 왜 여러 배로 배상할 것을 규정하였는가?
5. 출 22:8,9 과 28 은 하나님을 지칭하는가 아니면 재판장을 지칭하는가? 왜 그러한가?
6. 출 22:16-17 은 왜 강간에 대한 사례에 속하는가?

7. 사람들이 무당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는가?
8. 음식 규정이 어떻게 “거룩함”과 관련을 가지는가?

# 출애굽기 2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다양한 법	모든 이를 위한 정의	여러 가지 사회적 종교적 법 (22:18-23:9)	정의와 공평함	정의: 적에 대한 의무
23:1-3	23:1-3	23:1-3	23:1-3	23:1-3
23:4-5	23:4-5	23:4 23:5	23:4-5	23:4-5
23:6-7	23:6-9	23:6-8	23:6-8	23:6-8
23:8				
23:9		23:9	23:9	23:9
안식일과 땅	안식일 법	종교력	안식년과 안식일	안식적 해와 안식일
23:10-11	23:10-13	23:10-11	23:10-11	23:10-11
23:12-13		23:12-13	23:12 23:13	23:12 23:13
세 가지 국가적 축제	매년의 세 축제		세 가지 큰 축제	큰 축제
23:14-17	23:14-19	23:14-15a 23:15b 23:16-17	23:14-15 23:16a 23:16b-17	23:14-17
23:18		23:18	23:18	23:18
23:19a		23:19a	23:19a	23:19a
23:19b		23:19b	23:19b	23:19b
땅의 정복	천사와 약속	언약 법전의 결론	약속과 지침	가나안을 들어가는 약속과 지침
23:20-33	23:20-26	23:20-21 23:22 23:23-33	23:20-26	23:20-26
	23:27-33		23:27-33	23:27-33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이 장에는 출 21 장과 22 장처럼 여러 가지 문법적 강조구문(즉, 부정사 절대형과 명령형 동사)이 나온다. 출애굽기 21 장의 문맥적 통찰에서 제시한 자세한 목록을 참조하라.

나. 출 23:1-9 은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언약적 동반자에 관계된 사회적 의무를 다룬다.

다. 출 23:10-13 은 창 2:2 과 출 20:8-11 에 나오는 안식일 법에 따른 “안식” 곧 “땅”과 사람의 안식에 대한 내용이다.

출애굽기에서 매주 쉬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내용(즉, 사람과 짐승의 안식)이 신명기 5 장에서 바뀌어 제시됨은 흥미롭다(즉,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해주신 일).

라. 출 23:14-19 은 매년 가질 세 가지의 중요한 축제에 대한 내용이다.

1. 유월절
2. 오순절
3. 초막절

마. 출 23:20-33 은 정복과 관련을 가진 바 ‘야웨의 특별한 대리인인 천사’에 대한 내용이다.

**개역개정 23:1-3**

**1**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3**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23:1-3** 이 구는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내용이다. 증언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정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라(참조, 출 20:16; 신 19:15-21).

1. 거짓된 풍설, 출 23:1 - BDB 1034 와 BDB 996 의 조합
2. 위증하는 증인, 출 23:1 - BDB 729 와 BDB 329 의 조합(참조, 신 19:15-21)
3. 증언을 하지 말며(문자적, “대답을 하다”), 출 23:2 - BDB 772 I, KB 851, *칼* 미완료형
4. 송사에, 출 23:2 - BDB 936
5. 부당한(문자적으로, “구부리다”) 증언, 출 23:2 - BDB 639 의 3 항 , KB 692, *하/플* 부정사 연계형
6.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문자적, “존중하다”), 출 23:3 - BDB 213, KB 239, *칼* 미완료형
7. 송사라고 해서, 출 23:3 - BDB 936

다섯 동사 가운데 두 번째 것은 *칼* 지시형이다. 이것은 다른 네 가지 *칼* 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했다. 대부분의 고대 근동의 법전은 부자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 유리한 내용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했다(참조, 레 19:15).

**23:1 “퍼뜨리지 말며”** 이 동사(BDB 669, KB 724, *칼* 미완료형)는 “들어올리다”나 “잡어지다”를 뜻한다. 이것은 출 20:7 에서 여호와 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에서 사용되었다. 출 23: 1-9 은 법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용어는 법적 용어이다.

▣ “**거짓된 풍설**” 이것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기 위하여 악의적인 험담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사적으로 말하는 것에 책임이 따른다(참조, 신 19:16-21).

**23:2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 절은 “군중 심리” 또는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를 가리킨다(즉, JPSOA, 참조, 레 19:15). 다른 이들이 잘못 행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사고이다.

“다수의 견해”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 “**송사에**” 이것은 “법적 소송”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인 “**לִישׁוּר**(BDB 936)이다.

▣ “**증언**” 이 용어(BDB 936, 참조, 출 23:2,3,6)는 재판장이나 제사장 앞에서 판결이 될 법적 소송을 가리킨다(참조, 신 19:17; 21:5; 25:1).

▣ “**부당한 증언**” 이 둘은 같은 어근(BDB 639, KB 692)을 가진 부정사 연계형에서 왔다.

**23:3 “편벽되지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사법체계에 있어서 “편벽되지 않음”은 아주 중요한 주제였다(참조, 레 19:15; 신 1:17; 10:17-18). 야웨께서 편벽되지 않으시듯이(참조, 신 10:17-18; 대하 19:6-7) 이스라엘의 재판관들도 편벽되지 않아야 한다(참조, 신 1:17; 16:19; 24:17; 레 19:15).

이 절에서 “편벽되지 않음”(BDB 213, KB 239)은 문자적으로 “존중” 또는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존경을 나타내다”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적 개념을 나타내기 위하여 “얼굴을 들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후자는 편벽됨을 나타내지 않음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같은 주제가 출 23:6-8 에서 계속된다.

▣ “**가난한 자**” 이것은 **עָנִי**(BDB 195)이라는 용어인데, 출 23:6 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를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BDB 2)가 사용되었다. 어떤 학자는 이 용어를 “힘 있는 자” 또는 “강한 자”를 뜻하는 **גִּבּוֹר**(BDB 152)로 수정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수정은 인간의 경향을 더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R. 알란 코울의 *틴델 구약 주석*, 177 쪽; 브레바드 S. 차일드스, *출애굽기*, 450 쪽을 보라).

“역 차별”은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주제이다(참조, 레 19:15; 신 1:17).

#### 개역개정 23:4-5

4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23:4-5** 이것은 공정한 사회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예시하는 본문이다. 언약적 동반자가 다른 동반자와 개인적으로 불화한 사이에 있는 경우에도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출 23:4).

출 23:5에서는 그 범위를 원수에 대한 내용에서 원수의 짐승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시킨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공정하게 대하며 짐승에 대해서도 긍휼을 가지고 대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참조, 온 4:11). 짐승은 최초의 창조에서와 마찬가지로(창 1 장) 새 시대에서도 한 부분을 이룰 것이다(참조, 사 11:6-9).

하나님께서 짐승에 대하여 명백하게 돌보심을 주목하라(즉, 바벨론 탈무드, 트랙테이트, 바바 멧치아, 32a-b; 참조, 온 3:8; 4:11).

문맥적으로 볼 때, 출 23:4-5은 법정소송을 다룬 문맥 사이에 끼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수”는 아마 법적 소송의 상대방을 가리킬 것이다. 이것은 법정으로 가는 길이나 법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23:4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것은 출애굽기 21-23 장에 나오는 문법적인 여러 강조구문(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의 용법)가운데 하나이다(참조, 출 23:2,4,5,22,24). 출애굽기 21 장의 문맥적 통찰에서 제시한 목록을 보라.

**23:5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것은 같은 어근(BDB 736, KB 806)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의 용법으로서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UBS 본문 프로젝트(122 쪽)에서는 “부릴지니라”(BDB 736, KB 806)라는 용어에 관하여 유용한 설명을 제시한다.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

1. 출 23:5b, “버리다,” “떠나다”
2. 출 23:5c, “강화시키다,” “튼튼하게 하다”(참조, 느 3:8,34)

또한 당신이 그 짐승을 풀어주기 위하여 ‘당신의 원수인 짐승의 주인’을 도와야 함을 주목하라. 이 일이 있는 후에 그들은 더 이상 원수관계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 개역개정 23:6-7

<sup>6</sup>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sup>7</sup>거짓 일을 멀리 하며 무죄한 자와

**23:6-8** 이 단락은 출 23:1-3 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법적 체계에 대한 것이다. 뇌물을 부정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한다(참조, 신 16:19; 잠 17:23). 사 5:22-23 에서는 뇌물과 술취함을 부정과 연결시킨다.

**23:6** 이것은 출 23:3 과 관련이 있다. 출 23:6-9 은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말씀일 것이다.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또는 “뒤집다”라는 동사(BDB 639, KB 692, *히/플/미완료형*)는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참조, 신 16:19; 24:17; 27:19; 삼상 8:3; 잠 17:23; 애 3:35; 암 2:7)! 야웨께서 정의로우시다; 야웨의 백성도 정의로와야 한다!

23:7 거짓된 송사는 사형이라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었고 실제로 종종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1. 무죄한 자와
2. 의로운 자가

처벌받는 일(즉, 신 25:1).

하나님께서서는 악한 재판관들을 엄격하게 다루실 것이다! 출 23:8 에서는 법적 송사에서 뇌물을 받는 것을 특별히 다룬다(참조, 신 16:18-19; 27:25).

뇌물(BDB 1005)은 (1) 잘 보이는 눈을 멀게하며 (2) 정의를 비틀고 뒤틀며 뒤엎는다.

▣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야웨께서는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참조, 출 34:7). 죄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른다. 즉각적 결과와 영원한 결과가 따른다!

이 문맥에서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는 다음의 항목중 어느 것과 관련을 가진다

1. 거짓 증언
2. 증인의 말을 바꾸려 시도한 자들
3. 거짓 증인인줄을 알면서 거짓 증인의 말을 받아들이는 재판관
4. 뇌물을 주고 받는 일에 관련된 자들

#### 개역개정 23:8

8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은 어둡게 되고 이로운 자의 마음은 굽게 된다. 그러나

23:8 “뇌물” 이것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좋은 설명을 *성경의 어려운 말*(286-287 쪽)에서 보라.

#### 개역개정 23:9

9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던즉 나그네의 사정을

**23:9**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한 때 나그네로 지냈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져야만 한다(참조, 출 22:21; 레 19:33-34). 야웨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그들도 사회의 힘 없고 약한 자들에게 대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참조, 신 1:16-17; 27:19). 이스라엘은 야웨의 성품을 나타내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구약).

▣ **“나그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시작한 일은 그들로 하여금 “나그네들”(BDB 158, 세 번 사용됨)의 곤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을 공평하게 대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잘 기억하며 그들에게 대하여야 한다(참조, 출 22:21; 레 19:33-34; 신 16:19; 24:18,22).

“나그네들”(BDB 158)이라는 용어가 다음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사용하였다

1. 아브라함 – 창 23:4
2. 모세 – 출 2:22; 18:3
3. 롯의 가족 – 롯 1:1
4.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 출 22:20; 23:9; 신 10:19

이 문맥에서 이 절은 법적 사건이나 법적 소송과 관련을 가진다(“לֵוִי,” BDB 936, 참조, 출 23:2).

#### 개역개정 23:10-11

<sup>10</sup>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sup>11</sup>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23:10-11** 이것은 농업적으로 증대되는 생산력이라는 개념과 관련을 가진다. 땅을 휴작시켜야 했다. 제 칠년에는 저절로 자란 것을 내버려두어 그 지역에 사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해야 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여기서도 돌아보심을 주목하라(참조, 출 23:11,12).

1. 그것들에게 언약을 주신다 – 창 9:10; 호 2:18
2.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 욥 38:41(참조, 눅 12:24); 시 104:21
3. 먹을 것을 주신다 – 시 104:21; 136:25; 147:7; 율 1:20; 마 10:29
4. 긍휼을 가지고 기억하신다 – 창 8:1; 욥 4:11
5. 마지막 때에 한 구성원을 이룰 것이다 – 사 11:6-9; 65:25

**23:10** 이것은 이스라엘에 주신 일곱 가지 일반적 원리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땅과 관련을 가진다. 출 23:12 에 있는 원리는 일과 관련을 가진 주간 일정표를 나타낸다.

**23:11** 어떤 사람들은 이 일정표가 밭/포도원마다 시기가 달라지는가를 궁금하게 여긴다(참조, NIDOTTE, 제 1 권 229 쪽). 안식년 제도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다. 만일 모든 밭을 같은 해에 쉬게 된다면 그 해에는 양식이 상당히 많지만 나머지 육년 동안은 아무 것도 없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며,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에 대해 배려하심도 나타낸다(참조, 출 23:5).

**개역개정 23:12-13**

<sup>12</sup>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쉬는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sup>13</sup>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23:12** 땅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휴작하듯이, 사람과 짐승에게도 같은 원리가 요구된다. 실제적으로 쉬는 날이 된 이 안식일은 종교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었다(참조, 출 20:9-11; 31:12-17).

이것은 창 2:2 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한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안식하여야 한다.

1. 주인들
2. 그들의 자녀들
3. 그들의 종들
4. 그들의 가축(출 23:5)
5. 또한 그들 가운데 거하는 객들(참조, 출 20:8-11)

NIDOTTE 제 1 권 613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배려하심을 나타내는 흥미로운 목록을 제시한다.

1. 짐승에게 언약을 주셨다 – 창 9:10; 호 2:18
2. 안식일에 짐승을 배려하신다 – 출 23:12
3. 짐승이 고통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 욥 38:41; 시 104:21
4.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 시 136:25; 147:7
5. 짐승이 사람과 더불어 긍휼을 입는다 – 창 8:1; 온 3:8; 4:11

▣

NASB, REB “그들 자신의 생기를 되찾게 하다”

NKJV, NRSV

JPSOA, LXX “생기를 되찾게 될 것이다”

TEV “실 수 있다”

REB “숨 들릴 틈을 가진다”

이것은 드물게 사용된 단어이다(BDB 661, KB 711). 이 단어는 이곳과 출 31:17 과 삼하 16:14 에서만 나온다.

NJB 역에서는 이 단어가 숨을 쉬는 동물(참조, 창 1:24; 2:19)과 인간(참조, 창 2:7)을 가리키는 *네페쉬*(BDB 659)와 관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 용어(BDB 661)는 “숨을 쉬는” 동물을 가리킨다. 하지만 사람을 가리킬 때는 일반적으로 “영”(참조, 창 2:7)으로 번역하였다. 이 문맥에서는 “생기를 되찾다”가 가장 적합한 해석이다(참조, 출 31:17; 삼하 16:14).

**23:13** 이것은 요약적 절로서(참조, TEV, NJB), 출 20:3-5,23 에 나오는 우상숭배의 금지와 관련을 가진다.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 명령의 의미를 나타낸다. 우상숭배를 엄격히 금지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만 한다(참조, 신 4:9,23; 8:11-20).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는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에 따른 조건적 약속이었다(즉, 레 26 장; 신 27-30 장; 수 23:6-13).

**23:13a**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이 요약적 내용이 얼마만큼 앞에 있는 사항을 가리키는 것인가를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긴다.

1. 모든 언약책- 출 21:1-23:13
2. 언약책의 일부 – 출 22:17-23:12(유대인의 연구성경, 159 쪽)
3. 단지 23:1-12 의 내용만
4. 십계명과 언약책 – 출 20:1-23:13

야웨의 말씀이 축복 뿐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주고 있음을 주목하라. 불순종에는 심각한 결과가 뒤따른다(참조, 레 26 장; 신 27-30 장)!

**23:13b** 이것은 반복되는 경고로서 출 20:3-5 의 내용을 가리킨다. 우상숭배는 타락한 인간을 지속적으로 유혹하였다(참조, 롬 1:21-25). 다산숭배는 고대 근동에서 표준적인 양식이었다.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숭배를 보라.

이스라엘은 종종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참조, 출 23:24,32; 34:13-16; 신 7:4-5,25; 12:1-3,30-31; 20:17-18)을 피하라는 경고를 종종 받았다(문자적, “경계하라,” BDB 1030, KB 1581, *ל/פל* 미완료형).

▣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이 부정적 동사(BDB 269, KB 269, *ה/פל* 미완료형)는 문자적으로는 “기억하라”이다. 그러나 *ה/פל*형에서는 이 단어가 “말로써 언급하다”를 의미할 수 있다(즉, 예배의 행위). 이것은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들의 이름은 그것들의 존재를 시사한다.

#### 개역개정 23:14-17

14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15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빱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23:14-17 이 문단에서는 해마다 열리는 세 가지 중요한 축제일에 대하여 말한다.

1.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로도 불림,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라(I. 라. 제 1 항). 이 절기에 대하여 출 12:1-14,21-28; 레 23:4-14; 민 28:16-25; 신 16:1-8,16 에서 언급한다
2. 맥추절; 이 절기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즉, 칠칠절과 오순절, 참조, 출 31:16; 34:22; 레 23:15-21; 민 28:26-31);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라(I. 라. 제 2 항).

첫 열매는 서로 다른 시기에 익었다.

- ㄱ. 포도 – 민 13:20
- ㄴ. 곡식 – 출 23:16
- ㄷ. 밀 – 출 34:22
- ㄹ. 무화과 – 나 3:12

이것은 후에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한 양식이 되었다(참조, 신 18:4; 느 10:38). 이러한 다양성은 연중 양식의 공급원이 되었다. 이 같은 개념을 고려할 때, 밭을 6 년간 경작한 후 밭마다 그 휴작시기를 달리했을 것이라고 이해하게 한다.

3. 수장절; 이 절기도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즉, 회막절, 초막절). 제 2 항은 밀의 첫 수확에 관한 절기이고, 이것은 일반적 추수에 관한 절기이다(참조, 출 23:16; 34:22; 레 23:34-44; 신 16:13-17).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라(I. 라. 제 3 항).

매년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사(즉, 세 절기와 속죄일, 레 16 장)는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공화(특히 언약백성에게 대하여)를 강조하여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매년 가지는 이 행사는 매주 지키는 안식일(또한 "일곱"과 관련을 가진 행사인 놓아주는 해, 회년)과 더불어 예배 뿐 아니라 가르침의 기회였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공화심과 공급심과 돌보심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행사였다.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절기**

- I. 모세가 말한 연중 절기(참조, 출 23:14-17; 레 23 장; 민 28 장; 신 16 장)
  - 가. 가능한한 모든 유대 남자는 세 연중 절기에 참석하도록 요구되었다(참조, 출 23:14,17; 34:23).
  - 나. 이 절기들은 민족적 중요성뿐 아니라 농업적 중요성도 가지고 있었다.
  - 다. 각각의 절기는 휴식, 예배, 공동체적 교제를 위한 날이었다.
  - 라. 요구된 세 연중 절기
    1. 유월절(참조, 출 12:1-14,21-28; 레 23:4-14; 민 28:16-25; 신 16:1-8)

2. 오순절(칠칠절, 참조, 출 23:16; 34:22)
  - ㄱ. 밀 수확에 대한 감사와 헌신
  - ㄴ. 랍비적 계산에 의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토라를 준 것을 기념하여
  - ㄷ. 레 23:15-21; 민 28:26-31 을 보라
3. 회막/초막/오두막(숙곳)
  - ㄱ. 일반 수확에 대한 감사
  - ㄴ. 광야 방랑시기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여
  - ㄷ. 출 23:16; 34:22; 레 23:34-44; 신 16:13-17 을 보라
  - ㄹ. 팔일 간의 절기가 이어졌다(참조, 레 23:36; 민 29:35-38)
- 마. 다른 연중 절기
  1. 신년 의식(로쉬 하샤나)
    - ㄱ. 레 23:23-25; 민 29:1-6 을 보라
    - ㄴ. 휴식과 희생의 이 날은 티스리 달의 첫째 날에 지켜졌다
    - ㄷ. 신약시대에 대중적이 된 이 날의 절기적 측면은 오경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III. 이런 의식과 규례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되었다. 이런 절기와 금식은 이교도의 달력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야웨께 대한 유대인의 경배와 헌신으로 독특하게 발전되었다. 자연(계절), 농업(파종, 비, 수확), 민족적 사건(출애굽, 율법을 받음, 등등)은 예배를 위해 연중의

**23:14 “세 번”** 이 명사구문은 다음 단어에서 온 것이다.

1. 세 - BDB 1625
2. 발 - BDB 919

이것은 사람이 반드시 여행하여야 할 장소를 뜻한다(즉, 중앙성소를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생동력 있는 표현임). 민 22:28,32,33 에서는 단순히 “세 번”을 나타낸다(즉, 생동력이 없는 표현).

**23:15 “무교병”**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신속히 떠났다. 후에는 누룩이 다음 사항을 의미하였다

1. 죄와 부패의 상징(참조, 출 23:18; 34:25; 레 6:16-17; 마 16:6,12; 막 8:15; 눅 12:1)
2.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님(참조, 레 2:11)
3. 침투를 나타내는 관용어(참조, 마 13:33; 눅 13:21; 부정적 의미로는 고전 5:6-8; 갈 5:9 에서 사용됨)

특별주제: 누룩을 보라.

▣ **“아빱월”** 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달력을 보라.

▣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내용이 일곱 번 언급되었다(참조, 출 22:29-30; 34:20).

이것은 밭과 가축의 소산을 하나님께 가져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감사를 나타내어야 했다. 특별주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에서의 제사 및 그 중요성을 보라.

맛소라 학자들은 구약의 신인동형적 표현에 대하여 예민하였다. 이 구는 “나의 얼굴을 보다”임이 분명하다(참조, 출 23:17; 34:20,23,24; 신 16:16; 31:1; 삼상 1:22; 시 42:2; 사 1:12; 아카디아어에 평행을 이루는 구가 나타난다). 맛소라 본문에서는 이 동사가 *니팔*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칼* 동사형이 더 적합하다(참조, 로더햄의 *강조성경* 107 쪽; 브레바드 S. 차일드스의 *출애굽기* 451 쪽; G. B. 케어드의 *성경의 언어와 표현* 73-75 쪽; 또한 유대인의 연구성경 160 쪽에서 이것을 제안한다).

23:17 “주 여호와께” 이것은 두 성호가 함께 사용된 본문이다.

1. 이곳, *아돈*(BDB 10)과 *야웨*(BDB 217)
2. 종종, *엘로힘*야웨, 창 2:4 의 경우

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라.

**개역개정 23:18**

18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개역개정 23:19a**

19a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에

**개역개정 23:19b**

19b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23:18-19 이것은 제사법과 느슨한 관련을 가지는 일련의 내용이다.

1.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출 34:25
2. 너는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기름은 제사로 드러진 짐승의 건강함과 생명력을 상징하였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속하였다(즉, 피도 마찬가지였다)
3.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린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작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참조, 출 29:12-13; 레 3:16-17; 7:23-25)
4.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라스 샴라* 본문(사이러스 H. 고든, *우가릿 핸드북* 174 쪽)에서는 이것이 다른 문화권에서 다산의 상징으로서 행해졌음을 제시한다. 유대교에서는 이 절에 기초하여 엄격한 음식규정을 발전시켰다(고기와 유제품에 다른 술과 접시를 사용하는 일).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예배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참조, 출 34:26; 신 14:21). 이 본문은 질병이나 위생상의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3:18 “유교병” 특별주제: 누룩을 보라.

개역개정 23:20-33

20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2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4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27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28 내가 왕법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법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29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됴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 년  
아는 그드은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 하리니 30 내가 번서한 것 따은 기어으르 어으 때까지 내가

23:20-23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천사”에 대한 내용이다(참조, 출 14:19; 32:34; 33:2). 나는 그가 “야웨의 천사”라고 생각한다. 특별주제: 여호와와 천사를 보라.

그의 역할을 주목하여 보라.

1. 그가 그들을 보호하신다
2. 그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3. 그가 그들을 지도하실 것이다(또한 불순종에 대하여 경고할 것이다)
4. 그가 야웨의 이름을 친히 가지셨다(특별주제: 야웨의 “이름”을 보라)
5. 그들이 순종한다면, 그가 그들의 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일컫는 표현이다(출 23:22 에 나오는 “내가”와 출 23:23 에 나오는 “내 사자”를 비교하라). 특별주제: 여호와와 천사를 보라. 아마 이것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참조, 사 63:7-10, 그 본문에서는 야웨, 천사, 성령이 문맥에서

통일되게 나온다;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또한 약속에 조건적인 면이 있음을 주목하라(즉, 출 23:21-22).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 특별주제: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한 문맥적 상황에서 각각 하시는 일을 주목하라.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개념은 설득력이 있다.

#### 가. 복음서

1. 마태복음 3:16-17; 28:19(또한 이와 평행을 이루는 구절에서)
2. 요한복음 14:26

#### 나. 사도행전 – 행 2:32-33,38-39

#### 다. 바울

1. 롬 1:4-5; 5:1,5; 8:1-4,8-10
2. 고전 2:8-10; 12:4-6
3. 고후 1:21; 13:14
4. 갈 4:4-6
5. 엡 1:3-14,17; 2:18; 3:14-17; 4:4-6
6. 살전 1:2-5
7. 살후 2:13
8. 딤후 3:4-6

#### 라. 베드로 – 벧전 1:2

#### 마. 유다 – 20-21 절

하나님의 복수성을 구약에서 암시하고 있다

#### 가.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형

1. *엘로힘*이란 이름은 복수형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항상 단수형 동사를 가진다.
2. “우리” 창세기 1:26-27; 3:22; 11:7

#### 나. 하나님이 처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대표자라 나타남

마. 메시아와 성령은 서로 구별됨, 스가랴 12:10

바. 사 48:16; 61:1 에서는 삼위를 모두 언급함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위격은 경직된 유일신을 믿는 초기의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왔다.

1. 터툴리안 - 성자를 성부께 종속시킴

2. 오리겐 - 성자와 성령의 신적 속성을 종속시킴

3. 아리우스 -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함

4. 모나키안 주의 \_ 한 하나님께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연속해서 나타나셨다고 믿음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자료에 기초한 사항을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내용이다.

1. 주후 325 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그가 성부와 동등하심을 확인함

2. 콘스탄티노플 회의(주후 381 년)에서는 완전한 위격과 신성을 가지신 성령께서 성부와

23:20 “내가 예비한 곳에” 이것은 가나안에 대한 암시이며(참조, 출 23:23), 창 15:12-21 에 나오는 무조건적인 예언을 가리킨다.

23:21

NASB “반역적으로 되지 말라”

NKJV “노엽게 하지 말라”

NRSV, TEV “반역하지 말라”

NJB, JPSOA, REB “저항하지 말라”

LXX “불순종하지 말라”

이 히브리 어근으로 두 가지 단어를 고려에 넣을 수 있다.

1. *마를* – MT, “쓰” (BDB 600, KB 633, 참조, 출 12:8)
2. *마라* – LXX, “반역하다” (KB 632, 참조, 민 20:10,24; 27:14)

천사가 이스라엘을 “지킨다” (BDB 1036, KB 1581, *칼* 능동 부정사 연계형). 따라서 이스라엘도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BDB 1036, KB 1581, *나/팔* 명령). 언약에는 상호적인 책임이 따른다: 바로 이러한 특징이 언약을 이룬다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이스라엘은 야웨께 존경과 봉사와 순종을 드려야 한다! 특별주제: 예정(칼빈주의) 대 인간의 자유의지(알미니안주의)를 보라.

**23:22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이것은 이 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강조구문이다 (참조, 출 23:2,4,5,22,24[2 회]). 순종이 중요하다! 특별주제: 지키다를 보라. “잘 청종하다”는 같은 어근 (BDB 1033, KB 1570, 문자적으로 “듣다”)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의 용법으로서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순종이 중요하다 (참조, 레 26 장; 신 27-30 장).

**23:23 “. . . 사람에게로”** 특별주제: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거한 자들을 보라.

언약적 순종은 다음과 같은 면을 지닌다.

1. 긍정적인 면, 출 23:25-26
2. 거룩한 전쟁, 출 23:27-28,31
3. 승리의 시간적 요소, 출 23:29-30

▣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 . .에게로 인도하고” 이것은 창 15:12-21 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야웨의 약속을 분명히 가리킨다.

▣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 동사 (BDB 470, KB 469)는 일반적으로 “숨다”를 뜻한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하/플*형에서는 “멸망시키다”를 뜻한다 (대하 32:21; 시 83:4; 또한 속 11:8).

야웨의 천사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으로 이곳에서 말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그 일을 해야만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불순종 및 불순종의 무서운 결과로 인해 지장받았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에서 포로로 두 번 잡혀갔다).

**23:24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것은 같은 어근을 가진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 동사의 용법으로서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또 그들의 다산숭배 예배를 철저히 거부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그들(또 그들의 예배)에 의해 오염되게 된다. 같은 명령이 민 33:50-56 에 나온다!

▣ 이 절에서는 출 20:3-5,23 의 강조점을 다시 제시하고 있다. 우상숭배를 전적으로 금하였다(참조, 출 23:13,33). 우상들을 반드시 “부수고”(23:23) “다 깨뜨리며”(23:24) “철저히 부수고(신 7:2) “그것들의 이름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신 12:3). 우상숭배는 심각한 일이다!

▣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가나안 지파들은 야웨께서 금령(즉, *헤렘*)을 내리사 완전히 멸망하게 하신 민족이었다(참조, 출 23:32-33; 34:12; 신 7:2,16; 13:8; 수 23:13).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여리고에 대하여도 금령(헤렘, 참조, 레 27:28-29)이 내려져 숨을 쉬는 모든 것/사람이 죽임을 당했다(수 6 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음을 마이모니데스(힐코트 멜라킴 6.5)가 말했다고 유대인의 연구성경(161 쪽)에서 언급한다:

1. 전쟁
2. 이주
3. 강제 노동자

이로써 그들이 창 9:8-17 에 나오는 일곱 가지 노아의 법을 준수하였다고 말한다.

이것도 강조적인 구문으로 되어 있다. 출애굽기 21 장의 문맥적 통찰에서 제시한 목록을 보라.

▣ “그들의 주상을” 특별주제: 가나안의 다산숭배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대응을 보라.

**23:25-26** 특별한 약속의 내용을 주목하라.

1. 좋은 작황(즉, 양식, 참조, 레 26:4-6,26; 신 28:5-6)
2. 비(즉, 물, 참조, 레 26:4)
3. 이집트에서와 같은 병이 없을 것임(즉, 질병을 제하심, 참조, 출 15:26; 레 26:16)
4. 많은 수의 건강한 사람과 짐승(즉,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임, 참조, 신 28:4,8)
5. 장수(즉, 날 수를 채움)

농업과 건강에 대한 약속은 그들의 순종과 관련을 가진다(참조, 신 7:12-15). 순종하지 않는다면 축복이 없고 심지어 저주가 임하게 된다! 모세의 언약은 행함과 관련을 가진 언약이었다!

**23:25** 이 절에서는 다음 두 사항(UBS 본문 프로젝트, 125 쪽)에 있어서 본문적 선택을 요구한다

1. 그가 축복할 것이다(즉, 출 23:20-23 에 나오는 천사)
2. 내가 축복할 것이다(즉, 야웨)

UBS 본문 프로젝트에서는 1 항에 “B” 등급(약간 의심스러움)을 준다. 출 23:20-23 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보라.

▣ 이 절에서는 축복을 언약에 대한 순종과 관련시킨다(참조, 레 26:3-10; 신 28:1-13). 이것은 후에 “두 길”로 알려진다(참조, 신 30:15,19; 시 1 편).

▣ “여호와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UBS *핸드북*(559 쪽)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함을 제시한다.

1. 야웨께서 양식과 물을 주실 것이다(TEV)
2. 야웨께서 이러한 것들을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NJB)

70 인역에서는 “포도주”를 이 목록에 추가시켰다. UBS *핸드북*에서는 제 2 항을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제 2 항이 다음에 나오는 구와 더 잘 연결되기 때문이다.

▣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것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성구로 종종 인용되었다(특별주제: 병고침을 보라. 또한 고든 피의 책인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는 질병*을 보라).

이 구는 출 15:26 및 신 7:15 과 관련을 가지는데, 두 본문은 이집트에 내리신 질병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레 26:16 도 주목하여 보라.

**23:26** 이 절은 출 23:25 과 마찬가지로 야웨의 언약적 축복과 관련이 있다(참조, 신 7:14; 28:4). 그러나 이 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때(즉, 그들의 노년기)에 죽게 됨을 받아들이고 있다.

**23:27-28** 이것은 거룩한 전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1. 야웨께서 이스라엘의 적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참조, 출 15:16; 23:27; 수 2:9)
2. 야웨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자연적 방법을 사용하실 것이다(말벌, 우박, 홍수)
3. 야웨께서 그들로 혼란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참조, 출 14:24; 신 7:23; 수 10:10; 삿 4:15; 삼상 7:10; 대하 15:6)

**23:27** 승리를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야웨께서 주신 승리였다(즉, 재앙, 홍해, 정복).

“위엄”(BDB 33)은 야웨를 두려워 함을 가리킨다. 이것은 야웨께서 행하신 커다란 일로 말미암아 임했다(참조, 창 25:5; 출 16:16; 수 2:9-11; 삼상 14:15). 야웨께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사용하신다.

1. 소문 – 왕하 7:6; 19:7; 사 37:7; 겔 7:26
2. 소리 – 사 30:31
3. 우박 – 사 28:2,17
4. 말벌(BDB 864, NRSV “질병”; JPSOA “재앙”) – 출 23:28; 신 7:20; 수 24:12

5. 공포/혼란 – 출 14:24; 신 7:23; 수 10:10; 삿 4:15; 삼상 7:10; 대하 15:6; 에 9:24  
이것은 야웨의 위엄을 가리킨다(참조, 사 2:10,19,21).

▣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군사적 관용어로서 수 7:8,12; 삼하 22:41; 시 18:40; 렘 48:39 에서 반복된다. 대하 29:6 에서는 이스라엘이 야웨께 등을 돌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완전한 궤멸을 가리킨다.

**23:29-31**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천천히 소유하게 될 것인지를 제시한다(참조, 신 7:22).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커다란 군대(즉, 각 성을 다스리는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패배시키셨으나, 분할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각 지파가 행동을 취해야 했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어야 했음(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어떻게 개인의 행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주목하라.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이 한 선택에는 뒤따르는 결과가 있다!

**23:30 “조금씩”** 정복은 긴 시간을 요구할 것이다(참조, 신 7:27). 각 지파가 자신이 받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

**23:31** 땅의 지리적 경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1. 얄 수프에서(갈대/풀의 바다; 특별주제: 홍해를 보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나일 강이 아니라 아카바 만을 가리킨다고 추정한다
2. 블레셋 바다까지(지중해 쪽)
3. 광야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즉, 시리아에 있는 유프라테스의 물 근원지에서 아라바까지)

이 지리적 경계가 실현된 유일한 시기는 솔로몬의 통치 시기 뿐이었다(참조, 왕상 5:1).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언약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이 약속을 오늘날의 세속적이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룬 국가에 적용해서는 안되며 또 적용시킬 수도 없다!

▣ “블레셋” 이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후기에 속하는 편집자를 나타내는 본문의 한 부분이다. 이 본문은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 글리슨 L. 알처(*어려운 성경본문 백과* 94-96 쪽)는 이것이 시대착오적 내용이 아니라는 학술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23:32-33** 경고가 거듭 제시된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어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부패하게 될 것이다(참조, 신 7:4; 20:18).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패하게 되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레 26:33; 신 4:27; 28:36-37,64; 29:28; 시 106:27 에서 예언하였다.

그러나 언제나 회개와 순종의 소망이 있다(참조, 렘 31:10-21)!

야웨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1. 야웨를 두려워 하라 – 신 10:12; 13:3-4
2. 우상을 섬기지 않음으로써 야웨를 존경하라 – 출 20:2-6; 22:20; 23:32-33; 34:11-17; 신 4:19-24
3. 야웨의 길에서 걸음 – 신 10:12; 11:22; 19:9; 30:16; 수 22:5; 왕상 3:3
4. 야웨의 법을 지키 – 출 20:6; 신 6:2-9; 7:9; 10:12-13; 11:1,13; 30:10,16; 수 22:5; 23:6
5. 야웨를 전심으로 사랑하라 – 신 4:29; 6:5; 10:12; 11:13; 13:3; 30:6
6. 야웨께 달라붙어 있으라 – 신 10:20; 11:22; 13:3; 30:20; 수 22:5; 23:8; 왕하 18:6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거짓말이 왜 상당히 가증스러운 범죄였는가?
2. 출애굽기 23 장은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3. 출 23:10-13 에 나오는 “제 6 년”이 모두 다 같은 해에 지켜졌는가?
4.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과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이 왜 서로 다른가?
5. 안식일과 해 마다 열리는 여러 축제는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
6. 어떻게 출 23:19 이 잘못 적용되었는가?
7. 누가 “여호와와 의 사자”인가?
8.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멸할 것을 명하셨는가?
9. 출 23:29-30 을 여호수아서에 비추어 설명하라.

# 출애굽기 2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확인하다	언약의 비준을 축하함	언약을 공인하다	언약의 비준
24:1-8	24:1-8	24:1-2 24:3-8	24:1-2 24:3-7 24:8	24:1-2 24:3-8
24:9-11	24:9-11	24:9-11	24:9 시내 산 위의 모세 24:10-11	24:9 산 위의 모세 24:10-11
24:12-18	24:12-18	24:12-14 24:15-18	24:12-14 24:15-18	24:12-15a 24:15b-18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기타

**문맥적 통찰**

가. 이 장은 연속적이고 연대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 “중복되는 내용”이 나타난다. 얼마나 많이 산에 올라올 것을 모세에게 지시하며 본문에서 그가 몇 번 올라갔다고 제시하는지를 주목하라(참조, 출 19:3,4,20,21,28[2 회]).

<u>지시함</u>	<u>올라감</u>
출 24:1 – 명령형	출 24:2
	출 24:9
출 24:12 – 명령형	
	출 24:13
	출 24:14
	출 24:15

UBS *핸드북*(565 쪽)에서는 이 장이 두 가지나 세 가지 자료로 이루어졌다고 제시한다. 나는 J.E.D.P.라는 오경의 문서비평에 동의하지 않지만(특별주제: 오경의 문서비평을 보라), 오경의 상당 부분이 구전으로 되어 있었고 여러 자료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믿는다. 존 H. 왈튼과 D. 브렌트 샌디의 *성경의 잃어버려진 세계*를 보라.

- 나. 문학적 혼란이 생기는 부분적 이유는 두 가지 계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 “언약 책”의 제정, 출 24:1-8
  2.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두 판을 받음, 출 24:9-18
-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시작을 크게 경축하는 본문이다.
- 라. 기록된 거룩한 책에 대한 강조를 주목하라(참조, 출 24:4, 즉, 본문의 정경화)

단어와 구의 연구

개역개정 24:1-8

1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3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4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24:1 “여호와께로 올라와”** 출애굽기 19 장(처음으로 십계명을 주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받아들인 장)에서 모세가 산에 여러 번 올라갔고 내려왔다. 이것은 출애굽기 24 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참조, 출 24:1,9,12). 이 일은 다음 사항을 시사한다

1. 여러 번 산에 올라가고 내려온 일에 대한 목격자의 자세한 묘사
2. 다른 자료의 조합(특별주제: 오경의 문서비평을 보라)
3. 구전적 전통의 기법(존 H. 왈톤과 D. 브렌트 샌디의 *성경의 잃어버려진 세계*를 보라)

나로서는 3 항의 설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야웨가 아닌 모세의 명령임을 주목하라. 이것은 지파의 지도자들과 곧 제사장이 될 자들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1. 아론과 그의 두 아들(참조, 출 19:22)
  - ㄱ. 나답
  - ㄴ. 아비후
2. 지파를 대표하는 70 명의 장로들(출애굽기 19 장에서는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참조, 출 19:7); “70”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상징적 수를 보라

▣ **“멀리서 경배하고”** 출 19:10-11 에서는 성결케 하는 기간이 제시되었으나 여기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그룹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강력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참조, 출 24:10-11), 여전히 중보자인 모세의 중요한 지위가 강조된다(참조, 출 24:12).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회중에게 제시한 특별한 한계는 성막과 후에 있을 성전에서의 구분을 위한 기초가 된다. 핵심적 지도자 또는 대제사장만 야웨께 나아갈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은 반드시 제시된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24:3-8** 출 24:1-2 이 출 24:9-11 과 서로 연결되지만, 출 24:3-8 은 언약적 확증과 헌신에 관한 내용으로서 독립적인 문학적 단위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진다.

**24:3 “그의 모든 율례를”**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판단들”(BDB 1048,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보라)을 가리킨다. 출 24:2 에 두 가지 용어가 더 나오고 있음을 주목하라.

▣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언약의 시작에 관한 두 번째 기록이다(참조, 출 19:8). 세 번째 시작이 출 24:7 에서 제시된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하신 처음 십계명은 아론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인하여 모세가 부수게 된다(참조, 출 32 장). 그 일은 또 다른 시작을 요구하게 한다.

▣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특권과 책임을 받아 들인다(참조, 출 24:7; 19:8;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이것은 온전한 순종에 대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창세기 3 장에서 일어난 타락은 인간에게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어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결코 지킬 수 없었음을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된다(롬 3:9-18,23 을 보라).

**24:4 “모세가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였다는 이 개념은 우리가 “정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기초를 이룬다. 이것은 모세의 사상이나 말이 아니었고 야웨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기록하고 계시적이며 모든 세대를 위해 보존되어야 할 말씀이다. 정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특별주제: 정경을 보라. 또한 NIDOTTE 제 4 권 460-464 쪽을 보라.

모세의 기록에 대하여 출 17:14 에서 제시한 석의적 설명을 보라.

▣ 이것은 정경의 본문을 가리키는 문학적 방법이다. 하나님의 법이

1. 계시되었다, 출 24:3
2. 낭독되었다, 출 24:3
3. 기록되었다, 출 24:4
4. 입의 맹세로 확인되었다, 출 24:4
5. 반드시 순종되어야 한다, 출 24:7

▣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이 열두(특별주제: 성경에서의 상징적 수를 보라)개의 돌 기둥으로 쌓은 제단과 구별됨을 주목하라. 후자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이것은 신 16:22 에서 금하는 이방인의 제단과는 관련이 없다. 이방인의 제단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다산종교의 남신인 *바알*을 나타내었다)

이 제단이 산 위(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에 세워지지 않았음을 주목하라. 이 제단이 세워진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 관용적인 의미로 이것은 “산 기슭”을 뜻한다(참조, 신 4:11).

제단은 야웨를 나타내었고 열두 돌기둥은 이스라엘을 나타내었다. 출 24:8 에 나오는 피는 군중들 위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기둥들” 위에 뿌려졌을 것이다.

▣ “열두 기둥” 기록한 기둥들은 원래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1. 모세가 출 24:4 에서, 시내 산 언약의 성립을 기념하는 방법으로(즉, 수 4:3,9,20)
2. 어떤 커다란 사건 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여
  - ㄱ. 세겔(참조, 수 24:26)
  - ㄴ. 벤엘(참조, 창 28:18)
  - ㄷ. 길르앗(참조, 창 31:45)
  - ㄹ. 길갈(참조, 수 4:5)
  - ㅁ. 미스바(참조, 삼상 7:12)
  - ㅂ. 기브온(참조, 삼하 20:8)
  - ㅅ. 엔로겔(참조, 왕상 9:9)

그 기둥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숭배 죄와 연결이 되었으며 출 34:13; 신 12:3; 16:22; 미 5:13 에서 이에 대하여 정죄를 받았다. 이 기록은 똑 같은 행위나 똑 같은 물건이나 똑 같은 장소가 구약의 오래된 본문에서는 받아들여졌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정죄받았음을 입증한다.

**24:5 “번제와 화목제를”** 이 절은 목격자에 의한 자세한 내용이다. 이 젊은이들은 70 인의 장로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장자들”(출애굽기 13 장; 탈군 온켈로스를 보라)로서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전에 섬기던 자들이었을 것이다.

두 가지 제사를 언급하고 있다(특별주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에서의 제사 및 그 중요성을 보라).

1. 번제로서 전체를 불로 태우는 제사(보통 이 제사는 헌신의 표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언약의 인준을 나타낸다)
2. 화목제로서 언약적 식사의 중요한 부분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와 함께 하심이 상징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여기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셨다(참조, 출 24:9-11)

어떤 학자들은 출 24:1-3,9-11 이 출 24:3-8 과는 구별이 되지만, 출 24:5 에 있는 화목제는 출 24:11 에 나오는 언약적 식사와 연결된다고 말한다.

▣ “드리게 하고”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제사들을 제사로 드렸다”이다(BDB 256, 명사와 동사).

**24:6,8** 출 24:5 에 나오는 제물의 피를 모아 출 24:8 에서 언약을 인준하는 일에 사용하였다(참조, 히 9:18-21).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이 사건은 제사제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일어난 것임을 기억하라. “언약의 피”(출 24:8)라는 구가 속 9:11 에서 마지막 때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본문에서 언급되었다. 예수님이 이 구를 마 26:28 과 눅 22:20 에 나오는 마지막 만찬에서 언급하셨으며, 바울이 고전 11:25 에서 언급하였다. 예수께서는 새 언약을 시작하고 계셨다.

피는 새 언약을 상징하였다(참조, 렘 31:31-34; 겔 36:22-38)!

1. 그들의 서약의 심각성
2.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드러진 생명(참조, 막 14:24)
3. 야웨와 이스라엘의 가족적 연합
4. 그러나 히 9:19-21 과는 다름, 특별히 이것은 용서함에 대한 것은 아니다(참조, 막 10:45)

제물의 피를 여기서 사용한 일과 출애굽기 29 장에서 피를 사용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일 사이에 유사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과정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다(참조, 출 19:5-6).

**24:7 “언약서”** 모세는 이 언약의 동의서에 있는 모든 말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세가 읽은 내용이 무엇이였을가를 궁금해 한다.

1. 십계명
2. 출 21:1-23:13 에 있는 추가적인 법

▣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문장은 두 *칼* 미완료형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1. 행하다 – BDB 793, KB 889
2. 순종하다 – BDB 1033, KB 1570(*שמע*는 “행할 수 있게 듣다”를 의미한다, 참조, 신 1:16; 4:1; 5:1; 6:3,4; 9:1; 20:3; 27:10; 33:7)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말한 것으로 보인다(즉, 출 19:8; 24:3,7; 또한 출 34 장에서 이러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수 24:21-22 에 대한 설명을 보라).

**24:8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것과 평행을 이루는 고대 근동의 기록은 없다. 이 일의 중요성을 확인함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본문은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에게 피가 뿌려진 일을 제시하는 출 29:19-25 이다. 제사장들의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헌신되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제사장들의 가족으로서(참조, 출 19:5-6)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 개역개정 24:9-11

<sup>9</sup>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sup>10</sup>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sup>11</sup>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24:9-11** 언약의 내용을 읽고, 백성들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피를 뿌리는 일이 모두 산 아래에서 행해졌지만, 그 언약을 확정시키기 위한 공동 식사(출 24:11; 창 26:30; 31:54)는 높은 산 위에서 행해졌다. 이 일에는 지도자들만 참석할 수 있었다.

출 33:20 을 인하여, 출 24:10 은 언제나 성경의 독자들에게 어려운 본문이 된다. 이렇게 눈으로 대면한 일은 이사야 6 장과 에스겔 1 장과 10 장의 것과 비슷한 경우이다. 출 33:20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라.

**24:10-11** “그의 발...손” 이 두 가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야웨(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신약])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신인동형적 표현이다(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보라).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야웨께서 자신을 직접 신체적으로 나타내셨다. “보다”를 뜻하는 두 동사를 사용하였음을 주목하라

1. 출 24:10 – BDB 906, KB 1157

2. 출 24:11 – BDB 302, KB 301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신 것에 대하여 말하는 출 24:11a 의 특별한 진술을 주목하라.

**24:10**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야웨의 이동식 수레에 대하여 묘사하는 겔 1:26 에 대한 설명을 보라. 그들이 이 청옥을 편 듯한 곳 아래에서 하나님(엘로힘)을 보았을 것이다.

청옥(BDB 705)은 아마도 선명한 청색의 보석(참조, 겔 1:26)으로서 창 1:6-8 에 나오는 하늘의 궁창을 반영할 것이다. 하늘의 바닥은 땅의 푸른 하늘이다(TEV).

UBS *핸드북*(573 쪽)에서는 두 번째 구가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하늘의 뼈들처럼 그 순수함에 있어서”라고 말한다. “뼈들”(BDB 782)은 “본질”이나 “핵심”이나 “순수함”(BDB 372, NJB, JPSOA)을 뜻하는데 그 철자가 “깨끗함”(BDB 372, RSV)의 철자와 비슷하다. 깨끗함을 겔 1:22 에서는 “얼음”(BDB 901)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 구는 하나님의 보좌의 바닥을 이루는 땅의 둥근 지붕/천장을 묘사하기 위한 관용적 표현일 것이다.

▣

NASB, 페쉬타 “~처럼 청명한”

NKJV “그 청명함”

NRSV	“청명함”
NJB	“순수함”
JPSOA, LXX	“순수함”
REB	“선명하게 푸른”

이 히브리 어근(BDB 372, 단 세 곳에서만 사용됨)은 다음을 뜻할 수 있다

1. 깨끗함(참조, 겔 1:22)
2. 광채(“빛남,” 시 89:44)
3. 색(우가릿어)
4. 순수함(출 25:11; 30:35; 레 12:4,6)

이 동사는 “선명하다” 또는 “순수하다”를 나타낸다.

#### 개역개정 24:12-18

<sup>12</sup>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sup>13</sup>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sup>14</sup>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sup>15</sup>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sup>16</sup>여호와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옛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24:12-18**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기록의 요약으로 여겨진다.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산 위에서 40 일 동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였음을 기록한다. 두 번째 40 일에 대한 기록이 출 34:28 에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2 장에서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있었다.

**24:12 “율법과 계명을”** 이것은 십계명(출 20 장) 뿐 아니라 언약의 책도 가리킨다(출 21:1-23:13; 신 5:31 에 대한 설명을 보라). 이것은 히브리어의 *와우* 전치사가 가진 모호성에 기인한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보라.

▣ “내가 . . . 친히 기록한” 야웨께서 직접 “열 가지 계명”을 기록하셨다(참조, 출 31:18). 야웨께서 “언약의 책”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하였다(참조, 출 24:4). 출 21-23 장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 원천이 되신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출 24:12 은 단순히 “돌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출 21-23 장(즉, 언약의 책, 출 24:7)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모세가 단순히 “열 가지 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구전으로 받았을 것이다. 나는 이 장이 반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두 세 가지의 구전적 자료가 합쳐져 있기 때문이다.

1. 시내 산에서의 계시
2. 언약의 책을 계시하심(출 24:7-8)
3. 야웨와의 언약이 시작됨

**24:13-24** 사람들은 이 본문이 출 24:9-11 과 어떻게 관련을 가지는가를 궁금해 한다. 이것은 일어난 일을 회상하는 내용일 것이다.

**24:13 “하나님의 산으로”** 출 3:1 의 설명을 보라.

**24:14** 이절에서는 모세가 산 위에 오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즉, 아론과 훌은 그가 없는 동안 대법관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참조, 출 18:16). 분명히 이것은 연대적으로 일어난 일을 회상하는 내용일 것이다.

▣ “**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떠나 있는 동안 분명히 아론과 훌(참조, 출 17:2)이 남아 일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40 일 동안 재판에 있어서 모세의 권위를 가졌다.

▣

NASB, JPSOA	“법적 사항”
NKJV	“어려운 일”
NRSV, TEV, REB	“논쟁”
NJB	“해결할 어떤 사항이든지”
LXX	“소송”
페쉬타	“문제”

이것은 “말” 또는 “연설”을 뜻하기 위해 자주 사용한 명사이다(BDB 182). 그러나 이 본문과 출 18:16,19 에서는 이 단어가 재판장(참조, 신 17:9)이나 제사장(그들은 아직 없었다)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법적 논쟁을 가리킨다.

신 22:14,17(또한 어떤 법적 문맥)에서는, 이것을 “고소” 또는 “기소”로 번역하였다.

**24:15-18** 이것은 출애굽기 19 장과 평행을 이룬다. 그 본문에 대한 석의적 설명을 보라.

**24:15 “구름이 산을 가리며”** 이 구름(BDB 777)은 야웨의 직접적인 임재를 상징하였다(참조, 출 19:9). 야웨께서는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덮으셨다(참조, 출 24:10).

**24:16 “여호와와 영광이”** 특별주제: 영광(카보드, 구약)을 보라.

출 24:16 이 창세기 1-2 장을 어떻게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주목하라.

**24:17 “맹렬한 불 같이”** 야웨의 임재하심을 신 4:24; 9:3 과 히 12:29 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NIDOTTE 제 1 권 534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불”이라는 묘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셨는가를 나타내는 좋은 목록을 제시한다.

1. 하나님을 불타는 햇볼로서 – 창 15:17
2.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에 나타나셨다 – 출 3:2
3. 불 기둥 – 출 13:21,22; 14:24; 민 9:15; 14:14; 시 78:14; 105:39
4. 불 가운데서 계시를 말씀하셨다 – 신 4:12,15,33,36; 5:4,22,24,26; 9:10; 10:4
5. 하나님께서 시내 산 위로 내려오신 일과 관련이 있음 – 출 19:18; 24:17
6. 번개에서 – 사 29:6; 30:27,30; 시 50:3
7. 심판의 때에 정하게 하는 불 – 특별주제: 불을 보라
8. 불로 응위되어 친히 강림하심 – 사 66:15-16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출애굽기 24 장은 편집자가 작성한 문서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 점은 영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출 24:3 과 24:7 은 출 19:8 과 어떻게 다른가? 왜 언약의 인준에 대한 내용이 세 번 나오는가?

3. 출 24:4 에 나오는 “기둥들”이 이곳에서는 허용이 되었지만 왜 후에는 허용되지 않았는가?
4. 피를 뿌린 일에 대한 출 24 장의 기록과 히브리서 9 장의 기록은 왜 서로 다른가?
5. “언약의 피”가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6. 출 24:9-11 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음을 시사하는가? 그 일이 왜 문제가 되는가(참조, 출 33:20)?
7. 출 24:12-18 은 어떻게 출 19 장의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가?

# 출애굽기 25-3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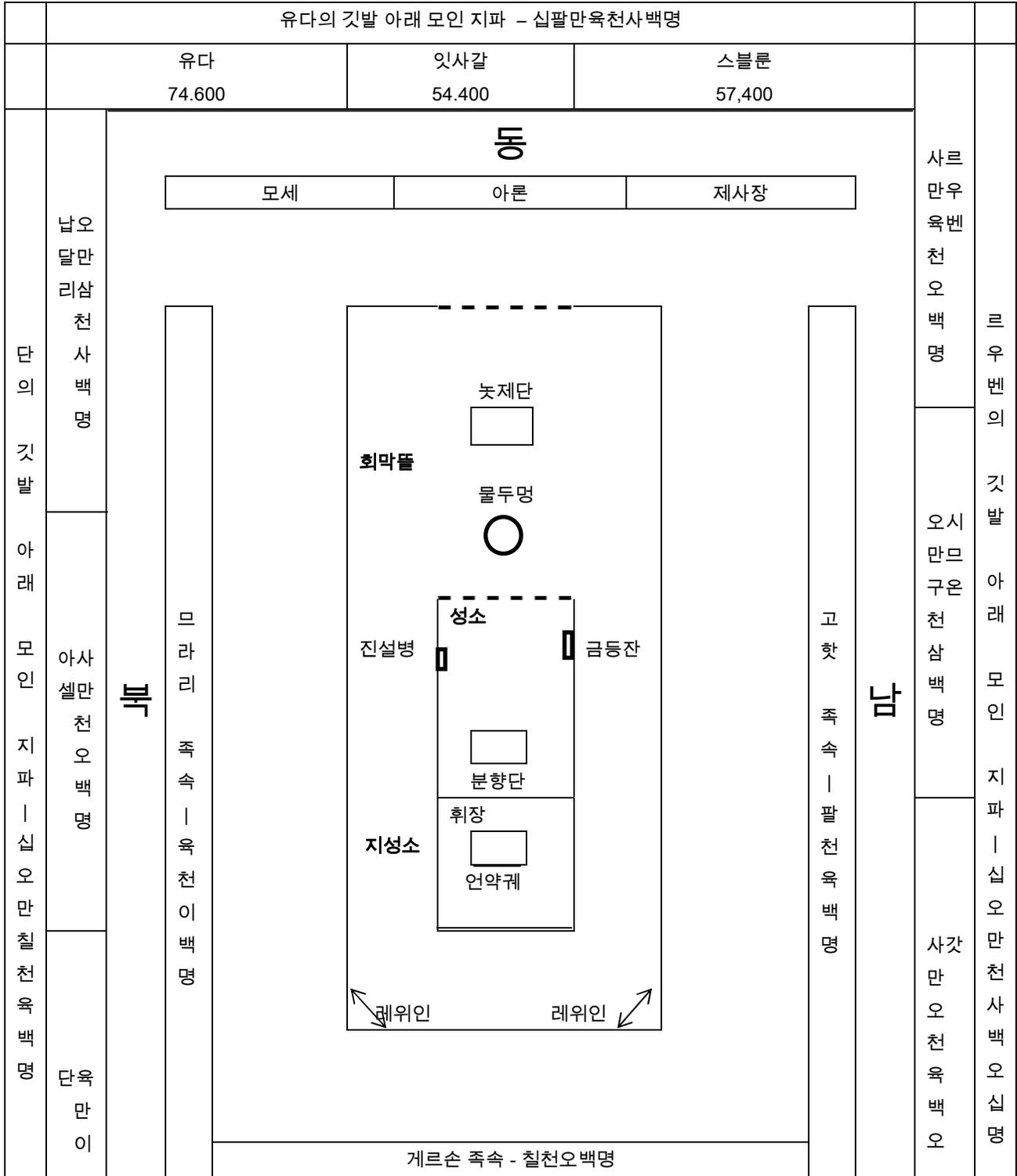
## 문맥적 통찰

- 가. 나는 출 25-31 장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절별로 주석하지 않기로 했다. 회막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나는 신학적으로 경계하고 있다.
- 나. 이스라엘의 예배와 그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장들은 흥미롭다. 회막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물질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개요의 V 항을 보라).
- 다. 회막에 대한 대부분의 세부 사항은 신학적 진리를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다. 예수께서 새 회막/성전이다!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의 제사제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신약 계시의 초점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이것들을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완전한 계시이다.
- 라. 나는 다음에 알파벳 순서로 나오는 여러 어휘와 개념에 대하여 특별제목으로 설명을 하였다. 성경 사전을 참고하라.
  - 1. 아론의 아들들
  - 2. 아카시아 나무
  - 3. 분향단
  - 4. 제단
  - 5. 고대 근동의 책들
  - 6. 고대 근동의 도량형
  - 7. 언약궤
  - 8. 대제사장의 흉배
  - 9. 그룹들
  - 10. 규빗
  - 11. 에봇
  - 12. 등대(메노라)
  - 13. 놋대야
  - 14. 은혜의 보좌
  - 15. 해달의 가족(참조, 출 25:5)
  - 16. 진설병
  - 17. 회막(도표를 보라)

## 18. 우림과 둠뭇

- 마.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이 행진하는 순서에 대한 그림과 회막의 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나는 이 자료를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강의시간에 받았는데, 그것이 무슨 과목이었고 또 누가 이 도표를 그린 것인지 알지 못한다.

### 이스라엘과 회막의 배치도



천 칠 백 명	서			십 명
	에브라임 사만오백명	마낫세 삼만이천이백명	베냐민 삼만오천사백명	
에브라임의 깃발 아래 모인 지파 - 십만팔천백명				

전체 군인의 수 - 603,550 명

## 출애굽기 25-31 장

### 일반적 개요

#### I. 필요한 건축재료, 출 25:1-9

##### 가. 금속

1. 금(BDB 262)
2. 은(BDB 494)
3. 동(BDB 638)

##### 나. 천으로 된 재료

1. 청색(BDB 1067)
2. 자주색(BDB 71)
3. 진홍색(BDB 1069)
4. 고운 베(BDB 1058 II)

##### 다. 건축재료

1. 염소털(BDB 777)
2.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BDB 736 과 BDB 17 의 조합)
3. 해달의 가죽(NASB)
4. 조각목(BDB 781 과 BDB 1008 의 조합)

##### 라. 여러 물품

1. 기름(BDB 1032)
2. 향신료(BDB 141)

3. 향(BDB 882 와 BDB 702 의 조합)
4. 보석(BDB 571)

II. 언약궤의 모형, 출 25:10-22(특별주제: 언약궤를 보라)

가. 조각목

나. 가로가 두 규빗 반이고 세로와 높이가 각각 한 규빗 반임(특별주제: 규빗을 보라)

다. 안팎을 금으로 싹

라. 바깥쪽을 장식함

마. 궤를 멜 수 있게 금 고리 넷을 그 궤의 네 발에 달되,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둠

바. 궤에는 “은혜의 보좌”(또는 속죄소)로 불리는 특별한 뚜껑이 있음(특별주제: 은혜의 보좌를 보라)

1. 금으로 만든 두 개의 그룹이 얼굴을 서로 대하며 날개가 중앙에서 만남(특별주제: 그룹들을 보라)
2. 그룹은 각각 한 덩어리의 금을 펴서 만든 것임

사. 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장소이다

**특별주제: 그룹들**

가. 이들은 여러 천사적 존재의 하나이다. 이 특별한 종류의 천사는 성소를 지켰다(참조, 출 25:18-22; 왕상 8:6-7).

나. 어원은 확실하지 않다:

1. 아카디아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또는 “조정자”를 뜻한다
2.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전차” 와 “그룹이란 이름의 천사들”(참조, 겔 1 장, 10 장)과 관련된 단어유희일 것이다
3. 어떤 사람은 이것이 “빛나는 형상”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다. 육체적 모습—이에 대한 성경의 다양한 설명 및 동물 모양을 가진 인간에 대한 고대 근동의 다양한 기록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다음과 연결시킨다:

1. 메소포타미아의 날개 달린 황소

2. 성막을 지키는 자

ㄱ. 언약궤 위에; 출 25:18-20; 민 7:89; 삼상 4:4

ㄴ. 성막을 덮는 막 휘장에 그룹의 모양을 수놓음; 출 26:1,31; 36:8,35

3. 솔로몬 선저은 지키는 자

특별주제를 보라.

III. 진설상의 모형, 출 25:23-30

가. 조각목

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임

다. 순금으로 싹

라. 주위에 금 테를 두름

마. 멜 수 있게 금 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받침대) 위의 네 모퉁이에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싹

바. 금으로 만든 도구

1. 대접
2. 숟가락
3. 병
4. 붓는 잔

사. 상 위에 놓는 진설병(12 덩어리)

#### IV. 등잔대의 모형, 출 25:31-40; 27:20-21

가. 금으로 만듦

나. 등잔대 줄기의 양 쪽에 각각 세 개의 가지가 있음

다. 여섯 가지의 끝 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으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음

라. 금으로 만든 도구

마. 깨끗한 올리브 기름

#### V. 성막 휘장의 모형, 출 26:1-14

가. 가늘게 꼰 모시 실 휘장

1. 열 폭으로 이루어짐
2. 청색 자색 홍색
3.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 놓음
4.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이고 너비는 네 규빗임
5. 다섯 폭의 휘장 두 개를 금으로 된 갈고리로 연결하였다
6. 휘장에 매단 청색 고(고리) 100 개로 연결하였다

나. 염소털 휘장

1. 안쪽에 있는 성막을 덮는 막임
2. 열한 폭으로 이루어짐

3. 각 쪽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임
4. 한 쪽은 다섯 쪽을 서로 연결하였고 다른 쪽은 여섯 쪽을 서로 연결시켜, 반 쪽은 장막의 앞쪽을 접어 드리움(반 쪽은 장막의 뒤쪽에 늘어뜨림)
5. 놋으로 만든 100 개의 청색 고(고리)로 설치함

다.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막

1. 이것은 또 다른 덮개이다
2. 이것은 지붕의 재료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3. 성막을 옮길 때 사용하는 가죽 가방이었을 것이다

VI. 안쪽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 출 26:15-20

가. 널판

1. 금을 입힌 조각목으로 만들
2.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임
3. 각 판에 두 축씩 냄(바닥을 고정시키는 장치임)
4. 긴 양편을 위해 널판 스무 개를 사용하고, 뒷 편을 위해 널판 여섯 개를 사용하고, 성막 뒤쪽의 두 모퉁이에 널판 두 개를 사용함
5. 은 받침에 맞추어 고정시킴

나. 널판을 고정시키는 막대

1. 금을 입힌 조각목으로 만들
2. 각 편에 다섯 개임
3. 판의 중간에 있는 금고리를 사용하여 연결시킴

VII. 안쪽 휘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 출 26:31-35

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짜서 만들

나.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 놓음(특별주제: 그릇들을 보라)

다. 금으로 짜서 은 받침 위에 놓은 네 개의 조각목 기둥에 금 갈고리로 매달음

라. 휘장으로 성막의 안 쪽을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함

- 마. 휘장 뒤쪽에 언약궤가 있고, 다른 모든 기구는 휘장 앞쪽에 있음
  - 1. 진설상은 북쪽에 놓음
  - 2. 등잔대는 남쪽에 놓음

XIII. 바깥쪽 휘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 출 26:36-37

- 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수 놓아 짜서 만듦
- 나. 금으로 짜서 늦 받침 위에 놓은 다섯 개의 조각목 기둥에 금 갈고리로 매달음

XIV. 제단에 대한 상세한 사항, 출 27:1-8(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제사 제도를 보라)

- 가. 조각목으로 만듦
- 나.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 높이는 세 규빗임
- 다. 네 모퉁이를 올려서 네 뿔을 만듦
- 라. 금으로 입힘
- 마. 늦으로 된 그릇
- 바. 늦으로 격자 세공하여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늦 고리 넷을 연결시킴
- 사. 늦으로 싼 조각목 채를 고리에 꿰어서 제단을 멎

X. 성막의 뜰 울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출 27:9-19

- 가. 남쪽과 북쪽
  - 1. 너비가 백 규빗, 폭이 다섯 규빗 되는 세마포 휘장을 칩
  - 2. 늦 받침 위에 세워진 스무 개의 기둥에 매달음
  - 3. 휘장을 연결 시키는 모든 갈고리는 은으로 됨

나. 서쪽

1. 너비가 오십 규빗, 폭이 다섯 규빗 되는 세마포 휘장을 침
2. 놋 받침 위에 세워진 열 개의 기둥에 매달음
3. 휘장을 연결 시키는 모든 갈고리는 은으로 됨

다. 동쪽

1. 너비가 열 다섯 규빗, 폭이 다섯 규빗 되는 세마포 휘장 두 개를 침
2. 놋 받침 위에 세워진 세 개의 기둥에 매달음
3. 휘장을 연결 시키는 모든 갈고리는 은으로 됨

라. 뜰 문

1. 너비가 이십 규빗임
2.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수 놓아 짠 휘장임
3. 놋 받침 위에 세워진 네 개의 기둥에 매달음
4. 모든 갈고리는 은으로 됨

XI. 아론이 입는 제사장 의복에 대한 자세한 사항, 출 28:1-7(항목은 출 28:4 에서, 재료는 출 28:5 에서 요약적으로 나옴)

가. 에봇, 출 28:6-13

1.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만들
2.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음
3. 호마노 두 개
  - ㄱ.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김
  - ㄴ. 금 테에 물림
  - ㄷ. 에봇의 두 어깨받이에 붙임
  - ㄹ. 기념이 되게 하는 보석임
4. 순금으로 노끈처럼 딸은 두 사슬을 그 테에 닮

나. 판걸 흉패, 출 28:15-30

1.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음
2.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함
3. 네 줄로 보석을 물림, 각 보석은 각 지파를 대표함, 각 보석을 금 테에 물림

- ㄱ. 홍보석
  - ㄴ. 황옥
  - ㄷ. 녹주옥
  - ㄹ. 석류석
  - ㅁ. 남보석
  - ㅂ. 홍마노
  - ㅅ. 호박
  - ㅇ. 백마노
  - ㅈ. 자수정
  - ㅊ. 녹보석
  - ㅋ. 호마노
  - ㅌ. 벽옥
4. 네 개의 금 고리와 청색 끈으로 연결됨
  5. 보석은 아론의 가슴에 있는 기념물임
  6. 우림과 둠뭉을 판결 흉패 안에 넣음(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 주사위 같은 것임)

다. 에봇 받침 겹옷, 출 28:31-35

1. 전부 청색으로 됨
2. 목 주위를 갑옷 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함
3.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 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

라. 이마의 관, 출 28:36-39

1. 순금 패
  - ㄱ.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김
  - ㄴ.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맴
  - ㄷ. 이것은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이 있음
2. 관
  - ㄱ. 가는 베 실로 만들
  - ㄴ. 겹옷과 모자와 어깨 띠와 더불어 관 위에 기름을 부음

XII. 제사장을 성결케 하는 예식의 자세한 내용, 출 29:1-16

가. 제사와 그 절차

1. 어린 수소 하나, 출 29:1,10-14

2. 흙 없는 숫양 들, 출 29:2,15-28,31-34
  3.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4. 고운 밀가루로 만든 기름 섞인 무교 과자
  5. 고운 밀가루로 만든 기름 바른 무교 전병
- 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김
- 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힘
- 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음
- 마. 칠일 동안 특별한 제사를 드림, 출 29:35-36

### XIII. 분향단에 대한 자세한 사항, 출 30:1-10

- 가. 금을 입힌 조각목으로 만듦
- 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두 규빗임
- 다. 제단과 마찬가지로 네 뿔이 각 모서리에 있음
- 라. 금 테 아래 양쪽에 금 고리 넷을 두어 멜 수 있게 함
- 마.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둠
- 바. 제사장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름
- 사.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못함(숯은 제단에서만 취하여 낼 수 있었다)
- 아. 속죄일에 특별하게 사용됨

### XIV. 회막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지침, 출 30:11-16

- 가. 스무 살 이상 된 남자에 대한 인구조사를 함

나. 각 사람이 반 세겔을 내어 질병에 대한 속전으로 삼음(참조, 출 30:12,15)

XV. 물두멍에 대한 자세한 지침, 출 30:17-21

가. 놋으로 만들어짐

나. 회막 안과 제단 사이에 둠

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손과 발을 씻게 그 속에 물을 담아 놓음

XVI. 거룩한 관유에 대한 자세한 지침, 출 30:22-33(특별주제: 성경에서의 기름부음을 보라)

가. 상등 향품을 가지고 만듦

1. 액체 몰약 오백 세겔
2. 향기로운 육계 이백오십 세겔
3.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
4. 계피 오백 세겔
5. 감람 기름 한 힌

나. 성소에 있는 가구와 제단과 제단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사용됨

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일에 사용됨(제사장들;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기름부음을 보라)

라. 세속적 목적을 위해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에 대한 경고가 있다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기름 부음(BDB 603)**

가. 미용을 위해 사용(참조, 신 28:40; 룻 3:3 삼하 12:20; 14:2; 대하 28:15; 단 10:3; 암 6:6; 미 6:15)

나. 손님을 위해 사용(참조, 시 23:5; 눅 7:38,46; 요 11:2)

다. 병고침을 위해 사용(참조, 사 6:1; 렘 51:8; 막 6:13; 눅 10:34; 약 5:14) [위생을 위해서는 겔 16:9]

과. 자케이 즈비르 인켄 시요/차즈 차 50:2. 대하 16:11. 마 16:1. 요 12:3. 7. 10:30. 40)

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사용

1. 제사장

- ㄱ. 아론(참조, 출 28:41; 29:7; 30:30)
- ㄴ. 아론의 아들들(참조, 출 40:15; 레 7:36)
- ㄷ. 일반적 표현이나 칭호(참조, 민 3:3; 레 16:32)

2. 왕

- ㄱ. 하나님에 의해(참조, 삼상 2:10; 삼하 12:7; 왕하 9:3,6,12; 시 45:7;89:20)
- ㄴ. 선지자에 의해(참조, 삼상 9:16; 10:1; 15:1,17; 16:3,12-13; 왕상 1:45; 19:15-16)
- ㄷ. 제사장에 의해(참조, 왕상 1:34,39; 왕하 11:12)
- ㄹ. 장로에 의해(참조, 샨 9:8,15; 삼하 2:7; 5:3; 왕하 23:30)
- ㅁ. 메시아적 왕인 예수님의(참조, 삼 2:2; 눅 4:18[사 61:1]; 행 4:27; 10:38; 히 1:9[시 45:7])
- ㅂ.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참조, 고후 1:21; 요일 2:20,27 [*크리스마스*])

3. 아마도 선지자들의(참조. 사 61:1)

XVII. 향에 대한 자세한 지침, 출 30:34-38

가. 향품의 내용(같은 양)

- 1. 소합향
- 2. 나감향

- 3. 풍자향
- 4. 유향

나. 성소에 있는 향단에서의 사용을 위한 것임

다. 자신을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드는 것에 대한 경고

#### XVIII. 회막 기물을 만드는 기술자들, 출 31:1-18

가. 브살렐, 그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임

- 1.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였음
- 2. 특별한 은사가 있었음
  - ㄱ. 지혜
  - ㄴ. 총명
  - ㄷ. 지식

르. 여러 가지 재주

- (1) 금속공예
- (2) 보석공예
- (3) 목공예
- (4) 다양한 기술

나. 오홀리압,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임

- 1.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충만하였음
- 2. 브살렐을 돕는 자

다. 두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건축을 하거나 감독하였다

- 1. 회막
- 2. 증거궤
- 3. 속죄소
- 4. 회막의 모든 기구
  - ㄱ. 진설상(특별주제: 진설병을 보라)
  - ㄴ. 순금 등잔대(특별주제: 등잔대를 보라)

- ㉔. 분향단(특별주제: 분향단을 보라)
- ㉕. 번제단(특별주제: 번제단을 보라)
- ㉖. 물두멍(특별주제: 물두멍을 보라)
- ㉗. 제사장의 의복
- ㉘. 관유
- ㉙. 성소의 향기로운 향

## 자주 나오는 주제들

### I. 금속

가. 금

나. 은

다. 놋

라. 이러한 금속은 정해진 양식을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금’은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사용되었고, 놋은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되었다.

### II. 하나님께서 정확한 양식을 모세에게 계시하셨다

가. 출 25:9,40

나. 출 26:30

다. 출 27:8

라. 출 31:11

### III. 회막은 이동식이었다

가. 증거궤, 출 25:12-15

- 나. 기념, 출 28:29
- 다. 영원히 지킬 규례, 출 28:43
- 라. 영원한 규례, 출 29:9
- 마. 매일 양을 드리는 번제, 출 29:42
- 바. 대대로 끊지 못할 향, 출 30:8
- 사. 속죄일의 예식에 사용할 향단, 출 30:10
- 아. 이십 세 이상된 모든 남자들에게서 받은 속전, 출 30:16
- 자. 제사장들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출 30:21
- 차.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음, 출 30:31
- 카. 안식일을 지킴, 출 31:13,16

IV.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야웨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 가. 그들 가운데 거하심
  - 1. 출 25:8
  - 2. 출 29:45-46
- 나. 그들을 만나심
  - 1. 출 25:22
  - 2. 출 29:43
  - 3. 출 30:6,36

## 아론의 아들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장자가 그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출 6:23 에 나온다.

1. 나답 – BDB 621, 아랍어 어근에서, “능력 있는” 또는 “준수한,” KB 671
2. 아비후 – BDB 4, KB, 4, “그는 아버지이다”
3. 엘르아살 – BDB 46,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4. 이다말 – BDB 16, KB 44, 이름의 뜻을 알 수 없음

처음 두 명은 시내 산에서 야웨께 예배드릴 때 “멀리” 떨어져 있던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다(참조, 출 24:1). 이들은 다음 사건 가운데 어느 것에 연루되었다

1. 제단에서 술취함(참조, 레 10:8-11)
2. 야웨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여 야웨께 노골적으로 범죄함(참조, 레 10:1)

그들은 야웨께 죽임을 당하였다(참조, 레 10:2). 모세는 아론과 그의 가족에게 슬퍼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참조, 레 10:6-7). 그들의 자리를 엘르아살이 이어받았다(참조, 민 3:4; 20:25-29).

## 조각목

UBS *성경의 동식물*(87-88 쪽)에 의하면, 이 나무는 사막에 흔히 자라는 상록수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건조한 조건에서도 자란다(즉, 와디). 따라서 이 나무는 더디 자랐으며 목질이 단단하였다. 따라서 이 나무는 가구(이 경우에는 회막의 구조물과 기구)를 만들기에 적합하였다. 이 목재는 갈색이 있는 주황색을 띠었다(BDB 1005).

## 분향단

이것은 제단의 형태를 가진 가구로서, 야웨께서 궤 위에 임재하심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속죄일에 그 위에 많은 양의 향을 피워 짙은 연기를 내었다. 우리의 저자는 이것을 지성소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주석가들은 이 구가 “향로”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70 인역에서 이 용어를 향로로 번역하였기 때문이다(참조, 레 16:12; 대하 26:19; 겔 8:11; 마카비 4 서 7:11). 한편, 필보와 요세푸스는 분향단에 대하여 똑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였다. 제단은 구약에서 지성소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참조, 출 30:1-10,37; 그러나 특별히 왕상 6:22).

솥을 회막의 입구에 있는 큰 번제단에서 취하여 이 작은 단에 놓았다. 그 다음에는 향을 솥 위에 놓아 많은 양의 연기가 나게 하였다. 향이 내는 이 놀라운 연기는 대제사장의 눈을 침침하게 하여 그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 곧 ~~그들~~의 날개 사이에 거하신 야웨를 볼 수 없게 하였다.

## 번제단

이곳은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다. 이것은 조각목에 놋쇠를 덧입혀 만든 구조물이었다(참조, 출 27:1-2). 이것은 가로와 세로가 모두 다섯 규빗(대략 45 cm x 5 의 길이; 특별주제: 규빗을 보라)인 정사각형이며 높이는 세 규빗의 크기였다. 이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따로 있었으며(참조, 출 27:3), 이 단은 이동식이었다(참조, 출 27:6-7).

이 제단의 특별한 특색은 네 뿔에 있었다. 뿔은 이스라엘의 힘을 상징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을 흉내낸 것으로 보인다. 짐승의 피를 이 뿔들에 뿌리거나 발랐는데 이것은 제물을 하나님을 향해 드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을 것이다.

회막에 있는 다른 모든 기구처럼, 이 제단도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확장되었다(참조, 왕상 6 장). 특별한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제사 제도를 보라.

# 고대 근동에서의 성스러운 색

고대 근동에서 사용한 색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색에 대한 용어가 언어마다 다르며 시기마다 바뀌었다. 출 25:4 에서는 회막과 대제사장의 옷을 장식하기 위한 특별한 몇 가지 색을 언급하였다.

1. “청색” – BDB 1067, KB 1732-3, 이 색은 파란색 보라색 또는 자주색을 가리킨다. 이 색은 연체동물에서 취하였으며, 페니키아 사람들이 개발하였다.
2. “자주색” – BDB 71, KB 84, 이 색은 붉은 자주색을 가리킨다. 이것은 아카디아어에서 왔을 것이다.
3. “진홍색” – BDB 1040, KB 1603, 이 용어의 어원과 색상에 대하여 확실하지는 않지만, 진홍색을 가리킬 것이다. 이 단어의 어근은 어떤 곤충(IDB, 233 쪽)이 “물들인” 또는 “내던진”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페니키아어에서 왔을 것이다.

## 언약궤

(출애굽기 25:10-22; 37:1-9)

### I. 식양(출 25:10-22)

- 가. 금을 싹 나무 상자(출 25:10-11)
- 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임(참조, 출 25:10; “규빗”에 대해서는 특별주제: 규빗을 보라)
- 다. 고리와 막대로 옮길 수 있었음(출 25:12-16)
- 라. 궤의 뚜껑은 분리되었다(출 25:17-21)
  1.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나무 상자의 윗부분에 잘 들어 맞았다(출 25:10,21)
  2. 뚜껑 위에는 서로 마주 보는 두 그룹이 있었다(출 25:18-20)

### II. 그 위치와 목적

- 가.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장소였다(출 25:22)

- 나. 야웨께서 자신의 백성과 거하시는 장소였다(즉, 그의 발등상, 참조, 대상 28:2; 시 132:7; 사 66:1). 즉,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 거하심(특별주제: 그룹을 보라)
  
- 다. 모든 백성(참조,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레 16 장과 왕상 8:27-30; 외국인에 대한 것은 왕상 8:41,43,60 에 나옴)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임(즉, 은혜의 보좌)
  
- 라. 지성소 곧 휘장 안에 있는 유일한 가구임

### III. 그 안에 있는 물건

#### 가. 랍비들의 전통

1. 야웨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신 두 돌판(참조, 출 31:18; 32:15-16)
2. 돌판을 고정시키는 두 개의 은 기둥(성경에 이 내용이 없음)
3. 이스라엘(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일을 인하여 모세가 깨뜨린 돌판의 부스러기(참조, 출 32:19; 신 9:17; 10:2)
4. 오경 전체의 사본(참조, 출 25:16)
5. 하나님의 이름(참조, 왕상 8:29), 이것은 유대인의 신비주의인 카발라에서 발전된 내용임

#### 나. 그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물건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는지 아니면 그 곁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 만나 항아리(참조, 출 16:31-36)
2. 아론의 싹난 지팡이(참조, 민 17:4,10; 히 9:4)
3.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속건제(금으로 만든 다섯 개의 쥐와 다섯 개의 독종, 참조, 삼상 6:3-4,8)
4. 십계의 사본(참조, 출 25:16,21; 신 10:4-5; 31:26)

#### 다. 열왕기상 8 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에서,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즉, 십계명, 참조, 왕상 8:9)만 들어 있었다고 말한다

### IV.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 가. 역사적 사항

1. 시삭(주전 935-914 년)이 이집트로 가져감. 그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재위 제 5 년(주전 926 년)에 유다를 침공하였다(참조, 왕상 14:25-26; 대하 12:9)
2. 바로 느고 II 세가 이집트(소안, 타니스, 아바리스 - 삼각주 지역에 세워진 세티 I 세의 수도로서 여러 이름으로 불림)로 가져감,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주전 597 년에 포로로 잡아갔다(참조, 왕하 23:31-35; 대하 26:1-4)
3. 느부갓네살 II 세가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 성전으로 가져감, 이 때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갔으며(주전 586 년) 성전이 불탔다(참조, 왕하 25:9,13-17; 대하 36:18)

#### 나. 유대인의 전통

1.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느보/비스가 산에 감추었다(마카비 2 서 2:4-5)
2. 외경인 바룩 2 서에서는 천사가 그것을 감추어 놓았다고 말한다
3.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감추어졌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그것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참조, 말 4:5)
4. 사마리아 사람들이 건축한 야웨의 성전이 있는 그리심 산(세겔)에 감추어져 있다
5.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성전 밑에 묻어 놓았다(즉, 모리아 산)

## 대제사장의 흉배

이 장식에 대한 언급이 출 25:7 에서 처음 나오고 28:4 에서도 또 나오지만, 자세한 내용은 출 28:15-30 에 나오며 출 39:8-21 에서 다시 반복된다.

이것의 기능은 하나님께 있어서 열 두 지파의 귀중함을 상징한다. 그들의 이름이 아론의 가슴 위에 놓인 흉배의 보석에 새겨져 있었다(출 28:29). 이것은 “판결의 흉배”(BDB 365 와 BDB 1048 의 조합)로 출 28:15,29,30 에서 불렸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우림과 둠밈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것의 양식은 다음과 같았다

1. 에봇과 같은 색으로 뿔, 출 28:15
2. 길이와 너비가 한 뿔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함(한 뿔은 새끼 손가락 끝에서 엄지 끝까지의 간격임), 출 28:16
3. 세 보석을 네 줄로 배치하였는데, 지파의 이름이 각각 다른 보석에 새겨짐, 출 28:17-21
4. 두 금 사슬로 흉패와 대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어깨받이의 금테와 연결시켰다, 출 28:22-28
5.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는 자루를 흉패 뒤, 대제사장의 가슴 위에 놓았다, 출 28:30

속죄일(레위기 16 장)은 이것의 기능을 가장 잘 나타낸다. 그 날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홀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 그룹

BDB 500, KB 497

- 가. 그룹은 구약에서 언급한 여러 종류의 천사 가운데 한 종류이다(즉, 케루빔, 세라핌, 천사장,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 천사는 성스러운 장소를 특별히 지켰다(참조, 창 3:24; 출 25:18-22; 왕상 8:6-7).
- 나. 어원은 확실하지 않다:
1. 아카디아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또는 “조정자”를 뜻한다
  2.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전차”와 “그룹이란 이름의 천사들”(참조, 겔 1 장과 10 장)과 관련된 단어유희일 것이다
  3. 어떤 사람은 이것이 “빛나는 형상”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다. 육체적 모습 - 이에 대한 성경의 여러가지 설명 및 '동물 모양을 가진 인간'에 대한 고대 근동의 다양한 기록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다음과 연결시킨다

1. 메소포타미아의 날개 달린 황소
2. "독수리 머리와 날개에 사자 몸을 한 괴물"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날개 달린 독수리 사자
3. 두로 왕 히람의 왕좌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
4. 이집트의 스팅크스와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 왕의 상아 궁전에서 발굴된 이와 비슷한 형상

라. 육체적 설명

1. 그들의 모습은 사 6 장의 스랍과 연결된다.
2. 다른 모습의 예들
  - ㄱ. 얼굴의 수
    - (1) 둘 - 겔 41:18
    - (2) 넷 - 겔 1:6,10; 10:14,21
    - (3) 하나 - 계 4:7
  - ㄴ. 날개의 수
    - (1) 둘 - 왕상 6:24
    - (2) 넷 - 겔 1:6,11; 10:7,8-21
    - (3) 여섯(사 6:2 의 스랍과 같이) - 계 4:8
3. 다른 특징(또한 "살아 있는 생물"로도 불림)
  - ㄱ. 인간의 손 - 겔 1:8; 10:8,21
  - ㄴ. 다리
    - (1) 무릎이 없이 곧음 - 겔 1:7
    - (2) 송아지 발 - 겔 1:7
4.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룹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인정했다(참조, *유대 고대사*, VIII.3:3).

마. 성경에서 이들이 언급되는 곳과 그들의 목적

1. 생명나무를 지키는 자, 창 3:24(아마도 겔 28:14,16 에서 은유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임)
2. 회막을 지키는 자

- ㄱ. 언약궤 위에, 출 25:18-20; 민 7:89; 삼상 4:4; 히 9:5
  - ㄴ. 성막을 덮는 막과 휘장에 그룹의 모양을 수놓음, 출 26:1,31; 36:8,35
- 3. 솔로몬의 성전을 지키는 자
  - ㄱ. 지성소 안에 있는 조각된 두 큰 그룹, 왕상 6:23-28; 8:6-7; 대하 3:10-14; 5:7-9
  - ㄴ. 성소의 안쪽 벽에, 왕상 6:29,35; 대하 3:7
  - ㄷ. 못 받침 수레들이 연결된 판 위에, 왕상 7:27-39
- 4. 에스겔의 성전을 지키는 자 - 벽과 문에 새겨짐, 겔 41:18-20,25
- 5. 하나님의 이동하심과 관련됨
  - ㄱ. 아마도 바람에 대한 은유임, 삼하 22:11; 시 18:10; 104:3-4; 사 19:1
  - 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자, 시 80:1; 99:1; 사 37:16
  - ㄷ. 하나님의 움직이는 수레 보좌를 지키는 자, 겔 1:4-28; 10:3-22; 대상 28:18
- 6. 헤롯 성전 - 벽에 그려짐(즉, 지키는 자, 참조, 탈무드 “요마” 54a)
- 7. 계시록의 보좌 장면(즉, 지키는 자, 참조, 계 4-5 장)

## 규빗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규빗이 나온다(BDB 52, KB 61). 일반 규빗은 보통사람의 가장 긴 손가락에서부터 그의 팔꿈치까지의 길이로 대략 45cm 이다(예, 창 6:15; 출 25:10,17,23; 26:2,8,13, 16; 27:1,9,12,13,14,16,18; 민 35:4,5; 신 3:11). 또한 긴 규빗(왕의 규빗)이 건축에 사용되었는데(즉, 솔로몬의 성전) 이것은 이집트(즉, 21 개의 손가락 두께), 팔레스타인(즉, 24 개의 손가락 두께), 때로 바벨론(즉, 30 개의 손가락 두께)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했다. 이 길이는 대략 53cm 였다(참조, 대하 3:3; 겔 40:5; 43:13).

고대인들은 측량을 위해 신체의 일부분을 사용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사용한 것은:

1. 편 팔
2.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규빗)
3. 엄지 손가락에서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벌린 넓이(뺨, 참조, 출 28:16; 39:9; 삼상 17:4)
4. 주먹을 쥐었을 때 네 손가락의 넓이(손바닥 넓이, 참조, 출 25:25; 37:12; 왕상 7:26; 대하 4:5)
5. 손가락 가운데 마디의 길이(손가락 넓이, 렘 52:21)

## 에봇

에봇(BDB 65, KB 77)은 원래 제사장들이 몸에 맞게 입는 모시 옷을 가리켰다(즉, 삼상 2:18; 22:18). 특별한 종류의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었다(즉, 출 25:7; 28:6-35). 우림과 둠뫼이 흉패 뒤에 있는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흉패는 에봇의 앞에 부착되었다(참조, 출 28:30).

에봇은 야웨의 제사장임을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었다. 이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성소, 예배당, 제사장을 법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즉, 삿 8:27; 17:5; 18:14,17,18,20). 공들여 장식한 옷을 사람 크기의 우상에 입혀 놓아 꾸밈을 것이다. 에봇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었다(신탁 또는 우림과 둠뫼).

## 등대

등대(“마노라,” BDB 633, KB 600)는 성소 안에서 불을 비취는 거룩한 물건이다(참조, 출 25:37; 27:20-21). 이것에 대한 내용이 출 25:31-40; 37:17-24 에 나온다.

1. 금으로 만들어짐
2. 중앙에 있는 줄기에 양 편으로 세 개씩 여섯 개의 가지가 있음
3. 각 가지 위에는 네 개의 잔이 있었는데, 그 모양은 살구꽃 형상의 꽃받침과 꽃이 있음
4. 중앙에 있는 줄기 위에는 세 개의 잔이 있었는데, 그 모양은 3 항의 것과 같음
5. 모든 것은 한 덩어리의 금을 망치로 두들겨 만든 것이다(금 한 달란트, 참조, 출 25:39)
6. 그 정확한 모양은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계시되었다(참조, 출 25:40)
7. 출애굽기에 나오는 식양은 속 4:1-6 에서 스가랴가 본 환상의 한 부분이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인 제 2 성전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솔로몬은 자신의 성전에서 이것을 열 개의 분리된 등대로 바꾸어 놓았다(참조, 왕상 7:49; 대하 4:7).

사람들은 등대가 출 2:17 에 나오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라는 개념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나무는 빛/지식을 주는 것으로 여겨졌다(참조, 창 3:5).

요한이 요 8:12 에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 개념과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나는 다음 설명을 내가 저술한 요한복음 주석에서 가져왔다.

**요 8:12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6-8 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방랑” 시기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사용하신 은유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요 6 장에서는 “만나”와 “생명의 떡”을 사용하셨다
2. 요 7 장에서는 “물”과 “생수”를 사용하셨다
3. 요 8 장에서는 “빛”과 “썬/키나 영광”을 사용하셨다.

빛의 은유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된다(참조, 요 1:4-5,8-9; 3:19-21; 9:5; 12:46).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논란들이 있다.

1. 어둠에 대한 고대인의 두려움
2. 구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한 호칭(참조, 시 27:1; 사 62:20; 요일 1:5)
3. 초막절의 배경을 가진 것으로서, 여인의 뜰에 있는 가지 달린 등잔의 빛남
4. 광야 방랑기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한 영광의 구름인 *쉐키나*를 암시
5. 구약에서 사용한 메시아의 호칭(참조, 사 42:6; 49:6; 눅 2:32)

랍비들 역시 “빛”을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여인의 뜰에서 빛을 비추는 큰 등잔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진술의 배경이 되었다. 빛이 가진 메시아적 의미와 요 1:4,8 에 있는 바 빛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예수께서 자신의 참 근원을 계속하여 드러내심에 있어서 성전 예식과 부합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일곱 개의 “나는~이다”라는 진술문 중 하나이다(술부가 뒤따름)

1. 나는 생명의 떡이니(6:35,41,48,51)
2. 나는 세상의 빛이니(8:12; 9:5; 참조, 1:4,9; 12:46)
3. 나는 양의 문이라(10:7,9)
4. 나는 선한 목자라(10:11,14)
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11:25)
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14:6)
7. 나는 참 포도나무요(15:1,5)

이것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진술문으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다.

요한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

## 물두멍

물두멍은 제사장이 예식을 위해 씻을 수 있도록 회막 안에 설치한 큰 솥대야였다(참조, 출 30:20-221; 민 8:7). 이것에 대하여 출 30:17-21 과 38:8 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회막의 장막/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여 있었다(참조, 출 40:7,30).

회막의 물두멍을 솔로몬 성전의 건축자들이 더욱 공을 들여 만들었다. 이것은 “주조한 바다”로 왕상 7:39 에서 불린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왕상 7:44 에 나온다. 사람들은 왕상 7:38 이 물두멍도 가리키는가를 궁금하게 여긴다.

## 은혜의 보좌

이것은 “언약궤”로 불리는 나무 상자의 금 뚜껑을 가리킨다(참조, 출 25:17-22; 37:6-9). 이것은 죄를 “덮는” 특별한 장소였다(즉, 레 16 장).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여겨진다.

1. 야웨께서 두 천사의 날개 사이에 거하셨다(랍비들은 이것이 야웨의 발등상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참조, 대상 28:2; 시 132:7)
2. 언약궤 안에는 “열 가지 말씀”(십계명)이 들어 있다
3. 대제사장은 속죄일(참조, 레 16 장)에 지성소에 들어가 은혜의 보좌에 두 번 피를 뿌렸다. 한 번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또 한 번은 민족 전체가 고의적으로 짓지 않은 죄를 위한 것이었다(참조, 히 9:7)

죄 용서함을 말하기 위하여, 내가 신약(롬 3:25)에서 이 판(은혜의 보좌)을 사용한 용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옮겨 왔다.

### 롬 3:25

NASB	“그의 피 안에서 화목제물로서”
NKJV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는”
NRSV	“그의 피로써 속죄의 제물로서”
TEV	“그 결과 그의 피로써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는 방법이 되기 위하여”
NJB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 그의 생명을 희생하여”

이 단어는 헬라와 로마 세계에서 ‘소원해진 신과의 교제를 값을 치름으로써 회복한다’는 개념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70 인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단어는 70 인역과 히 9:5 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말하는 “속죄소”로 번역되었다(참조, 출 25:21-22; 레 16:12-15). 속죄의 날에 민족을 대신하여 속죄를 가져온 장소가 이곳이다(참조, 레 16 장). 바울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에서 취한 제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즉, 레 1-7 장). 이러한 은유적 표현(즉, 화재, 속전, 희생)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말씀과 연결시켜야만 이해할 수 있다. 바울은 그 다음으로 이러한 은유적 표현이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다. 야웨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자신을 아브라함/이스라엘에게 계시하셨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모든 이가 반역하였다; 모든 이가 그리스도(유대인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심을 결코 약화시키지 않는다. 한편 이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구속적 태도를 확증한다. 이에 대한 좋은 논의가 제임스 스튜어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214-224 쪽)에 나온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해석 방법은 이 용어를 “화해의 희생” 또는 “화해의 능력으로”로 번역하는 방법이다.

“그의 피 안에서”는 하나님의 무죄한 양을 통한 대속적 희생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참조, 요 1:29).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 1-7 장과 16 장에 있는 속죄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피는 죄있는 자를 대신하여 흘린 죄없는 생명을 가리킨다(참조, 사 52:13-53:12).

한 분이 모든 이를 위하여 죽으셨다(참조, 롬 12-21)!

▣ “**믿음으로**” 여기에서는 또 다시(참조, 1:17; 3:22,25,26,27,28,30) 어떤 사람이든지 또한 누구든지 예수의 대속적 죽으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직접적 혜택의 작용 원리가 제시된다.

이 구는 제 5 세기 경의 고대 대문자 사본인 A(또한 크리소스톰이 사용한 헬라어 본문)사본과 제 12 세기의 대문자 사본인 MS(2127)에는 생략되어 있다. 이것은 그 외의 모든 고대 헬라어 사본에 들어 있다. 어떤 사본에는 “믿음”이 정관사와 함께 나오고(참조, P<sup>40</sup>, B, C<sup>3</sup>, D<sup>3</sup> 사본) 어떤 사본에서는 그렇지 않다(참조,  $\aleph$ , C\*, D\*, F, G 사본). 그러나 이것은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UBS<sup>3</sup>는 이 구를 포함하는 본문에 B(약간 미심쩍음) 등급을 준다.

▣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말씀에 대해 진실하시다(참조, 말 3:6). 구약에서 죄를 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참조, 창 2:17; 겔 18:4,20). 하나님은 죄를 사면하지 않을 것을 말씀했다(참조, 출 23:7).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커서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사람이 되셨고, 율법을 이루시고,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참조, 롬 5:12-21).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예수 안에서 만난다(참조, 롬 5:26 절).

## NASB – 해달의 가족

이 어근(BDB 1065 I, KB 1720 I)의 의미는 불확실하다. 이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돌고래”를 뜻하는 아랍어 어근을 따라서 해양 포유류의 가족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이 어근은 고운 가족을 뜻하는 아랍어 어근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이 용어를 신발 가족에 대하여 사용한 겔 16:10 에서의 용법과 잘 맞는다. 회막을 이동할 때에 이 짐승 가족을 외부의 덮개로 사용되었다.

출 25:5 에서 먼저 나오는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족”도 무두질한 짐승의 가족을 가리킨다. 그 결과 가족이 붉은 색을 띠게 되었다.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으로 보인다(즉, 조각목). 따라서 이 용어는 바다에 사는 포유류의 가족을 가리키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게 보인다.

## 진설병 또는 입재의 떡

진설병을 놓는 상에 대한 내용이 출 25:23-30; 37:10-16 에서 나온다. 이 상은 성소 안에 있었다.

떡은 열 두 덩어리의 커다란 떡이었다(대략 1 ~ 1.3 kg 정도임, 참조, 레 24:5-9). 이 떡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이 떡을 매 주 새로 올려 놓았고, 이전 것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었다(참조, 레 24:9).

회막이 동편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성소(성막으로 된 성소의 처음 방)에 들어올 때에 진설상은 우편에 위치 하였고, 메노라는 왼편에 위치하였으며, 분향단은 휘장 가까이 똑바로 앞 쪽에 있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놓았는데,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다.

## 우림과 들밈

이 두 단어는 출 28:30 에서 처음 나온다. 이 본문에서는 국가(후에는 왕)가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가리키고 있다(참조, 레 8:8; 민 27:21; 신 33:8; 삼상 28:6; 스 2:63; 느 7:65).

이 용어의 유래와 관련을 가진 셈족어 어근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전통적 설명에 의하면, 이 단어가 다음 사항과 관련을 가진다.

1. 빛 – BDB 22, KB 25
2. 완전함 – BDB 1070, KB 1743

이 두 가지 물건은 대제사장의 흉패 뒤에 있는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이것은 제비를 던져 신탁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즉, “예” 또는 “아니오”를 새겨 넣은 돌, 참조, 70 인역의 삼상 14:41).

# 출애굽기 32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금송아지 32:1-6	금송아지 32:1-6	언약을 깨뜨림 32:1-6	금으로 된 수송아지 32:1 32:2-4 32:5-6	금송아지 32:1-5  32:6 모세가 야웨께 경고의 말씀을 미리 들었다
32:7-10 모세의 간구	32:7-10	32:7-10	32:7-10	32:7-10 모세의 기도
32:11-14	32:11-14	32:11-14	32:11-14	32:11-14 모세가 율법의 돌판을 깨뜨리다
32:15-18 (18)	32:15-18 (18)	32:15-20 (18)	32:15-16  32:17  32:18	32:15-16  32:17-18 (18)
32:19-20 32:21-24	32:19-24	32:21-24	32:19-21  32:22-24	32:19-24  레위인들의 열심
32:25-29	32:25-29	32:25-29	32:25-29	32:25-29 모세가 다시 기도하다
32:30-35	32:30-34  32:35	32:30-34  32:35	32:30-32  32:33-34  32:35	32:30-35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초기에 연약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들은 수 백년 동안 이집트의 우상숭배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참조, 겔 20:6-8).
- 나. 야웨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신실하셨으며 또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대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 다. 출애굽기 32 장은 연약한 지도력(즉, 아론)으로 인한 비극과 그 결과도 제시한다.
- 라. 모세의 뛰어난 믿음과 강력한 중보기도가 출 32:30-33 에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죄와 반역에는 뒤따르는 결과가 있음을 주목하라(출 32:34-35).
- 마. 출애굽기 32:33 에서는 각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 사실은 다음 여러 본문에서 나타난다: 신 24:6; 겔 18:1-32; 33:10-20; 렘 31:29-30.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된다(참조, 욕 34:11,25; 시 28:4; 62:12; 잠 12:14; 24:12; 전 12:14; 렘 17:10; 32:19; 겔 33:20; 마 16:27; 25:31-46; 롬 2:6; 14:12; 고전 3:8; 고후 5:10; 갈 6:7-10; 딤후 4:14; 벧전 1:17; 계 2:23; 20:12; 22:12). 인생에서의 선택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2:1-6

<sup>1</sup>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sup>2</sup>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32:1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딤을 보고”는 문자적으로는 “보았다”(BDB 906, KB 1157, *칼* 미완료형과 *와우*)로서, 이 단어가 “이해하다” 또는 “인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출 24:18(참조, 신 9:11)을 통하여 우리는 모세가 산 위에 40 일 동안 있었음을 안다. 이 기간은 한 달보다 더 긴 어떤 기간을 가리키기 위한 대략적 수로 여겨진다.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상징적 수를 보라.

▣ **“산에서”** 이것은 시내 산/호렙 산을 가리킨다. 특별주제: 시내 산의 위치를 보라.

▣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이라는 이 단어는 *엘로힘*이다. 이 본문을 “신들” 또는 “신” 가운데 어느 것으로 번역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하지만 복수형 동사가 함께 사용되었기에 이것은 이방인의 신을 뜻한다. 그렇지만, 출 32:4-5 에서는 이 송아지가 야웨를 나타내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일은 출 20:3 의 내용이 아니라 출 20:4 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만일 이 송아지가 오시리스/아피스 또는 히에라폴리스의 뉴이스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행위는 출 20:3 을 위반하는 일이 되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한다.

1. 일어나라 – BDB 877, KB 1086, *칼* 명령
2. 만들라 – BDB 793, KB 889, *칼* 명령

▣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가 아니라 여호와와 사자가 이 일을 할 것이다(출 32:34)!

▣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이것은 그들을 구해 준 분이 누구이신지를 백성들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참조, 출 32:4; 14:11).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은 야웨이셨다(참조, 출 3:8)!

**32:2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취한 선물을 가리킨다(참조, 출 3:22; 11:2; 12:36). 남자들은 몸에 보석 장식을 했다(참조, 출 11:2; 33:5-6). 코 고리는 이집트에서 흔하지 않았다.

**32:4 “밭아 부어서”** “부어서”(추르, BDB 849 IV, KB 1015, 칼 미완료형과 와우)는 드물게 사용된 동사이다.

1. 왕상 7:15 – NASB, “던지다”
2. 겔 43:11 – NASB, “형성하다”
3. 제안된 비슷한 어근은 렘 1:5 에 나옴(야차르, BDB 427, KB 428, 칼 미완료형) - “형성하다”로 번역됨

이 문맥에서는 “던지다”가 더 좋은 제안이다.

“조각칼”(BDB 354)이라는 단어도 드물게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이곳과 사 8:1 에서만 사용되었다. 사 8:1 에서는 “철필”로 번역되었다. 그렇다면 아론이 나무를 조각하는 어떤 연장을 가지고서 나무로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금으로 덧입힌 것인가? NRSV, TEV, NJB, JPSOA 에서는 이 단어를 “주조하였다”로 번역하였다.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하는 다른 본문과 비교하여 보라(즉, 사 30:22; 40:19; 합 2:18). 아론이 이 일을 개인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그에게만 있었다고 랍비들은 주장한다. 랍비들은 아론이 한 행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핑계를 대기 위하여 애쓴다. 랍비들은 출 32:24 의 본문이 아론의 거짓말이 아니라 참으로 그렇게 된 것이었다고 종종 설명한다.

▣ **“송아지”** 이것은 “젊은 숫소”(BDB 722)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힘과 다산적 능력을 상징하였다. 이것이 단상이나 받침대(즉, 가나안에서 유래함)를 의미하여, 야웨께서 언약궤 위가 아니라 받침대 위에 거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

▣ **“이스라엘아 이는 . . . 너희의 신이로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소수의 이집트 사람들이 한 말이라고 랍비들은 설명한다(참조, 출 12:38; 민 11:4).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신들”로 번역될 수 있지만(참조, 출 12:12; 23:24; 레 19:4), 여기서 한 개의 금송아지 상은 한 가지 신을 시사한다.

**32:5 “아론이 . . . 제단을 . . . 내일은”** 아론이 이렇게 말한 것은 모세가 산에서 돌아오기까지 좀 더 시간을 끌려는 것이었다고 랍비들은 말한다. 랍비들은 아론을 좋게 보이게 하려고 애쓴다.

**32:6 “뛰놀더라”** “뛰놀다”(BDB 850)는 창 26:8; 39:14 에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이것은 이집트의 한 가지 신과 관련을 가진 다산적이고 난잡한 잔치를 가리킨다! 바울은 고전 10:7 에서 이 절을 인용하였다;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숭배를 보라.

#### 개역개정 32:7-10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뿔뿔한

32:7 “네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 모세는 이것을 출 32:11 에서 뒤바꾸어 놓는다.

▣

NASB, NKJV, NJB	“부패하였다”
NRSV	“비뚤어지게 행동하였다”
TEV	“나를 거부하였다”
JPSOA	“비천하게 행동하였다”
REB	“기괴망측한 행동을 저질렀다”
LXX	“무법하게 행동하였다”

이 동사(BDB 1007, KB 1469, *피/엘* 완료형)는 *피/엘*형에서 다음과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1. 눈을 상하게 하다 - 출 21:26
2. 국가를 멸망시키다 - 호 11:9; 13:9
3. 출 12:23 에서는 “멸망시키는 천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어근을 사용함

그러나 이곳과 신 9:12; 32:5 에서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다. *히/플*형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신 4:16; 31:29).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앞에서 다산송배의 예식을 행하였다.

32:8 “길을 떠나”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킨다(참조, 사 2:17; 말 3:7). 그들은 출애굽기 20-23 장에서 명료하게 제시한 길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32:9 “목이 뿔뿔한 백성이로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뿔뿔하게 굳어진 목”(BDB 766 I 과 BDB 904 및 791 의 조합, 참조, 출 33:3,5; 34:9; 신 9:6,13; 31:27; 겔 2:4; 행 7:51)을 가리킨다. 이 표현은 재갈이나 멍에를 메지 않으려는 가축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하고 계심은 매우 중요하다. 야웨께서는 그들의 도덕성이나 인구 수나 성품을 인해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참조, 신 9:6; 10:16; 31:27; 겔 2:4). 사실상,

그들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야웨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난다. 야웨께서 그들에 대해 참으셨다면, 우리에게 대하여도 참으실 것이다!

**32:10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의 개인적 기도가 영향력이 있음을 야웨께서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이라고 랍비들은 설명한다. 나는 야웨께서 모세를 시험하신 것이라고 이해한다.

▣ **“진노하여”** 특별주제: 불을 보라.

▣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야웨께서 다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았다

1. 아브라함 – 창 12:2; 18:18
2. 야곱 – 창 46:3
3. 모세 – 이곳과 민 14:12

하나님께서서는 창 12:2 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약속을 가지고 모세를 시험하고 계셨다.

#### 개역개정 32:11-14

<sup>11</sup>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sup>12</sup>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음소서

<sup>13</sup> 주의 좃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원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32:11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것은 재앙을 가리킨다(참조, 출 3:20; 6:1). 이것은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구이며,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참조, 출 13:3,9; 32:11; 신 4:34; 5:15; 6:21; 7:8,19; 9:26; 26:8; 시 136:12; 렘 32:21; 단 9:15). 특별주제: 손을 보라.

**32:12** 모세는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또한 출 32:13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 참조 레 26:42; 시 105:8)에 의지하여 긍휼을 간구드린다.

이 절에서는 세 가지 명령형이 간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 “그치시고” - BDB 996, KB 1427, *칼*, 출 32:12; 이 용어는 종종 “회개하다”와 관련을 가진다; 특별주제: 회개(구약)를 보라
2. “뜻을 돌이키사” - BDB 636, KB 688, 문자적으로, “뉘우치다,” *니팔*, 출 32:12, 참조, 창 6:6; 삼하 24:16; 시 106:45; 렘 18:7-10; 암 7:1-6
3. “기억하소서” - BDB 269, KB 269, *칼*, 출 32:13

모세가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 용어는 언약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땅**” 이 용어는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특별주제: 땅, 나라, 지구(*에레츠*)를 보라.

**32:13** 모세는 야웨께서 옛적에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을 지칭하고 있다(참조, 창 12:7; 13:15; 15:18; 26:3; 신 1:35-36; 9:27).

▣ “**주의 종**” 특별주제: 나의 종을 보라.

▣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야웨께서 자손에 대하여 주신 약속은 창 12:2 에서 처음 나온다. 이 약속에서는 세 가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1. 하늘의 별처럼 – 창 15:5; 22:17; 26:4; 출 32:13; 신 1:10; 10:22; 28:62
2. 바닷가의 모래처럼 – 창 22:17; 32:12
3. 땅의 티끌처럼 – 창 13:16; 28:14; 민 23:10

또한 창 16:10 에 대한 설명을 보라!

▣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 쪽에서는 확실하지만(즉, 수 1:6), 이스라엘 쪽에서는 조건적인 내용이다(즉, 레 26 장; 신 27-30 장; 수 24:19-28).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번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일은 이 사실을 입증한다.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32: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것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점과 연결시켜 볼 때 이상하게 여겨지는 구이다(참조, 말 3:6; 약 1:17). 이것은 신인동형적 관용구이다(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보라).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하는 본문이 여러 곳에 있다(참조, 삼상 15:11; 시 106:45; 렘 18:7-10; 26:3,13,19; 암 7:3,6; 온 3:10).

하나님의 주권이 상황과 기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특별주제: 중보기도를 보라).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을 위한 영원한 구속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기꺼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다!

**개역개정 32:15-18**

<sup>15</sup>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sup>16</sup>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sup>17</sup>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sup>18</sup>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32:15 “증거판”**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보라.

▣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였다. 이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메시지임을 나타낸다. 분명히 이것은 목격자의 자세한 진술이다. 이 글자들이 돌 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라고 랍비들은 설명한다.

**32:16** 이 절은 율법이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인간의 창의력에서 온 것도 아님을 강조적으로 나타낸다(참조, 출 31:18).

▣ “새기신 것이더라” 이 동사(BDB 362, KB 359, 칼 수동 분사)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것은 야웨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기록하셨는지를 나타낸다(참조, 출 31:18).

**32:17 “여호수아”** 그는 이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는 산 위에서 또는 산과 진 사이의 어느 곳에서 모세를 기다렸다. 여호수아는 이 소리가 전쟁의 소리라고 생각하였다! 모세는 그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참조, 출 32:18).

**32:18** 이 절은 ‘시’나 ‘노래’이다. “노래하다”(BDB 777, KB 854)라는 히브리 동사가 세 번 나온다. 처음 두 번은 칼 부정사 연계형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것은 *פ/על* 부정사 연계형으로 되어 있다(70 인역의 문장은 “술취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은 마지막 동사형이 다산송배와 관련이 있는 노래/춤/음악/소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개역개정 32:19-20**

<sup>19</sup>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 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sup>20</sup>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32:19 “크게 노하여” 이 용어(BDB 354, KB 351)는 출 32 장에서 네 번 사용되었다.

1. 출 32:1 – 동사, *칼* 지시형(야웨의 진노하심, 참조, 출 4:14; 22:24)
2. 출 32:11 – 동사, *칼* 미완료형
3. 출 32:19 – 동사, *칼* 미완료형과 *와우*(모세의 노함, 참조, 민 16:15)
4. 출 32:22 – 1 항과 같음, 그러나 여기서서는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하는 말에서 나온

▣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것은 언약이 깨졌음을 상징한다. 어떤 이는 돌판들을 지칭하는 복수형이 십계명의 두 가지 면, 곧 하나님께 대한 내용과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고학(즉, 히타이트 조약)에서는 이것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두 개의 판(즉, 하나는 성전에 보관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 보관할 판)임을 시사한다. 이 둘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32:20 모세가 이 우상에게 행한 여러 가지 일을 주목하여 보라(참조, 신 9:21).

1. “불살라” - BDB 976, KB 1358, *칼* 미완료형과 *와우*
2. “부수어” - BDB 377, KB 374, *칼* 미완료형과 *와우*
3. “가루를 만들어” - 이것은 또 다른 동사임 - BDB 200, KB 229, “으스로뜨리다,” *칼* 완료형과 *와우*
4. “물에 뿌려” - BDB 279, KB 280, *칼* 미완료형과 *와우*
5.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 BDB 1052, KB 1639, *히/플* 미완료형과 *와우*, 민 5:18-22 을 보라

*와우*는 일련의 행동임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 장에서 자주 나온다. 특별주제: 히브리어 문법을 보라.

#### 특별주제: 석의에 영향을 주는 히브리어 문법 형태에 대한 간략한 정의

##### I. 히브리어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간략한 고찰

히브리어는 서남 아시아의 셈족(셈어)어군에 속한다. 이 이름(현대 학자들에 의해 불리는)은 노아의 아들인 셈(참조, 창 5:32; 6:10)에서 유래한다. 셈의 후예는 창 10:21-31 에서 아랍인, 히브리인, 시리아인, 아람인, 앗시리아인들이다. 사실상 함의 계열(참조, 창 10:6-14)에 속하는 어떤 민족들도 셈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나안어, 페니키아어, 이디오피아어가 여기에 속한다.

히브리어는 이 셈어의 북서쪽 지류에 속한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 고대 언어 그룹에 속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가. 아모리어(주전 18 세기에 아카디아어로 쓰여진 *마리 서판*)

마. 모압어(주전 840 년의 메사 비문)

바. 아람어(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 언어로서 창 31:47[두 단어]; 렘 10:11; 단 2:4-6; 7:28; 스 4:8-6:18; 7:12-26 에 사용되었고 팔레스타인에서 1 세기에 유대인들이 말했던 언어이다)

히브리어는 사 19:18 에서 “가나안의 입”으로 불린다. 이것은 주전 180 년경 쓰여진 지혜서(벤 시라의 지혜)의 서론에서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불린다(그리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속하는 다른 몇 곳에서, 참조, *앵커 바이블 사전*, 제 4 권, 205 쪽 이하). 이 언어는 모압어 및 우가릿에서 사용된 언어와 아주 밀접한 언어이다. 성경 이외의 곳에서 고대 히브리어가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1. 게제르 달력, 주전 925 년(한 남학생의 글씨연습)
2. 실로암 명각, 주전 705 년(터널벽에 쓴 글)
3. 사마리아 도편, 주전 770 년(부서진 도자기 위에 기록한 세금 내역)
4. 라기스편지, 주전 587 년(전쟁과 관련한 통신 내용)
5. 마카비 시대의 동전과 인장들
6. 사해사본 본문들
7. 많은 종류의 비문들(참조, “언어[히브리어],” ABD 4:203 쪽 이하)

히브리어는 다른 모든 셈어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자음(세 자음 어근)으로 단어가 형성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어형변화가 있는 언어이다. 세 자음으로 된 어근은 고유의 뜻을 가진다. 또한 전접어 후접어 혹은 단어 안에 추가되는 어소(후에는 모음, 참조, 수 그린,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 46-49 쪽)에 의해 구문적인 기능을 나타낸다.

히브리어는 산문과 시에서 구분된 단어를 사용한다. 단어의 뜻은 전송적 어원(언어적 기원이 아닌)을 따른다. 단어와 소리(유사음어 쓰기)에 기초한 언어 유희가 매우 일반적이다.

## II. 술부에 대한 동사의 상

### 가. 동사

문장의 일반적인 순서는 동사, 인칭대명사, 주어(수식 어구와 함께), 목적어(수식 어구와 함께) 이다. 기본적으로 아무 표시가 없는 동사는 *칼*, 완료, 남성, 단수이다. 히브리어

S. R. 드라이버는 *히브리어에서 시제의 사용에 대한 논문*에서 이 점을 설명하기를,

“완료형은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바뀔 수 없는 의지적 결심에 의해 이미 성취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결심, 약속,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선언은 완료형으로 말해진다”(17 쪽, 예, 예언적 완료형). 로버트 B. 치솜은 *석의에서 강해까지*에서 이 동사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동사형태는) 어떤 사건 전체를 외부에서 조망한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일이나 마음의 상태를 포함하여)와 관련하여 단순히 사실을 나타낸다. 어떤 행동에 대하여 말하는 경우에 종종 화자나 해설가의 수사적 관점에서 완료된 것임을 보여준다(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는지 또는 안 일어났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완료형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일어난(날) 행동/상태에 관계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어떻게 완료형의 시제를 영어처럼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는 언어로 번역할 것인가는 반드시 문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86 쪽).

L. 미완료, 이것은 어떤 행동이 진행중(완료되지 않고, 반복적, 계속적, 혹은

5. *히트파일*동사, 이것은 재귀적 혹은 상호작용적 의미를 갖는 동사형이다. 이것은반복적 혹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파일*형의 행동을 나타낸다. 수동형은 드물게 사용되며 *호트파일*이라고 불린다.



‘시제’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동사에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낳게한다. 소위 히브리어의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행위의 *상태*만을 표현한다. ‘상태’라는 용어를 명사와 동사 모두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혼동만 아니라면, 실제로는 ‘상태들’이라는 표현이 ‘시제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어떤 히브리어 동사를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히브리어에는 전혀 없는 요소(시간적)를 추가시키는 부작용없이 해내는 것은 불가능함을 항상 명심해야만 한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떤 행동을 말함에 있어서 그것을 결코 과거, 현재, 또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고 단지 *완료형*, 즉 이루어진 일, 또는 *미완료형*, 즉 발전하고 있는 과정의 일로서 생각했다. 우리가 어떤 히브리어 시제가 영어의 과거, 과거완료, 또는 미래와 상응하다고 말함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과거, 과거완료, 미래로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히브리인들은 어떠한 동사형태도 행동이 일어난 *시간*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서론과 1 쪽).

다음으로 유익한 경고로서는 슈 그롬,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적 분석*이 말하기를,  
 “고대에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언어를 대상으로 현대의 학자가 재구성한 어원적 세계와 지각적 관계성이 단순히 학자들의 통찰력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 자신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학자들이 주장하는대로 그러한 어원적 관계성이 고전 히브리어에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128 쪽).

다. 법(오직 현대 서양 언어에서 유추한)

1.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직설법)를 표현하기위해서 완료시제나 분사(모든 분사는 직설법이다)를 사용한다.
2.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었다(가정법)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ㄱ 특별히 의미를 더 대표하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

완료형이나 미완료형의 동사 어간에 자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어떤 종류의 다양한 설명과 문법적인 의미가 특별히 가능하게 된다. 이 용법은 행동이 다르게 보이게 한다.

1. 역사적 이야기체에서는 동사들이 일정한 형태를 따라 서로 연결되어 사용된다.
2. 앞에 붙는 *와우*로 시작되는 동사는 그 이전에 사용된 동사(들)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3. 항상 큰 문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동사들의 용법을 파악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셈족어의 동사들을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어 분석해서는 안된다.

J. 와쉬 왓쓰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구문 개요*에서 완료형과 미완료형 앞에 쓰이는 히브리어 *와우* 용법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52-53 쪽). 완료형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나타내지만, *와우*가 추가됨으로서 완료형의 동사는 종종 미래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 부정

1. 이것은 항상 부정하려고 하는 단어 앞에 나타난다.
2. 부정을 나타내는 가장 흔한 단어는 *로*이다.
3. *알*이라는 단어는 부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청유형과 지시형과 함께 사용된다.
4. *르빌티*이라는 용어는 “~하지 않기 위해서”를 나타내며 부정사와 함께 사용된다.
5. *엔*이라는 용어는 분사와 함께 사용된다.

## 사. 조건절

1. 4 종류의 조건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이네 헬라어의 경우와 평행을 이룬다.
  - ㄱ.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거나 성취된 것으로 여기는 생각의 경우(헬라어의 제 1 유형)
  - ㄴ. 사실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성취가 불가능한 경우(헬라어의 제 2 유형)
  - ㄷ.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아마 일어날지도 모르는 경우(헬라어의 제 3 유형)
  - ㄹ. 일어날 가능성이 보다 적어서 그 성취가 의심이 되는 경우(헬라어의 제 4 유형)
2. 문법적인 표시
  - ㄱ. 사실이나 실제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 항상 직설법 완료형 혹은 분사를 사용하는데 대개의 경우 조건절은 다음의 말로 시작한다
    - (1) *임*
    - (2) *키*(혹은 *아쉴르*)
    - (3) *힌* 혹은 *힌네*

**개역개정 32:21-24**

21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2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3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드하여 내 사랑은 어찌 되었는지 안스 언노라 하기에 24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크이 인는 자는

**32:21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이것은 아론에 대한 모세의 진노가 아니라 동정을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랍비들은 설명한다. 그러나 문맥은 그러한 설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론이 범죄한 것이다!

▣ “**큰 죄**” 이것은 “간음”을 가리키는 구(참조, 출 32:21,30,31)라고 로랜드 드보는 *고대 이스라엘* (제 1 권 37 쪽을 보라)에서 말한다. 이 문맥에서는 “영적인 간음”을 뜻한다(즉, 다른 신들을 쫓아 감, 참조, 왕하 17:21). 이것은 야웨께서 남편이 되시며 이스라엘은 아내라는 회화적 표현이다.

**32:22 “주여”** 이것은 *아돈*(BDB 10, 특별주제: 주를 보라)이라는 히브리 단어이다. 이 용어는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호칭이었다(NIDOTTE 제 1 권 159 쪽).

1. 아론이 모세에게 – 출 32:22; 민 12:11
2.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 민 11:28
3. 갓과 르우벤의 자손이 모세에게 – 민 32:25,27
4. 길르앗, 마길, 므낫세, 요셉의 자손이 모세에게 – 민 36:2

▣ “**이 백성의 악함을**” 아론이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시키려 애쓴다. 그가 책임을 전가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일은 바로 아담이 행했던 일이고(즉, 창 3:12) 후에 모세도 행하게 될 일이다(참조, 민 20:12; 신 1:37; 3:26,27).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비난은 사실이었다(참조, 민 14:22-23; 신 9:7,21).

**32:23** 이것은 출 32:1-4 의 반복이다.

**32:24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터무니 없는 핑계로 여겨지지만, 랍비들은 이것을 시 106:19-20 과 관련을 시켜 말하기를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이집트 마술사들에 의해 송아지가 생명을 가졌다’라고 설명한다.

개역개정 32:25-29

25 모세가 본족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26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와 그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28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32:25

- NASB, JPSOA, REB “통제가 안되는”
- NKJV “제어가 안되었다”
- NRSV “탈선하여”
- TEV “통제가 안되다”
- NJB “손을 쓸 수 없는”
- LXX “그것이 흩어졌다”
- 페쉬타 “죄를 범하였다”

맛소라 본문에서는 “가게 하다” 또는 “혼자 내버려 두다”라는 동사(BDB 828 III, KB 970)로 되어 있다. 이 용어는 이 절에서 두 번 나온다.

1. 칼수동 분사
2. 칼완료형

BDB 에서는 “그들에게서 제어를 제거하다”라고 제시한다(참조, 대하 28:19; 같은 어근이 잠 29:18 에 나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존재가 제어력이 되었다. 그가 떠나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우상숭배의 경향을 드러내었다. 이 문맥에서는 야웨의 이름으로 행한 다산숭배적 축제를 시사하고 있다!

▣

- NASB, NRSV, NJB “조롱”
- NKJV “부끄러움”
- TEV “그들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다”
- JPSOA “위협”

NJB “감추인 적의”

LXX “고소해 하는 대상”

이 여성형 명사(BDB 1036, KB 1580)는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은 다음과 같다(KB).

1. LXX – 고소해 함, 조소, 조롱
2. 벌게이트, 페쉬타, 탈군 – 망신, 불명예, 악명

**32:26 “레위 자손이 다 모여”** 이 일은 이 지파가 제사장의 지파가 되는 장을 놓는다. 그들은 여호와께 대하여 최우선적 열심을 가졌는데, 그것은 가족에 대한 것보다도 우선이 되었다(참조, 마 10:34-39).

**32:27**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네 가지 명령을 내린다.

1.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 BDB 962, KB 1321, *칼* 명령
- 2-3.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즉, 관용어)
  - ㄱ. BDB 716, KB 778, *칼* 명령
  - ㄴ. BDB 996, KB 1427, *칼* 명령
4. “죽이라” - BDB 246, KB 255, *칼* 명령(신 33:9 에서는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이 모세의 소집에 응한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어떤 이는 죽임을 당했다!)
  - ㄱ. 자기의 형제를(BDB 26)
  - ㄴ. 자기의 친구를(BDB 945)
  - ㄷ. 자기의 이웃을(BDB 898)

후에 또 다른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이같은 열심을 나타내었다(참조, 민 25:7-13).

와! 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참조, 마 10:37; 눅 14:26)! 반역은 심각한 범죄로서 치명적인 결과가 뒤따른다. 대략 3,000 명이 죽었다(참조, 출 32:28).

**32:28**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사람을 어떻게 정하였는가를 궁금해한다. 바울이 똑같은 숫자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아마 이 본문이 아니라 민수기 25 장을 가리킬 것이다.

필사와 번역에 있어서 숫자는 상당히 까다로웠다. 많은 번이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사이에 그러하다. 에드윈 R. 킬레의 *히브리 왕들의 신비한 숫자*를 보라.

**32:29**

NASB, JPSOA “너희 자신을 헌신하고 있다”

NKJV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있다”

NRSV, LXX,

벌게이트, 탈굽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안수하였다”

TEV, NJB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

REB “제사장으로서는 세워진다”

이것은 “너희 손들을 채운다”(칼 명령과 명사)라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출 32:29 은 모세가 레위 지파를 우대하는 내용이다.

UBS 본문 프로젝트(145 쪽)는 여기서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동사가 명령형이 아니라 완료형이라고 설명한다

1.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일을 묘사함
2.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였다. 비록 그 일이 그들로 하여금 가족과 친구들을 치는 경우였음에도 그들이 신실하였음을 이 본문이 제시한다고 NET 성경(201 쪽)에서는 설명한다

출 28:41; 29:9,29,33,35 에서는, 똑같은 관용적 표현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는 일에서 사용되었다.

#### 개역개정 32:30-35

<sup>30</sup>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sup>31</sup>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sup>32</sup>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sup>33</sup>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sup>34</sup>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32:30 “너희가” 이것은 강조적인 문형이다.

▣ “혹” 이것은 자신의 중보기도(즉, 제사장으로서는 회종을 위해 간구함)가 또 한 번 가져올 효과에 대한 모세의 기대와 회의를 나타낸다.

▣

NASB, NKJV,

NRSV, LXX “속죄를 가져오다”

TEV	“용서함을 받다”
NJB	“속죄를 확실히 하다”
JPSOA	“용서함을 구하다”
REB	“용서를 확실히 하다”

이 동사(BDB 497, KB 493, *פ/אל* 청유형)는 “덮다”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레위기 16 장에서 “속죄일”이라는 용어에 나오는 바로 그 단어이다. 여기서 이 단어는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가리킨다(참조, 출 32:30-35; 특별주제: 중보기도를 보라).

**32:34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것은 출 3:17 을 가리킨다. 그 본문은 창 15:12-21 을 가리킨다.

▣ “내 사자” 이것은 여러 본문에서 성육신 이전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참조, 창 16:7-13; 22:11-15; 31:11,13; 48:15-16; 출 3:2-4; 13:21; 14:19; 사 2:1; 6:22-23; 13:3-22; 숙 3:1-2). 한편, 다른 본문에서 천사는 ‘전형적으로 섬기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참조, 창 24:7,20; 출 23:20-23; 민 22:22; 사 5:33; 삼하 24:16; 대상 21:15 이하; 숙 1:12-13). 특별주제: 여호와와 천사를 보라.

▣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심(즉, 친히 임재하심)은 축복을 위한 것이거나 심판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심판은 면했지만 그들이 가진 우상숭배적 경향에 뒤따르는 두려운 결과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들의 이러한 경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 거듭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32:35**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감당하게 되며 자신들의 행함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들을 대신하여 행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을 대신하여 행하실 수 있는 분께서 오실 것이며 또 그 분이 그들을 대신하여 행하셨다! (참조, 창 3:15; 사 53 장; 막 10:45; 고후 5:21). 이 절이 다음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1. 출 32:20(질병을 일으킴)
2. 출 32:28(죽음을 가져옴)
3. 어떤 미래적 심판, 예를 들어 이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참조, 민 14:26-35; 26:64-65; 신 2:14; 수 5:4)

“치다”(BDB 619, KB 669, *כ/א* 미완료형과 *ו/א*)라는 동사는 출애굽기 12 장에서 백성이 다른 사람을 치거나 때리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출 8:2 에서, 이 단어는 야웨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 일에 대하여 사용되었다(참조, 민 11:33).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야웨의 능력과 공휼을 경험하였다.
2. 금송아지는 외국의 이교도들이 섬긴 한 가지 우상이었는가?
3. 왜 출 32:10 이 모세를 시험해 보는 내용이었는가?
4. 출 32:32-35 은 중보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 출애굽기 33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재개된 여행	시내 산을 떠나라는 명령	여호와와의 안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내 산을 떠나라고 명하시다	떠날 것을 명령받은 이스라엘
33:1-3	33:1-6	33:1-3	33:1-3	33:1-4
33:4-6		33:4-6	33:4-6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회막	33:5-6  회막
33:7-11	33:7-11	33:7-11	33:7-11	33:7-11
모세가 중보기도하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약속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실 것임을 약속하시다	모세가 기도하다
33:12-16	33:12-16	33:12-16	33:12-13  33:14-16	33:12-17
33:17-23	33:17-23	33:17-23	33:17  33:18  33:19-23	산 위에 있는 모세  33:18-23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기타

### 문맥적 통찰

- 가. 이 장은 이스라엘이 시내 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일의 시작을 제시한다.
- 나. 모세가 누린 야웨와의 특별한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 다.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인하여, 야웨께서는 어떻게 그들 가운데 친히 머무실 것인지를 고심하셨다. 또다시 모세의 중보기도가 중요하게 작용하여 야웨께서 그대로 머무신다.  
야웨께서 그대로 머무시는 일은 문자적으로 언약의 갱신이라는 단계를 가지게 하였다(즉, 열 가지 계명을 다시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수여하는 일; 즉, 출 34:1-9).
- 라. 야웨를 눈으로 직접 뵈고자 하는 모세의 요청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자 하는 인간의 지속적 필요를 나타낸다! 야웨께서는 제한된 형태로 모세의 요청을 또다시 들어 주셨다.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3:1-3

<sup>1</sup>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sup>2</sup>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sup>3</sup>너희를 짓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33:1 “여기를 떠나서...올라가라” 이 구에는 두 가지 명령이 나온다.

1. “떠나라”(문자적으로, “가라” 또는 “걸으라”) - BDB 229, KB 246, *칼* 명령
2. “올라가라” - BDB 748, KB 828, *칼* 명령; 이 동사가 이 장에 여러 번 나온다
  - ㄱ. “인도하여 낸” - *히/필* 완료형, 출 33:1
  - ㄴ. “올라가지” - *칼* 미완료형, 출 33:3
  - ㄷ. “이르면” - *칼* 미완료형, 출 33:5
  - ㄹ. “인도하여 올라가라” - *히/필* 명령, 출 33:12

ㄱ. “올려 보내지” - *히/플*미완료형이 지시형의 의미로 사용됨, 출 33:15

▣ “여기를 떠나서” 그들이 시내 산에 오랫동안 있었다(출 19:1 을 민 10:11-12 과 비교하라).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야 했다(즉, 창 15:12-21).

▣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이것은 야웨께서 출애굽을 추진하지 않으셨음이나 이 일에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음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다(참조, 출 32:7).

▣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이것은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창 15:18-21; 17:8; 26:3; 28:4,13; 35:12; 48:6,16,21-22; 출 3:6,7; 6:8; 13:5; 23:23,28-33; 31:1-3; 34:11; 민 34:29; 신 1:17-18; 3:21; 7:16,19; 9:1-3; 11:23-25; 31:3-8; 수 1:2-5). 특별주제: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을 보라.

**특별주제: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적 약속**

특별한 언약적 관계에 대한 이 최초의 약속을 다음의 족장들에게 주셨다

1. 아브라함, 창 12:1-3
  - ㄱ. 땅, 창 12:7; 13:4-15; 15:18-21
  - ㄴ. 백성, 창 13:16; 15:4-5; 17:2-6; 22:18
  - ㄷ. 세상에 대한 축복, 창 18:18; 22:18
2. 이삭, 창 26:2-4
  - ㄱ. 땅
  - ㄴ. 백성
  - ㄷ. 세상에 대한 축복
3. 야곱, 창 2-4,13; 35:9-12; 48:3-4

33:2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야웨를 친히 대표하는 이 사자(특별주제: 여호와와 천사를 보라)가 여러 번 나타난다.

1.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 출 3:2
2. 홍해에서 – 출 14:19
3. 보호자와 안내자로서 – 출 23:20,23; 32:34; 33:2

이 천사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특별주제: 삼위일체를 보라. 구약에서는 성령과 천사가 신적 존재로 여겨지지만 야웨와는 구분된다.

▣ “내가 ... 쫓아내고” 이 동사(BDB 176, KB 204, *פ/אל* 미완료형과 *ואו*)는 출 23:27-33 에서 언급되었다. 이 일에 대하여 창 15:12-21 에서 예고하였다. 야웨께서 이 민족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또 회개할 수도 없었다. 이스라엘이 다산승배에 관련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된다(즉, 앗시리아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감). 땅에 대한 언약적 약속은 조건적이다(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특별주제: 이스라엘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거한 자들을 보라.

33:3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출 3:8 에 대한 설명을 보라.

▣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이다. 이것은 출 33:12-16 에서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핵심적 사항이 된다. 야웨께서 여전히 그들을 돌아보신다(“너희”는 전체를 가리키는 단수형이다, 참조, 출 33:5). 하지만 그들의 신실치 않음을 인하여(즉, 출 32 장) 야웨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출애굽과 광야 방랑 시기와 정복은 야웨와 이스라엘의 참 모습을 시험하는 장이 되었다.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야웨께서는 신실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참조, 출 34:6-7)은 진실되며 변함이 없으시다(참조, 말 3:6).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구약]

▣ “목이 곧은 백성인즉” 출 32:9 의 설명을 보라.

#### 개역개정 33:4-6

<sup>4</sup>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sup>5</sup>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심편개 한 것이니 너희가 내게서 두려워하라 하시니라

**33:4** 백성들이 다음 사항을 인하여 슬퍼하였다

1. 그들이 송아지를 가지고 반역한 일에 대한 야웨의 심판(민 14:39의 설명을 보라. 그 본문에서는 믿음이 결여를 지적한다)
2. 야웨께서 더 이상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과 함께 여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인하여

**33:5-6** 이렇게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은 회개와 뉘우침의 표였다.

오늘날 이 절의 마지막 부분을 취하여 ‘하나님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학적 진술로 삼는 무리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을 부인한다(즉, “과정 신학”[Process Thought] 또는 “열린 유신론”[Open Theism]). 이러한 신학자들은 창 3:9에 나오는 것과 같은 질문을 취하여 은유적 표현(즉, 신인동형적 표현)을 신학으로 만들어 버리며, 창 22:12 말씀을 사용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미래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본문으로 삼는다. 나는 “고전적인 유신론” 즉,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단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신학을 좋아한다(밀라드 J. 에릭슨의 *그리스도인 신학* 제 2 판 304-308 쪽을 보라).

출 33:6은 편집자의 기록처럼 보인다. 이 본문에서는 38년간 광야를 방랑하였음을 말한다. 금으로 만든 귀고리가 틀림없이 야웨께 금송아지를 상기시켰을 것이다!

**33:6 “호렙 산”** 이것은 시내 산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다(참조, 출 3:1). 호렙(BDB 352, KB 350)은 “사막”과 “황무지”를 뜻하는 셈어이다. 어떤 학자는 이것이 건조한 산악지대를 뜻하고, 시내(BDB 696, 참조, 출 16:1; 19:1)는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설명은 추측에 불과하다.

시내라는 지역은 사막에 있는 덩불과 관련이 있다. 이 지역은 “신 광야”(BDB 695 II, 참조, 16:1; 17:1; 민 33:11,12)로 불리며 남쪽에 있는 광야이다. 특별주제: 시내 산의 위치를 보라.

**개역개정 33:7-11**

<sup>7</sup>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처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sup>8</sup>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sup>9</sup>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sup>10</sup>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sup>11</sup>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33:7-11 “장막”** 이것은 출애굽기 25-30 장에 나오는 성막과는 별개의 것이다. 성막은 진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참조, 민 2:2; 회막에 대한 도표를 보라). 이 절의 뒷부분에서는 이것을 “만남의 장막”이라는 긴 이름으로 부른다(이 이름은 출 27:31 과 민 4:3 에서 성막을 일컫는 이름이 된다). 이곳은 시내 산을 떠난 후에(참조, 민 11:16,24-26; 12:4) 야웨께서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출 33:11; 민 12:8; 신 34:10) 말씀하시는 장소였다. 이곳은 원래 모세의 사적인 장막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 장막이 진 밖에 위치한 이유는 그곳의 거룩성 및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써 범죄한 일 때문이었다. 이 때에는 오직 모세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즉, 제사장이 없었음). 여호수아가 이곳을 지켰다(출 33:11).

백성 가운데 누구라도 어떤 질문이나 문제를 가진 경우에는, 그들이 장막으로 나아와 모세의 자문을 받았다(참조, 출 33:7).

백성들은 다음 세 가지 행동으로써 장막의 존재를 귀하게 여겼다:

1. “일어나” - BDB 877, KB 1086, *칼* 미완료형, 출 33:8,10
2. “서서” - BDB 662, KB 714, *니/플* 완료형과 *와우*, 출 33:8
3. “예배하였다” - BDB 1005, KB 295, *히/트파엘* 완료형과 *와우*, 출 33:10

**33:7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다”라는 포괄적 용어를 주목하라. 이스라엘의 신정정치가 가진 이 얼마나 놀라운 특징인가(즉, 모든 이가 누릴 수 있었음; 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앙모하다”(BDB 134, KB 152, *피/엘* 능동 분사)라는 동사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었다(두 가지를 함께).

1. 야웨와의 교제를 사모하다(참조, 신 4:29; 대상 16:10; 대하 11:16; 사 51:1; 렘 50:4; 호 3:5; 숙 8:21-22)
2. 어떤 것을 알려고 하다(참조, 잠 28:5; 슥 1:6). 출애굽이라는 문맥에서는 재판장인 모세(즉, 야웨의 신탁)를 앙모함으로 이해함이 적합하다. 시편에서는(다른 문법적 형태) 종종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나타낸다(참조, 시 16:11; 25:4; 119:66; 142:8)

**33:9 “구름 기둥”** 출 13:21 에 대한 설명을 보라.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야웨께서 친히 임재하심을 상징하였다.

구름이 줄곧 머물러 있던 지성소가 있는 회막(참조, 출 40:34-38)과 때로 구름이 임하였다가 사라진 진 밖의 장막(참조, 출 33:9-11)을 분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록 용어로서는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지만, 그 위치와 사용한 상징을 고려할 때 두 종류의 장막을 가리키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 개역개정 33:12-16

<sup>12</sup>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sup>13</sup>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sup>14</sup>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sup>15</sup>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려 보내지

**33:12-16**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적이지만, 야웨께서 친히 야웨의 언약 백성과 함께 여행해 주실 것을 모세가 간구드리고 있다.

그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요청드린다:

1.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이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조, 출 3:12)
2. 주께서 나와 함께 보낼 자가 주님이신지(출 3:17) 아니면 주의 사자이신지(출 32:34)를 내게 명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참조, 출 3:4-6)
4.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주 반복되는 기도이다(참조, 창 18:3; 47:29; 50:4; 출 33:13,17)

**33:13**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알다”(BDB 393, KB 390)라는 동사가 두 번 사용되었음을 주목하라. 특별주제: 알다(구약)를 보라.

1. *히/פל* 명령
2. *칼* 미완료형이 청유형의 의미로 사용됨

모세는 자기를 야웨께서 아시듯 자신도 야웨를 알기 원했다. 야웨의 길을 통하여 야웨를 이해할 수 있으며 알 수 있게 된다(참조, 시 25:4; 27:22; 51:13; 86:11; 119:33; 특별주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보라). 야웨께서는 다음 사항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

1. 직접 만나 주심(즉, 출 3 장의 불타는 떨기 나무)
2. 재앙과 출애굽
3. 십계명과 언약의 책(출 20-23 장)

모세는 야웨의 “은총” 또는 “은혜”(BDB 336, 즉 노아, 참조, 창 6:8; 아브라함, 참조, 창 18:3; 19:19; 모세, 참조, 출 33:13,17)를 누리기 위해서는 야웨를 반드시 앙모해야 함을 깨달았다.

▣ “여기소서” 이 동사(BDB 906, KB 1157, *칼* 간구를 나타내는 명령형)는 문자적으로 인식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보다”를 의미한다(참조, 출 3:7,9; 4:21; 또한 출 33:12,13 에 나오는 *칼* 명령).

▣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이것은 언약적 표현이다(참조, 출 6:7; 19:5-6; 레 26:12).

**33:14** 야웨께서 모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야웨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친히(즉, 야웨의 얼굴, BDB 815, 참조, 신 4:37; 사 63:9; 애 4:16) 동행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는 구는 가나안에 들어가 거함을 가리킨다(참조, 출 3:20; 12:10; 수 1:13,15; 21:44; 22:4; 23:1). 신약의 히브리서 3-4 장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1. 하나님의 안식 – 창 2:2; 출 20:11; 31:17; 히 4:4,10
2. 약속의 땅 – 시 95:11; 히 3:11; 4:3,5
3. 천국 – 히 4:1,8-11(다윗의 시대에도 여전히 안식을 기다렸다, 즉, 시 95 편)

가나안 땅은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다. 이 점은 구약의 모든 예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특별주제: 왜 구약의 언약적 약속이 신약의 언약적 약속과 상당히 다르게 보이는가를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지(문자적으로 “얼굴”) 앉으시는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신학적 목적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사 7:14 에 나오는 이름인 “임마누엘”(BDB 769)은—“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개념의 실현이다!

**33:15-16** 야웨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시내 산을 떠나서는 안되었다! 야웨께서 친히 임재하심(즉, “얼굴”이라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 출 33:14 을 보라)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들었다(참조, 출 19:5-6; 레 20:24,26).

**33:16 “천하 만민 중에”** 이 마지막 구는 다음 사항을 가리킬 수 있다

1. 발
2. 나라
3. 땅
4. 전 세계

오직 문맥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땅”을 가리키는 용어는 *아다마*(BDB 9)이다. 이 단어는 종종 *에레츠*(BDB 75, KB 90)와 동의어적으로 사용되는데, 후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특별주제: 땅, 나라, 지구(*에레츠*)를 보라.

**개역개정 33:17-23**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압이니라 18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33:17-23** 모세는 눈으로 야웨를 보기 원했다. 그는 이미 특별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가졌음에도(참조, 출 33:11; 민 12:8; 신 34:10) 더 깊은 교제를 원하였다. 분명히 모세는

1. 야웨를 보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2. 출 20:4 의 말씀을 완전히 붙잡지 못하였다
3. 출 24:10,11 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경험을 하기 원하였는데, 이번에는 바로 자신을 위한 기회였다

하나님을 보는 일을 두려워함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점이 있다(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하여 죽음을 가져온다고 생각되었다).

1. 어떤 사람은 하나님(여호와와 사자)을 보았지만 살았다
  - ㄱ. 창 16:3 – 하갈, 여호와와 사자를 통하여
  - ㄴ. 창 32:30 – 야곱이 환상 중에
  - ㄷ. 출 24:10-11 - 70 명의 장로와 모세가 신의 현현을 통하여
  - ㄹ. 신 5:24 –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사자를 통하여 야웨의 영광을 보았다
  - ㅁ. 삿 6:22-23 – 기드온
  - ㅂ. 삿 13:21-22 – 삼손의 부모가 여호와와 사자를 통하여
  - ㅅ. 사 6:1,5(참조, 요 12:41) – 이사야가 환상 중에
  - ㅇ. 겔 1:26,27 – 에스겔이 환상 중에 야웨의 병거/보좌를 통하여
  - ㅈ. 단 7:9-14 – 다니엘이 환상 중에 옛적부터 계신 이를 통하여

2.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 살지 못했다
  - ㄱ. 출 3:6; 19:21; 33:20,23
  - ㄴ. 레 16:2
  - ㄷ. 민 4:20
  - ㄹ. 왕상 19:13
  - ㅁ. 천사들도 자기들의 얼굴을 감추었다, 사 6:2
  - ㅂ. 요 1:18; 5:37; 6:46
  - ㅅ. 딤편 1:17; 6:16
  - ㅇ. 요일 4:12,20
3.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했다
  - ㄱ. 출 20:19
  - ㄴ. 신 4:33; 5:24-26; 18:16
  - ㄷ. 고후 12:1-4
4.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 요 12:45; 14:9
5. 어느 날 신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 ㄱ. 마 5:8
  - ㄴ. 고전 13:12
  - ㄷ. 히 12:14
  - ㄹ. 계 22:4
  - ㅁ. 욥 42:5; 시 17:15; 42:2 에 대한 설명을 보라

**33:18 “주의 영광을”**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회화적 표현이 몇 가지 있다.

1. “주의 영광,” 출 33:18,22 - BDB 458, 참조, 출 16:7; 특별주제: 영광(카보드, 구약)을 보라
2. “나의 모든 선한 것,” 출 33:19 - BDB 375 와 BDB 481 의 조합
3. 또한 “나의 손”에 대한 설명을 보라, 출 33:22,23;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보라
4. “나의 등,” 출 33:23 - BDB 30, KB 35

이것은 출 34:5-9 에 나오는 하나님의 현현을 위한 신학적 배경을 이룬다. 출 34 장의 본문에서

1. 위의 3 항이 성취되었다
2. “이름”의 계시, 참조, 출 33:19; 다음 항목을 보라
  - ㄱ. 특별주제: 여호와와 이름의 보라
  - ㄴ.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구약)

**33:19 “내가 내”** 야웨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실 것이다.

1. 모든 선한 것(즉, 성품 곧, 긍휼과 심판, 참조, 출 34:6-7)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2. 자신의 언약적 이름인 야웨를 모세 앞에 선포하실 것이다(참조, 출 3:13-16).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일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 . .” 야웨의 주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바울이 이 본문을 롬 9:15 에서 인용하였다. 그가 자유로우시지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참조, 호 11:9). 한편,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고, 우상숭배를 하며, 반역적이고, 참아내지 못하는 자들인 점을 기억하라! 로마서 9-11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신비함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줄곧 목적을 가진 긍휼하심이다(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33:22 “반석 틈에”** 이것(BDB 849)이 왕상 19:9-14 에 나오는 “바로 그” 반석의 틈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사람들이 궁금히 여긴다. 사 2:19-21 에서는 숨는 장소를 일컫기 위하여 사용한 여러 용어가 나온다.

1. 바위의 굴, 출 33:19 – BDB 849
2. 땅의 굴, 출 33:19 – BDB 320
3. 바위의 동굴, 출 33:21 – BDB 669
4. 절벽의 틈, 출 33:21 – BDB 703

**33:23 “손 . . . 내 등”** 이것은 신인동형적 표현이다. 특별주제: 인간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으로서(즉, 요 4:24) 창조의 때와 시간적 영역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

“얼굴”(출 33:15-16 에 대한 설명을 보라; 또한 출 33:11 과 33:20 의 냉혹한 대조도 주목하라)과 “모습”은 언어유희를 이룬다.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즉, 완전한 직접적 계시)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은 볼 수 있다. 야웨께서 “지나가실 때”(BDB 716, KB 778, 칼 명령, 참조, 왕상 19:11-13), 모세는 야웨의 영광의 일부를 보도록 허용받았지만, 야웨의 “얼굴”을 보도록 허락받은 것은 아니었다.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출애굽기 32 장은 출애굽기 33 장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
2. 출애굽기 32 장과 33 장이 어떻게 출애굽기 34 장의 배경을 이루는가?
3. 이스라엘의 신실치 않음이 어떻게 야웨의 성품을 확연하게 드러내는가?
4. “얼굴”(BDB 815)의 여러 용법을 열거하여 보라.
5.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웨께서 가지신 중요한 목적은 땅인가 아니면 야웨의 친밀한 임재하심인가?
6. “여호와와 천사”와 “여호와”는 어떤 면에서 서로 같고 또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른가?
7. 출 33:4 에 나오는 “장식품”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8. 출 33:7 에 나오는 “장막”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어떻게 회막과 관련이 있는가?
9.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였는가? 모세가 무엇을 보았는가?

# 출애굽기 34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대체된 두 돌판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다	언약의 갱신	돌판의 두 번째 세트	갱신된 언약; 율법의 판
34:1-9	34:1-3  34:4-9	34:1-9	34:1-4   34:5-7  34:8-9	34:1-5   하나님께서서 나타나시다  34:6-9
언약의 갱신	언약의 갱신	(6-7)	언약의 갱신	언약
34:10	34:10-17	34:10	34:10-13	34:10-16
34:11-17		34:11-16	34:14-16	
		34:17	34:17	34:17
34:18	34:18-20	34:18	34:18	34:18
34:19-20		34:19-20a	34:19-20a	34:19-20a
		34:20b	34:20b	34:20b
34:21-24	34:21-24	34:21-24	34:21	34:21
			34:22	34:22
			34:23-24	34:23-24
34:25	34:25-26	34:25	34:25	34:25
34:26a		34:26a	34:26	34:26
34:26b		34:26b		
34:27-28	34:27-28	34:27-28	34:27-28	34:27
				34:28
모세의 얼굴이 빛나다	모세의 얼굴이 빛남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오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
34:29-35	34:29-35	34:29-35	34:29-35	34:29-35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이것은 언약의 갱신을 첫 번째로 축하하는 본문이다(이후에 이루어진 갱신은 수 24:19; 대하 29:10 에 나옴). 출애굽기 20-24 장에 나오는 처음 언약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반역한 일을 인하여 무효로 되었다(출애굽기 32 장). 두 돌판을 부수어버린 일은 이 언약이 무효함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는 표시였다.

불순종은 언약을 깨뜨림을 주목하라.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신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갱신은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야웨의 신실하신 임재를 확신하게 하는 방법이 되었다.

1. 모세를 인하여(출 32:27-33)
2. 족장들에게 주신 야웨의 약속을 인하여(출 34:11)
3. 야웨의 영원한 구속적 목적을 인하여(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나. 이 장에서는 언약의 책에 나오는 어떤 명령도 갱신되었음을 제시한다(즉, 출 21-23 장).

1. 가나안 족속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출 34:12 – 참조, 출 23:32-33
2.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 출 34:14-16 – 참조, 출 22:20
3.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출 34:17 – 참조, 출 20:23
4. 다음 항목을 드리라
  - ㄱ. 장자, 출 34:19-20 – 참조, 출 22:29
  - ㄴ. 첫 열매, 출 34:26 – 참조, 출 23:19

5. 매년 참석해야 하는 세 가지 축제, 출 34:23 – 참조, 출 23:14-17(참조, 레 23:5-8; 신 16:1-8;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축제를 보라)
    - ㄱ. 무교절(유월절)
    - ㄴ. 오순절, 출 34:22 – 참조, 출 23:16
    - ㄷ. 수장절
  6. 누룩을 넣은 떡을 제물로 사용하지 말라, 출 34:25 – 참조, 출 23:18
- 다. 새 돌판 및 산 위에 두 번째로 사십 일 동안 있음, 출 24:27-35

개역개정 34:1-9

<sup>1</sup>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sup>2</sup>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sup>3</sup>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sup>4</sup>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와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sup>5</sup>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시라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와 이름을 선포하시새 <sup>6</sup>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sup>7</sup>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34:1-2 “다듬어 만들라” 출 32:15-16 에서는 두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설명한다(출 34:16; 신 4:13; 9:10). “다듬다”(BDB 820, KB 949)라는 동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모세가 어떻게 이 돌판들을 상당히 빠르게(즉, 한 밤에) 쪼아내었는지/끌로 깎아내었는지(출 34:1,4)는 알 수 없다. 신명기 10 장에서는 이 기록을 반복하여 제시한다.

네 가지 명령이 나온다.

1.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 BDB 820, KB 949, *칼* 명령
2. 아침까지 준비하여라 - BDB 224, KB 243, *칼* 명령
3. 산에 올라와라 - BDB 748, KB 826, *칼* 완료형과 *와우*가 명령을 나타냄
4. 내게 네 자신을 보이라 - BDB 662, KB 714, *나/끌* 완료형과 *와우*가 명령을 나타냄; 이것이 어떤 종류의 “영적” 준비를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긴다, 출 19:11,15 에서도 마찬가지로

34:2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계시는 그 자체가 항상 ‘야웨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다(참조, 출 32:16; 34:1; 신 10:2,4).

34:3 이러한 제한 규정은 출 19:12,13 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즉, 첫 언약의 의식).

34: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이것은 “구름 기둥”을 가리킨다 (참조, 출 13:21, 또한 이 시기에 여러 번 나온다).

▣ “선포하실새” JPSOA 에서는 대부분의 영어역본과 마찬가지로, 마치 야웨께서 말씀하고 계신 듯이 이것을 번역하였다(참조, 출 34:6). 출 34:6-7(또한 구약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에서 찬송한 바 야웨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 “이름”이다. 특별주제: 야웨의 “이름”을 보라.

34:6-7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을 계시하고 있는 본문에 대해서는,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구약).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동시에 정의로우심을 주목하라! 이 둘을 따로 떼어 내어 생각해서는 안된다.

야웨의 성품과 이름에 대한 이러한 본문이 여러 곳에서 제시되고 있다.

1. 민 14:18
2. 신 4:31
3. 대하 30:9
4. 느 9:17
5. 시 86:15; 103:8; 112:4; 116:5
6. 올 2:13
7. 온 4:2
8. 나 1:3

34: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이 동사(BDB 716, KB 778)는 출 33:19,22 과 연결이 된다. 다음의 여러 항목과 관련하여 이 두 본문 사이에 명확한 일치가 제시된다.

1. 나의 선함, 출 32:19
2. 나의 영광, 출 32:22
3. 나의 이름

▣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호/이름/성품이 나온다.

1. 여호와, 출 34:6 – 야웨(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라함을 보라)
2. 여호와 하나님, 출 34:6 – 문자적으로, 야웨 야웨 *엘*(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가함을 보라)
3. 여호와 하나님, 출 34:23 – *아돈*, 특별주제: 주(*퀴리오스*)와 야웨를 보라
4.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 34:23 – *엘로아*, *엘로힘*의 단수형(특별주제: 하나님의 이름들에서 다함을 보라)
5. 여호와, 너희 하나님 – 야웨, 너희 *엘로힘*

이 문맥에서, 이러한 다양성은 문학적인 성격이지 신학적인 성격은 아니다.

▣ **“인자”** 이것은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참조, 시편 136 편)! 특별주제: 인자한 사랑 (헤세드)을 보라.

▣ **“노하기를 더디하고”** 히브리어에서는 노하는 것을 노하는 사람의 “코”와 연결시키는 관용적 표현으로써 종종 나타낸다. 이 구는 문자적으로는 “길어진 콧구멍”을 뜻한다(UBS *핸드북*, 800 쪽).

1. 형용사, “긴” – BDB 74
2. 명사, “코” – BDB 60, 여기서는 쌍수형인 “두 개의 콧구멍”

**34:7 “악과 과실과 죄를”** 이것들은 언약을 범하는 것을 나타내는 세 가지 중요한 용어이다(BDB 730, BDB 833, BDB 308). 이 단어들이 이곳 외에 다른 여섯 본문에서도 함께 사용되었다(참조, 레 16:21; 욥 13:23; 시 32:5; 사 59:12; 겔 21:24; 단 9:24). 인간이 도덕적으로 망가졌다(특별주제: 타락을 보라)!

▣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야웨께서 자비로우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공의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민 14:18; 나 1:3).

1.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여야 한다, 특별주제: 회개(구약)를 보라
2. 반드시 야웨께 나와야 예배하여야 한다(참조, 신 6:4-6; 30:6)
3. 회개하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분명히 심판이 뒤 따른다
4. 죄에는 뒤따르는 결과가 있다(용서를 받은 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 시 32:51)

야웨의 자비하심과 공의라는 신비스러운 진리는 종종 부딪힌다 – 렘 3:12-14; 호 11:8-9. 중요하게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죄에 대한 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가 – 출 20:5-6; 신 5:9-10; 출 34:7; 민 14:18; 렘 31:29
2. 각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가 – 신 24:16 을 왕하 14:6 과 대하 25:4 에서 인용하였음; 또한 에스겔 18 장에 나오는 강력한 진술을 보라

▣ **“아버지의 악행을 . . .”** 불순종의 행위는 신속하게 삶의 패턴과 가족적 전통으로 자리잡아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음을 기억하라(참조, 출 20:5-6).

한편, 하나님께서 신실한 가족에게 주신 커다란 약속에서도 그들의 신실함에 따른 결과가 시간을 따라 이어진다(참조, 신 7:9)!

이구가 야웨의 자비하심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랍비들은 설명한다.

1. 완전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게 하신다(즉, 왕상 21:29-30)
2. “오래 참으심”은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다(참조, 롬 2:4; 벰전 3:20)

34:8 이러하신 하나님께 가장 적합하게 응답하는 길은 그 분을 존경하고 예배하는 일이다.

34:9 “(입었)거든” 가정을 나타내는 이 불변화사(BDB 49)가 출 32:32; 33:13,15 에서도 나타난다. 이 절은 출 33:13-15 과 연결이 된다. 이스라엘이 독특하고 특별한 민족이 되려면(참조, 출 19:5-6), 야웨께서 그들과 친히 동해해 주시는 일이 꼭 필요하였다.

▣ “이는 목이 뺏뺏한 백성이니이다” 출 32:9 에 대한 설명을 보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목이 뺏뺏한” 백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더욱 드러난다.

▣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명사(BDB 635)를 NASB 에서는 “소유”로 번역하였는데, 문자적으로 볼 때 이것은 “유산”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1.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 – 신 4:20; 7:6; 9:26,29; 32:9; 삼상 10:1; 왕상 8:51,53; 왕하 21:14; 시 28:9; 33:12; 78:71; 106:5,40; 사 19:25; 렘 10:16; 미 7:18
2.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야웨의 선물로 받음 – 신 4:21; 15:4; 19:10; 20:16; 21:28; 24:4; 25:19; 26:1

이것은 가족과 관련을 가진 은유적 표현이다. 이 표현이 다음과 같이 확장된다.

1.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에게 이방인을 유산으로 주심, 시 2:8
2. 메시아/예수께서 모든 것의 상속자이심, 히 2:2; 마 28:18
3.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이다 – 롬 8:17

#### 개역개정 34:10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와

34:10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참조, 출 23:27; 15:16; 신 2:25; 11:25; 수 2:9; 24:31; 삿 2:7, 이전에 이집트를 낮추신 일과 마찬가지로, 참조, 출 15:11).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인한 승리가 아니라 야웨께서 주신 승리였다(참조, 출 34:11; 23:27-31; 33:2).

“만일”이라는 용어가 이 본문에 없음을 주목하라. 야웨께서는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도 포함시키는 구속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세상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주제: 야웨의 영원한 구속계획을 보라.

▣ “언약” 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개역개정 34:11-17**

11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사람을 쫓아내리니 12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울무가 될까 하노라 13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14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15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다투며 처하며 내가 그 제물을 먹으매 한이더라 16 또 내가 그들이 따르던 내 신들도 이 신이라

**34:11 “삼가 지키라”** 순종이 중요하다(BDB 1036, KB 1581, *칼* 명령; 특별주제: 지키다를 보라). 언약은 조건적이다(특별주제: 언약을 보라).

**34:12 “너는 스스로 삼가”** 이것은 11 절에서 사용한 동사와 같은 동사로 된 명령형이다(여기서는 *니/팔* 명령형임). 여기에서의 명령은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의 다산승배에 대한 것이다(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다산승배를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가 그들을 타락시킬 것이다(참조, 출 23:32-33; 민 33:55; 신 7:1-5,16; 수 23:13).

**34:13** 특별주제: 가나안의 다산승배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대응을 보라.

▣ “그들의” NASB 에서는 맛소라 본문의 집합적 단수형(즉, 출 34:13-16)을 바꾸어 나타낸 것이다. UBS 본문 프로젝트 (148 쪽)는 단수형에 B 등급(약간 의심스러움)을 준다.

**34:14 “여호와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NASB 와 NJB 에서는 이것을 괄호 안에 넣어 제시하였다. 이 형용사(BDB 888, 2 회)는 야웨께 대하여만 사용되었다(참조, 출 20:5; 신 4:24; 5:9; 6:15). 인간의 강력한 정서적 감정을 나타내는 이 신인동형적 표현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질투, 사랑의 언어, 가족과 관련을 가진 표현
2. 질투(즉, 어떠한 적수도 허용하지 않음)

제 1 항의 설명이 이 문맥의 의미로서 더 적합하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으로 여겨졌다(참조, 레 17:7; 20:5,6; 민 15:39; 신 31:16; 삿 2:17; 8:27,33; 대상 5:25; 겔 20:30). 야웨께서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이다(참조, 출 34:15-16; 호 1-3 장).

“음란”(BDB 275, KB 275)이라는 동사가 출 34:15-16 에서 세 번 사용되었다.

**34:15-16** 이렇게 종교적 사회적 접촉을 금하는 명령이 신 7:3-4 에서 반복되었다. 그들과의 혼인은 야웨의 언약적 백성이 가지는 순수성을 더럽혔다! 이 일은 다음의 경우에서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다

1. 솔로몬의 통치, 참조, 왕상 11:1-8,9-11
2. 포로기 이후(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상한” 법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가리킨다. 이러한 명령을 준 일은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이 시도는 분명히 실패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웃 민족들과 똑같이 더럽혀졌는데 특별히 우상숭배와 다산숭배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

**34:17** 이것은 다음 내용을 가리킨다.

1. 출 20:4 –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2. 출 32:4 – 아론이 부어 만든 신상

이 일은 야웨의 질투를 촉발시킨다!

#### 개역개정 34:18

<sup>18</sup>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34:18-26** 문맥적 통찰의 나향을 보라. 특별주제: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라.

**34:18 “아빕월”** 특별주제: 고대 근동의 달력을 보라.

#### 개역개정 34:19-20

<sup>19</sup>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sup>20</sup>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34:19** 맛소라 본문의 동사( *트/자카르*, BDB 269, KB 269, 니팔 미완료형)는 이 문맥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학자들은 다른 어근( *핫/자카르*, “수컷”을 의미함)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더 잘 들어맞는다 (탈굼과 벌게이트역을 따르는 JPSOA 를 보라).

**34:20** “대속할 것이요” 특별주제: 속량하다/구속하다를 보라.

**개역개정 34:21-4**

21 너는 옛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지니 발 갈 때에나 거들 때에도 쉬지며  
 22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23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4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34:21** 이것은 출 20:8-11 을 반영하는 본문이다(특별히 20:9, 참조, 출 35:2-3). 안식일은 매주 가지는 주요한 예배였다. 이 예배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었다. 언약의 백성이 자신들의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쉬는 일은 매우 중요하였다. 특별주제: 안식일(구약)을 보라. 또한 이에 대한 간략하고도 유용한 설명을 NIDOTTE 제 4 권 1157-1162 쪽에서 보라.

**34:23** 이것은 출 23:17 에서 반복된다. 모든 영어역에서는 명사형(BDB 909)에서 온 “나타나다”라는 동사로 제시하였지만, 맛소라 본문에서는 “보다”(BDB 906, KB 1157, *니/팔* 미완료형)로 되어 있다. 이것은 문맥상 해마다 중앙 성소에서 열리는 세 가지 주요 축제를 가리킨다. 그러나 하나님을 “뵈기”(출 33:11,30 에 대한 설명을 보라)라는 문맥적 면을 고려할 때, 이것은 단순히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뜻하는 회화적 표현일 것이다.

**34:24** 이것은 이스라엘이 야웨의 언약에 순종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순종하지 않았다! 이 절을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1. 아무런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TEV, NJB)
2. 언약적 동반자들이 “탐내지 않을 것이다”(똑같은 단어가 출 20:17 에 나온다; NEB, REB)

이 절은 중앙 성소를 향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가리키는 후기의 추가적인 본문임이 틀림없다.

특별주제: 오경의 문서비평을 보라(J.E.P.D).

**개역개정 34:25**

25 너는 내 제물이 피를 요구하며 함께 드리지 마면 오워저 제물이 내치까지 드지 마지니

34:25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이 내용은 출 12:10 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 사항이 출 23:18 에서 반복되었으며, 신 16:4 에서 또 다시 언급되었다.

고기는 특별히 성스러운 면을 가졌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식사(즉, 남은 것)와 구별이 되었다. 한편, 이러한 예식적 규정이 다음 사항과 관련을 가지는가를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1. 위생상의 이유
2.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

#### 개역개정 34:26a

26a 네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려다가 네 귀나니 언총안이 저세 드리지만

34:26a “네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이것은 출 23:19 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또한 레 2:12,14 에 대한 설명을 보라). 이스라엘은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전체 수확이 속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장자”와 “십일조”라는 표현과 더불어 안식일도 같은 개념을 제시하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 개역개정 34:26b

26b 나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34:26b “나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출 23:19 에 대한 설명을 보라.

#### 개역개정 34:27-28

<sup>27</sup>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sup>28</sup>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34:27 “기록하라”** 이것은 칼 명령이다(참조, 출 17:14; 24:4). 어떤 것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모세가 분명히 받았다. 그런데 무엇을 기록하라는 명령인가? 야웨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고(참조, 출 24:12; 31:18; 32:15-16; 34:1, 18) 모세는 “언약의 책”(즉, 출 21-23 장, 참조, 출 24:4, 7)과 관련이 있는 다른 종류의 법을 기록한 것인가?

**34:28** 이스라엘의 인내를 두 번째로 시험하고 있다.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분명한 연결성이 나타난다(참조, 마 4:2). 산상수훈(마 5-7 장)은 새로운 법이다.

▣ “사십 일 사십 야를”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상징적 수를 보라.

**개역개정 34:29-35**

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1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32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33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라니 34 그리니 모세가 언약의 안에 드신지니 함께 마한 때에는 나오기까지 스거은

**34:29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이것은 출 20-24 장에는 없는 새로운 요소이다. 이것은 야웨께서 모세와 직접적으로 대화하셨음을 확증적으로 보여준다(즉,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참조, 출 33:11; 민 12:8; 신 34:10).

바울은 고후 3:1-11 에서 “광채”가 지속되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덮개를 사용한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 그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의 계시’를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시와 비교하기 위하여 이 회화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것이 출애굽기 34 장의 의도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브레바드 차일드스의 출애굽기[620-624 쪽]을 보라)!

“광채가 나다”(BDB 902, KB 1144, 칼 완료형, 세 번 사용됨)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뿔들”이 확장됨을 가리키지만, 이곳에서는 광채가 퍼짐을 명백하게 나타낸다(즉, BDB 901). 70 인역, 페쉬타, 탈굼에서는 모두 “광채가 나다”로 번역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를 카르(BDB 902)에서 야카르(BDB 429)로 바꿀 것을 주장한다(아마 NJB 와 JPSOA). 후자는 광채나 영광을 뜻한다.

예수께서 율법의 새로운 수여자가 되시듯이, 모세보다 더욱 더 “빛나는” 광채를 가지셨음을 마 17 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서 제시한다.

**34:33 “수건”** 이 명사(BDB 691, KB 605)는 이곳에서만 나온다. 이것이 얼굴을 가리는 어떤 종류의 덮개였음을 문맥을 통하여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욥 24:15 에 나오는 또 다른 히브리어 어근(BDB 712)도 얼굴을 덮는 것을 뜻한다. 이 용어들이 서로 어떻게 달랐으며, 또 세세한 내역에 있어서 그것들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는 없다.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야웨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신 것인가 아니면 모세가 기록한 것인가?
2. 왜 출 34:6-7 의 본문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가?
3. 야웨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모세가 출 34:9 에서 원했던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가?
4.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울무”가 되는가?
5. 출애굽기 34 장은 출애굽기 20-23 장을 그대로 정확히 반복하는 본문인가?
6. 왜 모세의 얼굴이 빛났는가? 왜 그가 자기 얼굴을 가렸는가?

# 출애굽기 35-40 장

##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새미국표준성경 (NASB)	뉴킹제임스역 (NKJV)	새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새예루살렘성경 (NJB)
강조된 안식일	안식일 규정	제단의 설치 (35-40 장)	안식일을 위한 규정	안식일에 쉬
35:1	35:1-3	35:1	35:1-3	35:1-3
35:2-3	회막을 위한 헌물	35:2-3	성막을 위한 헌물	물건을 모으다
35:4-9	35:4-9	35:4-9	35:4-9	35:4-19
회막 기술자들	회막에 사용할 물품		임재의 장막을 위한 물품	
35:10-19	35:10-19	35:10-19	35:10-19	
모아진 선물	회막을 위해 드린 헌물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다	
35:20-29	35:20-29	35:20-29	35:20-29	35:20-29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술자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을 건설할 일꾼들	성소를 위한 기술자들
35:30-35	35:30-36:1	35:30-36:1	35:30-36:1	35:30-36:1

독서의 세 번째 단계(서론 부분에 있는 xvi 쪽을 보라)

**문단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기타

## 문맥적 통찰

가. 회막은 광야 유랑 기간에 야웨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신 장소였다. 회막의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1. 계시의 장소
2. 교제를 유지하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
3. 야웨의 임재하심, 인도하심, 거룩하심의 상징

회막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규정이 실행된 장소이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장자”(즉, 출 13 장)를 대신한 야웨의 종들이다.

나. 출애굽기 25-31 장에서는 여러 항목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1. 사용할 물건에 대하여, 출 25:2-6
2. 궤에 대한 세부 사항, 출 25:10-22
3. 진설병을 놓는 상에 대한 세부 사항, 출 25:23-31
4. 등잔에 대한 세부 사항, 출 25:31-40
5. 성막에 대한 세부 사항, 출 26:1-14
6. 성막 내부의 구조물에 대한 세부 사항, 출 26:1-14
7. 안쪽 휘장에 대한 세부 사항, 출 26:31-35
8. 바깥쪽 휘장에 대한 세부 사항, 출 26:36-37
9. 번제단에 대한 세부 사항, 출 27:1-8
10. 바깥 뜰에 대한 세부 사항, 출 27:9-19
11. 아론이 입는 거룩한 옷에 대한 세부 사항, 출 28:1-5
  - ㄱ. 에봇에 대한 세부 사항, 출 28:6-14
  - ㄴ. 흉패에 대한 세부 사항, 출 28:31-35
  - ㄷ. 에봇에 딸린 겹옷에 대한 세부 사항, 출 28:31-35
  - ㄹ. 머리에 쓰는 관에 대한 세부 사항, 출 28:36-43
12. 위임식에 대한 세부 사항, 출 29:1-46
13. 번제단에 대한 세부 사항, 출 30:1-10
14. 회막을 지원하는 세금에 대한 세부 사항, 출 30:11-16
15. 물두멍에 대한 세부 사항, 출 30:17-21
16. 성별하는 향유에 대한 세부 사항, 출 30:22-23
17. 향에 대한 세부 사항, 출 30:34-38

다. 비록 아주 상세한 내용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이동식 예배장소의 정확한 모습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 *존더반 그림 성경 백과*는 회막의 평면도를 잘 제시하고 있다(*ZPBE* 제 5 권 573 쪽을 보라).

## 단어와 구의 연구

### 개역개정 35:1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35:1 “온 회중을 모으고” 이것(BDB 874, KB 1078, *히/플* 미완료형과 *와우*)은 이스라엘을 일컫기 위하여 종종 사용한 명사인 *카할*에서 유래한 동사이다. 이 용어는 70 인역에서 가져와 신약에서 사용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기초를 이룬다. 특별주제: 교회(*에클레시아*)를 보라.

▣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이 동사(BDB 845, KB 1010, *피/엘* 완료형)는 일곱 번 사용되었다(참조, 출 35:1,4,10).

▣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문장은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 이상의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즉, 출 35:4,10 에 같은 동사가 나옴을 주목하라).

### 개역개정 35:2-3

2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35:2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이 안식일 규정은 창 2:1-3 에 처음 나오지만, 이 날의 신학적 중요성은 출 20:8-11 과 신 5:12-15 에 있는 십계명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 규정은 출 31:12-17 과 민 15:32-36 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 매주 안식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주목하라.

1. 거룩한 날이니
2.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3.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참조, 민 15:32-36)

이것은 심각한 계명이다.

**35:3** 이 절(출 16:23 에서 이 내용을 시사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출 35 장에 독특한 내용으로서 추가된 본문이다. 이 절은 “일하다”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랍비들이 행한 수 많은 논쟁의 기초를 이루었다. 십계명의 모든 내용 및 출애굽기의 앞 부분에 이미 나오는 바 십계명과 관련을 가진 제한조건을 출 35:2 과 35:3 절이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개역개정 35:4-9**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5**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6**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과 염소  
털과 **7** 붉은 무트인 수양이 깎은 털과 흰 양털이 깎은 털과 **8** 갈색 양털과 **9** 붉은 양털과 **10** 양털과 **11** 양털과 **12** 양털과 **13** 양털과 **14** 양털과 **15** 양털과 **16** 양털과 **17** 양털과 **18** 양털과 **19** 양털과 **20** 양털과 **21** 양털과 **22** 양털과 **23** 양털과 **24** 양털과 **25** 양털과 **26** 양털과 **27** 양털과 **28** 양털과 **29** 양털과 **30** 양털과 **31** 양털과 **32** 양털과 **33** 양털과 **34** 양털과 **35** 양털과 **36** 양털과 **37** 양털과 **38** 양털과 **39** 양털과 **40** 양털과 **41** 양털과 **42** 양털과 **43** 양털과 **44** 양털과 **45** 양털과 **46** 양털과 **47** 양털과 **48** 양털과 **49** 양털과 **50** 양털과 **51** 양털과 **52** 양털과 **53** 양털과 **54** 양털과 **55** 양털과 **56** 양털과 **57** 양털과 **58** 양털과 **59** 양털과 **60** 양털과 **61** 양털과 **62** 양털과 **63** 양털과 **64** 양털과 **65** 양털과 **66** 양털과 **67** 양털과 **68** 양털과 **69** 양털과 **70** 양털과 **71** 양털과 **72** 양털과 **73** 양털과 **74** 양털과 **75** 양털과 **76** 양털과 **77** 양털과 **78** 양털과 **79** 양털과 **80** 양털과 **81** 양털과 **82** 양털과 **83** 양털과 **84** 양털과 **85** 양털과 **86** 양털과 **87** 양털과 **88** 양털과 **89** 양털과 **90** 양털과 **91** 양털과 **92** 양털과 **93** 양털과 **94** 양털과 **95** 양털과 **96** 양털과 **97** 양털과 **98** 양털과 **99** 양털과 **100** 양털과

**35:5**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이곳에 두 요소가 제시됨을 주목하라. 언급하고 있는 장식품은 이집트 사람들로 부터 취했던 물품이다(참조, 출 3:22; 11:2; 12:36). 그 물품이 금송아지 사전에서는 죄의 커다란 원천이 되었지만(출 32 장), 이 본문에서는 회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사실은 물질의 신학적 중립성을 나타낸다. 물질이 악한 것으로 되거나 선한 것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곳에서는 장식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게 된다.

▣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것이 자원하여 드리는 물품이었음을 주목하라(참조, 출 35:5,21-22,26,29). 우리는 출 36:2-7 을 통하여, 히브리 사람들의 후한 마음을 인하여 모세가 헌물을 멈추도록 명해야 했음을 본다. 그들이 회막의 건축에 참여하기 원했음을 이 사건은 나타낸다. 회막은 야웨(거룩하심)와 그의 백성(거룩하지 않음)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열쇠가 되었다.

▣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이것은 값어치가 많은 것에서 시작하여 낮은 것으로 제시하는 목록이다. 놋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었다.

**35:6**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 색이 정확히 어떤 색을 가리키며 고대 세계에서 사용한 색이 어떠한 색이었던지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거룩한 색체를 보라).

1. “청색”이라는 용어(BDB 1067)는 “보라빛 청색”을 의미하는 아카디아어로 보인다
2. “자색”이라는 용어(BDB 71)는 “붉은 보라색”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로 보인다

3. “홍색”이라는 용어(BDB 1040)는 벌레의 몸을 으깨어 만든 염료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색들은 기본적으로 붉은 빛이 도는 보라색을 뜻한다. 이 색들이 서로 얼마만큼 달랐으며, 또 서로 얼마나 가까운 동의어를 이루었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이러한 종류의 모호성이 보석의 색에서도 나타난다.

**특별주제: 고대 근동에서의 거룩한 색채**

고대 근동세계에서 이 색이 정확히 어떤 색을 가리키는가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 언어와 시대에 따라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출 25:4 에서는 회막과 대제사장의 옷에 사용한 특별한 몇 가지 종류의 색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1. “청색”이라는 용어(BDB 1067, KB 1732-3)는 청색, 보라, 자주색을 의미한다. 이 색은 연체동물에서 취하였고, 페니키아 사람들이 처음 사용하였다.
2. “자색”이라는 용어(BDB 71, KB 84)는 붉은 보라”을 의미하며 아카디아 어근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35:7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각목(특별주제: 조각목을 보라)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점은 흥미롭다. 이것은 단단한 재질을 가졌으며 향기가 나는 목재로서 사막 지대에서는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였다. 이 나무가 흔한 나무인 것이 사실이라면, 왜 해달의 가죽처럼 다른 나라에서나 구할 수 있는 재질이 요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이 실제로는 단순히 가죽을 무두질하는 공정에서 가죽이 붉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해달의 가죽”(특별주제: 해달의 가죽을 보라)도 사실상 가죽제품을 전반적으로 일컫기 위해 사용하는 이집트의 용어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용할 것을 명하신 재료는 이상하고 독특한 재료가 아니었고 그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다. 또한 이 가죽 재료는 장막의 바깥쪽에 있는 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색 염소 털로 된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막’을 넣어 옮기기 위한 특별한 가죽 가방을 뜻할 것이다.

**35:9 “에봇”** 이것도 정확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용어이다. 구약의 어떤 곳에서는 이것이 우상을 가리킨다(참조, 사 8:27).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였다(참조, 삼상 23:9-11). 여기서는 옷감을 짜서 만든 조끼를 뜻한다. 이 조끼의 특별한 점은 어깨 위에 두 개의

보석이 있는데 각 보석에 여섯 지파의 이름이 있었고, 이 조끼 앞쪽에는 금사슬로 연결시킨 “판결의 흉패”(특별주제: 대제사장의 흉패를 보라)가 있었다. 흉패의 앞에는 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진 특별한 보석들이 있었다. 흉패의 뒤에는 우림과 둠뭉(특별주제: 우림과 둠뭉을 보라)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었다. 우림과 둠뭉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였다(참조, 출 28:6-30 에서 자세한 설명을 보라). 특별주제: 에봇을 보라.

### 특별주제: 대제사장의 흉패

이 장식품은 출 25:7 에서 처음 나온 후 28:4 에서 언급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 28:15-30 절에 나온 후 출 39:8-21 에서 재언급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열두 지파의 소중함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의 이름이 흉패에 있는 보석에 각각 새겨져 있었다. 흉패는 아론의 심장 위에 위치하였다(출 28:29). 이것은 출 28:15,29,30 에서 “판결의 흉패”(BDB 365 와 BDB 1048 의 합성)로 불린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우림과 둠뭉을 가리킨다.

이것의 양식은 다음과 같았다

1. 에봇과 같은 색으로 됴, 출 28:15
2.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함(한 뼘은 새끼 손가락 끝에서 엄지 끝까지의 간격임), 출 28:16
3. 세 보석을 네 줄로 배치하였는데, 지파의 이름이 각각 다른 보석에 새겨짐, 출 28:17-21
4. 두 금 사슬로 흉패와 대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어깨받이의 금테와 연결시켰다, 출 28:22-

20

### 특별주제: 에봇

에봇(BDB 65, KB 77)은 원래 아마로 만들어진 제사장의 의복으로서 몸에 꼭 끼는 옷을 가리킨다(즉, 삼상 2:18; 22:18). 특별한 종류의 에봇을 대제사장이 입었다(즉, 출 25:7; 28:6-35). 우림과 둠뭉이 흉패 뒤에 있는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흉패는 에봇의 앞에 부착되었다(참조, 출 28:30).

### 특별주제: 우림과 돛뭍

이 두 단어는 출 28:30 에서 처음 나오는데, 국가(후에는 왕)가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가리키고 있다(참조, 레 8:8; 민 27:21; 신 33:8; 삼상 28:6; 스 2:63; 느 7:65).

이 용어의 유래와 관련을 가진 셈족어 어근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전통적 설명에 의하면, 이 단어가 다음 사항과 관련을 가진다.

이 두 가지 물건은 대제사장의 흉패 뒤에 있는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이것은 제비를 던져 신탁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즉, “예” 또는 “아니오”를 새겨 넣은 돌, 참조, 70 인역의 삼상 14:41).

### 개역개정 35:10-19

<sup>10</sup>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sup>11</sup>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sup>12</sup>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sup>13</sup>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sup>14</sup>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sup>15</sup>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sup>16</sup>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sup>17</sup>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35:10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성막의 건축을 위해 헌물하도록 모든 사람이 장려를 받았으며, 모든 사람이 그 건축을 위해 수고하도록 장려를 받았다. 그렇지만 출 35:30,34 을 통하여, 아주 특별히 은사를 받은 기술자가 그 과정을 이끌었음을 본다.

**35:11 “성막”** 영어의 회막(tabernacle)은 라틴 벌케이트역에서 왔다. 히브리어로는 단순히 “재연합의 천막” 또는 “만남의 천막”(BDB 1015)이다. 이 부분에서는 회막의 가장 안쪽에 있으며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그 다음에는 바깥쪽에 있는 다른 여러 기구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 **“천막과 그 덮개와”** 이것은 열 폭으로 되어 있었다. 안쪽의 장막은 대략 13.5 미터 x 4.5 미터의 크기였다. 출 27:6-11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막에는 염소 털의 안쪽에 있는 중간 막이 있었고 바깥 쪽에는 가죽으로 된 막이 있었다(참조, 출 26:12-13). 이 장막의 안쪽은 ‘정사각형으로 된 지성소’와 ‘바깥쪽에 위치하여 직사각형 모양을 가진 성소’로 구별되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성소 안에는 성스러운 세 가지 가구가 있었다.

**35:12 “중거궤”** 이것은 노아의 방주를 뜻하는 “궤”나 아기 모세를 놓아 둔 바구니를 뜻하는 “궤”와는 다른 히브리 단어이다. 이 용어는 “궤”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궤의 정확한 크기는 “규빗”이라는 단위가 가진 애매함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략적으로 가로 1.2 미터, 세로 0.6 미터, 높이 0.75 미터의 크기였다. 이것은 조각목에 금을 입힌 궤였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스러운 물건인 십계명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만나 향아리를 담은 아주 거룩한 궤였다. 특별주제: 언약궤를 보라.

▣ **“그 채와”** 궤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 저곳으로 이동할 때에 레위인들이 멜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채가 있었다. 요단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는 이 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였다.

▣ **“속죄소와”** 이것은 “덮다”를 뜻하는 히브리 용어(특별주제: 은혜의 보좌를 보라)에서 왔다. 이곳은 민족적 회개의 날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린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참조, 레 16 장). *케루빔*으로 불리는 작은 두 천사의 날개가 중앙에서 서로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두 천사의 날개 사이에 거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룹”이라는 용어(특별주제: *케루빔/그룹*들을 보라)는

“중보자”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다. 이 천사들에 대하여 에스겔 1 장과 10 장 및 계시록 4 장에서 약간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하나님께서 사시는 장소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여겼다(참조, 시 99:5).

▣ “그 가리는 휘장과” 이것은 언약궤 바로 앞에 있는 휘장으로서, 장막의 안쪽 삼분의 일에 위치한 지성소(즉, 완벽한 정육면체, 참조, 출 26:31-37)를 따로 구분하여 놓은 휘장을 가리킨다.

**35:13 “상과 그 채와”** 이것은 그 위에 진설병을 놓는 상을 가리킨다(특별주제: 진설병을 보라, 참조, 출 25:23 이하). 이 떡은 대략 1.1 kg 에서 1.3 kg 의 무게를 가졌다(참조, 레 24:5). 이 떡을 매주 새 것으로 교체하였는지에 관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다. 이 열 두 덩어리의 떡이 각각 한 지파를 나타내었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상은 북쪽에 놓았고 일곱 개의 잔을 가진 등잔대는 남쪽에 놓았다(참조, 출 26:35). 전통적으로 사람이 동쪽을 바라보며 섰는데, 이 상태에서 그의 왼손 오른손 등은 각각 남은 방향을 의미하였다.

**35:14 “불 켜는 등잔대와”** 이것을 뜻하는 히브리 구는 “메노라”로서(특별주제: 등잔대(메노라)를 보라), 이에 대한 설명이 출 25:33 이하에 자세히 나온다. 이 특별한 등잔대에는 일곱 개의 잔이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의 등잔대에는 열 개의 잔이 있었다. 중앙의 줄기의 양 옆으로 세 가지씩 있었다. 양 옆에 있는 각 가지에는 세 개의 알몬드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고 중앙의 잔에는 네 개의 알몬드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다(출 25:33-34).

알몬드 나무는 그 계절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이다. 매일 24 시간동안 등잔대에 불을 켜는지 아니면 밤에만 켜는지는 알 수 없다. 등잔대는 성소로 불리는 장막의 일부를 환하게 하였다.

**35:15 “분향단과”** 이것은 안 쪽 휘장 바로 앞에 놓은 작은 분향단으로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출 30:10 에 나온다(특별주제: 분향단을 보라). 이 분향단 위에 매일 여러 종류의 향료를 놓아 장막 안에 향기가 나게 하였다. 속죄일에는 연기가 지성소를 가득차게 함으로써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보아 죽는 일이 없게 하려고 많은 양의 향료를 이 단에 놓았다. 이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솥은 큰 번제단에서 가져왔다.

▣ “성막 문의 휘장과” 이것은 바깥쪽의 휘장으로서 성소와 바깥뜰을 구분지었다. 안쪽 휘장에는 그룹들의 그림이 있었지만, 이 휘장에는 출 26:36-37 에서 설명하듯이 그러한 그림이 없었다.

**35:16 “번제단과”** 이것은 회막의 문 바로 앞에서 동편을 향하여 있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출 27:1-18 에 나온다(특별주제: 번제단을 보라). 당시에 이것은 0.7 m<sup>2</sup> 크기였는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훨씬 더

커졌다(대하 3:1). 제단의 네 뿔은 매우 거룩한 부분이 되었다(참조, 출 30:10; 레 4:7,18, 25,30). 이곳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으며 또 이곳의 솥을 가져다가 분향단에서 사용하였다.

**35:17 “뿔 문의 휘장과”** 이것은 회막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휘장을 가리킨다. 출 30:17-21 에서 자세히 언급한 물두멍에 대하여 이곳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은 흥미롭다.

**35:19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출 28:1-3,31-39 에 나온다. 여기서는 단순히 이러한 내용의 요약으로서 제시된다. 겹옷과 관과 어깨 띠에 대한 언급이 없다.

#### 개역개정 35:20-29

<sup>20</sup>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sup>21</sup>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sup>22</sup>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sup>23</sup>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sup>24</sup>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sup>25</sup>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뻥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을 가져왔으며 <sup>26</sup>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sup>27</sup>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sup>28</sup>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35:21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것은 이 일이 자원함으로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성령의 초자연적인 이끄심이 함께 하였다(참조, 출 35:5,21-22,26,29).

#### 개역개정 35:30-35

<sup>30</sup>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sup>31</sup>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sup>32</sup>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sup>33</sup> 보석은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되 <sup>34</sup> 또 그아 다 지파

**35:30 “여호와께서...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사람은(출 35:34 에서 언급하고 있는 오홀리압과 더불어) 특별한 은사를 가진 기술자로서 회막 전체에 대한 일을 책임졌다. 한 명은 유다 지파에서 왔고 또 한 명은 단 지파에서 왔음을 주목하라.

**35:35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지 않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격언의 핵심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돕도록 부르셨지만, 두 명의 특별한 사람을 부르사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일을 지도하고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사용하사 일하시는데, 전체의 참여와 소수 전문가의 역할이 서로 균형을 이루게 하신다.

## 생각할 질문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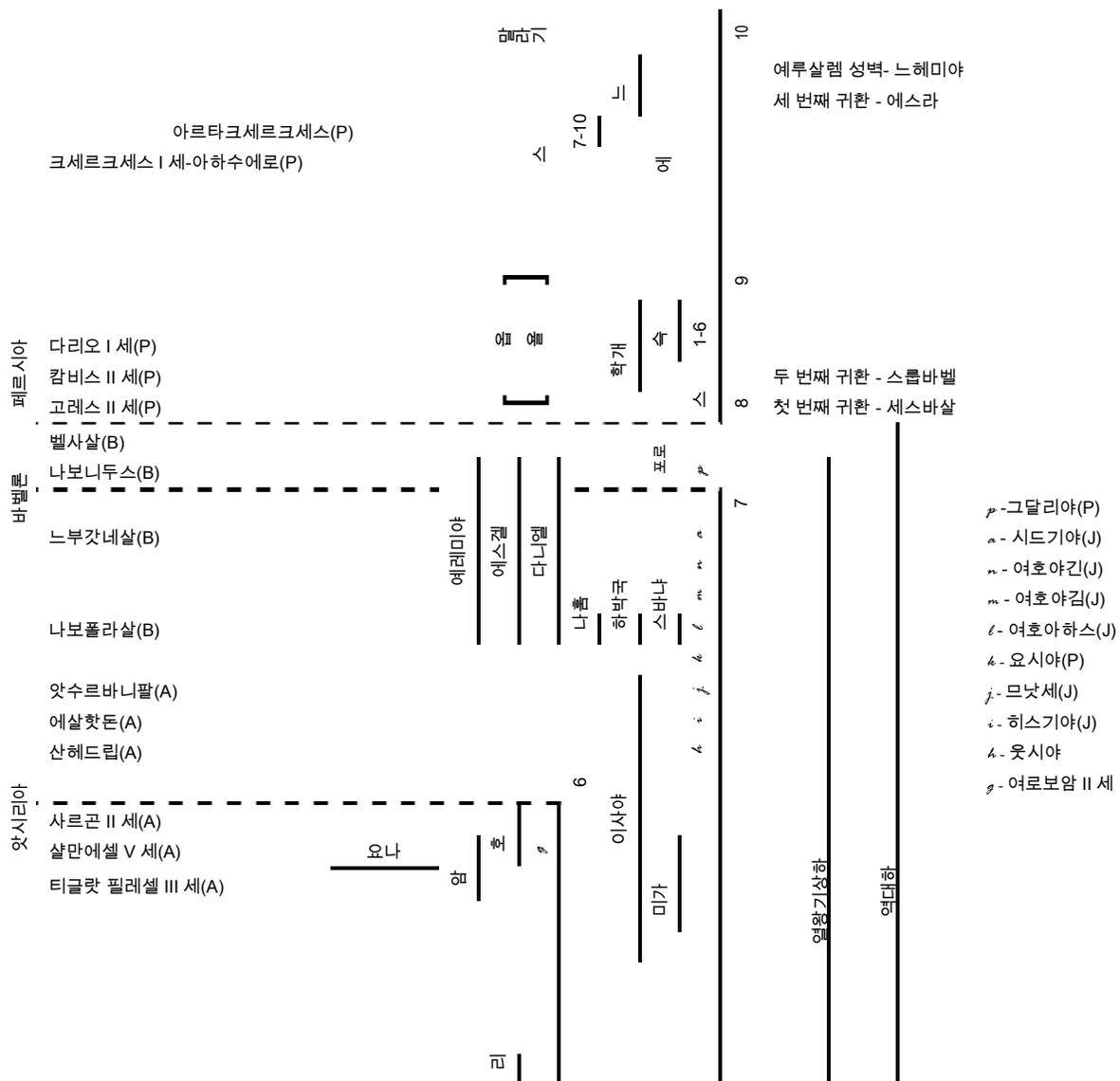
1. 출애굽기 25-31 장에서 나온 내용이 왜 출애굽기 35-40 장에서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가?
2. 회막에 대하여 이렇듯 자세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3. 우리는 이 회막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고 있는가?
4. 여러 귀금속과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내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5. 당신은 성막과 관련하여 나오는 여러 기구에 대한 모습을 이해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경 사전이나 성경 백과를 펴 본다면 도움을 받을 것이다.



## 부록 I

### 구약 전체의 연대표

(다음 페이지에 있음)





- |                           |          |
|---------------------------|----------|
| 5. 분열왕국(르호보암-여로보암 I 세)    | 주전 922 년 |
| 6. 앗시리아에게 사마리아(이스라엘)가 멸망함 | 주전 722 년 |
| 7.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유다)이 멸망함    | 주전 586 년 |
| 8. 돌아가라는 고레스(페르시아)의 칙령    | 주전 538 년 |
| 9. 성전 재건                  | 주전 516 년 |
| 10. 구약시대의 마침(말라기서)        | 주전 430 년 |

## 왕의 계보

### 가. 통일왕국

1. 사울(a)
2. 다윗(b)
3. 솔로몬(c)

### 나. 이스라엘

1. 여로보암 I 세(e)
2. 아합(f)
3. 여로보암 II 세(g)

### 다. 유다

1. 르호보암(d)
2. 웃시야(h)
3. 히스기야(i)
4. 므낫세(j)
5. 요시야(k)
6. 여호아하스(l)
7. 여호야김(m)
8. 여호야긴(n)
9. 시드기야(o)
10. 그달리야(p)

### 라. 앗시리아

1. 티글랏 빌레셀 III 세(745-727)
2. 살만에살 V 세(727-722)
3. 사르곤 II 세(722-705)
4. 산헤립(705-681)
5. 에살핫돈(681-669)
6. 앗수르바니팔(669-663)

### 마. 바벨론

1. 나보폴라살(626-605)
2. 느부갓네살(605-562)
3. 나보니두스(556-539)
4. 벨사살

### 바. 페르시아

1. 고레스 II 세(550-530)
2. 캄비스 II 세 (530-522)
3. 다리우스 I 세(522-486)
4. 크세르크세스 I 세(486-465)
5. 아르타크세르크세스(465-424)

## 부록 2

### 교리적 선언

나는 믿음의 어떤 특별한 선언이나 신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나는 오히려 성경 자체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나는 믿음의 진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교리적 입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수 많은 신학적 오류와 속임을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의 신학의 간략한 요약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성경은 초자연적 인도하심아래 사람에게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와 그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자료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하시고 창조주 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는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진실로 분리되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 똑 같으시다.

3.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창조에 대한 그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 계획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식과 허락없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또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그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미리아시는 것은 인간이 이미 쓰여진 각본을 따라 사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없는 상태로 지음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택했다. 비록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의 반역은 인류와 창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담과 우리가 함께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의지로 반역한 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한다.

5.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용서와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죄없는 삶을 사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교제를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가 성취하신 일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

6. 우리 각자는 예수님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제안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결심과, 자신이 알고 있는 죄로부터 결심하고 떠남으로써 이루어진다.

7.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둔 우리의 신뢰와 죄의 회개에 기초하여 완전히 용서받고 회복됨을 누린다. 또한 이렇게 새로와진 관계의 증거는 변화되었고 또한 계속 변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하늘에서 있을 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비록 때때로 죄를 짓게 될지라도 믿음과 자백을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할 것이다.

8. 성령은 “다른 예수님”이시다. 그는 잃어버려진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을 받을 때에 주어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세와 동기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성령이 활동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이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9. 성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그는 온 인류를 심판하기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의 재림 때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하거나 자세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맛을 여러분께 주리라 기대한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본질적인 내용에는—일치를, 그 외의 것에는—자유를, 모든 일에 있어서는—사랑을”